

2021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

인터뷰 및 채록에 참여하신 분들

- 천안동남구문화원 김현정, 이형우
천안서북구문화원 이정우, 김세관, 김용순
공 주 문 화 원 이결재, 이해정, 임장묵, 최병숙
보 령 문 화 원 황의호
은 양 문 화 원 안종은, 정종미
서 산 문 화 원 홍태한, 서유석
논 산 문 화 원 권선옥, 박용신, 홍미경
당 진 문 화 원 남기은, 김남석, 윤성익, 이종미,
장수덕, 박찬렬, 노용민
금 산 문 화 원 박광수, 장정변, 최우진
부 여 문 화 원 오문선, 라연재
서 천 문 화 원 유승광, 노영미
청 양 문 화 원 임호빈, 김현락, 김기상, 김민수
홍 성 문 화 원 유환동, 김정현
예 산 문 화 원 박광수, 강흥순
태 안 문 화 원 정낙추, 오희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조연, 강주진

2021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

일러두기

이 책은 '2021 충청남도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만난 144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각 시군에서 고연령층 8인 이상의 구술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대화를 채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구성하였다.

구술자는 모두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 속의 국가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삶을 일구어 온 토박이들이다. 평생 고향을 지킨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살려 삶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왔지만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증언한다.

- ※ 책의 수록 순서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5개 시군별로 나누고, 구술자는 채록 순임
- ※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기획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모집하여 인터뷰하였음
- ※ 역사, 민속, 향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구술자 면담 후 본 책자의 원고를 작성함
- ※ 구술자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021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



발간사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문화원연합회와 15개 지방문화원 임직원들의 사명감으로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현들의 정신문화, 생활문화를 충남의 문화로 발전시켜 문화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충남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은 선조들의 얼이 담긴 잊혀져 가는 지역별 향토사료를 구술채록을 통해 발굴해 기록과 영상으로 남겨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면에 지금 이순간이 아니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칫 잊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역사문화의 현장이기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향토사료 발굴, 보존 등 지방문화원의 본연의 임무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업은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남도문화원연합회와 15개 지방문화원 원장님들과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신데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지방문화원들은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자칫 사라질수도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건 또는 현장을 찾아 구술해 주실 어르신들을 만나 영상으로 촬영 편집하고 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지방문화원 임직원들은 선현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향토사료를 발굴 보존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 주셨습니다.

사명감 속에 올해 구술채록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주신 15개 지방문화원 관계자와 문화원이 없는 계룡시 지역 구술채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제연 박사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근현대 구술채록에 흔쾌히 응해 주신 구술자 여러분들과 면담자, 촬영 및 편집, 녹취관계자를 비롯한 올해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문화원마다 더욱 구술 및 보존가치가 높은 주제를 발굴 알차게 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충남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역사문화를 되살려 생활문화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충남, 문화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내 15개 지방문화원과 힘을 모아 선현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정신문화 계승을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도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문화1번지 살기 좋은 문화충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유 환 동**

축 사

세 번째 충남 근현대 구술 채록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지역에 구술로 전해오는 근현대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지역 원로로부터 듣고 기록하는 구술채록 사업이 올해도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충남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내고자 흔쾌히 구술채록에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에 수록되어 있는 수몰된 마을 이야기, 사라진 옛 국민(초등) 학교 이야기, 옛 장터와 사람들 이야기 등 하나같이 너무 주옥같고 생생하여 마치 그 시절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원로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역 역사를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현대를 살아온 도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충남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술채록은 구술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새로운 해석이지만, 구술자의 해석을 담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에, 오늘 시점에서 그 시절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향토민속자원의 발굴·보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충남의 역사를 만들고 보존하는 일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구술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채록 작업의 시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맥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록된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하여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채록에 정성을 다해주신 각 시군 문화원 관계자와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발간사 • 4

축사 • 6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문화원·김재삼 • 14 천안동남구문화원·김윤식 • 17 천안동남구문화원·김평응 • 21 천안동남구문화원·김태현 • 24 천안동남구문화원·김정집 • 28 천안동남구문화원·김태동 • 31 천안동남구문화원·김남응 • 33 천안동남구문화원·김좌응 • 37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금지로, 열정으로 이어온 성환표구사 • 42 시간이 멈춘 '역전 쌀 상회' • 46 200여 권 동화책 동화 속 50년 세월 • 50 입장만세운동을 지켜본 130년 된 근대 건축물 • 54 연극 인생, 외길 50년 • 58 고즈넉한 풍광 농촌정미소 • 62 취원각의 어제와 오늘 • 66 어제를 그리워하는 협성이용원 • 70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대통령의 손자 며느리감 • 76 일제의 처녀 공출 때문에 • 80 한국전쟁, 피난골에서 생긴 일 • 84 길쌈 이야기 • 88 친정보다 편했던 시댁살이 • 92 20식구의 대가족 큰 며느리 • 96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킨 가정 • 100 500리 길 걸어서 보름만에 길지(吉地)로 이사를 하고 • 104



보령시 보령의 바다

조잠포구와 삼현리의 생활 • 110 의식마을에서 새우젓굴을 처음으로 판, 유준근의 손자 유궁수 • 115 간척마을로 이주한 항일의병 후손의 생활 • 119 가송구지마을의 옛 생활 • 124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마동의 옛 생활 • 128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한여마을의 옛 생활 • 132 신보령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송도마을의 옛 생활 • 136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고만마을의 옛 생활 • 140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여수해마을의 옛 생활 • 144 송도마을의 배치기와 상엿소리 • 148 증산리의 덩장 • 153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예안이씨 가문의 정성을 먹고 태어나는 전통 약주 외암연엽주 • 158 집안 전통의 막걸리 맛을 이어나가는 아산양조장 • 161 우리민족의 애환과 고난을 극복하며 탄생한 짚동가리 술 • 164 술쟁이의 누룩사랑으로 빚어낸 둔포 생 막걸리 • 167 지극정성이 빚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을 19도 탁주 이가수불 • 170 청정수로 만든 전통 발효식품 신선도 막걸리 • 173 옛날 궁중방식의 누룩을 만들어 탄생한 아산의 명주 수수리 계양주 • 177 가업으로 이어지는 음봉막걸리 • 180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물된 마을 이야기

성암저수지가 남긴 명암 • 186 애뜻한 내 고향 산수리 • 191 전원주택 단지로 변한 고풍리 • 195 개심사와 삼화목장의 마을 • 199 저수지의 푸름이 좋은 신송리 • 203 풍성했던 마을의 그리움 • 207 연꽃도 키우고 정자도 세웠으면 • 211 생태공원 조성의 방향성 • 215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논산 초등교육을 이끌어온 산 증인의 이야기를 듣다 • 220 교직과 행정에서 꽃을 피우다 • 225 지역 사회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든다 • 230 교육의 본질, 인성교육을 실현하다 • 234 모두가 행복한 학교 • 239 신뢰와 소통이 가져온 발전 • 243 정성을 다해 가꾸는 건양대학 • 248 교육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 교육현장을 꿈꾸다 • 253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두계다방 • 260 호남선 역전시장 • 266 합판정미소 • 272 합판상회 • 278 광명이용원 • 285 계룡시 요일장 • 291 신도반점 • 296 아랫장터 국숫집 • 302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섬 포함)

현대제철의 건설로 사라져 가는 마을, 송산면 가곡리의 흔적과 회생 • 308 휴게소로 바뀐 섬, 행담도 • 313 웅포의 과거와 현재 • 316 육성으로 듣는 푸레기 마을 변천사 • 320 무수동 마을의 변천사 • 327 수청리 마을의 변천사 • 331 풍요로운 어장과 넘치는 인정을 자랑하던 성구미 이야기 • 335 간척과 방조제 건설로 인한 도비도의 변화와 주민생활 • 340

금산군 금산의 직업

미용 • 346 어로 • 350 기물(늘싼기물) • 354 양조 • 359 목상(산판) • 364 이용 • 368 종 제작 • 373 사진관 • 378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너그러움으로 마을 부녀자들을 이끌었던 새마을부녀회장, 구능수 • 384 마을 창고를 지어 마을 공동의 재산을 일군 새마을지도자, 김기복 • 389 저수지를 논으로 일구어 마을 재산을 만든 새마을지도자, 김진선 • 395 부여 새마을운동 행정의 살아있는 역사 전 부여군청 새마을과장, 송광섭 • 401 품이 넓은 제1대 부여군 새마을부녀회장, 송명자 • 408 봉사정신과 쾌활함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임천면 새마을부녀회장, 오순동 • 415 마을 사람들의 신임이 준 책임감으로 새마을운동의 길을 걸은 새마을지도자, 이서규 • 419 아홉사리 고개를 전부 일궈서 길을 낸 새마을지도자, 조중성 • 424 틀림없는 사람이 걸은 새마을지도자의 길, 황의찬 • 430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아직도 들풍장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 438 어린애 업고 배 땀까지 40년 • 443 건강한 유부도 지킴이 • 447 우리 자산인 금강하구를 지켜야 • 451 돈 나올 데가 바다밖에 없이유 • 455 그 많던 갈게가 다 어디로 갔는지 • 459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 여성 객주 • 463 금강하구, 막는 것보다는 터야 한다 • 468 도르뫼, 참그이가 물고 안 뇌쥬요 • 472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공부 못한 한이 씨꺼덜게 가슴에 쌓였유 • 478 서당교육의 씨앗이 '효인성교육' 1급강사를 만들다 • 482 수줍음 많은 동안의 소년 • 486 글 소리 나면 배고프기 마련이쥬 • 489 송조목족(崇祖睦族)을 실천하다 • 493 칭찬이 성균관 부관장을 만들었어요! • 498 문학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한 사람 • 502 학자풍의 진지한 농사꾼 • 506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대하초등학교와 광천중학교 대하분교의 옛 모습 • 512 용호초등학교의 옛 모습 • 517 덕명초등학교의 옛 모습 • 520 광남초등학교의 옛 모습 • 526 대평초등학교의 옛 모습 • 529 광신초등학교의 옛 모습 • 535 가곡초등학교의 옛 모습 • 538 광성초등학교의 옛 모습 • 542 오서초등학교의 옛 모습 • 544 산수초등학교의 옛 모습 • 549 학계초등학교의 옛 모습 • 552 반계초등학교의 옛 모습 • 555 양성중학교의 옛 모습 • 559 상황초등학교의 옛 모습 • 561 천수초등학교의 옛 모습 • 564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문화원 • 572 예산문화원 • 576 상업 • 579 예산문화원 • 583 한국 동란과 신앙 • 586 예산의 고인돌과 임존성 수레길 • 590 임존성과 봉수산 • 595 대흥지역 • 598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연포항의 간자미와 주꾸미잡이 • 604 모항항의 연평도 조기잡이 • 609 마검포 백합양식과 활꽃게 수출 • 613 흑도(거무섬)의 어업과 생활상 • 617 안흥·신진항의 어업과 생활상 • 622 대련장사와 전복 해녀 배 사업 • 626 꽃게잡이와 안흥항의 변천사 • 631 황도 중선배와 뱃소리 문화 • 635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문화원·김재삼	14
천안동남구문화원·김윤식	17
천안동남구문화원·김평응	21
천안동남구문화원·김태현	24
천안동남구문화원·김정집	28
천안동남구문화원·김태동	31
천안동남구문화원·김남응	33
천안동남구문화원·김좌응	37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재삼 (195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부족하지는 않았던 시절

1955년생, 양띠 김재삼은 병천면 가전리에서 3남 5녀 중 하나뿐인 남동생에 앞서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아버님은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농사일도 돕고 가정일에도 충실하였다.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의 교육에 부단히 애를 쓰신 기억에 또렷하다고 한다.

그 시절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다지만, 김재삼의 집안은 농사일에 머슴을 부릴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았던 삶이 엮보인다.

유년기의 성장속에서 성격은 내성적이었지만, 소소한 소설가의 꿈도 잠시나마 고민했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나에게 각별한 존재였다.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다.

1993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102세까지 장수를 하시다,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자식들의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공부를 잘한 누나가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형편이 넉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어머니께서는 농사일을 거드는 머슴들에게도 한없는 온정을 베푸시는 분이셨다.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근처로 캠핑처럼 기분전환도 시켜주셨던 우리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와 당신의 온화한 성품이 우리가족과 지금의 나 김재삼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김재삼의 자식들과 그의 손주까지 이어지는….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싶다. 어머니가….

학생시절과 사회시절

김재삼의 인생의 배경은 학생시절과 사회시절로 나뉜다.

태어나서 대학을 진학하기 전까지 병천면에서 성장기 삶에 대해 김재삼을 돌아본다.

김재삼은 병천초등학교, 병천중학교, 병천고등학교를 나온 병천면의 토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공부욕심이 있었다. 그 시절 취업 1순위 고교인, 천안공고에 합격했지만, 개인사정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천고등학교를 들어갔다. 속상해서 술을 왕창 마셔봤다. 3일 동안 숙취에 고생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교대를 진학하기에 이르렀다. 교직 공무원으로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인생일인가.

사회시절에는 병천이 아닌 경기·인천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병천면에 계속 거주하고 계셨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 한 켠에 잔재해 있었다.

안동김씨와 백전문화원

김재삼은 안동김씨의 후손이고, 병천면 가전리 집성촌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었다. 가전리 그곳은 안동김씨의 집안들만 모여사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김춘갑 할아버지께서 귀향을 와서 터를 잡은 계기가 시초라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창평이씨 할머니의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아, 거대한 안동김씨의 집성촌이 생성되었다. 추후에 현재 문화원의 모태인 백전문화원이 설립되는 계기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 시절 문화원은 현재의 문화원과 사뭇 다르게, 문화예술보다는 아이들 교육 위주로 문화원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가난했던 시절에 먹고사는 것이 첫째요,

교육은 뒷전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전문화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성장기 교육발달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현재 김재삼의 직업은 농부이다.

수십년 간 교직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기독교인 이지만 풍수지리학에도 조예가 깊은 그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이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싶었나 보다.

어릴 적 뛰어놀던 산이 있고, 흙이 있고, 시냇물이 있는, 고향 가전리로 돌아왔다. 사랑하느 어머니께서 눈을 감기 전 평생을 보내시던, 그 자리에 그와 배우자가 돌아왔다. 고향이 좋다. 가전리가 좋고, 어릴 적 뛰어놀던 문화원이 좋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봉사도 하기 위해 돌아왔다.

올해 초, 취임한 김윤식 문화원장과의 친분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문화원에 자주 출입을 하다보니 옛 백전문화원 시절이 아련하게 생각난다.

어릴 적 천자문을 가르쳐주던 훈장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서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아, 괜스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이제는 문화원 명칭도 그때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그렇지만 1958년도부터 60년 넘게 지역민들과 쪽 함께해왔던 문화원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마치 그가 다시 찾아온 가전리(상백)고향처럼 말이다.

현재의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이 아직도 건재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다.

혼자 속으로 한마디를 내뱉어 본다.

‘내 고향 이곳으로 돌아오길 너무 잘했다.’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윤식 (1946년생)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대가족과 해방동이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3남 2녀.

김윤식은 그렇게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안동김씨 집안의 맏아들로서, 일제의 강점 속에서 벗어나는 해방동이로, 1945년에 병천면 가전리에서 태어났다.

특히나 증조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이토록 기뻐하신 적이 있을까. 조국의 해방이 그 이유도 이유였겠지만, 너무나 귀하고 예쁜 증손자가 해방과 맞물려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어둠을 지나 밝은 세상이 도래했을 때,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증조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순간이다.

어렸을 적, 증조할머님은 엄하셨고, 할아버지는 유교사상에 가정일과 농사일에는 다소 소홀하셨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지독한 생활력으로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며슴들에게도 대우를 잘하셨다.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가정일에 신경 쓰시는게 다소 부족해보였다. 하지만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말은바 일들은 잘해내고, 열심히 일하는 인생을 사신 분이시다.

어머니는 경기도 화성에서 시집을 와서, 서당을 운영하며 유학과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문에 박식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동네 아녀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녀들의 친절으로 보내는 문안편지를 모두 도맡아 대필을 해주곤 하였다. 그 당시 유교사상에 입각한 여자들의 문맹율은 남자들과 매우 편차가 컸기 때문에, 온화하신 어머니의 마음 씀씀



이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평생동안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신 어머니가 100세까지 장수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음악과 교육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성장기에 세상 모든 아이들은 흥미라는 단어에 반응을 한다.

중학생 김윤식의 바램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학교 교육의 뒷바라지 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이었다.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다.

고등학교까지도 어렵게 졸업했던 김윤식은 대학을 가고 싶었다. 그 시절 대학을 가려면 땅이나 소와 같은 값비싼 개인 재산들을 처분해야만 가능하였다.

고향에서 양조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였다. 교육자였던 고모부(공주고등학교 근무)께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공주로 와서 하숙을 하며 공주교대로 진학을 제의하였다.

당시, 공주교대는 학자금이 국립대로서 사립대학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숙식을 고모부댁에서 해결이 가능하였기에, 그는 고향을 떠나 공주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고모님의 큰 도움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대학졸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교육자로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41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3남매를 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100세까지 장수하실 수 있도록,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진심을 다해 돌봐드렸다.

어릴 적, 음악을 꿈꾸었던 그 소년 김윤식은, 노년에 와서 이제야 동아리 활동과 악단의 일원으로서, 그 꿈을 맘껏 펼치고 있다.

집성촌(가전리)의 역사

김윤식은 안동김씨 백전종중의 집성촌이 된 가전리의 역사를 매우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 조선시대(연산군-중종) 중기 썸,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각종 사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은

우리의 역사서적에도 기록되어 있다. 사림파 중 김충갑(안악군수/서울)할아버지는 ‘양재역 벽사사건’에 휘말려 가전리 이곳에 귀향을 오게 되었다. 당시, 수신면 장산리쪽(가전리 잣밭)으로 추측된다. 수신면에는 능참봉이라는 벼슬을 지낸 창평이씨 이성춘이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분의 외동딸과 충갑할아버지께서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평이씨의 거대한 재산을 물려 받았다.

그리고 자녀는 다섯을 두었는데, 그중 할아버지의 3번째 아들이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다. 참고로 언급하지만, 김시민장군의 삼촌 김제갑장군도 왜란 중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구암공(총갑)의 5남이신 교관공의 아드님(휘인, 평, 변) 들은 경서와 한문에 전심하였으며, 특히 면은 당대의 김만중, 황종해 등과 교유하였다. 1800년대 초에는 후손 백곡공(득신, 김시민장군의 손자)할아버지의 후손들과 김만중, 황정해의 후손들과도 교류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1800년대에는 후손들이 구암연보도 제작하고, 문집도 발간하여 학문·도덕·경서 등의 기틀 마련을 위한 활동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도 근현대 시대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한 위인과 그들의 활동을 이어져 왔다.

총렬사와 문화원

총렬사는 위인을 모시는 가전리에 있었던 사당이다. 1824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다.

김충갑공, 충무공 김시민장군, 백곡공 ‘득신’(김시민장군 손자), 죽계공 ‘계종’, 가전리 거주는 아니지만 학자인 한양조씨 조명 선생까지, 이렇게 여섯 분에 대한 제향을, 이곳 총렬사에서 1년에 1번씩 지내었다. 매년 제향을 지내 왔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1864년)으로 인하여 이곳 총렬사도 부득이하게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총렬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선조들의 열정에 불타는 학문과 도덕적 터전이 되고 문화적 기틀을 세웠던 총렬사가 사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1958년에 백전문화원이 설립되었다. 건물의 형태는 목조건물에 흙을 바르고, 작은 창문이 빼곡히 있었다. 지붕은 함석지붕으로 강당과, 취사가 가능한 별채가 작게 분리되어 있었

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 시절의 문화원을 운영하는 예산은 초대원장(김태영)개인 재산 및 종중의 재산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추측한다. 정확히 1970년대 어느 시점에 현재의 병천리 위치로 옮겨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건물은 폐건물로 몇 년 동안 방치되다가 종중에 의해 철거되었다. 현재는 마을공동체의 밭으로 활용중이다.

문화원은 어려웠던 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학생들의 교육적 역할과 출입하는 구성원들과의 친목도모의 역할도 했다. 20여 년 가까이 가전리 내에서 백전문화원이라는 명칭으로, 교육·문화·오락 등교류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초기 문화원세대의 추억은 학교생활의 추억만큼 소중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와, 지역과, 지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편향적이 아닌, 공익적인 문화원의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그 길과 방향을 잘 설정하여 본원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백전문화원

김평응은 병천면 가전리 집성촌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물렀다.

1947년생의 그는 첫째로는 누나를 두고, 셋째 남동생과, 넷째 여동생, 다섯째 여동생, 막내인 여섯째 남동생까지, 총 6남매 중 둘째이자 집안의 장남이었다.

할머니는 기억이 나지만, 할아버지의 대한 기억은 없다. 조부모는 슬하에 외동아들이자 김평응의 아버지(성함:김상준)를 낳았다. 1923년생인 아버지는 농사일을 해본 적의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향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가정보다는 본인의 주관과 의지가 항상 앞섰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터는 김평응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려 한다. 왜냐하면, 본원(현재의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의 시초인 백전문화원의 최초 설립자 중에 한명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시절 체신학교 라는 전문학교를 마치고, 지금의 경기도 시흥 소재인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지만 얼마못가 6·25전쟁이 발생하였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피난길에 이르렀는데, 그 피난길은 대구·부산 등 객지생활을 하면서 지내 셧던 걸로 기억이 난다.

이런 어렵고 궁핍한 가정상황에서, 동면사람 전주이씨 어머니(성함:이범순, 1921년생)께서는 정말이지 지독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였다. 육남매를 어머니가 키운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 평 응 (1947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다니기도 하였다. 얼마나 힘겨우셨을지 장남 김평응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 진다.

1952년 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이르자. 아버지는 고향인 병천면 가전리로 돌아 오게 된다. 돌아오고 난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신걸 알았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근처에 계신 고모의 도움을 받아 6남매의 생계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병천에 단 3개밖에 없었던 사진관을 차리게 된다. 사진기술은 어디서 배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객지생활을 여러군데 전전하면서 익힌 기술로 김평응은 조심스레 유추했다.

그 시절 사진관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 어느 정도 살림형편이 나은 집안이 아니면...

그때는 사진관의 주된 고객과 업무는 결혼식 혹은 환갑잔치, 학교 졸업사진 등의 촬영이었다. 아버지는 손재주도 좋았다. 향나무 액자를 프레임으로 삼아 페이퍼를 끼워 그림을 그린 후, 촬영된 사진을 조화롭게 꾸며서 액자 사진의 시각적 또는 질적인 차이점을 두었다.

아버지는 김상온이라는 분과 자별하게 지내셨다. 그 분은 집안의 재력도 좋은 편이어서 김평응의 아버지와 함께 문화사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설립을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초대원장으로는 그 당시 병천면장이고 대학교까지 졸업했고, 주민들의 신뢰도 받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김태영 초대원장을 위촉했던 걸로 보인다.

그 두 분이 친밀하게 지내셨던 것은, 양측의 할아버지들께서 당신들의 세대 때부터 동네 일의 품앗이도 같이 하고, 서로를 잘 챙기고 살아온 환경이 자연스레 이어져온 덕분이다.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합심한 그들은 예전 창신학교 건물을 문화원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백전문화원이라는 간판을 게시하게 된다. 그렇게 문화원이 탄생되었다.

김평응은 창신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들은 것이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중 꽤 오래전에 사라진 교육기관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될 뿐이다.

김평응이 기억하는 백전문화원의 초기 활동사업은,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집결시켜서, 다양한 교육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 교사의 역할은 그 당시 몇몇의 대학생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다. 대학교 까지 진학한 대학생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은 문화원측에

서 교육의 댓가로 약간의 보상받았을 것이다.

문화원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은, 영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영화나 뉴스를 상영했다는 점이다. 영사기는 김평응의 아버지가 직접 서울로 상경하여 구입해온 것이다. 직접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백전문화원은 교육과 영화상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병천리로 문화원사가 옮기게 되었다. 이전하게 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군대 입대한 이후부터는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인데, 원사 이전 이후에 대한 문화원 이야기는 백전문화원 시절만큼 알지 못한다.

다만, 이전한 문화원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주민들을 위하여 영사기를 활용해 영화방영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료로 상영하는 관람비를 소액 받았다는 정도이다. 이는 주변 학교 학생들의 취미활동으로까지 연결되었는데, 학생들의 계몽교육에도 문화원이 일부분의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김평응은 문화원에 바라는 점이 한가지 있다고 했다.

그것은 다수의 역대 문화원장님들도 중요하지만, 문화원을 설립하고 초기에 이끌어 나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인물의 사진을 기록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1958년 그 시절에, 문화원을 설립해서 문화사업을 지역에서 펼쳐나가자고 제의한 김상온 어르신 사진만큼은, 문화원에서 잘 기록해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태현 (1939년생)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3대 독자

할아버지·아버지·아들, 이렇게 3대까지 내려온 귀한 아들을, 우리는 흔히 3대 독자라고 말한다.

김태현이 바로 귀한 3대 독자로 1939년 병천면 가전리 상백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께서는 한학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셨고, 글만 읽으셨던 분이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김태현의 어머니, 즉 며느리를 굉장히 아끼고 예뻐하였다. 아버지는 선비도 아니었고, 농사꾼도 아니었다. 목천에서 안동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온 어머니는 벼를 짜고 농사를 지어 집안의 형편이 유지되도록 고생을 많이 하였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양가 집안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 중간에서 역할도 하시느라 마음 고생도 많으셨다.

부모님께서서는 그 시절 3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었는데, 바로 그해 아버지께서 집을 짓자마자 김태현이 출생하였다. 그의 형제는 여동생이 1명 있는데, 여동생은 10년 후에 또 다시 집을 짓자 부모님께서 바로 또 여동생을 갖게 되었다.

김태현은 현재 천안시 청수동에 거주하고 있다. 퇴직 후에 아버지께서 지은 그 가전리 집터에서 집을 짓고 살고자 했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하였다.

김태현은 어머니의 기억이 특별하고 각별해 보인다. 어머니는 남에게 잘 베푸시는 분이었고, 피해를 주는 사례도 없었다. 시아버지를 잘 모시었고,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도 시아버지의 밥만은 따뜻하게 준비하는

사랑스러운 성품의 며느리였다. 어머니 생각에 어린시절의 김태현이 떠오른다.

공부의 길

김태현에게는 1살 많은 고종사촌이 있었다. 사촌과 같이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다. 한학에 능통하신 할아버지께서는 배움을 항상 강조하셨다. 그래서 김태현과 그의 사촌은 명심보감과 맹자까지 읽었다. 조부께서 약간 사촌을 더 어여삐 여기시는 듯하여, 어린마음에 천자책을 묶어서 김태현 스스로 다시 배우기도 하였다. 공부의 길에 들어서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김태현은 병천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녔다. 지금이야 고등교육이 기본이지만, 1940년대 사회상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도 굉장한 교육혜택을 받은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기억에 남는 스승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6학년 담임선생님의 다채로운 교육방식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아마 그 선생님의 교육방식은 현대사회의 획일화된 학교문화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중학교는 원래 병천지역에 없었는데, 때마침 지역의 학부모들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벽돌을 나르고, 땅을 고르며, 갖가지 노력 등으로 병천중학교가 설립되었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노동을 하였다. 어렵사리 졸업한 중학교 이후에 병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 시절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정도면 병천과 그 지역주변에서는 소위 성골이라 불리울 정도였다. 신체의 발육상태가 더 왕성해진 김태현은 평소 흥미가 있던 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병천고등학교에서 배구부로도 활동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북대학교 체육과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가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후 꾸준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졸업도 수석으로 하였다. 그래서 학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교육의 길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 졸업반이던 김태현은 1963년 4월에 천안고등학교로 처음 교직발령을 받았다. 4학년 교생실습으로 교내 체육행사도 원만하게 치르면서 3개월 만에 수습도

마무리하게 이르렀다. 그렇지만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로 방향 설정을 하고 정교사 시험을 통과하여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1988년 대전시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교육자로서 승진을 위하여 선물이나 누구를 찾아가 부탁을 한번 한적 없는 청렴함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다.

청렴한 삶을 신조로 하는 그를, 동료들도 좋게 보아온 모양새다. 교육청 장학사 발령에 이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장이 된 것이다. 김태현은 겸손하게 말한다. 운이 좋았다거나, 윗사람이 좋게 봤다거나. 겸손하게 말하지만 업무 능력과 실력이 없는 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년시절의 문화원

1939년생인 김태현, 1958년생인 백전문화원.

그가 딱 20살 되던 해에 백전문화원이 그의 고향 가전리에서 설립되었다.

지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카메라나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그였다. 가리방을 긁고, 등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고등학교시절 어느 한 사진관에서 동네 소식지를 제작하는 어르신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성함은 김상준. 김상준은 문화원 설립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손꼽힌다. 농촌지역이었지만, 흔치 않는 사진관을 열고, 그곳에서 동네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어디 집안 자녀가 학교를 입학했더라, 누가 자녀를 출산했다더라, 등의 내용이였다. 김태현의 기억에는 그 어르신은 글씨도 잘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재치도 넘쳤다고 한다. 김상준의 사진관에서 김태현의 취미가 생겨난 것이다.

카메라 다루기와 사진 촬영이 그것이다. 그 시절 소수 그룹이었던 대학생의 신분으로, 방학 기간에 고향에 돌아와 문화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난다. “양심껏 사람답게 살자”라는 강의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초등·중등학교 학생들이, 한때 동네에서 놀았던 형으로만 느꼈던 김태현대 학생을 보면서, 학업과 장래의 꿈을 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태현은 사회생활로 인하여 백전문화원 이후에 원사 이전 시기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 농촌 작은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대학생으로서의 존재만으로, 꿈만 희망과 미래를 심어준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정집 (195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보령에서 천안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김해 김씨 김정집의 조부님의 고향이다.

이곳 보령은 조부님께서 부친까지 낳으셨고, 부친은 이곳 보령 웅천에서 초등학교까지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였다. 부친이 10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는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자연스레, 부친은 병천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이런 과정으로 김해김씨 김정집은 자연스레 병천지역에서 터를 잡게 되었다.

부친께서는 이 지역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하시다가, 공무원직도 수행하였다. 그런 찰나에, 아우내중학교가 설립되어, 중학교 교사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하였고, 이후 교감으로 퇴임하였다. 이 부분은, 본 문화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약 10여년 가까이 문화원장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부친의 성함은, 김준기 원장이다. 아우내문화원(전신)시기에는 향토문화연구소장도 하시고, 지역의 향토서적발간에도 다수 기여를 많이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천안지역 또는 병천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사회생활은 천안시청에서 10여년 근무를 하였고, 공직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하여 고향인 병천에서 농사생활을 시작하였다.

백전문화원에서 병천문화원으로

1958년에 가전리에서 설립된 백전문화원은 언제쯤 병천리로 이전이 되었을까? 김정집은 놀랍게도 정확히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1962년에 병천리로 그 당시, ‘병천공관’이라고 불리던 건물로 이전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가전리에 있던 백전문화원보다 더 크고, 넓은 공간이 있는 건물이었다. 그 넓은 공간에는 음향시설과 당시에 최고의 시설로 보이는 설비들이 구비된 듯하였다.

그 곳에서는 이전 문화원이 실시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양이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화상영 등.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의 영화상영은 주변 동네를 순회 하면서 천막을 치고 상영해주었다. 반면에, 병천리로 이전 후의 문화원에서는 넓은 강당안이라는 공간의 이로움 때문에, 실내에서 상영을 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병천문화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이후에도, 안동김씨 백전종중 인물들의 문화원장 지위는 1970년까지 이어져 갔다(9대 원장 김상준 원장)

문화원의 변화

문화원이 병천면의 면소재지로 이전을 하면서 문화원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병천문화원이라고 불리던 문화원은 1964년에 ‘천원문화원’으로 설립 허가와 법인 등기를 내었다. 이것이 문화원 최초의 법인 등기라고 보여진다.

‘병천공관’이라고도 불려진 문화원은 지역 초등학교와의 연계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 건물이 문화원보다 낙후되어, 학교에서 행해지던 학예회·옹변대회·노래자랑 등이 대관 형태로 치러졌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회계몽적 영화상영도 일정 비용 및 현물 등을 받고 상영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학생들과 밀접한 역할을 한 문화원의 활동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1970년이 도래하면서 문화원의 수장인 문화원장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1958년 백전문화원을 설립한 안동김씨 백전종중에서 문화원장을 1대~9대에 걸쳐 역임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기관과 기관장이 되길 바라는 맞물림 때문인지, 10대 원장부터는 종중사람

이 아닌, 병천면장을 맡고 있는 지역면장이 문화원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공직자인 지역의 면장이 문화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원장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원은 1982년 다시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참고로, 명칭의 변경은 3번이나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천안군문화원’으로, 4년 뒤인 1995년에는 ‘아우내문화원’으로, 그로부터 16년 뒤에는 ‘천안시동남구문화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1984년도에 그가 농기계 활용법 때문에 방문한 문화원의 기억은 이렇다.

2층이 아닌 1층 건물이었고, 농촌지도소와 경로당이 있었고, 문화원은 사무실 한 칸 정도의 공간뿐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상영도 사라졌다. 1980년대에는 사설 영화관의 증가와 다양한 여가생활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소멸현상이라고 추측이 된다.

문화원의 현재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이 채워진 2021년.

“많이 변했다.”

김정집은 과거의 문화원을 회상하면서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우내문화원 시절부터는 지자체에서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다. 백전문화원 시절이 첫발을 떼었다고 표현한다면, 아우내문화원 시절은 걸음마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천안지역 3개(그 당시) 문화원들이 어려움을 한고비 겪은 만큼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만큼 쇠신의 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달라진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 문화원장과 임원의 선출 방식과 자격,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의를 하는 강사의 수준, 또 강의를 듣는 시민들의 교양과 소양 등. 인적자원들이 변화하였다. 그 밖에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행사들과 프로그램 등. 그는 말한다.

문화원에 바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전통·향토·지역 등에 대한 계발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계발은 커녕 위축만 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가 문화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허를 찌른다.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태동 (1954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그의 고향

김태동은 농사꾼의 아들 아버지 김완응과 어머니 박정구 사이의 아들로 가전리 460번지 잣밭에서 태어났다. 그는 병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고,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롯데삼강, 코오롱 등 요즘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회사생활도 경험하였다.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는데, 이 시절을 제외하면, 병천에서 천안에서 계속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다.

고향에 온 계기는 있다. 직장생활 보다는 목장을 하고픈 꿈이 있었다.

천안시 수신면 지역에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선산이 있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성향으로 인하여, 그는 그곳에서 소를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리조트가 개발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참으로 속상하다.

그 이후엔 도매업으로 ‘금강토건’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사업에도 제법 잔뼈가 굵은 사회활동을 해왔다. 고향에 대한 동경과 애착은 그 누구보다 남다른 그다.

백전문화원

천안지역에서 문화원은 백전문화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다음으로 천안시서북구문화원(옛 성환문화원)이 설립되고, 마지막으로 천안문화원(현재 법인취소)이 설립되었다.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에는 시·군·구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두어야 한다. 천안은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3개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천안문화원이 10여 년 전까지, 활동을 멈추기 전까지는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그의 백전문화원에 대한 기억은 길지 않다. 괴산군수를 역임하신 훈장 노부부께서 밤낮으로 지역학생들에게 한문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그 가난한 시절에는 쌀이나 보리로 교육의 댓가로 지불했다고 한다. 훈장 노부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서당이 없어졌다고 한다.

백전문화원이었던 오래된 건물은 문화원이 병천리로 이전되면서, 몇 년간 방치된 채로 있다가 1970년대에 없어졌다고 한다.

문화원장

초대 문화원장 시절부터 9대 문화원장을 역임한 김상준 원장까지, 안동김씨 백전종중에서 원장의 역할을 꾸준히 하였다. 1958년 백전문화원 시절부터 1970년 천원문화원 시절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지역민이 원장을 맡았다. 그의 기억은 정확했다. 지역면장이 대대로 문화원장을 하면서, 문화원의 명성도 조금씩 상승했었다고 기억을 한다.

게다가,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현재도 보수가 나오지 않는 명예·봉사직이다. 그 당시 문화원장은 삶의 여유가 없는 자는 맡기가 힘든 자리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김태동은 문화원장이라는 지위가 지역에서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물욕과 함량이 부족한 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발생하는 폐단을 걱정한다.

타 문화원의 상황이나 이야깃거리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문화원은 아직도 병천공관이 라고 불리었던 어린시절 놀이터와 같이 편안한 곳이기도 하다.



양조장집 아들

김남응은 1935년 부친 김상돈의 4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김상돈은 경기도 도청 공무원을 하셨다. 해방이 되면서 서울에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고향인 병천 가전리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농촌지역으로 오게 된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병천에 있는 양조장을 인수하였다. 사업 수완이 꽤나 탁월했던 그의 부친은 사업이 잘되었다. 연천의 전곡양조장도 경영하고, 지금의 아산지역의 둔포 양조장도 경영하면서 재산을 꽤나 축적하였다.

후에 병환으로 별세하였지만 부친과는 달리 모친께서는 그 시절 꽤나 장수하신 편이었다. 여동생이 3명이나 미국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젊은 시절 뒷바라지와 농사일만 하시던 모친께서는 미국에서 90세의 연세로 별세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한문공부의 중요성만큼은 철저하게 강조하였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피난을 오는 시점에, 박문수어사(현재의 복면은지리 소재)의 7대손 박남희 선생께 한학교육을 받았다. 신문지에 붓글씨를 배운 것이 김남응이 평생의 삶 중에 손꼽힐 만큼 잘한 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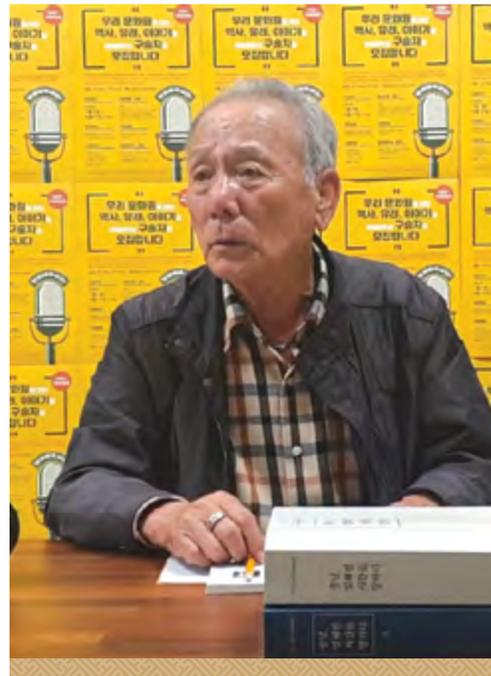
김남응은 초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장충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학교는 서울사범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6·25발발로 인해 고향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당시 천안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천안농업고등학교만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 남 응 (193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존재했었다. 한학과 사서삼경, 붓글씨를 배운 시기가 이 시절이다. 그래서 농업고로 편입을 하여 1년 반 정도를 재학하다가 졸업을 했다. 대학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집안형편과 학업성적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불문학과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부촌 가전리

김남응은 교육자이다. 그는 대학교 졸업할 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현재의 병천면 가전리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부락 중 한곳이다. 그렇지만 옛날의 가전리는 병천면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최고의 부촌으로 불리었다. 부촌이었던 것만큼, 다른 부락보다 교육의 열정과 분위기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교육자 또는 공무원 출신이 많이 배출되었다.

유독 병천면에서 가전리가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 이야기를 꺼내야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쯤, 김시민 장군의 아버지께서 서울서 관직을 하시다, 수신면 장산리로 귀향을 가는 도중이었다. 현재의 가전리 잣밭 둥구나무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지켜보는 모습에 반하여 본래 귀향지로 가지 않았다. 그 여자와 혼인하여 이곳 가전리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본래 이 지역에서 그녀의 아버지 이성춘은 부유한 집안이었다. 딸의 혼인과 함께 지역의 모든 재산을 사위에게 물려주게 된다.(이성춘은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

그 재산들이 안동김씨 제학공파의 세거지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이다. 조상의 은덕을 잊지 아니하고, 안동김씨 백전종종의 후손들은 매년 현재도 외손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문화원과 아우내중학교

그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회상해 본다. 그 시절 그 옛날의 백전촌을...

너무나도 많고 깨끗했던 냇물, 1급수에만 산다던 송사리 떼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어죽도 해먹었던 그 시절. 친구들과 물놀이와 목욕을 했던 곳, 냇가 너머 동네에서 참외·수박 서리하던 곳, 고운 모래뿐이었던 보드라운 백사장에서 추억이 가득했던 그 곳. 그렇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아련한 추억이 되어 버린 기억뿐이다. 지역사회가 급변하게 발전하면서, 건설자재에 필요한 모래를 퍼가고, 하천에 보를 세우게 되더니 자연스레 자연경관은 그 옛날과 180도 바뀌어 버렸다.

그는 그곳에 백사장의 냇가와 같이 가전리의 문화원에 대한 설립배경과 기억을 막힘없이 묘사하였다. 그 시절 병천 지역의 생활은 열악함 그 자체였다. 그래서 지역의 근대화 분위기 조성을 꾀하는 분들이 계셨었다, 그가 기억하는 김이호, 김세응 외 7-8명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 분들이다.

그들은 옛 청신학교 건물을 회합장소로 이용하며 여러번 회의를 했다. 자금의 필요성과 출처에 대한 세세한 협의를 했다. 그 당시 백전정미소에서 쌀을 약 150두 정도 걷어서 문화원 설립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후에, 쌀로 거둔 자금이 310두 정도였었다고 한다.)

5대 문화원장을 역임했던 그는 학교설립을 결심했다.

원래 교육자였던 그는 문화원장직을 맡는 동안 문화원에 출입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부분에 힘을 쏟았다. 그 시절 중학교 진학도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기도 하였지만, 병천 지역에 중학교가 한 곳 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

부친의 양조장 터 중, 약주공장터와 막걸리공장터에 번갈아가면서 천막을 쳤다. 가르치던 학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비만 오면 천막과 노트와 책이 젖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집 두채를 모두 팔고 병천 도원리에 아우내중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당시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 본인의 사비로 교사들의 인건비까지 해결해야 했으니, 존경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하다. 운동화 없이 고무신만 신고 다니던 학생들에게, 사비를 털어가면서 운동화까지 지원해주었던 교육자의 모습을, 요즘시대에서는 과연 찾을 수나 있을까?

중학교를 타인에게 넘기도 난 후, 학교는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적 역할은, 과거를 지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변천과정을 항상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그는 현재의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을 보면서 뿌듯하다고 한다. 더 성장의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병천면에 국한되어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많은 천안 지역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다양한 활동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천안동남구
우리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안동남구 문화원



김좌응 (1951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무니미덕의 증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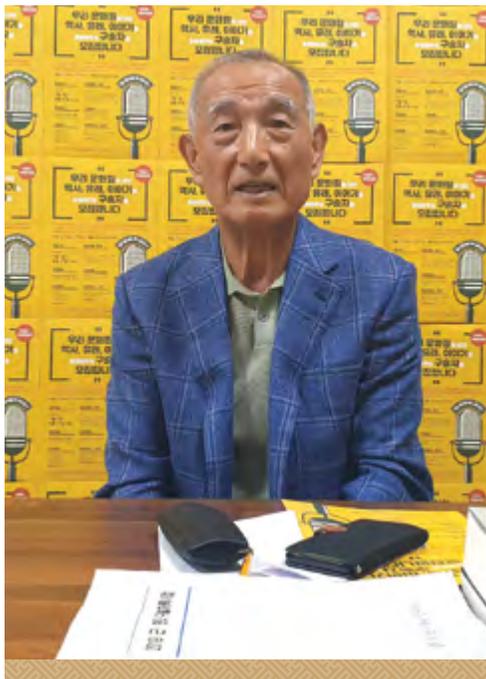
1950년. 우리민족역사의 아픔이었던 그해, 김좌응은 가전리 608번지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100일 전이라고 한다. 김좌응의 집안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다. 그는 가전리 고향에서 7살까지 병천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서울 미동초등학교, 중동중학교, 한양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학업능력도 뛰어났다. 부친(김상기)께서는 일찍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조부께 물려받았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30여년간 재직하였다.

당시 조부께서는 청주농고 2회 졸업을 하였는데, 담배를 취급관리하는 전매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 또, 증조부께서는 한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과거를 준비하시다가, 근현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증조부(김영철)의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인하여 목천향교의 전교로 지냈다고 한다. 그 당시 선각자로 불릴만큼 후손들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증조부라고 김좌응은 확언을 하였다.

증조부 뿐만 아니라, 천안시 안서동의 위치한 증조모(홍승의)의 택호인 ‘무니미덕’은 어린시절 김좌응의 핵심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릴 적 어느 장소를 가도 무니미덕의 증손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통용될 단어로 유명하였다. 장래 희망



이 의사였던 그는 의대진학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양공대에 진학하여 제법 다양하고 멋진 사회경력을 영위해 나갔다.

장교에서 귀향까지

대학을 진학한 김좌응은 ROTC로 중위 만기 전역을 하였다. 군대 전역 후, 20대 중·후반인 시점에 그 당시 방림방적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 영어에도 능통했던 그는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였다. 방림방적이 오늘날의 주식회사 방림이다.

방림의 해외법인으로는 방림홍콩과 방림아메리카가 있었다. 김좌응은 그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기에 방림아메리카 뉴욕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여러 유명 브랜드와의 계약을 성사해 나갔다.

장기간의 화려한 섬유업계의 사회생활을 마치고, 약간의 개인사업을 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31일, 60세의 마지막 날, 주소지를 현재의 고향 가전리로 이전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기에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쩌면 7대 종손인 그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삶의 곡선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고향에서의 12년째 농사의 삶이 그는 행복하기만 하다.

고향땅이 주는 크나큰 자부심

좋은 기억과 좋은 체력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김좌응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그의 고향은 그렇다.

노년이 되어버린 그는 어린시절의 좋은 기억들로써 크나큰 자부심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문화원도 있다. 백전문화원이 있던 가전리는 다른 주변 지역들보다는 부유한 편이었다. 그래서 인지 먹을 것도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다고 한다. 고향의 풍경 지금 한번 그려본다.

음력 7·7이면 부침개와 전병을 만들어서 나눠먹던 모습, 팽과리도 치고, 씨름도 하면서, 큰 가마솥에는 개장국을 해먹던 기억도 있다. 단오 때에는 동네 아녀자들이 넓은 마당에 나와 그네를 뛰고, 창포로 머리도 감았던 모습을 본 기억, 추석명절이 지나고 가을추수가 끝

나면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고사를 지내던 풍습,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를, 그리고 동네 단합대회 형식으로 풍물놀이를 하면서 시루떡도 나눠먹던 풍습 등. 이런 모습을 지금은 찾아 보기 힘들지만, 김좌응이 기억하는 고향의 풍경은, 그의 어린 시절 최고의 추억으로 손꼽힌다.

8살에 전학가기 전, 문화원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본다.

가르치시는 분들은 대학생 혹은 선생님이 계셨었다. 교육은 간단한 한문교육과 구구단도 배운 기억이 있다. 그리고 백전종종의 역사에 대한 교육도 있었다.

기본적인 교육의 핵심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기억하는 편이었다. 충효사상, 경로사상, 조상숭배, 씨족친목도모, 지역사회 발전과 현주소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화원에서는 지역 위인에 대한 교육도 잊지 않았다. 김시민, 유관순, 조병옥, 이범석, 이동녕, 김구, 김구응, 김상철(독립운동가, 면장), 한희석(당시 국회 부의장) 등.

그때의 문화원, 지금의 문화원

여름철 화창하고 맑은 풍경보다는, 비오는 날의 옛 문화원 풍경을 떠올려 본다. 그 때, 우비도 없고, 우산도 없던 시절, 비를 그냥 맞고 다니던 시절이다.

겨울이 되면 양말도 없이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지금은 흔해 빠진 도시락을 싸오던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김좌응은 그렇게 어렵던 그 시절의 문화원을 떠올려본다. 오랜만에 문화원에 들른 그는, 어린 시절 놀이터로만 여겨지던 그 옛날의 백전문화원이 아님에 화들짝 놀란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노력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되어준 문화원이 고맙다. 그리고 60여년 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고, 여러 가지 요소의 밑거름 역할을 해준, 역사속의 관계자들과 현재의 문화원장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김좌응.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의 옛된 친구 같았던 백전 문화원을 수십년 만에 재회하였다. 2021년. 현재, 노년의 나이에 새로운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난(천안시동남구)문화원과 말이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금지로, 열정으로 이어온 성환표구사	42
시간이 멈춘 '역전 쌀 상회'	46
200여 권 동화책 동화 속 50년 세월	50
입장만세운동을 지켜본 130년 된 근대 건축물	54
연극 인생, 외길 50년	58
고즈넉한 풍광 농촌정미소	62
취원각의 어제와 오늘	66
어제를 그리워하는 협성이용원	70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공지로, 열정으로 이어온 성환표구사



이영자 (1943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이영자 씨(79세)는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 17대 후손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성환 울금리에서 거주해 온 토박이로 4대에 걸쳐 터전을 이어온 향토인이다.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부친 이종학과 달성 서씨 서만화 사이 4남 6녀, 10남매 중 4째로 태어났다. 선대가 이곳 성환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한양, 그러니까 서울이 본거지였던 가문으로 어머니 고향은 성환 양령리다.

성환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개화적인 부친의 영향으로 서울로 중학교 진학을 했다. 그야말로 이른 나이에 유학을 간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집에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이어졌고, 이때 그는 고학의 과정으로 서울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당시 부친은 양화점을 운영했다. 성환역 앞 지금의 감리교회 아래에 ‘한양양화점’이란 이름으로 점포를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은 부친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항일운동과 친일 배신자 척결을 주창하던 부친의 강인함과 의지 속에서 지역 내 소위 친일계열 토호 세력들의 노골적인 경계와 여러 방면으로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3살 위 오빠가 죽음을 당하고 언니가 몹쓸 짓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맞보아야 했다.

이 뿐 아니었다. 지역에서의 경계는 극에 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부의 정신과 기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생활에서 조금씩 지쳐갈 때였다. 그때 가업으로 이어오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장황은 넓은 의미로 서화를 지지해 주며, 장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풍이나 족자, 두루마리, 책, 첩, 액 등으로 꾸며진 서화를 ‘장황’된 서화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가장 근접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영자씨의 말에 의하면, 장황은 문중인 종실 사대부 후손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온 기술이라고 한다.

이를 습득한 그는 서울에서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제법 돈벌이도 됐고, 흥배나 화초장, 교지, 서화, 수묵화 등을 틀 안에 끼고 맞추는 일에 따를 자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고향 성환에서 거둬되는 집안의 어려움이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고, 20대 후반,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한달음에 고향 성환으로 내려왔다.

1986년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에서 하던 장황 기술로 성환 표구사를 열었다. (현재 위치인 성환읍 449-312) 이를 통해 그는 우리 전통 작품의 아름다운 장식과 보존, 전승에 관해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시각예술의 가치 보존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나름 자신만의 철학을 피력해 가며 장황 기술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그는 다리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세상을 보다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갔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민운동을 펼쳐 나간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과 환경이 절대 부족했다.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때다. 장애가 우선이 아닌 세상이었기에 그는 불이익과 몰이해를 향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장애아 부모들의 또 다른 아픔이라는 생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던 것이다.

충남장애인부모회 활동도, 인애학교 유치를 위한 맨몸의 투쟁도, 천안시장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일도, 모두 장애를 가진 모든 아들딸들의 내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권 교육시설 만들기에 나섰고, 제대로 된 장애아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때때로 공공 기관과의 언쟁과 투쟁이 이어졌고, 설득과 읍소를 반복했다.

결국 이 같은 활동은 1993년,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이루어 내는 보람을 만들게 된다. 그런 중에도 MBC인간시대를 통해 장애인부모의 고충을 드러냈고, 이와

관련 지역사회와의 일부 갈등으로 PD수첩도 촬영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고향에 대한 기대감과 부친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는 고향 성환에서의 삶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항구적인 일을 계획했다. 장애를 지닌 아들의 장래까지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누대로부터 이어온 장황 기술에 대한 자긍심에 더더욱 성환표구사 간판을 내거는 일에 기쁨으로 나섰다. 이때가 1986년 그의 나이 43살이었다.

향토의식 고취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 정립과 향토사 운동에도 관심을 쏟은 이영자 씨는 특히, 성환찰방이 이곳 성환에 위치했음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성환찰방은 천안이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이영자 씨는 천안 인근 12개 역(驛)을 거느리던 성환찰방의 역사적 의의와 향토적 자긍심, 올바른 고증을 통한 복구작업 등에 대해 남다른 식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업인 성환표구점과 전통찻집인 ‘소사’를 운영, 예술의 가치 보존과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자임해 나갔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다.

그가 지닌 장황기술은 나름 규격이 있고, 방식이 있고, 절도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반적으로 ‘표구’라는 용어로 사용된 장황은 서화와 서책을 보존하고 장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그저 흔한 표구기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인들의 관점인 화지나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 등을 아우르는 표구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장황기술을 간소화해 표구라는 액자 끼우기식 방법을 세상에 드러낸 오늘날의 기술은 온전한 전통방식이 아니다.

서화를 족자나 병풍, 두루마리, 혹은 책이나 첩 등의 형태로 꾸미는 표지장식이 진정한 장황이다. 이는 종이와 비단 같은 바탕재에 그려지고 표현되는 서화를 보다 오래도록 보존하고 보관, 수장하기 위하여 고안한 배접(裱接)하는 방법이다. 이영자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 장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식과 기교를 많이 쓰는 중국과 일본의 장황에 비해 조선시대 장황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특히 조선왕실에서는 많은 서화 유물과 기록물들을 왕실의 격식과 법도에 맞게 꾸미고 갖추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장황의 기술과 취향을 선도해왔다.”

서화의 내용이나 주제, 색감과 구성에 따라 외형과 주변을 어울리게 장식, 형태를 갖추기

위한 장황은 매우 엄격하게 기술이 발휘되어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나 색, 문양, 크기, 비율, 장신구 등을 다르게 하여 본연의 문화적 특성이나 미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장황이 가볍게 다루어질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황은 서화 창작의 마지막 완성 과정이다. 작가의 창작품에 소장자의 감식안과 장황사의 미적 기술이 보태져 비로소 서화 작품이 완성된다. 따라서 시대적 미감을 반영한 장황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적 수준 또한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네 선조들은 글과 그림을 오래 보전하기 위해 묵은 장황을 새롭게 고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의 예술품 보존의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장황은 오늘날 고서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의 이종석 원장은 강한 자긍심을 갖고 고향 성환에서 고집스럽게 장황기술을 발휘하는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정의롭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래서 귀담아 들은 이야기를 이번 구술 채록 사업에 활용코자 했다.

장황의 전통과 그 온전한 기술에 대해 문화적으로 조명되고, 계승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영자 씨의 남다른 전통 애호사상을 그의 구술로 채록해 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시간이 멈춘 '역전 쌀 상회'



신 용 신 (1939년생)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과거와 무관한 도시는 없지만 과거를 간직한 도시는 드물다. 사람들이 과거 흔적이 남은 도시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까닭도 한때 일상의 풍경처럼 곁에서 익숙히 보아왔던 건축물이나 장소를 추억하기 위함은 아닐까? 경부선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거기에 KTX 고속철도까지 통과하며 빠르게 변모한 도시 천안. 인구와 시세에서 충남 제1도시로 자리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뒷안길에 지워진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역전 쌀 상회를 찾은 일은 지금은 없어진 혹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의 연대기적 보고이다.

천안역에서 걸어 5분도 채 되지 않는 대흥로 249에 위치한 '역전 쌀 상회'. 현대식 간판, 현대식 상가들 사이에서 혼자만 오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나이든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이가 드물다. 주변 가게들의 간판은 요즘도 바뀌는데 간판도 가게도 참 오래되었다.

상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 뒤 2층으로 신축한 상회 건물은 한동안 주변에서 돋보이는 건물이었다. 많은 가게들의 명멸에도 상회는 60여 년 이상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페인트 벗겨진 미닫이식 문이나 문패로 보아, 세월의 두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가게다.

마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양한 품종, 크기의 쌀들과 잡곡을 판매하고 천안의 특산품 흥타령쌀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요즘 '쌀집'이란 단어 자체가 생경하게 들리는 시대임에도 오랜 추억과 믿음으로

아직도 이곳을 찾아 쌀을 사가는 단골들이 있다. 반질반질한 문설주, 추 저울 등이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싶다.

손때 묻은 주판이며 저울이며 각종 계량도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신다. ‘곡용1 데시리터’라고 새겨진 이 뒷박도 오랜 세월 쓰였나 보다. 이걸로 10번을 펴야 한 되가 된다고 한다. kg단위로 포장된 요즘엔 보기 드문 장면이다. 어르신은 “예전엔 자녀들 학용품을 마련하려고 아침 일찍 여길 찾아와 쌀을 팔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옛날을 회상하신다.

그 모습이 참으로 정겨워 보인다. 온화한 미소 속에 소박한 인정을 표정으로 새겨놓으신 어르신이 50여년 넘게 자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의자에 앉으시더니 지난 세월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신다. 그러다가도 어머니의 이야기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본시 연기 전동면이 고향이었던 신용신 씨. 일본에서 돈을 벌어 오신 아버지는 자신의 누님이 사시던 천안 동면으로 이주, 잡화상을 차리셨다. 하지만 부친은 그가 세 살 되던 해 장질부사로 세상을 떠셨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그가 가마니 달랑 깔아놓고 장사를 하던 그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어린 아들 데리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했던 어머니는 해방 후 천안역 앞 지금의 가게 자리를 확보하신 후 쌀장사를 시작하셨다. 쌀을 들이고 내면서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고 회상하신다. 그렇게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내어 천안초, 천안중, 천안농고, 연세대에 진학했던 이야기가 줄줄 흘러나온다.

1957년,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게를 헐고 처음으로 번듯한 2층 건물을 지었다. 당시만 해도 2층 건물은 흔치 않았다. 다방이나 주유소, 전파사, 양조장, 제과점 등 사이에서 역전 쌀 상회 간판이 우뚝 건물 위에 붙었다면서 당시의 광경이 마치 어제의 일인 양 선명하게 그려내신다.

“우리 쌀가게 뒤로 천안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지. 6,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이 천안에서 가장 변화했던 곳이야. 유명상표 옷가게, 구두점, 전자제품 매장, 책방, 음식점, 다방 등이 즐비하게 몰려 있던 곳이었어.”

그는 대학과 군대를 마친 후 서산과 청양, 아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쌀집을 홀로 운영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고, 외아들로서 지근거리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만 교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쌀 가게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순전히 호심의 발로였다. 그렇게 시작한 쌀가게 운영은 평생 그의 직업으로 굳어졌다.

역전 쌀 상회 주변으로는 유행과 최첨단과 규격화가 번뜩대는 문명의 현란함이 넘실대는 데,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애써 표정을 감추려 하는지 그곳 언저리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조화의 관계 속에서 묘한 매력 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실로 시간이 잠시 머물러 있는 가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보니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었던 천안역 광장에, 혹은 기차를 향해 오고갔던 수많은 발걸음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세월을 비껴간 그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1946년 일곱 살 어린 소년이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어머니와 함께 하던 쌀집은 이제는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09년 어머니는 외아들의 간절함을 뿌리치시고 먼저 세상을 하직했다. 그래서일까? 평생 어머니가 세상 밖을 바라보시던 바로 그 자리, 그 의자에 지금 아들이 앉아 지난세월을, 지난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다.

그에게 이 가게는 어떤 존재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신다.

“어머니의 분신이기에 효의 실천이지요.”

지극한 효의 실천자였던 그는 오로지 손님들에게 좋은 곡식을 전해주는 성실 하나로 세월을 버텨왔다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과거의 영화를 추억했다. 밤낮 없이 읍내에서 곡식을 이고 오던 손님들의 모습과 버스를 타고 이곳을 거쳐 간 손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잔잔하게 이야기를 펼쳐내신다. 1958년 모든 게 척박했던 시절, 쌀가게와 이웃하던 천안역 언저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대신하기도 하신다.

195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소방검침과 전기 안전검사 표식 등 세월의 흔적도 볼 수 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채부터 시작해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다양한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곡식을 고르는 노하우부터 보관하는 방법 등 세월의 경력을 직접 재현해 가며 설명해 주신다.

쌀을 보는 방법도, 작은 도구를 활용해 쌀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 해 보던 광경도 살폈다. 그러면서 오래된 저울과 술을 보면서 세월 속에서도 지켜낸 시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쌀가게는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믿기에 여전히 온다”는 그의 단골손님. 신뢰 하나로 오랜 세월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가 취급하는 30여 가지의 곡식을 만날 수 있음은 단골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한동안 천안에서 제일 규모가 있던 공익정미소에서 쌀을 들었는데, 이마저도 도심에서 밀려나 목천 신계리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그는 거래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쌀가게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아스팔트 도로가 불과 한 걸음 밖인데 어느덧 현대화가 실감이 난다.

그의 우직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손처럼 앞으로 이곳에서 끝까지 쌀가게와 함께하리라 여겼었는데, 최근 천안역사 개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에 묻혀 쌀가게는 2023년 내 사라지게 되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다고 한다. 단 한 번도 인생의 길에서 후회를 해 본적이 없다는 그는, 쌀 장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외길 인생을 걸으면서 다복하게 3남 2녀의 자손을 두었다. 치과의사인 큰아들이 어느새 환갑의 나이라는데 여전히 그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쌀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역전 쌀 상회’, 무려 75년 동안 쌀집이 이어져 왔고, 어머니의 손길에서 이어진 가게는 그의 손길에서 50년 세월을 지켜냈다.

문득, 그에게서 그간 변화해온 천안역전의 기억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여간 행복이 아닐 수 없다고 느꼈다. 특히 무엇 하나 오래되지 않은 것이 없는 이곳에 들어서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기에 더욱 그러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한다. 더도 말고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70년 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200여 권 동화책 동화 속 50년 세월



소 중 애 (1952년생)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저서 178권, 한평생 동화를 써왔다. 흥부가 스물다섯 많은 자식에 대해 얼버무리듯, 이제까지 발간한 저서가 몇 권이냐는 스토리텔러의 질문에

“저는 174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시하려고 모았더니 178권이더라구요.”

하고 멋쩍어하는 소중애 동화작가다. 흔치 않은 이름이라서 흔히 필명인 줄로 오해하지만, 작가의 아버님께서 손수 지어 주신 본명이다. 한자로 아이 重자에 사랑 愛를 쓴다. 게다가 성씨 또한 되살아날 蘇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하라고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나.

1952년생이며, 서산군 이북면 이북국민학교에서 태어났다.¹⁾ 아버지 소병선께서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북초등학교에 근무하셨기에 어머니 김정례 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교장관사에서 살았다. 그때 넷째 딸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딸 셋을 출산하신 상태였다. ‘딸은 두 번 서운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하고 남의 집에 시집보낼 때 서운하다는 말이다. 그러한 남아선호사상 아래서 네 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남동생을 꼭 보라는 염원을 담아 소골순이나 소막순, 소막분 쪽으로 서운함을 표했을 텐데, 아버님은 오히려 소중애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셨다. 그리고 작가 아래로 남동생 둘을 두었으니 하늘과 통했나보다.

작가는 일찍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보통 열대여

1) 현재 태안군 이원면 이원초등학교

섯 살쯤 되면 여자아이들은 애티를 벗고 성숙한 여인으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작가는 교사로 임용 받을 때까지도 작달막한 6학년 어린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과 구분이 되지 않는 외모였다. 구분이 안 되는 건 외모뿐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작가를 교사로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때로는 놀림의 대상으로 삼아 말썽을 피웠다. 임용 당시에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큰소리치지 않으며 몽둥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아침이슬 같은 아이들니까 감싸 주고 해야지.’

하고 다짐했건만,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였다. 뜻내기 교사로서는 그러한 심정을 하소연할 대상조차 마땅찮았다. 있다 한들 아이들에게 무시당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일과를 끝내면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면서 형클어진 하루하루의 실마리를 찾았다. 때로는 포용을 노래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그 일이 글을 쓰게 된 단초였다. 결국 소중에 작가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결핍’인 셈이다. 결핍을 경험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안전하고 권선징악이 지켜지는 동화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그 후 6년여 흐른 어느 날 그동안 써온 일기를 읽어보았다. 자신이 읽어도 재미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교육잡지에 투고하였다. 투고는 청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이라고 노래한 이원수 작가님의 3회 추천을 거쳐 1976년에 기성 문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이후 한국의 안데르센이라 불리는 이원수 작가님을 뵈려고 수소문했더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해서 퇴원하시길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나중에 이원수문학관이 개관할 때 추천지를 기증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해야 했다.

한편 문예지 《아동문학 평론》지를 통해 1982년에 재등단의 절차를 밟는다. 등단하자마자 출판사에서 출판을 권유했다. 그동안의 저력을 이미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 발간한 첫 동화집이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이다. 필화사건으로 많은 작가가 곤욕을 치를 때였다. 노래를 부르는 벼지이는 죄악시하고 개미처럼 일만 해야 했다. 그런데 감히 개미가 노래를 부른다고 썼다. 자비출판으로 4천 원을 찍었다. 트럭으로 한 차 배달되었다. 어

마어마한 양에 작가는 기절할 뻔했다. 그렇지만, 그토록 공들여 짚은 책이니 금방 나갈 줄 알았다. 그러나 읽어 주지 않았다. 단칸방살이로는 보관할 데도 없어서 담임반 교실 뒤편에, 일부는 아버지 관사에 쌓아 두었다. 그때 고생은 했지만, 그 일은 작가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디딤돌로 자리했다. 만일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이슈화되었다더라면 당시 상황에서는 금서가 되어 일이 복잡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던 작가가 이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지내신다. 일상의 시간은 주로 집필에 할애한다. 글은 ‘궁둥이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일어나서 글 쓰고, 아침 먹고 글 쓰고, 점심 먹고 글 쓰고, 저녁 먹고 글 쓴다. 산문은 그렇게 쓰는 거란다. 가끔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 또한 글을 쓰기 위한 글감 찾거나 취재여행인 셈이다. 독서나 집필을 위한 내용의 강의도 한다. 광화문 교보문고 등에서 사인회를 열기도 한다. 그 모두가 동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행해지는 한평생이다.

저서 중에 10쇄 이상 찍어낸 책이 수없이 많고, 다작의 성과 외에도 걸어오신 길이 대단하다. 소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어린이가 뽑은 작가상, 해강아동문학상, 중·한작가상 등의 내로라하는 문학상 수상의 경력에, 천안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충남아동문학회장, 눈높리아동문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문단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4년에는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동화 100권 출간기념식을 했다. 한국의 아동문학계 인물은 물론 원근의 문인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조만간 200권 출간을 기념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다작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작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마감일을 넘겨본 일이 없다. 청탁을 받으면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숲속 집필실이나, 아파트에서 쓰고 혹은 바닷가로 노트북을 들고 나가기도 한다. 글밭이 풀리지 않아 몸부림칠 때면 글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술술 풀려 퇴고에 이르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야호!”이다. 그 맛에 글을 쓴다.

작가의 글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권장도서 목록에도 자주 눈에 띈다. 독자들이 아주 많다. 언젠가 사인회를 하는데 저만치에서 중년의 사내가 기웃거렸다.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의 작가가 사인회를 하고 있으니 의아했나 보다. 그 독자가 하는 말이 이랬다.

“아직도 살아있으시네요?”

그토록 오랫동안 동화를 쓰셨다는 증거이다.

그는 독자에게 말한다.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하도 맛있어서 박스 단위로 구입했다가 질려서 못 먹었다. 책도 그렇다. 전집을 덜컥 구입하기보다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과정을 거쳐야 메타인지능력이 길러지고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다.

요즘을 일컬어 프로슈머시대라고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문학 분야에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이제는 독자가 읽는 이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창작의 욕구도 실현한다. 이에 대해 대선배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는 타고난다. 그런데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영감을 타고난 사람이다. 글 쓰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 베스트셀러니 밀레니엄셀러니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써라, 쓰는 시간의 반은 읽는 데 할애하라.

현재 출판사에서 출판 작업 중인 작가의 책이 여섯 권이란다. 마침 어제 신간이 또 나왔다. 《산호 숲을 살려 주세요!》이다. 작가가 스노클링을 즐기다 보면 환상적인 산호 숲을 만나는데 요즘들어 백화 되어가는 죽은 산호를 자주 만나게 되어 안타까웠다. 그 이야기를 동화로 풀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 나아가서 바닷속 생물에까지 선한 눈길 주는 우주적 작가 소중애를 위해 천안에 소중애아동문학관(가칭)을 조성 중이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판 두드릴 힘이 남아있는 한 쓸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좋은 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작가로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입장만세 운동을 지켜본 130년 된 근대 건축물



맹 광 렬 (1957년생)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에서 진천 쪽으로 향하다 보면, 북면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구술자 맹광렬 씨의 자택을 찾아가는 길은, 경치가 좋아서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길이다.

입장 만세운동 기념공원 바로 옆, 젓소 목장에 살짝 가려진 곳에서 만세운동을 지켜본 130년 된 근대 건축물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구술에 앞서 건물의 외벽을 돌아보고 내부 구조도 살펴보았다. 130년 전에 이렇게 큰 건물이 시골에 세워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건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구술자가 불편함 없이 거주한다는 점이다. 워낙 오래 된 건물이기에, 지금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 예상은 엄청나게 빗나간 것이었다.

먼저 구술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신창 맹씨라고 해서 매우 반가웠다. 질문자의 친구 부친이,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맹사성 고택 앞의 종종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분의 함자를 대니 잘 안다고 했고, 반가운 마음에 친구 이름을 대니 웃으며 역시 알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이 고장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입장 만세 운동 기념탑이 세워진 소공원의 부지를 희사한 맹팔용씨가 그의 조부이다. 조부가 7세 때 입장에 정착하였는데, 그 후 미국인이 양대리 일대에 대대적인 금광을 개발할 때 기술자로 참여하였다. 노무자의 급여가 20원이었는데 조부는 70원이나 받아서 여러 4촌 형제까지 도

와줄 수 있었다고 한다. 부친 맹주화와 모친 민명동 사이에 4형제가 태어났는데, 부친께서는 장남인 맹광렬 씨가 3세 때 회사원으로 부산으로 떠나면서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양대 초등학교를 거쳐 입장 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2학년이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부친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된 덕분이었다.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스승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먼저 이웃 마을에 사셨던 조남식 선생님의 친절한 모습을 떠올렸다. 고교 시절에는 김상진 선생님을 만났는데, 후에 KBS 아나운서가 된 분이다.

병역까지 마치게 되자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촌향도의 현상이 뚜렷하던 시절이 아니던가. 세칭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할 수도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지극 정성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과 산악 지대인 고향의 특성을 살린 농법으로 꼭 성공하겠다는 강한 목표 의식이 작용하여 귀향을 선택했다.

귀향하고 2년 후인 27세에 우체국에 근무하던 부인을 만나 결혼하고, 두 딸이 먼저 태어난 후에 아들도 얻었다. 장녀는 남편과 함께 ‘셀트리온’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파력이 세 배에 달한다는 코로나19델타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주역이었다니 매우 놀랍기만 하다. 낙농인으로 성공하여 낙농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자식 농사까지 크게 성공하여 부럽기만 하였다. 두 딸과 두 사위가 서울대, 카이스트, 항공대 등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치고, 10년째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어머니의 간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캐나다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때 좋아했던 부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간절하게 귀국을 권유했다고 한다. 부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환하게 웃었다.

오늘의 면담은 건축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입장 만세운동을 지켜본 건물이라는 수식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집안 어른신 중에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가 궁금했는데, 광명여숙의 여학생들과 광부들이 중심이었다며 실제로 기념비가 세워진 부근에서 세 명이 총살되는 모습의 목격담으로 대신하였다. 질문자 이종매

형의 고모인 임영신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는 여학생들의 만세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였다.

조부님은 정을 베풀고 몸소 이웃돕기를 실천하신 분이라고 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기억은 맹광렬 씨가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하신 말씀이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매우 많을 것이다. 빈손으로 온 손님도 똑같이 잘 대접해야 한다. 빈손이라고 빈손이 아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온다.” 흔히 예전에 어른들이 다산을 장려하며 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모두 자기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던 말씀을 차용(借用)한 명언으로 느껴졌다.

한옥이라면 상량문이 있을 텐데, 13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드렸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조부로부터 직접 들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틀림없다고 한다. 양대리 일대는 북한의 함흥 다음으로 남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금광이 있던 곳이다. 미국인 기술자에 의해 금광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 건물은 그들의 사교장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지하실이 있지만 지상으로는 단층 건물임에도 3년 동안에 걸쳐 건축된 벽돌조 구조인데, 튼튼하게 짓기 위해 완벽한 기초는 물론 하루에 몇 켤씩만 쌓고 충분히 굳기를 기다려서 다시 쌓았다. 벽돌은 보통 벽돌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오사카’라고 찍혀있으며, 목재 역시 외국산으로 특별한 내구성의 홍월 목재인데, 문틀이나 창틀 그리고 수납장도 전혀 수리하지 않은 건축 당시 그대로이다. 벽돌을 쌓은 기술자는 중국인이고 다른 기술자는 모두 미국인이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건축 당시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도청 소재지였던 공주와 함께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였다. 20년 후인 1910년에 일본에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미국인들이 귀국하면서, 당시 조부가 매입하였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30년이나 된 건물인데 문틀이나 창틀도 전혀 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다. 단지 춤을 추던 홀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넓은 욕실은 침실로 바꾸었으며 현관 밖에 외벽을 설치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제외하면 건축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

주하는데 불편이 없더니, 오늘날 잘 지어진 아파트도 10년 정도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크게 비교되는 일이다.

건평이 7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이 특특하게 이용된 것은 6·25전쟁 때였다. 줄지어 내려오는 피난민들의 잠자리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따로 큰 방에 수용하여 군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다. 조부께서는 금광에서 미국인들과 일을 한 덕분에 미군들과 의사소통이 쉬운 점도 도움이 되었다.

입장은 양대리 일대만 3,000명이 넘게 살던 지역이어서 학교와 우체국 지서 등이 있던 곳이다. 인근의 성환, 직산, 성거가 모두 읍으로 승격했는데, 입장만 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입장이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는가 물었다. 도시 주변 지역이 인구가 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많은 땅을 갖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질문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 젊은이들이 다 떠난 심각한 노령화 현상을 걱정하면서 농업 확대 정책을 걱정하였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목장에 두 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내용도 소개하였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120두의 젖소를 키우는 대규모 낙농인으로 성공하고 ‘천안공주낙농농협조합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른 단위농협과는 달리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 공주 세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미루어 짐작하기로 해야겠다.

마무리 질문으로 취미와 건강비결을 물었는데, 모두 술이라고 답변해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 절주가 건강비결로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는 반전이였다. 건강하지 않으면 술을 먹을 수 없을 터이니 명답이 아닌가. 모든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이어서 좋았는데, 마무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화룡점정이기도 했다.

면담을 마친 후, 미국인들이 테니스장으로 썼다는 자리에 세워진 우사를 돌아보며 몇 가지 말씀을 더 들었다. 또한 다섯 명이나 되는 일행에게 다양한 과일과 다과상을 차려주신 사모님의 환대에 흐뭇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연극 인생, 외길 50년



채 필 병 (1951년생)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배우가 무대를 떠나고 관객이 연극을 외면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의 환경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지방 중에서도 천안 연극계의 현실은 어느 지방의 현실과 또 다르다. 서울로의 교통여건이 좋으니 연극배우들이 언제고 기회만 되면 더 큰 무대를 찾아 훌쩍 떠나버리고 관객 또한 서울을 찾는다.

그런데 천안에서 불박이로 연극의 뿌리를 내리고 가꾸어가는 연극인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천안에 연극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껏 외길 50여 년을 걸어오시는 분이다. 바로 극단 '날개' 대표 채필병 연극배우이자 연출가이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자랐다. 사리원에 사시던 부모님께서는 6·25전쟁 때 1·4후퇴 물결과 함께 잠시 피난길에 오른다.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전세를 보아가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휴전선이 그어져 앞길이 막혔다. 하는 수 없이 정착한 곳이 천안이었다. '38따라지'라는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이북에 전답을 두고 내려온 실항민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노름판에서 최하위 패, 따라지. 그래서 하찮고 따분한 처지의 그들을 38따라지라 불렀다. 그러나 채필병 씨의 부모님은 달랐다. 부의 축적이 보장된 양조업에 뛰어드셨다. 양조장으로부터의 넉넉한 수입으로 그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웠다.

부모님께서서는 교육열도 남달라서 일찍이 채필병 단장을 비롯한 두 아들을 서울에 유학시킨다. 만리동에

있는 균명중학교(지금의 환일중) 2학년 때였다. 연극을 좋아하던 담임선생님께서 국어책을 또 박뜨박 읽어내는 제자를 눈여겨보았다. 연극을 좋아하는 담임은, 마침 연출 일을 하는 친구에게 채필병 학생을 소개한다. 그것이 16세 채필병이 처음으로 국립극장 무대에 아역으로 서게 된 동기였다.

그는 서라벌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연기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오전에는 일반 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연기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연극제에 참여했다. 그때마다 연기상을 받아서 서라벌예대, 동국대, 서울예대 등의 연극 관련 학과에 특채 입학의 자격을 획득했다.

골라서 서라벌예대에 입학했다.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 서울예대로 편입하여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교류하며 기량을 닦아갔다. 학업을 마치고는 대학로에서 더욱더 바빠 연극에 몰입했다. 당시 그가 죄수 역을 맡아 공연했던 ‘뽕끼통’이라는 연극은 6개월이나 연속 공연되며 최다 관객동원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채필병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1995년 당시의 ‘뽕끼통’ 포스터가 뜬다. 포스터 중앙에서 장기수로 분장한 청년 채필병이 웃고 있다.

1982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연극협회가 창립된다. 그러면서 지방에도 연극협회 지부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그때 채필병 씨는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고향 천안을 떠올린다. 고향으로 내려가 연극협회 지부를 창립할 것인가, 아니면 영역이 넓은 서울에 남을 것인가를 두고 1년여 고민했다. 그리고는 고향 천안에 연극의 뿌리를 내리고자 결심하고 천안으로 내려온다. 천안에 연극을 하고자 귀향했을 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극 연 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단국대학교에 연극영화과와 대학 동아리 ‘극예술연구회’ 등에서 연극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을 뿐이다. 아쉬운 대로 그들과 교류했다. 명동골목에 있는 찻집 ‘심포니’에 자주 들렀다. 사진 애호가들과 화가, 그리고 시인들이 즐겨 찾는 클래식 찻집이었다.

그곳을 들락거리며 천안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찻집 사장님과 안면도 익히게 된 어느 날, 찻집 벽에 포스터 한 장 붙일 수 있는 허락을 얻어낸다. 극단 ‘천안’의 단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써 붙였다. 그렇게 하여 1983년에 도내 최초의 극단 ‘천안’이 열한 명의 단원으로 창단되고 채필병 씨는 단장의 짐을 지게 된다.

창단공연 작품은 ‘엘리베이터’였다.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무대가 없어서 천안문화원의 강당을 빌려 창문에 커튼을 치고 단원들과 손수 무대를 꾸몄다. 장비는 대학로에서 허접한 것으로 골라 싸게 사고 단국대학교에서 빌리고 해서 마련했다. 그나마 작품을 올리기까지의 모든 경비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그의 부인 몫이 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역전에서 성업 중이던 에스콰이어 제화점, 동방서림 등에서 찬조금을 주었다. 천안문화원의 도움도 컸다. 당시 사무국장이던 현 충남문인협회 이정우 회장의 도움은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굶지만 않으면 연극을 했다. 늘 단체연습을 해야 하므로 돈 쓸 시간도 없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술 마실 돈은 항상 있었다. 술자리는 공연연습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었다. 허심탄회하게 공연과정의 잘잘못 얘기하고 다음 작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출가를 모실 수 있을 형편이 못 되니, 연기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으로 직접 연출하였다. 어려워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조금이나마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되는 요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연을 하던 때였다.

제9회 전국 연극단체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기억에 크게 남는 작품이다. 원주스님 역을 맡았었는데 이틀간 공연하고 출연료를 20만원이나 받았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채필병 씨는 물론 그의 아내로서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고무되었다.

연극을 하자면 누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제대회에 참가해 보면 어느 나라나 사정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극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연극제로 바꿨다. ‘일물’이라는 작품을 연출하여 예선을 거쳐 전국의 16개 팀과 겨루었다.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며칠 후에 있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일물은 뒤주를 일컫는다. 즉 사도세자의 비극적 이야기이다. 아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저승으로 가고 아버 영조는 뒤주 밖 이승에 남아야 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서로의 속내를 내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은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소통의 부재 문제와 오버랩 된다. 통신수단이 너무나 잘 발달한 요즘에 그는 역설처럼 ‘일물’로 불통의 화두를 던진다.

이번 공연은 지원금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다. 1980년대에는 300만 원으로 ‘능소전’을

두 달간 공연하기도 했다. 그때 단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연습했다. 의상비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해체해서 짝 펼쳐보니 별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건 본 삼아 여러 벌을 직접 지었다.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달에 천안박물관 무대에 다시 올릴 ‘능소전’을 준비 중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연극배우로서의 길만이 아니었다. 극단 ‘천안’ 창단하여 운영하였으며 1984년에 천안연극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았다. 1992년부터 2년간은 충남연극협회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기도 했다. 1999년에는 동호인 수준인 천안 연극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극단 ‘날개’를 창단하여 지금껏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생활연극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충남연극제에서만도 연출상과 연기상을 20여 회 받았다. 1989년에는 거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만선’을 출품하여 작품상, 연출상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 극단 ‘날개’의 단원은 열 명 남짓이다. 연극배우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연극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단원이 적어서 ‘만선’처럼 30여 명이 출연하는 대작을 올릴 때는 서울의 연기자들은 영입하여 작품을 올리기도 한다. 슬럼프에 빠진 적 없고 작품을 쉬어 본 적 없다. 천안에서만 35년 정도 됐는데 언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 지낸다.

채필병 씨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연극이라는 예술로 50여 년, 더구나 천안이라는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을 가꾸어 왔다. 아프지만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연극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를 위해 관의 지원이 좀 더 커진다면, 삶의 연장선에서 연극이 설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의 50년 연극 인생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고즈넉한 풍광 농촌정미소



고석렬 (1960년생)
천안시 서북구 와룡길



몇 발짝만 걸어도 땀이 흐르도록 무덥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맞물린 한낮의 농촌은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다. 퇴약별에 줄고 있는 야트막한 농가 몇 채를 지나 농로를 한참 더 달려 마주한 농촌정미소, 왕겨 가마니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햇빛에 삭아가는 풍경이 고즈넉하기만 하다. 참새 떼도 그냥 못 지나가던, 북적거리야 할 정미소 아닌가. 요란하던 발동기 소리와 고소한 쌀 냄새, 벧가마를 나르던 장정들은 이제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멀쑥하니 키 큰 농촌정미소는, 축제 끝난 뒤 남겨진 깃대처럼 덩그러니 서 있다.

이 정미소가 세워진 때는 8·15 해방 무렵이었다. 나지막한 구릉이나 평탄한 저지로 된 와룡리 일대에는 밭보다 논이 많았다. 당연히 벼 수확량도 많아서 그 벼를 도정할 방앗간이 농촌정미소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들어섰다. 그 시절에는 주로 수동 발동기를 썼다. 발동기 쇠바퀴에 손잡이를 걸어 힘껏 돌리다 보면 “치쿵!”하는 소리에 이어 탕탕탕 시동이 걸렸다. 이때를 맞춰 피대를 건다. 돌아가는 발동기 바퀴에 피대를 거는 일은 고난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자칫하다가 옷깃이 팔려 들어가는 위험한 작업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정미소가 돌아갔다.

그런데 농촌정미소는 설치 당시부터 발동기를 쓰지 않았다. 와룡리 인근에는 금광 산업이 성업 중이었다. 여기저기서 금을 채굴하자면 전기는 필수였기에 천안 시내보다 이곳 성환 일대는 전기공급의 혜택을 먼저 누렸다. 미군 부대가 있었던 것도 전기혜택을 먼저 누

린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 덕에 농촌정미소도 일찍부터 발동기가 아닌 전기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스위치만 올리면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갔다.

장씨 성을 가진 분이 40여 년간 운영하던 농촌정미소를 지금의 고석렬 씨가 인수받았다. 군대 제대한 직후였으니 그의 나이 스물넷쯤 되었을 때였다. 당시로서는 큰돈인 3천만 원을 주고 정미소 일체를 인수했다. 그만큼 수지가 맞는 정미소였다.

추수기에는 하루에 백여 가마씩 도정했다. 정신없이 바빴다. 그 와중에 시조창을 즐기시던 아버님은 수시로 집을 비우셨다. 전국의 시조창대회에 참가하시어 상장도 타시고 금반지 등을 받아오시기도 했다. 유명 소리꾼들과도 자주 어울리셨다. 그러한 사정이라 식구들만으로는 일손이 달렸다. 장정 7, 8명이 이른 아침부터 종일 까대기(벧가마나 쌀가마를 등으로 저서 나르고 쌓는 일)를 해 줘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인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인부들이 잡일은 거들어 주고 고 사장은 기계를 다루지만, 정미과정 또한 쉬운 건 아니다.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도정된 쌀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방아를 찧게 된다. 네모진 기둥 안에는 바가지들이 오르내리며 쌀을 옮긴다. 이 과정 때문에 정미소 건물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 사장은 내부를 더 높이는 공사를 했다. 사람의 인력을 지게차가 대신하게 되면서 더 높은 작업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계라도 다루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쌀의 질이 달리 나왔다. 벼를 말리는 일부터 집신기, 현미기, 분리기 등을 거치면서 돌을 골라내고 벗겨낸 까락을 날리고 적당한 압력으로 쌀을 깎으며 이물질을 골라내는 과정에 따라 같은 벼를 넣어도 다른 쌀이 나왔다. 고석렬 씨는 솜씨만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설비도 개량했다. 돌을 골라내는 석발기나 썩은 쌀을 골라내는 색채분리기 등 고가의 기계들도 서슴없이 들여놓았다. 그러한 농촌정미소 쌀을 아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벼를 신고 왔다.

벼뿐 아니라 보리나 밀도 도정했다. 도정료 수입이 관찮았다. 보통 쌀 한 가마니를 도정하면 5, 6킬로그램의 쌀을 도정료로 받았다. 향간에는 질 나쁜 쌀을 사다가 섞어서 재미를 보는 정미소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래서 쌀을 사는 서울의 도매상들은 취사도구를 챙겨서 쌀을 사러 다녔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섞은 쌀을 분별해 낼 수 없으니 직접 그 자리에서 쌀로 밥을 해 먹어 본 후에 트럭을 불러 쌀을 사가기도 했다. 쌀 섞는 기계를 파는

업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며 그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왜 기계를 들여놓지 않는냐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 좋은 쌀을 공급한다는 일념과 긍지로 고집스레 한길을 갔다.

우직한 그의 성격은 가정사에서도 나타난다. 제주 고씨는 와룡리가 아닌 인근 안성시 서운면 일대에 모여 살았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홀로 와룡리에 터를 잡으신 것이다. 대부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가던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한 부모님을 고석렬 사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서운치 않게 모시며 농삿일에 정미소까지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바쁜 것이 복이려니 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던가. 언제부턴가,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은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제자리걸음이었다. 도정료를 쌀로 받기 때문에 쌀값은 소득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쌀값이 20여 년째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국립대학 연간등록금이 12배 오르는 동안 쌀값은 고작 3배 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확부터 판매까지의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RPC라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새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체브랜드의 쌀을 생산하며 광고를 해대기 시작했다. 성환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어마어마한 시설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농부들의 벼를 수매해갔다. 그런가 하면 가정용 정미기도 싼값에 출하되었다. 농부들은 가정에서 소비할 쌀마저 그것으로 직접 도정하였다. 그때그때 도정하니 밥맛도 좋고 무엇보다 쌀벌레가 나지 않아 좋다고 했다.

이제 정미소가 더는 생계의 수단이 되어 주지 못한다. 도정양도 턱없이 줄었을 뿐 아니라 도정료로 받은 쌀을 팔아도 돈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주식인 밥 한 공기분의 쌀값이 먹다 버리는 자판기 커피 한잔 값에도 못 미친다.

쌀이 귀해서 생일이나 제삿날이나 돼야 쌀밥 구경을 하던 유년의 기억이 어제인 듯 생생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쌀과 실을 놓고 삼신할미에게 치성을 드리고, 그 아이가 한 생을 다 살고 갈 때도 쌀을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만큼 쌀은 우리 삶에서 목숨과 더불어 귀한 존재였다. 쌀이 화폐처럼 경제 단위가 되기도 했다. 소작료나 나라의 세금, 장리쌀의 이자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러니 쌀을 다루는 정미소 사장은 동네 유지 대접을 받았다. 학교 운

동회나 주민체육대회라도 열리는 날이면 양조장 사장과 더불어 본부석에 마련된 자리를 차지했더랬다.

이제는 쌀밥 말고도 얼마든지 먹을 것이 넘쳐난다. 적게 소비되는 쌀이라도 예전처럼 정미소에서 사다 먹지도 않는다. 전화 한 통이면 RPC의 브랜드 쌀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시대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인근의 정미소들이 시나브로 자취를 감췄다. 인근에서 하나뿐인 농촌정미소를 운영하는 고석렬 씨도 공여지책으로 떡방앗간을 돌리며 떡 공방에서 떡과 식혜 등을 빚어 팔고, 떡 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신통치 않다. 이제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고 슬프다. 정미소는 특히 그렇다. 우뚝 솟은 건물만큼이나 든든하던 곳,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흰쌀을 가마니로 쏟아내고, 명절이면 말강한 가래떡을 밤새 빼내던 곳, 기억만으로도 배가 부른 곳이 정미소이다. 그래서 그런가, 제구실을 못 하는 정미소가 더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카페나 갤러리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사진작가의 작품이나 시의 소재로 동원되기도 한다.

예순들의 고석렬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 있던 농촌정미소, 그동안 와룡리 일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왔는데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추억처럼 쌀겨 보양계 내려앉아 정겹기만 한 기계들을 어찌해야 하나.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취원각의 어제와 오늘



채 방 윤 (1941년생)
천안시 성환읍 신방로



채방윤 씨는 조부 때부터 성환 왕림리3구, 임리(林里)에서 거주해 온 토박이로써 고향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마을의 쇠퇴와 기층민의 떠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특히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며 그 옛날 인정이 넘쳐나던 푸근했던 풍경이 그리다고 한다. 배려와 양보가 일상이던 예전의 풍습은 사라진 지금, 자신 삶의 나머지는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이장과 노인회 임원을 맡았었다고 한다.

채방윤 씨는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한학에 관심을 두고 마을사람들의 작명과 택일, 사주를 보는 일을 즐기셨던 조부와, 많지는 않지만 소농의 범주 안에서 농업에 전념하던 부친 밑에서 공경과 순종의 덕을 배우며 자랐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도와 농삿일을 잇겠다는 소박함으로 자신 평생을 살아 왔다. 1남 2녀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40대에 들면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땅을 일궜다.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읍내에 있는 성환초, 성환중까지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그런 후 천안 시내에 있는 천안농업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축산기술원(국립종축장 전신)에 다니던 둘째 작은 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다. 집안 장손이 적어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뜻이 있었기에 행운 아닌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10마지기 논과 5백여 평 밭을 영위하던 소농가의 어

려움 속에서 부모님과 자식들을 건사해야 했던 그는, 1975년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국립 종축장 양돈과에 입사하여 종축관리과와 서무과 등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는 1998년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23년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은 행운아라고 표현을 한다. 직장생활이었지만 집에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고향마을에 거주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했던 그는 농사붙이를 일부 거들면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일이 없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차례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동안은 “성환목장”으로, 그 이후는 한결같이 ‘종축장’으로 불리우는 곳이다. 성환지역 주민들과 종축장은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까? 흔히들 성환목장으로, 국립종축장으로 불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인 ‘아카보시데쓰마(赤星鐵馬)’가 종마(種馬)생산을 위해 조성한 소규모 목장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1928년들어 젓소 도입이 시작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낙농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해방되면서 1947년 정부로 이관되고, 농사개발원 성환축산시험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사람들에게 흔히들 ‘성환목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못했던 6,70년대 성환목장은 각 급 학교 소풍지로 각광을 받았다. 목장 내 이승만대통령 별장으로 쓰였던 99칸 목초기와집 취원각(翠遠閣)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축산연구를 위한 방목지인 너른 목초지와 영화촬영으로 인기였던 목가적인 목장 풍경까지. 게다가 금송, 독일가문비나무, 전나무, 메타스퀘어, 서어나무 등 고급 수종으로 정원을 이루었던 격조 높은 목장 곳곳의 풍경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이어졌다.

종축기능이 중요시 되면서 국립종축장으로 불리게 된 국립축산과학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농업기술원 축산지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다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축산연구기관인 중앙축산기술원이 이곳 성환목장에 설치되면서 국가 주요기관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62년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으로 개편됐다가 1960년대 말부터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종축개발과 보급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1969년 성환에 있던 축산시험장 본장을 국립종축장으로 개편했다가 1994년 축산시험장과 통합한 후 몇 차례의 명칭 변경

을 거쳐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이르고 있다.

성환 종축장은 한우, 젖소 등 우량종축의 생산보급을 주요 임무로 했는데 특히 일반 농민들에게 우량 젖소를 보급해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낙농업이 급격히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채방운 씨는 성환과 직산지역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 종축장에 근무하면서 생활을 영위했고, 종축장에서 생산한 우량 젖소를 분양받아 소득을 늘린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또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종축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에 그 당시 귀하게 생각했던 우유를 손쉽게 접했던 기억이 난단다. 하지만 지방 성분이 많았던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설사하는 일이 자주였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사료용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던 국립종축장 주변으로 옥수수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주변 마을사람들이 사료용 옥수수를 식용으로 먹었던 일도 생각난다고 한다.

1990년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종축장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2000년대 들어 각종 가축 전염병이 확산됨으로써 성환과 종축장은 서로 교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예전 우량 가축 보급이 주 임무였던 종축원에서 우리나라 가축개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변신해 우리나라 젖소의 생산량을 세계 3~4위 수준으로 이끌고, 수입개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수입 소고기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한우를 육성하는 등 좀 더 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종축장 서편,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취원각은 본래 1909년 직산면 어느 판서를 역임했던 99칸집 양반가였다고 한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 1915년 성환목장이 만들어질 때 그 고가가 이곳으로 이전돼 150평 부지 위에 사랑채가 있는 한식과 일식의 혼용으로 개조돼 목장 주의 저택으로 상용됐다. 그러면서 정원에는 단풍나무를 심고 건물 앞에는 전나무, 건물 주변에는 일본 원산의 금송을 심었는데, 40년 생 이상 큰 나무를 심었기에 지금 정원의 숲은 대부분 나이가 150여 년 이상 된 고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정원용 숲을 조성한 후 취원각이라 이름이 붙었다.

해방 후 목장은 국립축산시험장으로 쓰이고 취원각은 국가로 귀속됐다. 1945년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으로 지정해 사용됐다. 2005년 붕괴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초를 유

지하면서 안채를 복원하고 2006년 바깥채는 초석만 원형대로 남겨두고 사랑채와 울타리만을 복원했다.

취원각을 회상하던 채방윤 씨는 먹거리가 풍족치 않던 시절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이곳 취원각 언저리에서 버찌를 따먹으며 집으로 가던 때가 생각난다고 한다. 또한, 취원각 대문 앞 너른 마당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성환목장으로 전국 각지 학생들이 소풍을 오게 되면 이곳에서 야유회를 갖고 점심도 먹고 했었다. 심지어 인근 천안과 평택 등 도시 건달패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유원지를 방불케 하는 소란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취원각 주변 너른 구릉지대를 배경으로 해방과 함께 미군들이 진주, 미8군 기지가 조성되기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던 모습도 기억한다.

취원각은 한옥과 일본식 집의 절충으로 지어지다 보니 채방윤 씨가 종축장에 근무할 때도 문화재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늘 있다가 문화재 지정은 되지 않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수종계 보존과 확산, 개량사업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방역문제 등 여러 난제를 야기하면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환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터에 전라남도 함평으로의 이전 발표와 이전 완료는 지역 전체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평생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채방윤 씨의 마음에는 성환목장이 곧 사라진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든다고 한다. 자신 삶의 반을 차지했던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찌면 그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다. 넉넉함으로,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 그의 눈가에, 그의 표정에서 취원각의 유구한 세월과 부침이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

천안서북구
달빛 속에 물든 세월이야기

어찌를 그리워하는 협성이용원



김지현 (1946년생)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외길 인생 60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김지현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부모님의 농사를 돕다가 이용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군대 시절에도 이발병으로 복무하였다. 평생을 전혀 한눈팔지 않고 살아오며 어느덧 60년을 넘기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용원은 시대적 추세에 밀려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시골의 같은 장소에서 45년 넘게 개업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머리 감는 세면대를 비롯한 내부 구조의 모습이나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영업신고증, 이용사면허증, 이용요금표 등이 방문자 일행을 50년 전 쯤 시간대의 위치로 이동시켜 놓았다. 아마도 이런 오래 된 풍경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김지현 씨의 조부께서는 인근의 안성 서운면에서 사셨다.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큰 황소를 상품으로 받은 것을 계기로 성환 와룡리로 이주하게 되었다. 가업을 이어받은 아버지께서는 논 150마지기, 밭 2,500평의 부농으로 살림을 일구었고, 슬하에 8남매를 두어 농촌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한문을 배우려고 서당을 다니던 중에, 6·25 때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을 내려와 같은 마을에 살던 정도영 선배의 강력한 권유로 이용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한문은 배워서 뭐하느냐며 평생 먹고 사는데 있어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최고라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천안역 앞, 옛 동방서적 바로 옆에 이용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서 1년 과정을 이수하였다. 면허 시험을 볼 때는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는데, 제한 시간이 20분이었다. 황당하게도 대상자는 머리가 매우 길고 얼굴은 긴 수염으로 뒤덮인 털복숭이가 걸렸다. 시간이 많이 걸려 긴장했고 면도가 많이 남았는데, 뒤에서 시험관이 '581번 합격'하고 소리쳐서 기분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

19세,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당시 성환면사무소 옆 협성이용원이었다. 5년을 근무했는데, 주인은 자기가 일을 잘해서 손님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가 보았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만두라고 해서 조금도 미련 없이 그곳을 나왔다. 주인이 김지현 씨를 보고 찾아오는 단골이 많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가족을 총동원해서 설득했지만 나가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었다. 이용원에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장남의 일이었다. 백발의 도사처럼 생긴 노인이 들어와서 그를 지목하며, 관상을 보자 하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해 주어야겠는데, 맨 입으로는 안 되고 막걸리 세 병만 사오라고 했다. 별로 부담되는 일도 아니고 술도 나누어 먹으면 좋은 일이어서 청을 받아들였다. 맥락상 아주 좋은 혼처를 소개하려는 의도로 들었더니, 결혼은 꼭 30세와 33세 사이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 황당무계한 말을 실천에 옮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30세에 큰 처남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장남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할 입장이라고 하자 부인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고마웠다고 한다. 부인은 아들 하나를 낳고 자궁암 진단을 받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 아들은 대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는다.

천안역 앞의 반도이용원, 문화동의 문화이용원 등을 거치며 일을 해 오다가 현 위치에 있던 농협 창고의 매각 소식을 듣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워낙 명당자리로 여겨지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500만 원 정도로 응찰하는데, 800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창고를 허문 자리에 살림집과 이용원을 함께 짓고, 개원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45년 전인 1976년의 일이다.

성실하게 손님을 대한 결과 이용원의 운영은 순탄하였다. 인근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늘어서 종업원 두 명을 두어야 했고 수입도 짹짹하였다. 처가인 보령과 전의에 땅을 사 두었는데, 특히 전의는 세종시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이용원이 깔고 앉은 자리도 시세가 5억 가까이 된다고 하니, 노후 대책은 충분한 셈이다.

질문자는 어린 시절 이용원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미용실을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시골은 미용실이 없어서 여자 아이들이 이용원에서 머리를 자르곤 했던 모습이다. 질문자의 말에 김지현 씨는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숙녀들도 긴 머리를 자르려 꽤 왔었다고 말했다. 잘린 머리 중의 긴 것은 꽤 가격도 높아서 모두 가져갔다. 안성의 가발 공장 직원들이 이용원을 돌며 자른 머리를 사러 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용기구의 변천에 대해 물었다. 30년 전에 수동바리칸이 전기바리칸으로 바뀌고 1회용 면도기를 쓰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장발이 유행하던 시기는 주로 가위에 의존했는데, 이제 가위를 아주 적게 쓰는 것이 큰 변화이다. 바리칸의 성능이 아주 좋아져서 머리를 다듬는 일도 바리칸으로 하기 때문이다.

독특한 손님을 꼽자면 의외로 북한의 김정은 머리와 똑같이 깎아달라는 주문을 몇 번 받았다고 한다. 이발 의자에 앉자마자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자주 오는 손님인 경우에는 “어제 잠도 안자고 뭘 했느냐?”고 웃으며 묻곤 했다고 한다. 잠에 푹아떨어지면 머리를 만지는 일이 불편했으리라 짐작이 되어서 사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그만큼 마음 편하게 머리를 맡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대신하였다.

질문자의 조카사위가 서울에서 이용사로 50년 넘게 일하고 있어서, 혹시 면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한 일이 있다. “사위가 퇴근하면 일하며 있었던 얘기를 할 텐데…”라고 물었더니, 단골손님이 아닌 경우에 심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였다. “여기는 시골 동네 이용원이어서 갑질하는 사람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예전에는 교도소 동기들 여럿이 와서 트집을 잡으며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서, 칼로 위협하며 혼낸 적도 있다고 한다. 요즈음에는 아이 엄마

들이 아이를 맡겨 놓고 갔다가 이발을 끝내면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요즈음 미용실로 빠져나가서 고객이 많이 줄었고, 이용사에 대한 인식이 예전 못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김지현 씨는 이용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우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정년이 없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현재 이용업이 사양 업종이어서 이용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없다는 점을 역발상으로 보면, 이용사의 부족 현상이 초래될 때 귀한 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용원 운영 상태를 물었다. 불행하게도 5년 전에 수전증이 왔다고 한다.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이발을 위해 팔을 높이 들면 그런 증상이 있으니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뇌에서 팔로 내려오는 미세 신경이 눌려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매우 위험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그래도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때문에 문을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단다. 자기 건물이고 직원이 없으니 운영비가 들지 않아서 손님이 적어도 전혀 걱정 없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드렸다. 60년 전에 다른 직업의 길로 들어섰다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 선택을 어떻게 회고하시느냐고 묻자 전혀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는 답변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을 사신 셈이겠다.

예전에는 더러 낚시도 다니고 산에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출타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서, 평생을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 싶은 생각에 마음이 짠했다. 첨단 의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고 위로하고, 끝으로 살아오시면서 특별하게 노력한 점을 물었다. 그저 직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는 답변은 그의 60년 외길 인생을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말로 들렸다.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대통령의 손자 며느리감	76
일제의 처녀 공출 때문에	80
한국전쟁, 피난골에서 생긴 일	84
길쌈 이야기	88
친정보다 편했던 시댁살이	92
20식구의 대가족 큰 며느리	96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킨 가정	100
500리 길 걸어서 보름만에 길지(吉地)로 이사를 하고	104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대통령의 손자 며느리감



조 병 남 (1939년생)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조병남 씨는 1939년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에서 태어나, 18세에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학련동으로 시집와 한마을에서 살아온 여인이다. 아버지 조수정과 어머니 홍순암의 사이에서 5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위로 5형제의 오빠를 두고 태어난 딸이어서 매우 귀여움을 받았는데, 아래로 3명의 여동생이 태어났다. 마을의 부자로 살았던 집안이라 부러울 것 없이 성장하였고 생김이 복스러운 여자 아이라서 마을에서도 맘며느리감이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하였다.

문제는 할아버지였다. 그녀가 12-3세 경부터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치매를 앓기 전에 유독 조병남 씨를 사랑했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그녀가 대통령의 손자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셨다. 치매라 해도 다른 부분은 정상인 듯 살았는데, 유독 장손녀인 조병남 씨에게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손자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동하는 통에, 그녀는 여러 차례 난처함을 겪었다 한다.

“오늘은 대통령이 비행기로 손자며느리 먹고 살 것을 떨어트려 줄 것이니 마당에 멍석을 깔아 두어라.” 하고는 멍석을 깔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내는 바람에 안 팔 수 없었다. 그리고는 농사일을 하고 들어오면 잊지 않고 떨어졌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면 “어쩐 일이야.” 하시며 이상해 했다는 것이다.

“우리 손녀는 너무 이뻐서 꼭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

며느리가 될 거여.”

“우리 손녀는 대복을 타구 난 애여.”

근거도 없이 반복하여 이런 말로 난처하게 했던 할아버지는,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해에 사망하였다. 1955년의 일이다.

친정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아 마을이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결혼이나 회갑 등 잔치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상차림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불러 다녔다. 그리고 잔치집 과방 일이 끝나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안면 북계리로 이주하였는데 이후 어머니의 음식이 더 다양해 졌다.

토끼를 길러 잡으면 고추장·마늘·생강·후추·진간장·파 등의 갖은 양념을 넣어 끓이는 음식을 잘하였고, 오빠들이 물고기를 잡아 오면 밀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 주는데, 이 튀김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오빠들이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도 어머니가 튀겨 주어야 했다. 한국전쟁 후 궁핍하던 시기라서 ‘지저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매운탕이 일반적이었는데 어머니가 있으면 언제나 튀김이 먼저였다.

친정어머니가 하던 음식 중 특히 잘했던 것이 ‘산자’다. 산자는 잔치의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 어머니의 산자는 독특했다. 찹쌀을 빵아 가루를 만들어 찢 후, 이를 이겨 산자의 모양을 만든다. 이후 고운 자갈을 깨끗이 닦은 돌을 불에 달군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찹쌀가루 산자 덩어리를 묻어두면, 마치 기계 평 튀기로 튀긴 것처럼 일어나 모양이 잡힌다. 이렇게 부풀린 찹쌀가루 산자에 수수엿이나 쌀엿을 뿌리면 산자로 완성된다. 이렇게 만드는 산자는 어떤 잔치에나 그녀의 어머니가 했다.

그녀는 나이 18세에 덕화리 산골로 시집을 왔다. 아버지는 비싼 가마를 준비하여 꽃가마를 태워 보냈다. 음력 12월 눈이 수북이 쌓인 길에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으나 시집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가난하지는 않으나 부자도 아니어서 겨우 밥을 굶지 않는 정도의 살림이었다. 더구나 홀시어머니를 섬겨야 했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남편이 어렸을 때에 사망하여 홀로 3남매를 키워 온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주장이 강한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엄숙한 여인으로 말하며 얼마나 시집살이가 되냐고 걱정해 주었다.

“그런디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참으로 잘하셨어. 나 듣는디서두 ‘남의 며느리 열 명과 안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구, 무슨 일을 하면 어찌면 그르키 잘하느냐구 칭찬만 하셔. 남편이 점잖은 사람이라서 내가 많이 주장하며 살았는데, 땅 사는 일이나 부녀회장을 한다가구 들어댕겨두 걱정하는 법이 읍셨어. 믿는다구.”

아들 집이나 딸의 집에 갈 때 그녀는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3일만 있다가 오셔유. 집이 켈 편해유.”

하는 말로 배웅을 했는데 언제나 3일을 넘기지 않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고 3일만 있다가 오라는 말을 고마워했다.

건강하게 살았던 시어머니는 큰 병을 앓지 않고 버섯 농사지은 것을 돌아보고 온 후, 화장실에서 낙성하여 거짓말처럼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떠났다. 두메산골로 시집와 살림을 일구기 위해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시택은 언제나 친정보다 편한 곳이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덕학리 이라울은 산골이다. 시집와 5남 1녀의 자식을 두었지만, 친정집처럼 땅으로 부자 소리를 듣고 싶어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 시집 온 다음 해인 19세부터 53세(1992년)까지 일이 많기로 소문 난 담배 농사를 지었다. 여름이면 담배 조리하는 처자들을 6-7명 썩 두고 일했다. 담배 농사의 특성상 남자의 일보다 여자들의 일이 많았지만, 그녀는 여자 일 뿐만 아니라 남자 일까지 두 배의 몫을 했다.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그녀의 밭에 일하러 왔던 타동의 처녀가 마을 총각과 연애결혼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땅을 사기 위해 쌀 계를 모아 계주가 되어 받은 쌀로 논을 사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신뢰하였던 것도 따지고 보면 “땅을 사는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 산골이라서 논이 적고 밭이 많은 마을이라서 여인들의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스로 돈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 온 세월이었다.

40대에 그녀는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70년대만 해도 마을에서는 마을 고사로 동산제를 지내고 있었고, 정월 대보름이면 집집마다 걸립 풍장을 치는, 전통적인 관습에 새마을 운동의 불길까지 더해져 일이 많던 마을의 부녀회장이었다. 수없이 교육을 다녀야 했고, 회의에, 봉사활동에, 논코 뜰 새가 없이 바쁜 생활이었다.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농사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작 본인의 일이 제일 많으면서도, 마을의 부녀회원들

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놀이 계를 모아 봄·가을로 관광을 가는 것도 관례로 만들었다.

“그래도 그 일이 사람 사는 것 같았어.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거 같아서 좋았는데 오래 하지는 못했어. 너무 힘들어서...”

언제나 응원하던 시어머니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질그릇만 깨지는게 아녀. 여자두 내돌리믄 깨져.”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말이 크게 들려 부녀회장을 내놓았다.

그녀의 아들딸들은 소문난 효자·효녀들이다. 특히 그녀의 장남 최한규는 부모에게 잘하여 효자상을 받기도 했다.

“연세가 있슈. 인저 희망에 투자하지 마셔요. 즐거움에 투자하시라구요.”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 한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대동아 전쟁에, 한국전쟁에, 굶은 세월을 모두 겪고 살아왔는데, 일하느라 돌봐주지 못한 자식들은 스스로 잘 자라 제 몫을 하고 가난을 면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아직 몸으로 큰 병이 없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며 만족해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끝냈다.

채록에서 확인된 마을의 민속

1. 산골 마을에서는 좋은 나물이 흔하여 여러 가지를 채집하지 않고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뜯어 먹는다.
2. 덕학리에는 논이 적지만 산 계곡의 물이 좋아 시집온 후 한 번도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다.
3. 친정어머니는 남자만큼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웠고 누워서도 책을 읽으셨다.
4. 쌀 빛이 1년 50%의 장리변으로 거래될 때에도 쌀 계의 이자는 싼 편이었다.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일제의 처녀 공출 때문에



이 정 인 (1927년생)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927년생으로 올해 94세인 이정인 씨는 일제의 만행으로 인생이 바뀐 산 증인이다. 1943년, 정신대에 끌려가는 여인들의 현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일본놈들의 섹시 공출에 딸을 빼앗길 수 없다.’며 일찍 결혼 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골 마을로 시집왔다. 그때 나이 고작 17세였다.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가는 당시의 풍습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혼례를 서둘렀다. 치매로 친정의 고향 마을조차 경기도 평택의 어느 고을에 살았다고 기억하는 그녀는 서둘러 산골 마을로 시집을 왔다. 아버지는 결혼을 서두르는 와중에도 평택에 나가 장롱 2개를 맞췄다. 그리고 장롱과 이불 등의 혼수를 트럭에 싣고, 그 트럭에 그녀를 태우고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상정안 주막 앞까지 내려왔다.

상정안에서 시댁까지는 그리 먼 길이 아님에도 아버지는 주막을 잡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 비싼 돈을 주고 꽃가마를 빌리고 장정을 얻었다. 가마에는 신부인 이정인 씨를 태우고 그 뒤로 장롱과 이불 등의 혼수를 지게에 지고 따르게 하였다. 사랑하는 딸의 혼인이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신부가 온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한 것이 분명했다. 그 일로 그녀는 서울에서 시집온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다 한다.

얼마나 서두른 혼인인지 그렇게 시댁에 왔는데 혼례식은 치르지 못했다. 약속은 되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열일곱 살 어린 딸을 시댁에 남

겨두고 혼인날을 잡고는 올라가 버렸다. 얼마 후 정작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는 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내려왔다.

딸을 정신대에 내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노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혼인이었지만, 정작 채록에 응하는 이정인 씨는 정신대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다. ‘색시 공출’로 알고 있다.

시택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중간 정도의 집안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만행은 공주시에서 가장 늦게 전기가 들어간 산골 마을 가정 살림까지 흔들었다. 시집온 집에는 이미 쇠붙이란 쇠붙이는 거의 전부 공출로 빼앗겼다. 수저가 없어서 나무로 수저를 깎아서 사용했고 양재기까지 빼앗아 가버렸으니 술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 정도였다.

이 어려움은 광복 후에도 이어졌다. 손위 시아주버니가 남양군도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9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에는 죽었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동서가 집을 나간 후였다. 딸 하나를 시택에 두고 나가 그녀가 키워야 했는데, 시아주버니는 건강을 잃어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했다. 징용 후유증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여 경제력이 없는 시아주버니를 늦게까지 모셔야 했던 것이다. 시부모와 시아주버니, 그의 딸까지 한 집에서 살아야 했다.

이정인 씨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시집 살림을 한 것은 불과 2년 반 정도다. 더구나 할머니는 지금 고령으로 정신이 흐려져 죽은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향 마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시절에 해 먹은 약식은 만드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놈덜이 농사지른 공출로 죄다 뺏아가니께, 가을이두 끼니가 몹쓸.”

더구나 봄철, 이른바 보릿고개에는 말할 수도 없었다. 보리가 노래지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풋보리를 베어다가 맷돌에 갈아 ‘갈밥’을 지어 먹어야 했다. 봄에 나는 쑥도 중요한 식량이었다. 쑥을 뜯어다가 삶아 건져 낸 것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섞어 찌서 반찬도 없이 먹어야 했다. 그나마 콩을 볶아 맷돌에 간 가루로 떡처럼 만들어 먹는 것은 먹을 만 했다.

그녀가 사는 동네의 마을 뒷산은 무성산이다. 조선조 큰 산적이었던 홍길동의 본거지가

있었던 산으로 유명한 산이다. 그런데 이 깊은 산에 나는 나뭇잎이 궁핍했던 봄철을 넘기는데 큰 식량이었기에 죽지 않고 살았다 한다.

“독한 세월이라서 썩은 뿌링이두 안 냉겼어.”

시집살이는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잘 해주셔서 시집살이는 모르고 살았다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살림이 조금씩 좋아졌다. 시숙이 있었지만 징용의 후유증으로 살림을 하지 않아 큰집(시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동네 사랑방으로 분가를 하였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내 땅 3마지기(600평)를 사기도 했다.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별도로 글방(서당)에 보내 3년 동안 수학하게 했으며, 1980년에는 결혼한 후 37년 만에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현재의 집도 지었다.

자식 농사도 잘 일구었다. 3남 4녀 모두 잘 자랐다. 큰딸은 홍성에 살고, 둘째 딸은 논산에 살고, 셋째와 막내는 서울에 사는데, 셋째 딸은 아주 부자란다.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자랑한다. 증손자를 보아 첫돌을 지냈단다. 함께 사는 손자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만 하는 것만 안타깝다 했다. 자기를 모시고 사는 아들 이상원과 며느리는 효자요 효부니 더 바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어린아이처럼 밝은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런디 큰아들하구 작은아들을 흥한 병으로 앞세웠어.”

얼마나 어려웠는지 두 아들이 언제쯤 그렇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해서 자신은 나무 동이는 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앞선 두 아들의 손자 손녀들이 세상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죽은 아들 생각에 어려워 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질문을 하여 밝게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엔 두 아들로 돌아간다.

“할머니 소원이 뭐여? 앞으로 바라시는 거?”

채록을 끝내기 위해 던진 마지막 질문조차 대답은 앞선 두 아들 대한 것이었다.

“소원은 무슨... 그저 아들 며느리 손자덜 다 근강하고 내나 자는 듯이 갔으면(죽으면) 하능기지 뭐. 조용히 가야 하. (그러지 못하면) 저 늙은이, 자식은 먼저 갔는디 저르키 하네, 하구 손가락질할 테니께.”

이정인 씨의 음식 만드는 법

1. 갈밥(풋보리밥) : ① 풋보리를 베어 옴. ② 조심스럽게 털어 깨끗이 함. ③ 맷돌에 거칠게 감. ④ 체로 쳐 껍데기를 골라 냄. ⑤ 가루로 밥을 지음. (보리쌀은 삶아 밥을 짓는데 갈밥은 한 번에 지음)
2. 썩 멍치 : ① 썩을 뜯어 옴. ② 깨끗이 고름. ③ 삶아 건짐. ④ 쌀가루 혹은 밀가루를 버무림 ⑤ 솥에 채반을 걸어 수증기로 찜. (대부분 반찬 없이 먹었음)
3. 콩떡 : ① 콩을 솥에 볶음. ② 맷돌로 곱게 감. ③ 가루를 체로 친. ④ 반죽을 하여 떡의 모양으로 만듦. ⑤ 솥에 채반을 걸어 수증기로 찜. (여유가 있어 팔고물을 만들어 인절미처럼 입혀 먹으면 더 맛있음)
4. 수수망세기(수수팥떡) : ① 수수를 말림. ② 절구에 찌어 고운 가루로 만듦. ③ 솥에 채반을 걸어 수증기로 찜. ④ 팥으로 가루를 만듦 (설탕이나 사카린을 넣어 맛을 냈음) ⑤ 인절미처럼 썬 수수를 덩이로 자름 ⑥ 팥고물을 묻힘.
5. 송기떡 : ①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만 모음. ② 단지 물에 담가 독기를 뺌 (6-7일 정도) ③ 절구에 찜. ④ 솥에 채반을 걸어 수증기로 찜.
6. 두부지짐이 : 두부 부침이를 할 때 산초 기름을 사용한 것은 언제나 맛있게 먹었음.

마을 고사

1. 뒤 서낭 고사 : 마을 뒤 서낭에 서낭나무가 있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 새벽 4시에 서낭제를 올렸음
2. 동구나무 고사 : 뒤 서낭 고사 후 마을 앞 동구나무에서 매년 고사를 지냈음.
3. 기우제 : 무성산에 물이 좋아 아무리 가물어도 기우제는 지내지 않았음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한국전쟁, 피난골에서 생긴 일



최중순 (1934년생)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는 조선조 최고의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십승지지 중 최고의 고장으로 꼽혔던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에서 생명을 보존할 길지 열 곳을 기록한 것이 십승지지다. 정감록의 예언 중 병자호란 등의 난리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십승지지의 첫 번째인 공주 구마양수지간(鳩摩兩水之間) 즉, 공주시 유구읍과 마곡사의 두 물줄기가 흐르는 사이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유구읍 동해리는 이 기록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몸을 숨겨 편안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모여들어 마을이 커졌다. 1930년대에는 70여 호에 불과했던 마을이 일제 강점기 말부터 380여 호로 늘었다.

1934년생인 최중순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가서 87년의 세월을 동해동에서 살았다. 공주시에는 같은 마을 안에서의 혼인을 금기시한다. 같은 마을은 고사하고 이웃 마을의 혼인조차 ‘근동혼(近洞婚)’이라 하여 꺼리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동해동은 그렇지 않았다. 정감록의 십승지지일 뿐 아니라 “열두 골에서 내린 물이 마을 어귀에서 합수하는 명당”이라 말하기 때문에 천하의 명당 마을이라는 믿음이 강했다.

이런 이유에서 동해동은 자식들을 동네 혼인을 시켜서라도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풍토가 있었다. 그리고 최중순 씨의 친정아버지는 아들 셋에 딸 둘인 집안의 장녀였던 중순을 외지로 시집보낼 마음이 없었

다. 결국, 그녀는 열아홉 살에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같은 마을 임한길과 혼인하였다. 그것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2년의 일이다.

신랑 임한길의 가문 역시 난리를 피해 전라도에서 이주해온 집안이었다. 그렇다보니 살림이 궁했다. 살림만 궁한 것이 아니라 모셔야 하는 시부모가 네 분이였다. 그 마을에 시아버지 형제분이 살았는데 시아버지의 형님이 자손을 두지 못했고, 시아버지 역시 외아들 밖에 두지 못했다. ‘양반 가문으로 종가에 손을 이어야 한다.’하여 남편은 족보상으로 양자를 갖는데 생부모 역시 자손이 없어 두 부모를 모셔야 하는 형편이었다.

생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양 시부모는 앞집에 살았다. 시부모의 상을 차려 드리고 나면 양 시부모의 상을 차려야 하고 그다음 자식들을 먹인 후에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고된 삶이 예상되는 집이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 혼례를 서두른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늘 골골하시니까 제사상 받기 전이 메느리 손에 밥이래두 으더 먹고 가게 한 다구 나를 일찍 데리구 온 겨. 그런디 나한테 밥 으더 잡수시구는 여든 냉겨 잘 살다가 그 짓말처럼 편히 들어 가셨어.”

어려운 살림에 시집살이를 했을 법도 한데 그녀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

“시집살이는 안했어. 시어머니가 편찮아서 시집오면서부터 살림을 해야 했으니까. 집안일을 내 주장으로 하니까, 남이 시킨 시집살이는 안 했지.”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당 훈장이었던 양 시아버지와 적지만 농사치가 좀 있어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동해동도 참으로 어려웠다. 전쟁이 난 직후 인민군들을 피해 수 없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열두 계곡의 산속에 숨어 지냈다. 인원이 백여 명이 넘는 수였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후 인민군이 퇴각하는 길에 동해동이 포함되었다 한다.

새벽이면 꾸역꾸역 들어온 인민군들이 낮에는 농가에 나누어 쉬고 밤에 떠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일 가까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퇴각하는 인민군 중에 부상병들을 마을에 두고 가는 것이었다. 역시 정감록 때문이었다. ‘이 동네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한다.’하니 함께 퇴각하기 어려운 부상병들을 두고 갔다는 것이다.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그 사람덜이 마을이 쌓이니께 남자분덜이 회의를 했디야. 어티기 할 것인가 하구.”

그리고 그 회의에서 피난민과 환자 인민군들 모두를 살리자는 결정을 내렸다 한다. 한 집에 많게는 일곱 명이나 부상병을 받았고 적게는 한두 명을 맡아 먹이고 입히고 의술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밖에 출입을 줄였고 젊은 여인들은 울안에만 있도록 한 것도 마을 어른들의 결정이었다.

“츄이는 다친 인민군덜 모르게 지게질하느라구 쉬쉬했는디, 나중이는 서루 아닝께 인민군들도 모르는 척해주구 그랬어. 그 사람덜두 사람이더라구.”

그리고 하루 두 번, 장정들과 남자들이 산속에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어 지게로 날라 먹였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조용해져 피난민이 돌아가고 다친 곳을 치료한 인민군들도 떠났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인민군들 중에 남쪽에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을 대소사에 찾아와 정을 나누는 사람도 있다 한다.

전쟁 후 할머니는 살림에 몰두했다. 양 시부모와 시부모만이 아니라 시누가 셋이나 있었기에 시집 식구들의 치다꺼리로 세월을 보냈다. 더구나 두 집안의 제사만 해도 여럿이었다. 양자를 간 집인데도 종가라서 제사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시댁의 4촌 6촌들이 많아서 언제나 많은 음식을 해야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마을에서 특수 작목으로 농사지었던 고랭지 수박과 씨감자 생산 등의 돈벌이도 쉴 새 없었다. 겨울이면 양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에 방이 짝 차도록 모여 공부하는 학동들에게 고구마에 동치미라도 간식을 준비해야 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 다행히 아들 다섯은 스스로 커 주었다.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을에 침놓는 사람이 와서 살다시피 했고, 읍내 약국을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아들 다섯은 병원이나 약 한 봉지 안 먹고 잘 자라 주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보낸 시아버지는 밍지만, 오빠는 아직도 여동생이 고생한다고 한 해에 한약 한 제를 빠지지 않고 지어 보내고, 아들들이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주고, 막내아들은 이웃에서 살뜰히 챙겨주니 지금은 더 바라는 것이 없다 한다.

“남편 살어서는 유기장이 한 번두 안나가구 살었어. 그만하믄 됐지 뭐.”

사십리 먼 길의 5일 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살아온 산골 할머니의 오늘 생활은 생기가 넘쳤다.

최중순 씨의 민속에 대한 이야기

1. 감자 수제비 : ① 밀가루 반죽해 놓고. ② 솥에 감자를 썰어 넣고 먼저 끓인 후 ③ 수제비를 떠 넣고 끓임. ④ 애호박 패로 고명을 얹어 먹음
2. 산골 마을에서는 나물을 여러 가지 뜨지 않음 : 더덕순, 취나물, 두릅 등 맛있는 나물만 뜬어 먹고 살았음
3. 동해동 산신제 : 음력 10월 초3일의 마을 고사, 소를 잡았음. 소를 잡으면 뼈와 좋은 살은 방문한 출향 인사들에게 팔았음. 내장과 기타 부산물 등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이 조리해 먹었음
4. 동해동의 합동 세배 : 정월 초사흘 마을회관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세배를 함.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나 한해도 거르지 않았음.
5. 길쌈 : 목화나 삼베 모두 어머니와 시어머니 대에서는 하였으나 중순은 하지 않았음
6. 양젓물 빨래 : ① 꽤대나 콩 짚을 태움. ② 동이 위에 깨끗한 채반에 놓고 재를 올려 놓고 위에서 물을 부어 동이에 받음. ③ 동이 물에 며칠을 우려 냄. ④ 뜨거운 물로 헹귀 냄. (3-4일을 반복한 후) ⑤ 빨래 후 말림 ⑥ 풀을 먹임 ⑦ 바느질을 하여 입힘
7. 자신만의 음식 비결 : 산초 들깨 기름. 산초 열매와 들깨를 반씩 섞어 기름을 짜면 참기름보다 맛이 있음. 특히 물고기나 가제 등의 매운탕 조리 시 넣으면 비린내를 없애 줌.
8. 동해동의 소이 : 마을에 주막을 운영하며 도살을 하고 가마를 메는 사람들이 있었음.
9. 기우제 : 산에 물이 좋아 아무리 가물어도 기우제는 지내지 않았음.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길쌈 이야기



최영희 (1938년생)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연종리는 조선조 최고의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십승지지 중 최고의 고장으로 꼽혔던 마을이다. 이른바 공주인들에게는 친숙한 구마양수지간(鳩摩兩水之間) 즉 공주시 유구읍과 마곡사의 두 물줄기가 흐르는 사이가 십승지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세 마을이 있으니 동해동과 연종리와 구계리 중 한 마을이다.

최영희 씨는 1938년 연종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십승지지의 좋은 땅 밖으로 시집보내기 싫어하여 마을 혼인을 하였으니 평생을 이 마을에서만 사는 여인이다. 아버지 최승덕은 6남 5녀, 11남매를 둔 가장이었으며 서당공부를 한 인물이라서 일제 강점기부터 오래도록 마을의 이장을 보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집안이 가난하지 않아서 공기놀이, 사방치기, 보리웃, 풍감웃 놀이 등을 즐기며 살았다. 아버지가 ‘여자도 배워서 손해 볼 건 없다’며 학교를 보내주어 학교도 가보았다. 그런데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남자아이들이 그녀가 신고 온 짚신을 가지고 심하게 놀렸다. 어린 영희는 그 일에 상처를 받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후 이장인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방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시작했지만, 짚신으로 상처를 입은 어린 영희는 그조차 따르지 않았다.

“공부하는 게 싫어서 어머니가 하는 삼 삼는 일만 했어. 아버지두 일하구 있으믄 학교 가라구 하시지

않으시니까 일만 했지 뭐.”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길쌈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목화 농사를 지어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명 길쌈, 모시 줄기의 껍질을 벗겨 실을 만들어 삼베를 짜는 삼베 길쌈,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명주 길쌈을 모두 잘했다.

어머니 대에는 이 3종을 모두 하였는데, 친정어머니는 시집가면 평생 지겹게 할 일을 처녀 때부터 할 필요 없다고 하시며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었던 최영희 씨는 삼베 길쌈의 삼 삼는 작업을 배우기를 고집했다.

“일이 엄청이 많아. 베를 찌다가 잎사귀를 훑터서, 줄기를 들이다가 구덩이를 파구, 삼줄기를 세우구, 흙을 묻구는, 돌로 높은 위에 불을 놔. 그리구 돌이 달귀지면 물을 부어”

이렇게 시작하면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찌서 물에 담귀 두었다가 방망이로 두드려 빨았다. 비로소 줄기가 실이 되면 가늘게 쪼개어 뭉치를 만들어 널어 말리고, 삶아 다시 빨기를 반복해야 색이 나고, 줄기 길이의 짧은 실을 이어 붙여 풀을 메겨야 베틀에 올라가는 실이 되는 것이다.

“명주 길쌈은 안 했어. 끝내 어머니가 못하게 하셔서. 구경만 했ندي 시집가서도 안했어.”

그뿐 아니라 혼인 후 시어머니가 삼베 길쌈을 하지 않는 분이어서 평생 길쌈에서 멀어졌다.

한국전쟁을 치른 아버지는 전쟁통에 혼인이 늦어진 언니와 최영희 씨를 연이어 혼인시켰다. 그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보약이였는지 쾌차하여 93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생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며느리 잘 만나서 명을 이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와 술에 취하면 며느리 자랑만 하는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녀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시댁살이를 했다. 20세부터 4남 2녀, 6남매를 연이어 얻었으니 독자인 남편에게도 체면 빠질 일이 없었다. 군에서 제대한 남편은 25세부터 소를 먹이기 시작하여 돈을 모았고 천안에 주택을 매입할 정도 재력도 돈독해졌다.

집안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었기에 1998년에 마을의 부녀회장 일을 보기 시작했다. 농사와 가정에서만 일했던 최영희 씨에게 부녀회장 일은 참으로 새로운 세계였다. 1년에 한 번은 놀러 가고, 화단에 꽃을 심는 봉사활동이며, 유구 노

인잔치에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나가 함께하는 시간들, 각종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교육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남편이 적극 도왔기에 그 후로 10년 동안 마을의 부녀회장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디 인저는 우리 큰 며느리가 부녀 회장이여. 대를 이었어.”

연로한 부모를 모시겠다고 큰아들이 귀향하여 펜션을 운영하는데, 그 며느리가 마을 부녀회장이란다.

“겨우 개울 하나 건너서 시집을 와서 평생을 살어. 그런데 새집을 지었구, 천안이다 집두 사구, 그거 팔어다가 지금 이 집두 지었어. 남편두 마을 이장으로 뽑혔는디 자기는 집안일을 해야 것다면서 한 번하구는 내 났어. 그런디 자식덜이 다 장성해서 제 몫하구 사닝께 이만하면 잘 살었지 뭐.”

한가지 서운한 것이 있단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일이다. 논 25마지기(5,000평)에 밭농사를 짓다 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며느리가 끓여 주는 누룽지 죽은 먹겼는디...’하셨다는 것이다. 누룽지 죽을 몇 번밖에 끓여 드리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후 내 내 누룽지 죽이 마음에 걸린다 했다.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땅을 샀을 때, 자손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았을 때, 잘 자라는 손자 손녀를 볼 때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가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고 한다. ‘니 복으로 내 명을 이었다.’라는 말이 시어머니의 입버릇이 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으니, 남들 보기에 이만한 효부가 없는데도 누룽지 죽만 생각하면 죄스럽고 마음이 찡하다고 한다.

“나는 젊은 사람덜한티(자식, 손자를 이룸) 여러 말 안햐. 우리는 우리 대로 살구 젊은이덜은 젊은이덜 대루 살아야 하닝께, 니 법대루 살아라. 그라지.”

공주 최고로 깊은 산골 중에 한 마을에서만 살아온 최영희 할머니는 나이와 달리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꾸고 있다.

최영희 씨의 민속 이야기

1. 솜바지 저고리 짓는 과정 : ①목화 농사를 지어 목화를 따오면 ② 씨를 빼고 ③ 활대에 솜을 얇고 부드럽게 펴. ④ 자리를 펴고 핀 목화를 발려두었다가 ⑤ 바지, 저고리의 본 위에 펴 놓고 ⑥ 바느질을 한 후 ⑦ 새벽이슬을 맞혀서 ⑧ 다리미질을 함 (저고리는 동정과 옷고름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 함)
2. 잣물 빨래의 : ① 벗짚이나 콩짚을 태운 재를 모아 ② 채반 위에 재를 놓고 아래에 동이를 두고 위에서 물을 부어 잣물을 받음 ③ 잣물에 빨래감을 3-4회 빨아 말려서. ④ 풀을 먹이고 말린 후 ⑤ 다듬이질로 천을 편 후 ⑥ 바느질을 하고 ⑦ 새벽이슬을 맞혀서 ⑧ 다리미질을 함 (저고리는 동정과 옷고름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 함)
3. 옷감 물들이기
 - 1) 빨강은 물감을 사다 하였음
 - 2) 노랑 : 치자 잎. 없으면 물감을 사왔음
 - 3) 까만색 : 도토리 (도토리를 절구에 빻아 시루에 담아 놓고 위에서 물을 부어 받은 물로 반복해서 빨면 까만 물이 됨.)
 - 4) 검정색 : 숯검딩이를 모아 양잿물에 삶아서 물을 들였음
4. 콩죽 : ① 콩을 물에 담가 불린 후 ② 멧돌에 곱게 갈아 ③ 쌀이나 밀가루를 넣고 죽을 씌. (생활이 넉넉해 진 후 콩죽을 쑤고 갈국수를 끓여 먹는 것이 참으로 맛있었음)
5. 기우제 : 여인들만 지내는 기우제를 올렸음(평범함)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친정보다 편했던 시댁살이



황 갑 숙 (1930년생)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황갑숙 씨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에서 1930년 태어났다. 용정리는 산골 마을이었고 친정은 어려서부터 밭농사와 길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소녀 시절에도 동무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은 없고 매일 어머니와 함께 일만했다. 그렇게 살다가 20세에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로 시집을 왔다.

친정에서 혼례식을 치렀지만 첫날밤도 치루지 못하고 가마를 타야 했다. 집안에 신방을 치를 방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안에서 시댁은 하룻길이었기 때문에 시댁으로 와서 첫날밤을 치러야 했다.

“가마타구 오다가 절반은 걸어왔어.”

천안의 풍세에서 사곡의 부곡리로 오는 길은 매우 험한 산길이다. 천안의 광덕산을 넘고 공주 최고 산골 마을인 동해동을 거쳐야 부곡으로 올 수 있었다. 길이 험하면 가마꾼들이 가마에서 내려 걸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그를 따랐다.

남편은 동갑으로 집안의 장남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제외하고 아홉이었는데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생존해있었고 시부모 역시 한집안에 함께 살아야 했다. 그러나 증증시하에서도 시집살이로 고생한 기억은 없다.

“일은 많이 했어도 사람 시집살이는 안했어. 내가 일을 잘 했거든. 친정에서 길쌈하는 걸 다 배워서 나는 잘하는데 동새덜이 못하구 올케들이 못해닝께 그랬는지 시집살이는 안 시켰어. 일이 어려웠지.”

시집오던 해 여름. 6·25가 터졌다. 인민군들이 남진

할 때는 그들을 본 기억이 없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하여 마을이 뒤숭숭했다. 논밭의 곡식을 조사하는데 벼 포기를 세고 벼 낱알을 센다고 하였다. 마을에 흥흥한 기운이 감돌자 남편과 시부모는 외부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새댤을 감추는 일에 온 힘을 써서 어려운 일은 겪지 않았다. 멀리서 포성이 들리고 비행기가 오가는데 그게 공주 금강 다리를 끊으려는 포격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겪는 일은 아니었다.

전쟁통에 뒤숭숭한 가운데도 할 일은 끝이 없었다.

“동네에 디딜방아가 두 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방아를 찧지 못하니까, 집에서 도구질(절구질)로 삼시 세끼 밥을 이어야 했어. 집에서두 쉴 짬이 읊췌지.”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고 이른 콩 마당질을 할 때였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산속으로 숨고 노약자들과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는 마을에 온통 인민군들이 몰려들었다. 나중에야 인민군들이 퇴각하는 길에 마을을 지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마을 앞 외딴집 나무 청에 몸을 숨겼다. 그 바람에 남은 식구들은 모두 그녀가 감당해야 했다.

인민군들이 새벽에 들어와 낮에는 집 안에 숨어 있고 밤에 다시 떠나는 일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힘하게는 안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진 않았는데, 집이 와 있는 사람덜 먹여 보내야 하니까 어려웠지.”

인민군들은 특히 옷을 바꿔 입으려고 애를 썼다. 인민군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군복을 벗어 놓고 집안의 남자들 옷으로 바꿔입고 넘어가려는 속셈이었다. 다행히 마을에서 인민군들이 넘어갈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집온 지 반년 조금 넘긴 때에 시집에 적응하는 것보다 전쟁을 겪어내는 일이 더 어려웠다.

당시만 해도 부곡리의 산 계곡을 흐르는 물은 무척 맑았다. 마을에 작은 우물이 몇 개 있었지만 부곡리 사람들 상당수는 마을 앞 냇물을 길어다 먹고 살았다. 날이 밝으면 냇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었다.

“집안이 그냥저냥 살만해서 죽은 안 췌 먹구 살었지만, 절구질은 힘들어. 쌀하구 보리는 디딜방아에다 찧는디 다른 건 죄다 절구질했어. 보리두 껍디기는 디딜방아루 찧지만 밥할

때 찢는 건 안되니까 절구에 넣구 갈어야 되는 거.”

보리쌀로 밥을 짓도록 절구질을 하면 보리가 가루가 되어 버리는 것이 많아 확이라는 작은 돌절구에 넣고 둥근 돌로 갈아야 했다. 그나마 마을에 디딜방아도 아랫말이 하나 윗말에 하나 두 개밖에 없었다. 한참 후에야 동해동에 현대식 발동기 방앗간이 생겼고 또 한참 후에야 부곡리에 발동기 방앗간이 생기면서 절구질을 면할 수 있었다.

밥 짓는 일뿐만 아니라 삼농사를 지어 삼베를 짜고 목화 농사를 지어 명 길쌈을 해야 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는 남편이 담배 농사를 시작해서 담배 조리도 해야 했다. 남편은 건조실을 지어 석탄을 지퍼 담배를 말렸지만, 건조실을 지을 여력이 없었던 남편은 노천에서 담배를 말렸다. 담배 농사를 많이 하는 집에서는 동네 처녀 일꾼을 얻어 ‘담배 조리’를 했지만 그녀의 집은 그럴 여력이 없어 모든 일을 가족들이 했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그런 중에도 봄이면 산에 올라 취, 명취, 개갑취, 고추냉이, 띠깁순 등의 나물을 채취하여 반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버섯은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어서 마을 뒷산을 누비며 능이버섯을 채취하여 장에 내다 팔았고 한동안 표고버섯 농사도 지었다. 그야말로 인생이 곧 일인 생활이었다.

결혼 후 황갑숙 씨는 내리 딸 넷을 낳았다.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시부모에게 한 없이 미안한 일이었다.

“그런디 시아버지나 애 아버지는 싫은 내색을 한번두 안했어. 속이루는 싫으셨을 텐디 아들은 담이 낳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께 얼마나 고마워.”

“다섯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정말 좋으셨겠네요?”

“집안 경사였지 뭐. 그라구는 아들만 셋을 낳쓰니까, 나두 내 할 일은 한 거여.”

일은 많았어도 사람으로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딸 넷을 연달아 낳았어도 싫은 내색을 한 어른이 없었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렸다.

남편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댁시절부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마웠는지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한 기억이 없다 한다.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고생 안하시구 돌아가셨으니께 시집

살이는 안한 거여.”

시조부모는 80살 넘어서 두 분 모두 일주일 정도 앓다가 조용히 돌아가셨고 시부모 역시 대소변을 받아내거나 음식을 먹여주는 병구완을 받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셨다 한다.

큰아들이 손자를 얻은 해에 남편은 살림을 정리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어 주더니 70을 넘기고 시부모처럼 조용히 돌아가셨다.

“나는 사람 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여. 으른덜이 그르키 떠나시구, 애덜 7남매 아직은 앞세운 자식 읍구, 손자덜두 잘 커서 다 자리 잡었으니까. 이만하믄 사람 복은 타구 난 거여.”

코로나 19 때문에 자식들과 손자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만 아쉽다는 황갑숙 씨는 자기가 복 많은 사람, 그중에서도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추억했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 일만하다가 마을 부녀회에서 보내주는 단체 관광으로 처음 구경을 시작했으며,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자기를 데리고 구경을 다녔다. 이제는 힘이 들어서 자식들이 여행 가자해도 못 간다는 황갑숙 씨의 인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위안을 만들며 살아온 빛나는 세월이었다.

마을의 민속이야기

- 1) 기우제는 지낸 기억 없음.
- 2) 마을 두레에 마을 아낙네들이 밥을 해다 주지 않고 집에 와서 먹고 나갔음.
- 3) 1년에 봄가을에 지내는 산신제가 있었음.
- 4) 마을에 약초 채취를 주업으로 삼은 약초꾼들이 있었음.
- 5) 5장은 유구장과 공주장을 보았으며 모두 50리길이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음.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20식구의 대가족 큰 며느리



임명옥 (1931년생)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공주시 계룡산 자락의 산골 마을 계룡면 구왕리에 살고 있는 임명옥 씨는 1931년생이다. 우리 나이로 91세인데도 마치 소녀처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다. 임명옥 씨는 계룡산의 북쪽 자락인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 태어나 산 고개 하나를 넘어 구왕리로 시집와서 평생을 살았다. 친정아버지 임정재는 상신리에서 대대로 살아온 가문에 3남 5녀를 두고 넉넉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야 할 무렵부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그녀 나이 12살에 사망하면서 임명옥 씨의 소녀 시절은 온통 집안일뿐인 세월이 되어 버렸다. 당시 마을에 하나뿐인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아들딸들에게 농사일을 시켰다. 더구나 밭이 많았다.

“친정이라면 밭일 배우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 뿐여.”

세월이 흘러 큰 오빠가 결혼했다. 올케가 들어오면 살림은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친정에서 귀하게 자란 올케는 산골 살림을 하지 못했다. 누에를 키워 짜는 명주 길쌈이나 목화 농사를 지어 짜는 명길쌈, 삼을 키워 짜는 삼베 길쌈 어느 것도 하지 못했으며, 여인네들의 생활이었던 방아질이나 물을 길는 일도 잘 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큰 올케의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을 해주었어. 자기 딸 일을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구.” 스물한 살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은 대가족이었다.

시아버지는 조강지처를 잃고 서 시어머니와 살았는데 자손이 12명이었고 손위 동서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분가를 하지 않아 한집에 살고 있었다. 마을 이장을 보았고 자식 욕심이 많았던 시아버지는 가족을 관리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 덕에 첫째 부인의 자식 5명과 둘째 부인의 자식 7명이 한집에 살았지만 사람 간에 갈등은 많지 않았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다. 안채와 사랑채에 방이 5개였고 별채가 따로 있어서 20명이 한집에 살아도 방이 비좁지는 않았다. 한 끼에 보리쌀이든 쌀이든 3되를 내어 밥을 지어야 했고 절구질을 많이 했지만, 인근에 가난한 친척 아낙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일을 거드는 사람이 많았으니 일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서 시어머니와 두 동서, 그리고 그녀까지 한해에 자식을 넷이나 얻어 20명의 식구를 채우고 나니 어린아이들끼리 싸움을 해대서 집안이 조용하지 못했다.

“시아버님이 이장을 보니까 면서기가 출장을 와서 밥을 먹으면 스물한 식구여. 여름이두 푸작나무를 때서 밥을 해야 하는데, 찬밥 한 끼 못 올리구, 매 끼니 불 때서 밥을 지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베틀이 얹어 있는 게 쉬는 거였어.”

두 동서는 길쌈에 서툴렀다. 베틀에는 앉지 못했고 길쌈의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삼베 길쌈을 주로 했다. 목화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명 길쌈은 그녀의 목이었다. 식구가 많아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길쌈을 할 때는 다른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가장 마음이 편했다 한다.

그녀는 결혼 후 연이어 딸을 넷을 낳았다. 식구가 많으니 아들을 못 낳는다는 구박은 없었으나 부부는 걱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그만그만하게 얻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싸움이 잦아 졌다. 아이들 싸움으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회갑 잔치를 열어 드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분가를 하고 싶다하였고, 시아버지가 받아들여 딸 둘을 데리고 분가하였다.

“어디루 이사 갈지를 알아보는데 아랫마을 부평이 빈집이 있다구 해서 가 봤는데, 집이 맘이 안 들어서 한 동네 빈집 옷방으로 제금을 냈어.”

평상시에는 남편이 정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사 갈 집은 그녀가 주장하여 빈집의 옷방으로 분가를 했다. 비록 여름에 누워있으면 구렁이가 기둥을 타고 다니고 장마에는 비가 새

는 집인데도 그 집이 좋았다.

시아버지는 장남이라 하여 논 두 마지기, 밭 서 마지기를 주었다. 빈집의 옷방 살림은 5년 동안 했다. 그동안 딸 둘을 더 얻어 넷이 되었다. 그동안 부부는 억척으로 살았다. 동네 부자였던 시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서 그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악식을 했다. 앵두 보리밥, 풋보리 죽, 옥수수 개떡 같은 것을 먹었고 여름에는 열무김치로, 가을 겨울에는 김장김치로 살았다. 그렇게 옷방 살이 5년 동안 억척으로 돈을 모으고 시아버지가 도와주어 아랫동네에 빈집 중 목재가 좋은 집을 사서 그대로 옮겨 새집을 지었다. 방 세 칸의 부엌 한 칸의 넓은 집이었다. 그리고 새집에서 바라던 아들을 얻었다.

“새 집이서 아들을 낳으니까 집터를 잘 잡아서 그렇다구, 시아버지가 동네잔치를 열었지.”

남편 양승모도 마을 이장이 되었다. 시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마을 이장을 보았고, 시아버지도 한국전쟁 후 10년 동안 이장을 보았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이장을 한 것이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일에는 언제나 발 벗고 나서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집안일이나 농사일에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아들딸 다섯이 한꺼번에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공주 시내에 자취를 시켜야 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이때도 남편은 밖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읍내에 사는 사돈이 자기 집에 노는 방이 있으니 방세 주지 말고 아이들을 보내라 하여 딸들은 그 집에 묵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꺼번에 다섯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다. 끝까지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아들딸 중 하나도 대학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란다.

가까이 사는 딸이든 멀리 사는 아들이든 자녀들이 자주 어머니 혼자 사는 집안을 출입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적막강산이었다 한다. 자녀들은 90세 넘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혹여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걱정되어 돈을 모아 집안에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하였다.

“마당 앞에 텃밭이서 일을 해도 안 보이면 걱정을 하더니 인저는 텃밭도 보이게 했디야.”

그녀는 자손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동네 경로당도 못나가면 어떻게 사느냐면서 농사가 운동이라 했다.

“내가 생각은 있어도 말은 다하지 못하구 사능 게 인생이니께. 자식덜두 건강하구 남들한테 칭찬받구 살었으면 하는 게 전부지 뭐.”

스스로 복 많은 할망구가 되어 산다는 임명옥 씨는 하나하나 자식 자랑으로 채록을 끝냈다. 채록을 시작하고 30분이 안되어 CC 화면을 확인한 자녀들이 전화로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모습에서 현대적인 효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임명옥 씨의 음식 이야기

1. 각종 산나물 무침 : ① 삶아서 ② 찬물에 식힘 ③ 일부 독성이 있는 나물은 물에 오래 담금. ④ 건져 내 물을 짜내고 ⑤ 먹기 편한 크기로 칼질을 한 후 ⑥ 간장, 들기름, 깨소금, 마늘 지친 것, 정구지, 나물에 다라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등의 양념으로 ⑦ 고르게 무침
2. 참중나무 순 : ① 어린순을 골라 따냄 ② 씻어서 살짝 삶음 ③ 찹쌀 풀을 쑤고. ④ 풀과 통깨 볶은 것을 참중나무 순에 입혀서 ⑤ 기름에 튀겨 먹었음
3. 옷순 : ① 어린순을 골라 따냄 ② 씻어서 살짝 삶아 ③ 간장, 들기름, 깨소금, 마늘 지친 것, 고추장, 식초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찍어 먹었음
4. 앵두보리밥¹⁾ : ① 보리 이삭을 따다가 ② 솔에 찌서 ③ 명석에 넣어 말린 후. ④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 내고 ⑤ 방아를 찧지 않고 가볍게 갈아서 ⑥ 쌀밥을 짓듯 한 번에 밥을 지음
5. 옥수수 개떡 : ① 옥수수 낱알을 따서 ② 바짝 말린 후 ③ 멧돌이 갈아 가루를 만들어. ④ 당원 사카린 등 단 것을 넣어 반죽하고 ⑤ 막걸리나 소다를 넣어 발효시킨 것을 ⑥ 모양을 잡아 찌냄. (개떡이 빵처럼 부풀어 올라 부드러웠으며 저 개떡이나 속개떡보다 맛이 좋았음.)

1) 익어 수확 직전의 보리 소량을 미리 수확하여 짓는 보리밥을 이르는 말. 풋보리는 밥을 짓지 못하고 죽을 쑤어야 하는데 반하여 앵두보리밥은 밥을 지을 수 있는 차이가 있음.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킨 가정



박수봉 (1940년생)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박수봉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견동리의 이웃 마을인 탄천면 운곡리의 부잣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박용수는 머슴을 셋이나 두고 살았던 부자였고 운곡리는 충주 박씨의 세거지였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녀 시절을 보냈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귀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1년 그녀의 나이 12세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어려움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재혼했는데 서모는 그녀보다 10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젊은 여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혼인을 했다. 당연히 그녀와 서모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서모가 아들을 낳으면 서 모든 살림을 장악하였지만 서모가 낳은 배다른 남동생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이른바 백일해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꽃밭이었던 친정 이, 어머니 사후에는 어지러운 일로 가득 찬 집안이 된 것이다.

그녀는 스물한 살에 아랫마을 견동리의 김철수와 혼인하였다. 그해에는 남동생이 죽은 해였다.

“그 집은 일어나는 집이니 관찮을 것이다.”

집안이 어수선한데 서모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딸을 아랫마을에 시집보내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한 말이다. 아버지 이야기만 듣고 혼인하였다. 결혼식은 친정에서 올렸다. 돈이 많았던 친정아버지는 3일 동안 푸짐한 잔치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꽃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갔다. 윗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한 신랑은 결혼

과 함께 큰집 양자 입적을 하게 되어 같이 시댁으로 들어간 것이다. 시할머니가 살아있고 시부모가 계신데, 식구라고는 셋이 전부였다.

신부에게 시댁이 생소한데 신랑마저 시댁을 어색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종이 잡히지 않았다. 더구나 신랑은 결혼 직후부터 밖으로만 나돌았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지고 남들과 노름판에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특히나 나가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었고, 돈만 가지고 나가는 신랑이 되었다.

“죽지나 말구 살어라.”

신혼의 집안에 생기가 없고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당부하곤 했다. 혹시나 절망하여 자살이라도 할까 봐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다.

그녀는 결혼 후 내리 딸을 셋이나 낳았다. 남편은 점점 노름에 빠져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셋째 딸을 낳은 그녀는 건강이 나빠져 시름시름 앓았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마을의 할머니들이 만들어 주는 약을 먹고 침을 맞으며 살아야 했다. 희망도 없이 고달픈 그녀를 살게 한 것은 시아버지의 끝없는 보살핌과 사랑이었다.

“너는 모르는 체하고 살어라.”

남편의 노름 문제로 어려울 때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위로해서 한 말이다. 아들이 어디 노름방에 있다는 것만 알면 쫓아가서 잡아 오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을 떠느리 모르게 하는데 더 정성을 쏟았다. 세 손녀에게도 항상 너덕했다. 딸이라고 서운한 내색도 하지 않았으며 닳대로 얻은 아들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하였다.

자식들이 생겨 성장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야 했는데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남편의 노름 역시 줄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끝없는 보살핌도 친정아버지의 애타는 마음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무슨 병인지 병명도 모르던 그녀의 병은 심장병이었다.

“아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부르더니 그때 돈으로 백만 원을 주시며 대전 큰 병원예를 가보라셔. 그래서 심장병인지 알게 된 거여.”

1970년대, 당시 백만 원이면 마을 논 2천 평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해서 어려운 집에 시집을 보낸 큰딸이 걱정되어 한 것이다.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하였다.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입원하라 하여 입원을 했다.

1964년경 시아버지는 새로 집을 지었다. 있으나만 못한 남편 때문에 홀로 2남 4녀의 아이들을 키우는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며느리를 걱정하며 살아온 시아버지가 사망했다. 며느리 명을 이어 준다는 말에 절에 다니던 걸음을 끊고 탄천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도 했던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인가 마치 죽을 것을 미리 안 사람처럼 며느리를 불러 남에게 빚 준 것들과 재산의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고, ‘느이 남편은 잡아야 한다.’는 유언을 하신 후 7일 정도 고생을 하고는 조용히 떠나셨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남편을 잡기위해 노름판을 찾아갔다. 남편은 ‘나와 살려면 따라오고 헤어지려면 오지 마라’는 단호한 말에 그녀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축사를 지어 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경운기와 트랙터와 모심는 기계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 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로 다른 사람 일을 해주어 돈을 벌기도 했다. 자신의 토지만이 아니라 남의 땅 20마지기를 얻어 지었으며, 산에 발매 허가를 받아 벌목사업을 하기도 했다. 마치 그동안 하지 않은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환갑 넘기면서 소가 70마리 넘게 되었어. 어느 날인가 그 소를 팔아서 큰아들 작은 아들 한티 집을 사주구 차두 바꿔 주더라구.”

아이들이 한 참 공부할 때 집을 비워 머리 좋은 자식들이 대학 공부를 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 못내 서운했던 박수봉 씨는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한다. 마을에서 노인회장을 맡아 일하기도 했던 남편은 마치 자식들에게 묵은 빚을 갚는 것처럼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는 오래 고생하지도 않고 편하게 눈을 감았다.

아들딸은 모두 객지로 나가고 집안에는 다시 시어머니와 둘만 남았다. 어느 날 그녀가 늦모를 심느라 집을 비우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며느리를 불렀다. 누군가 ‘저 양반 아직 멀었네.’할 정도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였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갑자기 자기 목욕을 시켜 달라 하였다. 깨끗이 닦아 드리고 새 옷을 입혀 드렸는데 거짓말처럼 그날을 넘기지 않고 조용히 운명하였다.

박수봉 씨는 지금 아무 여한이 없다 한다. 이런 집안에 결혼시킨 친정아버지가 원망스러웠으나 시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잊어버렸고,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 아직도 심장병약을 먹어야 살아지지만 환갑도 못살 줄 알았는데 80이 넘도록 살아있으니 이제는 마지막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닮아 자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바람이다.

“걸리는 건 큰 딸여.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애한테는 너무 고생을 시켰어. 중학교 다닐 때까지 식구덜 밥 해 먹이구,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냐구 공부두 못했을겨. 이걸 죽어도 못 잊을 거 같어.”

아무 여한은 없어도 잘해주지 못한 자식은 가슴에 멍울로 남아있는 여인의 삶이 느껴지는 마지막 말이였다.

박수봉 씨의 마을 이야기

1. 미암사 절의 전설 : 마을 뒷산에 미암사라는 절이 있었다. 산에 올라가면 마을 앞의 경치가 좋은 곳이 절이 있고 뒷산 정상에 오르면 금강이 아름답게 보여 많은 사람이 찾는 절이었다.

이 절 건물 뒤 바위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굴에서 매일 쌀이 나왔다 한다. 항상 절 식구들만 먹을 적은 양의 쌀이 나왔는데 손님이 왔고, 손님에게 줄 밥을 짓고 싶었던 승려가 망치로 굴을 때렸다. 그런데 그 굴에서 더 나오라는 쌀은 나오지 않고 예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 똥을 짹 깔리고 날아갔다. 그 후에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 한다.

이 절은 마지막 승려가 사망하고 절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비선하는 여인이 비닐 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혼자 부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함.

공주시
산골 할매이야기

500리 길 걸어서 보름만에 갈지(吉地)로 이사를 하고



설 순 화 (1932년생)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설순화 씨는 1932년생으로 90세의 노인이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¹⁾ 병지방리다. 그녀의 친청 아버지²⁾는 정감록에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9명의 많은 식구를 이끌고 정감록이 말한 이른바 십승지지를 찾아 강원도의 모든 살림을 포기하고, 순수히 걸어서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로 이주하였다.

친정아버지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했으며 어머니 김옥순은 정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가족이 많아 고생하였지만, 가난하지 않아 끼니를 걱정한 적이 없는 집안이었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사는 부자인 집안이었다.

일제 강점기지만 부지런한 어머니는 삼베는 물론 누에를 키워 명주 길쌈도 많이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가 누에고치 생산량을 누에씨로 추정하여 공출을 강요하였다. 그때도 그녀의 친정집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누에고치 공출을 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두 사용하는 하나뿐인 디딜방아도 그녀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온 살림을 단번에 포기하고 공주로의 이사를 결행한 것이다.

“남·북이 큰 전쟁을 할 것이니 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공주로 이주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그녀의 나이 14세였던 1946년이었다. 당

1) 설순화는 청의면으로 기억하고 있음

2) 설순화는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시라면 남북한이 대립을 시작했지만, 누구도 한국전쟁을 예측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큰오빠를 데리고 먼저 공주를 오가며 사곡면 부곡리 산골 외딴곳에 땅을 매입하여 미리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집이 완성된 직후 망설이지 않고 이주를 하였다.

아버지는 급히 이사를 시작하여 마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지 못한 채 떠났다. 가장 어렸던 가족은 그녀의 큰 오빠가 낳은 조카로 당시 6살이었다. 그 위로 줄줄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올케를 포함해서 5명이 여인네들이었으니 하루에 3-4십리 밖에 가지 못했다. 다행히 보름을 걸으면서도 한데 잠은 자지 않았다.

새로 이사한 마을 부곡리는 횡성보다 더 심한 산골이었다. 더구나 돈을 마련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외딴곳에 터를 잡았다. 이웃조차 없어서 친구도 없는 곳이었다. 논농사는 짓지 못하고 밭을 개간하여 넓혀 나갔다. 부곡리로 이주한 3년 후에야 횡성의 모든 땅을 팔아왔으며 이때 조상의 산소도 모두 이장하였다.

횡성에서 땅을 팔아 온 돈으로 논 두 마지기를 구해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쌀은 손님 차례용이었고 식구들이 쌀밥을 먹는 날은 없었다.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 씨앗으로 강냉이와 차조 농사를 짓는 것만 이 마을 농부들과 달랐지, 밭농사가 주를 이룬 것은 다르지 않았다.

설순화 씨는 18세에 혼인을 하였다. 부곡리에서 험한 고개 두 개를 넘어 우성면 한천리로 시집을 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나던 해 겨울 꽃가마를 타고 시덕에 와서 처음 본 신랑은 겨우 열다섯 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이었다. 외아들이었던 남편 김상은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명의 시누이 등 단출한 가족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전쟁이 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사망하였다. 어린 남편과 네 여인만 남은 것이다.

전답 하나 없던 가난한 집안에서 네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나무꾼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오는 것을 사서 네 여인이 머리에 이고 40리 공주 장에 나가 팔았고 산을 개간하여 호박을 심었다. 그리고 식량이 없으면 ‘호박풀때’라는 부른 호박죽을 먹고 연명했다.

남편이 성장하여 20세가 되면서 집안이 조금씩 좋아졌지만 신랑의 나이 23세에 군에 입

대하였다. 다시 네 명의 여인의 힘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세월이 된 것이다. 더구나 벌써 자식들이 있었다. 아들딸 남매를 두고 군에 간 남편은 3년 6개월 후에야 제대를 하고 돌아왔다.

군에서 제대해 돌아온 남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무성산의 노는 땅을 개간하여 고랭지 무우 농사를 하고 남의 논을 얻어 타작 농사를 지었으며, 나무 벌채 현장을 다니며 품을 팔기도 했다. 누에를 쳐서 고치 공출을 하기도 했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명주 길쌈을 하여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남편 40대에는 마을 산 밭 700평에 인삼 농사를 지어 풍작을 이뤘고, 인삼을 팔아 자식들의 여우살이를 시키기도 했다.

“그 시절이 좋았어. 밥 굶을 걱정하지 않아두 되구, 흑여 여유가 있으면 쌀루 엿을 고아 애덜을 먹일수 있었으니까. 그런디 할아버지가(남편) 쉰 다섯에 간암으로 가버렸어. 어렵게 살다가 겨우 살만해지닝께 떠난 거.”

그녀는 길지 않았던 남편의 그늘이 그리우면서도 일찍 떠난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서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처럼 좋은 세월은 없다.’한다. 그러면서 밀가루 음식으로 예를 들었다. 물레방앗간이나 절구에 의지해 밀을 빻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다. 발동기 방앗간이 생겨 쉽게 밀가루 방아 찧어 온 후로야 쉬웠지만, 절구로 밀 껍질을 벗겨내고 남은 것을 곱게 빻아 체로 쳐야 얻어지는 것이 밀가루인데, 지금은 기계가 다하니 사람들은 쉽게 해 먹는 음식으로 밀가루를 말한다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들들을 위해서 솜바지 저고리를 빨아 다시 짓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런 세월을 살지 않는 것이 어디냐는 말씀이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해서 12년 전에 새집을 지어 주었고, 우체국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한 둘째 아들이 자주 내려와 자기를 살피 준다. 셋째 아들은 대전에서 사업을 한다. 멀리 사는 큰딸과 둘째 딸은 자주 오지 못하지만 공주에 사는 막내딸이 찾아와 살림을 해주니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설순화 씨가 고마워하는 세상은 또 있었다. 나라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가사도우미를 보내 주어 밥도 해주고 약 먹는 것도 챙겨주니 이런 세상이 없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흥도로 여행을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1주일 동안 나오지 못하구 있었어. 걱정

해야 뭐하느냐구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옛날이야기를 해가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생각하니깐 굶기를 밥 먹 듯 했던 세월보다 큰 딸내미 공부 못 시킨 게 가슴 아팠는다... 그 후로는 자식 귀한 줄 알고 걱정은 하지 않구 살기루 했어.”

뒷산인 무성산에 버섯이 흔해서 능이버섯을 많이 땀는데 돈이 되는 버섯이라 자식들 입에 넣어주지 못하고 살았다는 설순화 씨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자식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원이 없다 말했다.

설순화 씨의 음식과 민속 이야기

- 1) 기우제 : 아낙네들이 밤에 냇물을 퍼가지고 물레방아 물레에 퍼 부으며 『비 온다. 비 오신다.』를 연호하였음. 기우제 지내고 3일 후에는 꼭 비가 왔음.
- 2) 마을의 물레방아 : 지금 마을 앞 두 번째 다리 곁에 물레방아가 있었음. 물레가 돌도록 물길을 열면 물레가 돌아가고 고인 돌을 빼 놓으면 방아가 짙어졌음. 벼방아, 보리방아, 떡방아를 많이 짙였으며 작은 확 안에 짙을 것을 넣고 곁에 앉아 저어 주다가 방아가 짙어지면 키로 까불러 넣고 짙기를 반복하였음.
- 3) 쌀 엿 굽기 : ① 쌀을 씻어 시루에 넣고 찐다. ② 엿기름 가루를 거름. ③ 거른 엿기름 가루에 밥을 섞어 놓음. ④ 2-3시간을 삭임. ⑤ 위에서 물을 부어내림(거름). ⑥ 거른 물을 따로 받아 솥에 넣고 다림(다림의 정도에 따라 조청과 엿으로 구분됨).
- 4) 솜바지 저고리 빨래 : ① 옷을 먼저 뜯음. ② 천과 솜을 분리해서 빨아냄. ③ 솜이 많이 뭉치면 솜틀집에서 타웠음. ④ 빨 옷감에 풀을 먹임. ⑤ 풀 먹인 천을 다듬이질로 편. ⑥ 천을 펴고 솜을 깔고 바느질로 옷을 껴땀. ⑦ 바느질이 된 옷을 뒤집어 다림.
- 5) 마을의 절기와 명절 분위기



보령시

보령의 바다

조잠포구와 삼현리의 생활	110
의식마을에서 새우젓굴을 처음으로 판, 유준근의 손자 유금수	115
간척마을로 이주한 항일의병 후손의 생활	119
가송구지마을의 옛 생활	124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마동의 옛 생활	128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한여마을의 옛 생활	132
신보령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송도마을의 옛 생활	136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고만마을의 옛 생활	140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여수해마을의 옛 생활	144
송도마을의 배치기와 상옛소리	148
증산리의 덩장	153

보령시
보령의 바다

조삼포구와 삼현리의 생활



조 현 국 (1942년생)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조현국 씨는 1942년 남포면 삼현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령이고, 고조할아버지가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쪽에 사시다가 삼현리로 이주하였다. 고조부가 이주한 동기는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소금이나 간척과 관련있을 것이라고 후손들은 생각하고 있다. 조현국 씨는 23세에 결혼하여 아들2, 딸3 모두 5남매를 두고 유복하게 살고 있다.

조현국 씨의 아버지(조재순)는 1942년에 조현국님을 낳고 6개월쯤 지난 뒤 1943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해군노무자로 근무하다가 남양군도에서 미군의 포격으로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는 조현국 씨가 3살 먹던 해 후반기 마을 주민이 종매를 서재가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재가한 후 할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자랐다. 형편이 어려워 주로 보리밥이었다.

6·25직후 3년 흉년에 발독에 썩은 없었다. 모두 뜯어갔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뽀비를 뽑아먹고, 해안에서 캐양이라고 하는 당근같은 식물을 캐 먹었다. 바닷가에서는 불거지라고 하는, 해파리처럼 생긴 것을 가져다가 끓여 먹었다. 그 외로 칩이나 송진을 내 먹었는데, 칩은 요리해서 먹지 않고 그냥 씹어먹는 정도였다. 송진을 먹으면 똥을 누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고구마를 재배하기 전의 일이다.

고구마를 재배하면서부터는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 고구마가 없을 때는 굴과 조개를 캐다가 다른 마을에 가서 고구마와 바꾸어 먹었다. 고구마를 심기 시작한

뒤로 굽어죽는 공포에서 벗어났다. 집집마다 수십 가마를 캐다 통가리에 저장해 놓고 겨우 내 먹었다.

조현국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배려로 청룡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입학하였다. 1학년 부터 줄곧 1등을 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을 못 했다. 가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학교 를 졸업한 뒤에 마을에 있는 글방에 다녔다.

서당을 마친 후, 15살부터는 소위 생일꾼¹⁾ 이 되었다. 쟁기질을 배워 논을 갈았고, 말재너 머 성주 땅으로 먼산나무를 하러 다니는 등 많은 일들을 혼자 도맡아 하였다. 힘이 세어 남 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농사 기술자가 되었다. 모내기, 보리베기, 글갈기, 보리바 슴, 논매기(3번), 벼베기, 줄가리 손치기, 벼들이기, 벼바스, 지붕해일기, 나무하기 등 모든 일 을 다 하였다.

삼현리에서는 못자리를 만들 때, 두둑을 판판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른 풀과 삼대를 깔 고, 오줌을 묻힌 재를 뿌린 다음 발로 잘 밟았다. 그러면 거름이 바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흙을 위에 덮고 볍씨를 뿌린다. 이때 못자리의 표면에 따그랭이가 일어나 볍씨를 들고 일어나면, 낭패였다. 물이 넉넉하면 물을 빼면 되지만 물을 빼내면 다시 넣을 수 없기 때문 에 위에 황토를 뿌려 가라앉혔다.

15살 때부터 먼산나무를 다녔다. 삼현리 주민들은 늘 나무가 부족하였다. 여름이나 초가 을에 대실 마을 앞산, 즉 땡경산에서 푸장나무를 해서 말려 땀다. 바닷가에 나는 갈대를 베 어 독에 말렸다가 때기도 하였다. 푸장나무는 대개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잘 묶어 소땡이 모탕이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가 겨울에 가져다 땀다. 푸장나무는 겨울에 하는 나무보다 훨씬 팔고²⁾ 잘 땀다.

삼현리에는 또래 청년들이 200명은 되었다. 여름 때 점심을 먹으면 마을 뒷산인 동산 꼭 대기에 모여 배구를 하였다. 이렇게 배구를 열심히 한 덕에 삼현리는 남포면이나 보령군에 서 배구로 유명하였고, 삼현교회도 주변의 교회와 배구시합을 하면 항상 1등하였다.

삼현리 주변 바닷가는 모두 간척지였고, 간척지의 뚝, 원뚝으로 이어져 있었다. 원뚝 안에

1) 농사일만 하는 일꾼

2) 화력이 좋고

있는 논을 원논이라고 했는데, 원논은 물을 대기가 어려웠다. 바닷가에 간척한 땅에는 물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겨울동안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논을 두멍개라고 불렀는데, 겨우내 두멍개에 물을 저장하고 못자리를 하였다. 모내기철이 되어도 가뭄이 계속되면, 논을 갈고 쇠스랑으로 꾸며 호미로 모를 심었다. 호미모를 한 후에도 비가 적으면 수확이 어려웠다. 정부에서 각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장려하여 관정을 판 뒤에야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현국 씨는 1965년도에 친구 3명과 함께 작은 발동기와 보리탈곡기를 구입하여 보리탈곡을 하였다. 길이 좁아 발동기를 이동하는 일이 영 어려웠는데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으로 길이 넓어져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다.

원논 밑에는 절묘하게 생긴, 좀 높은 지형이 있었다. 이 곳에는 소금을 굽는 벗이 10여 개 있어 벗뚝거리라고 하였다. 조현국 씨의 할아버지는 이 벗에서 일했다. 갈통을 문고, 조금때가 되면 소를 이용해서 갯빨을 나래로 퍼내고 썬레로 말린 후, 다시 나래를 이용해서 갈통 주변에 쌓고, 사리가 되면 염수를 받아 벗에서 끓여 소금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런 벗은 1957년경 없어졌다. 군산 사람들이 황건이 들에 천일제염 염전을 만들어 값싼 천일염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조잠 포구에서는 옛날부터 뱃놀이하는 풍습이 있었다. 마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처녀 총각들이 와서 배를 타고 밤섬 주변에서 놀이를 하였다. 마을에 있는 10여 척의 작은 배들이 배삯을 받고 모두 출항하였다. 1957년경, 김안석 씨네 배가 그만 바다에서 전복되고 말았다. 당일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물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구술자인 조현국 씨도 지켜보는데 그만 전복된 것이다. 이 사고로 처녀 3명과 선주인 김안석님이 사망하였고, 이후 뱃놀이 풍습은 없어졌다.

삼현리 주민들은 해안 간척지에서 농사도 짓고, 소금도 구웠지만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하였다. 주로 굴과 조개를 대천장에 내다 팔았다. 돌쟁이라는 작은 게는 통째로 간장에 담가, 그대로 씹어 먹었다. 아주 맛이 좋았다.

삼현리와 갯배를 연결한 간척지 제방 동쪽으로 5개의 독살이 있었고, 독살 주변에는 그물로 살도 댔다. 독살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열치, 갈치 등 위낙에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삼

현리 마을 사람 모두가 가마니를 가지고와 자유롭게 담아갔다. 이 때 잡은 열치는 굵고, 말리고, 젓담고 해서 먹지만 아욱을 넣고 국을 끓이면 일품이었다. 이것을 ‘얼아욱국’이라고 하였다. 이후 간척사업으로, 삼현리 마을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마을이 되었다.

옛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삼현리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 정월에는 마을 서낭당이어서 치성을 드렸고 추석 때에는 매년 씨름을 하였다. 같은 마을 끼리는 절대 붙지 않고 다른 마을과 붙었다. 삼현리 어린이들은 흑포 어린이들과 쥐불싸움을 하였다. 아이들은 공치기, 만대치기, 땅 뺏기 놀이 등을 하며 유년을 보냈다.

1950년~1960년대에 삼현리에서는 X형제 맺는 것이 유행이었다. X형제는 일종의 의형제로 남자와 여자사이에 많이 맺어지는데, 누나를 삼기도 하고 동생을 삼기도 하였고, 여자들끼리 언니 동생을 삼기도 하였다. X형제는 여럿을 두는 것이 아니고 대개 1:1로 맺었다. 맺을 때 어떤 의식은 없었고 서로 좋으면 맺어졌다. 선물을 하고 도와주었으며, 나중에는 어른들도 다 알게 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X동생 삼을 경우에는 결혼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삼현리에서는 소를 길러 전국 챔피언이 되었다. 황소였는데 품종도 좋았지만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여름이면 모기장을 쳐 주고, 선풍기를 틀어주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운동도 시켰다. 전국 챔피언이 되어 비싼 값에 팔려 품종개량에 이용되었다. 마을에서는 부모님에게보다 더 잘 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조현국 씨는 마을에서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아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처음 한 것은 마을길을 넓히는 일이었다. 마을 안길을 모두 3m길로 만들었다. 정부에서 시멘트 500포대를 지원 받아 통행할 때 항상 물에 빠져야 하는 염전입구에 배수로도 만들고, 지붕 개량 사업도 했다.

삼현리에서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1970년대 후반 남포면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지방의원을 뽑을 때 보령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초대의원 말기에 보령군과 대천시가 합쳐졌고, 이어 보령시 의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을 2회 역임하였다.

마지막에 만든 남포간척지 사업 때에는 시의원으로서 농수산부를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여, 주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포간척지 1,000 다랭이 중 670다랭이를 남포면

주민들이 소유하게 되어 모두 부자가 되었다. 이에 남포면민들이 돈을 거두어 공적비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하였다.

유금수 씨는 전주 유씨로 보령시 내항동 녹문마을에서 14대째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다.

유병장으로 홍주의병에 참가하였고 대마도에 끌려가 마도일기를 쓴 유준근(1960~1920)은 그의 할아버지이다. 유준근은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느라 집안을 돌보지 않아,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첫 부인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 굶어 죽었다고 전한다. 유준근이 대마도에서 돌아온 후, 주변의 동지들이 부인(광산김씨)을 소개하여 재혼하였고, 1남1녀를 낳았다. 유준근은 1920년 콜레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6살난 아들(유남규)이 있었다. 홀로 남은 유남규는 4촌형 집에서 자랐고, 결혼하여 2남4녀를 낳았다.

유금수 씨는 그중 장남으로 녹문마을에서 태어나 9살 때 아버지와 함께 청소면 죽림리 의식마을로 이주하였다. 아버지는 집안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제제소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한 뒤 피섭에 있는 외딴집 한칸을 얻어 이사하였다. 6·25직후 흉년과 겹쳐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썩을 뜯어 죽으로 연명하였다. 아버지는 군산에서 트럭을 장만하여 장작을 운반해다 파는 일을 하였다. 당시 전쟁중이라 빨치산들이 많아, 오후 5시면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근처에 숨어 밤을 새웠다. 저녁에 운행하다가 빨치산한테 잡혀가거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섬에서 들어오는 굴을 받아 어리굴젓을 만들어 천안 등 외지에 나가 팔아 생활하였다. 장사해서 남은 돈으로는 국수를 사다 먹었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의식마을에서 새우젓굴을 처음으로 판, 유준근의 손자 유금수



유금수 (1939년생)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유공수 씨는 15살에 천안의 목욕탕에 취직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밤 12시에 영업을 끝나면 청소하는 일이었다. 3~4시간 밖에 잘 수 없어 힘들었다. 월급으로 5,000원 정도 받았다. 예당저수지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마을 청년들이 일하러 가는데 함께 갔다. 지게로 흙을 퍼다가 상자에 담고 가득차면 쏟아붓는 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무상자에 흙을 가득 붓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양수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 생활은 공사장에서 제공하는 함바집에서 하였다. 한 방에서 1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밥도 거기서 먹었다. 가끔 휴일이 있어 빨래도 하였다. 품삯은 전표로 주었고, 현금으로 잘 바꾸어주지 않았다. 집에 큰 일이나 있어야 현금으로 바꾸어주고 휴가를 보냈다.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스스로 전보를 쳐, 품삯으로 받은 전표를 현금화하여 귀향하였다.

아버지가 귀향하여 돈 버는 궁리를 하다가 얼음을 저장하기로 하였다. 당시 독배에는 많은 배가 입출항하지만 얼음 공장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 의식 저수지의 얼음을 썰어서 저장하였다가 봄에 판매하였다. 인기가 좋아 잘 팔렸고 돈벌이가 되었다. 얼음을 뜨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톱으로 썰었는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긴 대나무를 가지고 들어가 빠지면 잡고 나오도록 하였다. 작업인원은 80명 정도였다. 얼음 구덩이는 깊이 5~6m 되게 파고 바닥과 벽에 돌을 깐 후, 얼음을 가득 채우고 벧짚으로 덮고 지붕을 하였다. 이렇게 저장하면 봄 조기잡이 어선이 출어할 때까지 충분히 저장할 수 있었다.

당시 독배에는 40여 척의 장배가 들어왔다. 안면도 원산도 등 섬 주민들은 모두 독배로 들어와 장을 보았다. 그래서 독배와 함께 광천이 발전하였다. 섬에서 들어오는 것은 농산물 해산물 등이었고, 나가는 것은 술 등 생필품들이었다. 유공수 씨는 장짐을 실어나르기 위해 인력으로 움직이는 구루마를 사서 운영하였다. 장 전날 장배들이 싣고 온 짐을 광천으로 날라다주고, 섬 주민들이 장 본 짐을 배에 싣고 오는 일을 한 것이다.

1950~1960년대 독배에도 수협이 생겼다. 대천 수협의 분소였는데 김을 수매하고 생선을 취급하기도 하였다. 독배에는 많은 중선이 있어 조업을 하였고, 연안 섬에서 주벽으로 잡은 고기들도 들어와 팔려나갔다. 당시 주벽에서 잡은 고기가 대단하여 주벽 1틀만 가져도 부

자라고 하였다.

독배(의식 포함)에는 섬 사람들이 묵어가는 하숙집이 7~8곳 있었고, 술집이 많았다. 큰 술집은 3개 정도 있었고, 작은 술집(목로집)은 10여 개 되었다. 당시 섬 사람들은 친분대로 광천에서 묵기도하고 독배에서 묵기도 하였다.

군대에 가기 전에 상고선을 타고 연평도에도 다녀왔다. 상고선에서는 음식을 담당하는 화장으로 일했다. 당시 연평도 근해에 조기가 많았는데 북한쪽 수역에 특히 많았다. 어선들은 북으로 넘어가 조업하다가 날이 밝으면 넘어오지 않고 기다렸다가 밤에 내려왔다. 연평도까지 다녀오는데 1주일 쯤 걸렸다.

독배에는 8명의 객주들이 있어 출어자금을 빌려주었고, 고기를 잡아주면 팔아주었다. 그들이 생선값을 좌지우지하였다. 조기가 들어오면 노조원들이 고기를 퍼 간척지 제방에 늘어놓고 경매하였다. 조기는 상인들이 구입하여 큰 탱크에 소금으로 절여 저장하였다가 엮어 판매하였다. 경매가 끝난 조기도 모두 노조원들이 운반하였다. 소금에 절여진 조기는 가마니로 포장하고 트럭에 싣려 주로 서울로 판매되었다.

군 제대한 후 5마력짜리 현 발동기를 사고, 탈곡기를 사서 보리탈곡을 다녔다. 인부를 몇 명 고용하였는데 3.7제였다. 기계 주인이 70%를 가지고, 일꾼들이 30%를 가지는 것이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탈곡을 했는데 길이 있는 곳은 리어카로 다니고, 없는 곳은 바퀴를 떼고 지고 다녔다. 당시 부잣집이 보리 5~6가마 수확하는데, 탈곡해 주면서 70~80가마를 매상할 수 있었다. 부자가 된 것 같았다. 경운기가 나온 뒤로는 10마력짜리 경운기로 탈곡을 하고 논도 갈아주고 로타리도 쳐주어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여 논을 사 12마지기까지 샀다.

1963년경부터 아버지가 새우젓 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얼음을 저장했던 구덩이에 새우젓 독을 넣자고 제안하여 시작하였다. 굴은 처음에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젓굴을 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꼭 개미집 같다. 더 많은 드림통을 들여놓기 위함이다. 굴을 파낸 흙으로는 바다를 매립하였다.

당시 굴은 3개 쫓는데 흙으로 된 굴은 드림통 1,000개까지 들어갔고, 암반을 판 2개에는 300~400통씩 들어갔다. 새우젓을 저장해 주는 데는 비싼 값을 받았다. 당시 논 1평 값이

230원인데 무려 400원을 받았다 새우는 원래 충남 근해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에서 잡았다. 남해안에서 새우를 잡아 젓을 담고, 광천으로 운반하여 굴에 저장만 하는 것이다.

새우젓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오젓·육젓·추젓은 같은 새우 종류이지만 잡는 시기가 달라 붙여진 이름이다. 추젓은 가을에 잡는 것으로 새우가 잘고 물이 많아 젓을 담으면 물젓이 된다. 가장 비싼 것이 육젓이고 그 다음에 오젓, 가장 싼 것이 추젓이다.

그리고 동백화젓, 곤쟁이젓, 뒷떼기젓이 있다. 동백화는 김장철에 나오는 새우로, 인천 앞 바다에서 많이 잡고 곤쟁이는 보령에서도 나온다. 초가을에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을 밀고 다니면서 잡는데 아주 작은 새우이다. 양이 많지 않다. 뒷떼기젓은 곤쟁이보다는 좀 큰 새우로 서천·당진지방에서 나온다. 현재는 환경오염과 남획으로 새우가 줄고 저온창고가 보급되면서 새우젓 굴은 텅 비어있다.

유공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공적을 알고 있었다.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 할아버지가 남겨준 『마도일기』를 들고 광복회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더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마도일기를 내 놓으니 광복회장이 모두에게 소개하고 유공자 중의 유공자라고 소개하였다. 독립유공자 4등급을 받았고 연금으로 매월 4만원을 받았다.

할아버지 유준근을 독립유공자로 지정 받는 일을 하면서 『마도일기』를 분실하였다. 당시 전주유씨 집안 사람 중에서 유청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였다. 그가 마도일기를 보관하면서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맡겨 놓았는데, 이 때 마도일기 원본이 사라졌다.

유공수 씨는 광복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였다. 대전충남지역에 광복회 대의원이 2명 있는데, 대의원을 12년간 역임하면서 광복회 일을 보았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간척마을로 이주한 항일의병 후손의 생활



김호준 (1935년생)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김호준 씨의 할아버지는 유인석 의병진에서 활동하며 소의신편을 지은 김화식 선생이다. 김화식 선생의 첫 부인은 당진에 살 때 작고하였고, 둘째 부인을 얻었다. 첫 부인은 1남1녀를 낳았고, 작은 부인은 2남3녀를 낳았다. 김호준 씨는 작은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의 장손자이다. 김화식 선생은 큰아들을 분가시키고 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자인 김호준 씨와 함께 살았다.

김호준 씨는 1935년에 태어나 학교에 가지는 않고, 한문을 조금 배우다 8세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농사일만 하였고, 이후 서울로 이주하여 5년간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이후 아버지가 계신 남포면 삼현리로 이주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거나 농사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부양하였다. 결혼 후 슬하에 딸 하나를 두어 출가시켰다.

김화식 선생은 의병활동 때에는 김화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호적에는 김우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원래 돌림자는 「재」자인데, 구술자의 5대조 할아버지, 김화식 선생의 할아버지 이름이 「재인」이기 때문에 피하느라 화식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호적 이름과 의병활동 할 때의 이름이 서로 달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고생을 많이 하였다.

김화식 선생은 어렸을 때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의 병진에 참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분을 감추고 살았다.

김화식 선생은 의병활동 이후 보령 청소면에서 은둔



하였는데, 1917년 일제치하 경찰의 무례함에 지팡이를 휘둘렀다가 1주일 동안 경찰서에 감금되고, 이때 경찰이 주는 음식은 물론 가족들이 가져온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고초를 겪던 중 호적 이름이 김화식이 아니고 김우동이어서 풀려날 수 있었다.

김화식 선생의 집안은 원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살다가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로 이주하였다. 김호준 씨의 5대조가 파주에서 화재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고조부는 부령부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자기 처가인 보령 신산리 구병사집으로 집안을 모셔왔던 것이다. 김호준 씨의 고조모가 청라 구병사집 후손이었다. 현재 청라에서는 구병사집을 찾을 수 없다.

김호준 씨의 5대조가 청라로 이주한 후, 고조부도 함께 와 후손을 두었다. 고조부의 아들 3형제는 모두 무관 벼슬을 하였다. 그 중 김화식 선생의 아버지가 차남으로, 강계부사가 명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37세로 돌아가셨다고 전한다.

김화식 선생은 외아들이었고, 집안일 대신 부친의 친구인 의암(유인석)선생에게 학문을 익혔다. 혼인 후 3남1녀를 두었고, 중국에서 귀국한 후 작은아버지가 사는 당진군 신평면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첫째부인과 사별하자 작은부인을 얻어 2남을 낳았다. 호적도 이곳에서 올려 원적지가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이다. 그후 파주, 홍성군 홍동면 수라니, 대천의 사위네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김화식 선생의 첫째 아들(김태진, 金泰珍, 제적부에는 金昌善)이 4세경 첫째 부인을 잃었고, 재혼하여 아들 둘(金昶珍, 金英珍)을 두었다. 청소로 이주하였을때 처음에는 대숲말에 살다 그 집을 큰아들에게 주고, 다시 뱀굴로 이주해 둘째 부인과 아들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서당 훈장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그에게 배운 사람들은 황순오, 황복수, 이성근, 김익현, 허준씨 등이었다. 이 중 김익현씨는 교장을 역임하였고 허준씨는 신문기자 한학자로 활동하였다.

김화식 선생의 아들 3형제는 모두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집에서 한문만 가르쳤다.

김화식 선생 집안은 청라면 의평리에 살던 지주 이석구의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석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수여서, 청라로 내려온 김호준 씨의 고조부 집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 이석구의 집안은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

였는데, 김씨 집안에서 품삯과 먹거리를 챙겨주어 늘 고맙게 생각하다 훗날 큰 부자가 된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화식 선생의 삼촌을 마름으로 고용해주었다. 이런 연유로 김화식 선생이 타작관을 하기도 하였다. 벼를 벨 때나 탈곡을 할 때는 얼마의 수확이 나오는지 지주를 대리하는 사람을 ‘타작본다’라고 하였다. 타작을 보러 나가면 소작 짓는 집에서 대우도 좋았고 품삯도 좋았으나 15일 정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김화식 선생은 마름인 삼촌 덕택으로 물 좋은 이석구씨 논을 소작하였다. 당시 소작료는 1/2이었다. 광복 후에는 잠시 1/3이었다가 토지개혁으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김화식 선생은 김호준 씨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손자들에게 항일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김창진)에게, 중국 북간도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동안 의암선생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을 모시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김호준 씨는 김화식 선생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집안에 여러차례 화재가 나 소실되고 남은 약간의 기록이다. 이것들은 훗날 종중손인 김범식에게 전해주어 후손임을 입증하는데 사용하였다.

김호준 씨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김호준 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오직 가학으로 한문만 가르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집안일, 농사일을 하였다. 김화식 선생의 묘는 청소면 신송리에 모셨다가 김호준 씨 큰아버지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선산으로 모셨다.

김호준 씨의 아버지(김창진; 김화식 선생의 둘째아들)는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좋은 논 10여마지기를 어찌다 잃고, 살기 어려워져 1961년 당진군 합덕면 구양리로 이주하여 간척지 농사를 지었는데 해일이 일어나 실패했다. 다시 고향인 청소면 진죽리 뱀굴로 돌아왔다가 5개월 후에 남포면 삼현리로 이사하였다. 간척지를 막는다는 소문을 듣고 돈 한푼 없이 대가족을 이끌고 이사 온 것이다. 당시 가족은 김호준 씨의 할머니(김화식의 부인)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간인 6남매(5남1녀)와 조카들이었다. 삼현리에는 김호준 씨의 작은아버지도 이사 와 벼뚝거리 동쪽 갯장벌에 집을 짓고 목수일을 하였다.

삼현리에서 처음 정착한 곳은 벼뚝거리였다. 벼뚝거리는 과거 소금을 굶던 ‘벗’이 있던 곳

인데 소금을 굽지 않아 폐허가 된 곳이었다. 순 모래땅이었다. 그곳에 흙벽돌로 부엌 1칸과 방 2칸의 소위 ‘말집’(마루가 없어 방과 부엌만 1줄로 있는 집. 마루가 없어 말 키우는 축사와 같다고 해서 말집이라고 부른다.)을 짓고 살았다. 흙벽돌은 황토에 벼짚을 썰어 넣고 반죽하여 틀로 찍어낸 것으로 건물의 앞면에만 몇 개의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흙벽돌로 쌓는다. 지붕은 일반 초가집과 같이 들보에 서까래를 얹는다.

벗쪽거리에는 좋은 샘이 없었다. 땅을 파면 잔물이 나와 빨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먹는 물은 삼현리쪽, 논 가운데에 웅달샘에서 떠다 먹었다. 논에 있는 샘이기 때문에 거머리, 개구리 어떤 때는 뱀도 들어있었다. 또 ‘도깨비터’라 밤이면 쨍그랑쨍그랑 하는 소리, 담이 무너지는 소리도 났다. 먼저 살던 사람들도 들었다고 하는데, 김호준 씨의 아내도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아침에 보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도깨비터이기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도깨비와 맞는 사람이 거주하면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벗쪽거리는 물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다. 4집이 살았는데 점차 큰 마을로 모두 이주하였다. 김호준 씨도 1978년도에 큰 마을인 삼상마을로 이주하였다. 현재 벗쪽거리는 모두 논이 되었다.

삼현리에서의 삶은 고단했다. 아직 간척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소작논도 없었다. 어머니가 생선을 사 큰 대야에 담아 머리에 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팔아 생활하였다. 겨울에는 옷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선비처럼 사느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김호준 씨는 35세에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에 사는 이씨댁 처녀와 결혼하였다. 같은 벗쪽 거리에 사는 칠지리 출신 유씨가 중매했는데 당시 신부는 26세였다. 신혼 초에 바로 상경하였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 공사장에서 잡일을 하였다. 서울생활 6년 후,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삼현리로 내려왔다. 장남으로서의 책임이었다.

김호준 씨는 보령에서도 공사현장을 전전하였고, 아내는 채소장사를 하였다. 남의 밭을 빌려 참외와 각종 채소를 심어 대천장에 내다 팔았다. 36호 도로가 있는 염전입구까지 머리에 이고 가서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남들은 조잠마을 앞바다에서 바지락, 굴 등 해산물을 캐

다 팔았으나 김호준 씨의 아내는 갯일을 할 줄 몰랐다.

한편, 종갓집인 재종조할아버지 후손으로 양자 간 동생의 형편이 어려워 동생의 양어머니까지 모셨다. 5년간 함께 살다 돌아가셔서 장사지냈다. 김호준 씨 부부는 남포 삼현리에서 여러번 초상을 치렀다.

남포 1차 간척지가 완공된 후 분양이 시작되었다. 청소면 성연리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수몰된 단작굴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졌고 나머지는 입찰을 했는데, 좋은 논은 경쟁이 섰다. 김호준 씨는 좋은 논에 입찰하였다가 떨어져 분양받지 못했다. 당시 외지에서 온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분양을 받았다.

남포 1차 간척지를 분양한 후에는 남의 논 2배미(1800평)를 소작하였다. 수확량의 1/2를 지주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득이 나지 않았다.

김호준 씨는 계속해서 학교 보수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해 돈을 모았고, 부인은 채소장사와 함께 소를 길러 돈을 모아 구간사지(1차간척지) 1다랭이(900평)를 샀다. 이후 2차 간척지 1500평을 분양받아 농사지었다. 삼현리에서는 소를 빌려다 논을 갈면 품삯 2일분을 주었고, 사람이 함께 갈아주면 3일분의 품삯을 주어야 했다. 소가 1일 일하면 논 2다랭이(1800평)를 갈 수 있었다.

한편, 유근찬 국회의원이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때 김화식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신청하는 데 도움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복사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 연락도 없었다. 김화식 선생은 이미 1995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훈장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다. 2020년에 김화식 선생의 훈장(건국훈장 애국장)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질인 김범식의 노력 때문이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가송구지 마을의 옛 생활



고 득 조 (1944년생)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고득조 씨는 1944년 오천면 영보리 가송구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이고 고조할아버지가 가송구지에 들어와 후손이 퍼졌고 가송구지에서 가장 많은 성씨로 살았다. 모두 30가구일 때 10여 가구가 제주 고씨였고, 가송구지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전한다.

가송구지에는 논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대부분 순수 어업을 하고 살았다. 옛날에는 청어를, 청어가 없어진 뒤에는 잡고기를 주벽으로 잡거나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면서 살았다. 고득조 씨의 고조할아버지도 영보리 가송구지에 들어와 청어를 잡았다고 전해온다. 마을 남쪽, 샘고랑 앞에 청어 주벽을 매어 많은 청어를 잡았는데 이 청어를 보관하기 위해 샘고랑에 굴껍질로 회다집을 하여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남의 중선배에서 사공으로 일했다. 사공은 배의 책임자로 오늘날 선장이다. 조기와 갈치, 새우 등을 잡았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다. 칠산바다도 가고 연평도도 갔다. 한 번 나가면 보름도 한 달도 있다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머리에 이고 주포장이나 청소장, 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 째짤한 소득을 올렸다.

돛을 단 중선배는 안강망을 신고 다니면서 작업하였다. 무거운 그물이나 닻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었고 8명 정도가 타고 다녔다. 선장은 사공으로 불렸고, 부선장은 부사공, 배의 앞에서 일하는 이물사공, 밥을 하는 화장, 일반선원 4명이 있었다.

고득조 씨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중선을 타지 못 하게 되자, 샘고랑 앞에 주벽을 댔다. 밴댕이나 멸치 같은 잡고기도 들고 갑오징어나 대하가 들기도 하였다. 잡은 고기 중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이고 시장에 가서 팔고, 이른 봄에 잡히는 실치는 김장처럼 떠서 팔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갈밭에 말려 사료로 팔았다.

주벽은 길이 20m쯤 되는, 굵고 긴 나무기둥을 세우고 긴 자루 같은 그물을 매다는 것이다.

주벽은 밀물 주벽과 썰물 주벽이 있는데 가승구지에 있던 주벽은 모두 썰물 주벽이었다. 즉 썰물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주벽은 가승구지에 군인들이 들어와 울타리를 치면서 그만두었다. 당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았고 군인들 때문에 출입하기도 어려워 주벽을 그만두었다. 정부에서 보상 같은 것은 없었다.

영보리 가승구지와 육도, 월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주민들이 친하게 지냈다. 육도나 월도 주민들은 주벽으로 잡은 고기를 팔기 위해서 가승구지에 배를 댔기 때문이다. 육도와 월도는 물도 귀해 가승구지의 샘골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샘골 앞에는 배를 대기도 좋고, 샘과 해안이 가까워 물을 운반하기도 좋았다. 옛날에는 물담을 그릇도 없어 배의 간에다 직접 물을 싣고 가기도 했다. 섬에서는 지붕을 해일기 위해 벗짚도 필요했고, 연료로 나무도 필요했다. 벗짚은 영보리에서 나무는 오포리에서 가져갔다. 그러므로 육도나 월도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영보리 가승구지, 다음은 오포리였다

가승구지 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김발을 댔다. 한 집에서 10떼~20떼를 댔는데, 1떼는 대나무 100쪽을 엮은 것이다. 김의 품질이 좋고 수확량도 많아 많은 소득을 올렸으나 어장 면허를 받아 양식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화력이 들어설 때 많은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김의 포자는 춘분사리에 붙인다. 엮은 대나무 발을 바다에 펼쳐 놓으면 포자가 붙은 것이다. 가승구지 마을 앞은 파도가 세어 김양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포자는 잘 붙었기 때문에 마을 앞바다에서 포자를 붙였다. 수확은 음력 10월부터 하였다. 바구니와 가위를 가지고 가서 김을 잘라왔는데, 대바구니에 약 20kg을 뜯어오면 1동(1000장) 정도를 만들 수 있었다.

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바닷물로 깨끗이 씻었다. 바닷물로 씻은 뒤에는 샘물로 씻어

간기를 제거하였다. 이후 벧집으로 만든 김발을 다라에 담그고, 김 틀을 올려놓은 뒤에 물김을 올려놓고 골고루 퍼서 김장을 만들었다. 김을 씻고, 뜨고 말리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였다. 노인도 어린이도 모두 할 일이 있었다. 대개 하루에 한 집에서 1~2동의 김을 생산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김발을 매지 않았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와 김이 자라지 않았고, 서천이나 전라도에서 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기계로 가공하였기 때문이다.

고득조 씨는 김발을 매지 않은 뒤에 남의 배에 선원으로 일하다가 1톤도 안 되는 작은 배를 사서 통발어업을 하였다. 어장은 영보리 앞바다, 즉 천수만 안이었다. 200개 정도의 통발을 신고 다니면서 박하지(민꽃게)를 주로 잡았다. 대략 하루에 20~30kg을 잡아 대천이나 광천에다 팔았다. 통발은 조류가 없을 때 넣고 썰물에 건져 올렸다.

가송구지 마을 주민들은 큰 바람이 불면 마을 북쪽, 당산너머로 배를 옮겨 정박하였다. 이곳은 술동이라고 불리는 자갈로 된 지형이 천연방파제를 이루고 있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지 않는 곳이다. 자연이 만들어준 항구이다. 가송구지에 큰 마을이 생긴 것도 이 지형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1970년경까지 당제를 지냈다. 제일은 정월 초나흘이었고, 매년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2명씩 정하여 당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2명 중 한 사람은 당주로 나이먹은 사람, 한 사람은 부당주로 젊은 사람이다. 당제를 지내려면 먼저 샘물을 품어 깨끗이 씻어내고, 젓날이 되면 미리 샘물을 길어다 놓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떡과 북어포, 과일, 각종 나물이다. 제물은 당짓집에서 준비한다.

젓날이 돌아오면 당제지내는 사람은 부정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한다. 그리고 찬물로 목욕한다. 젓날 저녁이 되면 당주와 부당주는 제물을 가지고 당집으로 올라간다. 당집 앞에 불을 피우고, 당집 안에는 촛불을 켜 놓으며, 밥과 국을 준비한다. 부당주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당주는 간단한 제물을 가지고 국수당으로 가서, 제일 큰 소나무 밑에 제물을 차려놓고 술을 올리고, 재배하고 돌아온다.

자정이 지난 후, 첫닭이 울기 전에 당집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당주와 부당주가 절을 하고, 축원을 한다. 축원은 마을이 무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지도 올리는데 소

지도 같은 내용이다. 특별한 것은 소지를 올릴 때 어려운 일이 있는 주민을 호명하여 잘 되게 해달라는 축원을 한다. 제를 마치면 내려와 다음날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가송구지 마을에서는 과거 정월에 집집마다 안택을 하였다. 무당을 불러다 집 앞에 황토를 펴고 안택을 해 1년 동안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이때 마을의 청년들이 사랑방에 모여 놀다가 안택하는 집으로 편지를 써 보내 떡을 얻어다 먹기도 하였다. 편지는 아이들 손에 들려 보냈다.

가송구지 마을에서는 1960년대까지 덩장도 맷다. 현재 보령화력발전소 탄 재 처리장 자리에 맷는데 말뚝을 박고 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송어와 상어가 잡혔다. 가을에 잘 잡혀 시제용으로 잘 팔렸다. 가송구지마을에서는 상어를 “곰죽”이라고 불렀다.

가송구지는 간첩들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1980년대에는 가송구지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마당에서 보리바슴을 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났다. 쳐다보니까 간첩선이 들어왔다가 주민 신고로 발각되어 군초소에서는 총을 쏘고 간첩선은 지그재그로 도망가고 있었다. 얼마나 빠른지 물보라만 보였다.

마을의 바닷가에는 약 50평의 동네마당이 있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벼바슴도 하고 보리바슴도 하였다. 마당이 곱게 잘 다져져야 곡식에 돌이 섞이지 않으므로 마을사람 모두가 잘 관리하였다.

이렇게 역사 깊은 가송구지 마을은 전체가 GS칼텍스 부지로 수용되어 모두 이주하였다. 2010년에 20여 가구가 이주하였는데 집단적으로 이주하지 않고 각자 이주하였다. 마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보령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마동의 옛 생활



한 상 용 (1937년생)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한상용 씨는 1937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마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청주 한씨로 먼 선대는 서산에서 살다가 9대조 할머니가 송학리 척굴 사위집으로 이사와서 보령에 거주하게 되었다. 고정리 마동으로 이주한 것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마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낳아 길렀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3남 3녀를 낳았는데 한상용 씨는 둘째 아들이다.

마동에서 송학리에 있는 송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가가 있는 홍성 장곡에서,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광시중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고향인 마동에 들어와 여러 일들을 하였다.

마동 마을이 번창했을 때는 약 20여 가구가 살았다. 여러 성씨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자로 가장 세력이 컸던 집안은 한산 이씨이다. 제일 부잣집은 이동구 씨 집안으로 교성리에서부터 오포리에 이르는 구간에 육답을 모두 소유했었고 소작으로 100석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집에는 말을 길렀고, 연자방아도 있었다. 가마·사모관대 등 각종 혼구(婚具)도 모두 가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가져다 이용하기도 하였다.

마동에서 일본인이 제방을 막아 간척사업을 하였다. 갯벌의 상단에는 저수지를 만들고, 중앙 부분은 논으로 간척하였으며, 하부는 개간을 하지 못한 채 해방되었다. 간척지를 만들 때 십장을 했던 사람이 한상용 씨의 아버지이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십장이 되었다.

한상용 씨의 아버지가 마동 간척지를 만들 때 십장을 한 연유로 좋은 논을 농사지을 수 있었고, 해방 후에는 저수지 밑에 있는 좋은 논을 분배 받았다. 물이 나오는 논이어서 가뭄에도 걱정이 없었고, 물을 모아 두었다가 윗논으로 퍼 올려 농사를 지었다. 다른 논들은 날이 가물면 농사짓기 힘들었다.

일제 강점기, 간척지 제방을 만들었어도 전부 논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제방 주변 약 1/3 정도는 황무지로 남아있었다. 이곳에서 한상용 씨의 할아버지가 화렘을 만들어 팔았다. 소금은 청양장까지 가서 팔았는데, 할아버지가 소금 15말을 지게에 지고, 하고개를 넘어 청라, 화성을 지나 청양장에까지 가서 콩 15말과 바꾸어 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상용 씨는 군대에 가기 전에 1.5톤 정도의 주낙배를 사서 운영하였다. 풍선배로 돛이 2개였고, 노도 앞뒤로 2개였다. 경험이 부족하여 임영상씨와 황영국씨를 고용하여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미끼는 송학리 산고래 앞에 뗏던 살에서 살아있는 열치를 사다가 사용하였다. 도미를 잡으려면 살아있는 열치를 써야만 했다. 황영국씨는 주낙 놓는 선수였다. 잡은 고기는 바다에 떠 있는 상고선에 팔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다. 마동 마을의 배는 마을 앞 장벌에 정박하였다. 송도가 방파제처럼 파도를 막아주어 태풍이 불어도 상관없었다.

마동과 한여 마을은 보령에서 김양식을 일찍 시작한 마을이었다. 마동 마을에서는 마을 앞에서 김양식을 하다가, 송도 동남쪽 바다 목넘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갔다. 이곳이 넓고 더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는 고정리 김이 최고 인기였다.

한상용 씨는 약 20떼의 김발을 댔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 작업하였다. 어머니가 김 뜨는 기술자였다. 김을 말리는 것이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나래를 엮어 건조하는 곳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시꼬미’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햇빛을 찾아다니면서 말려 능률을 높였다.

마동 앞에는 바지락이 아주 많았다. 마동 앞에는 모래와 자갈이 섞여 바지락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이어서 바지락이 아주 많았다. 마을에서는 바지락이 많이 나는 곳을 ‘조개탕’이라고 불렀다. 한상용 씨의 어머니는 8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늘 바지락을 잡았다. 마을에서는 바지락을 잡으면 생으로 가서 젓을 담아 팔았다. 바지락 외에 빨탕에는 가무락이라는 검은 조개가 있었는데 상품성이 크지 않아 반찬으로 먹는 정도였다. 팔지는 않았다.

마동 앞 갯벌에는 능쟁이와 황발이라는 게가 많았다. 마을에서는 이것을 잡아 젓을 담가 먹었다. 마동 앞 갯벌에서는 낙지도 많이 잡았다. 한상용 씨의 형님은 이곳에서 굴양식을 하기도 하였다.

발전소 부지에 살았던 마을은 마동과 한여, 여수해 마을이다. 3마을이 모두 약 20여 호 거주하였고, 1980년대 초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여수해 마을이 제일 먼저 이주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진으로 이주하였고, 다음에 이주한 한여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솟바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솟바리로 이주한 한여 주민들과 마동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가 넓어지면서 함께 이주하였다. 집단이주 하지는 않았지만, 한여 주민들은 은포리 남양군도로 많이 이주하였다.

초군계는 초상이 났을 때 상여를 메는 계이다. 마동과 한여는 주교면 고정리, 여수해는 오천면 오포리이지만, 3마을이 모여 함께 초군계를 만든 것이다.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서로 이웃하기 때문이다. 초상이 나면 초군계원들이 모여 상여를 메는데, 마을마다 돌려가면서 메었다. 이번에는 마동, 다음에는 한여, 또 다음에는 여수해 이런 식이다. 상여는 보통 12명이 메었지만, 부잣집에서 상이 났을 경우에는 24명도 뻘다.

한상용 씨는 배를 운영할 때 뱃고사를 지냈다. 배를 새로 사왔을 때와 정월 명절에 지냈는데 떡을 해서 그냥 배에서 지냈다. 마을에 당집이 없었고, 다른 마을처럼 당집에서 지내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배에 5색기(色旗)는 가지고 있었다. 최근 한상용님은 아들이 사온 배에 오색기를 선물하였다. 아들은 최근 어항에서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

한여·마동·여수해로 통하는 길은 없었다. 주교면 고정리 마을 초입인 동틀까지만 차가 들어오고 이후에는 산길로 걸어 다녔다. 주민들도 힘들었고, 초소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힘들었다. 1976년경 군부대의 힘을 얻어 도로를 만들었다. 이후 한여까지 버스가 들어왔고, 군 보급품도 한여까지 수송되었다.

어느 여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여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였다. 주민들은 지질조사하는 것을 보고 발전소가 들어올지 짐작하였다. 보령화력이 들어선 3개 마을 중에서 물이 가장 좋았던 곳은 마동 마을이다. 한여 마을이나 여수해 마을은 물부족으로 고생하지는 않았으나, 물이 썩 좋지 않았다. 반면 마동 마을은 샘물이 좋았다.

맛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였다.

마동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한다. 1945년 해방되던 해에 큰 태풍이 불어 소나무가 막 부러졌다. 마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국수봉인데 이곳의 소나무가 많이 부러졌다. 해방바람이라고 불렀다.

더 오래된 이야기도 있다. 토정선생의 말고삐를 잡고 다니던 조깅대기라는 자가 있었다. 어느 날 토정선생이 묘를 쓸려고 자리를 잡았다가 산을 넘어와서 보니 더 좋은 자리가 있어 묘를 쓰게 되었다. 조깅대기는 토정선생이 먼저 잡은 자리에 담뱃대 뿌리를 꽂아 표시를 해 두었다가 묘를 썼다. 그 자리가 오천면 오포리 지핀골 한양 조씨 묘역이다.

한상용 씨 개인이 겪은 일도 이야깃거리가 될 만하다. 낚시배를 가지고 대천해수욕장 앞에 있는 ‘소녀’ 근처로 낚시질을 갔다가 물지 않아 마동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때 생전 보지 못한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시 안산 부대에 근무하던 조카사위에게 연락하였다. 약 15분 후 총소리가 났다. 군부대에서 사격을 했고, 수상한 배는 효자도 옆으로 해서 원산도 남쪽으로 날듯이 도망갔다. 이 배는 간첩선이었고 안면도 옆에서 침몰하였다. 나중에 대천역전에서 전시하는 것을 보니 총탄을 많이 맞은 흔적이 있었다.

당시 신고한 일로 역대 바클을 선물로 받아 지금도 차고 다닌다.¹⁾

1) 이것은 1980년 6월 21일 침투한 간첩 김광현 사건이다. 효자도 옆 명택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처에서 작업하던 잠수기어선에 발각되어 신고되었고 결국 결렬비열도 근해에서 격침되었다. 9명이 사살되고 안내원인 김광현(42세)만 생포되었다. 간첩선엔 공작원 3명, 안내원 3명, 공작선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보령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한여마을의 옛 생활



이응두 (1937년생)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이응두 씨는 1937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한여 마을에서 태어났다. 한산 이씨로 이산해의 아들 이경진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만난 홍씨 부인이 한여 마을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홍씨 부인의 묘는 현재도 마동에 있다.

이응두 씨는 송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나가 있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으로 들어와 있다. 19살에 군대에 입대하여 부산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부산에서 과자공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줄곧 거주하였다.

이응두 씨의 아버지는 월도에 다니면서 생선 장사를 하였다. 한여 마을까지 생선을 가져와 대천으로 져가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한여 장벌에 불을 피우면 월도에서 배가 와서 소통하였다. 아버지는 배가 없어도 이렇게 서로 연락하여 월도에 다니면서 장사하였다.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마을의 술집에서 투전을 하여 없었다고 한다.

이응두 씨 댁은 한여에 4마지기, 솔바리에 10여 마지기, 합해서 14마지기의 논이 있었고, 밭은 아주 많았다. 모두 한여 마을 앞에 있었다. 밭에는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심었는데, 고구마는 썰어 말려 팔았다. 생으로 썰어 말린 것을 절간고구마라고 하였으며, 수매하여 소주공장으로 갔다. 남평 문씨 댁에서는 뽕나무를 길러 명주를 짜기도 하였다.

한여 마을은 바닷가 장벌에 들어섰다. 동글동글한 작은 자갈로 되어 있었고, 바다로 이어졌다. 바닷가는

물이 깨끗하여 해수욕하기 좋았다. 마을 앞에는 형제바위라고 불리는 멋있는 바위가 있었고 주민들은 바위 앞에서 조개도 잡고 부말도 잡았다. 밤에는 낚시질을 하여 붕어지(붕장어과의 바다 물고기)나 우럭을 잡았다. 한여 마을 형제바위 앞에는 주벽녀라는 바위가 있었고, 이 바위 근처에서 주벽을 댔다. 잡는 고기는 열치같이 떼로 다니는 작은 고기들이었다. 멸치같이 작은 고기는 잡지 않았다.

한여 마을에는 예부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주 옛날에는 대부분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고 근래에는 통발로 고기를 잡았다. 한여 마을에 통발 배가 4~5척 있었고, 원산도 밖,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다. 이응두 씨도 태안 신진도 앞까지 나가 고기를 잡았다. 주로 잡히는 고기는 아나고, 우럭, 놀래미, 박하지(민꽃게) 등이었고 박하지를 가장 많이 잡았다. 미끼는 주로 고등어를 썼다. 잡은 고기는 안흥항이나 대천항에서 팔았다. 한여 마을에는 먹을 것만 가지고 왔다.

한여 마을에 어업하는 가구는 많았지만, 국가에서 만든 방파제는 없었다. 원산도와 안면도가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잔잔한 바다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풍이 예보되면 배를 오천항으로 옮긴다. 이때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나와 협력해야 하였다. 배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한여 마을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김발을 댔다. 주변에서 가장 먼저, 은포리보다도 먼저 김양식을 하였다. 장소는 탄산 앞이었고 품질이 좋아 서울에서도 유명하였다. 한여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김발을 댔다. 이응두 씨는 김발을 30떼나 매어 양식하였다. 김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댔다. 마을 처녀들과 은포리 처녀들까지 불러 김을 댔는데 하루 생산량이 20~30 톤이나 되었다. 김을 말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햇빛에 말렸으나 나중에는 창고에 난로를 놓고 말려, 안정적으로 말릴 수 있었다. 김양식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

주교면 고정리 사람들, 즉 사당굴, 마동, 한여 사람들은 국수봉에서 당제를 지냈다. 국수봉 꼭대기에는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신수(神樹)로 나무가 서 있었고, 돌로 말을 만들어 놓고 당제를 모셨다. 당제 모시는 것을 이응두 씨는 보지 못했다. 한 세대 전의 이야기이다. 그래도 국수봉 꼭대기에는 현재까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부서진 말이 있다.

이응두 씨가 배사업을 할 때에는 선장실에 상을 차려놓고 뱃고사를 지냈다. 오색기도 가

지고 있었는데, 깃발을 가지고 국수봉에 오르지는 않았다. 마을사람들 모두 그냥 배에서만 지냈다.

한여 마을에서도 옛날에는 공치기를 하였다고 전한다. 이응두(1937)씨 보다 10여 세 위분들의 놀이였는데, 공치기를 하던 곳을 공터라고 불렀다. 마을에는 큰 팽나무가 2그루 있었다. 단오가 되면 어른들이 동아줄을 틀어 그네를 매 주었고, 마을의 처녀들이 탔다. 팽나무는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베어졌다.

이응두 씨가 15세쯤 되었을 때 마을에는 꼬댁각씨 놀이를 많이 하였다. 꼬댁각씨 놀이는 처녀들의 놀이로, 대략 5명 정도의 처녀들이 방에 둘러 앉고, 꼬댁각씨를 잡는 이응두 씨가 가운데에서 들쭉나무 가지를 잡고 있으면 처녀들이 주문을 외운다. 처녀들의 주문이 이어지면 신이 내려 대가 움직였다. 그러면 처녀들이 들쭉나무에 내려진 꼬댁각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된다. 주로 '누구는 언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나요?'하는 식이다. 놀이는 웃지 않고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꼬댁각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마칠 때는 어떤 절차 없이 그대로 끝났다.

한여 마을은 바닷가, 자갈과 모래로 된 언덕 위에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습지는 논으로 개간되었다. 사리 때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논으로 들어가고, 장마 때에는 논물이 불어나 배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문이 필요하였다. 수문통이라고 불렀고 문은 나무판자였다. 마을에서 당번을 정하여 관리하였다.

한여 마을은 간첩이 상륙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주둔하였다. 마을 북쪽 옆산에 있었는데 1개 분대의 병력이 주둔하였다. 1980년대에는 마을 앞으로 간첩선이 지나가, 오천면 영보리까지 갔다가 발각되어 잡은 일도 있었다. 한여 마을에 경찰들은 근무하지 않았다. 6·25당시 적 치하에서는 인민군 1개 분대가 한여 마을에 들어와 주둔하였다. 그들은 해안을 감시하고, 산에 호를 팠다. 상륙하는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호를 파기 위하여 주민들을 동원하였고, 대천 등 먼 곳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마을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후퇴할 때는 밤에 감쪽같이 없어졌다.

한여 마을에는 2개의 샘이 있었다. 마을 안에 있는 샘은 염기가 있어 좋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가패샘은 물이 아주 좋았고 용출되는 양도 많았다. 각 가정에서 정성

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물을 떠다 사용하였다. 두레박을 사용하는 샘이었다. 마을에 있는 샘물은 주민들만 사용하였고 월도사람들은 사용하지 못 하게 하였다.

월도와 한여 마을은 서로 연락을 하였으나 가깝지는 않았다. 월도 주민들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오포리 가그말 사람들이다. 가그말 사람들이 월도에 물, 나무, 쌀 등을 주고 고기로 바꾸었다. 서로 생산물이 달라 바꿀 필요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월도 사람들은 이렇게 가그말과 교류하는 것을 ‘가그말살이’라고 하였다.

한여 마을에는 방파제는 없어도 장벌에 배를 대기가 좋아 옛날부터 많은 배가 들어왔고, 술집도 많았다. 최고 많을 때는 4곳의 술집이 있었고, 이응두 씨가 본 술집도 3곳에 이른다. 술집에 젊은 여자를 고용하지는 않았다.

한여마을 주민들은 섬 주민들과 혼인을 많이 하였다. 이응두 씨가 기억하는 경우만 해도 월도에서 3명, 호도에서 1명, 원산도에서 1명이 시집을 왔고, 녹도로 1명, 황도로 1명이 시집을 갔다. 특히 녹도의 박씨 댁에서는 형제가 한꺼번에 결혼하였다. 형은 마동의 처녀와, 동생은 한여의 처녀와 한 날 결혼하여, 함께 배로 실어갔다고 한다.

한여 마을에서 처녀 총각들이 사랑을 나누다가 들켜 내쫓기는 일이 두어 번 있었다. 남자 여자를 모두 쫓아냈는데, 나가서 결혼해서 살지는 못 했다고 한다. 마을이 집성촌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처지여서 쫓아냈다고 한다. 쫓아낼 때는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여수해 마을과 한여 마을이 최초로 이주되었다. 이때 한여 마을 주민들은 살던 마을, 언덕 너머에 있는 솔바리로 모두 이주하기로 하였다. 원 마을에 살던 때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솔바리에 이사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발전소가 증설되는 바람에 다시 이주하였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갈라져 뿔뿔이 흩어졌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신보령 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송도마을의 옛 생활



김 경 옥 (1941년생)
보령시 대천동



김경옥 씨는 1941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 마을에서 태어났다. 나주 김씨로 고조할아버지가 안면도에서 송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후손들이 세거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독신인데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독신인데 선원으로 일하다가 5남2녀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다. 김경옥 씨는 큰아들로 동생들 뒷바라지에 고생하였다.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워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였다.

1950년 여름, 송도 선적의 중선배 2척이 전라도 법성포에 들어갔다가 인민군들에게 잡혀 모두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법성포에서 실종된 선주 가족들이 법성포에 들러 선주를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고, 배만 포구 안에 폐선으로 되어 떠 있었다고 한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인민군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중선배들은 조기를 주로 잡았다. 중선 그물로 조기를 잡다보면 아구, 광어, 꽃게 등 여러 고기가 잡히는데, 초사리에는 모두 버리고 조기만 잡아 처리하였다. 다만 조기를 잡다가 사리가 끝나갈 무렵에는 돌아가서 먹을 것을 생각하여, 아구나 광어도 말리고, 꽃게는 소금에 절였다가 가져와 나누어 먹었다. 조기는 생으로 팔았지만 나머지는 말리거나 소금으로 절여 가지고 왔다.

중선배의 그물은 입을 크게 벌린 큰 그물이다. 입을 벌리기 위해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있는 막대가 필요한데, 가라앉는 것을 암해, 뜨는 것을 수해라고 부

른다. 중선 어업에서 중요한 것이 닻이다. 배를 고정하기도 하지만, 조업할 때는 그물을 고정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출어할 때는 닻을 점검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간다. 닻은 목수가 만든다.

중선배가 출어할 때는 15일 동안 사용할 것을 싣고 나간다. 쌀은 1가마 싣고, 물은 배에 있는 수항에 싣는다. 보통 8짐, 즉 16통이 들어가는데, 배에서는 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밥을 할 때도 바닷물로 쌀을 닦아 건져 놓았다가, 밥물만 민물로 붓는다. 그릇도 바닷물로 씻는다.

나무는 겨울에 장만하는데 참나무를 사다가 잘게 쪼개어 준비한다. 반찬 중에는 중요한 것이 김치이다. 김치는 부잣집에서 독째로 실어주는데, 나중에 김칫독에 조기를 가득 담아 주어야 했다. 물물교환인 셈이다.

연평도로 출어하면 대략 1달이나 1달 반 조업하였다. 2사리 내지 3사리를 조업한 것이다. 일단 연평도에 가서 정박을 하고, 3매가 되면 출어하여 조기를 잡다가 다시 조금이 되면 연평도에 정박한다. 그래서 조업기간의 1/3 정도는 연평도에 정박하게 된다. 연평도에 가면 선장이 배에서 임장군에게 제를 올렸다. 제물은 선원들이 먹는 밥이었고, 생선 말린 것을 찌서 놓았다. 이것을 지숙이라고 하였다.

조기철이 끝나고 잡는 고기는 모두 절여서 팔았다. 갈치는 잡는 대로 가마니를 깔고 소금에 절여, 가마니로 덮어 놓는다. 이것을 ‘섬간’이라고 하는데 맛이 좋았다. 시장에서는 ‘중선 갈치’라고 하였다. 이때 생기는 국물은 버리지 않고 김장 때 사용하였다.

김경옥 씨가 연평도에서 조업할 때, 한 그물에 조기 7만 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 당시 선장이 어업금지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가서 조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조기를 퍼내지 못 하고 그물을 매단채로 천천히 남하하여, 안전한 곳에서 퍼 담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물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았다. 북한 쪽으로 가면 많은 조기를 잡을 수 있었다.

조기를 잡다가 북한에 잡히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웅천에 사는 김기남 씨네 배가 북한에 잡혔는데, 배도 돌아오지 않고, 선원들도 소식이 없다. 송도에는 북한에 잡혔다가 돌아와 10여 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다. 출소하자 오래 못 살고 사망하였다.

송학리 안산에서 송도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바로 목다리였다. 먼 선조들이 놓은 다리인데, 갯골에는 독살처럼 돌담을 쌓았고, 큰달바위를 통하여 송도로 들어왔다. 다리는 매년 추석날 전 주민이 나와 보수하였다. 추석날 차례를 지낸 후 모든 주민들이 나와 떠나간 돌을 다시 쌓아 놓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와 돌에 붙은 이끼를 닦아내기도 하였다. 송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다리로 다녔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닦은 것이다.

목다리는 송도 남쪽에 있는 우무녀하고 높이가 같았다. 산고래 마을에서 송도로 건너올 때 목다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우무녀를 보고 판단하였다. 우무녀가 보이면, 건널 수 있고 잠기면 목다리도 잠긴다.

송도의 윗섬과 아랫섬 사이에는 넓은 갯벌이 있었고, 갯벌 안에서 은포리에 살던 강봉석 씨가 갈통을 묻고 소로 썬레질을 하는 본업 자업을 하였다. 그후 해방 직후 강봉희씨는 갯벌의 입구를 막아 천일제염 염전을 만들어 많은 소금을 생산하였고, 큰 돈을 벌었다. 송도의 종선배들은 모두 이 염전의 소금을 이용하였다. 제방을 막을 때는 모두 지게로 져다 막았다.

송도 윗섬에는 마을 가운데에 대동샘이 있어 사용하였다. 정월 달 걸립할 때는 걸립패가 샘물이 잘 나오라고 축원하기도 하여 여름에는 모두 모여 품어내고, 이끼를 닦고, 바닷가에서 깨끗한 돌을 가져다가 깔아놓기도 하였다.

송도에서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당제를 지냈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선달 보름경에 마을 회의를 해서 당주를 뽑았다. 마을 회의를 ‘동네말’이라고 불렀다. 마을회의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당주를 뽑아 당제를 맡긴다. 당젯날은 당주 집에서 떡, 복어, 과일, 나물 등 음식을 마련하여 당산으로 오른다. 이때 선주들은 뱃기를 가져와 당집 앞에 세워놓는다. 제를 마치면 뱃기를 들고, 뛰어 내려가 각자의 배에 세우고, 뱃고사를 지냈다.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모여 거리제를 지낸다. 거리제는 북쪽 바닷가 작은 팽나무에서 지냈다. 거리제를 마치면 마을 동북쪽 해안으로 나가 용왕제를 지냈다. 용왕제를 마치면 소지종이에 제물을 세 덩어리 싸서 바다에 던졌다. 용왕제를 마쳐야 제를 마치는 것이다. 제의 모든 과정에는 풍장을 쳤다.

송도에서는 설달 그믐날 돼지를 잡아 뱃고사를 지냈다. 중선을 부리는 집에서 지냈는데, 반드시 돼지를 배에서 잡아 떡과 함께 제를 올렸다. 떡은 선주 집에서 해왔다. 제를 지낸 뒤에는 선원들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송도의 중선배들은 출항 할 때, 조기를 잡을 때에도 제를 올렸다. 출항할 때는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제를 올리고 바로 출항하였다. 이 때는 돼지고기를 바닷물에 절였다가 제물로 쓰곤 했다.

송도의 중선배들은 조업을 할 때도 항상 팽과리, 징, 북을 가지고 다니다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선주집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가장 큰 돛대 위에 오색기를 달고, 풍장을 치면서 들어온다.

송도마을에는 초군계가 있었다. 초군계는 위섬과 아랫섬이 함께 하였다. 송도의 초군계는 매우 엄격하여, 만일 마을에 초상이 났는데, 가지 못할 처지이면 사람을 사서 보내주었다.

송도 목다리 옆에는 깊은 목둑병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명주꾸리가 3개 들어갈 정도로 깊었고, 아랫섬 서남쪽에 있는 용구멍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송도에는 옛날 토정 이지함 선생이 독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독배가 목둑병에 빠졌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토정선생 묘역에는 독배라고 하는 넓적한 돌 2개를 가져다 놓았다.

송도 어린이들은 장벌 옆 산비탈에서 나무바퀴로 만든 자전거를 타고 놀았다. 큰 나무를 잘라 가운데에 구멍을 파 바퀴를 만들고, 바퀴 3개로 자전거를 만들어 탔다. 공차기도 많이 했는데, 새끼줄을 감아 공을 만들거나,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공을 만들어 장벌에서 찼다. 배에서 돼지를 잡으면 오줌보만 버리기 때문에 주워다 놀았다.

송도에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주민 모두 좋아하였다. 육지와 완전하게 연결되고, 버스도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도와 가까운 곳에 가스터빈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여 반대하였고, 급기야는 송도와 마동 사이의 바다에 회처리장을 만드는 바람에, 전 주민이 이주하게 되었다. 일부 주민이 송도에 남았으나 이후 신보령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는 송도 전 지역이 수용되어 모두 이주하게 되었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보령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고만마을의 옛 생활



오 무 섭 (1941년생)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오무섭 씨는 보성 오씨이다. 고만 마을의 보성 오씨는 원래 예산 쪽에 살다가 오천면 오포리를 거쳐 고만 마을로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는 독신아들로 태어나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나 일은 하지 않고 향교를 출입하면서 선비생활을 하였다. 그중 큰아들인 오무섭님은 아버지 대신 집안일을 하느라고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줄곧 농사일을 하면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다녔다. 본인도 6남매를 낳아 길렀다.

고만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예전에는 3가구만 살았고 최고 많이 살 때도 6가구뿐이었다. 고정리를 4반으로 나누었는데, 고만은 사당굴과 함께 3반에 속하였다. 당제도 사당굴과 함께 지냈고 상포계도 사당굴과 함께 했다. 외부로 소통할 때도 사당굴을 거쳐갔다. 썰물이 되면 바닷가를 통하여 사당굴, 송학리 산고래, 은포리를 통하여 대천장에 다녔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토정이지함 선생 묘지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하여 사당굴로 갔다.

고만 마을에는 논이 7마지기뿐이었다. 논이 적어 큰 마을이 될 수 없었다. 고만 마을 앞에 있는 갯벌을 간척하면 약 50마지기의 논을 얻을 수 있었으나, 마동에 비하여 파도는 더 세고, 제방에 비해 면적이 적어 간척되지 않았다.

오무섭 씨는 마을 밖 이곳저곳에 논밭을 두고 배를 이용해 짐을 날랐다. 그의 배는 농사용이지만 드물게 낚시질도 하였다. 봄에 용섬 근처에 가서 복쟁이 낚시

질을 하였는데, 옛날에는 천여 마리를 낚기도 하였다. 잡은 복쟁이는 내장을 빼고 장벌에 말려 내다 팔았다. 배가 짐 싣는, 넓적한 주냄비여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 복쟁이를 잡는 계절은 보리누르미라고 하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다. 이때 우럭도 많이 잡혔는데, 옛 어른들은 우럭과 복쟁이가 서로 교미하기 때문에 우럭 알도 복쟁이 알과 같이 독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럭 알도 절대 먹지 않았다¹⁾.

오무섭 씨는 쟁기질 기술자였다. 쟁기질은 소가 어느정도 커서 일할 수 있을 때, 끄시렁쿠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친다. 길바닥이나 장벌에서 끌고 다녔는데 대개 1달이면 배울 수 있었다. 소를 기르지 않는 집에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 논을 갈고 썰레질까지 해 주어 모를 심게 한다.

오무섭 씨는 자기 논 50마지기와 남의 논 20마지기를 같이 관리하였다. 남의 논에서는 마지기당 1.5명의 품을 받았다. 너무 논을 많이 갈기 때문에 소가 늘 어려웠고, 발톱이 닳아 절룩거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소에게 짚신을 신겨주고, 각종 보약을 먹였다.

오무섭 씨는 최초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 모래땅이라서 개발하기 좋았다. 이런 샘에서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 논에 댔다. 이후에는 파이프를 박아 모터로 뽑아 사용하였다. 저수지가 없었어도 지하수로 농사지를 수 있었다.

옛날, 농약이 나오기 전에는 논에 복쟁이 기름을 뿌려 벌레를 잡았다. 복쟁이 기름은 복쟁이의 내장(알 포함)을 삶아 농축하여 만든다. 병에 넣고 솔잎으로 막은 후, 논바닥에 군데 군데 떨어뜨리면 벌레가 죽었다.

오무섭 씨가 12살 때 쫘 집 앞 갯벌을 관찰해 보니 떠내려 온 대나무의 작은 가지에 김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신우대 나무를 바다에 꽂았더니 김이 잘 붙었다. 다음에는 왕대를 사용했다. 오무섭 씨가 최초로 김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하루 생산량이 3천~4천장이었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 많은 돈을 벌었다. 이후에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김발을 매서 많은 돈을 벌었다.

6·25당시 인민군 소대가 고만에 들어와 오무섭 씨 댁에 살았다. 그들의 임무는 산에 호

1) 필자가 어렸을 때도 우럭알에 독이 있다고 먹지 않았다. 필자는 복쟁이와 우럭이 교미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우럭알과 복쟁이 알은 서로 비슷하다.

를 파는 일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산허리에 목이 닿게 봤는데, 바다에서 보이는 곳은 밤에, 안 보이는 곳은 낮에 봤다. 동원된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이었다. 인민군들이 후퇴한 후에는 인민군에 협조한 주민들을 잡아, 토정 이지함선생 묘소 아래와 동틀 제방 안에서 죽이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였다. 수복 후에 죽은 사람은 윤씨와 김씨였다.

오무섭 씨는 굴양식도 하였다. 굴이 바위에 붙고, 나뭇가지에 붙는 것에 착안하여, 농사 짓는 주냄비 배를 이용하여 산기슭에서 돌을 실어다가 갯벌에 놓아 양식하였고, 갯벌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양식하였다. 굴양식으로도 소득을 올렸다.

오무섭 씨는 마동 간척지 제방 안에다 갈통을 묻어 소금을 굽기도 했다. 당시 제방 안쪽이지만 논을 만들거나 천일제염을 하지 않고, 갈통을 묻고, 소금물을 얻어, 솥에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이곳의 갈통은 특별하였다. 제방이 막혀있는 곳이기 때문인지 갯벌을 말려 바닷물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땅 속에서 염도 높은 소금물이 나왔다.

고만 마을은 바닷가 한적한 곳이라 1950년대까지 아편을 많이 재배하였다. 오무섭 씨 집에서도 밭에 아편을 심었다. 흰색 꽃이 피는 양귀비를 심어 가마솥에 끓여 농축하였다. 농축시킨 아편은 팔지는 않고 상비약으로 두고 먹었다. 횡배²⁾ 앓을 때 먹으면 바로 낳았다.

고만 마을 논 가운데에는 통샘이라고 불리는 바가지샘³⁾이 있었다. 물이 좋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였다. 이 샘에는 큰 뱀장어 몇 마리가 살았는데 어른들이 샘 임자⁴⁾라고 하여 잡지 못하게 해서 잡지 않았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였다.

고만 마을 주민들은 사당굴 주민들과 함께 정월 열나흘날 저녁 국수봉에서 당제를 지내고 내려와 사당굴 입구에서 거리제를 지낸 후, 사당굴 앞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냈다.

고만 마을 주민들은 고정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정리 주민들과 상포계를 하였다. 상을 당하면 계를 타고, 남들이 상을 당하면 껌돈을 부담하였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쌀로 약속하고 돈으로 지불하였다. 상여는 하나였고, 상엿집은 2개였다. 감적굴에 있었고, 한여에 있어 편리한 대로 두었다. 대개 상을 치른 뒤에 가까운 상엿집에 보관하였다. 상포계의 계

2) 회충 때문에 일어난 복통.

3) 두레박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퍼 낼 수 있는, 지하수위가 높은 샘.

4) 샘 주인

원들은 상이 나면 상여를 메고, 산역일⁵⁾을 하였다.

오무섭 씨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주로 묘지 만드는 일(산역일) 하였다. 먼저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낸 후, 광중 안을 봤는데, 시신의 크기를 생각하여 적당한 크기로 봤다. 시신은 관째로 넣거나, 관을 빼고 넣는데, 어떤 경우든지 흙을 약간 덮고, 명정을 덮은 후 칠성판을 덮는다. 칠성판 위에는 과거에는 회다짐을 하였지만 요즘은 하지 않는다. 회다짐 이후에는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든다. 봉분은 지형을 보아 높은 곳을 파다가 만든다. 봉분에는 잔디를 심어 마무리하는데, 잔디는 양지바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바닷가에서 가져왔다. 근래에는 구입해서 사용한다.

마동 마을 아래쪽뿌리 안쪽(동쪽)에는 300평짜리 밭이 있었는데, ‘저건너밭’이라고 불렀다. 오무섭님 소유의 밭이었고 사는 집의 건너편에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이 밭의 안쪽 언덕 밑에서는 옛날 기와가 적잖이 나왔고, 마을에서는 기와를 주워다가 가루 내어 명절 때, 늦그릇을 닦는데 사용하였다.

현재 이지함선생 묘역 주차장 옆에는 넓직한 2개의 돌이 있다. 이 돌은 묘지 아래 큰메골 앞 해안에 있던 바위이다. 주변에는 1마지기 정도의 논이 있었고, 논 아래 갯벌에 있던 바위를 이지함 선생이 타고 다녔다는 전설이 있어 옮겨다 놓은 것이다.

보령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때문에 고만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마을 북쪽 도로변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이주한 마을도 고만으로 불리면서, 원래의 고만을 원고만이라고 부른다.

현재 고만마을에는 대나무가 울창하다. 고만마을의 대나무는 김발 매느라고 오무섭 씨가 신대리에서 캐다 심었다. 김발을 맬 때에는 대나무가 비쌌으나 현재는 김발을 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발을 매는 곳에서도 그물로 매기 때문에 대나무가 필요 없어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5) 땅을 파서 묘를 만드는 일.

보령시
보령의 바다

보령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여수해마을의 옛 생활



신정섭 (1938년생)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신정섭 씨는 평산 신씨이다. 할아버지가 오천면 갈현리 산수굴에 살다가 오포리 여수해로 이주하였다. 할아버지는 당시에도 기타를 메고 다닐 정도로 개화된 분이었고 생활이 어려워 여수해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수해 마을에서도 할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신정섭 씨의 아버지가 농사도 짓고, 맨손어업, 양식업 등 닥치는 대로 일하여 생활하였다. 아버지는 독신 아들로 태어나 7남매를 낳아 길렀는데, 그중 장남이 신정섭 씨이다. 신정섭 씨는 주포면 연지리 가줄 출신의 강금종과 결혼하여 2남4녀를 낳아 길렀다.

여수해에는 논이 100마지기쯤 되었다. 그런데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논이 침수되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논이 침수되기 때문에 수문조절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였다. 수문지기라고 불렀는데, 밀물에는 수문을 닫고, 썰물에는 열어 놓아야 했다. 밤에도 수문을 여닫아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자기도 어려웠다. 특히 사리때는 어려웠다. 마을에서는 수문에 가까운 논 2마지기를 수문지기에게 농사 짓도록 하였다. 염기가 있어 잘 먹지 못하는 논이었다.

신정섭 씨는 오천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오천초가 있는 읍내는 오포리, 가그말을 통하여, 영보리, 솟재를 지나 다녔는데 30리는 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녔다. 1년후, 교성분교가 만들어져, 교성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시험을 쳐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수산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마을 분위기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한

문을 배워야 지방(紙榜)이라도 쓰고, 집안의 기둥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한문을 공부하였다.

여수해에는 중선배가 하나 있어 멀리 조기를 잡으러 다녔다. 배가 낡아 물을 퍼내면서 다녔어도 멀리 다니면서 조기를 잡았다. 선원들은 외지 분들이 많았고 여수해 분들도 외지의 중선배를 많이 탔다. 그 외 마을 사람들은 돛 2개 달린 작은 낙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질을 해서 팔았다. 멀지 나가지 못하고 삼지도 안쪽에서 주로 조업하였다.

보령화력발전소 부지로 수용되어 이주할 때 여수해 마을에는 약 20여 호가 살았는데, 모두 각성반이로 송도에 집성촌을 이루는 유씨가 몇 가구 거주할 뿐이었다. 주민들이 거주한 것은 해안이었다. 해안에 남향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앞쪽에 논이 있었고 뒤에 바다가 있었다. 샘은 마을 서쪽에 있었다. 큰샘이라고 불렀고 물이 많고 좋았다.

여수해 마을 주민들은 서로 속한 면(面)은 다르지만 가까이 있는 한여, 마동, 송도 주민들과 가까이 지냈다. 특히 한여와 마동 주민들은 초군계를 만들어 애경사를 함께 쳤다. 거리도 가깝고 대천장을 왕래하는데 같은 길로 다니면서 어울렸기 때문이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 여수해 마을에서 영보리 마을까지 제방을 막아 간척을 하였다. 결성 사람이 와서 막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방을 완성하였고, 논을 만들지는 못했다. 보령화력발전소 부지로 수용되어 많은 보상을 받았다.

여수해 마을과 영보리 사이의 갯벌에는 낙지가 많았다. 김살을 매다가도 금방 20~30마리를 잡았다. 다른 해산물은 많지 않았고, 낙지가 아주 많고 맛도 좋았다. 여수해 주민들은 언제나 마동마을 앞 조개바탕에서 바지락을 잡았다. 캔 바지락은 온 가족이 달라붙어 까서 소금에 버무려 젓을 담았다. 통이 가득차면 광천장에 팔았다. 바지락은 여수해 주민들의 큰 소득원이었다. 여수해에서는 굴양식도 조금 했다. 배로 돌을 실어다가 넣어 양식했는데, 소규모였다. 성과는 그런 대로 좋아 소득원이 되었다.

여수해 갯벌에는 덩장을 땀었다. 처음에 경상도 사람이 와서 시작을 했고, 마동 사람이 사서 운영하였다. 덩장에는 여러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특히 봄에 승어가 많이 잡혔다. 어떤 때는 배에 가득 잡기도 하였다.

여수해 갯벌에서는 예전부터 김양식을 하였다. 옛날부터 왕대나무를 쪼개 엮어 양식하였

고, 근래에는 그물로 하였다. 대나무로 양식한 것이 맛이 좋았다. 옛날에는 포자를 붙이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냥 때맞추어 김발을 설치해 놓으면 김이 붙어 자랐다. 나중에는 월도 같은 섬에서도 포자를 붙여왔고, 인공포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수해 마을에서는 정월 열 나흘날 당제를 크게 지냈다. 먼저 마을회의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당주와 도와주는 사람을 뽑고 걸립을 하여 제비를 마련하였다. 당주 집에 황토흙을 놓고 금줄을 띠고, 당주는 근신하고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다. 음식은 당주 집에서 만들었다. 마을의 큰샘도 깨끗이하고 금줄을 쳐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쟁날 저녁이 되면 당주와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이 당산으로 올라가 제를 올린다. 당산 꼭대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고, 당집은 없었다.

제를 마치면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리며 실수한 이야기가 마을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다. 어떤 당주가 소지를 올리면서, 우리 마을 평안하고 잘 살게 해 달라고 빈다는 것이, 우리 마을 주민들 빌어먹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제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당제 때에는 마을의 뱃기를 모두 당산으로 올려 걸어놓고, 제를 마친 뒤에 각자 배로 가지고 왔다. 뱃기가 배로 내려오면 각 배에서는 뱃고사와 용왕제를 지냈다. 마을의 풍물패는 당제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다가 뱃고사에서부터는 소리를 냈다. 여수해 마을의 당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다. 보령화력발전소로 수용되어 이주할 때까지 당제를 지냈다.

여수해 주민들은 이웃한 한여, 마동 주민들과 애경사를 함께 하였다. 특히 초상이 나면 서로 돕는 초군계를 만들어 철저하게 운영하였다. 만약 상을 당하면 상주집에 쌀을 얼마씩 가져다 주고, 장례 때까지 일을 돌보아 준다. 의무적으로 나와 상여를 메거나 산소 만드는 일을 해야했다.

여수해 마을에서는 독자적으로 상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오포리이지만 가그말이나 매미굴과는 다른 상여를 마련한 것이다. 상여집은 마을 서쪽, 농배 근처 외진 곳에 있었다. 상여를 관리하던 사람도 지정되어 있었는데 상여장모라고 하였다. 상여장모는 여름 장마가 지나면 상여를 내놓아 건조하는 일 등 상여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여수해와 한여 마동 마을은 높은 국수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국수봉 아래를 지나 사

당굴을 거쳐 대천장을 보았다. 상당한 높이로 올라가야 통행할 수 있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걸어 다닐 뿐 리어카도 다닐 수 없었다. 1970년경, 공병대가 신작로를 뚫었다. 군사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병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사당굴에서 국수봉 뒤를 지나 한여와 여수해로 통하는 길이었다. 이 길을 통하여 한여까지 버스가 들어왔고, 여수해에도 트럭이 들어올 수 있었다. 신작로가 만들어진 후 바로 전기가 들어와 여타 농촌지역보다 몇 년 일찍 전기가 들어왔다.

여수해 주민들이 먹던 샘은 아랫말 서쪽에 있는 큰샘이다. 큰샘은 두레박으로 떠 먹는 샘인데, 물이 좋고 많이 나와 충분하게 사용하였다. 김양식을 할 때도 그 많은 김을 다 씻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다. 앞서 말했듯 큰샘은 당샘이기도 하였다.

여수해 주민들은 여름밤에 장벌에 나가 놀았다. 여수해 장벌은 잔 자갈로 되어 있었는데, 침식을 받지 않아 모난 상태이지만, 늘 파도에 씻겨 깨끗했다. 여름밤이면 이곳에 나와 이야기도하고, 술도 마시며 놀았다. 마을에 술집이 늘 1~2개는 있어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여수해 마을의 청년들은 중선배를 기다렸다. 중선배에는 쌀도 있고, 선원들이 먹는 좋은 생선도 있어 그것을 먹으면서 놀았다. 조금때는 늘 중선을 기다렸다.

보령화력발전소 부지로 수용된 여수해 주민들의 절반쯤은 당진군 송학면으로 이주하였다. 주민들 스스로 답사하여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간 곳이 당진군 송학면이었다. 이곳은 여수해에서처럼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다를 활용하는 기술이 당진보다 앞선 곳이었다. 이주한 후 통발어업을 열심히 하여 모두 성공하였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

송도마을의 배치기와 상엿소리



유우기김기최 (1949년생)
 명정경유동 (1945년생)
 오길옥이규 (1941년생)
 유우기김기최 (1935년생)
 유우기김기최 (1934년생)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마을 어업과 관련된 풍물

송도 마을에서 어업과 관련된 풍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배가 나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북으로 장단을 맞추었고, 고사 뒤에는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놀았다. 출어할 때는 먼저 닻줄을 당겨 닻을 들어올리고, 이어서 돛을 올렸다.

이어서 조업 현장에 도착하면 닻을 놓고, 그물을 내렸으며, 암해와 수해를 던져 그물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를 청소하였다. 그물에 고기가 들면 그물을 당겨 배에 퍼 실었다.

만선이 되어 돌아오게 되면, 송도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풍물을 쳐 만선임을 알렸다. 대개 원산도 도투머리를 지나면 풍물을 쳤다. 처음에는 천천히 치다



가, 마지막 송도 산굽이를 돌아올 때는 빠르게 쳤다.

뱃고사 장단

뱃고사를 지낼 때에는 배의 구석에서 북을 쳤다. 처음에는 느리게, 점점 빠르게 쳤는데,, 4번을 치면 제가 끝났다. 소리 없이 북만 쳤다.

뱃고사 후 놀이 소리

뱃고사 후에는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한판 놀이를 하였다. 2021년 6월 15일 촬영 때 사 설은 다음과 같다.

어여저저 북치고 났다. 후렴(에헤헤에어헤에헤)

충남 장원은 우리가 헐리라. 후렴

칠산바다 다 벌어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간다. 후렴

오동추야 달 밝은 사리 안안팍 네물¹⁾에 다잡아 실었다. 후렴

칠산바다 들어오는 조기 우리 배 마장에 다 잡아 실었다. 후렴

진네 아줌마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서²⁾ 응땡이 춤춘다. 후렴

칠산바다 다 벌어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간다. 후렴

충남 장원은 우리가 헐리라.(김선주 줄거라) 후렴

오동추야 달 밝은 사리 안안팍 네 물에 다잡아 실었다. 후렴

진네 아줌마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서 응땡이 춤춘다. 후렴

닷줄 당기는 소리

닷줄을 여럿이 당겨 닻을 올렸는데 소리는 다음과 같다. 닻줄이 거의 당겨지면 더 빠르게 하였다.

1) 1일을 말함. 하루에 밀물 썰물이 2번씩이라, 밀물 2번, 썰물 2번 합해서 네 물이라고 한다.

2) 배하고 땅을 연결하는 판자. 여자는 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발판 아래에서 춤춘다는 것.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아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돛 올리기

돛을 올리기 위해서는 줄을 당겨 내렸다. 줄을 당기면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어이야 디야.-손으로 내리면서.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닢 놓는 소리

바다에 나가 그물을 드리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닢을 놓아야 했다. 닢을 놓는 소리는 ‘어가’였다.
 하나, 둘, 셋, “어가”

암해, 수해 넣는 소리

그물의 입구 중에서 바닥 부분이 암해, 윗 부분이 수해이다. 닢을 넣은 뒤 암해를 넣고 이어서 수해를 넣었다. 암해 수해를 넣는 소리도 역시 “어가”였다.

배 바로잡기

그물을 넣을 때는 배가 조류의 방향과 수직으로 놓인다. 그물을 다 넣은 뒤에는 배를 조류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때도 ‘어가 어가 어가’하면서 줄을 당겨 바로잡는다.

배 청소하는 소리

그물을 다 넣고, 배를 바로잡으면 청소를 하고 쉬게 된다. 청소를 하면서도 소리를 한다. 사설은 없고 “어 어허헤 에헤에, 여엿차아 에에.”한다.

그물 당기는 소리

그물에 고기가 들면 그물을 당긴다. 여럿이 그물을 당기면서 하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만선한 후 돌아오는 소리

만선한 중선배는 송도로 돌아오게 된다. 먼바다에 나가면 몇 일을 걸쳐 돌아온다. 이때 원산도 도투머리를 지나 송도가 보이면 풍물을 치고 소리를 한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지만 송도에 가까워지고, 산 모퉁이를 돌 때는 더 빠르게 풍물을 친다. 이때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도투머리 앞에서)

어여저저 북치고 났다. 후렴(에헤헤에어어헤에헤)

충남 장원은 우리가 허리라. 후렴

칠산바다 다 벌어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간다. 후렴

진네 아줌마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서 응댕이 춤춘다. 후렴

칠산바다 다 벌어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간다. 후렴

(산 모퉁이를 돌 때)

오동추야 달 밝은사리 안안팍 네물³⁾에 다잡아 실었다. 후렴

충남장원은 우리가 헐리라.(김선주 줄거라) 후렴

진네 아줌마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서 응댕이 춤춘다. 후렴

상여 소리

송도 마을에서는 상여를 장만하여 초상 때마다 마을 공동상여를 이용하여 시신을 운구

3)1일을 말함

하였다. 이때 상엿소리를 하면서 발맞추어 나갔고, 외나무다리도 발을 맞추면서 건너갔다. 모두 요령잡이의 선창에 의해 이루어졌다. 송도 상엿소리는 다음과 같다.

허어 허이야 헤에헤야 후렴(어허어허 예헤예헤)
 잘 살아라 잘 있거라 나 없어도 잘 살아라. 후렴
 간다간다 나는 가요. 입을 찾아서(두고서) 나는 가요. 후렴
 하하허허 후렴
 황천길이 멀다더니 문 밖이가 황천일레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건너산이 북망일레 후렴
 친구간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동행하리 후렴
 동기간이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가리 후렴
 하하허허 후렴
 간다간다 나는 가요. 님을 두고서 나는 가요. 후렴
 허허허허 후렴
 못다먹구 못다살고 황천길이 웬말이나 후렴
 불쌍허구 가련허다 이내 몸이 불쌍허네 후렴

가래질 소리

초상 때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가래질을 해야 했다. 가래질하면서도 소리를 하였다. 소리는 “어허 어이야”였다.

달구 소리

시신을 매장할 때 구덩이에 여럿이 들어가 다졌는데, 이때도 노래를 불렀다. 어깨동무를 하고 구르면서 “어허 달구”하였다.

보령시
보령의 바다증산리의
덤장이 풍 호 (1942년생)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이풍호 씨는 전주 이씨 임영대군의 후손으로 1940년 주산면 증산리 시루피 마을에서 태어났다. 시루피 마을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과의 집성촌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우부승지를 지낸 구촌 이덕온 선생이 광해군 때 입향한 이후 집성촌이 되었다. 1950~1960년대에는 산직살이 하는 분을 제외하고 모두 전주 이씨였다.

이풍호 씨는 이종성(1904)의 4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먼저 태어난 3남1녀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독신 아들이 되었다. 먼저 태어난 형과 누나는 홍역과 천연두로 모두 사망하였다.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는 형과 누나가 사망한 것은 할머니의 묘자리가 나뻐기 때문이었으며, 묘를 이장한 뒤 이풍호님과 4촌 동생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풍호 씨는 아버지에게서 천자문, 동네 서당에서 동몽선습을 배우고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3학년 때 6·25전쟁이 일어나 집에 있다가, 수복 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자퇴하였다.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고 외지에 나가면 안 되니까 집안일을 돌보라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를 중퇴하고 외갓집에 가서 한문과 가정의례 등을 배웠다.

시루피 마을에서는 1950년대까지 날이 가물면 주령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지냈다. 남자들은 주령산 꼭대기에서 지냈는데, 이때 주령산 꼭대기에서 솔가지 등 많은 나무를 마련하여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많은 불과 연기



가 올라가야 비가 온다고 믿었다. 불은 끄지 않고 밤새 타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자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마을 위에 있는 계곡에서 지냈다. 마을 여자들이 집에 있는 키를 모두 가지고 나와 풍물을 치면서 올라가 키를 닦았다. 키가 깨끗해지기도 하였지만, 닦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여서 키를 닦았다. 이때 여자들은 몸도 씻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

시루피 마을의 북쪽, 현재 교회 있는 곳에 큰 서낭당이 있었고 신수로는 큰 팔배나무가 있었다. 이곳을 지날 때에는 돌 세 덩어리씩을 던졌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 놓기도 하였다. 1950년대까지 마을에 마마(천연두)가 들어오면, 집집마다 걸립을 하여 제를 지내고 짚으로 말을 만들어 마을길의 남쪽과 북쪽에 놓았다.

시루피 마을에서는 1950년대 초까지 두레로 논을 밟다. 큰 마을기와 영기를 걸어놓고 일을 했으며 풍물패가 흥을 돋우었다. 풍물패에는 새납을 잘 부는 사람도 있었다. 저녁때가 되면 큰마당집 마당에서 놀았는데 무동을 3층으로 태우고 서로 옮겨가며 춤을 추었다. 최고의 춤꾼은 지흥갑 씨였고 별명이 꽃나비였다. 이북남의 팽과리, 밀양박씨의 양장구도 유명하였다.

시루피 마을은 배 형국이었다. 바다에서 보면 마을이 배의 몸이고 주림산이 뺏머리이다. 그래서 예부터 시루피 마을에 샘을 파면 배에 물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안된다는 금기가 있었다. 이런 금기는 1930년대까지 철저히 지켜져, 마을 사람들은 개울물을 길어다 먹었고 날이 가물어 개울물이 떨어지거나 홍수가 나 흙탕물이 되면 성 너머 샘에서 길어다 먹었다. 마을에 처음으로 샘이 생긴 것은 1930년대였다. 1950년대까지 마을의 샘(개인 샘)은 단 4곳이었고 공동샘은 없었다.

시루피 마을 앞에는 백합이 많았다. 백합은 웅천천과 바닷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맛도 좋았고 값도 비쌌다. 백합은 그랭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래를 훑어 잡았다. 백합의 종패는 그랭이에 모기장을 씌워 잡았는데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려 큰 소득원이 되었다. 전라도에서 사다가 양식하였다.

시루피 마을은 웅천천의 하구로, 서천군 서면 개야리와 이웃한다. 웅천천의 하구에 개야리 사람들이 덩장을 댔었는데 1952년 흉년에 잡은 고기가 팔리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지자,

증산리 시루피 주민들과 함께 덩장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하게 되었다. 이풍호 씨의 아버지가 처음 동업에 참여하였고 나중에는 이풍호 씨도 참여하였다.

덩장의 말목은 4m 간격으로 세우는데 얇은 곳은 작고 낮은 것을 세우지만 깊은 곳, 즉 내상 근처는 크고 높은 말목을 세웠다. 말목 하나가 한 짐이었다. 말목을 세우는 방법은 가래를 땅에 박고 흔들흔들하여 깊이 넣었다가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빼고 말목을 넣는다. 이때 말목을 흔들어 깊이 박는다. 이후 모래가 가라앉아 굳어지면 단단하게 박힌다. 1m 정도 깊이로 박았다.

덩장 발을 엮는 나무는 안면도에서 생산되었다. 길이는 한 발이었고, 한 발의 새끼줄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을 한 자리개라고 불렀다. 덩장을 매기 위해서 약 200자리개가 필요하였다.

바로 실어온 싸리나무는 30cm 간격으로 엮었는데 얇은 곳은 4날로 엮고 깊은 곳은 14날로 엮었다. 깊은 곳은 여러 개의 싸리나무를 이어야 하였다.

발의 길이가 30발이 되면 한 떼라고 하였다. 한 떼 단위로 엮어 바다로 운반해서 덩장을 쳤다. 덩장의 말뚝은 썰물에 발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발을 고정하는 것은 문을동아이다. 말뚝과 말뚝 사이에 문을동아를 묻는데, 동아줄에 솔가지를 매어 땅에 묻는 것이다. 문을동아의 동아줄로 발의 2단까지 묶는다.

이렇게 하면 발은 문을동아에만 묶여 있는 것이고, 말뚝에는 묶이지 않는다. 다만 내상 근처의 발과 해안에 있는 마지막 말뚝 2개 정도는 발을 말뚝에 묶어 맨다. 그러면 밀물 때는 묶어 맨 발을 제외한 모든 발이 넘어지고, 썰물이 되면 모든 발이 일어나 말뚝에 기대서게 된다. 그래서 고기가 장애 없이 들어와 잡히게 되는 것이다.

덩장의 가운데에는 4각형으로 20평 정도의 내상을 만들어 놓았다. 내상은 깊은 곳이어서, 물이 허리까지 닿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와 쪽대로 고기를 떠 우꺼에 담았다. 우꺼를 엮은 지계를 발에 기대놓고 고기를 떠 담아, 가득 차면 내상 밖에 바쳐 놓는다. 그러면 동업자가 살막으로 운반한다.

덩장의 규모가 컸고 당시에는 고기가 많아 많은 고기를 잡았다. 멸치를 200말 잡기도 하

였고, 갈치를 2,000마리까지 잡기도 하였다. 조금¹⁾ 이라도 2집 정도는 늘 잡았다. 한 번은 큰 가오리가 들어와 한 사람이 지지도 못하고 반으로 갈라 두 사람이 지고 서면장에 가서 팔았던 적도 있었다. 잡은 고기는 아주머니들이 골라다가 웅천장, 서면장 등 주변 시장에 팔기도 하였고 농촌마을을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

덤장에서 처음에 잡히는 고기는 갑오징어와 꼴뚜기 등이었고 꽃게도 잡혔다. 이후 5월쯤 되면 멸치가 올라오고 멸치를 따라온 갈치가 잡혔다. 다음에는 방어, 삼치, 민어가 들어오고 가을에는 조기와 전어가 잡혔다. 돈이 되는 고기는 갈치와 조기였고 주낙의 미끼로 파는 멸치도 돈이 되었다.

서천군 서면 개야리, 덩장을 출입하는 모래 장벌에 살막을 지었다. 바닥의 면적은 약 10여 평 되었고, 빗물이 닿지 않는 벽 쪽으로 밀집방석이나 명석을 깔았다. 이곳에서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다. 밥을 해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부자리와 식사도구를 준비해 두었다. 문은 남쪽으로 내었다.

살막에서 1달에 2번, 3매 날 저녁에 덩장고사를 지냈다. 덩장고사는 술과 범벅, 주과포, 생선을 놓고 지내는데 범벅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다. 범벅은 호박범벅, 찹쌀범벅, 멍쌀범벅을 만들어 올렸다. 이런 제물의 준비는 8명의 동업자 중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맡아서 하고 제관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만약 집안에 부정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시루되 마을에서는 1950년대까지 섯통을 만들어 전통소금을 만들었다. 섯통은 통나무를 박고 주변에 솔가지로 둘러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위에도 솔가지로 덮어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한 후, 바삭 마른 모래를 덮는 것이다. 사리가 되어 섯통 위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마른 갯벌흙을 통과하여 고이기 때문에 염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 염도 높은 물을 가져다가 솔에서 끓이면 소금이 되는 것이다.

※ 기억력이 좋은 이풍호 씨 덕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보령지방 해안마을의 옛 생활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 바닷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때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예안이씨 가문의 정성을 먹고 태어나는 전통 약주 외암연엽주	158
집안 전통의 막걸리 맛을 이어나가는 아산양조장	161
우리민족의 애환과 고난을 극복하며 탄생한 짚동가리 술	164
술쟁이의 누룩사랑으로 빚어낸 둔포 생 막걸리	167
지극정성이 빚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을 19도 탁주 이가수불	170
청정수로 만든 전통 발효식품 신선도 막걸리	173
옛날 궁중방식의 누룩을 만들어 탄생한 아산의 명주 수수리 계양주	177
가업으로 이어지는 음봉막걸리	180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예안이씨 가문의
정성을 먹고 태어나는
전통 약주
외암연엽주



이득선 (1941년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충남 아산 송악면 외암리에는 예안 이씨 가문에서 대대로 익혀 내려온 연엽주라는 가양주가 있는데 현 종손인 이득선, 최황규 부부가 그 맛을 보존하고 있다.

외암리민속마을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참판 댁이 보이고 아산 연엽주라고 쓰인 작고 순박한 간판이 보인다. 이득선씨가 살고 있는 참판 댁은 그의 조상이신 퇴호 이정렬이 이조참판을 지낸 덕에 ‘참판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는 70칸 한옥이었지만 현재는 아홉 대문과 30칸 한옥으로만 남아 있다.

이정렬은 이조말에 이조참판을 지내면서 고종의 아들 이은(영친왕)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그의 손자가 이득선 씨다. 원래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아주 정착 하였다. 선친의 무덤 앞에 여막을 치고 머리카락을 기른 채 3년 상을 치르고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연엽주를 담그고 있다.

연엽주는 5대조인 이원집이 쓴 “치농”이라는 책자에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150여 년 전 고종 임금 때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백성은 물론 고종임금이 반주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안타까워하던 이원집이 고두밥과 누룩을 주먹 크기만 하게 뭉쳐 연잎에 감싸 따뜻한 안방에 두었다. 일정한 온도로 인해 발효가 되어 연잎 안에 술이 괴었는데 맛을 보니 기존 술보다는 도수가 조금 낮고 몸에는 좋아 고종임금님께 올려서 마시게 하였다. 연엽주의 시초가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 연엽주이다.

예전에는 연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연엽주를 담글 분량만 재배한다. 연엽주 용 연잎은 한여름에 채취하지 않고 서리가 내리기 직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을 골라 따다가 연엽주를 빚는데 사용한다.

외암 연엽주는 멥쌀과 찹쌀을 섞어 술밥을 만들어 식힌 뒤 누룩을 넣어 버무린다. 술 향 아리를 불길로 말린 뒤 연잎을 넣은 다음 버무린 술밥을 넣고 깨끗한 지하수를 붓는다. 술을 담근지 약 30일이 지난 후에 용수를 박아 술을 뜨는데 약 대두 한 말의 술이 나온다. 이제조기술이 종부 사이에 전수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외암 연엽주는 이득선 씨 집안에서 5대째 가양주로 내려오는 술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빚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이득선 씨는 술을 빚을 때에 아홉 대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목욕재계하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기 위해 전화도 받지 않고, 일구월십 지극정성으로 술 빚는데만 전념 한다.

연엽주는 아무리 똑같은 재료와 정성으로 빚어도 주위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에 실패도 많이 하였다. 또한 술을 빚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면 그 술은 이상하게도 망칠 때 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술 빚는 데에만 지극정성을 들인다. 길일을 택해 술 담그는 날을 정하고 말을 많이 하면 술에 침이 튕까봐 입에 창호지를 물고서 담근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술독도 손 없는 방위에 두어야 하기에 시기나 절기, 그 날의 일진에 따라서 방위를 선택하여 함부로 아무데나 두지 않는다. 무진년이면 서쪽에 삼살방, 북쪽에 대장군으로 흉한 방위다. 그래서 남쪽과 동쪽에 술독을 두고 빚는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속에 연엽주가 탄생한다.

또한 술 담그는데 가장 중요한 누룩은 직접 딴는다. 누룩을 빚어서 말리고 띄우고 나면 발로 으깨서 밤이슬에 맞추고, 밤새 비 내릴까 교대로 지켜보고 가마솥에 볶아 소독하는 과정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외암 연엽주는 원래 임금님께 진상하였고 이후에는 예안 이씨 집안에서 손님 접대나 제주에 사용 되었다. 연잎의 향기가 좋고 빛깔이 고우며 약용주로서도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 알코올 도수는 14° ~ 19°를 유지한다.

마을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연엽주를 마셔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명절날 윗 어른들께

인사 갈 경우이거나 혹은 이씨 집안 제사나 시제가 있을 때에는 연엽주를 마셔볼 기회가 있었다. 지금처럼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연엽주를 구입하여 마시게 된 계기는 모 대통령이 우리 전통문화를 찾아 보급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하던 때부터이다. 이득선 씨도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연엽주를 출품하였는데 전통주에 선정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장을 만들어 대량으로 생산하여 돈을 벌자고도 하였고, 어떤 이는 연엽주 특허상품등록을 팔라고도 하였지만, 모두 웃으며 거절하였다. 조상 대대로 잔치나 제주로 사용할 요량으로 빚던 술을 돈 벌이로 이용하기는 싫다고 말하며, 지금도 혼자서 기계가 아닌 손으로 빚고 있기에 술 빛는 양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연엽주를 사려면 참판택으로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겠다고 모든 이에게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다. 행실이 곱지 않거나, 술을 거나하게 먹고 찾아와서 술을 팔라고 하면 절대로 안 판다. 사당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 돈을 받고 술을 파는 술집으로 보이기 싫고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득선 씨는 외암 연엽주 맛에 대해 큰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다. 외암 연엽주의 맛은 시금털털하고, 술이 아니라 약주다. 오장육부에 해가 없다. 이유인즉, 연잎을 써서 소화가 잘 되고 시거나 뚱거나 맛있거나 상관없이 꼭 조상들이 전해준 방식대로만 빚기에 맛이 일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입에만 달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술들과는 다르다.

더불어 말하길 술을 마실 때에는 닭이 모이 먹고 물을 마시듯 술도 그리 마셔라 하고 말씀 하시는데, 연엽주야말로 신맛이 침샘을 자극하여 조금씩 마실 수밖에 없는 술인 것 같다.

이득선 씨의 부인 최황규는 25살에 예안 이씨 가문에 시집오면서 연엽주를 처음 만났다. 시어머님의 가르침으로 제수용 연엽주를 빚으면서 55년째 이 술을 담그고 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이 평생을 함께하니 연엽주를 빚는 일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1990년에는 연엽주 제조기능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최씨에게 연엽주는 어떤 술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 없이 “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을 먹고 태어나는 술”이라고 말한다. 최씨는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이제는 큰 며느리한테 술을 빚는 법을 전수하고 있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집안 전통의 막걸리맛을 이어나가는 아산양조장



이상조 (1958년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이상조 씨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결혼할 때 까지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형제들이 많아 가정 형편상 대학교는 다니지 못 하였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사교성으로 주위에서 혼사가 많이 들어왔다. 강릉 외에 서울과 주문진에서 양조장 사업을 크게 하시던 변광학(훗날 시아버지)씨의 눈에 들어 둘째 아들과 결혼하여 신혼살림을 서울에다 차렸다. 당시 강릉 친정동네에서는 상조가 착하고 야무져서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여러 곳의 양조장을 운영하던 시아버지로부터 충남 아산양조장을 매입하였으니 둘째아들 부부가 내려가서 운영을 하라는 명을 받았다. 당시에는 거역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했지만 둘째 아들 앞으로 사업체를 하나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아산으로 내려왔다. 당시에 아산리는 인근 삽교천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를 하던 시기인지라 외지에서 온 노동자와 유동 인구가 많아 양조장 장사가 호황 이었다.

아산 양조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어왔다. 이상조 부부가 인수하면서 장사가 더 잘되어 약 7년만에 인근 인주면에 있는 인조 양조장과 염치면에 있는 염치 조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에 막걸리 양조장 운영방식은 면 단위에 한곳만 허가해 주는 제도였다. 이상조 부부는 인조 양조장을 인수하고 인주에 있는 양조장과 염치에 있는 양조장을 폐쇄하였다. 대신에 아산양조장에서 인주면과 염치면까지 보낼 막걸



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곳에서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배달하는 시간과 인력이 세배로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당시에 배달방식은 인근 동네는 지게로 다녔고 먼 지역은 자전거나 경운기를 이용하던 시기였다. 이상조 부부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트럭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도 하였지만 시골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였다. 이상조 씨는 남편과 함께 직원 중에 젊은 사람 2명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고 면허를 따게 하여 배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어느 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 아산에 온 지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였다. 너무 젊은 나이에 쓰러진 남편을 안고 전국의 좋다는 병원과 민간요법을 다 써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이상조 씨는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아산으로 내려와야 했다.

엄청난 병원비에 서서히 부담을 느낄 때 정부 정책에 의해 주류 판매 자율화가 시작되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타 양조장 사장들과 기업들이 너도나도 막걸리 특허를 내어 소도시 구멍가게까지 점령 하였다. 이상조 씨의 상권이었던 아산군 지역도 외지의 술이 들어오니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였다.

남편이 쓰러지고 양조장사업이 서서히 기울자 동네 사랑방처럼 복직되던 양조장에는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지고 혹시나 돈 빌려달라고 할까 멀어지는 사람들만 늘어났다. 이상조 씨는 막걸리에 방부제를 넣고 열처리하여 유통기간이 오래가게 하는 막걸리는 고유의 맛을 낼 수가 없고 소비자도 결국에는 전통 막걸리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생막걸리 제조에 승부를 걸었다. 아산 막걸리 고유의 맛과 향을 온전히 보전 하기위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교육도 받았다. 기존 막걸리와 생막걸리를 비교하고 전통 누룩을 직접 담그고 발효과정을 날마다 체크 하는 등 옛날 아산 막걸리 맛을 지키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산시 전통 막걸리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선정되어 아산 막걸리 만드는 공정이 표준으로 정해지기도 하였다.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

듯이, 아산 막걸리도 한결같은 맛과 향을 이어가니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사업과 가정이 안정이 되어갔다.

언제부터인가 양조장 업자들 간에 이상조 씨의 이름이 오르며 유명세를 타는 중 타 주류 업자가 찾아와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산막걸리 만드는 기술에다 과일을 첨가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조 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여 충남 예산군에 “예성주가”라고 상호를 정하고 공장을 지어 예산 사과당액을 함유하는 탁주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부드럽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 막걸리를 개발 판매 하였다.

초기 사업은 순조로웠다. 서울과 각 지방에 가맹점을 내어 납품하였고 일본(돈키호테체인점)과 중국 상해 북경에도 사과 막걸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국내와 외국에서 주문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부족하니 무리하게 생산하게 되었다. 과일 막걸리는 충분한 발효 기간과 숙성 시간이 필요한데 주문량을 맞추려고 발효와 숙성이 덜 된 상태로 포장하니 사과 막걸리 고유의 맛과 향이 사라지고 운송과정에서 부패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맛의 진정성과 사업자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게 되었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관계가 경직되면서 그 여파로 가맹점이 한 곳 두 곳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사과 막걸리는 전통 막걸리와는 달리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일부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마시고 사라지는 그런 술이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작한 사업이 제대로 해 보지도 못 하고 수십억의 빚만 끌어안은 이상조 씨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을 하였다. 이상조 씨는 송충이는 술잎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자연 발효와 일정한 숙성기간, 담그는 이의 정성이 함께 어울렸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막걸리가 탄생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누룩과 술밥을 어루만진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우리민족의 애환과 고난을 극복하며 탄생한 짚동가리 술



채수성 (1938년생)
충남 아산시 선장면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는 신라리, 가등거리와 가운데뜸이라는 세 개의 작은 마을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신라리는 신성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불릴 정도로 물이 유명하다. 병을 얻은 신라 태자가 이곳에 매운맛이 나는 우물 초정이 있다는 것을 듣고 휴양차 다녀갔다 하여 신라리라 부른다. 마을로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 생김새가 마치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자식을 부르는 듯한 모습이다.

짚동가리 술은 이곳 신성리를 비롯하여 선장면 일대에서는 옛날부터 조상 제주로도 사용하였지만, 모내기 때나 가을 추수 때에도 마시면서 선장면민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있는 전통술이다.

짚동가리 술은,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찬탈하면서 모든 생활은 물론 의·식·주까지 통제 하더니, 급기야는 술 빚는 것까지 통제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09년 일본인 메카타이의 주도로 주세법이 생기더니 1916년에는 더욱더 강화된 주세령이 시행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제조되는 술 단속이 매우 심해졌다. 이는 조상 대대로 전해지면서 내려오던 전통주를 말살하고 세금을 받아 가겠다는 일제의 의도였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술 향아리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묻기도 하고 집 대청마루 밑이나 헛간에 숨기기 시작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쌓아둔 짚단 속에 숨기기도 하였다. 단속이 심할 때는 쇠꼬챙이로 짚단 속을 쭈셔보기도 하였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깊숙

이 묻어 두었다. 이렇게 탄생 된 술이 짚동가리 술이다.

해방이 되고 바로 6·25전쟁을 겪으면서 짚동가리 술을 빚는 가정이 하나둘 사라지고, 극소수의 가정에서 제주로 조금씩 빚어 겨우 명맥만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옛날 선조들의 술맛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누룩 50%와 쌀 50%를 섞어 만들던 술을, 지금은 누룩을 20%만 넣으라는 민속주 제조법 규정에 걸려 짚동가리 술을 재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누룩 20%로는 동동주 같은 맛을 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장기간 보관 할 경우 살균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술 맛이 변해 못 쓰기 때문이다.

채수성 씨는 우리 전통음식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술의 매력에 빠져 공부를 하고 연구하여 홍주주(대추주)를 개발하였다. 그는 홍콩에서 열린 국제주류박람회에 홍주주를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홍주주와 대나무에 술을 담는 법을 개발하여 중국 고량주와 더불어 명품주로 각광을 받으며 승승장구 하였다.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언어 소통과 타민족 차별로 인해 사기를 당하고 급기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와 술 연구를 하던 중에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짚동가리 술 이야기를 꺼내었다. 술을 만들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누룩 배합을 못 맞추어 실패하였다며 옛 짚동가리 술맛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채수성 씨는 해마다 집에서 짚동가리 술을 담그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명주가 있다는 지역을 답사하면서, 그 지역 산세를 확인하고 물을 꼭 마셔 본 다음 그 물을 담아 와서 물맛을 연구하였다. 채수성 씨는 강원도에는 명주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명주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도이다. 이유는 산세가 낮고 부드러우며 물맛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신성리 지역은 물맛이 깨끗하고 매운맛이 나는 초정수가 있기에 더더욱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신성리에서 약 4개월간의 노력 끝에 누룩 20%만 넣고도 맑은 빛깔과 부드러운 맛을 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저온 살균처리로 묵은 맛을 없애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짚동가리 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하였다.

짚동가리 술은 술밥과 누룩을 섞어 숙성시켜 빚는다. 찹쌀과 멥쌀을 7대3 비율로 혼합하고 지하 205m 암반에서 끌어올린 물로 여러 번 깨끗하게 씻는다. 시루에 보를 엮고 그 위에다 찹쌀을 넣은 후 찐다. 이후 찹쌀이 거의 다 찌지면 그 위에 대추, 진피, 오미자, 감초, 감

국 등 6가지 약재와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이 항아리를 벼짚 속에 넣고 약 20일 정도 숙성시킨 후 살균처리를 한다.

짚단의 보온 효과는 매우 우수하여 큰 온도 변화 없이 유지된다. 눈비가 와서 짚동에 맞으며 짚단 속으로 눈비가 스며들어 지푸라기가 썩어가며 내는 발열로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저온 숙성을 하기에에도 최적의 장소였다.

짚동가리란 말의 유래는 짚동으로 가렸다는 말이다. 짚동은 벼를 베어 벼 알곡을 털어내고 남은 벼짚단을 쌓아 놓은 걸 말한다. 추운 겨울 내내 짚단 속에 감춰진 채로 발효 숙성된 술이 짚동가리 술이다.

채수성 씨는 짚동가리 술은 우리민족의 애환과 이를 극복한 역사를 함께 한 술 이라고 말한다. 주세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전통 주가 약 500여 종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복원된 것은 채 50여 종이 안 된다. 민족의 입맛을 풍미했던 전통주의 역사도 굴곡진 우리 역사의 아픔을 비켜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자들은 세금을 강탈할 목적과 우리 민족의 혼을 죽이고자 이상한 조세법을 만들어 우리 전통주를 밀주라는 이름으로 단속하였다. 다행히 짚동가리 술은 일제 탄압과 단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지혜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채수성 씨로 인해 본래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술쟁이의 누룩사랑으로 빚어낸 둔포 생막걸리



최덕영 (1947년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최덕영 씨는 조치원 연기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자동차 정비업을 배워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이 손에 익어갈 무렵 고향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하고 계시던 고모부로부터 내려와 같이 일을 하자는 간곡한 제의를 받고 양조장 일을 시작하였다. 최덕영 씨의 나이 23살 이었다.

당시에는 막걸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막걸리를 공판장에 모아 놓고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조치원 공판장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막걸리가 400 ~ 500 말이 팔렸으니 지금의 페트병 750ml 가 약 1만병에서 1만 2천병이 팔리는 엄청난 양이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지금의 둔포 양조장을 인수하였다. 일하는 직원이 8명, 배달하는 사람이 3명으로 면 단위 양조장치고는 규모가 꽤 큰 양조장이었다. 둔포면 주변에는 아산만과 삽교천 제방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부가 상당히 많았기에 막걸리 소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경운기로 배달하던 최덕영 씨는 본인이 직접 1톤 중고트럭을 4대 구입하여 차량 페인트를 깔끔하게 다시 칠하고 정비를 완벽하게 하여 막걸리를 배달하기 시작하였다. 하루에 판매되는 막걸리의 양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대로만 가면 서울에 빌딩도 살 기세였다. 하지만 10년이 흐르면서 막걸리 시장의 다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주류 자율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양조장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함께 일



하던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최덕영 씨는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되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막걸리를 만들며 지낸 세월이 오래 되었지만 전문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며 국세청에서 실시한 교육도 받았다. 이후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시한 전통주 교육을 받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막걸리를 발효시키는 누룩 “백국”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백국이 일본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내가 만든 술인데 우리 술이 아니구나. 우리 쌀, 우리 누룩으로 만들어야 진짜 우리 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덕영 씨는 우리 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우리 전통 누룩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누룩 연구회를 결성하여 전통 누룩을 만드는 과정 및 성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본인의 양조장에서는 더 이상 백국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전통 누룩만을 사용한다. 새벽부터 밀가루를 써서 냉각시킨 뒤 누룩을 넣어 항아리에 담는다. 다 익은 술은 걸러 말통으로 옮기고 다음 날 빛은 술을 점검하고 배달을 하고 나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간다.

그러나 최덕영 씨의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막걸리 업계의 앞날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막걸리 빛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이러다가는 기존 양조장이 70%는 망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회복되려면 10여 년은 걸릴 것 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그동안 아무 고민 없이도 막걸리가 잘 팔리던 시절의 제조법을 사용해 막걸리를 만들던 양조장을 대신해, 우리 전통 누룩을 띄워 가양주 담그듯 술을 빚어 파는 새로운 술도가들이 등장한 것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양조장 막걸리는 입국(황국,백국)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뜻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전통 누룩을 띄워 술을 빚는 프리미엄 막걸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그들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누룩을 사용하여 빚은 막걸리와 입국을 사용하여 빚은 막걸리의 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분명히 차별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덕영 씨는 누룩 예찬론자다. 지금은 양조장 일을 조금씩 줄이고 누룩 연구에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요즘 여러 가지 누룩을 띄워 보고 그 누룩으로 술을 만들어 본다. 그의 누룩방에 들어가면 만들다 실패한 누룩이 한가득 쌓여있다. 누룩 연구회를 결성하여 전국의 술쟁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벌써 수년 채 누룩을 띄우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다.

누룩은 곡식을 술로 만들어 주는 발효제다. 하지만 단순히 발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룩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곰팡이가 술 맛의 개성을 부여한다. 어떤 누룩을 쓰는지가 막걸리 술 맛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만의 막걸리를 만드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우리 누룩을 띄워 쓰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최덕영 씨는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기계는 (밀가루 혼합기, 누룩틀 등)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고장 난 것은 수리하여 사용한다. 그의 양조장 한쪽 벽면은 각종 공구로 가득 차 있다.

최덕영 씨는 아산 맑은 쌀 막걸리와 해쌀이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해쌀이 막걸리는 아산 맑은 쌀과 아산 둔포 배 유산균에 우리 누룩을 첨가하여 새로이 특허를 받은 막걸리다. 기존 막걸리보다 도수는 높지만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일본에 수출 계약을 하였다. 거액을 투자하여 공장에 시설을 확충하고 막걸리 생산을 시작 하였지만 한·일 감정의 여파로 수출은 무산되었다. 양조장은 부도 위기가 왔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평생을 막걸리에 바쳤던 최덕영 씨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우리 누룩만으로 빚은 무첨가 막걸리를 출시하였다. 처음 해쌀이 막걸리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을 첨가했었다. 유행처럼 반짝이며 매출이 늘어났지만 막걸리 고유의 맛이 없기에 금방 시들해졌다. 지금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해쌀이 막걸리를 만든다. 막걸리는 담백하고 시큼해야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도 두 가지 원칙은 꼭 지킨다. 그 첫 째는 직접 디딘 누룩으로 만드는 것, 둘 째는 단맛을 내는 어떠한 감미료도 넣지 않는 것이다.

최덕영 씨는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자식들 중 한 명이라도 양조장 가업을 잇기를 희망하였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마음만 심란하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막걸리 빚는 일을 배우려 찾아온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지구정성이 빚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을
19도락주
이가수불



이상헌 (1957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이상헌 씨는 안동 진성이씨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안동지방에서는 양반집에서 남자들이 술을 빚는 게 전통이었다. 이상헌 씨도 어른들에게 배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빚었다. 그는 집안 큰 행사나 제사를 많이 보고 자랐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푸짐한 제사음식을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나누어 먹었다. 이때 음식과 함께 마시는 제주의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생겨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양조학 공부를 틈틈이 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술 명인들을 다 만나도 보고 그분들이 빚은 술을 마셔도 보았지만 옛날 집안에서 마시던 술 맛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진성 이씨 집안에서 담그는 제주 술맛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술 담그는 비법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의 술이 담장 밖으로 나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여 집안 어른들이 번번히 거절하였다.

이상헌 씨는 전국적으로 전통주 바람이 불고 너도나도 자기네 집안 가양주가 최고다 하며 판매하고 있는 술을 마셔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제대로 만들기보다는 술을 화장하고 홍보해서 판매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양조인들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가양주는 스스로 맛이 나는 술이어야 생명력이 있는데 인공첨가물을 넣고 억지로 발효시켜

강제로 맛을 내는 술이 하나둘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조상들이 만든 그 비법 그대로 만들어야 겠다는 신념으로 술을 빚기 시작했다.

이상헌 씨가 자랐던 안동 본가에서는 제사 때나 집에 손님이 오면 꼭 접대하는 것이 술이었다. 이씨 집안에서 대대로 ‘봉제사 접빈객’ 정신으로 빚어왔던 술을 현대에 와서 제대로 빚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본인의 성을 딴 ‘이가’와 술의 옛 이름 ‘수불’을 합쳐서 ‘이가수불’이라 칭하고, 탁주와 약주 두 가지 술을 빚고 있다.

이상헌 씨는 아산에서 생산되는 맑은 쌀을 사용하며 직접 재배하여 띄운 밀과 예산 추사고택에서 가져온 물을 사용한다. 특이하게도 이상헌 씨는 물만은 추사고택 물을 사용하며 탁주에서는 나오기 힘든 19° 도수의 술을 빚고 있다.

그는 이가수불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술이라고 말한다. 이가수불은 당화효소와 발효효모가 서로 저해 받는 황균소를 극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어 일반 탁주의 아리고 쓴맛이 없는 영양가득한 곡주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탁주 중에 발효가 덜 되거나 역지로 발효시킨 미식주가 있다. 이런 술은 마시면 다음 날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가스가 가득 찬 느낌이 있지만 이가수불 탁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상헌 씨는 쌀을 씻고, 찌고, 술 담그고 거르는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며 기계는 물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누룩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지키기 위해 누룩은 직접 재배한 밀로 띄운다. 또한 어떠한 첨가제나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빚을 수 있는 소량만을 생산하며 꼭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키며 술 익는 시간만 최대 석 달 열흘이 걸린다. 시간과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빚어야만 제대로 된 술이 탄생한다는 이상헌 씨는, 편리함과 달콤한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대로 술을 빚는다.

마시는 것은 ‘음’이요, 저작하는 것은 ‘식’이다. 술, 초와 씹어먹는 장, 젓갈, 김치가 우리 음식의 핵심이다. 이 음식들은 발효가 기본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발효시킨 것이 젓갈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시킨 것이 장이다. 그리고 식물성인 야채를 동물성 젓갈로 발효시킨 것이 김치다. 이처럼 기본과 원칙 이치를 찾아서 살려내면 우리 음식이 살아난다.

술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이상헌 씨는 누룩 속 효소와 효모가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진

행해 지속적인 당과 알코올을 생산하는 병행복 발효 방식을 고집한다. 이렇게 발효된 술을 압착 방식이 아닌 용수(술을 거르는 전통도구)로 떠내 조화로운 전통 가양주 맛을 살린다. 대부분의 양조인들은 술을 담가 위에 뜨는 맑은 술을 청주로 사용하고 남은 술을 탁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상헌 씨는 절대로 남은 술로 탁주를 만들지 않는다. 처음부터 따로따로 재료를 사용해 제대로 술 빚는 일에만 신경 쓴다.

이가수불은 주재료인 맵쌀과 찹쌀, 전통누룩, 샘물로만 빚기 때문에 순곡 청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맵쌀로 죽을 쑀 뒤 누룩을 섞어 만든 술미를 발효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밑술에 다시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다시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열은 담황 빛깔의 적당히 달콤하고 구수하면서 짹짹한 향과 함께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18°의 약주가 완성된다. 이가수불을 마시고 싶다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너무 부족하므로 느긋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가수불을 담그는 곳은 평범한 가정집이다. 이상헌 부부가 생활하는 가정집에 최소한의 생활공간(침실)을 제외하곤 모두 술을 양조하는 공간이다. 방 한 칸에는 숙성실이 있고 그 옆방에는 누룩을 띄우고 있고 그 외 다른 방에는 한창 발효가 되고 있는 항아리들이 가득하다. 집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흔한 간판이 안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교육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전통주의 기본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가수불을 빚고 있는 이상헌 씨는, 우리 전통주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 우리 술 모임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열일을 마다하고 달려간다. 우리 술의 가치를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술에 대한 관점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에는 항상 열과 성을 다한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조만간 우리 술을 복원하고 부흥하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청정수로 만든
전통발효식품
신선도 막걸리



주 영 진 (1967년생)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신창 양조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툇 쏘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막걸리 냄새가 진동한다. 외곽 건물에 비해 깔끔하고 잘 정돈된 내부에는 발효가 진행 중인 듯한 뽀얀 우윳빛 거품이 뽀글뽀글 숨을 쉬고 있다.

신창 양조장은 이상협, 주영애 부부가 운영하던 양조장이었다. 이상협 씨는 17살에 천안 목천 양조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치가 빠르고 사업 수단이 좋았던 이상협 씨는 목천 양조장에서 10년을 일하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던 지인의 소개로 이곳 신창 양조장을 매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상협 씨가 양조장 사업을 할 당시에는 지역 제한제가 있어 고정적인 매출이 있었다. 이곳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양조장 도로 건너에는 면사무소와 농협, 오목 기차역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하였다. 장날에는 인근 지역에서 몰려드는 상인들과 장 구경나온 사람들로 인해 막걸리 판매 수입은 인근에서 제일 좋았고 이로 인해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붙어났다.

세월이 흘러 정부에서 막걸리 지역 자율화가 시작되자 외지에서 막걸리가 붓물처럼 들어왔다. 자금력이 약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양조장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고 돈 많은 외지인들은 헐값에 양조장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상협은 도고 양조장과 선장 양조장 대표를 만나 신창·선장·도고 세



곳의 막걸리 맛을 이어나갈 양조장을 하겠노라 설득하여 세 곳의 양조장을 합병하였다. 합병 후 도고와 선장 양조장을 폐쇄하고 대신에 신창양조장을 증설하여 운영하였다. 새로운 막걸리 이름도 신선도 막걸리라고 하였다. 신선도는 신창, 선장, 도고의 앞 자만 따서 만든 이름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좋은 조건에 인수 합병을 하였다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만만치가 않았다. 다달이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어지간한 일은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이상협 씨는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하였다.

부인인 주영애 씨는 서울에 있는 남동생(주영진)을 급히 불러내려 양조장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누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주영진 씨는 어린 조카들과 홀로 일하는 누나를 보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매형이 평생 일궈놓은 양조장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 간다는 게 돌아가신 매형에게 죄송스럽고 이상하게도 당시에는 막걸리 빚는 일에 사명감이 생겨났다. 이러한 계기로 양조장 일을 하게 된 주영진 씨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명절에도 양조장에 나와 누룩이 잘 뜨고 있는지 막걸리 발효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다음 일이 손에 잡힌다고 한다.

주영진 씨가 건설회사에 사표 내고 내려온다고 하자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였다. 아들이 서울에서 동아건설이라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양조장 일을 하러 내려오는 아들이 이해가 안되고 딸이 밋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주영진 씨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느니 막걸리를 잘 빚어 매형이 일궈낸 막걸리 맛을 잘 보존하고 가업으로 이어가고 싶었다.

주경야독으로 누룩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하고 막걸리가 발효부터 숙성되기 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신선도 막걸리를 빚어가고 있다. 막걸리를 빚는 대다수의 양조장들은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신선도의 막걸리는 지하 암반수 물만 사용하고 있다. 막걸리 만드는 재료가 대동소이 한 만큼 맑은 물로 승부하자는 생각이다. 다행히도 이곳 오목리는 옛날부터 물맛이 좋고 깨끗하다고 이름이 났었다.

더불어 주영진 씨는 양조장의 지하 암반수 수질이 최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데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질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 47개 항목에서 수질 분석평가를 받는데 유해성분이나 안 좋은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 사무실 책상 앞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수질 평가서를 마치 집안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신선도 막걸리는 강한 탄산의 맛이 독특하다. 막걸리를 마실 때 목 넘김이 부드럽고 천연 탄산의 톡 쏘는 맛이 강해 요즘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이 선호하는데 이는 발효에 비법이 있다.

신선도 막걸리는 균을 배양할 때 기본보다 많은 양을 배양해서 다른 막걸리보다 발효가 더 잘되어 톡 하고 쏘는 맛이 강한 것이다. 강한 발효는 발효 상태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발효조 표면에는 쉼 새 없이 우유빛 기포가 거품으로 덮여있다. 생막걸리의 특성상 유통 기간이 겨우 한 달이다. 신선도 막걸리는 이 기간에도 병속에서 꾸준히 발효가 진행되기에 탄산의 청량감이 오래 유지된다. 병에 넣어 판매 된지 최소 4일이 지나고 마셔야 진정한 신선도 막걸리의 쓴 맛, 신 맛, 단 맛, 쏘는 맛, 부드러운 맛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주영진 씨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다. 위생과 청결이다. 양조장은 술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발효를 하기 위한 공간이다. 불결한 환경에서 발효를 하다 보면 잡균이 함께 번식하고 이로 인해 맛이 변질 될 수 있다.

신선도 막걸리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는다.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분들이 있고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택배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직원을 더 채용해서 막걸리 생산량을 늘리라고 말하지만 주영진 씨는 미소로 답한다. 대량으로 만들어 팔면 소득이야 늘어나겠지만, 아무래도 정성이나 발효 숙성이 충분치 않아 신선도 막걸리만의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맛이 변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고 우리 전통발효 식품이다. 돈보다는 전통의 맛을 택했고 우리 가족이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과 정직으로 만든다.

주영진 씨는 자녀들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나들이 간 적이 한번도 없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에도 간 적이 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무심한 아버지였다. 오전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걸, 같이 짜장면이라도 먹을걸, 자식들 쳐다보면 미안함과 측은함이 교차 한다. 큰 탈 없이 잘 자란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 양조장 일을 시작할 즈음의 나이가 되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아버지 대를 이어 양조장 일을 한다고 나서는 자식은 없다. 은근히 기대도 하였지만 각자 자기의 꿈을 찾아 나갔다. 누구든지 부지런하면 먹고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선뜻 나서서 뒤를 잇겠다는 이가 없는 것이 양조장의 현실이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옛날 궁중방식의
누룩을 만들어
탄생한 아산의 명주
수수리 계양주



박정련 (1950년생)
충남 아산시 고불로

박정련 씨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었다. 약관의 나이에는 직장생활도 하고 계기가 되어 해외 생활을 하면서 스카치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등 서양의 많은 술을 접하면서, 한국의 전통주가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귀국 후 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 유람하다. 이곳 아산의 망경산자락을 보고 이곳이 전통주를 빚기에 최적의 장소다 생각하고 전 재산을 털어 이곳에 정착하였다.

아산시 배방면 고불로의 옛 지명은 수철리 명막골이다. 수철리는 삼국시대부터 쇠가 많이 나왔다고 전해 내려오는 역사 깊은 마을이다. 이에 속한 명막골 마을은 조선중엽 당시 명막새 (현재의 제비와 유사) 한 쌍이 이 마을 부근에서만 서식 하였다 하여 명막골 이라고 칭하였다. 만경산이 마을의 삼면을 감싸고 있으며 만경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양(서울)에 있는 산이 보인다고 전해지고도 있다.

이곳 깊은 산속에 박정련 씨가 전통 가양주 연구와 가양주 보급을 위해 홀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정련 씨가 만드는 술은 우리 고유의 전통방식으로 유기농 쌀을 사용하여 장기 숙성시킨 최고급 수수리주와 계양주이다. 수수리주, 계양주는 이름이 매우 독특하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수수리는 “아주 좋다”라는 뜻이고, 계양주는 경계할 ‘계’자에 넘칠 ‘영’자를 써서 “차서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수수리주는 전통 약주로만 증유하여 2년 이상 숙성시켜야 하며, 계양주도 같은 방식으로 6년 이상이 지



나야 만 마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인데 누룩은 박정련 씨가 직접 전통방식으로 만든 누룩만 사용한다. 그가 사용하는 누룩은 궁중에서 녹두가 들어간 향온국을 쓰고 있으며 쌀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 쌀만을 고집한다. 증류주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 암반 200m에서 뽑아 올려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인위적인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술을 빚어 3개월 이상 발효 숙성시킨 다음 상압증탕동 증류기로 증류하여 4년이상 숙성시킨다.

서양의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단 발효라고 해서 한 번에 끝을 내는데 비해, 우리나라 전통주는 밀술과 덧술로 발효하는 즉, 발효와 숙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양식) 복합 발효 방식을 쓴다.

밀술을 빚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죽이나 범벅, 설기 등이 있고 개떡, 구멍떡 등 다양한 떡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밀술과 덧술 방법으로 쌀, 누룩, 물 외에는 일체 사용하는 것이 없다.

수수리주와 계영주의 도수는 각 53°로 매우 높다. 하지만 발효와 숙성이 잘 된 탓에 과음한 다음 날에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마시는 양이 도가 넘으면 안된다. 박정련 씨는 수수리주와 계영주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 술은 닭이 물을 먹듯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술 마시는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술은 유시(오후 5~7시)에 마셔야 하며 술시(오후 7~9시)에 마시면 개가 된다고 한다.

박정련 씨는 많이 마셔서 수습이 생기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술맛을 알아 주는 걸 더 바란다. 또한 이 술은 오랜 기간 숙성시키고 발효하다 보니 생산되는 양이 현저히 적다. 일반 술은 담그고 3달이면 먹을 수 있고 더러는 판매도 하지만 이 술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도 박정련 씨가 일반 전통주를 빚지 않고 전통 증류주를 고집하는 이유는 전통주를 대량으로 생산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망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다. 심지어는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해마다 맛이 다르다. 그해 생산되는 곡식과 온도 습도 사람의 건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주는 소량

으로 생산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증류주는 곡식 온도 습도에 덜 민감하고 보관기간이 무한하다. 만들기 수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산기간이 짧은 술만 고집한다면 맥이 끊길 수가 있기에 박씨는 전통 증류주를 고집한다.

수수리주와 계영주의 도자기(甁)를 보면 색과 멋이 고풍스러운 한국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다.

술 도자기(甁)에 쓰여진 글씨체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인 혜민 스님께서 직접 써 주신 글씨이다. 도자기(甁)의 디자인은 전통 매병에 한복 옷고름을 매칭한 ‘헬로아씨’ 작품이라고 한다. 혜민 스님은 절에서 큰 행사나 제사 때에 옛날 왕가나 사대부들이 즐겨 마시던 계영주만 사용 한다고 한다.

박정련 씨의 수수리주와 계영주에 대한 자부심은 서양의 스카치 브랜드나 멕시코의 데킬라, 중국의 고량주를 능가한다. 위 증류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 하지만 수수리주나 계영주는 인지도가 매우 낮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주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때 데킬라는 선풍적인 인기와 더불어 멕시코를 대표하는 술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하였다. 이 후 멕시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데킬라가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로 공인받게 문화정책을 확실하게 지원 하였다. 우리나라도 기회는 있었다.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주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준비 부족과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 못 한 것을 박정련 씨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전통주의 가치를 알고 배우려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다.

아산시
아산의 전통주

가업으로 이어지는 음봉막걸리



안연홍 (1950년생)
강미자 (1959년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안연홍 씨는 둔포면에서 8남매의 차남으로 태어나 집안일에 큰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와 건강이 안 좋은 형을 비롯해 여섯이나 되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답이 많지는 않았지만 배 농사를 지으면서 타고난 성실함과 한 푼이라도 생기면 쓰지 않고 저축하였다. 살림살이가 하나둘 늘어날 때 평생의 반려자인 부인(강미자)을 만나 아들 삼형제를 낳아 길렀다.

과수원에서 생기는 수입이 늘어나면서 동생들도 하나둘씩 결혼시켜 모두 출가 하였다. 남편을 믿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부인 덕분에 통장의 과수원 수익금도 늘어나고 삼형제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 때, 안연홍



씨가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다. 더 이상 농약 냄새를 맡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앞날이 캄캄해지고 걱정이 되어 전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원한 안연홍 씨는 여기저기 새로운 일을 찾아 다니던 중 음봉 양조장이 매물로 나와 있기에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 내 놓은 과수원이 금방 팔리지가 않았다. 계약금만 손해보게 생긴 안연홍 씨는 이웃 주민들에게 보증을 부탁하였다. 다행히 주민들이 흔쾌히 보증을 서 주어 그동안 거래하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불 하였다. 그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안연홍 씨의 인성을 본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은행에서도 의심 없이 대출을 해 준 것이다.

양조장을 인수한 다음날부터 안연홍 씨는 인근 양조장을 찾아다니면서 기초를 배우는 것이 일이었다. 근 1년을 배우고 다행히 본격적으로 양조장 일을 시작 할 때에는 친척 중에 양조 기술이 있는 분이 함께 하여 큰 힘과 위안이 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작한 일이 밤 11시가 되어야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다. 막걸리를 다 만들면 음봉면 마을 구석구석 배달해야 했다. 당시에 배달 운송 수단은 경운기였다. 적재함에 원형 스텐레스 통을 싣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가게에는 한 말, 또 다른 곳에는 두말 등 날마다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였다.

마을에서 초상, 결혼, 환갑 등 큰 행사가 생기면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따로 배달을 나가기도 했지만 애경사가 있으면 매출이 늘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하였다. 안연홍 씨가 양조장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은 막걸리도 먹는 음식이기에 양심적으로 빚는다는 것이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돈을 먼저 생각 하면 안 된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어떠한 요령을 피웠다면 지금의 음봉 막걸리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혀는 날마다 변한다. 변치 않는 맛을 지키는 것은 양심과 노력만이 답이며 그러면 소비자는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안연홍 씨가 자신 있게 말하는 음봉 막걸리의 장점은 발효를 충분히 잘 시키고 어떠한 인위적인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기에 뒷맛이 깨끗하고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이다. 간혹 소비자들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선호한다고 당분 성분을 첨가하는데 이로 인해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음봉 막걸리가 변치 않고 사랑받는 데에 부인 강미자 씨의 내조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강미자 씨는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와 시아버지와 여섯 명의 시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하여 모두 결혼시켰다. 남편이 양조장 사업을 할 때에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양조장 일꾼으로서 1인 다역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다.

음봉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강미자 씨의 손이 안 거친 곳이 없다. 남편이 배달 나가면 본격적인 양조장 일은 아내 몫이다. 아들 삼형제 밥해 먹여 학교 보내는 일만 해도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오죽했으면 딸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신세 한탄만 할 수 없었다. 품삯 하나라도 줄이려면 양조장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웃 마을에서 급하게 막걸리 한 말을 주문하면 멀리 배달 간 남편 대신 자전거에다 싣고 고갯길을 넘어가야 했다. 그래도 당시에는 인심이 좋아서 밥 때가 되면 밥 한 사발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밭에서 딴 오이나 고추를 챙겨주는 분들도 많았다.

두 내외가 밤낮없이 일한 덕에 막걸리 맛도 알아주고 주문량도 꾸준히 증가 할 무렵에 안 팔리던 과수원이 팔려 그동안 모은 돈과 함께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다.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나니 그 동안 먹고 살기가 바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처음으로 가슴이 뿌듯했고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다.

순풍에 돛단배처럼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질 때 안연홍 씨가 평소처럼 새벽에 술밥을 찌러 나오다가 쓰러졌다. 결과는 뇌경색으로 한쪽이 마비가 온 것이다. 안연홍 씨 인생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도 마음은 온통 양조장에 가 있었다. 내가 없으면 술 맛이 변하지 않을까, 누룩 곰팡이는 잘 피나 하며 내 몸 보다는 양조장 걱정이 우선 이었다.

이 무렵, 아들 삼형제가 찾아와 아버지 가업을 이어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안연홍 씨는 아들들에게 양조장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양조장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고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생을

일궈온 양조장 문을 닫고 싶지도 않았다. 삼형제의 확신을 확인한 안연홍 씨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들들에게 막걸리 빚는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허락하였다.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전수 하면서도 안연홍 씨가 가장 강조하고 부탁한 것은 “노력과 양심”이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 삼형제는 회사 다닐 때보다 돈 벌이가 조금 덜해도 부모님 모시고 삼형제가 땀 흘리며 음봉 막걸리 맛을 지켜 나가는 것에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성암저수지가 남긴 명암	186
애뜻한 내 고향 산수리	191
전원주택 단지로 변한 고풍리	195
개심사와 삼화목장의 마을	199
저수지의 푸름이 좋은 신송리	203
풍성했던 마을의 그리움	207
연꽃도 키우고 정자도 세웠으면	211
생태공원 조성의 방향성	215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성암저수지가 남긴 명암



김 휘 일 (1944년생)
서산시 음암면 탑곡3리

이 성 구 (1953년생)
서산시 음암면 성암리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저수지가 들어선 마을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물이 제일 중요한 논농사에서 저수지 물이 흐르는 방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저수지 아래 마을은 편하게 물을 댈 수 있지만, 저수지 위쪽 마을은 아무래도 쉽지 않다.

성암저수지는 여러 마을 사이에 만들어졌다. 운산면과 음암면 사이에 만들어진 게 지금의 성암저수지다. 음암면에서는 도당6리, 탑곡4리, 부장3리, 그리고 운산면에서는 소중리 땅이 저수지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름이 성암저수지가 된 것은 성암리 쪽으로 목리지(소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부장3리 쪽 땅이 저수지로 꽤 많이 수몰 되었기에, 김휘일 어르신은 저수



지가 만들어진 전후상황을 꽤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건 1963년 여름부터다. 완공은 1966년에 되었고, 2006년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수질이 나름 괜찮았다는 이야기다. 2006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취소된 이후, 성암저수지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나름 이름 높은 붕어 낚시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암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다시 말해서 저수지의 물을 아래쪽보다는 쉽게 끌어 쓸 수 없는 부장3리 사람들에게 성암저수지는 묘한 애증의 대상이다.

사실 부장3리보다 성암저수지 위쪽의 도당6리, 탑곡4리의 집들이 저수지 아래로 더 많이 수몰되었다. 잠긴 집들도 그 쪽이 더 많다. 집이 수몰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평야 지대의 옥답이 저수지 아래로 잠겨버린 것이다. 김휘일 어르신 댁 땅도 다섯 마지기, 천여 평의 땅이 수몰되었다. 사실 성암저수지 위쪽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저수지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66년도 완공이니, 성암저수지가 만들어진 지도 벌써 55년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집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잊기는 쉽지 않다. 부장3리에서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들의 반발이 있었다. 엄혹한 시절이라 대놓고 말하긴 쉽지 않았지만, 나름의 저항 아닌 저항도 있었음은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는 제방 착공식부터 표면화되었다. 시위가 벌어졌고, 마을 주민 몇 분이 경찰서로 잡혀갔다. 며칠 구류만 살고 돌아오신 터라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었지만, 마을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르신 말씀처럼 엄혹하던 시절에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이 경찰서까지 다녀오면서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다 한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나 집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투기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당시에 공적인 용도로 몰수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토지 보상금은 1, 2, 3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1등급은 60원, 2등급은 40원, 3등급은 20원이었는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주변 다른 농지를 사는 건 불가능했다. 당시 시세로도 2,000원, 3,000원 하던 농지가격을 생각해보면, 보상금 중 제일 높은 60원을 기준으로 봐도, 33배나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땅이나 집이 수몰된 많은 마을 사람들은 시위로도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물론 농지가 수몰되었어도 주변 마을로 거주지를 옮겨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경지 정리도 이루어졌지만, 공유지로 배수로까지 내주어야 하니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다. 거기다 저수지가 새로 생겼다고 수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수세가 부담될 만큼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저수지 주변 홍수지를 정부가 매입한 덕에 싼 도지로 혜택 아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사실 성암저수지가 마을에 큰 도움이 된 건 아니다. 김휘일 어르신은 이걸 ‘폐도움’이라 하신다. 마을의 좋은 땅은 저수지에 들어가고, 인구도 줄고, 경관이 좋다고 집을 짓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대부분이다. 거기다 용머리산이라고 불리던 작은 구릉 하나도 이제 다 깎여나가 흔적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저수지에 있는 용구멍 혹은 용머리전설과 연결되는 이름이었지만, 개발로 인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성암저수지의 소류지, 즉 배수지가 있는 성암리는 성암저수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 부장3리와 성암리는 인접해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교류가 분명하다. 하지만 저수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저수지 덕에 덕을 많이 본 것은 성암리 쪽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저수지 아래 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큰 도움을 본 것이 분명하다. 저수지 덕에 가뭄 걱정을 덜뿐더러 홍수에 대한 걱정도 함께 덜었기 때문이다. 저수지가 넘치면 안 되니 물 관리 만큼은 철저히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암리 쪽에서는 방죽마을에 있던 저수지가 성암저수지 덕에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농지로 개간이 되어 덕을 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장3리에 마을 공동체에 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은 것과 반대로 성암리에는 다양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성암리에는 칠성바위라고 7개의 바위가 있었다. 마을 이름 성암(星岩)의 유래와도 관계가 깊다. 특히 저수지 둑방 밑에 커다란 집채보다 더 큰 바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뒤, 정확히는 1986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위를 농경지에서 들어낸 다음, 다시 깊이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성구 이장님 어린 시절 기억에는 그 바위들의 이름이 있었다 한다. 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 할

아버지 바위, 이렇게 붙어 있던 이름도 그리고 그 바위의 흔적도 이제 찾기 어렵다. 이성구 이장님도 말씀하신다. 그 바위들이 지금 남아있었다면 나름의 문화유적이 되었을 거라고.

성암리에는 미륵댕이라고 불리는 유적이 있다. 미륵댕이는 이정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한다. 옛 문헌의 기록에도 남아있다 하는데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미륵댕이가 단순히 이정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륵댕이에게 기차치성을 들어 아들 낳은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하고, 예전 무당들은 미륵댕이 앞에서 굿을 하기도 했다 한다. 홍수나 가뭄이 들면 미륵댕이가 기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미륵댕이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1986년 경지정리 이후, 다랑이 논 덕에 사람들이나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다. 경지정리 이후 미륵댕이 앞까지 다니기가 쉬워진 뒤, 1988년에 도난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난당한 미륵댕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미륵댕이 없이 지내다가, 2001년 이성구 이장님이 이장 연임하던 시기에 최충열 음암면장님과 논의가 되어 미륵을 복원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기억을 모으고 남은 사진을 뒤져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미륵을 다시 세웠다. 2001년 12월 14일이다.

이후 성암리는 서산시의 보조를 받아 매년 정월대보름에 미륵제를 지낸다. 서산시에서 미륵제에 보조를 하기 시작한 건 조규선 시장 때부터다. 시의 보조를 받은 이후부터 미륵제에 횡수를 더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성암리 미륵제는 16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성암저수지는 붕어낚시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못된다. 2006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일 때는 낚시가 아예 금지되었던 데다가, 어업 허가도 극히 몇 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저수지는 말 그대로 좋은 경관을 주는 존재, 농사에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다. 2006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마을에서는 낚시할 공간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서산시는 관리문제로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 덕에 몰려오는 낚시꾼과 마을 주민들이 교통이나 쓰레기로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암저수지는 해미면까지 물이 흐른다. 부장3리나 그 위쪽 탑곡리 주민들이 저수지에 대해 별 감흥이 없는 것과 달리, 성암리나 그 아래 마을의 논농사에는 젓줄과 같은 존재임이 분명하다. 똑같은 저수지를 바라보는 인근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55년 전

에 축조된 것이라 해도 저수지가 있는 한 사람들의 생활에 분명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성암리는 요즘 저수지 덕에 생긴 습지를 이용해 옹골 농사가 한참이다. 한 단에 3,500원에서 5,000원까지 이르는 관찮은 나물이다. 저수지는 이렇게 색다른 풍요를 지역에 선사하기도 한다.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어긋한 내 고향 산수리



김태옥 (1953년생)
서산시 해미면 산수로

산수저수지는 1950년대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천천히 진행되던 공사는 1960년대에 마을이 침수되고 저수지 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준공되었다. 동아건설에서 저수지 축조를 맡았는데 철로를 깔고 밀차라고 해서 흙을 담아 운반하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게로 흙을 저서 날라 제방을 쌓았다. 그때는 장비도 좋지 않고 트럭도 많지 않아 저수지 축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저수지가 축조된 곳은 대곡리와 산수리에서 흘러온 물이 모이는 곳으로 수량은 넉넉하였다.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다른 곳보다 폭이 좁아 저수지 건설에 적합한 장소였다. 산수리 아래쪽 마을은 진흙벌이어서 비만 오면 다니기 어려운 곳이었고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해서 저수지 건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수지 건설로 산수리의 문전옥답이 상당히 많이 물에 잠겼다. 그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 없는 시기여서 나라의 시책을 따랐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저수지 위쪽인 지금의 산수리에 정착하였다. 저수지 건설 이후 농지개량조합에서 물 사용료를 받았고, 이는 수자원공사로 개편된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20년 전쯤에야 없어졌다.

산수저수지 건설로 산수리 아래 여러 마을의 농업용수가 확보되면서 이 지역의 논들은 모두 문전옥답이 되었다. 산수저수지 아래에 해미면소재지가 있는데, 저수지 아래쪽이어서 큰물이 나서 저수지가 붕괴되면



모두 물에 잠길 형편이었다. 그래서 해미의 몇몇 사람들은 저수지 축조된 후에 비가 오면 다른 곳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걱정은 사라졌다.

저수지가 축조되기 이전의 산수리는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100여 가구가 넘던 마을로 사창벌, 시궁골, 아리랑고개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이 중에서 시궁골이 지금 저수지에 잠긴 곳으로 상당히 넓은 들을 가진 마을로 기억한다. 마을에는 당산 또는 닭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이 있었고, 원두골·안골·앞사리골·영당골·시절골·가새골 등의 이름을 가진 골짜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저수지가 건설되고 마을이 변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수리 아랫마을 쪽은 과거에 사금을 캐는 마을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사금광을 설치해두고 금을 모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금방앗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왔고 금광을 하던 구덩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물에 잠겼다.

마을주민들은 모두 인근에서 가장 큰 해미장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 인접한 홍성은 기차가 통과하는 홍성역이 있어 주로 외지로 나갈 때 이용했다. 산수리에서 가장 경치가 좋았던 곳은 산위에 안흥정 정자가 있던 곳이었다. 안흥정에 올라가면 해미 전체가 내려다 보여 장관이었다. 안흥정 앞에는 작은 샘이 있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았다. 여름에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 목욕을 하면 정말 시원했다. 여름 더위에 지쳐 피부에 땀띠가 나면 그 샘에 목욕을 하여 가라앉히곤 했다. 지금도 정자는 남아있지만 관심이 적어 이를 해미의 명소로 개발되기를 바란다.

산수리에는 지금도 미륵불이 서있는데 여기에는 김태옥 씨와 관련한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다. 미륵불은 마을 도로가에 서있던 것으로 금줄을 드리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비는 곳이었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수몰되게 되자 미륵을 아리랑고개로 옮겼다. 1980년대에 김태옥 씨가 이장을 맡았을 때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미륵을 20만원에 팔아 마을 농악에 필요한 악기를 사기로 하였다.

미륵을 팔자 사단이 생겼다. 정화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군청 문화재과에서도 나서게 되어 김태옥 씨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경찰서 수사과정

의 중재로 미륵을 찾아오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수소문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 주위에서 계속 채근하자 김태옥 씨는 미륵 대체품을 구해 세우게 된다. 사실 미륵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하게 알지 못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태옥 씨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대부분 탕진했다. 미륵 대체품을 세워두자 아무도 이에 대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 김태옥 씨는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 상당한 의문을 던진다. 중요한 미륵이라면 마땅히 나라에서 보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미륵을 다시 세웠지만 아무도 실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모 대학 교수가 다시 미륵의 정체성에 대해 논란을 지폈다. 산수리에 서있는 미륵은 진짜가 아니며, 진짜 미륵은 모 박물관에 있다고 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미륵 불을 찾아오겠다는 운동을 펼치게 되지만 군청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 기금으로 버스를 대절해 주민들이 박물관까지 찾아가 살폈지만 미륵의 진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없어 실상은 결국 알 수 없었다. 김태옥 씨도 박물관을 찾아가 미륵의 형상을 보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만나 진위를 따졌지만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태옥 씨는 해미읍성을 둘러싸고 황락리, 반양리, 조산리, 산수리에 모두 미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하나로 묶어 의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수리 미륵은 김태옥 씨가 세워둔 대체품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상에 대해서 아는 이는 사라지고 있다.

산수리는 위쪽과 아래쪽의 마을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위쪽은 농사를 조금 짓고 사회적으로 트인 것이 없어 전형적인 농촌 분위기였다면, 아래쪽은 금광을 하고 술집과 주막집이 있는 등 돈이 조금 도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김태옥 씨는 이를 일러 수원이나 평택 정도의 수준을 가진 곳이 아랫마을이라면 위쪽 마을은 오밤중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남아있는 산수리는 모두 저수지 위쪽에 있어 실제 저수지 용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마을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넉넉하지 않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서산시장이 마을에 오게 되면 마을의 개발에 대해 이야기

를 하지만 달라지지는 않는다.

산수리는 수몰되기 전에는 농악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어지지 않는다. 가야산 자락에서 땀감을 해서 해미장까지 걸어가 땀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이 워하던 당집도 기억에 없다. 돌미륵 앞에 치성을 드리던 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수몰되기 전의 산수리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진주강씨, 한산이씨, 안동김씨가 많이 살았다. 저수지를 보면 옛날 침수되기 전에 집들 생각이 모두 떠오른다. 당시에는 참으로 인심이 좋았다. 이웃끼리 일을 하면 서로서로 불러서 밥을 나눠먹던 그 시절을 김태옥 씨는 소중하게 기억한다.

산수리에 대한 김태옥 씨의 생각은 다음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가 당진서 이사 와서 우리들을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생각한다.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이 살아봤지만,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고향, 고향 찾는 뜻을 알겠다. 나는 여기 있으면 좋은 게 남들보다 이 지형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 수 있다. 판 데에 가면 또 새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 특성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여기서 뽕족한 거 없고 내가 한 번 가슴에 몽클은 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감정 사고 이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 우리 동네 분들도 자꾸 그런 것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해가며 그냥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내가 좋을 뿐이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마을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마을에 대한 애정만큼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산수저수지 안이 원래 산수리가 있던 곳임을 아는 이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한다.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전원주택 단지로 변한 고풍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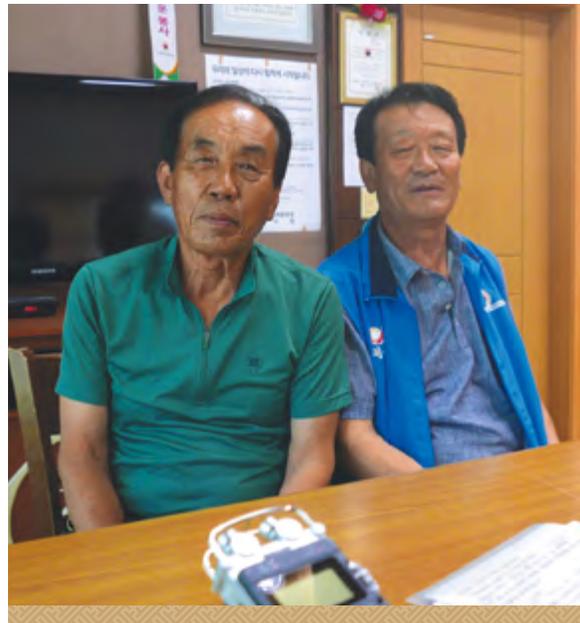


고풍저수지는 충청남도에서 네 번째로 큰 저수지이다. 1975년 동아건설이 조성을 하여 준공된 저수지로, 마애삼존불상 있는 용현계곡과 원평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하는 곳, 물 막기 좋게 골짜기가 좁은 곳에 위치해 있다. 고풍저수지에서 가장 깊은 곳이 수심 88m로, 상당히 좁고 긴 골짜기에 저수지가 축조되었다. 고풍5리 근처의 야산을 파 흙을 옮겨 저수지 둑을 쌓아 저수지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고풍저수지 근처인 음암, 당진 일부, 해미, 운산은 식량 증대를 위해 논으로 만든 지역으로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건설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다. 보상도 적절하게 받았지만 정부 시책이어서 그러하다.

서해권 (1954년생)
서산시 운산면 고풍1길

이광현 (1946년생)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1로



마을 주민들은 보상을 받은 후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다. 고풍리는 현재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저수지 건설로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마을 고유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풍광이 좋아지게 되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져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마을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서산에서는 드물게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된 마을로, 현재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주민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이 더 많아 외지인이 이장을 맡은 마을도 있다.

저수지 건설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전문 기술자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으로 참가하였고 토차에 흙을 퍼담아 운반하거나 등짐으로 돌을 날랐다. 마을 주민들은 품삯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 저수지가 건설된 후 수세를 걷었지만 고풍리는 수세를 내지 않았다. 마을이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여 저수지 물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었고, 농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 탓도 있었다. 해미의 흥천리, 관유리, 삼송리와 운산의 거성리, 상성리, 소중리, 가좌리, 음암의 도당리, 탑곡리, 당진의 대운산리, 사기소리 주민들이 수세를 낸 것과는 다르다.

고풍리는 모두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5반은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로 고풍저수지 반대편에 위치한다. 종교인이 한센인을 위하여 건설한 마을로 별로 소통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는 서로 소통하려 애쓰고 있다. 고풍리 3, 4반이 저수지 건설로 수몰된 마을로 신기하게 보상을 받은 주민 중 다시 고풍리에 정착한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고풍1, 2리가 고풍1구이고, 고풍3, 4리가 고풍2구역서 고풍2구가 사라진 마을이 된 셈이다.

고풍리의 마을을 군자동, 고색동, 고빛마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고색동, 고빛마을로 부르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중에서 수몰된 마을은 군자동으로 45여 호 정도의 마을이었다. 고색동은 양지뜸, 음지뜸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덕산장, 고덕장, 면천장, 예미장(여미장)을 보러 다녔다. 고덕장이 가장 컸고 예미장이 가장 작았다. 고풍리는 마을 전체 길이가 8km에 이를 정도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서해권 씨는 이를 일러 ‘질레 같은 마을’이라고 했다. 고풍리에 마을 경로당이 있지만 아래 쪽 마을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했다. 그래서 서산 시장에게 부탁하여 고색

경로당을 다시 지어 특이하게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둘이 있다. 길이가 길고 원주민이 적다보니 외지인들이 들어와 자리 잡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고풍리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면암산으로 500m 위에 산제당이 있었다. 정월 초닷새 날 저녁에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 제를 모셨다. 통돼지를 잡아 삶은 후 이를 짬어지고 올라가 제물로 올렸다. 제를 올린 후 제물은 모든 마을 주민이 균등하게 나누었다. 국물까지 똑같이 나눌 정도였다. 이를 일러 ‘산제 모신다’고 했다. 산제 모시는 곳은 당집이나 당목은 없었고 단만 윗단 아랫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설기, 튀각 등 제물을 모두 준비한다. 제물을 준비하는 이는 부정을 타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 몸을 하는 여자가 있는 집은 피했다. 서해권 씨는 10여 년 전까지 산제에 참여하다가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다. 현재에도 마을 주민 대여섯 가구가 산제를 모신다고 하여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고풍2구는 별도로 서낭당을 모셨다. 정월 보름에 제를 올렸는데 당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광현씨는 서낭당에 가서 떡을 얻어먹은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제를 올리기 일주일 전부터는 목욕재계를 했고, 황토를 사방에 물려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정성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몰된 고풍2구는 특이하게 석수가 많았다. 고풍2구의 서해권 씨는 돌로 여러 기물을 만드는 석수일을 역사적으로 오래 이어왔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도 이 분들 조상이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광현씨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들이 주로 제작한 것은 맷돌, 매생이(돌절구)같은 생활용품이라고 한다. 고풍2구에는 마을에 돌이 워낙 많았다. 오석 같은 돌이 마을에 많아 쉽게 재료 공급이 된 것이다. 생활용품을 만들어 운산장에 가지고만 가면 쉽게 팔려 석수로 종사하는 집이 몇 집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풍2구 주민들은 힘이 세다고 소문났다. 지게 지고 물건 운반하는 데에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고풍2구 주민들은 일을 잘했다. 고풍2구 가운데에는 고풍천이 흘렀다. 물이 맑아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고풍2구에는 설날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쳤다. 각성반이 마을이 아니라 전주이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종의 동족마을이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마을의 분위기가 떠들썩했다. 동네에는 머슴도 여럿 있었다. 이들은 가을이 되면 농사지은 것으로 새경을 받았다.

겨울철에 마실 나간 이들이 모여 주인이 내놓은 찢고구마를 먹으면서 새끼줄 꼬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가까운 곳에 옹기점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주민들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지만 고풍리 주민과 소통은 잘되었다. 설날을 맞아 옹기점 마을까지 세배를 다니며 어울렸다.

저수지 건설 이후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이 한 분 있었다. 배를 띄우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실 이는 불법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쉬쉬하며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 주민이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이가 없다. 저수지 건설로 수몰된 지역에 있던 공덕비를 건져내어 다시 세운 기억도 있다. 당진 구씨 공덕비로 구씨 집안에서 이를 기리기 위해 다시 세운 것이다. 고풍리에는 예부터 내려오던 강댕이미륵불이 있었다. 수몰되면서 지금은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이 있는 용현리 입구로 옮겨졌다.

고풍리는 고랭지여서 배추 농사를 주로 했다. 서해권 씨는 고풍리가 있는 서산 동부 지역은 서산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바닷가 마을과 달리 생업을 통해 얻는 것이 적었기 때문이다. 발농사가 중심이 되는 마을이 1·2반이고, 3·4반은 수몰되어 실제 저수지 건설로 고풍리가 얻은 혜택은 많지 않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야 풍광이 좋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섰지만 이는 외부인들이 혜택을 본 것이지 주민들이 얻은 것은 아니다. 현재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외부에 거주하는 출향인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다보니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하다. 저수지가 조성되기 이전의 기억은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고풍리는 외부인들이 중심이 되는 전원주택 마을로 변화하였고, 인접한 용현리의 서산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유명세를 타면서 점차 과거의 기억과 분위기를 잃고 있다.

신창저수지는 1975년 착공하여 3년 후 1978년 완공되었다. 신창저수지 건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신창리 근처에 김종필 씨가 조성한 삼화목장이 있었다. 목장일을 하던 일꾼들이 농사철이 되면 출근을 잘 하지 않아 이유를 알아보니 주민들이 천수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의 고평저수지, 용현저수지와 함께 신창저수지를 조성한 것이다. 저수지가 조성된 골짜기에는 냇갈이라고 해서 물이 흘러 콘크리트로 보를 막아 수문으로 물을 조정하여 농사일에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용수가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저수지가 조성되어 농업용수가 확보되게 되면서 신창리는 농사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이후 신창리는 논농사가 주업이 된다.

저수지 조성에는 인근 여러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기계나 중장비가 적은 시절이어서 리어카나 지게로 흙을 저날랐다. 저수지 건설에 기억나는 것은 ‘랜드박는다’는 일이다. 상당히 큰 통을 놓은 후 그곳에 황토를 갖다 부어 저수지 둑을 조성했다. 저수지 둑을 막는 데 사용한 흙은 모두 저수지 옆에 있는 산에서 파온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저수지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신창리 땅은 모래하고 자갈이 섞인 곳으로 비가 온 뒤에 바로 밭에 들어가도 밭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비가 와야 곡식이 잘되는데 가뭄에 몹시 취약했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물 공급이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신창리의 많은 밭이 논으로 변하여 지금에 이른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1년에 논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개심사와 삼화목장의 마을



박영진 (1944년생)
서산시 운산면 신창길



한 마지기당 벼 한 가마니를 수세로 걷어갔다.

신창리는 저수지 조성 당시 125호에 이를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저수지가 있는 산쪽으로부터 1반이었고 모두 5개 반이 있었다. 이중 1반은 25가구 정도로 이중 13가구가 수몰되었다. 7가구는 신창리 다른 반으로 이주하고 나머지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였다. 저수지가 건설된 서산의 다른 마을과 달리 신창리는 수몰된 마을의 규모가 작아 마을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아니다. 저수지 건설로 농업이 활력을 띠면서 발달한 마을인 셈이다.

신창리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찰 개심사가 있는 마을이다. 개심사는 신창리 1번지로 마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창리 땅 중에도 개심사의 절 땅이 분명 있었지만 지금은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전국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절이 되어 지금 신창리 1반은 개심사 아래 관광마을이 되었다. 많은 주민이 식당이나 기념품 판매점을 내어 생계를 유지한다. 개심사 가는 길에 있는 신창저수지에도 산책로를 만들고 데크를 깔아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신창리는 농악을 잘 쳤다. 팽과리 둘, 북 둘, 장구, 징, 새납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있어 용대기를 앞장세우고 농악을 쳤다. 평상시 모여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잘 맞을 정도로 기량이 있었다. 정월 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마을을 돌았다. 어려서 보았던 농악패 중 남자가 여장을 하고 꼬추 흥내를 내면서 춤을 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마을에는 두레패가 있어 논에서 일하다가 두레 싸움도 하고 용대기 놀이 싸움도 했다고 하지만 박영진 씨는 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동네 집집마다 농악을 치면서 3일 정도 돌았다. 추석 때도 마을 회관에 모여 농악을 치며 놀았는데 이를 풍장이라고도 불렀다.

신창리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었다. 2월 초하루 머슴날, 사월 초파일, 추석, 동지는 기억에 남아있다. 동짓날에 개심사에서 팔죽을 쑤어 마을주민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으니 개심사와 마을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신창리를 고창골이라고도 불렀다. 각 반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양지마을, 새터 등으로 불렀다. 개심사가 있는 산은 가야산 줄기로 생전골을 지나야 갈 수 있었다. 개심사가 있는 곳을 절산, 승당뒷골이라고도 불렀다. 동구마루를 물방아골이라 불렀고, 1반 아래는 머쟁이, 2반과 3반의 경계는 구루게골이라 불렀다. 신창리라는 마을 이름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머개이, 구르게골이 자신이 사는 마을이라고 불러 이러한 지명에 더 친근감이 갔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기억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

신창리에는 상장례 의식과 관계된 것으로 ‘연반’이 있다. 사람이 죽어 부고를 보내는 것을 연반이라고 한다. 저수지 아래 마을을 윗말 아랫말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는데 각각 연반이 달랐다. 그래서 상여집이 따로 있어 별도로 운영을 했다. 초상이 나면 연반을 하고 상여를 모셔 산으로 가서 무덤을 조성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어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여를 받드시 모신다. 하지만 상여집은 지금 사라졌고 외부에서 간이 상여를 사서 사용하고 장례를 마친 후 불태운다. 동네 가운데 있던 상여집을 마을 외곽에 컨테이너로 조성하여 옮겼다가 종내 없앤 것이다.

신창리의 가장 큰 모임은 대동회이다. 매년 연말에 이장이 1년 동안의 마을 살림을 보고 하는 모임이다. 1년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감사를 받은 후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마을 주민에게 돌려 추인을 받는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운산농협조합 조합원이어서 그쪽 운영 공개회의에도 참여한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살림도 나아지고 해서 지금은 마을의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특이하게 신창리에서는 가설무대를 만들어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마을 청년 중심으로 배역을 맡았고 연극과 노래를 공연하였다. 일본을 상대하던 ‘태양은 녹지 않는다’라는 연극은 지금도 기억을 한다. 한 달 이상 마당에 모여 모깃불을 피워놓고 연습을 했다. 명절이 되면 마을 주민들 앞에서 공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창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노래자랑을 하는 마을도 있어 상품으로 삼, 쇠스랑을 주기도 했다.

신창리 하면 떠오른 것이 삼화목장이다. 1968년 김종필 씨가 조성한 목장으로 마을 주민 상당수가 이 목장에서 일을 했다. 목장 사무 보는 이들은 대학 나온 외부사람들이 했지만, 목장 관리의 노동은 주로 마을 주민이 담당했다. 용현리와 신창리 주민들이 삼화목장에서 가장 많이 일을 했다. 신창리 주민들은 삼화목장에서 고정적으로 주는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 살림 밀전을 마련한 이들이 여럿이다. 이들은 집을 짓거나 자녀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주로 1년간 소를 목장의 사방으로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는 일이었다. 박

영진 씨는 목장에서 반장까지 역임하고 정년을 맞이했다. 삼화목장이 있어 신창리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3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이래저래 신창리는 삼화목장의 덕을 본 것이다. 풀을 깎는다든지, 낱일과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아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과거처럼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신창리 주민들이 삼화목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박영진 씨에게 신창리는 마을주민들이 자별하게 정을 나누는 마을로 기억되고 있다.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농업 기반이 확고해져 마을의 농업이 융성하게 되었고 삼화목장이 있음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기도 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저수지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규모가 적어 저수지가 마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개심사로 들어가려면 신청저수지를 지나야 한다. 부드러운 원호를 이루며 저수지를 끼고 개심사로 가는 길은 사방의 목장 풍경과 함께 신창리를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다. 신창초등학교가 지금도 있어 인근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 신창리인 셈이다.

고북저수지는 고북면 신송리에 있어 신송저수지라고도 한다. 다른 저수지와 달리 마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면 이름을 저수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철광 씨는 고북저수지는 현대건설이 1970년대 쯤에 조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저수지 건설이 신송리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현재 수몰된 몇 집에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물이 들어찬 저수지 자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들판이었던 것이다.

저수지가 건설된 곳은 매우 좁은 곳으로 '구련'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구련 이쪽과 저쪽을 막아 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저수지가 조성된 곳은 들어서서 집은 몇 집 되지 않았고 들판 아래쪽 마을은 지금은 저수지 아랫마을이 되었다. 신송리 들어가는 길은 저수지 독에 조성되어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수지를 지나야 한다. 저수지 독길은 편도 1차선 도로 정도여서 중간에 자동차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되어 중간 중간에 자동차가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낚시꾼들이 주차를 마구잡이로 해서 마을주민들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기도 한다.

저수지를 건설할 때 그곳에 살던 주민에게는 비교적 많은 보상을 주어 주민들이 수월하게 수용했다. 저수지가 건설된 곳은 장요리 쪽에서 흘러온 물과 연암산에서 흘러온 물이 만나는 곳으로 저수지 용수가 충분하여 저수지를 건설한 것이다. 저수지 건설에 마을 주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저수지의 푸름이 좋은 신송리



신철광 (1942년생)
서산시 고북면 선돌1길



민들이 나가 품삯을 받으며 일을 했다. 주로 흙이나 자갈을 나르는 것이었다. 덤프트럭이 흙을 운반해 저수지 둑을 쌓던 것을 지금도 신철광 씨는 기억한다.

현재 신송리는 저수지 상류 쪽에 위치하여 실제 저수지의 혜택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낚시꾼들이 몰려오고 외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마을은 25여 호로 농업이 주가 된다. 양배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업이다.

마을은 여기저기 집들이 흩어져 있다. 신철광 씨가 사는 곳은 2가구였다가 현재는 신철광 씨 한 가구만 남았다. 여기는 근학동이라고 부른다. 과거에 한문 공부를 해서 그리 부른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마을 한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산이름은 벌미산이다. 그 옆이 태봉이고 근학동 쪽의 산은 남살미라고 부른다. 저수지 쪽에 있던 신송리 마을을 구련이라 부르고 수몰된 신송리 마을은 새말이라고 부른다. 현재에도 구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너댓 가구가 남아있다. 고북저수지는 신송리 새말 마을 몇 집, 장요리 몇 집이 수몰된 정도로 마을보다는 들이 주로 수몰되었다. 수몰된 새말은 네 가구가 있어 작은 마을이었다. 새말과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서로 어울려 놀았다.

신송리에는 풍물이 있었다. 팽과리, 징, 장구, 북이 풍물을 구성하였다. 정월에 주로 풍물을 쳐서 정월 대보름에도 풍물을 쳤고 머슴날이라고 부르는 이월 초하루에도 풍물을 쳤다.

마을 집집마다 다니며 풍물을 쳐서 우물, 주향, 부엌 등을 다녔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대신에서 마을로 넘어오는 곳에 서낭이 있었지만 마을주민들이 뜯어버렸다. 과거에 마을주민들이 떡시루를 놓고 돈을 놓고 빌던 것을 본 기억은 있다.

신송리 주산물 중 담배가 유명하다. 담배를 재배하면 수확하여 수매할 때 목돈을 한꺼번에 주어 가장 좋았다. 전매청에서 나눠 준 씨를 3월에 모판에 뿌린 후 40여 일이 지나면 가시리라고 하여 다시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 다시 40여 일 후 밭에 옮겨 정식으로 재배하고 7월에 수확을 했다. 담배는 수확 이후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버래종이라고 하여 담배를 재배하였는데 노란 색으로 이를 찌서 말리면 황색연초가 되었다. 건조한 담배를 납품하면 돈을 일괄 주었다. 담배 농사는 돈은 되지만 품이 많이 드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서서히 담배 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 신철광 씨도 30여 년 동안 짓던 담배 농사를 작년

에 그만 두었다.

담배 이후 주로 심는 것은 배추, 감자, 생강, 마늘 등이다. 모든 수확은 장사꾼이 직접 마을에 와서 사갔다. 때로는 농협에 직접 납품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시월에 마늘을 심고 부직포를 덮어 겨울을 난다. 마늘 캐기 한 달 전에 마늘종을 뽑는다. 전통 육쪽 마늘을 주로 심었는데 최근에는 스페인산 마늘을 심기도 한다. 스페인산 마늘은 외부 상인이 직접 와서 모두 가져간다. 과거에는 품앗이가 있어 돌아가면서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여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품앗이가 모두 사라졌다. 기계 농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판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기보다 자신이 소비할 정도로만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점심도 이제는 집에서 준비하지 않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신송리는 설날, 추석, 동지를 지금도 지킨다. 동지를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로 구분하여 팔죽을 쑤 먹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사라졌다. 기계농업이 발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에 신송리 이장은 양배추를 심었지만 밭떼기로 장사꾼에게 넘겨 장사꾼이 트럭을 마을까지 몰고 와 수매해간다. 이런 식으로 신송리의 전통 농업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신송리는 과거에 초상이 나면 상여가 나갔다. ‘고집’이라고 하여 상여를 보관하던 집이 따로 있었다. 상여를 사서 쓰기도 했는데 상여가 나갈 때에는 상여소리를 하는 이가 마을에 있었다. 회달이도 하고 전통식으로 장례를 모셨지만 6~7년 전부터는 하지 않는다. 40여 년 전에는 ‘초례지낸다’고 하여 마을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지만 지금은 모두 해미나 서산에 가서 혼인식을 한다. 관혼상장례 의식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현재 신송리는 저수지 위쪽을 신송리 2구, 아래쪽을 신송리 1구라 부른다. 1구는 지금도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만 2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을의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 소통은 많지 않다. 사람 숫자가 적어 체육대회 할 때에만 모일 뿐이다. 동네에는 많은 모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갑계 정도만 유지된다. 상포계도 10여 년 전에 없어졌다. 신철광 씨는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졌고,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울려 노는 일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회관에 모여 윗놀이도 했지만 지금은 정월에만 조금 할 뿐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 이상 마을회관에 모이지 않게 되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린 기억이 매우 오래되었다.

농업도 기계가 중심이 되었다. 신철광 씨도 경운기, 관리기 등을 사용한다. 이래저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더 즐겁게 되었다.

신송리는 저수지 건설로 큰 변화가 있는 마을은 아니다. 푸른 저수지를 보면 그냥 좋을 뿐이다. 가끔 물이 줄게 되면 농사짓는 이들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낚시꾼들이 들어오고 여러 불편이 생기기도 했지만 저수지가 주는 푸름만큼은 좋은 기억으로 신철광 씨에게 남아있다.

노인은 고향이 애뜻하다. 못 노인들께서 산과 들을 앞에 두고 사셨으니 고향 산변을 바라고 애뜻한 마음이 부풀 테지만 이광일 어르신께서는 아무래도 갯물이 밀려오던 갯가가 사무치신가 보다. 이광일 어르신의 마음을 들추니 이런 생각이 어른어른하다.

이광일 어르신은 제법 부유한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마을에서 두레도 이룰 만큼 규모가 되는데다가, 어릴 때는 서당에서 글공부를 배울 정도로 집안 형편이 괜찮았다. 어르신께서 어릴 적 호시절을 살 수 있던 바탕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다다.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바다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남다른 듯하다.

어르신은 아들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마룡리에서 한평생 살며 농사를 지어오셨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년기 시절부터 오롯이 농업에 전념하시게 된 것은 아니다. 마룡리 쪽의 A·B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집에서 살도 매고, 줄낚시도 하며, 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팔며, 전답보다는 바다를 더 곁에 두면서 생업을 이어나가셨다.

누구나 어릴 때의 기억은 그림다. 돌아가고픈 마음은 돌아갈 수 없으므로 절절해진다. 이광일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라. 독이 막히고 저수지가 생기기 이전 시절이 자못 생생하고 눈에 암암하신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룡리는 바다를 막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나 잘 살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멀리 볼 것 없이 어르신 댁만 하더라도 집에서는 살도 매고, 고기 잡아 서산의 부석 장에 고기를 팔아 살림을 가꿨던 때가 있었다.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풍성했던 마을의 그리움



이 광 일 (1941년생)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동네 사람들 역시 고기며 조개 따위가 넉넉해 굴밭도 일구고, 누구는 굴을 까고 누구는 굴을 길렀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족함 없던 호시절이었다.

어르신은 4, 50년도 더 된 부석장이 설 때를 회고하며 당시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마을에서, 장에서 고기를 팔았던 모습이나 마을의 풍속, ‘짚은개’ 저수지와 용구명에 관한 전설 등도, 여든이 넘는 나이가 무색하게 선명히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나 좋았던 추억은 옛일이 되었고, 갯물이 오가던 마룡리에 독이 쌓이고, 갯물이 막히고 농토가 들어서면서 이 사정은 갑자기 바뀌었다. 문자처럼 상전벽해다. 수산자원이 풍족했던 마룡리는 그렇게 물이 막히게 되었고, 물에 살던 바지락과 석화 등 생계를 책임져주던 이들이 점점 사라졌다. 농사를 지을 땅이 넓어지고 쌀이 많이 나는 것이 농사는 아닌 셈이었다. 전답과 저수지는 갯물이 올라와 짠 기가 도는 바람에 처음에는 마을에 농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주민들은 당장 먹고살 거리가 없어졌으므로 마룡리를 떠난 이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어르신은 마룡이 서산 부석서 땅이야 제일 크지만, 앞의 이유 탓에 사는 사람은 120호수 정도뿐이고, 젊은이들도 없다며 아쉬운 듯 말씀하셨다.

이광일 어르신은 마을의 ‘짚은개’ 저수지가 들어선 내력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당신의 회고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미 마을에는 독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논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며 개간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아무리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만 당초 어민들이 많았던 마룡리에게는 되레 독이 되었다. 앞의 말처럼 갯 개간된 논은 갯물이 들어 무엇이든 잘 자랄 수 없어 흉작이 들었다. 당장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갯가에서 조개나 살을 매어 고기를 잡는 것이 더 급한 주민들에게 갑자기 생겨난 논밭은 무용지물이었다.

저수지를 만들고 기대와는 달리 실망이 많은 전답이 원망스러운 법도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그도 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어르신의 총기 덕에 당시 나락을 일구어도 일흔 석 가까이 농사를 지었던 모습이며, 당시 마을에서 수세를 얼마씩 받던 기억도, 수리계의 모습도, 어르신을 통해 잠깐씩 들어볼 수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기억은 마룡리의 두레와 옛 풍속이었다. 비록 마룡리에서 두레는 이광

일 어르신이 40대가 되신 무렵 자취를 감추었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서만큼 생생했다. 아무래도 젊으셨을 당시 넉넉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 역시 마음 깊이 새겨진 듯했다.

마룡리는 마을에 농사를 하러 갈 때면 큰 용대기를 높이 들고서 풍물을 치고 소리를 했다. 이월 초하루면 제주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영등날을 지내며 연풍을 바라듯, 마룡리는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어르신은 어릴 적 서당에서 글을 배운 덕인지, 사실 지금은 한문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제를 지낼 때 종종 축을 읽으셨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단편적인 모습에서도 마을에 대한 추억, 애착,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자못 가득하신 게 느껴졌다.

팔월이면 대보름이라고 한바탕 놀고, 정월이면 벼가리를 세워 달집을 태웠다는 정겨운 모습들도 아낌없이 흘러나왔다. 지금은 신작로를 닦으면서 없어진 큰산벌의 산제, 서낭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예로부터 한국 민중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신이 산신과 서낭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기억 한 편에는 서낭제를 지내기 위해서 응당 해 오던 일들이다. 가령 새미에 고인 물을 퍼내고 맑은 새 물 솟는 것으로 밥도 하고 목욕하던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어르신은 마을의 전설들을 많이 알고 계셨다. 깊어서 ‘짚은개’, 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하여 용구녕, 여우가 다니며 사람을 홀린다고 여수고개 등, 오랜 토박이들이 가물가물 떠올릴 법한 이야기들도 곧잘 나왔다.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마을의 변천, 깃가가 막히고 먹고 살 수 없어 떠난 주민들, 두레 대장도 있고 그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끼리 두레를 하던 모습들, 풍물치고 풍속을 즐기던 옛 농촌, 쌀계니 혼인계니 계를 하면서 마을마다 돈을 각출하던 모습까지도, 곁가지로 늘 붙어서 떠오른다. 용구멍(용구녕)이라도 남겨뒀어야 한다는 아쉬움 섞인 말도 이어진다.

사실 마룡리는 다른 마을과 견주어서 그다지 얻은 것이 많은 마을은 아니었다. 물을 막고 나서 힘들어진 것은 어촌계였다. 마을 어촌에서 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다 먹고 살았던 이들 목전의 생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맞다. 남은 이들은 생강과 마늘 농사도 지었고 벼농사도 지으며 그 규모가 마을에서 두레를 이룰 정도로 타격이 크진 않았다. 어떻게든 먹고 산 이들

은 있었고 아주 가난한 마을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르신은 사라진 갯가의 추억이 그림다. 추억과 옛 고향을 바꾸어 얻은 살림이 여간 풍족한 것은 아닌 듯하다. 있던 터전은 사라져 없고, 새로 닦은 터전에서 애면글면 살아왔어도, 고기 잡고 갖다 팔면서 마을이 넉넉했던 추억과 그 추억이 담긴 갯가는 마음속에서 파도가 갈마들며 밀려오듯 일렁이는 듯하다. ‘짚은개’가, 이제는 물이 시퍼렇게 들어차지 않은 용구녕이, 마음 끝에 아롱져 노인의 주름처럼 새겨진 모양이다.

이제는 나이가 여든둘이 되어, 그저 무탈하고 마을이 안녕하기를 바라지만, 용대기를 올리고 마을 동제를 이어나가는 이광일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바다가 일렁인다.

서산시는 전국적으로 봐도 관내 저수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맞다. 서산에 저수지가 많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특징 덕에 서산 곳곳에는 강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와 작은 포구가 있었다는 기억들이 산재해있다. 하지만 그만큼 평야도 있어서 농사짓기 좋은 땅임도 분명하다. 하지만 강을 따라 들어오는 바닷물은 농사에 좋은 영향을 주었을 리 없다. 구름과 평야들, 곳곳에 있는 작은 천과 강들, 거슬러 올라오는 바닷물, 이런 자연 환경은 서산에 바다를 막아 큰 저수지를 만들고, 곳곳에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산 사람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월저수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다. 네모반듯하게, 정확히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모월저수지는 관개농업을 위해 계획하고 만들어진 게 분명해 보인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모월저수지는 서산 A지구 간척지 내의 농업용수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경지정리가 반듯하게 된 간척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수지 모양도 역시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다.

서정춘 어르신은 모월리에서 낳고 자라신 분이다. 선대 조상들이 외지에서 모월리로 옮겨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사실 간척지 내에 있는 모월리는 척박한 곳이었다. 마을 앞까지 갯물이 들어왔고, 마을 앞에는 포구가 있었다. 모월리 포구가 그것이다. 하지만 마을 분들에게 포구와 바다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쉽지 않았기 때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연꽃도 키우고 정자도 세웠으면



서정춘 (1939년생)
서산시 인지면 모월2리



문인 듯싶다. 갯벌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논이라고 하기엔 너무 척박한 땅이 모월리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모월리 포구가 있던 시절, 모월리 사람들에게겐 짠물이 들어오는 농토와 드넓은 갯벌뿐이었다고 한다. 포구가 있었지만 갯벌 덕에 배를 몰고 나가 어업에 종사하기도 쉽지 않았다. 원산리에서 배가 들어와 고기를 팔면 그걸 사다 다시 서산읍내에 들고 나가 팔아서 생계에 보탬이라고 한다. 그것조차 쉽지 않으면 갯벌에 나가서 황발이와 논게를 잡아다가 시장에 팔아먹고 살았다고 한다. 농토는 갯물 덕에 농사가 쉽지 않고 넓은 갯벌 덕에 고기잡이도 쉽지 않았다. 자연히 마을 인구가 쉽사리 늘지 않았을 뿐더러 가난한 마을에서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모월리가 크게 바뀌게 된 것은 1956년쯤이라 한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공약을 서로 내세우다가 자유당 쪽에서 갯벌에 독을 세우고 염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마을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 독을 막아 일단 갯물이 들어오더라도 넘치지 않게만 만들어두면, 갯벌 일부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염전으로 개발해서 갯벌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농토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가난했던 모월리 주민들에게 염전을 만든다는 핑계로 시작한 갯물을 막는 독막이 공사는 큰 돈벌이가 되었다.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 힘들고, 그렇다고 갯물 덕에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농사 때문에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모월리 주민들은, 저 멀리까지 나가 갯물 막는 독 공사에 많이들 참여했다. 돌을 날라다가 돌밭이라고 불리는 묽음 형태로 바다에 넣어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막는 공사로 마을은 조금씩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정춘 어르신은 독 막는 공사 뒤 간척지를 개간할 때 받은 품삯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독이 막히고 간척지가 생길 때,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땅을 파고 정리하는 일의 품삯은 정확히 한 평 당 그 당시 돈으로 1만원이었다고 한다. 가로 세로 3미터, 2미터 정도 땅을 정리하면 그게 대충 한 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정리했을 때 평당 1만원의 품삯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주변의 논을 사고, 간척지의 논도 얻거나 사서 지금의 그나마 살만한 모월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서정춘 어르신 말씀이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제방 사업과 간척 사업 덕에 모월리의 논들도 사정이 한층 좋아지기 시작했다. 갯물이 덜 들어오니 농토에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갯물 덕에 벼가 빨갭게 상해버리는 일이 훨씬 줄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다른 바닷가 마을에 비해 제한적이었고,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나왔다. 농사에서 얻는 수확이나 소득이 늘어나니 살기가 훨씬 나아짐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의 3분의 1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소금을 구워서 팔며 먹고 살기도 했다.

독으로 만들어진 작은 염전에서 나온 소금들을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구워서 팔았다. 그렇게 구운 소금은 최소한 1년에 쌀 네다섯 섬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농사에다가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까지 부수입이 생기니 그나마 살만하게 변한 셈이다. 갯물도 빠지고 농토에서 농사지어 얻는 수확도 나쁘지 않아지고, 모월리 사람들이 주변 간척지를 직접 개간하고 나면, 나라에서 그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고 한다. 원래 염전으로 만들려고 수로까지 다 만들었던 땅들도 정부가 불하할 때 구입한 사람들은 농토로 바꾸어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갯물도 많이 빠져서 맛있는 쌀이 생산된다고 한다.

마을에는 서낭당도 있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든 때문이라 서낭당은 금세 사라졌다. 특별한 금기도 별로 없었던 듯싶다. 서낭당에서 제를 지내는 전통이 사라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서낭당이 주는 신성함도 없어지자, 지금 살아계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서낭나무를 쉽게 베어서 땀감으로 쓰셨다고 한다. 서낭당을 그렇게 없애고 동티 같은 거 없으셨는지를 여쭙니, 그 어르신은 아직도 건강하게 농사지으신다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다. 마을의 고유한 신앙은 예전부터 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두레도 있었는데 없어진지 오래고, 마을 품앗이 할 때 풍물을 기가 막히게 치고 상사소리도 할 줄 아는 분도 돌아가시어, 이제 마을에 전통적인 풍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제 마을 분들이 모월저수지에 원하는 것은 저수지가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간척지 내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연적 지형지물의 이용 없이 만들어진 저수지이지만, 저수지 옆으로 작은 산들도 있고 수질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 이제 다른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서길 바라는 셈이다.

서정춘 어르신은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산 정상에 정자를 하나 짓고 싶어 하신다. 비록 문중 땅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지역 문중과 이야기가 잘 되어 정상 문턱에 정자 하나 세워두면, 저수지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마을들을 한꺼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면, 작은 관광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인 셈이다. 어르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저수지에 연꽃을 심고 싶다 하셨다. 정자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볼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기를 기대하시는 셈이다. 사실 아직 수질이 나쁘지 않은 모월저수지에도 낚시꾼들이 자주 들락거린다. 모월저수지는 70년대에 생기고, 다른 저수지와는 달리 원래 있던 연못이나 작은 저수지 혹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간척지 내에서 새롭게 만든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서산 시내 다른 저수지들에는 붕어가 많이 살지만 모월저수지에는 외래종인 배스가 가득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수질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 장소로 소문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배스 낚시꾼들이 꼭 찾는 저수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모월저수지에서 낚시는 아직 합법이 아니기도 하다.

서정춘 어르신은 모월저수지가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라시지만 다른 마을 어른들은 태양광을 생각하시기도 한다. 직사각형에 양수형 저수지라 사시사철 물 높이가 일정하니 어떤 면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듯싶다.

간척지에 새로 생긴 모월저수지는 모월리 마을 사람들에게 젓줄과 같은 존재임이 분명하다. 포구가 없어진 것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간척지로 쉽게 바뀔 수 있었던 넓은 갯벌과 갯물이 들어오는 애매한 농토는 그 동안 먹고사는데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이 세워지고, 간척지가 개간된 뒤 충분한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댐 늦게나마 만들어진 모월저수지는 모월리 사람들의 삶을 확실히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어지시게 되면 모월저수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을 듯싶다.

상흥리 마을 한 가운데로는 큰 길이 난 지 오래다. 상흥리가 3구로 나뉜 것도 사실 서산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 덕일지 모른다. 마을은 저수지를 끼고 낮은 둔덕과 구릉 사이에 놓여 그 자체로만 봐도 예쁘다. 한적한 시골마을 느낌도 나지만 집들이 거의 현대식이고 최신 트랙터나 콤파인도 쉽게 보이는 게 부농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서산시로 들어가는 큰 길 덕에, 그리고 커다란 잠홍저수지 덕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새로 지은 집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진 커다란 예식장 바로 아래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장은 항상 쓸쓸해 보이고 드넓은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다.

박현신 이장님은 올해 78세로 상흥3리에서 낳고 자라셨다. 농업 외에는 다른 일을 해 본 적은 없으시다 했다. 상흥3리는 42세대, 남자는 50명 여자는 61명 정도이다. 크기에 비해 사람 수는 적다. 우리 농촌의 공동화를 잘 보여주는 듯싶어 안타까웠다. 사실 조사하는 저수지 이름은 잠홍저수지다. 잠홍저수지는 상흥리와 잠흥리 땅에 만들어졌다. 물론 인근 부산리 땅도 들어가 있긴 하다. 저수지 둑을 경계로 상흥리와 잠흥리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상홍저수지가 아니라 잠홍저수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홍저수지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수지에 대해 그리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름 바꾸는 데 그리 열성적이지는 않다.

사실 잠홍저수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꽤 오래

서산시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

생태공원 조성의 방향성



박 현 신 (1943년생)
서산시 음암면 상흥3리



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0년도 잠홍저수지 공사가 착공되었다. 하지만 뒤이은 해방, 해방 전후의 혼란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저수지 공사는 완전히 멈춰져 있었다. 결국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까지 합치면 잠홍저수지의 역사는 근 80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사는 한국전쟁 시기이던 1951년, 그러니까 1.4후퇴 이후 지금의 휴전선에서 전선이 고착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완공은 1958년이다. 지금의 꼴을 갖추게 된 것은 2003년인데 한차례 크게 보강공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으니,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 보고 크신 셈이다. 저수지 공사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중장비 같은 게 들어오긴 어렵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직접 흙을 이고 져서 나르기도 하고, 밀차 같은 것으로 나르기도 했다. 물을 담고 축대를 세워 제방을 만드는 공사는 토목공사 중에서도 쉬운 것이 아니니, 공사에 참여했던 마을 사람들이 사고로 죽기도 했단다. 이장님이 많이 어린 시절 일이라 자세한 내막은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서산 내에서 큰 공사였음은 분명하다.

상홍3리, 더 나아가 상홍리 사람들 대부분은 이 저수지에 대해 좋은 감정이 별로 없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수지가 있었으니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상홍1리와 2리, 그리고 3리의 농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그 덕에 마을의 농업 형태도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거의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장님 기억으론 상홍리의 좋은 논 70%가 저수지 아래로 잠겼다고 한다. 보상금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시절이고, 이 저수지 물을 저 아래 면단위까지 사용하게 될 터이니 쉽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다고 한다. 상홍리의 좋은 농토는 모조리 저수지 물 아래로 들어갔는데도 저수지 이름은 잠홍저수지가 되었으니 저수지에 좋은 기억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홍저수지로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 별다른 실행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드넓은 저수지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최소한 몇몇 농토들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양수기가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가물어도 별다른 걱정 없이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수지의 지척에 살면서도 저수지 위쪽 사람들은 농토에 물

을 직접 댈 수 없으니 안타깝기는 매한가지라 한다.

사실 잠홍저수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이다. 5, 6급수에 이르는 물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물비린내가 나는 수준은 아닌지라 마을의 삶에 큰 피해는 없지만, 수질이 엉망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신다. 거기다가 준설을 하지 못해서 저수지 바닥에 빨흙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저수지 안에서 좋지 않은 흙들이 바닥에 계속 쌓이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실 준설부터 하는 게 맞는 듯싶지만, 서산시도 환경부도 준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고 한다. 수심도 엄청 깊었다가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 낮아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한다. 하지만 저수지 아래 흙을 퍼보면 저수지 물로 짓는 쌀을 먹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시니 심각하긴 한 모양이다.

이장님 댁 논도 잠홍저수지 아래로 들어간 것은 물론이지만, 저수지 아래 농토도 가지고 계시다. 이장님 당신은 저수지 아래 농토에서 직접 지으신 쌀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 아래 100마지기 논농사를 짓는 대농 한 분은 잠홍저수지 물로 지은 쌀을 내다 팔기만 하실 뿐 직접 드시지는 않는다고 한다. 수질을 도통 믿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사실 마을에는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81억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돈으로 실시하는 수질 개선 사업은 수초를 심어 소위 친환경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수초가 빨흙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한지, 저수지 한 가운데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 건 마찬가지라 하신다.

상홍리와 잠홍리를 잇는 기다란 뚝은 사실 서산시내로 들어갈 때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42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의 크기를 생각할 때, 수질도 좋지 않은 이 저수지의 쓸모에 대해 궁금함이 크게 들긴 했다. 하지만 저수지의 다양한 용도를 마을 사람들이나 서산시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서산의 현역 국회의원은 42만평에 이르는 잠홍저수지에 수상테마파크 건설을 공약으로 내 건 적이 있는데, 지금 수질개선 사업도 이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보인다. 수질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저수지들은 민물낚시꾼들에게는 보배 같은 존재들이다. 인근 저수지들과 마찬가지로 붕어낚시꾼들에게 잠홍저수지 역시 나름 소문이 나 있는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낚시꾼 사이에 트러블이 종종 벌어진다. 실제로 이장님과 함께 찾아본 저수지의 긴 제방 곳곳에는 망가지고, 떨어져 버린 낚시 금지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산시는 아예 300만원의 벌

금을 정해놓기도 했다.

지금 잠홍저수지에는 예쁜 나무 데크가 저수지 거의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나무 데크로 접근하는 지점이 그리 많지 않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지만, 인근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와서 저수지 주변을 돌다 돌아간다고 한다. 이장님과 저수지를 직접 답사했을 때에도 서산 시민들이 간편한 복장으로 운동을 하러 나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외지인들에게 저수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곳이다. 삶의 휴식처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저수지 둘레를 거의 감싸고 있는 나무 데크는 많은 서산 시민들이 찾아오는 명소 아닌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상흥리 사람들에겐 저수지는 휴식이나 관광의 장소가 아니다. 저수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관리만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생태공원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다. 수질 개선을 통해 저수지 물이 깨끗해지면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된다. 더군다나 물이 깨끗해지고 생태공원이 되면 인근 서산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휴식장소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초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질 개선보다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준설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농업용수로의 수질 개선이다. 아름다운 저수지가 생태공원이 되어 서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도 기쁘지만, 평생을 저수지 옆에서 삶을 일구어 온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더 기울일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논산 초등교육을 이끌어온 산 증인의 이야기를 듣다	220
교직과 행정에서 꽃을 피우다	225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다	230
교육의 본질, 인성교육을 실현하다	234
모두가 행복한 학교	239
신뢰와 소통이 가져온 발전	243
정성을 다해 가꾸는 건양대학	248
교육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 교육현장을 꿈꾸다	253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논산 초등교육을 이끌어온 산 증인의 이야기를 듣다



김영대 (1925년생)
충남 논산시 취암동



김영대 교장은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4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긴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며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변화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더불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섰다. 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선생님이라는 자리를 지켰다. 그와 같은 선생님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지금의 초등교육이 있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사건

올해로 96세인 김영대 교장의 부모님은 연무읍 소룡리에 터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 마을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화산면 운산리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다.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서당을 열어 친구들과 공부했다.

8살 무렵 날씨가 쌀쌀해져 베를 짜던 어머니가 방에 불을 때셨다. 공부하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그 불을 가지고 놀았다. 갈퀴를 불에 벌겍게 달구어 불 피는 장난을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글 읽으라고 부르셨다. 선생님이 부르시니 가지고 놀던 것을 집어 던지고 공부하러 들어갔다. 아무렇게나 던진 갈퀴가 나무체에 떨어졌고 그대로 불이 나 집이 모두 타버렸다. 이 불로 그의 가족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살기 위해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

힘들어도 놓을 수 없었던 공부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그는 공부를 계속했다. 공주에 거주하면서도 청양 목면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목면 심상 학교를 거쳐 전주사범학교 특설 강습과에 진학했다. 사범학교에 진학하려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필요했기에 따로 입학 자격시험을 봐야 했다. 혼자 교과서로 자습을 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사범학교에 다니면서는 매달 관급을 받았다.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가족과 떨어져 있어 생활비로 쓰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초임 발령을 받은 공주 탄천국민학교

1944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다. 공주에 있는 탄천국민학교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 19살이었다. 국민학교였지만, 막상 학교에 가 보니 나이가 동갑인 학생도 있었다. 1944년은 일제 강점기였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大東亞戰爭)에 모든 것을 동원할 때여서 물자도 부족했고 사람도 부족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는데 일정한 나이가 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전쟁에 끌고 가서 자격 있는 교사를 찾기도 힘든 현실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속성으로 교육해서 교사를 충원하는 제도도 있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환경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당시만 해도 작은 면은 2개를 묶어 학교 하나를 두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도 없어서 동네의 공회당을 이용했다. 그래도 당시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많이 충원하기위해 공무원 중에서는 교사의 대우가 좋은 편이었다.

구자곡국민학교에서 시작한 논산 초등교육

2년을 탄천국민학교에서 근무하고 다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구자곡국민학교였다. 구자곡국민학교는 나라에서 공립학교로 만든 곳이라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환경이 좀 나은 편이어서 교실은 갖춰져 있었다. 그래도 학생이 워낙 많아 여유 공간이 없었다. 한 학급에 학생들이 80~90명으로, 탄천국민학교가 40~5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콩나물시루 같았다. 선생님이 부족해 교사 1인이 2개 학년을 맡아 가르쳤다.

구자곡국민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분리되어 나갔다. 1956년에는 왕암, 1959년에는 연무대, 1965년에는 연무중앙, 1972년에 시묘 학교가 분리되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초등교육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교장이었다. 교장에게만 관사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교사들은 각자 집에서 생활했다. 사회적으로도 지서장은 반드시 일본인이 맡았던 때였다. 교사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섞여 있었다. 일본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오면 일본에서 월급 외에 보조 받는 별도의 금액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많이 왔다. 여성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큰 학교에는 교장 다음에 현재 교감 역할을 하는 교두가 있었다. 배우는 과목도 지금처럼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신(윤리), 국어, 공민(사회), 산수, 음악, 미술 교과서가 있었고 체육은 교과서 없이 공부했다.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 논산에서도 반월학교가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면서 부창에 흡수되었다.

해방 후에 변화된 초등교육

해방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제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일본인을 왜 멀쩡히 제 나라로 돌아가게 했을까 싶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박했다. 그래서 기껏해야 괴롭힌 사람들의 짐을 빼앗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당장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많이 부족했다. 교장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선생님이 부족해서 일본 교사들이 가르치던 반을 한국 교사들이 나누어서 맡았다.

교사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학부형들이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했다. 나락을 조금씩 거둬 월급 대신 교사들에게 주었다. 그 나락을 팔아 생활을 근근이 이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집안이 튼튼한 사람들은 교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교과서도 일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당장 가르칠 교과서가 없었다. 조선어학

회에서 급하게 『조선어독본』이라는 교과서 한 권을 만들었다. 그것도 학교마다 공급해줄 수 없어 도에서 한 권씩 등사해서 각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다시 그 교과서를 등사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래도 해방되고 5~6년 후에는 제도가 많이 정비 되어 1면에 1교를 두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금과 다른 것이 또 있다면 당시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학교에 다니겠다고 오는 아이들의 나이나 실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컸다.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서당에 다니다가 학교로 온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봤다. 시험성적을 보고 실력에 맞게 학년을 배정했다.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모두 1학년으로 학교에 입학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지킨 초등교육 현장

구자곡국민학교에서 8년을 있을 무렵 6·25전쟁이 났다. 다행히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없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 좌익과 우익이 분열되어 이념에 맞는 사람끼리 따로 모임도 했지만, 심각한 대립은 없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계속해갔다. 김 교장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념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교육에만 집중했고 그건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자곡국민학교 다음으로는 부창국민학교로 이동했다. 그다음부터는 논산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 동성학교에도 있었고 부여 규암에 있는 백강학교에 갔다가 다시 대명학교로 왔다. 예산 예동학교에서 교장이 되었다.

당시에는 교육현장의 행정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평교사, 교감, 교장 순서대로 진급해가는 체계가 아니었다. 학교 형편에 따라 평교사가 교감 역할을 맡다가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었다.

예동학교에서 교장으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논산 성동학교로 왔다. 마지막에는 왕전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했는데 평교사로 15년, 교감으로 15년, 교장으로 15년을 근무해서 45년 동안 초등교육 현장을 지켰다.

초등교육 현장을 이어받은 딸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징집을 피하려고 일찍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김 교장 역시 19살 첫 발령을 받았던 때 17살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슬하에 6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2명이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딸은 현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딸이 교장으로 첫 발령을 받은 곳이 그가 8년 동안 있었던 구자곡초등학교였다. 딸에게도 그에게도 구자곡초등학교는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

김 교장은 1944년 일제 강점기에 초등교육 현장에 뛰어들어 45년 동안 한길만을 걸어왔다. 아이들에게 정직과 감사라는 말을 가장 강조했다라는 김영대 교장. 이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교직과 행정에서 꽃을 피우다



남우직 (1939년생)
충남 논산시 광석면

어린 시절

남우직 교장은 1939년에 광석면 항월3리에서 태어났다. 아홉 형제가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홍역으로 연달아 사망한 탓에 맏형과 막내인 남 교장만 장성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의 이름을 지을 때 향렬을 따라 '직우'로 하지 않고 '우직'으로 하였다.

농부인 아버지는 없이 살아도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다. 남 교장보다 18살이 많은 형이 노성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다니는 5년 동안 전체 수석을 하였다. 그 후 형은 전주사범학교 심상과에 입학하였다. 아버지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덕에 남 교장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항월리는 적산가옥을 광석국민학교 분교장으로 사용하였는데 남 교장은 이곳에서 1, 2학년을 보냈다. 양철집인 일본식 다다미방이 강당처럼 넓었고 책상이 없어 엎드려서 공부했다. 교사 두 명이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40~50명의 아이들을 학년만 나눠서 가르쳤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본교를 다녔다. 교사가 세 동 있었는데 1, 2동 교사는 마루방이고 3동 교사는 흙방이었지만, 책상과 걸상은 갖춰있었다.

그가 5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기간 동안 아버지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친 형이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배움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여겨서 전쟁이 끝난 후 권 교장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와 이종 간인 당시 국민학교 교감이던 정우책 선생과



윤야중 선생이 아버지를 찾아와 계속해서 남 교장을 학교에 보내라고 권유했다. 두 분의 설득에 힘입어 6학년 6~7월쯤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학교를 마치고 대건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교직의 길을 걷다

아버지는 시국이 변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 교원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사범학교에 보냈다. 당시 사범학교는 공부하는 어느 정도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갔다. 돈도 적게 들고 일찍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 교장이 대전사범학교에 다닐 때는 3년제였고 여자 한 반과 남자 두 반이 있었다. 지금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품금과 다양한 악기는 물론이고 피아노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시설이 비교적 괜찮았다. 대전사범학교는 부족한 교원 수를 충원하기 위해서 1년짜리 부설 연수과와 6개월짜리 강습과가 별도로 있었다.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범학교 연수과를 나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강습과를 나오면 준교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초임 발령지에서

남 교장은 1958년 스무 살의 나이에 청양군 칠갑국민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6학급으로 구성된 칠갑국민학교는 당시 대부분 학교처럼 시설이 많이 부족했다. 학교 시설을 충당하기 위해 기성회가 있었는데, 칠갑국민학교는 기성회장이 교실 한 칸을 사재로 지어주었다. 기성회장은 남 교장을 포함해서 신입 교사 두 명을 쌀 세 말 값만 받고 하숙생으로 받아 주기도 했다. 기성회장은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춰 존경받았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광석에서 아버지가 칠갑까지 온 일이었다. 교통편이 없었음에도 아버지는 공주 탄천까지 와서 청양군 청남까지 나룻배로 건너고 청남에서 칠갑까지 70~80리를 걸어서 오셨다. 아버지는 이희선 교장께 인사만 하고 당일에 광석으로 돌아가셨다. 그 당시는 아버지의 교육열의 한 발현이라고 여겼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광석국민학교와의 오랜 인연

1959년에 모교인 광석국민학교로 두 번째 발령을 받았다. 학년당 각 세 학급으로 70명 정도가 한 반을 이뤄 총 학생 수는 대략 1,300명이었다.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 한 칸을 나눠서 한쪽은 교장실로 썼다. 칸막이로 쓸 재료가 없어서 교장실을 향해 책장을 놓아 장소를 구분하다 보니 위쪽은 트여있었다. 교장 선생님을 어려워한 선생들이 모두 이 교실을 원하지 않아서 새로 부임한 남 교장이 이 교실을 쓰게 되었다. 당시 교감이던 이재홍 선생이 착한 아이들로 반을 꾸려줄 테니 이곳에서 4학년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학생 수는 40명 정도로 다른 반 보다 적었지만 공간이 작다 보니 교실은 가득 찼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5학년까지 수업하다가 1960년 12월 25일에 입영하였다. 복무기간은 사범학교를 나오면 교보라고 해서 1년, 대학생은 학보라고 해서 1년 6개월이었다. 1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광석국교로 돌아와서 10년 정도 근무하였다. 당시 한 학교에서 오래 근속하면 장기근속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광석국민학교에서 금반지를 받았다. 그 당시는 주임 교사도 임명직이었는데 젊은 남 교장이 주임이 되었다. 주임 교사로 1년 4개월 정도 가야곡 근처 함산국민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광석국민학교에 와서 교무주임이 되었다.

1973~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물자 절약 교육과 관련된 심사가 있었다. 그 당시 책상은 요즘과 재질이 다른 송판을 깔았기 때문에 대부분 구멍이 있었다. 당시 광석국민학교 교감으로 온 정우택 선생이 책상의 구멍을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빠데(퍼티)를 구멍에 발라 메꾼 후에 사포질을 하고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기로 하였다. 남 교장은 낮에는 수업하고 방과 후에는 정우택 선생과 학교 기능직 공무원 한 명과 함께 책상을 수리하였다. 그는 이 과정과 연구 동기를 교육 자료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남 교장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교사의 특성’이라는 논문으로 푸른기장을 받았을 정도로 연구 보고서 쓰는 기법을 잘 알고 있었다. 구멍 난 책상의 수리와 그의 보고서 덕분에 광석국교는 무임소장관실에서 운영하는 물자 절약 대상을 받았다. 이 책상 수리 과정을 KBS 중앙방송에서 와서 녹화해 가면서 광석국교가 물자 절약으로 많이 회자되었다.

다양한 직책을 거치다

무임소장관 표장을 받은 후에 그는 파견교사로 차출되었다. 파견교사가 되어 장학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들 퇴근한 후에 공문서를 정리하다 보니 보통 퇴근은 11시였다. 힘든 상황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파견 근무가 만료돼서 동성국민학교에서 6개월 있었다.

1978년 11월에 청양군 목면국민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다. 1981년 3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상월국민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1986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장학사로 있다가 서광국민학교 교장이 되었다. 1996년에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하다가 장학 담당 장학관을 하였다. 그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두 개를 겸했다. 1997년에 금산교육청 교육장을 만 2년 정도 맡았다. 1999년 3월에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2001년 8월 31일에 퇴임하였다. 퇴임 1년 후에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8년간 활동하였는데 의장 1년, 부의장 2년을 맡았다.

남 교장은 다양한 직책 가운데 금산 교육장으로 있을 때의 기억이 뚜렷하다고 한다. 12월 16일 오후에 관내 초중고 교장 회의를 하던 중에 남이초등학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가봤더니 과학실에 불이 나서 한 칸이 전소되었다. 교장 선생에게 조기 방학을 권하고 당분간 숙직실에 기거하라고 요청했다. 남 교장은 관리 과장, 시설 계장, 경리 계장, 초등 계장 등에게 의견을 들은 후 방학 동안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 예산과 추위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 교장은 결단력 있게 상황을 처리했다. 그다음 경찰서장과 금산 지역 기자들, 오재욱 교육감에게 자초지종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정대로 복구해서 개학할 수 있었다.

남 교장은 교장을 할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한다. 선생에게는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생 앞에 설 때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일반 행정이나 장학 행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과 함께 있을 때만큼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다.

남 교장의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 군대에 가기 전

2년간 가르쳤던 광석국민학교 아이들 중에서 세 명이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 세 사람과 매월 말일에 산행을 한다. 교직 43년 5개월 중에서 2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어가는 인연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 남 교장은 함께 나이 드는 10살 차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편안하다고 말한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든다



박 일 수 (1949년생)
충남 논산시 내동



기민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논산과 인연을 맺은 박일수 교장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기민중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학교로 성장시켰다.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고 학교의 교육방침을 설명했다. 박 교장의 이런 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학교가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는 현재의 기민 중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온화한 사람들의 동네 신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

박 교장은 충북 영동군 신천에서 태어났다. 금강의 상류 마을인 신천은 온화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자치기나 사방치기 같은 놀이도 했지만, 강과 가까이 살았기에 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여름이면 수영하고 겨울이면 얼음배(두껍게 언 얼음을 토끼로 큼직하게 깨 배처럼 만든 것) 놀이를 주로 했다.

가족은 위로 누나가 두 분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가족을 책임지셨다. 가족을 이끄는 강한 어머니셨으나 그의 뜻에는 전적인 지지를 보여주셨다. 암에 걸려 위중한 상태의 큰아버지를 위해 교회에 가서 기도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어머니는 당신의 종교를 바꿔 같이 교회에 나가실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가 컸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어머니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박 교장이 작은 마을보다 큰 곳에서 공

부하기를 원하셨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기차로 먼 거리의 대전까지 통학하며 공부하였고 충남대학교에서 농업토목을 전공하였다.

고향에서 교육자로 첫발을 내딛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고향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근무하는 신천중학교는 집과 가까워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보람되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시절이기도 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을 꿈꾸다 고향을 떠나 천안과 공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도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버릴 수 없었고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했던 젊은 박 교장은 좁게만 느껴졌던 교육현장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았으나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어서 그랬는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기민중학교 임용수 이사장과 인연이 닿았고 2001년 가을 기민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기민중학교

기민중학교는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 3·1운동을 한 이근석 애국지사가 교육에 뜻을 두고 1949년 대교동에 세운 학교였다. 이근석 설립자는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마음만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웠다. 좋은 취지였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정식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 별도의 시험을 보고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55년 현재의 재단법인을 세워 정식으로 기민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행정적인 면은 해결이 되었으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좁은 대교동을 떠날 필요가 있었다. 1982년, 현재의 위치인 자산동으로 학교 이전을 결정하였으나 재단의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가 교장으로 부임하던 2001년에도 학교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였다.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는 기민중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우선 학교 여러 곳에 놓여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치우고 대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리해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동시에 재단의 어려운 재정 형편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재단에 기대기보다 직접 발로 뛰어 필요한 비용을 만들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리가 멀어도 어디든지 직접 찾아갔고 담당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렇게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앞에 들어선 대나무 숲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뿔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학교 오는 길이 즐겁도록 진입로 포장공사도 했다. 이렇게 낙후된 시설들을 하나씩 정비해나갔다. 꼭 필요했으나 만들지 못하고 있던 급식실도 만들었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다시 세운 교육의 틀

박 교장은 학교의 외부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적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립자의 기독교 정신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기독교처럼 채플 과목을 학교 정식 과목으로 넣지는 않았으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했다. 다른 종교를 가진 학부모들도 학교의 교육이념을 이해하고 교육방침을 응원해주었다.

단순히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봉사 활동도 계획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요양시설을 방문하기도 했고 탐정 저수지나 천변의 환경정화 작업도 학생들과 함께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계획도 실천에 옮겼다. 교내 도서관 환경을 정비했고 별도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해 단순한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등교 시간을 앞당겨 학생들이 정식 수업 전에 교육방송을 시청하도록 일정 표도 조정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논산에 거주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었

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일상지도도 가능해졌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기민중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기민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역사회에서 기민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도 늘어났다.

은퇴 후 계속되는 도전

기민중학교에서 2010년 퇴직 후 박 교장은 다니던 교회의 어린이집 원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다,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논산에서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바람으로 봉사단을 조직하였다. 노인회관, 경로당, 보육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함께 요리하며 음식을 나누는 ‘꽃할배 봉사단’이다. 스무 명 남짓의 중년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봉사단은 단순히 만들어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기존의 봉사 활동과 차별성을 두어 같이 요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이다. 사람과 만남을 좋아하는 교육자로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어 본 박 교장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학교라는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들리는 기민중학교에 대한 좋은 평가는 박 교장의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중학교 제1순위로 기민중학교를 꼽는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학교로 기민중학교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박 교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교육의 본질, 인성교육을 실현하다



강 석 준 (1951년생)
충남 계룡시 엄사면



교목이 되다

보통 신부들은 4, 5년마다 성당을 옮기는데 한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강석준 신부는 그 점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라는 주교의 말은 기꺼웠다. 1985년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교목으로 발령받았다. 교목 당시 이사장 대리를 겸했기 때문에 교장과 일반 교사들은 강 신부를 멀리하였다. 1~2년이 지나면서 동료 교사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불만을 듣게 되었다.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교목 3년 차인 1987년에 솔피 피정의 집에서 교사 연수를 하였다. 연수 첫날에는 세대별,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음 날은 다양한 연령을 섞어 다시 그룹을 만들어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발표했다. 이 연수를 통해 동료 교사들은 강 신부가 학교에 오래 머물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노력에 점점 호응해 주었다.

인성교육의 디딤돌

첫 부임 당시 강 신부의 눈에는 대건중고등학교가 가톨릭 학교임에도 인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강 신부는 처음에 담당했던 종교 수업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으로 바꾸었다. 철학이 후일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강 신부는 수업 전에 5~10분 정도 아이들을 명상시킨 후에 어떤 주제나 물음을 생각하

게 한 다음 서로 이야기하게 했다.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은 클럽활동이었다. 첫 해는 50명, 다음 해는 100여 명의 가톨릭 신자 아이들을 데리고 중창부, 편집부, 성극부, 전례부, 성시부 등 다섯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서 활동을 했다. 학교 측은 입시교육과 상관없는 아이들의 발표회를 반기지 않았지만 주교의 방문으로 발표회 당일 수업을 빼는 것을 허락했다. 발표회 뒤에 가을소풍과 체육대회를 연달아 하면서, 1987년 가을에 ‘제1회 대건학교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살아온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사와 학생들, 학생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뜻밖의 학교 이전 추진

교목으로 7~8년 있었을 때 강 신부는 주교의 권유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과 일반 교사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 강 신부는 모교를 위해 교장과 화합할 수 있도록 대건 출신 선생들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모인 자리에는 총동창회 간부 30명이 와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지만, 강 신부는 개교 50년사 편찬을 위해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부탁했다. 또한 그는 학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학교, 학교 시설의 현대화 등을 제시했는데 동창회 간부들은 학교 이전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학교 이전이라는 뜻밖의 전개에 주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림건설이 새로 학교를 짓고 옛 학교 자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하고 추가된 금액은 재단에서 부담했다. 강 신부는 유학을 미루고 학교를 이전한 다음 해에 개교 50년사를 편찬하고 그다음 해에 교장이 되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 방식

강 신부는 교장이 되면서 교목 시절에 생각하고 느꼈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시도했다. 먼저 판서로 진행되던 수업을 파일식 방법으로 바꾸었다. 수업 시간에 판서할 내용을 미리 파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한 후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었다. 선생님들은 수업자료를 매일 교장실에 있는 함에 꽂아 놓았다. 강 신부는 인쇄기를 더 사고 인쇄 담당을 두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시켰다. 새로운 수업 방식이 자리를 잡기까지 선생님들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실력은 크게 향상되어 아이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즈음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논술과 심층면접이 들어갔다. 대건고의 아이들은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듣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토론식 수업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심층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5·13 교육개혁안과 대건고등학교의 수업 방식이 일치한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는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한 성적 향상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이들은 스스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었다. 이때 전교 1등은 혼자서 공부하고 그 아래 등수였던 다섯 명의 아이들은 함께 공부했는데, 그 다섯 명의 아이들이 최종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후에 기숙사에 스터디 모임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강 신부는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강 신부가 교사를 채용해서 수준별 수업을 시작하자 아이들의 실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사회와 과학은 선택별로 이동하고 음악, 미술, 체육은 자기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동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강 신부는 7년간 교장을 맡으면서 시스템을 만든 뒤 2년간 유학을 마치고 2년간 대전 본당에 있다가 다시 대건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4년 만에 돌아온 학교는 이전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 한 달 만에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왔지만, 강 신부는 리더가 떠난 후에 시스템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리더가 아닌 문화에 의해서 시스템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클럽활동은 1, 2, 3학년 선배와 후배가 엮여 있어 문화가 형성되어 계속 이어갔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 PESS 문화를 만들었다.

테마여행의 나비효과

강 신부가 교장이 되고 나서 수학여행을 따라갔을 때 여관 주인이 로비 명목으로 봉투를

건넸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라는 당부의 말로 봉투는 거절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학여행을 테마여행으로 대체했다. 방학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테마여행 기간이었다. 학교와 아이들이 기본 테마를 정하고 기본 열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면 교사 한 명이 배치된다. 테마로 정한 내용을 발표하면 지리과 점수에 5%가, 기행문을 쓰면 국어과에 교과 점수 5%가 반영되고, 영어과에서는 기행문을 영어로 쓰도록 유도했다.

한번은 테마여행 대신에 여름방학 때 서울대 4박 5일 캠프에 참여한 팀이 있었다. 대건고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해 보니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이었고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캠프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건고 아이들도 각 조로 흩어져 활동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지적 능력은 우수하지만,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특목고 아이들 대신 대건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각 조를 이끌었다. 감동받은 담당 교수가 겨울방학 내내 1박 2일로 진행되는 캠프에 대건고 아이들 두 명씩을 넣고 싶다고 해서 겨울 방학에는 68명을 보냈다.

모두의 노력이 결실로

1999년에 OECD는 전 세계에서 교육에 열정적인 나라 10개국을 선정하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대건고에 협조 요청을 해왔다. 대건고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심사단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하나의 수채화를 보고 가는 느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한다. 모든 나라가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짜깁기한테 반해 대건고의 프로그램은 독창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대건고가 OECD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다. OECD 본부는 대건고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OECD 국가에 배포하였다.

어느 날 어떤 교장 선생이 강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 청암상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면서 신청했는지를 물어왔다. 그 교장 선생의 연락 덕분에 마감 일주일 전에 그동안 축적된 교육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었다. 대학교수, 사회단체, 유명인으로 구성된 14명의 심사단이 학교에 찾아와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강 신부는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원래 청암상은 개인에게 수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강 신부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처음 제정된 상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2007년에 제1회 청암상 교육대상은 논산대건고등학교가 받게 되었다.

끝나지 않는 꿈

교구 법인에서는 강 신부가 은퇴한 이후에도 초빙 교장으로 계속 남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해 법이 바뀌면서 초빙 교장도 62세가 넘으면 할 수 없게 되었다. 강 신부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위해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선생님이 단원의 핵심 개념과 원리만 간단히 설명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받은 자료로 그룹별로 종합하고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요즘 시행하려는 방식을 강 신부는 오래전에 꿈꾸었다.

강 신부는 교육의 본질이란 미숙한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키우는 거라 말한다. IQ만 중요시하던 교육현장에 몇 년 전부터 EQ가 더해졌지만, EQ는 인성교육의 수단일 뿐이고 SQ(spiritual quotient)가 접목되어야만 비로소 교육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SQ는 인성에 관한 지식을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강 신부는 은퇴 후에도 'PESS 청소년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워보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있다.

어린 시절

권선옥 교장은 1959년에 구자곡국민학교에 다녔다. 혼련소가 생긴 직후라서 구자곡면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무렵이었다. 왕암국민학교와 연무대 국민학교로 분리됐음에도 구자곡국민학교는 오전·오후반이 있을 정도로 학생이 많았다. 권 교장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학생이 늘어서 비어 있는 구자곡면사무소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권 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강경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강경중학교는 도서관에 참고서, 일반 문학 서적 등을 많이 비치하고 있었다. 기차로 통학하던 권 교장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기차 시간까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보았다. 특히 학생들이 즐겨 보는 『학원』이라는 잡지를 애독하였다. 중간·기말고사 후에 50등까지 방을 써서 교사(敎舍)의 높은 곳에 붙였는데 권 교장은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쾌감을 느끼곤 했다.

권 교장은 강경상업고등학교(이하 강경상고)에 진학하였는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였다. 강경상고에는 김영배 선생을 비롯해서 박재서·구상회 등 문학과 친밀한 많은 선생님이 계셨다. 또한 박용래와 김관식 등 강경상고 출신 선배 문인이 많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권 교장의 시가 대전일보 독자란에 실렸다. 신문에 실린 권 교장의 시에 친구들과 김영배 선생은 매우 기뻐하였다. 김영배 선생은 1970년 개교 50주년 행사에서 권 교장이 직접 쓴 시를 낭송하게 했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모두가 행복한 학교



권선옥 (1952년생)
충남 논산시 연무읍



다양한 활동과 노력

권 교장은 1982년에 연무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첫 부임하였다. 그는 문예반을 지도하고 교장 선생을 설득하여 교지를 창간하였다. 때로는 국어 수업을 마지막 시간으로 옮겨 학생들이 문학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나태주 시인을 초청하여 운동장에서 문학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였지만, 자신의 수업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더 좋은 수업에 대한 갈망은 그가 교장이 되었을 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감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학교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권 교장은 교감이었을 때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했다. 아침마다 교문에서 지각생을 단속하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았다. 남학생들을 혼내기도 보듬기도 께안아 주기도 하면서 친밀감을 높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이라서 거의 매일 야간자습이 끝나는 오후 열한 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는 술한 공문을 다 읽느라 시력이 저하됐지만, 교감 시절도 큰 보람이었다고 한다. 많은 노력으로 학생들이 기억하는 교감이 되었다.

권 교장은 어떤 직책을 맡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평교사 때에도 수업을 잘하고 능력이 탁월한 교사보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생이 되려고 했다. 교장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다.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근하기 훨씬 전에 학교에 왔다.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춤지 않도록 아침에 교실의 난방기를 켜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다. 낮에 해가 떠서 따뜻해져도 끄지 않고 창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은 중앙 제어를 원했지만, 권 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버스 타기 전까지 탁구장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탁구공이 깨지고 라켓도 없어지니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지만, 권 교장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학교 비품이 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행복에 필요한 세 가지: 배려, 절제, 열정

연무여중에서 일 년간의 교장을 한 그는 연무고등학교 교장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었다. 연무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꾸고 권 교장 역시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렇게 대입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나아가던 중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하게 사는 것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권 교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교육 목표를 바꾸었다.

권 교장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배려, 절제, 열정을 들었다. 첫째, 배려란 남이 나한테 잘하기보다 남한테 잘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본인 역시 기쁨을 느끼는 것 말한다. 또한 규칙을 잘 지키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고, 세련된 몸가짐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배려이다.

둘째, 인생의 성패는 절제에 달려있다.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해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탐닉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 정신적으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려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사람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바른길을 택하지 않거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을 달성하려다 도덕적으로 비난받게 된다. 절제를 잘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꿈꾸는 인간으로서 생활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면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도 한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권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지역 사회도 이에 호응했다. 권 교장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매주 직접 훈화를 했다. 아이들은 점점 변화하는 것 같았다. 연무고 학생들은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학업에 열중하고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 칭찬을 받았다.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성적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권 교장은 졸업 후에도 학창 시절의 배움대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그런 자녀의 삶에 만족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보람을 느낀다.

꿈에 날개를 달다

평교사 시절, 권 교장은 교장이 되어 자신이 꿈꾸던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교장이 되었을 때 순간순간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 즐거웠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 교사 수업 컨설팅을 실시했고, 예절 교본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학생은 물론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연무고등학교는 사립이라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지만 권 교장의 열성적인 가르침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 장학금이 많이 들어왔다. 권 교장의 인맥도 있었지만, 연무고등학교가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학교에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 권 교장은 학교 개선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어수선�함을 견뎌야 했던 학생들에게 미안했다고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 방침은 이사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신연식 이사장은 권 교장의 교육 방침과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권 교장은 이사장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고 직원들도 잘 따라줬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학교에 지역사회의 응원이 더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퇴직하면서 가장 미안한 것은 함께 근무한 교사들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에게 많은 변화와 노력을 요구했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한다. 학교는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란단.

학교에서 여러 직책에 몸담았지만, 권 교장은 역시 직접 수업하는 평교사가 진짜 선생이라고 말한다. 그는 교장이 된 후에도 수업을 하고 싶어서 토요일 오후에 특강을 했다. 가끔 선생님들이 빠지면 보강도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권 교장은 은퇴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논산문화원에서 시 창작과 감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즐겁게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신뢰와 소동이 가져온 발전



양 성 순 (1956년생)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004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년간 썬쁠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양성순 크리스티나 수녀는 1956년에 전남에서 태어나 강원도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는 황해도 평산에서 사시다 월남한 분이였다. 양 수녀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다가 1984년 샤프르 성바오르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녀가 되었다. 샤프르 성바오르수녀회에서 운영하던 충북의 매산여자중학교와 서울의 계성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썬쁠여자중고등학교로 옮겨 종교 과목을 가르쳤다.

1888년에 한국의 수녀회로서는 샤프르 성바오르수녀회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기 때문에 1988년이 수녀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양 수녀님은 본래 역사를 전공하였기에 수녀원의 100년사를 편집하느라 1년간 본원에서 사역하다가 1989년에 다시 썬쁠여자중고등학교로 복귀하였다.

그렇게 본원과 썬쁠여중고를 오가며 근무하던 중에 2004년 3월 1일 자로 교장에 임명되었다.

썬쁠여중고는 1961년 12월에 해성여자중고등학교 인가를 받아 1962년에 개교하면서 썬쁠여자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학교 설립자는 천주교 대전교구(교구장 노기남 주교)인데, 전주 성심여자중고등학교 등의 학교 운영 경험이 많은 샤프르 성바오르수녀회에 위탁 운영하였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학교에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학교가 크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박재순 안드리아 수녀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부터였다. 박 교장은 학교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 이미지 변화를 꾀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모아 버스에 태워가지고 매일 익산 학원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학 입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인근의 공립 여자고등학교보다 학력이 저조하였는데, 그 학교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썬별학교가 더 대학을 잘 보낸다, 수녀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엄격하였다. 박 교장은 성격이 매우 단호한 분이어서 학생들이 말썽을 부렸다 하면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썬별학교에 다니려면 말썽을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가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학교를 선호하였다.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여기서 사립학교의 장점이 작용하였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교직원들의 평생직장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 또 수녀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박재순 교장의 뒤를 이어 부임한 교장들과 교직원들이 변화하는 학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교장으로 부임한 양 교장은 교장으로 승진한 감회보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다. 선배 교장 수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학교를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본인이 잘못하여 학교가 발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교육 환경은 변화가 매우 심하였다.

전임 교장은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교를 운영하여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 대학에 몇 명의 합격생을 내서 입시 성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 교장은 공부만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성지도와 정서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다른 것이 잘되면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양 교장 자신도 공부에 매진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공부는 웬만큼 하면 되지, 공부 1등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학급을 운영할 때도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친 적이 없었다. 공부는 1등 못해도 좋은데 그 외의 다른 것들은 1등 하기를 원했다. 양 교장 자신이 그러니까 학교를 경영할 때도 똑같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독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신념에서 학력보다는 인성교육에 치중하여야겠다고 교육 방침을 정했다. 학생들이 존재로서 존중받는 학교로 만들고 싶었다.

썬뿔학교는 미션스쿨, 가톨릭 학교니까 어떤 개인의 소중함, 인간의 고귀함, 이런 것을 존중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양 교장은 학생들이 각자가 존중받도록,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야단치지 않았다. 야단칠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용히 대화하였다. 일단 학생의 생각과 행동을 수궁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을 존중하니까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존중받지 못하면서 자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부심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사람에게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스스로 갖는 자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길러 주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의 평가는 소위 서울의 명문 대학에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내느냐로 평가한다. 그것이 학교 운영의 갈등 요소였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양 교장은 신념을 꺾지 않고 일관되게 인성 교육을 고집했다. 자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정말 달랐다고 한다. 가장 먼저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을 가든 어떤 행사를 하든 학생들은 자발

적으로 철저하게 시간을 지켰다. 그런 행동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썬밸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인성 교육 중심의 학사 운영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이듬해부터는 입시 성적도 향상되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추진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각종 공연을 관람하였다. 학교에 공연을 유치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었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서울로 공연을 보러 다녔다. 서울에 가면 많은 공연이 있었다. 특히 홍대 부근에 가면 좋은 공연이 많았다. 시간대를 달리 하면 같은 공연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었다. 반별로 계획을 짜서 어떤 공연을 먼저 보고 나서 대학을 탐방하고, 또 어떤 반은 대학을 먼저 가 본 뒤에 공연을 보는 방식이었다.

또, 학생들이 셀(cell)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했다. 셀은 원래 가톨릭교 안에서 하는 활동으로 같은 집단이 계속 모이는 것이다. 이제 교육에 끌여가지고 와서 활용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으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종교 활동이라기보다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시간이다. 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다.

양 교장 재임 중에 추진했던 일로는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꼽을 수 있다. 야츠시로 시라유리여자고등학교(白百合女子高等学校) 역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이다. 일본에서는 시라유리 학교라고 여성교육을 잘하는 명문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야츠시로시가 우리 논산시와 비슷한 규모여서 그 학교와 결연을 맺어 매년 교류하였다. 15~20명가량의 학생이 일본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키우고 견문을 높이는 효과가 컸다.

양 교장은 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 학생 지도를 잘한다고 이름이 난 청송의 간디학교나 충북의 양업고등학교를 전 직원이 찾아가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대학 입시에서 논술 교육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시절에는 더욱 효율적인 논술 지도를 위해서 서울의 논술학원을 찾아가 강의를 들으면서 지도 방안을 고

민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영어과 교실을 넓히고 맨발로 자유스럽게 활동하게 하려고 온돌을 설치하였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어서 여러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했다.

양 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2010년 1월에 썬뜰여자고등학교는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양성순 교장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양 교장 퇴임 이후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자율 학교 지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평가 최우수 학교 선정 등으로 썬뜰학교는 여러 차례 좋은 학교로 평가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양 교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밑거름이 된 것임에 틀림없다.

20여 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다가 다른 임지로 옮길 때에는 흥분했다고 한다. 평교사였더라면 더 오래 교직에 있기를 바랐을 것인데 교장으로서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웠다고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다. 직책의 소임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럴 것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해맑은 웃음을 담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없이 소녀의 모습이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정성을 다해 가꾸는 건양대학



김희수 (1928년생)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지방 사립대

중앙일보사는 해마다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11월 발표에 의하면 순수 취업률 분야에서 건양대는 전국 6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건양대학교는 취업률이 높기로 정평이 났다. 이렇게 전국의 우수 대학들보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김희수 총장의 확고한 교육 방침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건양대학교에 대한 김희수 총장의 정성과 노력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건양대학교를 만든 것은 김 총장의 신념과 끈질긴 집념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방에 대학을 설립한 것은 그의 고향 사랑의 정신이었으며, 이만한 학교를 만든 것은 전폭적인 투지와 애정을 쏟은 결정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김희수 총장은 1928년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상당한 부농이었음에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였다. 농사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마인드에 카리스마도 갖추고 있어서 벼농사뿐 아니라 축산업과 고무신 판매 등의 상업도 겸하였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였고,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였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선뜻 당신의 밥을 내어주었으며, 거지에게도 상을 차려 대접하였다. 자식들은 부모가 입으로 하는 교육은 머리에 담고, 행동으로 하는 교육은

몸으로 실천하는 법이다. 김 총장의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리더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소통하는 자세는 어머니를 본받은 것이다.

양촌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에 실력이 우수한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대전중학교나 공주중학교로 가야만 했다. 그런데 마침 의사인 형님이 공주에 있어 공주중학교(당시는 중고등학교 과정)로 진학하였다. 김 총장이 의사가 된 데에는 형님의 영향이 컸다. 형님은 공의(公醫)로 근무하면서 밤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왕진가방을 들고 밤길을 나섰다. 왕진비를 받아오는 때보다 빈손일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 환자의 형편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돈을 잘 버는 의사가 아니라 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형님에 대한 존경심은 김 총장이 의사가 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의사의 길을 걷다

1950년 6월에 세브란스의대(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대전보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미국식 예방 의학 체계를 보고 미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폐결핵과 각종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 병원에 인턴 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왔고, 뉴욕 세인트 프란시스병원의 초청장이 왔다. 병원에서의 처음 업무는 사체 부검실에서 시작되었고, 한 달 봉급이 겨우 100달러였다. 그중 절반을 고국으로 부치면 아내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미장원을 차려 시부님을 모셨다. 김 총장은 타고난 본성이 그랬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근무에 최선을 다했다. 1년 정도가 지나서 병원 안과 과장의 추천으로 일리노이대학 안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고된 일과였지만,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이어서 시카고 안과병원에서 수학하였다. 선진 의료 기술을 체득한 자신감과 원대한 포부를 품고 3년 3개월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59년 9월에 귀국하였다. 인천 기독교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5·16이 일어나 재입대를 하여 거제도 육군제3병원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62년 제대하였다.

제대 후에 당시 서울의 변두리인 영등포에서 김안과를 개업하였다. 환자 위에 군림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여 친절과 정성을 다하였다. 환자를 즉시 진료하기 위하여 살림집을 병원 맨 위층으로 옮기고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진료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김안과는 서울 시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환자들이 김안과에만 오면 병이 나았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을 돌아보다

김 총장이 학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늦가을이었다. 양촌면장과 지역 유지 몇 분이 찾아와 양촌에 있는 중학교가 운영이 어려우니 인수해 달라고 했다. 새로운 시작에 망설임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촌면 유일의 인수중학교가 없다면 그 일대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학교를 인수했다. 의사로서의 외길을 걸어왔지만, 교육만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부자의 나라 미국에서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래서 인수중학교가 지고 있던 큰 빗을 갠주고 학교를 인수했다. 새로운 학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하여 1980년에 학교법인 건양학원의 양촌중학교를 개교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양촌고등학교를 설립했고, 1994년에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명을 건양중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고향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이 좋다는 학교를 모조리 찾아가 보고 공사에 반영했다. 교실마다 컬러 TV를 설치하고 어학실과 도서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기숙사 등 당시 대전과 충남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

건양대학교의 설립과 부속병원 건축

건양중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김 총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시대정신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고향 논산에 건양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을 설립하기까지 수년간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총장의 부친과 형님은 ‘가문을 위해서도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고, 친분이 두터웠던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과 서명원 전 문교부 장관 등도 적극 찬성하였다. 물론 남들은 은퇴할 시점에 대학 설립을 시작한다는 점,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 사학의 모델이 될 만한 학교를 세워보겠

다는 포부와 고향 발전에 대한 강렬한 염원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1989년에 첫 공사를 시작하여 인문학관·경상학관·이공학관·기숙사 등을 차례로 건축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는데 지주들이 응하지 않아 시가의 40여 배를 주고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고, 건자재 품귀 현상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인덕(人德)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1990년 말에 드디어 10개 학과 400명 모집 정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 1991년에 건양대학교가 개교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했고, 1994년에는 모든 대학들이 염원하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았다. 학생 모집 첫해에 입학 경쟁률이 7.5대 1이었는데, 그 3년 뒤인 1994년에는 25.9대 1이라는 눈부신 발전을 단기간 내에 이룩하였다.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면 대개의 대학들은 10년 넘게 갖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건양대학교는 개교 불과 4년만에 그 꿈을 이루었다. 2001년 첫 의대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2010년에는 의사고시 전국 수석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건양대 의대의 의사고시 합격률은 매년 100%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대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낙후된 지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에 건립하였다. 19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2월에 621병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였다. ‘환자 중심의 환경을 갖춘 병원, 교수가 365일 진료하는 병원’을 지향한 결과, 개원 이듬해에 1일 외래환자 1,000명에 입원환자 600명이 넘는 중부권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가진 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또 2021년에는 새 병원을 신축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였다. 이렇듯 건양대학교는 김 총장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지방 대학이라는 핸디캡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쓰레기 줍는 총장

건양대학교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바탕에는 김희수 총장의 남다른 교육 철학과 신념이 있었다. 김 총장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엇보다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에서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는

다. 또 이와 함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김 총장 자신이 ‘Time is gold’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쪼개어 소중하게 하루를 경영한다.

학교 발전의 동력이 김희수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비롯되었음은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김 총장은 늘 강한 쇠는 부러진다고 생각하여 소통을 중요시한다. 보다 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실내화 신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김 총장이 의사 출신이어서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여 교내 순시 중에 휴지가 눈에 띄면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얼른 허리를 굽혀 주울 정도이다. ‘공초췌는 총장’은 그래서 붙은 애칭이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실내화를 신는다면 학교 전체가 훨씬 위생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학생들은 실내화 신는 것을 불편해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여 자신의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였다.

김 총장은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많은 대학들이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지만, 건양대학교는 학생들의 원만한 인격 형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직과 자신감, 도전 정신도 건양대학교 학생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김 총장은 ‘빵 총장’이라는 별명을 훈장처럼 생각한다. 시험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빵을 주면서 격려한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김 총장은 때로 아버지처럼 엄격하면서도 또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총장님’이다.

무엇 하나 혼자서 이룬 것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김희수 총장의 업적은 높이 칭송받고 있다. 1982년에 대통령 표창, 2007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9년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 훈장>을 수훈하는 등 여러 번 공적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 2012년에는 논산시민들이 뜻을 모아 공덕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올해 93세의 김희수 총장은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부인께서 건강하여 해로하며 지금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노래, 장구, 요가, 하모니카, 오카리나, 서예 등으로 김 총장의 삶은 향기가 가득하다.

논산시
논산의 교육 발전

교육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 교육현장을 꿈꾸다



오재욱 (1936년생)
충남 논산시 취암동

오재욱 교육감은 연산에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8년 동안 교육현장을 지켰다. 도전하는 삶을 즐긴 그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초등교육 현장을 지키던 사람에서 초등교육을 이끄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되었다. 교육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 교육을 위해 그가 뿌린 씨앗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성 중심의 충남교육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연산 장전리에서 태어나다

오 교육감은 1936년 연산면 장전리에서 6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다. 취학할 나이가 되어 연산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6km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걸어 다녔다.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서 ‘게다’라고 부르던 일본식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나 하루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해 학비를 면제해준다는 말에 대전사범학교로 진로를 정했다. 열다섯 명이 지원했으나 합격한 사람은 오 교육감 한 명이었다.

대전사범학교 시절

입학 당시 대전사범학교는 6년을 다니는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었다. 대전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3.5km를 걸어가 기차를 타고 서대전역에서 내려 다시 학교가 있는 용두동까지 논과 밭 사이를 걸어야 했다. 새벽에 집을 나서지 않으면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입학한 해가 1950년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다. 그해 7월 초 무렵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야 하는데 전쟁으로 기차가 운행을 중지해버렸다.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를 시간을 견고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재욱 님은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면제받은 학비와는 별도로 기성회비를 내야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공부를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50년대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입학하고 1년 후 통합과정이었던 사범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1951년도의 일이었다. 갑자기 대전사범병설중학교 학생의 신분이 되었다. 3년을 공부하고 다시 대전사범학교 진학 시험을 본 뒤 또 3년 후에야 사범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군인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월 12일 양촌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발령받고 처음 학교 가던 날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큰 냇가를 건너야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다리도 없었고 징검다리도 마땅치 않아 월천 해주는 사람의 등에 업혀 나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발령받았을 당시 양촌초등학교는 책상, 의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학년별로 두세 학급이 공부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 12월에 영장이 나왔다. 1월에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첫 발령지인 양촌초등학교에서는 9개월 정도 근무했다.

도전의 가치를 배운 군복무시절

그는 육군훈련소에서 기본 교육 기간을 마치고 전문 분야인 특수 공병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받기 직전 통역관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테스트를 통해 2명의 통역관을 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영어였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미군 군사 고문단 KMAG 소속의 중위가 직접 인터뷰하는 시험을 봤다. 용기 내 도전했던 패기가 통했는지 시험에 통과했고 원주

에 있는 1군 사령부 소속이 되어 미 육군 군사 고문단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미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를 조금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어로 조금이라도 대화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미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공부했다. 스스로 도전할 것을 찾아 꾸준히 자신을 갈고닦으며 1년 6개월을 보냈을 무렵 일반 교사들을 위한 귀휴제도가 생겨 제대하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교육현장을 떠나기까지

군 복무를 마친 시기가 7월이었다. 학기 중간이라 초임 근무를 했던 양촌초등학교에는 복직할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가야곡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가야곡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접을 수 없어 고등고시 예비고시를 준비했다. 당시에 있었던 고등고시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고등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준비한 시험이 고등고시 예비고시였다. 제12회 사법 및 행정과 고등고시 예비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본격적으로 고등고시를 준비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고등고시를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근무하는 학교는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연산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를 선택했다. 그러나 두 가지 일에 모두 정성을 쏟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에 무리가 왔다. 결국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고등고시를 포기하면서 1985년 29년간의 교직 생활도 정리했다.

또다시 시작된 도전

그가 교직을 떠난 지 5년 후에 지방 교육 자치법이 생기면서 교육위원제도가 만들어졌다. 교육위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교육현장을 잘 아니 도 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각 시와 군에서 한 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출에 도전하여 논산시 교육위원에 당선 되었다. 그는 15명의 충청남도 교육위원 중에서 뽑는 의장직에 다시 도

전했다. 도전이 또 결과를 맺어 후반기에 의장이 되었고 4년간의 교육위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2대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2대 교육위원이 되고 1년 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다시 세우고 교육감 후보로 등록했고 1996년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었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교육감이 된 뒤 무엇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인성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인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는 인사, 질서, 대화, 봉사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은 인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 사회 공동체가 바르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차례 지키기와 같은 사소한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모든 문제는 대화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생각에서 대화를 강조했다. 앞의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가치인 봉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라면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청렴을 강조했다. 그래서 직원 인사에는 무조건 실력을 우선시했다. 인사가 공정한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직원들이 인정하게 되면서 직원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때 맺은 인연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온 삶

오재욱 교육감은 2000년 충청남도 교육감 임기를 마치면서 교육현장을 두 번째로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항상 마음에는 바른 교육에 관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이 바른길인가 정의로운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재욱 교육감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교육행정을 이끌면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통해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의 조화로운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도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성과 학력, 이 둘이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충남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두계다방	260
호남선 역전시장	266
합판정미소	272
합판상회	278
광명이용원	285
계룡시 요일장	291
신도반점	296
아랫장터 국숫집	302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두계다방



김 종 애 (1957년생)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2길



만남의 공간 두계다방

김종애씨(65세)는 옛 두계리 윗장터에서 ‘팔거리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는 바뀌었지만 ‘두계다방’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산증인이다. 통유리창 가득 큼지막하게 써놓은 ‘차 종류, 커피, 만둣국, 떡라면, 김치찌개, 오징어볶음, 골뱅이무침’ 메뉴는 지나는 이들의 허기를 부채질한다. 차와 식사, 술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복합휴게공간으로 변한 이곳이, 그 옛날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만남의 장소였다는 사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두마면 출신의 7080세대라면 ‘두계다방’을 모를 리 없다. 어쩌다 고향을 찾은 이들이 그 시절 쌍화차 맛을 잊지 못해 들른다. 또, 동네를 떠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옛 동무들과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거나 나들이 삼아 나와서 식사를 한다. 그들에게는 팔거리휴게실이라는 낯선 이름보다 여전히 두계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야 금방 알아듣는다. 삼거리 정미소 옆 그 자리 그대로 추억의 공간이 남아있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고 말한다.

장터 앞에 문 연 다방

처음 두계다방은 김종애씨의 외숙모가 1968년에 문을 열었다. 정미소가 옛날 면사무소 자리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다방을 지었다. 당시 커피 값은 200원 하다가 곧 300원으로 올랐다. 옛날부터 외삼촌 집을 자주 오가며 가깝게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종종 다방

으로 놀러 가서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았다. 특히, 들썩거리던 두계장터의 천태만상은 재미난 구경거리였다.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맨 이상한 소리만 하. 뒤에 노름방을 만들어서 화투, 고스톱 치고. 아가씨 하나는 배달가고 그라더라고요. 옛날에는 탁자만 몇 개씩 놓고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한 여남은씩 커피 마시러 모이더라고. 장날 되면 차 먹고, 술도 먹고 했잖아요. 그런 풍습이 정도 많고 진짜 보기 좋았지. 아침에 보면 하여튼 재미있더라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외삼촌은 부도를 내고 고향을 떠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두계다방을 인수했다. 경기가 좋아진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다방을 맡고부터는 장사가 잘 되었다. 언니 오빠는 시집장가를 가고, 막내딸인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다방을 함께 운영했다. 그녀의 나이 22살에 다방은 일터였고, 그 시작이 지금까지 운명처럼 이어지고 있다.

인기메뉴 '쌍화차'

두계다방의 이른바 시그니처(signature) 메뉴는 '쌍화차'다.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건더기를 뽁뽁하게 가득 담아 소담스런 찻잔에 찰랑찰랑하게 내놓는다. 두계다방 쌍화차의 비법은 이렇다. 한약재를 오래 달여 기본 찻물을 만든다. 호두, 잣, 통깨 한 숟가락씩 넣고, 알갱이가 씹히도록 땅콩을 갈아서 넣는다. 깨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돌돌 말아서 쫑쫑 채 썬 대추를 고명으로 얹은



두계다방의 상징메뉴 쌍화차

후에 계피가루를 뿌린다. 마지막으로 달걀노른자를 동동 띄우면 천상의 맛이 완성된다. 이 맛을 한 번 맛 본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다. 지금은 옛날 다방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이음식점으로 풍경이 바뀌었지만 그 맛은 변함이 없다.

두계다방의 인기 메뉴는 또 있다. 요즘 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옛날엔 냉커피라 했다. 차갑고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마시면 속이 뽕 뚫렸다. 어감이 주는 정겨움처럼 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단물과도 같은 행복을 느꼈다. 그게 바로 두계다방 김마담의 손맛이라고 자부하면서 비법을 공개했다.

“냉커피는 뜨끈뜨끈한 원두커피를 얼음으로 녹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얼음 자체가 녹으면서 감칠맛이 나는데, 물을 흥건하게 붓고 얼음을 조금 넣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커피는 조금 넣은 데다 얼음 자체를 천천히 녹여서 먹으면 그 맛이 감칠맛이라고. 그게 손맛이라나 봐.”

다방에서는 흔히 커피 재료상에서 마법의 비율로 조제한 분말을 사다가 끓여 파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70년대만 해도 원두를 내려서 이른바 블랙커피를 손님에게 갖다드리면, 설탕과 프림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적당히 타서 마셨다. 두계다방에서는 최근까지 네모난 미제 포트에 커피를 내려서 팔았다. 쌍화차와 생강차는 직접 만들고, 칩차는 분말로, 녹차는 티백을 사용했다. 꿀차는 종이팩으로 나와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 간편했다. 커피가 5~600원 할 때, 꿀차는 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골손님에게는 마진이 제일 좋은 꿀차를 가장 많이 권했다.

두계다방의 단골들

면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두계다방은 사랑방이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자마자 면장을 비롯해서 농소리, 입암리, 왕대리 등에 사는 유지들이 삼삼오오 다방으로 모여들었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모닝커피’ 한잔씩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이때, 특별 메뉴로 끓는 물에 7분간 삶은 달걀 반숙이 등장했다. 대개는 커피 한 잔 값을 덧붙여 받기도 하지만, 단골손님한테는 공짜로 주었다. 정 많은 어머니는 고구마를 찌서 요깃거리로 대접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한가했다. 오후에는 맞선 보는 손님을 위해 한쪽 구석에 널찍하게 자리를 비워두었다. 요즘에는 소개팅을 할 때 당사자들끼리 만나지만, 예전에는 중매쟁이와 양가 부모, 당사자가 주르륵 앉아서 선을 봤다.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서 배려해주는 것이 업주의 미덕이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유지들이 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밤새 화투를 쳤다. ‘짓고맹’처럼 돈다발이 오가는 전문 도박꾼이 하는 노름이 아니

라 아는 얼굴들끼리 심심풀이로 치기 때문에 투덕거리긴 했어도 큰 싸움이 나지는 않았다. 주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도 뒷방엔 종일 불이 켜진 채 노름판이 돌아갔고, 돈이 떨어진 사람은 구경하다 잠이 들기도 했다.

그렇다고 마냥 훈훈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생각만 해도 년털머리가 나는 기억도 있다. 옛날 시골사람들이 순진하다는 말은 숫제 거짓말이다.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사람, 짓궂게 시비를 걸거나 어깃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다.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장부를 보여주면서 따지면 ‘언제 먹었냐?’며 억지소리를 질러대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우락부락한 장정들, 고주망태가 된 노인들과 맞서 싸울 재간이 없었다. 그때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나중에는 미안했던지 ‘참어, 인정하. 그렇게 하’라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쳤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울화통이 터져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오장육부 다 화장대 위에다 올려놓고 가야지, 그거 끌어안고는 장사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참... 엄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서 저기 하냐고, 막~ 엄마한테 퍼붓기도 하고, 엄마한테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랴? ‘또 지랄병 났구먼, 지랄병 났어.’ 그러지.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불쌍했어요.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삶을 찾다

장사가 잘 돼서 빚을 청산한 날,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평평 울었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줬다는 생각에 맘이 설레고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한 1년 어머니와 함께 삼거리 식당을 내서 시집갈 밑천을 마련했다. 훌가분한 마음으로 스물아홉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 사이 두계다방은 울케에게 넘



두계다방 '팔거리 휴게실'

겼다. 시집을 가면 평범한 주부로 살까 싶었는데 천직이었을까?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시아버지의 권유로 양정삼거리 ‘정다방’을 인수했다. 그해 1985년은 업사면이 변화의 급물살을 타던 시기였다. 산을 깎고 논밭을 매워서 길을 내고 여기저기 아파트를 지어댔다. 그 무렵, 양정역 인근에는 6개나 되는 다방이 성업을 이루고 있었다.

정다방은 아침 6시 반이면 문을 열어서 밤늦도록 장사를 했다. 이른 아침에는 주로 건설업체 사람들이 사무실 대응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낮에는 주로 차를 팔았지만, 밤에는 노가다(막노동) 일꾼들에게 맥주나 위스키 같은 술을 팔았다. 아침 6~7시면 제일 먼저 막일꾼들이 개시를 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오거나, 나갔다가 일이 없어 돌아오는 길에 다방에 들렀다. 단골이라기보다는 뜨내기들이라 다방끼리 손님을 붙잡으려고 경쟁하지는 않았다. 어쩌다 아가씨가 예쁘고 맘에 들면 그 다방으로 몰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었다. 다방의 성패는 이른바 ‘레지’에 달려있었다. 아가씨는 소개소에서 데려왔는데 주인을 생각해 제 일처럼 장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손버릇이 나쁜 아가씨도 있었다.

늘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다. 재수 없는 날, 공치는 날도 더러 있었다. 장사하는 집은 마수걸이를 잘 해야 그날 하루 장사가 잘 된다는 보편적인 징크스가 있다. 그 시절 다방에는 공중전화기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전화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날은 하루 종일 전화만 하고 가는 사람들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주문하지도 않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겠다고 그냥 나간다. 첫 개시가 그러면 그날은 희한하게 비슷한 손님들만 들어온다. 어쩌겠는가? 오늘 장사는 글렀구나 하고 체념한다.

반대로 어떤 날은 첫 손님으로 온 돈 많은 사장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카운터에서 쌍화차를 주문한다. 그리고 커피 보다 두 배나 비싼 메뉴를 주인이나 다방 아가씨한테 한턱 시원하게 쏜다. 장사가 안 되면 종업원도 월급받기가 미안하니까 남자 손님들에게 아양을 떨어서라도 매상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간밤에 마신 술 때문에 숙취로 고생하는 아가씨도 아침에 달달한 꿀차 한 잔 얻어 마시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그런 날은 영락없이 금고가 두둑하고, 아가씨의 코맹맹이 소리와 깔깔깔 호탕한 웃음소리가 다방 안을 가득 채운다. 장사하는 심정이야 다 똑같겠지만,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운수대통하게 해달라고 아침마

다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두계다방으로

김종애씨가 다시 두계다방으로 온 건 1991년의 일이다. 엄사면 도시계획으로 정다방이 철거되고, 6년 만에 다시 친정 동네로 돌아와 두계다방을 재인수했다. 두계다방의 임자가 따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빠가 진 빚을 다 갚고 97년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냈다. 그 사이 도시화된 양정과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두계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정다방에서 굶직 굶직하던 손님들만 대하다가 두계다방으로 돌아와 찻값이 비싸다고 벌벌 떠는 좁쌀영감들을 상대하려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다. 친정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자신이 평생 물장사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도 했지만, 손톱으로 바위를 찢듯 착실하게 벌어먹고 살았다. 또한, 남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한다.

1990년대부터 커피자판기의 보급과 원두의 고급화와 이색적인 분위기의 카페가 유행하면서 과거 담배연기 자욱한 퇴폐영업소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한 다방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두계다방 역시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1997년 두계다방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휴게음식점으로 재도전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계룡시가 개칭하고, 2005년 두계역은 계룡역으로 이름을 바꿔 1km 아래쪽으로 이전하면서 윗장터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때늦은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늘, 홀로 남은 쓸쓸한 두계다방에서 어느덧 사라져버린 옛 영화가 불현듯 스친다. 김종애씨는 낡은 탁자에 덩그러니 앉아 옛일을 회상한다. 눈물 마를 날 없었던 모진 세월 속에서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호남선 역전시장



박 숙 희 (1950년생)
계룡시 업사면 업사리



철도와 함께한 역전시장

호남선은 1911년 10월에 착공하여 1914년 1월 11일에 완공한 대전-목포 252.2km를 잇는 철도 노선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곡창지대인 논산평야와 호남평야를 관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객보다는 화물수송이 중심인 남루한 열차를 운행했다.

1955년 발표된 대중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과 1987년 ‘남행열차’는 호남선의 소외와 차별,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호남선 철길 마디마다 시대의 아픔은 물론 민초들의 희로애락이 어우러져있다. 호남선 완행열차(비둘기호)는 98년 12월 1일에 운행을 중단했는데, 99년 6월부터 ‘통근형 통일호’만 운행하다가 2004년 4월 ‘여객형 통일호’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하루에 한 번 대전-이리(95년 개칭, 靑 익산)역을 오가는 통학열차는 학생들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주요 역 앞에는 큰 시장, 이른바 ‘역전시장(驛前市場)’이 형성되어 온갖 물품을 거래하는 수많은 장사꾼들의 시끌벅적한 흥정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송정역시장(靑 광주 송정시장), 이리역시장(靑 익산 남부시장), 대전 역전시장 그리고 영등포 도매시장은 세월과 더불어 그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시장이다.

그곳은 또한 인생 역경을 견뎌온 촌부(村婦)들의 생활터전이었다. 1948년 신도안 돌뿐이(靑 남선리)에서 가난한 화전민의 막내딸로 태어나 스물에 천호리로 시

집간 박숙희씨(72세)에게도 시장은 남다른 애환을 간직한 장소이다. 그녀의 시장에 대한 첫 기억은, 다섯 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들이 갔던 신도안 장터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막둥이에게 예쁜 옷을 사주시며 흐뭇해하시던 아버지, 대궐터 장마당 풍경은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만, 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던 기분 좋은 곳이었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이겨내자

박숙희씨는 시집간 지 두 달 만에 땅 한 뼤기 없이 쌀 닷 되, 보리쌀 한 말을 받아서 분가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못 되어 양식이 떨어졌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 연산 장터 미장원에서 삼단 같은 머리채를 잘라서 팔았다. 그때 돈으로 900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쌀 여섯 되를 사서 또 한 달을 버텼다. 당시 가밭은 주요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은 간혹 머리카락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어 이번에는 대전역 근처 정금당으로 가서 예물로 받은 금반지 3돈을 팔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그녀는 야무지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10살 많은 남편은 개태사 철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 내 것 남의 것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그런데 1984년 조치법(전국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1978년 시행)이 문제가 되었다. 집안끼리 구두로 매매한 토지를 놓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결국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게다가 재판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까먹는 바람에 부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버렸다. 그렇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이를 계기로 박숙희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에 뛰어들었다.

어떤 이가 앵두밭을 발떼기로 계약한 다음, 놉(일꾼)을 얻어 앵두를 따서 도매시장에 파는 걸 보았다. 그래서 자신도 따라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난 데다 애교 많고 붙임성까지 좋았다. 게다가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뛰어나서 장사꾼의 기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처음엔 동네 언니가 계약하기로 한 앵두밭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

판로는 정해져 있었기에 물건만 잘 준비하면 되었다. 양은 다라이 소복이 앵두를 담아 흘리지 않도록 보자기로 단단히 싸 댔다. 그걸 개태사역으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기차에 한번 싣고 가는 양은 10kg씩 20다라이 정도였다. 밤기차를 타고 영등포 도매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넘겼다.

“금게 리어카로다 개태사 역전으로 한 너덧 번씩 실어가야지. 호남선 밤 11시 10분 기차였는데 그거 다~~ 주워 올려야지 뭐. 개태사 안 동네 살으니까 잘 알잖아? 역전 아저씨들 막~ 불러가지고 빨리 좀 없어달라고 하면, 그 아저씨가 실어주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렇게 하고 또...”

밤 11시 10분에 개태사역을 출발한 호남선 상행열차는 새벽 3~4시면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빨갭게 잘 익은 앵두는 포개서 쌓으면 눌러서 터져버린다. 모양이 일그러진 앵두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열차 바닥에 쪽 늘어놔야 했기 때문에 항상 공간이 제일 넓은 맨 뒷칸에 탔다.

가까스로 열차에 올라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나면 열차 안의 천태만상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많은 양을 아침부터 정신없이 따고, 깨고, 베고, 다듬은 장보파리가 열차 구석구석에 늘어져있다. 아랫넛에서부터 하나둘 올라탄 장사꾼들은 이내 열차 안에서 지쳐 굶아떨어진다. 노쇠한 열차가 제 무게를 이길까 하는 걱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덜컥거리며 종착역을 향해 달린다. 별의별 사연을 품은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서울로 올라간다. 희끄무레한 불빛 아래 세상모르고 잠든 사람들, 술에 취해 주정하는 노인네들, 젊은 아낙네 희롱하는 늙수그레한 아저씨들, 생활고에 찌든 어머니들, 젓 달라고 우는 아이, 갖가지 모습들이 차장에 비친다.

서울로 향하는 길

겉 없이 장사에 뛰어들긴 했지만, 매 순간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찮은 물건 팔러 다니면서 남편을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열차 안에서는 몸 조심 하느라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도 꼬박 뜯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게다가 혹여 도둑맞을까봐 두 눈 부릅뜨고 물건을 지켜야 했다. 영등포역이 다가올수록 조바심이 났다. 영등포역은 말 그대로 도떼기시장이다. 서

울역이 종점인 열차는 영등포역에서 잠시잠깐 정차하기 때문에 차가 떠나기 전에 그 많은 짐을 후다닥 내려야 했다. 플랫폼은 언제나 사람들과 물건들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 처~음 갔어요. 촌놈이 어디가 어딘지 알어? 아이고…. 다른 사람은 잘도 자더만, 나는 그냥 꼬박 새운게 영등포역이라. 내리니까 다른 사람은 뭘 불러가지고 신고 가는데, 아휴…. 어떤 아저씨한테 ‘아이고, 앵두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져간대유?’ 물으니까 자기가 리어카를 가지고 오더니 막 다 없애가지고 상회로 가지고 가서 팔아줘유. 날 새면 돈을 찾아가지고, 대여섯 시 되면 또 표를 끊어서 아랫녘으로 와야지. 아이고~ 그렇게 했어.”

영등포역에 도착하면, 도매상에서 위탁받은 아카부(일본어: 運ぶ 하코부)라는 짐꾼 겸 중개인들이 와서 물건을 신고 갔다. 매번 똑같이 물건을 가져가도 어떤 날은 더 받고 어떤 날은 덜 받았다. 도매상에서 정해주는 품질 등급과 시세에 따라 군말 없이 돈을 받아들고 돌아왔다. 설익은 앵두가 익을 때를 기다려 하루걸러 한 번꼴로 이 전쟁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했다.

초여름 앵두 철이 지나면 가을에는 감을 따서 이리역으로 내려가 팔았다. 앵두장사로 장사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에 감 장사는 조금 수월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 한 그루와 뒤꼍에 있는 두 그루, 형님네 것까지 감나무 3~4그루에서 익지 않은 땡감을 따다가 카바이드(carbide)를 넣어 삭혔다. 말랑말랑 빨강게 익으면 깨끗이 닦아서 대여섯 점(5~600개)씩 들고 이번에는 호남선 하행열차를 탔다. 이리역(現 익산역)에 도착하면 아카부들이 와서 크기에 따라 쪽 둘러보고는 맘에 드는 걸 신고 간다. 도매상한테 다 팔고 나면 전표를 준다. 그걸 들고 상인회 사무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물건 값을 준다. 그럼, 오늘 장사는 끝났으니 또 기차를 타고 올라온다.

장사꾼으로 거듭나다

박숙희씨는 잠시도 쉬지 않고 꿈적거렸다. 벼농사, 마늘농사, 고추농사 집안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뒷산 임자 없는 밤나무에서 밤을 따다 대전 역전시장으로 갔다. 날마다 밭에서 당근 캐고, 호박 따고, 미나리를 베었다. 내다 팔만한 채소와 곡식을 주섬주섬 챙겨서 장보따리를 만들었다. 새벽 5시에 아침밥만 해서 애들더러 찾아먹으라고 시켜놓고, 통학열차

를 타고 대전역으로 갔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목청껏 소리치며 물건을 팔았다. 장사 수완이 남달라서인가 그녀의 물건이 제일 먼저 팔렸다. 괜히 더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얼른 떨이로 팔아치우거나 어느 때는 공짜로 나눠주고 서둘러 돌아왔다.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못 팔고 전전공공하면 그 물건까지도 싹 다 팔아주었다. 그녀는 싹싹하고 몸이 가벼웠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즐겁게 장사를 하니까 주위사람들에게 늘 인기 만점이었다.

“나는 그 당시는 창피고 뭐고 없어. 무조건 재밌어. 그냥 좌우지간 재미나. 팔고 오면 재미나더라고. 팔고 와서 밥 한 숟갈 먹고는 또 가는겨. 다른 일 없으면 산에 가고, 또 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또 맨들어가지고 그 이튿날 가고, 재밌지 뭐. 차비도 안 나오고 헛비력질(헛고생)도 많이 했어. 그래도 좌우지간 재밌어.”

돌아오는 길은 대흥동에서 버스를 탔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버스에 앉아 오다가 깜빡 조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날은 개태사 역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아랫동네 송정까지 내려갔다가 되짚어 걸어와야 했다. 한 20분 거리를 달음박질치다 걸어오다 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면, 배가 등가죽에 붙어도 도통 밥맛이 없었다. 아침에 해놓은 찬밥 한 술 뜨고 잠깐 숨만 돌리고는 다시 밭으러 나갔다.

앵두 장사, 채소 행상을 전전하다가 얼마동안은 대전 오정동에서 생선 도매상을 하는 친언니의 권유로 생선 장사도 했다. 언니가 개태사역까지 물건을 떼어다 주면, 손수레에 싣고 천호리, 송정리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팔았다. 소금에 절인 갈치나 조기를 10마리 한 두름씩 묶어 약간의 이문을 붙여서 팔았다. 아침 한나절,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생선이 동이 났다. 미리 주문을 받기도 하면서 양을 조금씩 늘렸다. 얼굴을 아는 처지라 집집마다 기웃거리지 않아도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물건을 펴놓기만 하면 되었다. 생선장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흥정을 붙일 새도 없이 후딱 팔아치웠다. 명절이 다가오면 참조기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언니가 대주고 나는 팔기만 했지. 그때만 해도 퐁구루마(수레)에다 싣고 다니면서 무조건 대문 열고 들어가서 ‘아, 갈치 왔어유. 사유, 사유, 사유~’하면, 물건은 가져오기가 무섭지 뭐. 언제 또 갖고 오냐고 기다려. 명절 돌아오면 더 잘 사지 뭐. 갈치는 별론디 조기는 참조

기니까. 개태사 동네가 50호여. 송정 동네는 더 크지. 어림잡아도 한 100집 되는데 다 다닌 게 아니고 아는 언니 집에 들어가면, ‘아무개 어머니가 거시기 갖고 왔는데 살라른 얼른 와서 보고 사’라고 3~4명씩 불러모아줘. 그렇지 않으면 집집마다 다 가야 해. 아이고 별짓을 다 했어.”

장사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진다 했던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었다. 남편마저 4~5년 병치레를 하다가 2002년에 사망했다. 더 욕심 내봤자 부질없는 후회만 남을 뿐이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추억이고, 즐거운 인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합판정미소



박영순 (1944년생)
계룡시 업사면 합판길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

국도 1호선을 따라 논산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광석리 입구에서 가드레일이 끊긴 샛길이 나온다. 도로와 맞닿은 건물 꼭대기에는 ‘합판정미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있다. 지붕은 골함석을 열기설기 덮어놓아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금방 날아갈 것 같다. 게다가 군데군데 희끗희끗 삭은 것처럼 보인다. 세월의 때가 잿빛으로 덮여있는 함석지붕은 구겨진 폐지처럼 언제 짜부라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정미소 뒤편에는 최근엔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재래식 변소가 눈에 띈다. 문짝은 떨어져나갔고, 벽면에 덕지덕지 붙은 타일과 바닥에는 봉긋이 솟은 얼룩진 변기뿐이다. 그 옆으로 방아를 짚고 난 왕겨가 양반 집 봉분처럼 쌓여있다.

정미소 정면은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입구는 얇은 단층 건물이지만, 한쪽 끝에는 2~3층 높이의 통기구가 미끈하게 뻗어있다. 커다란 양철 대문 두 짝과 색깔을 맞춘 3쪽짜리 셔터, 맞은편에는 벧가마를 실어 나를 때 쓰는 나무 팔레트가 켜켜이 쌓여있다.

1960년 즈음에 지은 합판정미소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있는 데다 허술해서 비라도 들이치면 큰일이겠다 싶었는데, 정미소 사장 박영순씨(78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구멍이 많아야 된다니께. 먼지가 나니까 그냥 날아가게 뒀어요. 금계 냅두는 거여, 비만 안 들어오면 땡게... 그래도 여기가 목조건물이라 열기가 아주

심하진 않은디, 방아를 찧고 나면 쌀이 굉장히 뜨거워. 쌀이 잘 말라야 빨리 안 상하. 방아 찧는 날은 선풍기를 노박(항상) 틀어야 돼유. 얼른 식으라고.”

정미소는 첫째, 통풍이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방아꾼들이 먼지를 덜 먹고 갓 찧은 쌀을 빨리 식혀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겉보기와는 달리 정미소 건물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정미소 안은 생각보다 깊고 높았다.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지붕 아래는 말 그대로 유리창 없는 창이 건물을 빙 둘러싸고 있다.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한껏 비춘다. 꼭대기에는 무쇠 바퀴에 짱짱하게 걸려 있는 피땀줄과 쥐 파먹은 듯 처마 끝자락이 훤히 보인다. 건물 내부는 나



정미소의 내부

무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가로 세로 긴 대들보를 따라 갈래갈래 묶어놓는 굵직한 전선다발과 요즘은 보기 힘든 애자(礮子)도 군데군데 박혀 있다. 대충 두어 번 감아서 매달아 놓은 백열등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칸칸이 차지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는 미로처럼 얽혀 희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다. 처음엔 시멘트 기둥인가 했더니 쌀가루가 달라붙어 석회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손으로 써놓은 ‘방아-현미 끝 2번-조금 있음 1번’ 등, 알 듯 모를 듯한 나무토막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줄을 확 잡아당기면 금방이라도 뒹하고 기계가 돌아갈 것 같다. 한쪽 끝에는 얼핏 봐도 새것 같은 최신 도정기와 이물질과 불량 쌀을 골라내는 색채선별기가 딱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미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자니 세월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환갑이 넘은 정미소

합판정미소는 1950년대 말 박영순씨의 선친이 정미업을 시작한 후로 장남인 그가 대를 이어 60여 년째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연산천에서 흘러나온 작은 도랑에 물길을 내어 지금의 합판상회 터에 물레방앗간을 지었다. 농사거리가 많지 않던 옛날에는 기껏해야 직접 지

은 벼농사 조금하고, 어찌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집에서 먹을 양식을 간간히 짚어가는 정도였다. 1963년경에 바로 옆으로 이전하여 정미소 터를 다졌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동기로 돌려 도정하는 정미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물레방앗간은 말할 것도 없고 어엿한 정미소 건물까지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7~80년대 농촌에서는 쌀을 취급하는 양조장과 정미소는 큰 부잣집으로 손꼽혔다. 뗏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는 쌀을 아주 귀히 여겼기 때문에 돈이나 진배없는 부의 상징이었다. 그만큼 쌀을 취급하는 업종 역시 대우를 받았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박영순씨의 부친은 광석리, 도곡리, 유동리, 향한리 4개 마을 일대에서 처음으로 정미소를 차렸다. 그 무렵,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서 농촌에는 새바람이 불어 농토가 늘어나고 농업이 점점 기계화되면서 정미업도 덩달아 성행했다. 한창 바쁠 때야 일꾼을 썼지만 대개는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어야 했는데 말처럼 녹록치 않았다.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일

방앗간집 큰아들로 불리던 박영순씨는 처음엔 놀이터 삼아 정미소를 들락거렸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학교가 끝나면 으레 정미소로 와서 일을 거들었다.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고 벗가마를 저다 날랐다. 말이 좋아 부잣집 만아들이지,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허드렛일을 도와가면서 일꾼 한몫을 했다. 지금이야 트럭으로 벗가마를 실어 나르고 지게차에 얹어 쌓아올리지만, 예전에는 죄다 손수레로 옮기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가마니더미를 쌓았다. 여간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중노동이었다.

한 10년 정도 발동기를 돌려 방아를 짚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터로 돌리는 것만큼 정밀하지 못하다. 발동기는 주파수를 잡아 도정 범위를 정하는데 진동이 크다보니 도정 기계 전체가 흔들려 벼가 고르게 깎이지 않는다. 또한 돌아가는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굴곡이 있어 쌀이 깨지고 부스러지기 일쑤다. 그래서 제대로 된 쌀알보다 싸라기가 더 많이 나온다. 도정 과정에서 싸라기는 어레미로 걸러져 밑으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낫는 한 번 더 깎는다. 예전에는 방아를 짚고 난 부산물인 싸라기나 왕겨까지 모두 농사꾼이 가져갔다. 곡식 한 톨이 아까운 가난한 사람들은 싸라기를 넣어 나물죽을 끓여먹

거나 쌀겨는 가축을 먹이고, 왕겨는 땀감으로 썼다. 요즘 같아선 알곡만 가져가지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미업의 변화

1974년 말쯤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다. 당시 두마면에서 광석리는 다른 동네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편이었다. 기름을 때서 발동기를 돌리던 정미소도 이에 맞춰 탈바꿈해야 했다. 서둘러 발동기를 전기 모터로 교체했다. 모터로 기계를 돌리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작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를 넣어 도정 키를 정교하게 맞추면 쌀알이 고르게 나온다. 농사꾼 입장에서야 당연히 신식 기계를 설비해놓은 정미소를 찾기 마련이니 각 동리마다 있던 소형 정미소들끼리 경쟁이 생겨났다. 더구나 모터를 단 최신 기계 여러 대를 설치한 큰 정미소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그전에는 농사꾼들이 정미소로 방아거리를 실어 왔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추수가 끝나자마자 정미소에서 직접 벃가마를 실어온다. 이때, 다른 동네 정미소에서 약삭빠르게 방아거리를 채가기도 한다. 한 동네 산다는 체면으로 인정에 호소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합판정미소는 외면당한 적도 있다.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서운해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동네 소규모 농가에서는 신식 기계를 갖춰놓은 합판정미소를 꾸준히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영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로 나가 월급쟁이 생활을 했다. 그런데 1989년 부친이 작고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취직을 할까도 했으나 정미소를 맡을 마땅한 임자가 없자, 대를 이어 정미소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노동에 비해 그만한 대가가 나오지 않았다. 한때는 ‘아버지가 시작하지만 않았어도 늙어죽어라 일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이 나이 먹도록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내 밥벌이는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정미소의 한해살이

그가 정미소를 맡고 난 후, 가장 바빴던 해는 1995년으로 기억한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정미소 전경

품종개량으로 벼 수확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거리도 자연적으로 늘어났다. 발동기 한 대로 시작하여 차츰 최신 기계로 교체해가면서 석발기는 물론이고 색채선별기에 건조기까지 갖춘 정미사업은 정상궤도에 올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는 쉼새 없이 기계가 돌아갔다. 봄에는 보리쌀과 밀

을 수확하므로 그럭저럭 바쁜 나날이 이어져 적잖은 수입을 올렸다. 요즘엔 갯 짚은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정미소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방아를 짚어간다. 널모레면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다보니 더 이상 일 욕심을 부릴 수도 없어 소일거리 삼아 정미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미소의 수익구조는 쌀을 기본으로 한다. 도정료는 일명 ‘샓’이라 하는데 돈이 아니라 현물로 받는다. 쌀을 짚으면 쌀로, 보리쌀을 짚으면 보리쌀로 받는다. 샓은 정미조합에서 정한 시세에 따라 대개 80kg 한 가마당 3~4되(5~7kg) 정도를 떼다. 논에서 벼를 직접 실어 오면 도정료에 운임을 더해서 받는다. 도정료로 받은 쌀은 다시 쌀장사에게 팔아 이문을 남긴다. 건조비는 한 탱크에 대략 40kg짜리 100가마를 넣어 2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는다.

“샓을 떼다 보면 저울이 좀 뜨니까 나한테 한 주먹 더 올 수도 있어유. 또 어떤 때는 샓을 덜 뜰 때도 있는데, 왜 덜 뜨냐? 한 가마니를 채워야 좋은디 요만치가 모자라네. 그럼 한 되박 안 뜨고, 그냥 거기다 채워 놓는겨. 오히려 더 주는겨.”

여태까지 샓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인 적은 없다. 집집마다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정미소에 벋가마째 보관하다 보면 간혹 표시를 잘못해서 뒤섞이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잘못됐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미안해서 어떡하?’하면, ‘아, 괜찮여~ 그놈이 그놈잉게’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정미소에는 쥐가 많다. 쥐는 쌀을 먹지 않는 대신 벼를 까먹는다. 쥐약이나 쥐덫을 놓아도 소용이 없다. 먹지도 않으면서 흘리기만 하고 포대에 구멍만 뚫어놓고 도망가는데 도통 당해낼 재간이 없다.

쥐가 까먹은 양 정도는 그저 웃어넘긴다.

그러다가 가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다. 여름에 방아를 찿으면 수분이 날아가는데, 밥을 해놓으면 퍼슬퍼슬하니 현미나 묵은 쌀처럼 밥맛이 없다며 불멘소리를 하는 손님이 있다. 또, 너무 습하거나 뜨거운 곳에 잘못 보관해서 바구미(쌀벌레)가 생기거나 거뭇거뭇해진 쌀을 가져와서 바꿔달라고 생떼를 쓴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하지만 갖 찿은 쌀로 바꿔준다. 그렇다고 아까운 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 새로 더 깎아내서 다시 팔기도 한다.

정미소의 미래

이제는 힘에 부쳐 세를 놓거나 팔려고 해도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질 않는다. 노동에 비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미업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가업을 잇겠다고 선뜻 나서는 자식도 없다. 평생을 몸 바쳐 일했던 합판정미소가 없어진다 생각하니 한편으론 섭섭하다. 이대로 손을 놓으면 이 기계들은 더 이상 써먹지 못하고 결국 고물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박영순씨는 단호했다. 인생은 미련두지 말아야 한다고. 언젠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머지않아 합판정미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쌀이 내려오면 참~ 이쁘지유. 깨끗한 쌀이 나오니께 기분이 좋지유 ㅎㅎㅎ...”

쌀이 예쁘다는 소리는 난생처음 듣는 소리다. 뽀얀 쌀 한 줌을 쥐고 자랑하듯 보여주며 환하게 웃던 합판정미소 사장 박영순의 말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합판상회



박진국 (1940년생)

모영분 (1948년생)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합판마을의 구멍가게

‘합판상회’는 건축자재로 쓰이는 널빤지, 합판(合板)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이름을 딴 구멍가게, 생활 용품을 파는 상점이다. ‘합판리’의 유래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옛날부터 나분들(峴 광석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향한리·유동리·도곡리에서 내려오는 세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하여 ‘합한이(合汗里)’라 불렀다. 또, 파평 윤씨(坡平尹氏) 종산 형태가 꽃과 같다 하여 ‘화판이(花瓣里)’, 전주 이씨(全州李氏) 묘를 쓸 때 학이 나왔다 하여 ‘학판이(鶴瓣里)’라고도 불렀다. 합한이, 화판이, 학판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구역상의 지명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합판리’라는 동네 이름으로 굳어졌다.

“옛날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걸었잖아. 어떤 아저씨가 합판을 사겠다고 합판상회를 대달라고 했겠지? 그럼, 교환원이 우리 집이 합판 파는 줄 알고 대주는 거야. 전화가 계속 왔어요. 부리나케 뛰어서 전화를 받으면 ‘아줌니, 몇 미리짜리 합판 그거 있어요?’라고 물어봐. ‘아저씨, 여기는요. 동네 이름이 합판리라 합판상회고요. 합판은 안 팔아요. 구멍가게예요.’ 따지고 보면 교환원 잘못은 하나도 없지. 합판상회니까.”

합판상회는 대전-논산 간 국도변에 있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45번 시내버스의 종점이자 유동리,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4개 부락으로 나뉘지는 동네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말 처

럼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한때 동네 돈을 다 쓸어 모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합판상회는 호황을 누렸다.

장사의 시작

합판상회 바깥주인 박진국씨(82)는 7년간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휴가 한 번 나오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와 물레방앗간 자리에 있던 다 찌그러져가는 말집(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 벽체를 만든 집) 한 채를 마련하고는 오로지 돈을 벌 욕심으로 생활력 강하고 장삿술 뛰어난 신붓감을 찾았다. 여기저기 맞선을 보면서 장가들 준비를 하는 사이, 큰집 조카딸에게 장사밑천을 대주어 집 앞에 들마루를 펴놓고 소꿉장난처럼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는 대전에서 조금씩 물건을 떼어다 나무 껍죽에 놓고 팔았다. 미원(昧元), 뉴슈가(사카린) 같은 조미료나 편지지, 편지봉투, 볼펜 등 자잘한 물건들이었는데 갖다놓기 무섭게 잘 팔렸다.

모영분씨(74세)는 시집오기 전, 수원 영동시장에서 건어물상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일찌감치 장사에 눈을 떴다. 장사꾼 체질을 타고났는지 능수능란하게 물건을 팔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은 그녀에게 아예 가게를 맡겨버렸다. 추석 대목에는 옥춘(玉椿: 옛 날 사탕), 명태포 등 가게 안의 제수용품이 동이 날 때까지 악바리처럼 장사를 했다.

1973년 설달 겨울, 스물여섯 도시 처녀와 서른넷 노총각은 천생연분으로 만나 결혼을 했다. 수원에서 논산(現 계룡시)으로 내려와 신접살림을 차린 후, 곧바로 첫 아이가 들어서서 바람에 조카가 하는 장사에는 한동안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카가 시집을 가고, 가게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덤벼들었다. 안주인 모영분씨는 젓먹이 첫딸을 등에 업은 채로 버스를 타고 대전 중앙시장으로 물건을 하러 다녔다. 그곳에서 조미료나 간장을 떼어 팔다가 과자나 음료수 등 종류를 늘려나가면서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장사를 했다.



합판상회의 옛모습

“미원, 뉴슈가, 사탕 같은 거 쫄딱쫄딱(자잘하게) 갖다가 팔았어. 기어들어가는 집에서는 매일같이 잘 팔리겠어? 그래서 보로쿠(벽돌) 슬라브집으로 고쳤지. 공사판에서 나무판대 기 대공(들보) 주워다가 밤색 빛깔 페인트 발라서 진열장을 만들었어. 진열장이 너무 깊어 가지고 물건이 한없이 들어가. 가게 바깥에 보면... 위에 양쪽으로 ‘합판상회’, ‘합판정류소’라고 검정색으로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멸공’이라고 적었어.”

합판상회의 전성기

그 무렵, 합판상회에는 면사무소에서 동네 대표로 놓아준 전화가 있었다. 전화 덕분에 일일이 물건을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연산 식료품 도매상에 전화로 주문을 하면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논산 신진주류합동회사에서 소주와 맥주는 독점으로 대주었다. 물건 공급업체에서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가게 간판을 서로 달아주겠다며 아우성이었다. 담배는 강경에서 현금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담배 판 돈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몇 보루씩 떼다가 팔았다.

진열장에는 주로 생필품을 즐밉취 진열해놓고, 바닥에는 넓은 마루를 짜서 음료수나 과자 종류를 늘어놓았다. 환희, 청자 등의 담배는 돈통 가까이에 놓고 팔았다. 금복주, 오비맥주, 백화수복,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오란씨 등 각양각색의 술과 음료를 비롯하여 오리 온제과, 크라운제과, 샘표간장, 삼양라면 등 온갖 구색은 다 맞춰놓았다. 바느질 실부터 소지(燒紙) 종이, 양초, 만수향, 불펜, 편지지, 빨랫비누, 스타킹, 수건, 화투 등 있을 건 다 있는 그야말로 만물상회였다. 영락없는 시골 구멍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참새방앗간이자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사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아침에는 통학생들 때문에 일찍 문을 열었다. 외벽 기둥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합판합동정류소’라는 좁고 긴 나무 간판을 붙여놓고, 논산 덕성여객에서 차표 한 다발을 사다가 한 장씩 뜯어서 팔았다. 사실상 차표는 혼만 빼놓지 수익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며가며 과자나 문구류를 덤으로 사가니까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취급한 것이었다. 그 시절에 연산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집안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서 과자를 사먹기도 했지만, 간신히 학교만 다니는 돈이 없는 학생들은 물끄러미 입맛만 다셨다.

“아이고, 저게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렇게 쳐다보나.... 4개 부락 사람들 환경을 다 알잖아. 라면땅 하나라도 주고, 새우깡 이런 것 좀 줬지.... 가끔 바깥에다 조리풍 놔둔 거 훔쳐가는 애도 있고 그랬시유. 그런데 그걸 야단 안 쳤어. 이 다음에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 일렸어. 얼마나 먹고 싶었어? 내가 고생을 해서 그런 건 금세 알어유.”

박진국씨는 눈물겹도록 가난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그리고는 보여줄 게 있다며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집 보물상자’라는 물건들을 들고 다시 자리로 앉았다. 반만 열리도록 뚜껑을 달아놓은 나무 돈통과 손때 묻은 외상장부, 먼지 낀 주판이었다. 지폐와 동전 구분 없이 그냥 담아놓기만 했을 돈통에 동전들이 짙랑거리고 분홍 지폐가 수북하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었다.

외상장부를 넘겨가면서 빼곡하게 써놓은 이름과 숫자, 그 글자 위에 볼펜으로 쓱쓱 그어놓은 걸 보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니 웃음이 나왔다. ‘10/5 방죽안 씨앗장수 남편 맥주 5,000원, 10/7 김○○ 큰아들 소주 사흡 4,000원 타작, 10/23 권○○ 빵사이다 4,900원, 5/25 소라실 순선이 농약 31,000원, 5/20 최○○ 담배 2보루 9,000원’, 아예 장부 맨 위에 김○○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는 날짜별로 외상값을 쪽쪽 한 바닥이나 써놓았다. 총액에서 일부라도 갚은 날은 덧줄을 긋고 차액을 표시하거나 완전히 갚은 날은 가위표를 해놓았다.

누구나 밤낮없이 찾아오는 곳

술과 담배는 구멍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효자 상품이지만 한편으론 외상 손님이나 주정뱅이 때문에 골치를 앓기도 했다.

“유난히 술 먹고 왜 지랄하는 지랄통이들이 있어. 동네마다 몇 사람 있어유. 아이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유. 양철 문을 보면유? 다 우그러졌어유. 하도 때려싸서. 시끄러워 서라도 안 나갈 수가 없어. 아주 징그럽고 징그러워. 새벽 대여섯 시에도 오고 어떤 정신 빠진 놈은 4시에도 오고, 아이고.... 전기도 없고 컴컴나라니까 밤에는 지네들도 일찍 가야지. 술 먹은 끝에 아침에 또 술 사러 오고, 담배는 그렇게 와서 막 두들기지 않아유.... 당연히 외상이지. 그라고 외상 먹고 안 주는디 어떻게 하? 죽여 살려?”

대개는 집에 가서 마시거나 들에 새참으로 내가기 위해서 술을 사지만, 가게 앞 들마루에 앉아 술판을 벌이는 풍경도 낯설지 않았다. 안주라고 해봐야 판지에 콕콕 붙여놓은 땅



합판상회의 현재 모습

콩이나 멸치 봉지를 하나씩 떼어주거나 새 우깡 하나를 따서 주었다. 때로는 쪽파랑 오이를 썰어 넣은 도토리묵 무침이나 닭을 삶아서 재료값만 받고 술안주로 팔았다. 낭창낭창하니 잘 쏘는 도토리묵은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대줬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맛이 그만이었다. 가끔씩 국사봉에 기도드

리러 가는 무속인들이 한 판씩 통째로 사갈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

도로 포장을 하면서 길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게 터가 낮아 보이지만, 그 시절에는 길 건너 동네가 훤히 보일 정도로 평평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가게 앞에 기다란 들마루를 펴놓았다. 장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곡식을 들고 나와 대전 쌀장사에게 파는 임시 싸전이 차려졌다. 추수철이 아니면 돈 구경하기 힘든 시골마을이라 쌀, 참깨 등을 팔면 푼돈이라도 받아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합판상회에서는 장사꾼에게 자릿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 동네에 돈이 돌게 했으니 인심을 얻은 셈인데다 외상값을 갚아주거나 또 물건을 사가니까 일거양득이었다.

프로 장사꾼



오래된 주판과 수첩

합판상회 안주인은 영리하고 뛰어난 순발력으로 장사가 잘 되는 때를 아주 잘 읽어냈다. 수백 가지가 넘는 물건들의 위치며 가격을 모조리 외우고 있었다. 따로 찾아보지 않고도 금방금방 물건을 건네줬고,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었다. 도곡국민학교 가을운동회가 다가오면 미리 대전에 가서 체

육복을 사이즈별로 떼어놓았다. 학교 행사나 수업내용에 맞춰 크레파스 등 문구류도 미리 미리 가져다놓았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들어갈 물건을 미리 계산해놓고, 술이며 음료수, 심지어 종이컵까지 박스째로 배달해주었다. 수건도 한 다발씩, 화투도 보통 대여섯 목씩 팔았다.

합판상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각 동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절 대목에는 밥 한술 뜯 시간조차 없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명태포와 마루에 쟁여놓은 대병 소주나 청주는 며칠 사이에 동이 났다. 국도변이라 귀성인파로 차가 밀릴 때는 음료수나 선물용 과자세트가 불티나게 팔렸다. 도곡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열 때마다 각지에서 신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이때는 도매상에 전화를 걸어 국수, 과자, 음료수 등을 곧장 트럭째 실어 보낸 후 나중에 몽땅 정산했다.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진 아쉬움

부부는 합판상회의 전성기에 대해 신나게 재담을 쏟아냈다. 그러다가 또 금방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계룡시에 육군본부가 들어온 1989년을 기점으로 시골마을에는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합판상회의 명암이 엇갈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세상이 좋아져 집집마다 자가용을 타고 나가 업무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생필품을 사오다보니 합판상회를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집 앞으로 4차선 국도가 건설되면서 양방향으로 차들이 뽕뽕 고속질주를 하고 있어 건너 동네에서는 지하도를 통해서 다녀야 했다. 어찌다 담배나 사러 올까,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 굳이 먼 걸음을 해서 합판상회를 찾아올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 세월을 빗겨갈 수 없었기에 7년 전, 마침내 합판상회는 폐업신고를 했다.

“아쉽고 어찌고도 없어.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현대화 돼서 이런 구닥다리는 없어져야지. 여한도 없어요.... 돈도 싫어. 젊었을 때나 돈에 환장을 했지. 이때까지 살아나오며 느낀 건 젊어서 돈돈 하지, 늙어서는 돈돈 할 것도 아니여. 바랄 것도 없슈. 아프지만 앓으면 돼유.”

나무 대신 철판을 깔아놓은 작은 평상 2개, 굳게 내려진 파란색 셔터문이 눈길을 끈다.

지붕 꼭대기에 차마 떼지 못한 ‘합판상회’ 간판은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구멍가게이자 옹기종기 모여앉아 다 같이 연속극을 시청하던 사랑방이었던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합판상회를 보면서 어떤 이는 문득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박웃음을 짓거나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질 것이다. 상전벽해가 되어버린 동네 끝자락에 남은 합판상회는 잊혀져가는 기억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산지기마을의 소작농

광석2리는 기계 유씨(杞溪兪氏)와 파평 윤씨(坡平尹氏) 가문의 묘역을 지키는 산지기가 많이 살아 산직촌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동리 인근은 대부분 문중 땅이었고, 유씨와 백씨는 그 땅을 부쳐 먹고 사는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1942년 올해로 팔순을 맞은 수원 백씨(水原白氏) 백종원씨는 광석2리에서 8남매의 막내,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난은 그의 마음속에서 상처로 남아 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배도 엄청 곪았어요. 스물도 안 된 형들이 품 팔아서 쌀 조금 얻어 오면 그것 가지고 8남매가 먹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부끄럽고 창피해요. 없이 산 거...”

지금도 번듯하게 지은 집과 양식 걱정 없는 내 땅도가졌고, 자식들도 다 장성하여 더 바랄 게 없지만, 아직도 그는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떤다.

참고 견디며 지난 세월

백종원씨는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매형의 소개로 두계장터 호남이발관에 들어가 월급 한 푼 없이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처음에 한 일이라곤 청소하고, 물 길어 나르고, 수건 빨고, 면도칼 가는 정도였다. 일은 시키는 대로 곧잘 했다. 집에 있어봤자 할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광명이용원



백종원 (1942년생)

신옥자 (1944년생)

계룡시 엄사면 광석2리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공부할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주인까지 기술자 3명이 있었는데, 이발 기술을 따로 가르쳐주는 이는 없었다. 오로지 눈으로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게 다였다. 어찌나 면도는 해봤어도 대개는 보조역할 뿐이었다. 추운 겨울,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다. 꼭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겠다는 욕심으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고, 기술자들의 편잔이나 멸시쯤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일이야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식사시간이었다. 주인집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젓가락을 반듯이 놓으려고 하다가 ‘툭’하고 소리가 나면, 주인은 시끄럽다며 사정없이 면박을 주었다. 어찌나 서럽고 자존심이 상하든지,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눈치가 보이긴 했어도 근처에 사는 누나가 차려준 밥을 먹고 다닐 때가 오히려 맘이 편했다.

이발소는 두계장터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로 꽉 찼다.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다. 해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져야 일이 끝났다.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결국 2년 만에 호남이발관을 나와 대전 껌공장에서 잠시 일을 했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얼마 안 있어 공장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마땅히 갈 만한 이발소가 없어 집으로 돌아왔다. 서툰 솜씨였지만, 전에 같이 일했던 기술자가 쓰다 준 수동 바리칸으로 동네 어른들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손재주가 있는 데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이발 기술을 체득할 수 있었다. 마침 동네에 이발소도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이발소를 차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발소를 차리는 과정

면허를 취득하려면 대전에 있는 이·미용기술학원에서 1년간의 연수과정이 필수였고, 그 후에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미용업 허가를 낼 수 있었다. 임시방편으로 공주에 사는 당숙에게 돈을 빌려 첫 달 학원비를 내고 통학을 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을 배워서 입학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했고 우수학생으로 인정받았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잘 못 깎은 걸 다듬어주었는데, 동기들 중에 성적이 제일 좋아서 학원비를

면제받았다. 면허증도 단번에 뺏고, 기술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1961년, 갓 스물이 되었을 때, 형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이발소를 차렸다. 가게 터는 세를 얻었다. 흙벽돌을 치대서 담을 쌓고,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기둥을 세워 점포 달린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지었다. 1년간 학원 다니면서 짬짬이 번 돈으로 의자나 거울 같은 집기류를 마련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광명이용원’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나무판에다 대충 손으로 쓴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이발’이라고 글자를 써놓았다. 더 이상 남의집 살이 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내 가게가 생겼으니 나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다.

그 무렵, 개태사역 근처 화악리, 천호리와 광석리는 물론 향한리, 도곡리, 유동리를 통틀어 이발소는 광명이용원 단 한 곳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연신 머리를 깎았다. 깎는 것에서부터 머리 감겨주는 것까지 전부 혼자서 했다.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수건을 빨아서 이발소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물을 길어다 썼는데, 마뜩찮아 하기에 지하수를 직접 파서 펌프로 끌어 올렸다. 겨울에는 연탄난로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을 섞어 썼다. 이발소 안은 끼익끼익 펌프질 소리, 설설 주전자 물 끓는 소리, 찰깡찰깡 가위질 소리, 찌걱찌걱 바리깡 미는 소리, 슣스 가득 천에 면도칼 가는 소리가 연일 가득했다.

아내와 함께 이발소를 운영하다

스물일곱에 중매로 공주에 사는 두 살 아래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남편에 비해, 밝고 활달하고 씩씩한 아내 신옥자씨(78세)가 착실히 내조한 덕분에 생활은 점점 안정되었다. 부부가 합심하여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차츰 나아지자 형제들에게 보답할 기회도



이용원 건물을 새단장한 모습

찾아왔다. 그리고 막내였지만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그의 집은 언제나 일가친척들로 북적였다. 아내는 만머느리 못지않게 집안일을 거뜬히 해냈고, 이발소 청소며 빨래며 손님들 점심 대접까지 나무랄 데 없는 조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때 이발소를 하면유. 앞가리개를 내가 빨잖아. 빨면 거기에 이가 새까맣게 붙었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옛날에는 비누도 없지. 이가 엄청이 쏟아지고, 석카리(석회)가 하~안하고…”

라고, 아내 신옥자씨는 그 시절이 눈에 선한 듯 힘주어 말했다.

“옛날에는 참 개욱질(구역질) 날 때가 많았어요. 머리 감을라면 찢든찢든하니…. 시골 사람들이니까 아~주 거 참. 지금도요. 이 손으로는 일절 안 집어 먹어. 그때 생각나서 더러워서 안 먹어져요. 고기 먹을 때도 절대 손으로 상추쌈 안 먹어요. 씻었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비누칠을 한 번 하면 닦아지질 않아요. 몇 번을 해야 돼.”

머리는 빨랫비누로 감겼지만, 면도는 세숫비누로 거품을 내서 했다. 요즘처럼 샴푸라는 게 있을 리 만무했다. 시골 사람들은 이발소 한 번 다녀오면 얼굴이 말쑥하고, 케케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머릿속이 시원하다 못해 몸이 가뿐해졌다. 그러나 이발사 백종원씨는 세월이 한참 지났건만 그때의 트라우마를 지겹도록 오래 안고 산다.

솜씨가 만들어낸 스타일

옛날에는 딱히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발소를 자주 찾지 못하니 남자들은 하여튼 짧게 바짝 깎는 걸 선호했다. 그리고 가끔 여학생들이 미장원 대신 이발소를 찾았다. 국민학생은 상고머리, 중학생 정도 되면 깡총하게 짧은 단발로 잘랐다. 집안에 잔치나 경사가 있는 어른들에게는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도록 포마드나 동백기름을 발라드리는 정도가 유행이라면 유행이었다. 바리깡은 늘 쓰고 닦고 말리니까 녹슬 새가 없었지만, 오래 쓰다보면 날이 무뎌져서 머리가 집혀 상처가 날 때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 머리 깎을 때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자꾸 물어대서 대여섯 번을 깎다 말다 해서 곤혹스러웠다.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부터는 전동 바리깡으로 교체했다. 바리깡으로 밀어도 마지막에는 꼭 가위질을 해서 마무리했다. 이발 솜씨는 가위질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다.

처음에 이발요금은 20원, 30원 하다가 나중에 100원, 200원, 50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1년 내내 몇 번이고 깎으면 가을에 쌀로 받거나 겨우내 깎고서 여름에 보리쌀로 받았다. 한창 잘 될 때는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밤늦도록 남포등 켜놓고 머리를 깎은 적도 있었다. 의자에 걸터앉아 본 적 없이 온종일 서서 움직이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밀려드는 피곤함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TV도 없던 시절이라 그냥 지쳐 쓰러져 자고는 다음날 또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가을에는 집안에 쌀이 수북이 쌓일 정도였다. 그 쌀을 팔아 가게 터를 빌린 텃도지를 내고, 고지(雇只) 낸 이자 받아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갔다.

1984년 문을 닫을 때까지 거의 독점하다시피 영업은 꾸준히 잘 되었지만 70년대 중반쯤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다음 아닌 장발(長髮)의 유행이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그전에 마침 이발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나란히 ‘광명슈퍼’를 차려놓았고, 아내가 운영한 덕분에 자식들 교육비며 병든 어머니 약값을 대는 건 문제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처럼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놀러 다닐 여유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큰 도로가 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엄사리 변화가로 빠져나갔다. 광명이용원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광명슈퍼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지만 가게 자리로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건물이 헐렸다. 25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광명이용원은 결국 1984년 폐업했다. 이듬해 85년 그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아직은 더 벌어야 되는데 아쉬웠죠. 하나하나 손 안 댄 게 없고 고생해서 지은 건데 뜯겨져 나가니까 서운하지요. 서운하긴 해도 다시 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쉰이 넘었는데 지켜줬죠. 30년 넘게 하니깐 어디 가서 또 차리고 한다는 게 징그럽고 싫었어요.”

광명슈퍼는 물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새로 들여놓지 않았고, 이발소 집기류는 고물상에 헐값으로 전부 처분했다. 백종원씨는 스스로를 옥죄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고생만 하고 살았다’는 말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건너 동네에 새집을 지어 이사했

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부부는 서로를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했다. 이제, 자신이 이발사였다는 걸 말해 줄 유일한 증거는 집안 어딘가에 보관해둔 빨강 파랑 하얀 삼색등뿐이다. 그리고 현관에는 오래된 큰 거울 하나가 붙어있다.

이제야 찾은 여유



거친 손마디

이따금씩 TV에 나오는 남자들의 머리 모양을 보고는 직업병이 발동하기도 한다. 초보자들이 바리칸으로 설렁설렁 밀기만 하고, 가위로 다듬지 않아 쥐 파먹은 것 같다고 말한다. 정수리만 수북한 바가지 머리는 옛날 같으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최신 헤어스타일을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지만, 그는 지금도 거울을 보고 자신의 머리를 직접 손질한다.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은 마냥 놀 수 없어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 둘 다 농사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고, 더구나 눈과 귀까지 어두워져서 세상 못할 일이란 생각마저 든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만하면 괜찮으니 상추쌈 정도는 먹어보라고 권해도 한사코 고개를 내젓는다. 썩스러운 듯 펴서 보여준 손바닥은 반질반질 깨끗해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이 전해졌다. 이제는 서로가 못다 했던 말들을 조금씩 표현하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모자란 점을 채워가며 기대어 살기를 바란다.

가난한 집안의 강한 며느리

팔순을 바라보는 안중건씨는 순흥 안씨(順興安氏) 집성촌 유동리에서 3남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얼굴이 남자 상(象)이라 나이 많은 재취(再娶) 자리로 가야 이혼하지 않고 살 팔자’라는 점쟁이의 말만 믿고 걱정을 앞세웠다. 그녀의 나이 21살 때, 8살 나이 많은 향한리 민씨 집안의 초혼인 장남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 시절에는 방이라고 해봤자 우둘투둘한 흙바닥에 기름 먹인 종이장판을 깔아놓았는데, 모래 쳐서 반질반질하게 시멘트를 발라놓고 사는 걸 보니 홀시아버지에 가난한 집안이라도 굶어죽지는 않겠다며 어머니는 딸을 설득했다.

향한리는 문화 류씨(文化柳氏) 세거지로 텃세가 심했다. 타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잘 살기라도 하면 질투가 심한 동네였다. 남편은 객지다보니 어디 가서 쌀 한 줍 꾸지도 못하고 방아 찼으러 갔다가도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 그나마 근방에서 시집 온 새댁이라 곁을 조금 내주었기에 동네사람들 대하는 일은 그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는 쌀 너덧 되, 들기름 4홉들이 하나, 고춧가루 근 반을 내주며 ‘이것 갖고 1년 먹어라.’ 했는데, 앞날이 캄캄하고 기가 막혔다. 곧바로 애까지 들어서서 바람에 휘저어날 수도 없고 그대로 주저앉아 오늘날까지 일부종사하며 살았다.

“친정엄마한테는 배고프단 소릴 못하는 거여. 엄마 마음 상하실께비... 저녁에 죽을 끓이면 아침하고 점심에 내가 먹으려고 두 그릇을 떠놔. 남자 분들은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계룡시 요일장



안 중 건 (1943년)
계룡시 엄사면 광석향한길



밥해서 주고, 그놈을 먹을라든 달구똥(닭똥) 같은 눈물이 똥방똥방(똥똥) 떨어지지요. 나갈라든 나가면 되는데, 살라니께 이걸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갖고 걷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아기업고 행상을 나서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궁리 끝에 유동리 친정 밭에서 열무를 뽑아다가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장삿길로 나섰다. 열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종이바탕 짚어진 것처럼 돌도 안 된 큰애를 축축 늘여지게 업고서 장고개를 넘어 두계역으로 갔다. 그길로 오늘날까지 60년 세월동안 행상을 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고작 고구마 밭 700평이 전부인 살림으로 시동생들까지 건사하며 근근이 버텼다. 남들은 겨우 오줌 한 번 누고 나면 배가 꺼지는 무밥 해먹고 살 때, 그나마 속이 든든한 고구마밥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농사지은 걸 조금 덜어서 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고구마는 무거워서 도저히 머리로 이고 다닐 수가 없었다. 친정에 가서 쌀을 귀울 처지도 아닌 터라, 염치 불구하고 친정 열무밭에서 뿌리 없는 애기열무 몇 단을 묶어 장사 밀천을 마련했다. 대전 역전시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넘기고 나면, 도매상 중개인에게 구전(口錢) 떼어주고 기차 샅 제하면 겨우 몇 푼 손에 쥐었다. 그 시절엔 가난해도 어른들은 밥상에 비린 것이 올라와야 수저를 들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생선 한 토막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열무를 팔아 돈을 쥐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모른다며 가물가물한 옛 기억을 떠올렸다.

스스로 익힌 장사법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못 배운 한풀이라도 하듯, 오로지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 즈음 옆집에 사는 곽사등이 아주머니는 그 녀에게 삶의 거울이 되었다. 성치 않은 몸으로 삼남매를 키우며 지독하게 가난한 살림을 꾸

려나가는 분이였다. 검정고무신이 닳을까봐 맨발로 산길을 걸어 다니며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육신이 멀쩡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다. 결심이 서자, 남의 땅을 빌려 열무, 부추 등을 심어 제조제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김매고 가꿨다. 좀 자라면 또 갈무리해서 장에 내다 팔았다. 거의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장사에 눈을 떴다.

두계역을 출발한 통학기차의 어느 칸은 대전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빼곡했고, 또 어느 칸은 대부분 엇비슷한 사정이나 행색을 한 장사꾼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꾸벅꾸벅 졸면서 대전역으로 향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었지만,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고단한 인생이었다. 서러운 시집살이, 지긋지긋한 가난, 간혹 호강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대전역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전쟁에 비할 바 없는 살풍경이 펼쳐진다. 중개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기 좋게 물건을 펴놓아야 빨리 팔린다. 신참들은 고참 장사꾼들 사이에서 눈치껏 자리다툼을 해야 했다. 아침 한두 시간 반짝하는 사이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떨어로 팔아치우거나 그 자리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아깝다고 도로 가져와봤자 그 사이 시들고 물러버린 채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도매상에서 물건 값을 쳐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

큰아들이 걸음마를 땔 무렵에는 둘째 아들을 낳아서 또 업고 역전시장, 도마동시장, 유천시장, 대흥동시장, 도깨비시장으로 행상을 다녔다. 여름에는 노지에서 키운 토마토와 딸기를 팔고, 옥수수도 찌서 나갔다. 열차 안에서 전라도 장사꾼들을 보고 배운 대로 고구마 줄기도 다듬어서 팔았다. 동네 교회에서 하계성경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장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매상에서 복숭아를 떼어다가 팔았다. 겨울에는 6시간씩 콩을 삶아 청국장을 띄워서 팔고, 가래떡을 뽑아다 팔았다. 2~3년 키운 약도라지 캐서 팔고, 참깨 등 곡식 말려서 들고 나갔다. 도매시장과 달리 노점상은 텃세가 심했지만, 토마토 몇 개와 설탕 한 봉지 사서 안겨주면 서로 옆에 앉으라며 자리를 내주었다. 점점 장사의 재미를 맛보면서 장사 비결을 터득해나갔다.

어느 때는 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대흥동시장에서 고추를 팔다가 돈 대신 신문지 봉치를 받아들었을 때는 하늘이 노랑고 눈물만 흘렸다. 당시 대전 시내 장터에서는 말쑥한 차림의 아가씨가 물건 값을 흥정하면서 혼을 빼놓는 사이, 다른 일당들이 전대를 낚아채서 튀어버리는 쓰리꾼이 기승을 부렸다. 도마동시장에서는 깡패들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할 뻔한 적도 있다. 게다가 집안에 도둑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못 나뉘주니까 하느님께서 나눠주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애면글면하지 않았다.

오일장이 요일장으로



버스시간표

아직도 전통시장이 살아있는 지역은 날짜 끝자리 2·7일, 3·8일, 4·9일 오일장이 서지만, 도농복합도시인 계룡시는 매주 화요일이면 엄사면 엄사사거리 일대에 화요장이 열린다. 매주 금요일에는 신도안 공영주차장에서 신도안 금요장이 열린다. 이미 옛이야기가 되어버린 4·9일에 열리는 두계장은 멀리 대덕군 진잠면과 논산군 연산면에서 장꾼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근에서 제일 유명했었다. 그러나 오일장의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고, 노점상이나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전국에서 몰려온 장꾼들이 복새통을 이루며 매주 요일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안중건씨는 몸에 밴 장사 습관을 버릴 수 없어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시장에 나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사 화요장에 가는 건 일과가 되어버렸다. 점심은 남는 반찬에 찬밥 한 덩어리 싸 가서 길바닥에서 대충 허기만 면했다. 국수 한 그릇 돈 주고 사 먹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좌판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천막이 훌러덩 날아가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변한 겉옷 하나 없이 추위에 떨며 몸뚱이가 부서져라 일하고 장사를 했다.

신도안 요일장에서는 단골손님이 꽤 많았다. 육군본부가 들어서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

는 군인가족들이 이사를 왔다. 그때는 밥을 해먹는 주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시장을 보러 나오는 낮익은 얼굴이 제법 있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 군인가족들이 오면서부터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즐기는 신세대 주부들뿐이다. 그만큼 장사도 덜 되고 장터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인인 큰아들의 진급에 도움을 될까 싶어 귀동냥이라도 하려고 일부러 신도안 금요장을 다녔다. 좋은 정보를 얻으면 물건 값을 받지 않았다. 다음 장에 나가면 장교 부인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와서 또 팔아주기도 했다.

거친 장사꾼의 삶이 준 교훈

“이걸 줄 때는 저걸 받으려고 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저 손님이 나를 또 도와주게 되더라고. 인생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 한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다쳐. 그래서 공짜로 줘도 공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중건씨는 가난만큼은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뒤돌아볼 겨를 없이 죽자사자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는 자식들도 제 앞가림 하며 살기에 아무 걱정이 없다. 엉덩뎅병 살다가 이제야 좋은 세상 만나 젊었을 적 고생을 보상받나 싶었는데 동고동락 했던 남편은 지난달 87세를 일기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밭에 갔다 오는 길에 꼭 산딸기를 따다가 칩 이파리에 곱게 싸서 ‘이놈, 자기 먹어’ 하며 무심한 듯 건네주었다. 고생하는 아내를 안쓰럽게 여겨 무거운 짐은 지게로 저서 날라 주고, 경운기를 마련하고부터는 실어다주고 꼭 태우러 오곤 했다. 해마다 아내 생일에는 복숭아 통조림 한 통과 오천 원짜리 꽃 한 다발을 사다주는 사랑꾼이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이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는 복숭아 통조림 대여섯 개를 네댓 번씩 몽텅텅 사다주면서 ‘당신 좋아하시니까 잘 드시라고’하며 피식 웃었다. 아마도 남은 생이 길지 않았음을 짐작했는지 한꺼번에 선물보따리를 안겨준 모양이다.

겉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굵은 등허리, 맨드롭하게 닳은 손톱, 반창고를 달고 사는 손가락은 안중건씨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안방 벽에는 나달나달한 45번, 300번 시내버스 시간표가 붙어있다. 이를 후, 화요일 업무장에 가려면 또 부지런히 캐고 다듬고 준비를 해야 한다.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신도반점



이 경 연 (1943년생)
계룡시 업사면 업사리



짜장 한그릇 250원 하던 시절

신도안 개발이 시작될 무렵 1981년 10월 13일 화요일, 1대 이경연(79세) 사장은 업사리 최초의 중국집 ‘신도반점’을 창업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차남 김영곤 사장이 대를 이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흔히 소비자 물가의 척도를 짜장면, 소주, 라면으로 환산하는데, 신도반점의 짜장면 한 그릇 값은 맨 처음 25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000원으로 그만큼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해왔다.

이경연 사장은 전남 영광군 출신으로, 띠동갑 한의사 남편을 만나 목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5년 후, 한의학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신도안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유동리였다. 1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애초에 경험도 없는 농사를 짓다보니 빚만 지고 동네를 떠나야 했다. 그러다가 생활력 강하고 음식 솜씨 좋은 남도(南道) 여성 이경연씨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권유로 업사리에 중국집을 차렸다.

그 시절에는 외식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당시 업사리뿐만 아니라 두마면 일대에는 밥을 사먹을 식당조차 보기 드물었던 시절이라 중국집은 굉장히 생소하고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목포에서 중화 요리 요리사인 조카를 불러다 주방을 맡겼고, 홀 서빙을 비롯한 식당 전반의 운영은 자신이 맡았다. 여차저차해서 식당 문은 열었지만, 장사는 처음이었던 터라

덜컹 겁이 났다. 손님 앞에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 주문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쟁반에 담은 음식만 날라다주었다.

“겁났지! 저녁이면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 한 번은 큰길, 아스팔트 깔 땀 데 노가다(박노동) 하는 사람들이 왔어. 짜장 짬뽕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땀 것을 갖다 줬더니 막~ 욕지거리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런데 오도 못하고 거기서 막 울었어. 짬뽕을 해다 주라 그랬는디 그때 짜장을 갖다 줬어. 그래서 ‘다른 거 갖다 드리게요. 그냥 잡숫고 가세요.’ 내가 잘못 내줬으게 돈 안 받는다고.... 그 때 참 괴로움 많았지. 내가 순했어요.”

전문주방장을 뛰어넘는 요리솜씨

첫 주방장은 8개월 만에 나가버렸다. 손님들 입맛에 맞게 음식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되어가던 터였다. 그러니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방장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몰라 주방장이 음식 하던 걸 찬찬히 떠올려가며 밤마다 연습했다. 눈썰미가 좋아 제법 흉내를 냈다. 오히려 주방장보다 솜씨가 낫다며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짜장면 재료 먼저 다 썰어서 점심장사 준비를 한 다음, 돼지등뼈 우리고 시래기를 삶아 군인 7~80명의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신도역에서 통학기차를 타고 대전 역전시장으로 재료를 사러 갔다.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채소는 하나같이 둥글고 무거운 것들뿐이었다. 대전역에서의 정차시



신도반점 입구

간은 3~4분으로 지게꾼을 시켜 짐을 던지다시피 신고 돌아왔다. 지금은 냉동해물이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생물이란 오징어, 홍합 등 짬뽕 재료는 물이 줄줄 흘렀다. 재료를 담을 비닐 봉지도 흔하지 않아서 항상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차 바닥을 닦아야 했다.

신도역에 도착하면 역장이나 이웃들이 도와줘서 짐을 내린 후 그대로 두었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군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12시부터 일반 손님들 점심식사가 끝나면, 신도역과 식당을 3~4번씩 오가며 장 봐온 재료들을 머리에 이고 날랐다. 어느 날은 버선 한 짝만

신은 채로 급히 장을 보러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보따리를 어깨에다 메고, 등에다 지고, 머리에다 인 행색이 하도 남루해서 거지인줄로 착각한 운전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한 적도 있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혼자 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7년의 시간을 곳곳이 버텼다.

“금계 여름에는 땀이 몇 가마…. 목덜미로 땀이 흥건해. 후라이판이 무겁잖아. 처음에 볶음밥 할 줄을 몰랐잖아, 양쪽 팔에 오십견이 오도록 마구 흔들었어요. 옛날에는 고역이었어. 대간할(힘들) 때는 이과두주 있쥬? 그게 머리도 안 아프고 씹빡하지. 그런게 너~무 피곤할 때는 혼자서 한 병 먹어. 한 모금밖에 안 돼. 그럼 좀 짜르르 하다가 말아. 하루에 두 병씩도 먹었어요. 부엌에서 몰래 안주도 없이 훌쩍 마셨지. 그거 먹을 때는 이런 데가 아프덜 안 하잖아. 그리고 커피…. 노란 주전자 있지? 그걸로 하~나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대간할 때 마시면 또 씹빡하잖아.”

첫인상과는 판판으로 입가에 얽은 미소가 변지면서 호기롭게 말하는 이경연 사장의 옛이야기에 점점 더 빨려들었다. 어찌 들으면 힘세고 배짱 좋은 왈패가 연상되지만, 곱고 인자한 여느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어 뜻밖이었다.

쉽없는 장사의 시간

저녁에는 지역 유지 또는 남편이 데리고 온 술손님이 많았다. 술안주로는 특제 소스를 곁들인 양장피를 비롯해서 유산슬 등 고급 요리가 주로 나갔다. 칼질이 능숙해지면서 무를 물들여 꽃 장식까지 올려놓는 여유가 생겼다. 신도안 개발붐을 타고 건설현장 일꾼들도 단골로 찾아왔고, 양정삼거리에는 다방이 6개나 생겨 배달 주문도 종종 들어왔다. 게다가 아파트에 사는 신세대 주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졸업식 때면 앉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날도 있었다. 보통 때는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이었기에 애써 찾아준 손님들이 못 먹고 그냥 갈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손님이 왔다가 ‘아이고 이집이 문 닫았네.’하면 미안해서 하루를 쉬어 본 적이 없었다. 아플 새조차 없어서 아프지도 못했다.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루에 겨우 1~2시간 잘 때가 허다했다. 장사하는 사이사이 안채 식

구들 식사를 챙겼다. 가게 문을 닫고는 단체손님 방과 넓은 홀 청소까지 끝내야 했다. 청소는 대충하는 법이 없었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꼼꼼하게 쓸고 닦았다. 또 시름털털한 음식 냄새가 배지 않도록 락스를 뿌려서 박박 문질렀다. 항상 청결과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썼다.

예전에는 지방 문중의 회합이나 계모임이 많았다. 상포계(喪布契, 남녀 동갑계, 쌀 수매하는 날은 동리 이장 모임 등 단체 손님도 많았다. 한두 사람씩 와서 각기 다른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미리 메뉴를 정해서 알려주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단체손님이 매상도 좋고 편했다. 외상 손님도 있었지만, 아직은 순박한 시골 인심이라 외상값 떼어먹는 사람은 없었다. 혹여 떼어먹고 죽더라도 ‘나중에 저세상 가서 갚아라’하며 안달복달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전주 이씨(全州李氏) 계모임이 있었는데, 볶음밥 한 그릇 값을 덜 계산했다며 다음날 일부러 먼 걸음 해서 갖다 주기도 했다. 또 어느 가을에는 이장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향한리 열두 골 수매대금을 사료 포대에 넣은 채로 놔두고 간 적이 있었다. 영업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청소하다 발견하고는 동네마다 연락을 해서 주인을 찾아줬더니 얼마나 고마웠으면 농사지는 밤을 해마다 가져다주었다.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부지런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 그때는 시골 인심 또한 사납지 않은 시절이었다.

앞치마가 뽕뽕하도록 장사가 잘 되는 날이 많았다. 돈을 세어 볼 겨를도 없어 하루 매상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몰랐다. 큰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재료값만 챙겼다. 탄 주머니 찰 줄도 몰랐지만, 아들 장가갈 밀천 마련하느라 5월 초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바짝 냉면을 팔아서 번 돈은 뒷방 장판 밑에 숨겨두었다. 지금도 신도반점 냉면이 맛있었다고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했는데, 여름 한철 장사로 당시 700만 원을 벌어서 집 한 채를 샀다.

맛의 비결은 정직과 성실

신도반점의 인기 메뉴는 고기와 야채를 잘게 다져서 달큰하게 면장(麵醬)에 볶은 ‘유니짜장’이다. 일반 짜장면이 500원일 때 유니짜장은 550원으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유니짜장은 조금씩 더 받아도 다들 즐겨먹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쓰고, 재료를 아끼지



소문난 유니짜장

않는 것이 신도반점 음식 맛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재료값이 요동쳐도 이 원칙만 큼은 반드시 지켰다.

대개의 중국집에서 볶음밥이나 짜장을 볶는 기름은 쇼트닝을 쓰지만, 신도반점은 식용유를 고집해왔다. 짜장면은 춘장을 덜 볶으면 뽀얀맛이 나기 때문에 잘 볶은 춘장에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양파를 많이 넣어 반질반질 윤기가 흐른다. 탕수육은 질 좋은 돼지고기를 달걀 물에 푹 적셔, 값싼 옥수수가루가 아닌 꼭 감자전분을 묻혀서 튀겨내기 때문에 부드럽고 바삭하다. 팔보채나 유산슬은 참기름을 듬뿍 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비싸도 양파를 많이 넣어. 다른 집은 3포 깎네 어찌고 하지만, 우리는 6~7포 까요. 양파에서 단물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재료를 안 아끼고 해. 쇼트닝으로 재료를 볶으면 식었을 때 맛이 없어요. 우리는 꼭 참기름을 썼어요. 요새는 참기름이 비싸니까 볶음밥은 수입 참기름 쓰지. 그리고 안주도 참기름 쳐야 맛있지. 우리나라는 참기름이 최고여. 들기름은 쓰면 안 돼요.”

손님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갈 때는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풀어졌다. 어찌다 짬뽕 국물이라도 남기면, 왜 남겼는지 궁금해서 먹어본다. 맛은 괜찮은데 왜 안 드셨을까 고민스러웠다. 다음에 왔을 때 ‘왜 저번 날 짬뽕이 입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 ‘아뇨.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남김없이 싹 다 드신 빈 접시를 치울 때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으로 업사리에 중국집이 7~8개씩 생겨났어도 지금까지 신도반점의 명성은 여전히 변함없다.

가게와 함께 정신을 물려주다

2002년, 지난 22년간 홀로 꾸려온 가게를 차남에게 물려주었다. 빚 없이 두 달 치 재료를 들여놓아 주면서 거래처에 절대 외상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도 불만 보면 욕이 절로 나고 힘에 부치는데, 혹시라도 욕해서 사고가 날까봐 절대 주방 일은 배우지 말라고 했다. 대신, ‘엄마가 할 때 먹어 본 입맛을 잊지 말고 간을 봐라’ 주방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짜장 맛을 기억해서 꼭 알려주라고 일렀다.

그 후로, 가끔 식당에 나가 음식 맛이나 청소 상태를 확인한 적은 있지만, 더 이상 간섭하

지 않아도 2대 사장은 믿음직스럽게 가게를 잘 꾸려나가고 있다. 옛날 그 자리에서 40년 전 통을 잇고 있는 신도반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배달 주문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

사랑스러운 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경연씨는 인터뷰를 마쳤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참..., 보람 있네. 쪽 살아온 인생인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보람 있네.... 나는 조금씩이라도 더 주면 더 줬지 더 받아야지 하는 맘이 없었어. 맛있게 먹고 가면 그게 보람이었지!”

계룡시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

아랫장터 국수집



항일홍 (1948년생)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1길



번성했던 두계장의 기억

계룡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군인가족을 비롯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 사이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떠들썩한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시내버스가 생기고, 자가용이 늘어나자, 새 길을 닦고 도로를 넓혔다. 그로인해 대형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사다먹는 편리한 세상으로 변했다. 이름만 남은 두계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에 약삭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채 큰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묵묵히 터전을 지키고 있다. 두계리 장터 골목의 그 많던 식당과 술집, 방앗간, 대장간, 옛공장, 포목점, 한약방, 양복점 등 거의 모든 점포는 문을 닫았고, 이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쓸쓸하다 못해 을씨년스럽다.

항일홍씨(74)는 사람들로 시골벽적하던 두계장터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내내 침울한 표정으로 아랫장터 국수틀집(틀, 틀다, ○○틀집: 짜거나 뽑는 기계, 작업, 점포)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옛날에는 5일장이 크게 섰어요. 두계장터가 대단히 컸었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철로를 기점으로 윗동네는 윗장터, 철로 밑은 아랫장터예요. 소전 주위로는 국밥집이 여러 채 쪽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끔 국밥을 사주시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또 양조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술도가라고 했지. 거기 가면 고두밥을 써서

말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정미소도 4개나 있었어요. 정미소가 가깝다보니 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죠. 이름도 없이 그냥 국수틀집을….”

아버지의 집을 나눠 짊어지다

1948년 무자생(戊子生) 황일홍씨가 태어나던 해에 며칠째 쏟아진 폭우로 두계천이 범람하는 큰 홍수가 났다. 곧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 18마지기는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쭉대밭이 되어버린 논을 망연자실한 채 바라볼 뿐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나마 수해를 면한 5마지기만 남겨놓고 혈값에 넘기고 나니 역장이 무너졌다. 1959년 그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기름틀 한 대를 사서 주로 들기름을 짜주고 공임을 받는 기름집을 시작했다. 2~3년쯤 지나서 중고로 국수틀 한 대를 사다가 10여 년 동안 국숫집을 함께 운영했다. 갑작스레 가세가 기울어져 장사를 시작했지만, 온 식구가 매달려도 겨우 밥술만 뜨고 살았기에 자신이 불행한 운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닌가 한탄했다.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좋았던 그는 평소에 병약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지게질하며 밭농사를 거들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당연한 듯 가게 일을 돕거나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여름방학엔 한 달 내내 사방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품삯으로 밀가루 40kg짜리 12포대씩 타 올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었지만 맏아들이었던 그는 집안의 살림맡천이었다.

군대 제대하고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일할 때, 월급날만 되면 아버지는 월급을 가지러 왔다. 용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살림에 보탬다. 결혼을 1년 앞두고, ‘야, 내가 도저히 살림을 못 하겠으니 동생들 하고 어떡하냐? 네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숫집을 맡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했다. 1973년, 결혼한 후부터 국숫집을 그만두고 방앗간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1990년까지 운영했다. 30여년의 세월은 앓은뱅이저울 하나에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제 집터만 남은 이곳이 그 옛날 시끄럽게 돌아가던 기계 소리와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고된 노동끝에 뽑아지는 국수

옛날에는 집집마다 밀농사를 지어 절구에 방아를 쪼갰다. 어머니들은 마당에 명석을 깔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홍두깨로 밀어서 칼국수를 만들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가늘게 썬 국수는 가마솥에 호박이나 밭에서 키운 채소를 같이 넣고 끓여내면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 별미였다. 그러다가 국수를 틀어주는 집이 생겨나자, 늘 일거리에 치여 사는 우리네 어머니들은 수고를 한결 덜 수 있었다.

전날 정미소에서 방아를 쪼개 미리 밀가루를 맡겨놓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 하루 만에 국수까지 틀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 참밀로 국수를 틀지만, 간혹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키가 꺾충한 호밀을 틀러 오기도 했다. 호밀은 끈기가 없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짧게 뽑아야 했는데 대개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느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수틀을 다루는 건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반죽에 넣는 소금 비율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인근에서 처음으로 국숫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해도 밀려드는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손으로 다~ 반죽하고, 늘리려면 국수틀에다 몇 번씩 돌려야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반죽을 오래오래 치대야 국수가 끈기가 있잖아요. 마당에 네모진 나무틀이 있었는데, 사람 넷이 딱 붙어 서서 반죽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들과 엄마, 그리고 제가 했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68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국수틀에 모터를 달고 나서부터 힘은 덜 들었지만, 손님이 늘어나다보니 바쁜 건 여전했다. 사방공사나 제방공사 등 관공서의 부역을 하고 나면, 노임으로 미국에서 원조해 준 밀가루를 받았기 때문에 가게는 늘 국수를 틀러 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5월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정신없이 바빴다.

밀가루 한 포대 22kg를 반죽해서 롤러로 돌리면, 늘어나면서 둥그렇게 감겼다. 감고 다시 풀어서 늘리기를 4번 정도 반복한 후, 국수 가닥을 뽑는다. 이때 반죽이 찰져야 국수가 풀리지 않는다. 국수틀 한 대로 서너 번씩 돌려야 하니 더디기도 했거니와 식구들끼리 감당하기 힘들 때는 문간방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켰다. 살기가 어려워 집세가 밀

리면 몸으로 때워야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야 손님 하나라도 더 붙잡을 수 있었고, 돌려보내는 손님이 없었다. 그 시절엔 밤 11시면 정전이 되었는데,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니까 날 품팔이 삼아 주인집 일을 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된 하루가 끝나면,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끊어다 다 같이 구워먹었다.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는 배탈이 나 밤새 변소를 들락거리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수를 뽑아서 어른 키만큼씩 끊어 마당에 얼른 갖다 널어서 말린다. 햇빛이 좋을 때는 마당에서 한 나절 정도면 국수가 뽀뽀하게 마른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산들산들 흔들리는 국수 자락을 한가롭게 바라보는 건 사치였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리면 지금처럼 덮을 만한 천막도 없어서 국수가 젖기 전에 재빨리 집안으로 걸어 들이느라 난리법석이었다. 아버지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작업을 지시하고, 널어놓은 국수 구간 구간에 어느 마을 누구누구 거라고 표시를 했다. 국수가 다 마르면 적당한 길이로 절단했다. 그 시절엔 노끈이 귀했기에 물을 축인 짚으로 묶어서 깡총하게 회포대에 싣다.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잰 후에 근 수대로 공임을 받았다.

국수손님들의 이야기

아침 일찍부터 온 손님들은 국수를 틀어서 갈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리거나 잠시 다른 불일을 보고 와서는 마냥 기다린다. 오랜만에 친정동네 사람들을 만나 친정집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온 이웃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점심때가 된다. 기다리던 손님들은 으레 국숫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국수 부스러기를 모아 누나들이 집에 있는 채소 몇 가지 대충 넣어 국수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공짜로 대접했다. 배고픈 시절이기도 했거니와 어머니와 누나들의 음식솜씨가 좋아서 다들 맛나게 먹었다. 국수를 말리다보면 바닥에 떨어져서 또르르 말린 부스러기가 많았다. 부스러기까지 챙겨가는 손님도 없었을뿐더러 대개는 다 같이 나눠먹었다.

국수 부스러기에 얽힌 이야기는 또 있다.

“그게 말하자면 애환이여. 국수 부스러기가 밑으로 떨어져서 동그랗게 말려요. 그럼, 동네 후배들이 누가 있나 없나, 담 너머로 보고 있다가 살금살금 기어들어 와서 다 마르지

도 얇은 국수 부스러기를 몰래 그냥 먹고 가는 거여. 또 한줌 씩 손에 들고 쏘살같이 도망가서 뒤뜰에서 막 먹고...”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다른 집은 몰라도 국숫집에는 항상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자주 놀러왔다. 그때마다 누나가 항상 국수를 삶아주었다. 한창 먹성 좋은 친구들은 한 그릇씩 똑딱 해치웠고,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추억담을 빼놓지 않는다. 국수가 떨어지면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주었다. 인정 많은 어머니와 누나들 덕분에 친구들이나 후배들 사이에서 어깨가 으쓱하곤 했다.

국숫집에서 방앗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들이 시집을 가면서 일손이 모자라 국숫집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방앗간을 시작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밤늦도록 일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몇날 며칠을 꼬박 일을 했다. 다들 농사지은 쌀로 1말은 기본이고, 부잣집에서는 최소 2~3말씩 가래떡을 뽑아갔다. 떡이 고르게 나오려면 주걱으로 밀어 넣고, 방망이로 꺾꺾 쑤셔서 잘 눌러야 한다. 시원찮게 누르면 어떤 건 가늘고 어떤 건 굵고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힘주어 방망이질을 하고나면, 밤마다 녹초가 된다. 팔이고 어깨고 온몸이 결리고 아파서 밤새 끄끙 앓았다. 그런데 다음날이면 꼭두새벽부터 함석판 문짝을 사정없이 두들기면서 손님이 들이닥쳤다. 하릴 없이 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다.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생스러웠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던 두계장터는 이제 그 시절의 참모습을 증언해줄 몇몇 노인들만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칭찬받기 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흐름을 쫓지 못한 낙오자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땀으로 얼룩진 국수틀집, 그 구석구석에는 90여년 세월의 손때가 함께 묻어있다. 마당에 떨어진 국수 부스러기, 떡방아에 달라붙은 자투리 떡을 아낌없이 나눠먹던 정겨운 시절은 그리움으로 남았다. 이제, 몇 남지 않은 동네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려 한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섬포함)

현대제철의 건설로 사라져 가는 마을, 송산면 가곡리의 흔적과 회생	308
휴게소로 바뀐 섬, 행담도	313
옹포의 과거와 현재	316
육성으로 듣는 푸레기 마을 변천사	320
무수동 마을의 변천사	327
수청리 마을의 변천사	331
풍요로운 어장과 넘치는 인정을 자랑하던 성구미 이야기	335
간척과 방조제 건설로 인한 도비도의 변화와 주민생활	340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현대제철의 건설로 사라져 가는 마을, 송산면 가곡리의 흔적과 회생



김응택 (1949년생)
당진시 송산면 능안길



해방기에 태어나 성장한 어린 시절

구술자 김응택씨는 1949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203-2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영산 김씨였고, 어머니는 양천 허씨였다. 당시는 한집안에 식구들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구술자도 9남매의 장남으로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곡리에 펼쳐진 산하와 바닷가 개펄을 무대로 뛰놀며 꾸밈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척박한 교육 환경을 딛고 송악중학교 졸업

구술자는 유곡초등학교를 8회로 졸업하였고 송악중학교는 7회로 졸업하였다. 유곡초등학교는 가곡리에 인접한 송산면 유곡리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1949년에 개교하였다. 연도를 계산해보면 구술자는 1956년에 입학하여 1962년에 졸업한 셈이 된다. 단순 나이로 구술자는 8세에 유곡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구술자는 5년이나 늦게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으니 친구들이 졸업할 즈음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구술자 김응택님은 초등학교 생활을 매우 어둡게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은 지극히 단순했고 학교 일과가 끝나면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5살이나 위였고 집안에서도 가장 노릇을 하였으니 더 말할 나위 없었다. 하지만 고된 하루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곤 하였는데 그것은 담임교사의 호출을 받아 교무실을 거쳐서 귀가했던 일이다. 원인은 학비 때문이었다.

중학교 진학은 구술자로 하여금 많이 망설이게 하였다. 나이도 동년배보다 많았지만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술자는 함께 통학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집안의 동생뻘 되는 사람이 유곡초등학교 1년 후배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함께 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고, 당당히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는 송악중학교였다. 구술자는 송악중학교 7회생으로 졸업하였다. 대략 1960년대 초엽이었다.

18세에 가업인 농업에 투신하며 마을 행정 참여

구술자의 부친은 약주를 좋아하였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 대다수가 그랬던 것처럼 부친은 술에 의지하여 고달픈 농사일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친은 46세에 이르러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되었고 구술자는 부친을 대신하여 가산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천 평이 못 되는 산과 논은 열 마지기가 채 못 되었고 밭은 800여 평 가량이 주어졌다. 구술자의 나이 18세 되던 해였다.

마을 일은 결혼 이전인 23세부터 시작하였다. 가곡리의 반장부터였다. 구술자는 동네의 마당쇠와 같은 존재였다. 동네 일가 어른은 물론 모든 구성원의 심부름을 도맡아 보게 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동네일은 더욱 증가하였고 구술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새마을 지도자라는 직함이 떨어졌다. 그는 가곡리 이장과 각종 개발위원장 등 마을 행정의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맡아보게 되었다.

염전을 통한 부촌 마을의 건설

예전 가곡리의 특산품은 단연 소금이였다. 이미 대규모의 염전지대가 가곡리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곡리의 염전은 원래 일본인이 개발한 ‘중본농장(中本農場)’에서 출발하였다. 중본이라는 일본인은 가곡리에서 동곡리까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쌓았다. 농장의 중앙에도 긴 수로를 만들었고 수로는 가곡리와 동곡리의 경계선이 되었다. 중본농장은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였다.

그 후 농장의 많은 토지가 염전으로 바뀌어 갔다. 주민들은 벼농사 대신에 염전으로 전환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바닷물은 수없이 많았지만 밀물은 비가 오기 이전에는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지역의 천수답은 삼교천 방조제가 준공되던 1979년경 이후에서야 해소될 수 있었다.

염전은 가곡리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를 제공하였다. 사람들은 가곡리로 모여들었다.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도 가곡리 염전에 가면 막노동을 할 수 있었다. 가곡리에서는 일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염전에서는 엄청난 소금을 생산하였다. 염전의 규모는 삼보염전을 포함해 약 200정보에 달했다. 삼보염전은 석문방조제의 축조로 인하여 폐쇄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가곡리의 염전은 대단히 넓었다.



인터넷 홍보를 하여 서울지역 학생들이
가곡리 염전 체험을 하는 모습

구술자 김응택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곡리 염전 체험’을 기획 홍보하였다. 많은 주부가 국산 천일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김응택님은 직접 강의도 하고 염전 실습으로 국산 소금의 우수성을 알렸다. 사실 중국산 소금은 우리 천일염보다 염도가 높아 40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중국산

소금은 손으로 부스러지지 않고 김치를 절이면 너무 짜서 김치가 문드러졌다. 김응택님의 노력은 타지에도 알려졌고 염전이 발달한 서산에서도 가곡리에서 소금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가곡리의 소금은 당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건설과 확장공사는 점차 염전을 축소했고 성구미 염전과 칠성개 염전이 폐쇄되면서 가곡리 염전은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가곡리를 정보화 마을로

구술자 김응택님이 가곡리 이장으로 재임할 때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 중 하나는 가곡리를 정보화 마을로 꾸민 것이었다. 이 기획은 당진시에서 매우 낮은 사업이었다. 구술자는 주변에서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마을에 도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첨단 기기의 활용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는 가곡리의 마을회관에 컴퓨터 60여대를 설치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하였다. 설치비용은 약 2억8천만 원 소요되었는데 이는 정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었다. 당진시의 마을회관에 다량의 컴퓨터를 설치한 것은 가곡리가 유일하였다. 가곡리 주민들은 인터넷의 활용 방법을 교육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농산물은 물론 소금의 판매까지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김응택님에 의하여 가곡리 주민들은 전 세계의 정보망을 여행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홍보를 하여 서울지역 학생들이
가곡리 염전 체험을 하는 모습

교육불모지 극복을 위한 가동초등학교의 설립과 폐교

구술자 김응택님은 가동초등학교의 설립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가동초등학교는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가곡리 마을회관 아래에 있었다. 김응택님은 가곡리의 어린이들이 인근 동네인 유곡리의 유곡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을에도 학교를 설립하여 어린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 설립에 대한 일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대통령 하사금 6백만 원이 가곡리에 내려왔다. 김응택님은 마을 주민과 하사금의 용도를 논의하였다. 하사금 용도는 현금으로 쓰지 말고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논의 결과 주민들은 성구미 굴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은 성구미 바다 개펄에 지게로 돌을 쳐 날랐다. 대통령 하사금은 양식장 조성 인건비로 사용했다. 그 후 양식장 수입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학교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부지는 2,900평에 달했다.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지어주기로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대지를 교육청에 기증받아야 한다고 했고 주민들은 흔쾌히 기증하였다. 가동초등학교는 1974년 3월에 유곡초등학교 가동분교장으로 개교하였고 초등학교로 승격한 것은 1978년 5월이었다. 성구미에 인접한 아담하면서도 경관이 아름다운 갯마을 학교였다.

가곡초등학교는 가곡리가 개발되고 주민들이 타지로 떠남에 따라서 학생 수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다. 결국 지역주민의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학생 유치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2006년 3월 유곡초등학교에 통합되고 말았다. 김응택님의 기억에 의하면 졸업생 1명이 28가지 상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신기하면서도 아쉬웠던 기억이다.

가곡환경을 통한 가곡리의 미래와 당진시의 발전을 기원

가곡리는 개발과 동시에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자연마을도 한때 23~24개에 달했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남아있다. 어림잡아 17개 정도가 없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곡리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있었다. 환경업체인 ‘가곡환경’을 설립한 것이다. 가곡환경은 당진시의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대행업체이다. 당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등 파수꾼이다.

가곡환경의 주주는 가곡리 주민들이다. 이들은 매일 당진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어느 면에서는 청정 당진시의 미래를 준비 중이다. 폐기물은 급속히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마당에 환경업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진시의 미래를 구축하자라는 것이 김응택님의 바람이다.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의미의 가곡리(佳谷里)는 김응택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구술자는 당진 행담도에서 태어나, 일평생을 당진에서 지내 온 토박이다. 행담도는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 육지에서 섬까지 물건을 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의 ‘행’(行)과 섬이 평소 물에 잠겨 있다는 의미의 ‘담’(澗)이 결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담도’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도 전한다. 옛날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이 섬에 닿았다. 마실 물을 찾아다니다가 샘 하나를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어찌나 맛이 좋던지 금세 기운을 차리고, 다시 과거 길에 올라 장원 급제를 했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행담도’라고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으나 지금은 휴게소로 개발되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당진과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다.

이곳 행담도에 터를 잡은 것은 구술자의 아버지다. 구술자가 태어나기도 전 할아버님이 귀향 보내듯이 아버지를 섬으로 보내셨다. 구술자는 섬에서 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전쟁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7살 때 6·25가 났고, 많은 피난민이 배를 타고 내려왔다. 모두가 낯설고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살았던 터전과 비슷한 행담도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 다섯 집이었던 행담도는 이제 아홉 집이 되었다.

행담도에서의 삶은 아홉 집 모두가 비슷했다. 바다에서 나는 바지락, 고동, 굴,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 물으로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휴게소로 바뀐 섬, 행담도



이은주 (1946년생)
당진시 송악면 복운리



고는 했다. 특히 물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배가 꼭 필요했는데, 그 시절에는 기계 동력을 이용한 배가 없었다. 주로 돛단배인 풍선을 이용했다. 생계유지의 또 다른 방식은 농사였다. 행담도는 원래 정부 소유의 땅이었고, 주민들은 그 땅을 불하받았다.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소유하였다.

행담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교육 문제였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라 너도, 나도 생계가 먼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섬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당진군과 신평면에서 신경을 써 주었다. 한번은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 사랑방에서 아이들을 모아두고 한글을 가르쳐준 적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는 신평면 한정초등학교의 분교를 이곳에 지었다. 물론 선생님 한 분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가르쳤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한글을 배웠다.

교육 문제와 더불어 행담도는 전기와 수도가 없어서 불편했다. 전기는 구술자가 스무 살이 한 참 넘은 이후에 자가 발전을 했다. 그전에는 전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기름과 심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사용했다. 그 가운데 유리를 씌워 꺼지지 않도록 유지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려웠다. 식수도 마찬가지였다. 행담도는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식수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섬 가운데 2개의 샘이 있었다. 그곳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다행히 섬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다. 수도는 구술자가 물으로 나올 때까지도 없었다. 아마 휴게소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것 같다.

행담도를 사람이 많이 찾기 시작한 것은 휴게소가 생기기 대략 10년 전쯤이었다. 휴게소가 들어선다는 말에 섬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였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일정 금액의 사례를 받고 섬을 떠났다. 그 이후에 섬은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매산이나 신평, 삽교천 등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 행담도를 구경했다. 이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하루를 놀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조개 잡기, 굴 따기 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삽교천에서 행담섬까지 뱃길을 만들어 하루에도 수없이 다녔다.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늘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백사장 물가에 서는 가게도 늘었다. 외지인들이 횃집도 만들고 꽤 오래 장사를 하다가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다 철거가 되었다.

구술자는 처가인 수원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행담도를 지난다. 갈 때 올 때 한 번씩 들리면 많은 생각을 한다. 특히 휴게소 자리가 구술자의 집이었고, 그 앞이 밭이고 농장이 있었다. 예전에는 당산 자리도 있었는데, 그곳은 자잘한 나무가 아니라 우람한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그게 참 유명했는데 언젠가는 그 나무가 없어졌고 그렇게 마지막 남은 행담도에 관한 구술자의 옛 추억이 사라졌다.

구술자가 나고 자랐던 행담도가 휴게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다. 한 때는 행담도 아홉 가구가 서로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행담도는 당진의 젓줄이고 보물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행담도가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서산과 당진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웠던 곳 중 하나였다. 지금은 행담도를 기점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좋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웅포의 과거와 현재



최대성 (1950년생)
당진시 석문면 차돌백이길



구술자 최대성님은 해주 최씨 33세손으로 아버지 최춘내와 어머니 함창 김씨의 1녀 1남의 둘째로 태어났다.

구술자가 태어난 곳은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974번 지이고 지금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술자가 태어나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웅포의 자연환경은 바닷가 마을이고, 그가 어린 시절의 바다에서는 염전과 어업이 생활 기반이었다고 한다. 바닷가였으므로 주로 어업이 주산업이었고, 염전이 있어서 천일염을 생산하기도 하였었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구술자가 어린 시절에 일찍 타계하시어 구술자는 편모와 조부 슬하에서 자랐다.

구술자의 집안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1860년대 중반 구술자의 5대 윗대가 되시는 29세이신 감(甘)자 철(赫)자 선조께서 1860년대 중반쯤에 섬마을인 초락도에 들어오셔서 소규모 밭농사를 경작하셨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10여 년 후에 그의 외독자(外獨子) 상동(尙東)을 데리고 그곳에서 20여 리 떨어진 웅포(熊浦) 마을(차돌백이)에 이주하였다. 그 후로 세거(世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참고적으로 웅포(雄浦) 마을은 행정구역상 석문면 통정2리 4반(막고개 서북쪽)과 삼봉1리의 1, 2, 3, 4반을 통칭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정착하신 선조께서는 결혼하고 분가하시어 초락도에 들어오셨다. 하지만 그 당시 초락도에는 농토가 주로 밭이어서 밭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전답이 많고 해안

이 넓어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또한 해산물도 풍부한 옹포마을로 이주 정착하셨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 후로 자손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오고 있으며 구술자 또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선조들이 남기신 흔적은 주로 산소이다. 초락도나 교로리 등지에 산소들이 산재해 계셨는데 관리에 힘이 들어 최근에 공설 묘지에 가족 납골묘 형태로 이장을 하였다고 한다. 선대로부터 받은 가훈이랄까, 생활지침이 있는지를 물으니 조부께서 주신 다음의 생활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해라. 그리하면 굶을 때 죽이라도 먹고 죽 먹을 때 밥을 먹게 된다.

둘째, 남들과 송사하지 마라. 송사는 승패를 떠나 후대까지 원수가 될 수 있다.

셋째, 이웃을 돌보라.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베풀며 살면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조부의 말씀).

위의 지침은 지금도 구술자의 생활신조라고 한다.

구술자는 향리에서 석문국민학교(현재의 석문초등학교), 석문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수송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 비취볼 때 농업 쪽보다는 그쪽이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인상에 남는 은사가 있느냐는 면담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석문국민학교에 다니던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안영진 선생님께서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위인전을 학급생도 전원에게 구입해 주셨다. 그 내용을 숙지하여 그러한 분의 생활철학을 주입시켜 주셨는데, 이를 지금도 잊을 수 없으며 그런 생활관을 잊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의 말씀을 성년이 되어서까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그의 됴됨이나 인생관을 엿볼 수 있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교육이 사람의 인생행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실증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하여 삼봉고등공민학교에서 가정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한 7년 정도 봉사했는데,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 농업 쪽보다는 공업 분야가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석문농업협동조합 초창기에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에는, 석문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조합장직을 맡아 2018년까지 봉직하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만 외지에 나가 생활을 했을 뿐, 줄곧 고향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가 사는 마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가 사는 마을 지명에 대한 유래를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웅포’라는 지명에 대하여 삼봉1리 1반 해안가 U자 지형의 우측 상단 포락지에, 육지에서 15m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곶이 앞발을 든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곶 생김새와 흡사한 바윗덩어리가 있었다. 그 바위를 곶으로 환치(換置)하여, 곶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해서 곶개, 즉 웅포(雄浦)라고 했었던다. 그런데 석문간척 공사로 지금은 그 바위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는데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일반적으로 지명에 있어서 ‘곶’은 ‘곶’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론과 달리 특별한데가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차돌백이’라는 지명에 대하여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고 소개해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웅포 마을의 중심 쫓 되는 곳에 국수봉이라는 산이 있었다. 산속 중심에 조그만 굴이 있어서 그 굴속에서 국수가 조금씩 나왔는데, 언젠가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마을에 사는 차돌이라는 사람이 굴속에 들어가 국수를 꺼내기로 했다. 국수를 꺼내려고 굴속에 들어간 차돌이가 나오지 아니하여, 마을 사람들이 굴 앞에서

“차돌아 나와라, 차돌아 나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국수를 꺼내러 들어간 사람 ‘차돌’이는 아니 나오고, 희디흰 돌인 차돌멩이만 엄청 쏟아져 나와 이 일대를 다 덮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마을을 ‘차돌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면담자에게는 사실 이 ‘웅포’와 ‘차돌백이’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아직 정설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향토사학계에서 백제 부흥운동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학설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기 66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하여 패망하였다. 백제가 패망하고 나서 백제 땅에서는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본에 가있던 백제왕자 여풍장(余豐璋)이 건너와 백제 부흥군(百濟復興軍)을 이끌고 있었다. 서기 663년에 일본에서 27,000여명의 원군(援軍)을 보내어 백제 부흥군과 연합하여 백강(白江)에서 당나라군과 싸우다가 대패하였다. 이 백강이 어디냐 하는 것이 아직 학계에 정설(定說)이 없는데, 어느 향토사학(鄉土史學)자가 백강을 이곳으로 비정하는 학설을 발표하여 학계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확인된 정설은 아니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면담자는 이 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면담자는 구술자에게 이에 대하여 혹 들은 바가 있는지 질문을 해봤다. 그러나 구술자는 백제부흥운동군과 당나라군이 벌였다는 백강구 전투지가 이 근처라는 말이 전해오는 것은 들은 일이 없고 그런 주장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육성으로 듣는 푸레기 마을 변천사



홍성직 (1947년생)
당진시 석문면 송동길



가문 및 집안 내력

구술자 홍성직님은 2021년 현재 74세로 학곡 홍서봉의 22세조 13대손이다. 출생지는 남양 홍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는 석문면 초락도리 일명 푸레기 마을이다. 초락도는 학곡 홍서봉의 사패지로 승지공 홍낙연의 동생 홍박연이 사패지 관리 차원으로 낙향하여 정착한 데서 기인한다.

현재 초락도리에는 낙향조 홍박연이 약 250년 전에 직접 지었다는 초가와 그의 묘소가 있다. 또 경주부윤을 지낸 경주공의 묘소가 있고, 학곡공의 위패를 모셨던 별묘였던 사당 자리가 있었는데 수복 후 경기도 양주로 옮겨갔다. 남양홍씨 20세조 석벽공 홍춘경의 유훈도 있다. 석벽공 홍춘경은 부여 고란사 현판을 쓰신 분으로 '부소산 낙화암에서(扶蘇落花巖)'라는 시로 유명하신 분이다. 이분이 후손들에게 남긴 글도 있다. '오지자손 수백대 필 호형호숙(吾之子孫 數百代 必 呼兄呼叔)하라'다. 이외에도 통덕낭공을 지낸 낙향조 홍박연의 여덟 폭 병풍도 있다.

구술자 집안만의 전통을 들려달라고 하니 남양홍씨가 양주인 '송순주'를 소개한다. 송순주는 250년 전 낙향조 대부터 남양 홍씨 가문에서 빚은 술이다. 재료는 누룩, 찹쌀, 산제당에서 나오는 약수와 4월~ 5월에 채취한 송순이다. 누룩은 완전히 껍질 벗긴 밀을 가루로 만들되 반드시 초복에서 말복 사이에만 빚는다.

송순주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경주부윤을 지냈던 경주공의 배우자(부인 성주 이씨)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

서 한양 일대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 음식을 진상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때 음식과 곁들여서 송순주를 진상했다고 한다. 구술자가 2009년도에 향토사랑육성 사업으로 송순주 가공시설을 건립했는데 현재는 공장이 폐쇄된 상태라고 한다.

출생부터 유아, 청소년기

구술자 홍성직님은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64번지에서 태어났다. 석문면 초락도 출신인 아버지 홍연표와 합덕읍 소소리 출신인 어머니 전주 최씨 슬하 2남 4녀 중 셋째이면서 장남이다.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아래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둘이 있다. 구술자의 아버지 홍연표님은 조부인 홍순태 씨의 8남매 중 차남으로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 중노동으로 혹사를 당했다. 전쟁 막바지에는 대체 병력으로 남양군도까지 다녀왔다. 8·15해방을 맞아 귀국했으나 복막염 등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다가 구술자가 3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구술자는 삼봉초등학교와 석문중학교를 졸업했다. 기억나는 스승이나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사건은 없으나 교실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보탬던 일화를 떠올렸다. 학교가 바닷가 근처에 있어 책보에다가 모래를 담아 날랐다고 한다. 오전에는 바닷가에서 골재 나르는 일을 했고, 수업은 오후에나 받았다고 한다.

청장년부터 결혼, 가족

구술자는 석문중학교를 졸업한 후 석문 화서의원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화서의원이 문을 닫기 직전까지 약 삼 년 정도 의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서울에서 두 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친척분이 운영하던 연우사진관에서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앨범을 만드는 일을 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고향인 초락도로 내려와 가업인 농업을 상속받아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 구술자는 1977년 3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첫째는 글을 잘 쓰는 딸이고, 입술갈림증인 구순열을 가지고 태어난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딸이다.

푸레기 마을(초락도)의 어제, 현재, 미래

구술자는 푸레기 마을(초락도)의 어원을 풀 초(草)자, 떨어질 낙(落)자, 섬 도(島)자를 풀이하

여 전했다. ‘풀잎 하나가 떨어져서 섬이 되었다’는 전설을 기초로 일명 지푸라기가 푸레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구술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푸레기 마을은 약 120여 가구, 사오백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어촌마을이었다. 당시 당진군에 속한 섬 중 가장 큰 섬이었다고 한다. 초락도의 동쪽은 산악지역으로 실제 농지는 얼마 되지 않고 그것도 거의 천수답이어서, 주민들 대부분은 바다 의존형 생계를 유지했다. 지금은 좋은 어구가 많지만 그 당시는 어구가 없어 거의 맨손으로 낙지와 갯지렁이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린 시절에는 남양 홍씨 집성촌이어서 많은 일가친척이 함께 살았는데 교육과 직장생활 등으로 다 떠나서 지금은 약 이십여 세대가 살고 있다.

구술자가 초락도 마을에서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0년으로 40대 초반이다. 마을 이장을 칠 년 정도 하면서 홍씨 가문의 가양주인 송순주를 만들고, 푸레기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약썩찜질방 사업도 성황리에 추진하였다. 2000년도에는 약썩특화마을사업을 추진했다. 푸레기 마을에는 해변에서 해무를 맞고 자란 약썩이 지천으로 났다. 2006년도에는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썩 가공 사업이 마을 효자품목이다. 마을 특허와 관련되어 삼각산 등산로 개설, 호수 주변 생태 공간 조성,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험 및 숙박시설, 공동 화장실, 휴게실, 쉼터 등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송순주, 약썩 가공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했다.

현재는 경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구술채록하는 기간에도 구 회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느라 어렵게 시간을 내주었다. 경로당이 너무 노후하여 새로 짓고 마을회관과 합치자 바로 곁에 있는 구 회관이 별 용도 없이 방치되었다. 40여 평 되는 구 회관에 노인 분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샤워실, 식당, 추억의 영화관을 넣는 다목적복지관으로 개조했다.

구술자에게 어렸을 때 초락도에서 많이 잡혔던 어종을 질문했다. 주로 낙지, 송어, 농어, 꽃게, 굴, 조개, 김, 파래, 갯지렁이를 꼽았다. 그중 옛날부터 알아주는 상품이면서 마을 대표사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갯지렁이, 낙지, 김, 송어라고 한다.

초락도는 갯벌이 넓고 광활한데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갯지렁이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갯지렁이는 아남수산이라는 회사가 푸레기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일본에 수출했다. 홍무시라는 빨강 갯지렁이 가격이 1kg에 42,000원까지 했다. 그 당시 쌀이 한 가마니에 23,000원 정도였으니 홍무시 1kg은 쌀 두 가마 값이다. 하루에 한 사람이 대략 2~3kg 채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가정 네 식구가 나가서 잡으면 대략 5~10kg 채취했다. 초락도는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때라고 회고했다.

또 초락도 주민들이 주로 매달렸던 생업으로 낙지잡이도 있었다. 초락도 낙지는 서울 용산어시장과 온양어시장에서 주로 팔았는데,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푸레기 낙지라고 따로 담아 놓고 팔았다고 한다. 푸레기 낙지는 맛도 좋았지만 무척 컸다고 한다. 추녀 끝에다가 가을 낙지 한 코를 엮어서 달아매면 땅에 끌릴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인지 과장인지 증명할 길 없지만, 낙지 밭 하나만 잘라서 삶아도 한 접시 나왔다고 한다.

낙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임진왜란 때 홍씨 집안 어른신이 명나라 지원군 총사령관인 이여송과 술자리를 자주 했다. 한 번은 이여송이 명나라 안주인 계충(누에처럼 생긴 곤충)을 선조대왕에게 권했다. 선조대왕이 먹지 못하고 거절하자 작은 나라의 임금이라서 먹지 못한다고 조롱을 했다. 다음 술자리에서 선조대왕이 초락도 낙지를 술안주로 내놓고 맛있게 드시면서 이여송에게 권하였다. 이여송은 살아있는 낙지발이 꿈틀꿈틀 하자 먹지 못하였다. 그러자 작은 나라 사람도 먹는데 큰 나라 사람이 못 먹으면 체면이 서겠냐고 놀렸다. 그만큼 초락도 낙지는 한양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초락도 김은 일명 석문김을 말한다. 석문김은 매우 두껍고 맛이 좋아서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석문은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어서 어로는 주로 밭을 치거나 말목을 세워 그곳에 그물을 매달아서 물고기를 잡았다. 전어, 가오리, 간재미, 박하지, 꽃게, 새우, 농어, 장대 등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나왔다. 그중에서 가장 잘 팔렸던 어종은 주로 송어였다.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교로리 전설’에 송어가 등장한다. 실제로 전라도 사람인 강용화라는 분이 외다리(교로리) 송어를 다 수집해서 어란은 특별히 가공한 후 고가로 팔고, 내장을 빼낸 송어는 소금에 절여서 전라도 지역에 팔았다고 한다.

현재 초락도 특산품은 약썩이다. 60평짜리 약썩 가공시설 2동을 가지고 있는데 약썩 환

과 약쭉 발효액을 생산하고 있다. 약쭉은 소화불량, 부인병에 좋다고 한다. 약 20년 전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밭 경작으로 연간 건조가 약 60톤 정도 생산하여 동화제약에 납품했다고 한다. 현재는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판매처도 줄어들어 약쭉 작목반은 있지만, 자가 소진 정도라고 한다.

초락도 삼각산에 있는 산재당 약수는 옛날부터 유명했다. 초락도는 정월대보름이나 2월 초하루에 대동제를 지냈다. 대동제를 지낼 때 맨 처음 대동기를 삼각산 살망재 뒷산에 있는 정상에 꽂았다. 그런 후 산재당 약수로 빚은 송순주와 약수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산재당 위에 있는 큰 바위에서 주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보통 3일 정도 지냈다. 산재당 약수는 대호방조제가 생긴 후 주민들의 생업이 어업이 아닌 농업으로 바뀌면서 그냥 방치돼 갈대숲이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구술자는 2003년에 장비를 동원하여 산재당 약수터를 정비했다. 갈대숲으로 변한 약수터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 대동제를 지냈던 바위를 기억하여 찾아낸 후 주변에서 물구멍을 발견했다. 약수터는 최근까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까지 사용했는데 현재는 다시 방치된 상태다. 산재당 약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약수통에 그냥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한다.

초락도는 갯골이 얇아서 선착장은 없었고 해창과 삼길포에서 보내주는 나룻배를 이용했다고 한다. 초락도 사람들이 인천이나 평택을 가려면 해창 나루터를 이용했다. 당시 삼길포 나루터도 있었지만 초락도를 운행하는 나룻배가 없어서 해창 나루터만 이용했다. 인천 운행 노선은 해창, 난지도, 육도, 영흥도, 인천 순서다. 평택 운행 노선은 해창, 한진, 보덕포, 장고항, 국화도, 평택 순서였다. 그때 운행했던 배 이름은 왕경호와 칠복호다. 나룻배는 손님만 있으면 연중 24시간 운행했는데, 한 가정에서 보리 한 가마 또는 쌀 한 말만 주면 온 가족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었다. 나룻배에 얽힌 슬픈 이야기도 있다. 1955년경 초락도 주민 열여섯 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나룻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 초락도 주민 14명이 죽고 홍순주(당시 24살, 현재 90살)와 홍건표(당시 24살, 현재 90살)만 살아남았다. 당시 예닐곱 살이었던 구술자는 14명의 넋을 건지던 장면을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었다. 무당이 굿을 하고, 밤에 횃불을 밝히고, 머리카락 몇 올로 넋을 건졌다고 한다. 초락도 주민 중 지금까지도 14명의 제삿날이 같다.

석문에서 진행한 물막이 공사는 70년대와 80년대,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71년에 시행한 1차 연육은 해창과 일공구(추릉고지=출용곶)이다. 80년도에 시행한 2차 연육은 대호방조제 공사였다. 1차 공사는 해창과 초락도로 막는 공사였는데 난공사였다고 한다. 이유는 당시 장비가 없어서 순전히 인력으로 막았다. 투입된 인력은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전라도 지역에 7년 가뭄이 들어 수많은 사람이 1차 연육 공사장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개척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햇불을 켜놓고 일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방조제를 다 막고 난 뒤에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세웠다. 해창과 초락도 방조제 중간에 위령비가 있다.

초락도에는 물다리가 있었다. 71년에 농지개량조합 전신인 수리조합에서 삽교천 물을 초락도에 공급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초락도는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천수답밖에 없고 물도 매우 귀했기 때문이다. 물다리의 교각 높이는 5~6m 정도였고, 폭은 약 1m, 길이는 약 300~400m 정도였다. 시멘트로 만든 일자 형태의 물길이다. 수로 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각철로 채웠다.

70년대 초반 1차 연육이 진행되는 동안 뱃길이 막히자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려면 일공구 쪽으로 걸어가서 산을 하나 돌아야 했다. 그런 이유로 물다리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었다. 물다리에 철을 걸쳐놓아 그 위를 기어 다녔다고 한다. 바람 부는 날이면 휘청거려서 자칫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돌아다니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위를 걸거나 기어서 다녔다고 한다. 그 위험한 다리를 어떤 이는 비료 두 포대 지고 건넜다는 일화도 있고, 김문수라는 분은 쌀 한 가마니를 들고 건너왔다는 무용담도 전한다. 물다리는 그렇게 3년 정도 교통로로 사용되다가 정작 물은 한 번도 흘러보내지도 못한 채 1차 연육이 이루어져 방치되었다. 2006년에는 구술자가 새마을사업으로 그곳에 연꽃과 창포를 심었는데 상판이 기울어져 농어촌공사에서 철거했다.

초락도에는 섬이 세 개 있었다. 모도인 대달구지와 자도인 소달구지와 할미섬이다. 달구지란 닭구지라는 의미로 닭의 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호만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때 멸실 됐다. 대호방조제 건설에서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71년에서 74년쯤, 당시 새마을지도자였던 홍순주씨가 군도 8호선 공사를 주도했다. 군도 8호선은 할미당에서

장고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당시 초락도는 도로가 없었는데 흙을 성토하여 연육로를 만들고 버스 길을 개통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바위가 진흙탕에 빠져서 2003년도에 구술자가 삼봉에서 초락도까지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그 당시 초락도에서 삼봉으로 이어지는 버스길을 갑작골이라고 불렀다.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경운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동차나 버스도 엔진이 꺼져 사람이 밀어서 올라갈 만큼 험난해서 갑작골이라 했다. 2003년부터 초락도의 교통수단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군도 8호선이 70년대에 개통이 됐고, 647호 지방도로가 2003년에 개통됐다.

초락도에는 여섯 개의 염전이 있었다. 그 중 동광염전은 약 팔십 정보(이십사만 평)로 매우 큰 염전이었다. 이외에도 삼창, 터뒤, 벌개, 안벌, 새벌 등의 염전이 있었다. 새벌이나 안벌은 벌터라고도 불렀다. 벌터란 바닷물을 큰 용기에다가 끓이고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다.

초락도는 원래 섬마을 특성상 고립된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모두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따라서 이웃 간 인정이 넘치는 상부상조의 정서를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대호만 방조제 축조를 시작으로 647호 지방도로와 군도 4호선이 초락도를 관통하고, 38국도와 2020년에 삼각산 일대 산악지형 3.2km에 임도 개설 후, 그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급격한 마을 변화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컸지만, 간척지가 된 후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가 된 점은 매우 만족한 상태다.

구술자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계승해서 더 살기 좋고 쾌적한 초락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무수동 마을의 변천사



최경용 (1951년생)
당진시 무수동예길

최경용 선생은 읍내리 무수동에서 태어나 자라고, 무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읍내리 무수동 토박이다. 무수동에서 태어난 그는 3남 2녀의 장자로 현대문화에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도와 성실하게 농사일도 거들어 가며 형제간 집안간 우애롭고 화목하게 생활했다. 그는 장년이 되어 못다 한 학구열을 불태워 여러 대학 학과와 대학원까지 학업을 마치는 등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다가 농어촌 기반 공사에 입사해 평생 검소하고 모범적으로 공직에 근무하였다. 곁들여 예비군 소대장을 비롯하여 변화한 사회에 대응해 지역 봉사에도 열성이었다. 특히 그는 10여 년 이상 당진 읍사무소, 당진 1동 자치위원장, 이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금도 읍내 3통 통장 업무를 알뜰히 보고 있다. 특히 무수동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는 변화기에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읍내리 무수동 개발 반대 투쟁과 개발 방향의 제안, 이후 개발과정에서의 행정적 협조 등을 통해 지역 변화를 몸소 겪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구술자의 증언과 구술은 구술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 2020년대까지 약 50여 년의 읍내리 무수동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무수동은 춤출 '무(舞)', 소매 '수(袖)'로 마을 이름처럼 인근 시·군에도 없는 문예의 전당이 무수동에 들어 세워졌고, 경찰서와 축협 등 기관들이 들어섰다. 또한 본



인의 논 가운데 물을 수질 검사한 결과, 좋은 물로 인정되어 한동안은 당진 군민들의 약수 터가 되기도 했다. 읍내리 무수동은 천수답과 자체 수원이 있어 물이 풍부한 고라실답이 각각 반반 정도 구성되어 있으면서 농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당진의 구 터미널, 구 군청사, 구 경찰서, 구 시장, 현 시장, 현 등기소 모두 읍내리였다. 주요 옛 지명은 목사리, 생자골, 봉대미산, 청룡포리 등을 기억하고 있다. 중간에 낮은 구릉으로 골짜기와 낮은 고개가 있는 지형을 반영, 골짜기(골)와 고갯길(제백이, 재)을 지칭하는 지명들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읍내리 무수동은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었다. 전체 농업의 절반 정도는 벼농사이며 나머지 밭농사는 보리와 기타 채소 중심의 농업을 주로 진행했다. 그러나 구술자 아버님은 기술 전문학교를 나와, 농사는 물론이고 가마니 공장, 마대 공장, 발동기로 탈곡 도정, 명주 옷감도 생산했고, 어머니는 모시와 길쌈을 하였다. 읍내리 무수동은 지리적으로 당진 시내 변두리여서 시장에 내다 팔기가 쉬웠다. 또한 아버님이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과 사업을 병행하여 전답을 꽤 사게 되어 도지(임대) 일꾼을 두고 부유층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구술자는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하여 재산을 지켜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농업 생산 운영은 1970~80년대까지 전통적인 공동체로 품앗이 농업이 운영되었다. 소를 활용해 품앗이하는 등, 전통사회의 농업 전통이 80년대까지는 유지되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 역시 당진 시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다녀가며 대학은 야간으로 당시 보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5대가 당진초등학교 출신인 구술자 가문에는 증조부께서는 군청 직원으로 공직에 계셨고 조부 또한 공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는 6·25 동란에 지방 좌익에게 우익으로 몰려 산에서 산으로 생활해 왔고, 심지어는 친척 집 방고래 구들장 속에서 식구들이 가져다주는 밥으로 삶을 지탱하며 살아온 시대적 비극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구술자 아버지께서는 사무친 마음에 상처를 구술자에게 얘기조차 없이 마음속으로 소화하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목하고 동기간, 친척간 우애롭게 살아라”하는 아버지 무언의 행동 교육에 따라 이웃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남달리 많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구술자 아버지께서는 앞서가는 기계공학을 배워 농사와 곁들여 가마니 공장, 마대 공장, 발동기를 이용

하여 도정사업을 했으며,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명주 비단 옷감도 생산하고, 모시·길쌈 등으로, 앞서가는 영농 생활과 사업을 하여 부를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술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다수 원룸촌이 된 읍내동, 무수동에 삭막함을 느끼고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구술하였다.

원룸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민과의 대화가 전혀 안 됨을 구술자는 애석해 했다.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당진에서 번 돈을 외지에 가서 거의 사용한다며 당진에서 번 돈을 당진에서 쓰기를 소망했다. 구술자는 현재도 마을 일을 보다 보니까 더더욱 옛날 모습의 후덕하던 정에 대한 그리움들을 느낄 수 있었고, 현실 속 주민들의 삭막함에 대한 깊은 내용, 내막들을 알게 되었다.

구술자의 구술을 정리하면 읍내리 무수동은 크게 3단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2000년대 이전의 모습으로,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당진 시내의 배후 농업지역으로 전통적 농업의 주된 생산품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보리농사 등 주식 농업을 주로 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근교 농업으로 도심에 농산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생활권이 당진 시내여서 학교 및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하였고, 당진의 정기 5일장인 당진장에서 시장을 보거나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구술자는 특별히 선대 분들이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에 근무하였고 부모님이 축적한 경제 기반을 검소하고 성실히 지켜오며 형제간에 우애롭게 생활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무수동은 25가구, 읍내동은 500가구, 읍내리 무수동 전체를 보아 500가구가 넘는 약 2,000~3,000여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는 전통적으로 무수동 지역에 거주하던 전의 이씨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읍내동은 시내권이어서 여러 성씨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읍내리 무수동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당진의 변천사와 구술자의 구술에 따르면, 당진 버스터미널이 기존 당진 시내에서 수청리와 인접한 원당리로 이전되고, 당진시청이 읍내동에서 수청동으로 역시 이전되었고, 또 경찰서와 문예의전당이 무수동에 신축됨에 따라, 도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기존에 한가한 전원생활과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부모들이 지었던 집이 헐리고 수차례 개축이 되었고, 당진 시민들이 줄을 서서 약수터로 이용하던 논도 없어지는 등, 당진의 중심가로 변화, 개발되면서 무수동의 변화가 시작되

었다. 당시 구술자는 토지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아 조합장 격인 총 업무를 보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 반대 투쟁을 이끌기도 했지만, 이미 개발이 일정 궤도 이상 진행된 여건에서 결국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을 조정하면서, 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무수동 마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구술자 역시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선조들이 남겼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무수동의 역사는 구술자 집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오랫동안 대대로 살던 집터를 보존하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무수동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었고 당진 시내에 있던 경찰서가 집 근처로 이전되고 문예의 전당이 신축되면서 도시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결국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개발로 대대로 내려온 구술자의 옛 집터와 당진 시민들의 약속터였던 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읍내리 무수동은 당진지역의 약간 변두리였으나 최근 신도심권이 개발되면서 구도심권, 신도심권의 중심축이 되었다. 향후 더 사라지기 전에 지속해서 사진, 문헌, 문서자료의 확보와 읍내리 무수동을 비롯하여 당진 시내 중심축인 교통, 교류 등에 대해 구술채록과 자료조사 등을 통해 마을의 변천사를 규명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수청리 마을의 변천사



최명수 (1958년생)
당진시 용연동 발산2길

최명수 선생은 대를 이어 수청리에 거주하고 있는 수청리 토박이다. 수청리 2구의 토성인 전주 최씨의 종갓집에서 태어난 그는 1남 6녀의 독자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맹인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기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장년이 되어 못다 한 학구열을 불태워 대학까지 학업을 마치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다 변화한 사회에 대응해, 지역은 물론 외지에 나가서도 다양한 사업과 직업을 거쳐, 현재는 지역에서 조경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청리에서는 대대로 오랫동안 살던 집터에 2000년대 초반 통나무집을 짓고 살다가, 안골 오리촌이라는 식당을 개업 후 10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했다. 특히 그는 10여 년 이상 수청리의 이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특히 수청리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는 변화기에 이장을 맡으면서 수청리 개발 반대 투쟁과 개발 방향의 제안을 했다. 이후 개발과정에서 행정적 협조 등을 통해 지역 변화를 몸소 겪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구술자의 증언과 구술은 구술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 2020년대까지 약 50여 년의 수청리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수청리는 물이 좋고 맑다는 의미로 마을 이름처럼 물이 풍부했다. 비에 의존해 물을 조달하는 천수답과 자체 수원이



있어 물이 풍부한 고래실이 각각 반반 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농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수청리는 크게 1구와 2구로 구분된다. 1구와 2구로 구분한 이유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비교적 현대에 와서 분리한 행정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마을 공동체로서도 각각 별도의 자연부락을 이루며 구분된 형태로 살고 있었음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술자에 따르면 1구는 연안 차씨 집성촌이고, 2구는 전주 최씨 집성촌이며 규모는 대략 약 50여 가구 정도로, 1구가 좀 더 큰 규모였다. 1구와 2구는 현 시청과 복지회관 사이의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시청, 면천 방향이 1구이고 언덕을 포함해 터미널, 송산 방향이 2구였다. 주요 옛 지명은 고실, 안골, 새상골, 재백이, 고양재, 백장골 등을 구술자는 기억하고 있다. 중간에 낮은 구릉을 중심으로 골짜기와 낮은 고개가 있는 지형을 반영, 골짜기(골)와 고갯길(재백이, 재)을 지칭하는 지형들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구술자는 고실(2구)의 안골에 거주했던 것으로 증언한다.

수청리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마을이었다. 전체 농업의 절반 정도는 벼농사이며, 나머지는 보리와 기타 채소 중심의 밭농사를 주로 경작했다. 수청리는 지리적으로 당진 시내와 가깝고,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당진 시내에 접근하는 거점이다. 80년대까지 운영했던 송산의 오도항에도 접근이 편리하여 교통의 요지로 기능했다. 도심과의 교통이 수월했기 때문에 당진 장에 가서 채소나 두부 등 가공품을 팔기도 했다. 인근의 송산 오도항에 가서 생선과 농산물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근교 농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형태로 농업생산을 운영하였다. 특히 1970~80년대까지 전통적인 공동체 품앗이가 운영되어 소를 활용한 전통농업이 80년대까지는 유지되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 역시 당진 시내와 왕래하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외지로 나가서 유학하는 등 당시 보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을의 문화와 민속에 대해서는 1960년대 후반~80년대를 기준으로 구술하였다. 이미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당제나 동제는 사라진 이후로 서낭당이나 옷샘을 운영한 흔적이 있었다. 문둥이(한센병 환자)에 대한 경계 등 전통적인 인식과 함께 근대적인 마을 축제인 ‘콩쿨’이 열려 공동체 사회의 새로운 축제로서 각광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성촌으로서 전주 최씨의 제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밀주를 담그거나 우물을 파고, 전

통혼례식을 하는 등 당시 구술자가 자라면서 보고 참여했던 생생한 사회상을 구술채록하였다.

구술을 정리하면 수청리는 크게 3단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당진 시내의 배후 농업지역으로 벼농사와 보리 경작을 주로 하였다. 일부 근교 농업으로 채소를 경작하고 두부를 제조하는 등 도심에 농산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생활권이 당진과 인접하여 학교 및 각종 편의시설을 당진 시내로 왕래하였다. 당진의 정기 5일 장인 당진장에서 시장을 보거나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인구수는 1구와 2구(약 50가구)를 포함한 수청리 전체 약 100가구 넘는 500~800여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는 전주 최씨가 주민의 주축을 이루며 다양한 공동체 행사 및 축제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였다.

수청리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구술자의 ‘통나무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당진버스터미널이 기존 당진 시내에서 수청리와 인접한 원당리로 이전 신축됨에 따라 도시화의 물결을 간접적으로 영향 받게 되었다. 기존에 한가한 전원생활과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지었던 구술자의 통나무집이 버스터미널의 배후상가와 연접한 위치에 있어서, 당초 찻집이나 하려던 것이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1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한 점이 그러하다. 이 시기를 계기로 지역의 토지주가 외지 사람을 비롯한 투자자들로 변화하고 지역 주민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구술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의 ‘통나무집’을 중심으로 꾸며놓은 정원과 인근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 반대 투쟁을 이끌기도 했지만 이미 개발이 일정 궤도 이상으로 진행된 여건에서 결국 어느 정도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다.

수년간 버스터미널이 있는 원당리와 인접한 지역에서 개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속화시킨 계기는(구술자의 구술에는 빠져있다) 역시 당진시청의 이전으로 보인다. 수청리 1구에 2012년 이전 개청한 당진시청 신청사는 그 자체로도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인근의 당진복지타운 등 행정 기반 시설들이 지역 행정의 중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청리 주변 지역 역시 빠르게 도시화 되어 개발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청리는 대단위 토지개

발로 인해 아파트 주택 단지가 단계별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현재 수청리의 아파트 개발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단지 별로 입주하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청과 연접한 지역은 상업지구이자 행정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되었으니,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수청리 마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구술자 역시 본인이 나고 자라고 또, 노후를 준비하면서 지은 통나무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실에 큰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수청리의 역사는 구술자의 집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오랫동안 대대로 살던 ‘안골’의 집에 계속 살다가 2000년대에 통나무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 당진 시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집 근처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후 개발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응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개발로 구술자의 통나무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수청리는 당진 지역의 큰 축인 송악읍 기지시와 당진 시내와 오랫동안 해상교통의 거점이었던 송산의 오도항을 연결하는 교차점이었다. 또 당진 시내의 농업적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개발로 지역의 신도시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향후 더 사라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진, 문헌, 문서 자료 확보와 수청리를 비롯한 당진 시내 주요 거점과의 교통, 교류 등에 대한 구술채록과 자료조사 등을 수집하고, 규명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우동기님은 1956년 10월 28일생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1-4번지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해 온 성구미 역사의 산증인이다. 우동기님의 선친인 우기목씨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피해 경북 의성에서부터 멀리 당진 송산면 가곡리로 이주해 와서 고구마 재배법을 최초로 전파하였고, 법씨의 직파라는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었거니와 1960년대 초까지 성구미를 비롯한 가곡리 2구는 주낙과 갯갯(조개)에 의존하는 생활을 위주로 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집은 3가구로 전형적인 어촌 마을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경부터 원주민들의 2세대들이 분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구미의 주민과 가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송산 인근 마을에서도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거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어업활동은 부진하였고 농업 기술까지 변변치 않아서 주민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성구미 주민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서로 도와가며 편 가르지 않고 인정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였고 그래서 협동심도 매우 강했다.

우동기님은 어려서 크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는 집에서 다리 치료에 전념하면서 성구미 당산이나 모래톱에 나아가 모래성을 쌓거나 갯벌에서 망둥이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중요로운어장과 넘치는인정을 자랑하던 성구미 이야기



우 동 기 (1956년생)
당진시 중앙2로



구멍을 뚫고, 그렇게 바다에 익숙한 성구미의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가난한 집안에 5남 1녀 중의 4남으로 태어난 그는 크게 병치레를 하면서 자란 탓에 형들처럼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형들이 가져다주는 책과 아버지의 배려를 받아 배움을 이어갔다. 열일곱이 되던 해에 강화도에서 준치잡이를 위해 수많은 배들이 성구미 앞바다로 진출하면서 배에서 밥 짓고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화장’으로 뱃일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우동기님은 ‘화장-영자-사공’으로 구성되었던 당시 성구미 뱃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언하였다.

우동기님은 특히 성구미라는 마을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남다른 해박한 지식도 보여주고 있다. 성(城)자가 재(고개)를 의미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성구미 지명과 관련하여 마을에 존재하는 9개의 재를 밝혀내고 이를 지명에 관한 유래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바닷가의 목(項)과 관련하여 9개의 지명을 찾아내서 이를 지명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분명하게 존재하였던 ‘모래수승’을 바탕으로 구전되는 설화와 노인 분들의 증언을 통해 지명을 설명하는 남다른 식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모래수승이란, 성구미에 수백 미터 이어진 거대한 모래톱으로 주민들은 ‘줄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동기님은 이곳에 현대제철소의 등장으로 성구미 마을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과거 성구미를 찍은 사진을 모으고 보전하며 마을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해 직접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면서 “갯마을에 고동치는 아름다운 마을 사랑의 메아리”라는 글도 남겼다. 현재 진행되는 보다 정확한 구술채록을 위하여 40여 쪽에 해당하는 글을 직접 밤새워 쓸 정도로 성구미를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인사이다.

성구미에서 어부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동기님은 이곳 사람들이 어로에 종사하기 시작하던 초창기 때 선주와 선원들의 소득 분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풍선으로 낙배(목선)를 운영하던 시절에 형편없었던 배의 모양과 크기, 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획되던 어종에 대해서까지 어업 전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부의 시작이었고 가장 고생도 많이 한 주낙배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며 고증하려 노력하고, 당시 주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의 명단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낙배 이후 등장한 ‘낭장망’ 어구의 등장으로 어로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면서 어획량의 변화가 주민들의 삶을 어디까지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가를 역력하게 증언하였다. 1972~3년경에 기계배(발동기 동력선)가 들어올 때의 상황 역시 증언하였다. 당시 배를 가지지 못한 동네 주민들이 그물만 가져오면 구술자의 배를 얻어 타고 조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정확하게 자기가 잡은 것을 가져가게 보장했었다는 사실을 구술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푹푹 뭉쳐서 더불어 살았고 늘 부족해도 인정만은 한없이 넘쳤던 당시의 따뜻한 마을의 정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낭장망과 함께 시작된 ‘통발’이라는 어족의 유인책을 쓰는 어구의 등장에 대해서도 증언하였다. 통발을 처음 도입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스프링 통발의 이로운 점과 문제점, 분배기 통발이 나오기까지 어로활동의 변천 과정은 물론 어획량에 대해서 고증하였다. 구술자는 당시 성구미 앞바다를 ‘고기의 광’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당시에 잡았던 고기들은 어떻게 팔고 그것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는지도 설명하였다. 주변의 염전의 존재와 변화까지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증언하였다.

우동기님은 성구미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일명 ‘당산풍어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당산의 위치는 물론이고 당주를 어떻게 뽑아서 어떤 책임을 지웠으며, 어떤 활동을 어느 때 어떻게 전개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특히 얼마나 엄격하게 당제를 지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이와 관련한 전설들은 무엇이며 어른들의 증언은 어땠는지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정리하여 증언해 주었다. 여기에 성구미의 당산 할머니신과 인근 풍어제의 전통이 남아 있어 유명해진 내도리(內島, 안섬)의 할아버지 신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명하였다. 당진의 북서해안의 풍어제에 관한 설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제의 변천과 소멸과정, 믿음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밝혀줌으로써 당시 성구미 주민들이 당제를 모시고 얼마나 신성시 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우동기님은 배를 짓고 풍어를 기원할 때에 배에 달게 되는 깃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상기(上旗)의 모양새부터 크기와 기를 달게 되는 위치, 기간 등에서도 정확하게 증언하였다. 오색기와 구분하여 활용과정에서도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해 주었다.

성구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슴들의 생일’이라는 독특한 민속적인 행사에 대해서도 그 유래와 진행 과정 주민들의 참여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서, 매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성구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진심으로 존중했었는지, 애뜻한 정서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동기님은 서너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를 짓고 선주 노릇을 해왔다. 그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성광호에 대하여 크게 애착을 보였으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풀어냈다. 어떻게 어떤 연유로 배의 이름을 정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 유명한 목수를 찾아가 짓기를 부탁하고 어떻게 배를 처음 진수했었는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가족의 생계가 이어지고 삶이 영위되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때 성구미 바다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형성시켜 주었는지도 설명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육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수익을 올리고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였다.

그러나 구술자는 현대제철소가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성구미 마을이 제철소 땅으로 수용되면서, 마을의 모습 전체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삶과 애환이 들어있는 성구미 역사가 통째로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동기님은 자신이라도 먼저 나서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가능하다면 유물 전시관과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잘 보존되기를 소망했다. 특히 배를 만들고 짓는데 대목장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박창제씨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가능하다면 필자라도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길 바라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기에 먹고 살기에 힘들었던 시절 성구미의 겨울나기 식량으로 꼭 필요했던 굴에 대하여 언급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채록도 진행되길 기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초반까지 당진과 성구미의 대표적인 어종이었던 준치와 삼치에 대한 어족의 소멸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아산방조제와 삼교천방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전과 개발 그리고 상생과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앞으로 경제발전이 구상되길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끝으로 성구미포구가 폐쇄되고 주민들 전체가 마섬으로 강제 이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구술자는 지금도 성구미 포구를 지키며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동기님은 앞으로 성구미 주변 바다 생태계의 보전과 환경 개선사업에 뛰어들어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업에 관한 성구미의 역사와 전통이 2세, 3세들의 관심과 참여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

당진시
당진의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
(섬 포함)

간척과 방조제 건설로 인한 도비도의 변화와 주민생활



서중석 (1956년생)
당진시 석문면 초락1로



서중석은 대구(달성) 서씨로 6남 2녀, 남자 형제 중 차남으로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에서 출생했다. 주민 등록상 56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생년은 53년이라고 한다. 구술자의 가문은 원래는 대구 달성 지역의 유지였으나, 조선시대 천주교를 믿어 박해를 피해 다니는 가운데 구술자의 증조부가 공주 황새바위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 구술자의 선대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가깝고, 먼 친척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가문의 재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구술자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당진 난지도리 지역에 구술자의 아버지 서정태씨가 자리를 잡았다. 구술자의 어머니는 태안 안면도가 고향인데 아버지가 김 양식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안면도에 갔다가 인연이 닿아 혼례를 올리게 되고 서중석 씨를 비롯한 6남 2녀의 8남매가 출생하게 된다.

서중석씨의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당진 석문면 인근 해안가를 따라 자주 이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중석씨의 아버지가 안면도에서 배워온 김 양식 기술을 당진지역 인근 해안가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 알맞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잦은 이사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구술자의 아버지가 정착한 곳이 도비도였는데, 해안가에 있는 작은 섬으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육지로 학교에 다

녀야 했다. 도비도 지역은 당진 서북쪽 내륙 끝 지역으로 주변의 큰 섬은 대난지도가 있다. 난지도에는 분교가 있었지만, 구술자는 난지도 분교를 가지 않고 육지로 다녔다. 도비도가 갯고랑을 따라 육지와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기가 더 수월했다고 한다. 육지로 나갈 때는 전마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전마선은 노를 젓기도 하고 돛대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가는 방향과 바람이 잘 맞으면 도비도에서 육지까지 10~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거나 역풍이 불게 되면 노를 젓어 육지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로 힘든 이동이었다고 한다. 난지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당진 지역보다 뱃길을 따라 인천 지역으로 유학을 다녔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에 다녀야 했던 서중석씨는 주말이면 도비도 집에 왔다가 학교에 나가지 않는 일이 잦아져 학업을 마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시절부터 도비도의 갯벌을 다니면서 낙지를 잡아서 동생들의 먹거리를 마련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늦은 나이에 학업을 마치게 되어 더 이상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려 했지만, 기술을 배워서 인정받으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 친척의 공장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방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김 양식 및 인근 연안 어업에 전념하게 된다. 구술자는 65년 인생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구술자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당진 지역에 김 양식 방법을 아버지와 함께 보급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구술자의 아버지가 안면도에서 김 양식 방법을 배워 와 당진지역에서 최초로 김 양식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김발을 만들어 김을 양식했는데 구술자가 그물을 잘라서 김발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규모로 김 양식을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도비도에서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할 때에는 섬 전체에 구술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세 가구밖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 김 양식이 번성하고 갯벌을 활용한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12가구 정도까지 사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도비도에 처음 정착할 때는 살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직접 흙담집을 지어 생활했다. 김 양식에 성공을 하고, 주변 어가들도 점점 김 양식을 하게 되어 도비도 근해에서는 김을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게 되었다. 품질

좋은 김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광천 지역으로 김을 사러 가던 수도권 지역의 중개 상인들이 당진 지역으로도 많이 내려왔다. 특히 구술자가 양식하는 김은 수확 철이 되면 서로 가져가려고 중매상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까지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새로 시작한 김 양식 지역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영양분이 풍부해서 당진 김의 질이 더욱더 좋았다는 게 구술자의 설명이다. 당진 김이 유명해지고 도비도와 석문면 주변에서 많은 김 양식을 하여 80~90년대에는 정말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 좋은 시기에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당진 지역 김 양식의 선구자였던 구술자의 아버지가 김 양식을 위해 바닷속에 설치해야 하는 나무말뚝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침몰하여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비극도 함께 있었다. 선천이 당진 지역 김 양식 사업이 대규모로 성공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에 대해 구술자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다.

김 양식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이루어지는데 김 양식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갯벌이 구술자의 삶을 지켜줬다. 구술자는 자신을 낙지 귀신이라고 하면서 팔과 손을 보여줬는데 두툼한 손과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 믿음직한 팔뚝이 젊은 시절 강인한 바다 사나이의 모습을 바로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이는 것이 구술자의 손과 팔뚝에 굵힌 많은 상처다. 이 상처들은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면서 얻은 상처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갯벌용 호미나 삽을 이용해서 낙지를 잡았지만, 구술자는 손만을 이용해서 낙지를 잡는다고 한다. 50m 밖에서도 갯벌의 모양만 보고도 낙지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특별히 잘 잡히는 날에는 대나무 통발에 가득 낙지를 담고도 넣을 곳이 없어서 러닝셔츠를 묶어서 낙지를 담아 갈 정도였다고 한다. 많이 잡는 날에는 200마리도 넘는 낙지를 잡아 동네 주민들과 현물로 바꾸기도 하고, 낙지를 사러 오는 외부 상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팔아 생활에 보태기도 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요즘에도 종종 낙지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갯벌이 많이 없어져 예전만큼 많이 잡을 수는 없다고 한다.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간척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당진에서는 석문면이 대표적인 간척사업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급변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구술자 역시 간척사업과 대호방조제 건설로 인해 삶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양식사업을 하거나 인근 연안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생활하던 사람들은 생활 터전이 없어지면서 보상을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갯벌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간척사업 등으로 변한 도비도에 1998년에 관광휴양단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일시적인 호황을 보기도 했지만, 이후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현재에는 재개발과 매각 등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당진시가 매입하여 도비도, 난지도, 왜목마을을 연계하는 해양관광 특구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구술자는 바다를 ‘은행’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피게 해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발과 외지인들의 이주 등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당진 석문면 지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개발과 발전, 자연과 전통의 보전이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미용	346
어로	350
기물(늘씬기물)	354
양조	359
목상(산판)	364
이용	368
종 제작	373
사진관	378

금산군
금산의 직업

미용



길귀례 (1941년생)
금산군 부리면 경당길



말도 못 하게 어려운 시절

아버지는 삼 형제의 맏이었는데 육이오 때 인민군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사를 치렀다. 막내 동생은 피난 중에 유복자로 태어났다. 아무것도 없는 살림이라 외갓집에 붙어 살다가 어머니는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재가를 했다. 남동생과 둘이 외가집에 남겨졌다. 대전에서 미용기술을 배웠다. 그 당시에는 미용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

22살에 사촌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고 5일만에 결혼을 하고 들어와 살았다. 시집은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고리채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시집을 가서 자리를 잡으면 동생을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집을 온 것인데 계획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고민을 하다가 가출을 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집도 없이 남의 삼장에서 겨우 비를 피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고 도망 나왔다. 동네 처녀하고 입을 맞추고 밤에 도망을 하다가 추부파출소에서 잡혔다.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겨우 풀려났는데, 대전에 가서 미장원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해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빠를 찾아 갔더니만 네 운명이다, 시집으로 가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첫 딸을 낳고 지금까지 살았다.

어린아이 업고 머리 지지러 다니던 시절

예전에는 시골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읍내에도 미용실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읍내에 나와 머리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먹고 살자니 미장원을 낼려고 배웠던 미용기술을 발휘하였다. 어재리나 수통리, 심지어는 무주군 부남면까지 머리하기 어려운 마을로 들어가 파마를 해주었다. 머리를 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으니까 콩이나, 쌀, 밥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머리하는 동안 다른 아낙이 아이를 돌보아 주는 인심도 있었다.

머리샅을 곡식으로 받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머리에 이고 와야 했다. 등에는 어린애를 업었기 때문에 지고 오기도 어려웠다. 머리에 이고 출발을 하지만 중간에 쉴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머리에 올려 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짓눌리는 무게를 참으면서 올 수밖에 없었다. 잠시 쉬려고 중간에서 내려 놓으면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 였다. 게다가 다리가 놓이기 전이어서 배로 건너야 했고, 수통리 도파는 겨울철 물이 떨어지면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가 나무를 얹어서 놓은 다리라 무서웠다.

한번은 수통리에서 머리를 해주고 늦어서 집으로 오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아이가 경기를 앓아 당황한 적도 있다. 간신히 업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했다. 그 후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 주었으니 고맙기만 하다. 얼마 뒤에는 자전거를 마련하여 남편이 마중을 와주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당시 옷장사와 파마를 하러 다니지 못 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다

재가한 어머니 인생도 말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찾아오자 흩어졌던 동생들을 찾았다. 그동안 소식이 없던 동생들을 찾아 나섰다. 외가에 맡겨졌던 남동생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재가한 어머니였다. 시집을 다시 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1남 1녀를 두고 살고 있었는데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의붓동생들을 데리고 와 버

렸다. 막상 기거할 곳이 없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진산에 집을 지어 줄 터이니 와서 살라고 해서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다. 어머니는 진산에서 사시다가 작고 하셨고, 새로 생긴 동생이 그곳 진산에서 살고 하나는 대전에서 살고 있다.

동생들을 데려 왔지만 문제는 학교 보내는 것이었다. 없는 살림에 교육에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었지만 학교는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학비를 대주었다. 아래 동생들도 배다른 동생이라고 차별 두지 않고 지원을 해서 모두 학교에 보냈다. 지금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고 있다.

남보다 깡다구는 더 있을 거예요

자식이 성장해서 나가자 이제는 삼장사를 시작했다. 큰딸이 자리 잡은 마산부터 삼장사를 시작하였다. 다음에는 아들이 학업차 자리 잡은 곳에 자식들이 정착하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무대를 옮겨 삼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쳤다. 남편을 대신하여 소도 키웠다. 새마을 운동이 붐을 일으키자, 부녀회장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어 마을 개선에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는 전국이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녀회장을 맡았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로 불린다.

인삼을 선별하는 일도 했다. 사람을 불러 모아 팀을 짜서 일을 하는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어서 부수입이 적지 않다. 나이는 먹었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살아 온 생활에 자연스럽게 생긴 자신감이 아닌가 한다.

만주에서도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식구들 다 만주에 살았었다. 만주로 이주한 이유는 모른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 뿐이다. 농사를 지으러 가신 것인지, 독립운동 하러 가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만주에서 들어 올 때 배를 타고 왔다. 배를 타고 오는데도 염병이 돌아 많은 사

람들이 죽었다. 아마 염병을 피해 들어오신 듯 하다. 금산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육이오 때는 비행기가 폭격을 한다고 해서 이불 들고 피난을 가기도 했다. 불을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폭탄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인민군들에게 돌아가셨다. 외가가 안성이라 안성에는 자주 갔었다. 그래도 왕래하는 차가 있어 금산에서 안성까지 갔다. 차에서 내려 한 40리는 걸어서 갔던 기억이 있다.

군에서 주는 봉사상 받았어요

봉사상을 받았다. 열심히 활동하니까 준 상이다. 나이는 들었어도 건강하니까, 활동하면서 사는 인생이 즐겁다. 인삼도 재배하고, 생지황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 해서 아이들 교육시켜 자리잡고, 좋은 세상 만나서 외국도 마을에서 제일 먼저 가고, 핸드폰도 마을에서 제일 먼저 장만했다.

대전에서 생활하던 1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인지 남보다 일찍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진 것이다. 아이들도 잘 성장해 주고 또 시집 장가가서, 잘살고 있고, 손자 손녀도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어렵게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보다는 잘 살았으니까 후회가 없다. 아이들 키우면서 굶기진 않았다. 옷장사를 했으니까 옷도 남부럽지 않게 입혔다. 아이들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행복하다. 그래도 미안 한 것은 위에 두 딸이다. 어렵게 사느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하고 엄마 대신 집안일을 많이 하게 해서 할 말이 없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어로



김두석 (1944년생)
금산군 부리면 신촌1리



할아버지 적부터 고기 잡았어요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기잡이는 업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 농사가 주업이었고 고기잡이는 부업이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고기를 잡았고 또 손자가 고기를 잡아 3대가 대를 이었던 것이다.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또한 신촌 들은 물을 끌어댈 수가 없어 밭작물이 많았다. 특히 베를 심어 옷감을 만들어 팔았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어서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곳 신촌 들은 아무리 파도 돌이 나오지 않는 토질이다. 어재리 압수에 형석광이 있어 전기가 들어오자 전기 혜택을 보았다. 큰물이라고 불렀던 금강에서 물을 품어 올려 밭을 논으로 만들었다.

몇 살 안 되어 쟁기질로 논을 갈기도 했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는 겨우 나왔다. 학교 교사가 없어 형석광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뜯어와 학교를 만들던 시절이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부보다는 학교 교사를 짓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일을 해야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힘에 부치는 일이 더 많았다. 똥장군을 저 내는데 힘이 부치니까, 돼지우리 말뚝에 의지해서 지게에 옮겨 놓다가 그만 말뚝에 닿은 부분이 힘을 받지 못해 깨지는 바람에 똥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한번에 들어서 지게에 올려 놓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 삼장사를 하다 사망한 어머니

어머니 친정은 충남 공주 탄천면이었다. 그래서 삼장사를 공주로 다녔다. 자식들 대학 보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삼장사를 하셨단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나이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해 봄에, 어머니는 아들 4형제와 남편을 남겨두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이제 아버지 포함 남자 5명이 생활해야 했다. 동생들은 친척집으로 보내졌다. 대전으로 둘, 서울로 하나, 아버지와 함께 평촌에서 지냈다.

대전으로 나간 동생은 혼자 미장일을 배워 자수성가했다. 야물게 생활하여 이제는 풍족하게 살고 있다. 셋째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설상가상 막내는 갑자기 아파서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

아버지는 42살 때 일손을 놓았다. 예전에는 흔히 40살이 넘으면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산 그물을 최고로 알아 찌어요

3대가 금강에서 고기를 잡았다. 연산에서 만드는 그물을 선호했다. 물고기가 잘 걸리는 그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연산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몰랐지만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배달을 해주었다. 고기가 잘 걸리는 그물은 실이 머리카락 같이 가늘어야 된다. 가늘어야 투명하게 되어 보이지 않아 고기가 많이 잡힌다.

망이 좋아야 했다. 망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걸리면 주머니처럼 그물이 고기를 감싸는 모양을 말한다. 그래야만 한번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산 그물은 망이 좋았다. 그물을 부르는 말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작은 고기 잡는거나 큰고기 잡는 그물이나 모두 그냥 그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잉어나 쏘가리, 자라를 잡는 그물은 따로 있었다.

잘 잡히는 철이 다 다르다. 꽃고기는 삼장일을 할 때 많이 잡히는 고기이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암수가 다르지만 구별하기는 어렵다. 삼장일을 할 때 찌우면 꽃고기는 알을 낳는다. 배가 불룩한 것이 깊은 물에서 얇은 물가로 나오는 것을 잡는 것이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 어재리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때는 밧데리로 고기를 잡아도 심하게 단속하지 않을 때였다. 심지어는 고기잡는 용도의 밧데리가 나왔으니 말이다. 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 였다. 밧데리도 고기를 잡는데 명석말이하는 것처럼 고기가 기절해서 떠내려 갔다. 한 시간에 두 바께스를 잡았다. 그리고 한 시간 더 잡아 한 바께스 더 잡았다. 더 잡을 수 있었지만 담을 그릇이 없어 잡지 못 했을 정도였다. 그 고기는 얼렸다가 다음 해 할머니 제사 때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TNT, 그거 독(毒) 던지듯 했어요

밧데리를 사용하여 고기를 잡기도 했지만 깡이라고 화약, TNT를 사용하기도 했다.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면 흔한 돌 던지듯 했으니 불법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오른손 손가락이 두 개가 없다. 사람들은 깡을 하다가 잃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광양제철소에서 일 할 때 잃은 것인데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왼손잡이라 오른손을 쓰지도 않는데 말이다.

깡은 불법이었지만 형사나, 순경들도 사복을 입고서 틈만 나면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아 달라고 했다. 형사가 잡는지 누가 잡는지도 관심이 없었던 때였다. 고기를 잡아주면 또 쓰라고 서너개 주고 가서 요긴하게 쓰기도 했다.

그놈은 옷을 무지하게 곱게 입었어

계절에 따라 물고기의 종류도 다르다. 마지, 모래마지, 꽃고기, 능금피리 등이 계절에 따라 잡힌다. 능금피리란 놈은 고기의 몸 색이 아주 예쁘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 화려한 색을 자랑한다. 피라미 슷놈을 가라지라고 하는 데 이놈도 혼인색으로 화려하다. 암놈은 하얀색을 띠지만 수놈은 그야말로 아름답게 치장한 듯하다. 능금피리는 당시에도 흔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어름치도 많았다. 지금이야 보호종으로 잡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개체수가 많았다. 그밖에 쏘가리, 꺾지, 빠가, 메기 등이 많이 잡혔다.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는 장어가 많았다. 자라도 많았다. 물이 가물면 자라바위가 드러났다. 그러면 자라가 소복하게 올라와 앉아있었다. 자라는 한시간에 한 번 숨을 쉬는 놈이라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대전 사람들이

약에 쓴다고 그물로 다 잡아 간 후로는 자라 씨가 말라버렸다.

안 새지, 물 새게 하간

그물을 놓으려면 배가 있어야 한다. 업으로 삼아 고기 잡는 것도 아닌데 돈 들여 좋은 배를 구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손수 배를 만들어 사용했다. 함석 한 장에다가 합판 한 장이면 2인용 작은 배를 만들 수 있었다.

삼육짜리 합판을 구해서 셋으로 나누어 재단한다. 하나는 가운데를 잘라 앞뒤를 막는 판으로 쓰고, 또 반으로 잘라 옆을 대고, 함석으로 마무리하면 훌륭한 배가 된다. 물이 새면 탈 수 없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든다. 대나무 장대 두어 발 짜리로 밀며 가는데, 대나무 끝에는 쇠창을 달아야 사용하기 수월하다. 대나무 통에 공기가 들어 있어 자꾸만 뜬다. 여기에 쇠창을 달면 묵직하게 가라앉아 사용하기에 편하다. 쇠창은 읍내 철공소에서 주문하여 만들었다.

작년 여름 홍수 때 배가 떠내려갔다.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 그만 매 놓지를 안해서 떠내려갔다. 다시 만들고 싶은데 아들이 극구 만류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기물(늘싼기물)



박 병 종 (1946년생)
금산군 금산을 비단로



양은장사 행상하시던 아버지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태어났다. 지금이야 대전시 가양동이 도심 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대전에서도 변두리에 해당했다. 태어났을 때 부유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보은이나 회인 쪽으로 양은장사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나왔지만 인문계로 진학하기가 어려웠다. 가까이 있는 대전상고에 진학했다. 대전상고는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알려진 곳이다. 상고를 다녔지만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말았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정도였다.

상고를 중퇴하고 들어간 회사가 회상사였다. 회상사는 한국에서 알려진 족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출판사였다. 그곳에서 신자도 하고 문선도 하였다. 회상사를 2년 반 다니다가 21세 때 군대를 갔다. 1군 하사관학교에서 20주 교육을 받고 오뚝이 부대에서 30개월 근무했다.

꿈을 꾸고 지은 늘싼기물 상호

제대를 하고 할 일이 없었다. 마침 금산에서 그릇장사를 하는 형님을 찾아가 돕기로 했다.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금산에 자리를 잡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다. 60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과 함께 장사를 하다가 29살에 결혼을 하고 제금(땀살림)을 냈다. 하옥4리에 1년에 100만원 짜리 사글세를 얻었다. 그리고 형님이 바로 옆에 2평 반짜리 가게를 내주었다. 가게 상호 작명이 고민거리였다. 형님 가게는 남선그릇백화점으로 이미 이름이 있던 곳이다. 아무리 해도 상호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2주간 고민하다가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늘싼기물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바로 이것이다. 늘 싸게 판다. 그래서 늘싼기물로 상호를 정했다. 지금도 노인분들은 발음대로 생각하여 늘쌍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늘싼기물로 시작해서 벌써 50년의 시간이 흘렀다. 두 평 반이었지만 열심히 장사를 했다. 장날이면 3시 반에 일어나 물건을 진열했다. 1시간 진열을 해 놓고 손님을 맞았다. 가게라기보다는 노점이었다.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었다.

꿈으로 찾아 온 손님

점심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손님이 많아서 때를 놓친 칼국수는 툭툭 붙어 있었지만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없던 시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붙어서 못먹을 정도가 된 칼국수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40년 전 일이다. 하루는 그릇을 정리하다 보니 지갑이 하나 그릇에 들어 있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13만원이 들어 있었다. 그때는 매우 큰 돈이었다. 누가 놓고 갔겠지 하고 돈통에 넣어 두었다. 양은들통인데 지금도 그 돈통이 남아있다. 1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속으로 땡잡았다 했다. 1주일 더 기다려 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허술한 차림의 여자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면서 사장님이 꿈속에 나타나 자기를 찾더라는 것이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했다. 지갑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울면서 혹시 지갑을 못 보았느냐고 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지갑을 돈통에서 꺼내주었다. 13만 5천원이 정확하다고 하면서 붙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사는 곳이 어느 동네인지는 생각이 나질 않지만 그 후로 그 아주머니가 150만 원 이상을 팔아준 듯 하다. 그 동네가 대략 30호정도 되는 데 그 동네에서 누가 물건을 산다면 열 일

제쳐두고 가게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소개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었다. 그때 마음 속으로 지갑을 찾아준 것이 내게 참 좋은 일이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도 꿈속에서 어떻게 찾아오라고 했고, 또 그 아주머니가 제대로 찾아 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릇도 유행이 있다

40년 전에는 사기그릇이 유행했다. 대접, 공기, 술잔, 탕기 등이 모두 사기로 나왔다. 사기는 다루기가 불편했다. 조금이라도 깨지면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운반이 어려웠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벚짚으로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잘 포장을 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한 두개는 꼭 깨졌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기는 사품을 번다는 말이 생겼다. 많이 깨지니까 100원에 사다가 400원을 받았던 것이다. 사기그릇은 목포에 있는 행남사에서 생산했다.

사기그릇이 들어가고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스텐이라 불렀던 그릇인데, 25년 전부터 유행했던 듯 싶다. 깨지지 않고 반영구적이고 색도 안 변하고 가벼웠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냄비, 솥, 국대접, 공기 등 안 나오는 그릇이 없었다. 그 바람에 사기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장사는 목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 번 장소를 옮겼다. 더군다나 상가 전체가 불이 나서 새로 건축을 해야 하는 데, 터는 좁고 들어갈 상인들은 많고 해서 공간을 작게 설계했다.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점인데,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을 해보니,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상가를 짓는 동안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를 했는데 실통치가 않았다. 금산을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골목의 꼬트머리에 자리를 잡았으니 손님이 오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목이 좋은 가게가 있었는데 임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했다는데 임대로 들어오라니 맹랑한 소리처럼 들렸다. 고민을 하다가 찾아 가보니 아마 사기로 했던 사람과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었다. 다투었는지 어쩔

는지 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목은 좋지만 거래가 된 곳에 들어가기가 뭐해서 세를 주지 말고 팔라고 제안을 했다. 달라는 대로 줄테니 팔으라고 제안했고, 위약금까지 대신 물고 가게를 인수했다. 빚을 2천 얻어서 가게를 인수했다.

가게 터가 아주 좋은 곳이라 무엇을 해도 될 성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하던 곳에서 500원 벌었다면 이곳에선 1000원이 남는 장사가 되었다. 어렵게 가게를 마련했지만 판단을 잘했구나 생각한다. 장사는 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가게는 목이 첫째고 돈은 다음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처음 금산에 정착하면서 시장 바로 옆 하옥리에서 사글세로 살았다. 하옥리 이장집이 있었는데 가게도 가깝고 해서 이 집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집을 판다고 했다. 기회가 왔는데 막상 돈이 없었다. 당시 저금통 큰 것이 하나 있었다. 그 저금통을 열어보니 500원, 100원 짜리가 20만원이나 되었다. 우선 그 돈으로 계약을 했다. 잔금은 1달 뒤에 치루기로 했다.

이사하는 날 집을 옮기려고 하니 누가 문을 잠궈 놓았다. 내 집인데 누가 이렇게 문을 잠궈 놓았나해서 복덕방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사람 고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문을 부수고 이사를 했다. 이사한 다음날 이불집 양반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이불집 양반이 이장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잠궈 놓았던 것이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이집에서 장모님을 27년간 모셨다. 작은 딸 둘이 지날 무렵 대전에서 장모님이 오셨다. 장모님은 처남이 죽은 뒤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딸은 알아보는 데 사위는 알아보지 못하셨다. 처음 마련한 집에서 장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아이들도 성장하여 객지로 공부하러 나가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이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다. 읍내는 터가 없어서 성곡리에 1500평을 구입을 했다. 땅을 샀는데 넘겨 주질 않는거 였다. 1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넘겨 주지 않아서 알아보니 부동산투기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세금을 안 내려고 평당 15만원씩 준 것을 5만에 해달라고 했다. 터무니 없는 말을 묵살하고 땅을 돌려

받아 집을 지었다.

집을 짓고 나서 대전에서 치과에 근무하는 큰딸 보고 집구경 오라고 했더니 아예 집을 싸 들고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2년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계룡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 언니가 그러고 나가니까 기간제 교사로 있던 둘째 딸이 또 임용고시에 달려들어 3년만에 교사 시험에 붙었다. 학교다닐 때 하지 않았던 공부를 새집에서 공부하고 시험에 붙었으니 이 집, 이 터가 명당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넓은 새집을 가지고 싶다는 꿈도 이루어지고, 또 그 어렵다는 고시에 두 딸이 붙었으니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었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양조

부친의 대를 이어 양조장 운영

금산이 고향인 부친은 1960년대 초 처가인 추부에서 양조장을 시작하였다. 본래는 경찰공무원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경찰직을 그만 두고 양조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대략 1962년 개업한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구술자가 시작한 것은 80년 5월 31일이었다. 그때가 31살 때였다. 대전에서 건축업을 하다가 아버지 뒤를 이은 것이다.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전기공사에 뛰어들었다. 70년대 초 전기를 공급하는 전봇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 주로 충청도 서부지역을 담당했고, 현장과 집을 오가면서 사업을 했다. 친구와 함께 대전에서 건축업을 하기도 했다. 대전은 추부와 가깝기 때문에 두가지 일을 하는데 무리는 없었다.

지금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지만 그당시에 양조장은 그런대로 할 만했다. 운반을 담당하는 기사까지 직원이 7명이나 있었고, 술을 만드는 주조기사도 있었다. 주조기사는 전문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지만 술을 만드는 전문가였다. 당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방법으로 막걸리를 만들었다. 술을 제조하는 데 분업화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거리가 많아서 직원이 많았던 것이다.

양조장은 일찍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면 문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오 세 영 (1952년생)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반양식이었던 막걸리

사벽에 막걸리를 통에 담아 배달을 했다. 처음에는 나무통에 넣어서 배달을 했는데 빈통 무게만 해도 무거웠다. 후에는 플라스틱통이 나와 취급하기가 편했다. 장날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도 더 많은 막걸리가 소비되었다. 예전에는 뭐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막걸리는 서민들의 반 양식이나 다름없었다. 출출할 때 한잔 쪽 들이켜면 그만이었다. 또한 막걸리 제조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 쌀하고 누룩만 있으면 되었다. 장날, 특히 소전 있는 곳은 막걸리가 많이 팔렸다. 20리터짜리, 열 말, 이것을 한섬이라고 한다. 장날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예전에 좀 산다는 집이 결혼이나 회갑 등을 하면 두세 섬씩 해치웠다. 다른 것이 없어 막걸리는 그야말로 잔치집의 필수 음식이었다.

밀주단속을 엄청 했다

세무서에서 밀주 단속을 매우 강하게 하였다. 막걸리 양조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단지 주세를 받아내기 위한 단속인 것이다. 밀주를 담으면 세금을 받아낼 길이 없다. 그래서 밀주는 다른 단속 보다 엄하게 했다.

대전세무서 주세계에서, 주조협회와 같이 밀주 단속을 했다. 주로 세무서 퇴직한 사람들이 주조협회에서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은 밀주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주세검열을 매일 나오다시피 했다. 지금처럼 병으로 출하되는 것이 아니라 통술로(나주라고 함) 하기 때문에 계량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불시에 들이닥쳐 호되게 검열을 해 대는 바람에 안 걸릴 수가 없었다. 통술로 나가다보니 물을 더 많이 넣어 부피를 늘릴수도 있고, 유통상에 상할 수도 있고 등등 단속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모심을 때가 막걸리 성수기요

막걸리 밖에 없는 시골에서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 더군다나 유통산 구역제가 되어 놔서 소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러나 농사철, 특히 모내기 철은 10시면 술이 떨어진다. 이때는 100말을 해도 부족하다. 품앗이로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내기철에는 막걸리처럼 좋은 음료가 없다. 예전 농사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막걸리가 있어야 했다. 모심어 놓고 김매고, 또 벼를 베어서 타작할 때까지 막걸리 소비량은 대단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심고, 기계가 베어서 타작을 하니 누가 막걸리를 먹느냐 말이다. 막걸리 백 말을 걸러내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막걸리가 숙성되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5일 걸린다. 막걸리가 떨어지면 더 만들어 내는 방식을 양조장에서 각각의 비법이 있다. 막걸리는 두 종류이다. 미숙주로 내는 방법과 노주로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100프로 익기 전에 내는 미숙주와 완전히 발효되어 나오는 노주로 나뉘는 데, 미숙주로 내면 톡톡 쏘는 맛이 있고 먹기도 좋은데 보관이 어렵다. 그리고 자꾸 끓어 오르기 때문에 몽글몽글 해진다. 노주는 완전히 발효되어서 주정 도수가 세다. 상큼한 맛도 덜하고 탄산도 덜하다.

일이 있는 곳에는 막걸리가 있다

예식을 집에서 했던 옛날에는 잔치집에서 많은 양의 막걸리를 소비했다. 또한 초상집에서도 많은 막걸리가 필요했다. 장례식장이 나오면서 막걸리 소비량은 더욱 감소했다. 근처에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아는 곳이 양조장이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신발하고 쌀하고 막걸리는 대문밖에 차려 놓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네 초상났구나를 제일 먼저 알았다. 물론 그 초상집에서 쓸 막걸리를 더 생산해 냈다.

다른 지역을 침범할 수 없다

막걸리 판매 지역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추부지역은 11개 읍면 중에서 금산읍을 빼고 가장 면적이 넓었다. 그래서 추부에는 두 군데 양조장이 있었다. 세무서에서 아예 구역을 정해 넘지 못하게 단속을 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면 면허 취소 내지는 정지였다.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다양한 막걸리를 접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소비자는 선호하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고 판매를 하라고 했다. 자유경쟁이 아닌 불합리한 점은 있었지만 양조장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점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이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니 양조장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일이었다.

경기도 포천 막걸리가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계기를 맞아 지역 및 구역제가 풀렸다. 어느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이야기가 있는 포천은 전국으로 판매망을 열려니까, 그동안의 법규로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면서 병에 넣어서 파는 방법으로 유통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병에 막걸리를 담아 판매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었다.

병막걸리가 나오자 문제가 생긴 것이 냉장 보관시설이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냉장보관시설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마트마다 냉장고가 다 있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유산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상한다. 유통상에 있어 시간이 지체 되어도 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멸균 막걸리이다. 멸균 막걸리는 아예 유산균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멸균 막걸리로 허가를 받으면서 병으로 판매하는 대기업의 막걸리가 전국을 점령해 버렸다. 그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막걸리를 빚어 왔던 양조장은 가격경쟁에서도 열세일 수밖에 없다.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가격으로도 지역의 막걸리를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으로 만드는 막걸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영양가 없는 막걸리

살균, 멸균이 된 막걸리는 영양가가 제로다. 유산균이 전혀 없는 가공한 음료수가 되어버렸다. 막걸리는 국민의 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다. 다양한 소재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지만 유산균이 없는 막걸리는 더 이상 막걸리가 아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가 나오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막걸리를 생산해 내려면 투자비가 더들어 간다. 생산시설과 보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지방의 군소 양조장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것이다.

지방 고유의 막걸리는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어느 양조장의 막걸리가 맛있다는 평을 내렸었다. 이제는 생산의 균일화를 꾀하고 있어 고유한 맛을 찾기 어렵다. 누룩도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사용량을 조세계에서 정해 구입해서 사용한다. 또한 그 고장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지하수를 뽑

아서 막걸리를 제조하였다. 지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어디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3개월에 한 번 씩 깐깐한 수자원공사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물론 소비자의 위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권장하는 수돗물로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기피하는 것이다. 또한 막걸리라는 것이 만드는 전문가의 손맛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맛을 좌우하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맛의 막걸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목상(산판)



이용주 (1942년생)
금산군 남이면 원하금길



처음 시작한 목상, 사기당하다

집을 지을 때 쓰는 아시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아시바를 국내에서 조달했다. 중동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재가 없었다. 쇠파이프로 된 것은 한 참 후대의 일이었다. 아예 국내에서 벌목을 할 때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간 것이다. 국내의 목상들이 나무를 구해 보내는 것이었다. 벌목하는데서 나무를 구해 부산항으로 운반하여 넘기는 일을 했다. 78년 처음으로 목상일을 할 때,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고 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고향인 금산에서 구하는 것이 쉽겠다 싶어 산림청으로 가서 금산지역에 허가난 곳을 수소문했다. 재원, 진산 오항리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허가 받은 업자가 누구인가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목상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산판 일을 한 곳을 찾아 갔더니만 나무를 다 베어서 모아 두었다. 운반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한 사람이 중복된 것이었다. 한군데를 가보니 계약자가 세 명이나 되었다. 두 사람은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일단 사기꾼들을 잡아 들이는 것이 문제였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사기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기는 당했지만 빨리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사건 처리를 하다가 6개월이 그냥 흘러 버렸다. 그동안 나무는 썩어 버려 쓸모가 없게 되었다. 제원에 사 놓은 나무는 강물 건너에 있어 도저히 운반 할 수가 없었다.

계약한 사장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들어 줄 이유가 없었다. 한 개당 3500원에서 4000원 하는 나무를 만 개를 구했다. 부산까지 가지고 가면 1개당 1만원, 6000원이 남는데 운반비를 제하면 대략 3천만은 고스란히 남았다. 그런데 눈앞에서 모두 날리고, 계약금 받은 것 다 날리고, 할 수 없이 집 팔아 갚아 버리고 손 털었다. 그렇게 목상의 처음은 상처뿐이었다.

68년도에 시작한 총대장사

목상을 처음 나서 사기 당하기 전, 68년도부터 삼밭에 쓰는 총대장사를 했었다. 담양군 월산면 용공사 절산의 나무를 베어 총대장사를 했다. 당시 총대 하나에 26원에서 28원 정도였다. 나무를 베어 금산까지 싣고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엔 아직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이었다. 개통은 안 했지만 차는 목인하에 다녔다. 대전 안영리에서 복수 쪽으로 해서 금산으로 들어 왔는데, 담양에서 금산까지 오는데 열 여덟군데의 파출소를 지나야 했다.

파출소를 지날 때 500원씩 내야 했다. 당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400원이었던 시절인데 500원씩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열 여덟 군데를 지나면서 참 많이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잡혀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라도 지불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으로 산판에 뛰어들다

아시바 장사를 하려다 사기를 당하고 집까지 넘기고 남은 것이 없었다. 평택 안중에 도시 가스 탱크 공사장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빚을 내서 공사장 일꾼들을 상대로 식당을 낸 것이다. 소장에게 100만원을 상납하라고 한다. 그게 뭐 관행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소장인데 하는 생각으로 제때에 식대를 정리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100만원을 건넸다.

당시 식수 인원은 200명이었는데, 식권을 정리 해줘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 건의를 했는데, 세 달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 것이었다. 네 달이 지나서야 돈을 받았다. 그동안 비싼 이자돈을 내면서 돈을 구해 장사를 했으니 그 돈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평택에서 식당일을 접고 다시 남이면으로 돌아왔다. 일하던 회사가 울산으로 옮겨간다고 같이 가서 식당하자고 했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남이면에 들어와 벌목을 시작했다. 4,50년 된 나무가 많아서 돈이 될만했다. 기계톱을 구입해서 작업을 했다. 당시에는 기계톱이 흔하지 않을 때 였다. 담배농사를 많이 짓던 시절이라 담배를 짚으려면 화목이 필요했다. 나무를 베어서 나오는 잡목을 화목으로 활용하였다. 나무를 때기 좋게 잘라야 했기 때문에 일감이 많았다.

나무는 내 버릴 것이 없다

잡목은 화목용으로 썼고, 해태목, 김발로 들어가는 해태목을 여수로 많이 보냈다. 삼밭에 들어가는 총대처럼 생겼지만 해태목은 총대보다는 한치 더 길게 작업을 했다. 잡목이야 땀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종이공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나무를 뺏아서 종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종이공장은 대화동 공단에 있었다.

산림과 모과장이 표고버섯 재배를 권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4만 본, 5톤 트럭으로 100대분의 참나무를 구해 표고버섯을 시작했다. 나무야 산에서 작업을 해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종군도 공장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수작업은 주로 인근의 여자들이 담당했다. 양이 많다보니 일꾼도 많이 필요했다. 표고버섯을 해서 재미를 보았다.

1킬로에 25만원, 인삼 가격이 많이 나갔다지만 화고라는 표고는 인삼보다 가격이 더 나갔다. 당시 식당을 했는데, 표고를 넣은 요리를 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음식 가격을 파악하고 요리방법을 배워서 손님에게 냈는데,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왔다. 표고가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식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마당이며 심지어는 개울가에 상을 놓고 장사를 할 정도였다.

톱 기술자가 되다

장비가 좋아야 일에 능률이 난다. 40만원 하는 기계톱을 10대 샀다. 당시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 8000원이었다. 고가의 기계톱을 사 가지고 일꾼들을 하나하나 지도해서 일을 시켰다. 기계톱 사용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기계톱 맡기고 일당 만 2천원,

8천원이 보통 하루 품삭이었던 때 1만2천원씩 주면서 일을 했다.

기계톱을 사용하다 보면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러면 즉석에서 수리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기계톱의 장인이 되었다. 기계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베는 일꾼 이외에 잣대질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운반은 주로 경운기를 사용했다. 3톤 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나무를 운반했다. 큰 나무는 목도를 했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흔치 않았고,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트럭에 실었다. 오랫동안 산판에서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해서 일꾼들은 요령 있게 일을 해 나갔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이용



이유만 (1947년생)
금산군 금산을 비단로



16살 때 이발을 시작하다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본 북해도로 징용을 갔다가 4년만에 돌아오셔서 나이 50에 낳은 막내다. 할아버지 고향은 경주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가출 해서 대전에 정착했다. 아버지는 무녀 독남, 독자로 태어났으며 금산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으셨다. 아버지는 징용 갔다오면서 빈손으로 오셨다고 한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셨다고 한다.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어서 일도 못하셨고 일찍 작고하셨다.

68년도에 군에 입대했다. 처음에 이발병으로 근무를 했다가 전방 철책으로 전출을 갔다. 본래 몸이 왜소한 편이라 참 힘들었다. 더군다나 김신조가 넘어 와서 갑자기 복무기간도 길어지고, 훈련 강도가 더 강화되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극복했다. 현재는 다른 친구들보다 건강한 편이다.

이발은 61년도 16살 때 시작했다. 중학교를 다니다 말고 처음에는 중화요리집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 중화요리집을 그만두고 찾아간 곳이 이발관이다. 그때부터 이발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 당시에는 배달통이 나무통으로 되어 있었고, 음식 그릇도 커서 매우 무거웠다. 여덟 그릇을 배달하다 었는 사고가 나면서 중화요리집을 그만두었다.

명절 때의 진풍경

어느 때보다도 명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

던 것이 머리 깎는 일이었다. 종업원이 7~8명이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 몰려드는 손님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커튼을 쳐놓고 몰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불고대를 하는 시절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그날은 이발소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발을 했다.

처음에 들어가면 시다라고 했다. 물을 떠오고, 바닥청소하고, 한 1년이 넘어야 아이들 머리 감기고, 좀 지나면 어른들 머리 감기고, 1년이 지나야 면도칼 가는 것 가르쳐 주었다. 면도를 배울 때는 고무풍선에다 연습을 했다. 고무풍선을 말랑말랑하게 분 다음 비누를 칠하고 면도를 연습했는데 터지면 벤 걸로 간주했다. 주로 자기 팔에 연습을 많이 했다. 이발을 조금 배우던 시절이었다. 면도는 숙달이었다. 너무 늦혀도 베고, 너무 세워도 베어졌다. 그리고 손님 중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 사람은 좀더 신경을 써야지 방심하면 베기가 쉽다.

아침에 출근하면 면도 가는 것이 일이었다. 칼이 잘 갈리는 날이 있고, 잘 갈리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한사람 쓰고, 다시 갈고 해야만 면도가 잘 되었다. 일본에서 만든 면도칼은 그래도 여러번 면도하고 한번 가는 꼴이어서 그래도 수월했다. 지금은 칼날은 갈아 끼우면 되니 얼마나 간편한지 모른다.

20년 된 가위도 있어요

이발에 필요한 것은 가위다. 자기 손에 맞는 가위를 사용해야 머리가 잘 나오고 피곤하지가 않다. 가위도 숫돌에 갈아서 사용한다. 사용해서 닳아 버리는 것보다는 갈아서 닳아버린다고 보면 된다.

면도를 하다가 피대에 치대고 하는데, 그때는 칼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면도에 낀 쇠를 벗겨내는 기능이 있었다. 이제는 피대를 걸어 놓고 사용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양발기라고 한 손으로 고정하고 한 손을 움직여 머리를 잘랐는데, 조금 있다가 바리깡이 나왔다. 두 손으로 자르다가 한 손으로 자르니 편리하기 그만이었다. 이제는 바리깡도 들어가고 전발기라는 전기 바리깡이 나왔다. 현재는 전기로 하지 않고 충전해서 쓰는 바리깡을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발소에서 이발하기보다 동네에서 그냥 이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락 얼

마 주기로 하고 마루나 의자에 앉아서 이발을 했다. 지금이나 머리를 자주 감고 청결하게 하지, 예전에는 며칠씩 머리를 감지 않아서 이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머리에 기계충이라는 버짐이 많던 시절이어서 이발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

예전에는 머릿기름 많이 썼어요

요즘은 머릿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예전에는 머리를 자주 감지 않고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감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이발할 때는 국산 머릿기름이 없어 주로 일제를 사용했다.

예전에는 머리술도 많았다. 채소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머리술도 많았고 부드럽지도 못했다. 게다가 머릿기름을 자주 사용하여서 그런지 비듬이 많았었다. 찌꾸라는 머릿기름이 유행했었다. 옆 머리에 발라서 머리 모양을 고정하는 데 찌꾸를 사용한 것이다.

일제 머릿기름 경마라는 것이 있었는데, 향기가 매우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은 태평양화학에서 나온 APC포마드였다.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60년도에서 70년도까지 포마드 시대였다. 새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이발을 하고는 머리가 망가진다고 앉아서 자기도 했다.

금산에서 42년간 이발했어요

이발을 처음 배운 것도 금산이고,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곳도 금산이다. 금산에서 이발을 배우고 무주에서도 조금 있었다. 서울로 갔다가 인천에서도 있었다. 다시 금산으로 돌아와서 현재 42년간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다.

금산에서 처음 이발관을 시작한 곳은 터미널이다. 터미널은 항상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손님이 많았다. 터미널 2층에서 하다가 1층 빵집 자리가 생겨 1층으로 옮겨 22년을 했다. 차차 자가용이 늘면서 터미널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따라서 이발을 하는 사람도 감소했다.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것이 있어서 남에게 세를 주었다가 아예 이발관을 옮겨왔다. 그렇게 옮겨와서 이발을 한 것이 이제 22년이 되었다.

이발관이 금산에 120군데나 있었어요

처음 이발을 배울 때 금산 관내에 이발관이 10개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이발관이 갑자기 120군데로 늘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보리 낄 때 보리 1말, 나락 낄 때 나락 1말이 이발비였지만 한마을에 50호라면 적어도 남자는 2명씩만 잡아도 100명이었다. 50말이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였다. 그래서 이발관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대부분 기술이 있어 연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연 것도 아닌 시쳇말로 아매, 즉 불법이 난무했다.

불법이니 당연히 단속을 해서 막아야 했지만 단속을 나가면 문을 닫고 피해버리니 단속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이발관이 미장원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많았던 이발관이 27군데만 살아 남았다. 이와는 반대로 미용실은 20군 데에서 이제는 한 130군 데가 영업을 하고 있다.

미장원에 손님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용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령이어서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지 모르고, 대를 이어 할 사람이 없으면 이용업은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될 것이다.

수곡이발

이발비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곡식으로 이발비를 내는 것을 수곡이발이라고 한다. 주로 면단위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던 이발인데, 1년에 보리 한 말, 나락 한 말이 기준이었다. 어른들은 1말이었지만 아이들은 3되가 일반적이었다.

수곡이발은 1달에 1번 이발을 기준으로 했다. 한 달 안에 특별한 경우, 예식이나 잔치 등 머리를 해야 할 때는 돈으로 지불했다. 대부분 수곡이발은 간판 없이 이루어졌다. 거울하나 걸어 놓고 의자 하나 놓으면 준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머리를 감기지 않는다. 단지 머리만 깎아주면 되었다.

단골손님

처음 이발기술을 배울 때 오셨던 손님들은 이제 없다. 시간이 지나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단골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편안해서이다. 머리스타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 달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단골이었던 모 지역 서장의 머리를 겁도 없이 손을 대었다가 태워 먹고 혼난 적도 있었다.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발관 주인에게 혼줄이 났었다. 그 후로도 그 서장은 단골로 계속 찾아왔다.

단골손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다. 아직 가게를 내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어떻게 잘 보았는지 중매를 해서 얼떨결에 결혼을 했다. 일찍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서둘렀다. 일터에서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고 또 이용업으로 아들 셋을 낳아 가정을 잘 이끌었으니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종 제작

가방 하나 들고 올라간 서울

제대를 하고 집에 왔을 때 형님이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하고 있었다. 농사처가 많아야 거들 일이 있는데 막막했다. 가방 하나 들고 오라는데 없는 서울로 향했다. 앞길이 막막해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1원씩 빌어먹어도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빌어먹어야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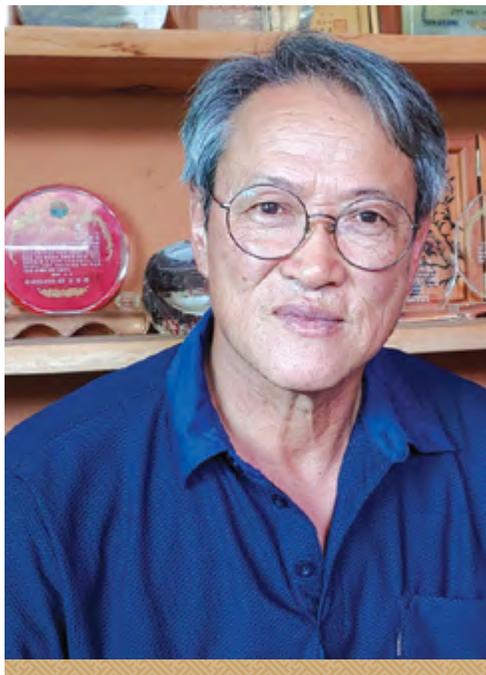
서울로 다시 와서 친구의 권유로 조각을 시작했다. 옥수동에서 목조각을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고구마를 먹더라도 그냥 먹지 않고 조각을 해서 먹던 생각이 났다. 남보다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장롱이나 경대, 화장대에 문양을 넣는 작업인데 아주 말단부터 시작했다. 사장은 동갑인데다가 나이 어린 고참들의 잔심부름이나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다. 5개월 뒤에 반장이 되었다. 3개월 연습하니까 할만했다. 손재주를 보고 사장이 반장 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1년 반동안 생활하다가 나왔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가 7만원 받을 때 5만원을 준다는 곳이 있어 이직했다.

종 만드는 곳과 인연이 되다

5만원 준다는 데로 이직을 했을 때는 이제 조각이 사양길에 접어 들게 되었다. 우연히 종을 만드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종에 들어가는 문양을 조각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하와이로 가자는 제안이 있어 망설이고 있었던 때였다. 하와이에 큰 절을 짓는 분이 하와이



전 병 식 (1951년생)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 1길



에 와서 조각을 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때가 27살 때,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자라는 야망을 가졌다.

종 만드는 곳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방이 필요하고, 일요일은 쉬어야 하고 한 달에 11만원은 주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더니 다 들어 준다는 것이다. 하와이를 가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그래 해보자 한 것이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장이 8만원 받는데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이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11만원 받는 대우였다. 종을 만들라는 운명의 계시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었다.

신갈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종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웠다. 조각을 해주면 그것으로 종을 제작하는 데 깔끔하게 나오질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네가 와서 다 해 쳐먹어 이놈아

종에 들어가는 조각만 담당했다. 그런데 조각을 해 준 대로 나오질 않았다. 종장에게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연장을 집어 던지면서 네가 다 해 쳐먹으라고 했다. 그 이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나올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조각만 했지 종을 직접 만들진 않아 방법도 모르면서 고민을 한 것이다. 결혼도 하고 2년 더 근무하다가 사표를 냈다. 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 만들자. 남산에 올라가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생각이 난 것이 엔진을 어떻게 똑같이 찍어낼까였다.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똑같이 찍어 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것이다.

종도 금형만 있으면 똑같이 찍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를 많이 했다. 시행착오도 많았다. 기존에 흙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종을 제작하게 되었다. 작은 종이지만 아주 깨끗하게 나와 인기가 있었다. 아주 잘 나와서 잘 팔리니까 다른 가게에는 주지 말고 자기 가게에서만 팔게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 왔다.

전통적 종 제작기술의 맥이 단절되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종 제작 기술이 단절되었다. 쇠붙이를 모두 빼앗아 갔기 때문에 종

을 만들 쇠도 없었고, 불교계의 상황도 좋지 않아 종을 만드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성의 유기도 일본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에서 사용하는 종을 만든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다.

광복 이후에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회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교회종도 처음에는 솔공장에서 만들었다. 주물을 다루니까 작은 교회종을 만들기는 쉬웠다. 교회종 만드는 공장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시작했다. 차차 절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또 일본에서 교회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와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가 대략 5,60년대 쯤이다.

3년 정도 종을 제작하여 팔았다. 종의 표면이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일이 바쁘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장의 규모였다. 30평짜리 공장으로 지방도 낮고 공간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차에 양산 통도사에서 인삼대종 만한 큰 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 왔다.

모든 것이 종으로 보였다

작은 종만 만들었는데 통도사에서 대종 제작을 의뢰받았다. 3년 기한으로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다. 2천만원으로 청원군에 500평 공장부지를 샀다. 그때가 89년도 였다. 그 후로 전국에서 종제작 주문이 쇄도하였다. 종에 파묻혀 산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청원군 증평에다가 부지를 마련하고 주물 공장 108평, 기숙사 60평, 창고 등을 지었다. 108평을 고집한 것은 물론 108번뇌를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다. 108번뇌를 해탈하는 종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4억 5천을 들여 공장을 짓고 통도사 대종을 만들어 놓고 개업식을 했다. 이 공장은 내 명의로 되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종 만드는 사람 것이다. 그렇게 남기고 싶다고 개업식 때 약속을 했다.

97년 IMF가 터지면서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종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빚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은행에서 독촉하는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공장을 달아야 하나 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때 알고 지내던 할머니가 종 하나를 시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풍백화점 근처에 살다가 참화를 목격하고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국 여러 사찰을 살펴보고 합천 해인사에 해 놓고 싶다고 했다. 합천 해인사에 갔는데 마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 소리가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참이라는 것이었다.

해인사 종이 10년 전에 제작한 종인데 업자가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소리가 좋지 않았다. 해인사에서 만장일치로 종을 새로 하자는 결론이 나서 3억에 종을 제작하기로 했다. 매달 3000만원씩 보내기로 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 급시지우가 이런거구나 했다. 해인사 종이 공장을 부도에서 살렸다.

안산 대창공업주식회사와의 인연

해인사 종을 만들기로 하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었다. 먼저 종을 만들 재료를 구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에 KS마크를 조달하는 안산에 있는 대창을 찾았다. 대창 회장님께 옆드려 절하고, 사정을 말씀드렸다. 회장님이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해서 대창에서 합금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했다.

해인사 종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종 안에는 잘 나왔는데 표면이 곰보가 되었던 것이다. 인을 잘 몰라서 배합을 잘못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 가시가 되어 빠져 나가면서 곰보자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었다. 15톤 무게의 종을 한 달 정도 작업을 해서 해체를 했다. 작게 잘라야 용광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벽돌만하게 절단기로 잘랐다. 에밀레종이 왜 실패를 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종을 만드는 데 관건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사심이 들어가면 종의 의미가 없다

종은 생활용품이 아니다. 절에서 사용하는 성스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작에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불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제작을 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인사 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졌다. 종을 만들면 먼저 있던 종은 없애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전의 종은 해당 절에서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경

우도 있다. 절대로 녹여서 재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후대에 종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해인사 종도 새로 제작했지만 예전 종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낙산사 종이 녹아 내렸다. 쇠는 900도가 되면 녹기 때문이다. 대창 회장님이 2억을 시주해서 낙산사 종을 만들었다. 그러나 낙산사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사람이 많이 시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 만드는 큰 불사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들도 시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쇠 값만 4천 들여 종을 만들었다. 나머지 인건비는 낙산사에서 부담했다. 스님에게 남은 쇠는 고향 금산에 인삼대종을 만들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아 인삼대종도 만들었다.

금산군
금산의 직업

사진관



전 병 열 (1946년생)
금산군 금산을 비범로



인삼으로 맥주 안주를 만들어 팔다

인삼은 고가로 가공해서 팔기가 어려웠다. 인삼을 수삼으로 판매한 역사도 짧은데, 인삼을 가공해서 판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것도 맥주 안주로 판매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생각이다. 대전에서 헌병대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대전의 술집이나 유성호텔 같은 곳을 거래처로 해서 인삼을 제공하였다. 아침에 물건을 대주고 저녁에 수금하는 방식이었는데, 인기가 있었다.

대전이라는 곳이 좁은 곳이고 해서 서울로 옮겼다. 서울에 와보니 대전은 그야말로 촌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대전에는 회전문이 없었는데 서울은 웬만한 업소는 다 회전문이었다. 서울에서 자리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서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인천으로 갔다. 인천으로 가니 미군을 상대로 하는 바가 있어 그곳에 인삼을 뒀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홍삼을 원했다. 미군들이 홍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기를 좋아했다. 홍삼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자리잡기가 어려웠다.

인천에서 다시 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에서 간첩으로 몰렸다.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듣는 노래라, 무슨 노래냐고 물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간첩이라고 아이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장사하는데 골몰했던지 그 노래를 처음 들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황당했다.

종로 2가에 가서 인삼을 삶아가지고 얼음을 넣고 차로 팔았다. 요정골목에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처음 먹는 인삼차라 인기가 좋았다. 당시 나이 스무살, 갓 제대하고 젊은 나이에 인삼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장사는 잘 되었는데 군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이 문제였다. 더군다나 그곳 깡패들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시비 거는 바람에 서울역 앞 한진고속버스 앞에서 노점상을 했다. 노점이 잘 되었는데 문제는 노점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노점 정비반장을 알게 되어 장사를 수월하게 했다. 반장이 너무 멋있어서 시를 한 편 쓰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간판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노점상을 전부 철거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남대문시장 안주 파는 잡화상에 수삼을 맡겨 팔았다.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다고 해서 가짜로 금산보험 몇 호로 가짜 허가증을 만들어 팔았다. 이어 종로2가에 인삼을 팔았다. 일본 여행객을 상대로 인삼을 썰어서 꿀을 넣어 먹는 건데 인기가 있었다. 의정부에서는 술집 아가씨가 알아보고 이종 오빠라고 소개하고 팔아주었다. 타향살이가 고달팠다. 숙박비, 식사 등 벌여보았자 나가는 것이 더 많았다. 금산에 내려와 선을 보고 금산에 정착했다.

녹녹하지 않은 금산 정착기

결혼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막일하는 곳을 전전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큰아들을 얻고 나서 막막했다. 금산극장자리 아래에 신춘여관 부근에 점포 '부음사'라는 가게를 얻었다. 그 자리가 궁합이 맞았는지 35세에 집을 샀다. 인생 일대 가장 즐거운 때였다. 그 이후 무엇을 사도 그때처럼 즐겁지 않았다. 20대 초반 방향을 끝내고 28세에 결혼을 해서 7년만에 집을 구입한 것이다. 안식구 결혼반지 팔고, 결혼전에 있었던 15만원에 5만원 얻어서 20만원 보증금 주고, 15만원 가지고 시작한 가게에서 7년만에 집을 구입했으니 꿈만 같았다.

전기재료, 라이터, 만년필 등 그야말로 잡화상이었다. 카메라 대여업과 등산장비 대여업도 하고 레코드판매, 테이프 판매, 낚시도구 등을 팔았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해달라는 것이 유행이어서 '동음사'라하면 금산에서 다 알아 주었다. 당시 금산에 잡화상이 많았다.

물건은 대전에서도 구입해 오지만 주로 서울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해서 팔았다. 서울에 물건을 하러 가면 잘 차려 입고 가지 않았다. 그냥 슬리퍼 신고 갔다. 왜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온 것처럼 느끼도록 했다. 물건을 구입해서 버스로 신고 왔다. 물건을 자주 사러 가니까 서울에서는 도매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택배가 없었던 시절,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사서 버시를 타고 내려왔다.

낚시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와서 찾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팔았다. 정보는 주로 손님들에게 얻었던 것이다. 카메라도 문외한이었다. 그런데 사진사 한분이 오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살다보면 인연을 만나게 된다

카메라는 카자도 몰랐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가게에 와서 한번 해보라고 했다.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원하는 바람에 카메라를 하게 되었다. 대전까지 데리고 가서 카메라, 확대기, 현상약 등을 구입해 주고 현상하는 방법, 인화하는 방법 등을 지도해 주었다.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하면서 발전했다. 당시는 개인이 찍어 온 것을 현상, 인화해주는 것이 많았다. 특히 처음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왔을 때 현상을 잘못해서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못 찍어서 그렇다고 돌려 대기도 했다. 웃지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취미가 사진이 되어 한 20여 년 넘게 하고 있다.

경기는 안 좋아도 금산에 사진관이 많았다. 여러 사진관이 있었는데도 인기가 있었던 것은 부인 덕이다. 손님들에게 잘해주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았다.

돌출행동의 젊은 시절

가로수를 3개 베어다가 백을 걸어놓고 복싱 연습을 했다. 산에 가봐야 베어 올 나무가 없어서 가로수를 베어오기로 했다. 산마다 모두 민둥산이어서 기둥으로 쓸만한 나무는 전혀 없었다. 겁도 없이 가로수를 베 올 작전을 세웠다. 하루 저녁에 하나씩 베어 와도 당시에는 관심들이 없었는지 아무 탈이 없었다. 뒤처리를 잘 해놓고 오니까 발각이 되지 않았다. 혼자서 운반하기가 어려워 친구들 셋과 함께 실행에 옮겼다. 함께 가로수를 베어 온 친구는 현

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 그 친구는 2살 연상이다. 젊어서 같은 또래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항상 연상들과 친구하고 지냈다. 그런 친구들 중에 경찰관 살해사건으로 무기를 받고 징역을 살다가 15년 살고 나온 친구들이 있다. 금산에 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꼭 찾아와서 부인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당시 방이 한 칸이었으니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너그러움으로 마을 부녀자들을 이끌었던 새마을부녀회장, 구능수	384
마을 창고를 지어 마을 공동의 재산을 일군 새마을지도자, 김기복	389
저수지를 논으로 일구어 마을 재산을 만든 새마을지도자, 김진선	395
부여 새마을운동 행정의 살아있는 역사 전 부여군청 새마을과장, 송광섭	401
품이 넓은 제1대 부여군 새마을부녀회장, 송명자	408
봉사정신과 쾌활함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임천면 새마을부녀회장, 오순동	415
마을 사람들의 신임이 준 책임감으로 새마을운동의 길을 걷은 새마을지도자, 이서규	419
아홉사리 고개를 전부 일궈서 길을 낸 새마을지도자, 조중성	424
틀림없는 사람이 걷은 새마을지도자의 길, 황의찬	430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너그러움으로 마을 부녀자들을 이끌었던 새마을부녀회장, 구능수



구능수 (1940년생)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19살에 혼인하다

부여군 남면 삼용리 마을 부녀회장을 거쳐 부여군 남면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한 구능수는 1940년 12월 26일에 서천군 판교면에서 태어났다. 과자는 구경도 못하고 과자 대신 깻묵을 먹었던 시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의 7남매 중 맏이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부여 남면으로 19살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구능수의 고모가 중신을 했는데, 혼례식날 사진관에서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사진관 안에 거울이 있어서 쳐다봤는데, 마침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남편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던 것이다. 시집을 왔을 당시 남면 삼용리 마을은 아주 빈곤이었다.

시아버님의 추천으로 새마을운동에 입문하다

구능수의 시아버지는 인품과 인물이 아주 좋은 분이였다. 1977년 무렵 시아버지가 마실을 다녀오시더니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부녀회장을 뽑는다’고 하며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려면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구능수의 시아버지는 ‘마을 부녀자 가운데서 책임자가 없으니 며느리를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로 내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던 것이다.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구능수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듣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구능수의 새마을운동은 이

렇게 시작이 되었다. 새마을부녀회가 생기면서 남녀 할 것 없이 함께 일을 하니 마을 안길 넓히기 등 새마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며느로서의 가정 일도 적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마을 부녀자들을 대표해서 마을일에 참여하도록 내보내주신 시아버님의 배려가 있어, 마을의 여성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마을길 넓히기 사업 도중 44명의 회원으로 새마을부녀회를 조직하다

구능수가 시집을 와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까지 삼용리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마을로 차가 들어올 수 없었다. 구능수가 새마을사업에 참여할 무렵에 서야 마을로 들어오는 길의 확장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는 마을부녀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냇가에서 자갈을 퍼다가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구능수는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역세게 하는 편이었다. 마을 이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은 무조건 같이 해 주고 협조했다. 삼용리 새마을부녀회는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도로 확장 사업 중에 조직하였다. 44명의 마을 부녀자들이 회원이 되었고, 돈 3백원씩을 거두어 최초의 부녀회 기금을 마련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녀회기금을 만들다

새마을부녀회장이 된 구능수는 마을부녀회 회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새마을부녀회 기금을 만들어갔다. 구능수를 비롯해 삼용리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부녀회 자금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한 것은 공동의 부녀회자금으로 마을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각 회원들에게 300원씩 모아 만든 최초의 부녀회자금에 각각 500원씩을 더 내서 모았다. 이렇게 모은 부녀회 자금은 비록 적은 금액이었으나, 이것을 종자돈 삼아 명절에 생선을 대량으로 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명태와 같은 무거운 생선을 함지박으로 이고 와서 마을의 각 반으로 나누었고, 각 반별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각 가정마다 판매를 했다. 설과 같은 명절에는 대체로 부녀회에서 판매하는 생선의 판매성과는 좋았다. 명절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나 구매를 했기 때문이다.

문종이와 아이들 점퍼도 판매하다

부녀회 기금 마련으로 판매한 물품 가운데는 문종이도 있었다. 집집마다 가을이 되면 나무 문살에 창호지를 새로 발라서 사용했는데, 부녀회에서 문종을 대량 구매해서 팔았다. 문종이는 읍내의 장판 가게 등에서 사 왔는데, 판매하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할 수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겨울에는 서울의 지인을 통해 아이들 점퍼를 가져다 팔았다. 그전에는 솜을 넣은 점퍼가 없었는데, 1970년대 후반 무렵에 솜을 두툼하게 넣어 따뜻하게 만든 점퍼가 나왔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거의 한 벌씩 구매를 했다.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아주 큰 금액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모아진 이익금으로는 쌀을 사서 장리를 놓았다. 이렇게 시작한 부녀회의 공동자금은 쌀 45가마니 규모로 늘어났다. 공동자금이 늘자 처음에는 부녀회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논 서너마지기를 사두려했으나 부녀회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기금 일부를 남겨두고 회원들에게 금반지를 해 주었다.

부녀회원들, 마을회관 짓기에 참여하다

삼용리새마을부녀회는 마을 회관 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자갈이 운반된 후, 이 자갈을 마을 회관의 시공 부분에 옮겨 부어야 했다. 부녀회 회원들은 함지박을 이고 와서 자갈을 옮겼다. 건축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 외에도 회관 내부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집기 등도 부녀회 기금으로 장만하였다.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한 것도 부녀회였다. 마을 여기저기에 바가지샘이라고 해서 물이 나와 고이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염이 되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비위생적이어서 상수도를 설치했다.

공동 퇴비장을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만들기도 했는데, 부녀회원들은 퇴비장 조성 사업에도 참가했다. 당시 퇴비의 양이 많으면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상을 받기도 했는데, 부녀회원들도 좋은 풀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풀을 베어다 퇴비장에 쌓았다. 구능수는 당시를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일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설 무렵에는 자신이 시집와서 처음 보았던 형편

없었던 삼용리 마을이 달리 많이 달라졌고, 자신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면부녀회장으로 임명되다

부여군 남면에는 25개 마을이 있었는데, 구능수가 사는 삼용리 마을은 새마을부녀회가 다른 마을에 비해 일찍 조직되고 운영이 잘 되었다. 당시 남면 마을 가운데는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마을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남면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될 당시 면사무소에서는 구능수가 남면새마을부녀회장의 적임으로 거론되었고 구능수에게 남면새마을부녀회장을 맡도록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사양하고 남면새마을부녀회 회장을 맡지 않으려했으나 부면장이나 담당 직원들의 추천하였다. 이 당시는 구능수가 40대 후반 정도 무렵인 1980년대 후반이었다.

구능수가 남면새마을부녀회장을 맡아 볼 무렵 당시 부여군새마을부녀회 회장으로 송명자 회장이 활동하였다. 면회장의 역할은 삼용리새마을부녀회장때와는 달리 더 어려웠으나, 남면을 대표하여 각 마을의 새마을부녀회장들을 이끌고 부여군새마을부녀회에 활동에 참여하며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남면부녀회의 활동

구능수가 대표로 있었던 남면새마을부녀회의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꽃길가꾸기였다. 회원의 밭 200평을 빌려서 꽃묘를 부었다. 이렇게 가꾼 꽃묘는 남면의 여러 도로변에 식재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소문이 나면서 다른 면협회나 이웃 마을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평가가 좋았던 사업에는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면도 있었다고 구능수는 회상하였다. 꽃길 조성 사업이 한창일때는 길가에 인접한 논둑에 심은 콩도 다 뽑아낼 정도였다. 당시 새마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서 콩을 심었던 주인들이 콩을 뽑고 꽃을 심는 것을 양해해 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한 일이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남면부녀회의 기금 마련

마을부녀회장 역임 당시도 회원들과 더불어 기금마련을 해서 마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구능수는 남면새마을부녀회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새마을사업에 사용했다. 기금을 모았던 대표적인 방법은 모심는 철이 되면 회원들이 모심기에 참여해 임금을 받아 모으는 방식이었다. 부녀회 회원들이 모심기에 참여할 때면 부면장님이 나와서 못줄을 잡아주기도 하고 재미있게 일을 했다

너그러움으로 마을 부녀자들을 이끌며 대통령표창을 받다

구능수는 타고난 성격상 어떤 일에 대해 불평하고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다. 키도 크고 걸음걸이도 빨라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 젊은 시절 너무 억척스럽게 근력을 써서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구능수의 이러한 노력은 대통령 표창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1987년 11월 3일 성남의 새마을연수원에서 생활교육을 마치는 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구능수는 현재 새마을부녀회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다.

어린시절

김기복은 부여군 합송리에서 1938년에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해방이 되던 해에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 다닌 것은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업시간에 일본말도 배우기도 했고, 가나모토라는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남아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4km 정도였는데, 벗짚으로 만든 짚신을 신고 다녔다. 비가 오는 날엔 신발이 흙길에서 망가지고, 하루만 신어도 구멍이 났다.

그러나 김기복은 어머니의 모시 길쌈 손재주가 좋아 주변의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생활고는 크게 겪은 편은 아니었다. 김기복의 집에서는 모시 농사도 했었는데 부여장에 팔아서 수익을 내었다. 아버지는 해방이후 적산토지를 조금 얻어서 농사를 지었고, 나중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았다.

합송리의 갈대밭이 마을이 되다

합송리는 합송1리, 합송2리, 합송3리를 통틀어 불리는 마을이었고 원래 이름은 송당이였다. 1940년도에는 인구가 적었지만 김기복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 앞벌에 갈대밭 개간이 시작되었다. 백마강 인근에 자리한 입지상 습지인 갈대밭 개간을 위해서는 우선 제방 공사를 해야 했다. 제방 공사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시작을 했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제방을 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방쌓기는 장정들이 흙을 저다 쌓아서 완공을 했다. 제방이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마을창고를 지어
마을 공동의 재산을 일군
새마을지도자,
김기복



김기복 (1939년생)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



완공된 이후 갈대밭을 농지로 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이곳에 가옥을 짓고 외지에서 이주민들을 유치하여 합송리의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합송리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 지금은 수박 농사를 많이 하고 있다.

6·25 피난과 마을 사람들

6·25 때 배로 백마강을 건너 피난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백마강 일대를 폭격한다는 소문과 함께 30리 밖으로 피난을 가라는 경고를 듣고, 김기복의 가족은 합송리에서 30리 떨어진 구룡면 방축리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서는 토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피난 생활을 했다. 6·25 당시 합송리에는 인민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 명 있었는데,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닭이나 토끼를 있는 대로 잡아먹고 행세를 했다. 9·28 수복 이후 이들은 가족들을 남겨버리고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합송리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남겨진 가족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고 큰 문제는 없었다.

합송리의 칠석 행사

합송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 총회라고 해서 정기총회를 했다. 그리고 보름놀이, 옷놀이 행사 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칠석 행사가 가장 규모가 크다. 칠석 정도 되면 모내기도 다 끝나고 농사일이 조금 한가할 때라 마을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사다 잡아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기도 했다. 한편, 칠석 행사를 위해서 마을사람들에게 추렴을 해서 비용을 했는데, 풍물을 치면서 각 집으로 다니며 돈을 모으기도 했다.

1977년 새마을 지도자를 말다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던 김기복은 뒷집의 어른이 중매를 해줘 23살에 혼인하였다. 혼인 후 군대를 다녀오고,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에 입문하게 된 것은 1977년이었다. 김기복의 새마을운동 입문은 자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마을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마을에서 시행하는 지붕 개량 사업을 돕느라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마을의 임원 중 한 명이 김기복에게 새마을 지도자를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던 이가 마을일을 불합리하게 일을 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김기복에게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다. 그 부탁을 받고 나서 김기복은 봉사정신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맡게 되었다.

새마을 지도자는 보수가 없지만 마을을 위해 솔선하는 마음으로 임했고, 잘 살기 위해 추진하는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였다. 당시에는 어딜 가나 새마을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우대를 해주어 뿌듯한 마음으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

1978년에 마을의 공동자금 마련을 위해 창고를 짓기로 하다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하다 보니 마을공동으로 여러 가지 용도의 지출이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적십자회비와 체육 행사 경비 등이었다.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고, 마을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모금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새마을지도자인 김기복이 앞장서서 1977년부터 마을공동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때 마을공동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여군청 새마을계장으로 근무했던 송광섭이었다. 송광섭 계장은 마을에서 창고를 지어 수익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IR667이라는 통일벼 종자가 보급이 되어 수확량이 많아 민간에서 처치를 못했고 정부에서 사들였다. 그 과정에서 쌀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수매한 통일벼를 보관하는 창고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창고 이용 수요를 파악한 합송리에서는 김기복을 구심점으로 삼아 마을에서 창고를 짓기로 결정하였다.

창고를 짓는 과정

합송리에서는 전일만이라는 독지가가 창고 건축 부지를 내준 덕에 창고를 지을 장소는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건축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 외에도, 허가를 받으려

부여군청에 가보니, 도로와 측량 등 관련부서마다 있는 규정에 저촉이 되어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마을운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창고 건설을 촉진하였으나, 다른 부서의 사정은 달랐다. 도로 교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서 창고용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김기복과 함께 마을창고를 추진했던 이웃 마을인 노화리의 한 새마을지도자는, 창고 건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장애요인이 너무 많아지자 군청에서 서류를 던지는 등의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기복은 차분하게 군청의 여러 부서에 협조를 하나하나 얻어내고 창고 건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출자금으로 많게는 쌀 두 가마니(5만원), 적게는 하루 일당인 3천 원 씩을 받아 100만원 넘게 모았다. 후손이 없어 마을에 토지를 희사하고 간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위탁한 토지 200평을 판 돈 100만원을 합치고 모자란 돈은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1978년에 창고를 완성하였다. 합송리와 같이 창고를 지었던 이웃 노화리는 창고 건축을 업체에 맡겨 당시 1,200만원이 들었으나, 합송리는 850만원의 예산으로 창고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100평 규모의 1급 창고는 그 해에 창고 전체가 통일벼 저장 창고로 활용되면서 창고보관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마을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각 가정마다 추렴하였는데, 창고에서 나오는 공동이익금을 마을행사비로 사용하니 마을사람들도 매우 좋아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창고 건립

창고 건립에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점은 인원 동원이었다. 김기복은 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만 도와달라며 부탁하였고, 마을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김기복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을사람들은 협조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일을 하면 새마을지도자인 김기복은 열흘 이상을 나와서 일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 새마을계장을 거쳐 새마을과장을 역임했던 송광섭은 그 당시의 김기복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송광섭은 지붕위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칫솔질도 하지 않고 대신 껌을 씹어가며 일하

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마을공동 창고 수익과 배당금

창고가 다 지어진 이후 창고의 보관료로 수익을 냈고 3년 동안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매년 출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아직까지도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마을 창고의 임대수입으로 합송리에서는 논 열일곱 마지기를 구입했고 현재는 현금 2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합송리와 같이 새마을창고를 지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마을재산을 일군 사례는 부여군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새마을지도자 김기복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기도 하다.

부여군새마을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1979년 합송리의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던 중 부여군새마을지도자연합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었다. 김기복에게 실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새마을지도자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약 10년 정도 활동하였다. 사무국장은 읍면 단위와 대표 회장들을 모아서 부여군의 새마을운동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협동 정신을 토대로 삼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사무국장은 보수가 없는 직함이었고, 나중에서야 아주 적은 급료가 나왔다.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의 명과 암

1977년 새마을지도자가 된 김기복은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마차가 다니기 편하게 마을길을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땅주인마다 입장이 달라서 김기복이 대표로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우마차가 다녀야 하고, 나중에는 자동차도 다녀야 하니 양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설득하여, 합송리 마을 안길을 넓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추진되었던 마을안길 사업은 현재 새로운 국면을 안게 되었다. 1970년대에 마을 안길 확장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재산상속을 받

은 후손들이 마을 안길 입구가 자기 땅이라며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마을 공동 도로에 갑자기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며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김기복의 경우도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로 가려면 마을 공동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예전에 마을 안길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도로가 후손들에게 재산 상속 이후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기복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농사를 못 짓고 있으며,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점이 아쉽다고 한다.

보수가 없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활동과 가족들의 지원

새마을 지도자로서 보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공동 의식을 갖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 지도자 시절 가족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당시 아내가 시어머니 베 짜는 일을 도와주는 등 고생을 많이 했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부여군연합회 모임이 종종 있었지만 다들 연로하셔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부여군연합회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새마을 정신과 김기복의 현재

김기복은 새마을 운동은 함께 의지하고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새마을 정신과 멀어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기복은 요즘 사람들에게 가정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강의록으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다

김진선은 1948년 생으로 부여 석성면 비당리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강의록으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밟았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를 보았으나 영어와 수학 점수가 낮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얻지 못했다. 이후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가정 형편상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다.

소설 상록수를 읽으며 새마을운동으로 나아가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간 대부분의 마을 친구들과 달리 김진선은 도시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어렸을 적 상록수와 같은 소설을 읽으며 농촌 계몽 운동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무 살 무렵 당시 김진선이 살던 비당리마을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농촌 계몽에 의지가 충만했던 스무살 무렵 김진선의 생각은 4-H활동으로 이어지고 21세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협진4-H를 팽나무4-H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도모하다

김진선은 비당리의 협진4-H를 마을에 있는 500년 묵은 팽나무 이름을 따서 팽나무4-H로 바꾸어 활동하였다. 김진선을 비롯한 팽나무4-H 회원들은 배고픔을 타파하고 농촌을 계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저수지를
논으로 일구어
마을 재산을 만든
새마을지도자,
김진선



김진선 (1950년생)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 건전가요 부르기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20대의 새마을운동, 비당3리의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다

김진선이 새마을운동에 처음 뛰어든 무렵 마을마다 시멘트가 무상으로 지급되었다. 1970년과 1971년도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새마을가꾸기 10대 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마다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마을 주민들이 마을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사업이었다. 20대 초반인 김진선도 비당3리에 무상으로 제공된 시멘트로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쥐가 다닐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던 부엌의 부뚜막을 시멘트로 깨끗이 바르고, 재래식으로 문이 제대로 달리지 않은 변소에도 스테이트로 문을 제대로 달았다. 길이 좁아 농사에 필요한 우마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았던 마을 안길의 확장도 우여곡절의 여러 난관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으로 겪은 여러 가지 난관과 극복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는 각 가정마다 전통적으로 모셔왔던 터주가 큰 문제가 되었다. 터주는 집을 지켜주는 가신으로 당시에는 터주를 모시지 않는 집이 거의 없었다. 터주나 장독대를 마음대로 옮기면 좋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비당3리 60여 가구 중 약 대여섯 가구가 터주를 옮겼고, 담을 허물어야 했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마을 안길을 넓혀 농사철에도 우마차가 제대로 다녀야 잘 살 수 있다는 대의명분으로, 마을 안길 넓히는 사업에는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부분도 있었다.

비당3리 제3대 새마을지도자

마을 어른들의 뜻을 잘 따르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던 김진선은 군대에 가기 전인 20대 초반에 비당3리의 제3대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김진선은 34개월의 군대 복무를 마치고 다시 비당3리로 돌아와 새마을지도자의 길을 이어갔다.

한편, 비당3리 마을 안길 확장 사업에 유일하게 협조하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다. 김진선

이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마을 초입에 위치해 있으면서 마을 안길 확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던 가정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이었다. 김진선이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되기 이전까지 마을 안길 확장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 집 주인은, 김진선의 설득에 길 확장을 동의해 주어, 비당3리 마을안길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마을 저수지를 메꿔 논으로 만들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여러 교육을 다니며 김진선은 마을 공동 재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는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에 새마을운동이 자조발전단계로 확대되는 시기와 연관이 된다. 이 시기는 김진선이 군대를 다녀온 후였다. 김진선의 의견은 군대를 가기 전보다 마을 어른들에게 더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나 물이 계속 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수지를 메꿔서 논으로 만들어 마을공동 재산으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저수지를 2m 이상 파낸 후 물이 새지 않도록 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담수 용량을 늘렸다. 저수지에 포함되었던 곳 가운데 지대가 높은 곳 일부분은 3,600평의 논을 만들었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없었던 김진선은, 이모부의 연대보증 도움을 받아 농협에서 600만원을 빌려서 저수지의 땅을 파내고 작업을 완성했다.

이전에 없었던 비당3리의 마을재산이 생기자

삶의 공동체인 농촌마을들에는 대체로 마을공동의 재산이 있었다. 비당리에도 그동안 대동계라고 해서 1년에 쌀 한 가마니를 빌려주고 추수 후 쌀 한 가마 반을 받아 관리하여,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마을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진선이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할 당시 비당3리에는 마을재산이 거의 없었다. 비당3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 집주인들이 고사상에 쌀을 같이 차려서 그것을 모아 마을공동 자금으로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마을공동자금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마을 공공 도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저수지를 개간하여 만든 논 열여덟 마지기에서는 첫 해에 쌀 삼십가마가 수확되었다. 또한 농협에서 빌렸던 돈을 8년 만에 갚아냈을 뿐만아니라, 마을공동

재산 3,000만원을 만들어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런 규모의 마을재산을 일군 사례는 부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여러 변화가 생기다

새마을운동으로 여러 변화가 눈에 띄었다. 74년도에 금강에 수리 시설이 만들어져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마침 통일벼를 재배해 수확량이 높아졌다. 따라서 마을 전반적으로 수익이 늘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자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그러나 김진선은 이러한 여유가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새마을운동 참여율을 점차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풍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운동 전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 상을 치르는 등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미신 등을 많이 따랐지만, 새마을운동 이후 다른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요인들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옛것을 많이 취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상이 났을 때 삼베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거나, 일을 할 때 새마을 복을 입거나 결혼식을 할 때 전통혼례가 아닌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는 문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삶에 변화가 생겼다.

아랫동네에 살던 고모로부터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하다

당시 스물 중반 즈음이면 대체로 혼인을 했던 경향과 달리 김진선은 서른 네 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집안 어른들이 보다 못해 김진선의 중매를 썼다. 경운기로 탈곡기를 돌려 가을타작을 하느라 옷매무새도 제대로 다듬지 못한 채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

그 당시 김진선은 아내에게 여기 농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됐다. 한편 김진선은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새마을 운동 일에, 자비까지 써 가며 일하고 가족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면서 석성면새마을협의회 총무를 맡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 민간주도로 변화되는 성격을 가졌다. 1980년대에는 농촌새마을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다소 침체되는 측면도 있었다. 통일벼 생산 등으로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던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례없이 큰 마을재산을 일구어냈던 김진선은 1980년대에는 석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여군새마을협의회 등에 속해 활동을 벌여갔다. 당시에는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도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점심식사 비용 등 개인 지출도 많이 있었으나,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새마을운동에 몰두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1년에 약 20여 일 이상은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각 면에 해당되는 구간의 하천정비나 쓰레기줍기, 풀베기 등의 사업은 당연히 무보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면협의회의 총무를 맡았던 김진선은 책임의식이 강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했다. 도로변의 풀베기 작업 후 모아놓았던 풀을 혼자서 모으며 작업하는 중, 마을을 순시하던 충남도지사를 만난 경험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충남도지사가 주는 상을 받기도 했다.

섭섭함

스무살 무렵 1970년 초반 갓 스물을 넘은 청년기부터 새마을운동에 열성적을 참여했던 김진선은,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초창기의 새마을운동 참여양상과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새마을운동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마을사람들에게 섭섭함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과 가정을 희생하고 새마을운동에 몰두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마음이나 열정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무렵 김진선이 했었던 건축 사업의 부진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을 식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동네 회관을 지은 김진선은 본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건축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 신도였던 김진선은 주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수주한 교회가 건축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건

축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른 아홉 마지기 논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이를 계기로 7~8년 동안 마을 일에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작년 노인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새로 온 이장의 간곡한 부탁 끝에 다시 마을 노인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기억, 덕분에 현재가 행복하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김진선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과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폄하보다는,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 덕에 지금 모두가 먹고 살기 좋아진 점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받았던 관심과 고마움도 매우 크다. 석성면에서 무연고 별초를 할 때에 현장에다 솔을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대접을 해 준 석성면새마을부녀회장 홍성분 님을 포함해, 당시 힘든 상황에서 마음 썼던 마을 사람들, 일부 소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새마을운동에 참여토록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다. 아쉬운 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주는 표창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여군 최초로 재가 노인 복지사업을 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증조대부터 살아오던 집터에서 태어나다

송광섭은 1936년 4월 20일에 은산면 가중리 갓골에서 태어났다. 갓골은 갓관(冠)자와 고을곡(谷)을 쓰는 마을로, 송광섭의 증조대부터 자리잡아 살고 있는 곳이다. 송광섭에 의하면, 증조할아버지는 본래 대덕의 산내라는 곳에 사셨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정치 참여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을 계기로, 고향인 대덕 대신에 부여로 낙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황용주 선생님의 자치회 교육과 그 영향

송광섭이 초등학교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은 황용주 선생님이다. 황용주 선생님은 스파르타 교육을 하시면서도 정을 가지고 하셨다. 황용주 선생님의 교육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회라는 것이었다. 황용주 선생님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어디서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자치회를 만들어 스스로 해 나가도록 교육을 해 주셨다. 황용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송광섭의 반은 100% 중학교 합격을 했고, 서울이나 대전 등에서 유능한 인사로 이름을 낸 동창들도 많았다. 황용주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자치회의 정신과 교육은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송광섭으로 하여금 어렸을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부여 새마을운동 행정의 살아있는 역사 전 부여군청 새마을과장, 송광섭



송 광 섭 (1936년생)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공주로 유학하다

송광섭은 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학교는 공주로 입학했다. 은산의 가중리에서는 부여로 입학할 하는 경우에도 통학거리가 멀어 하숙을 해야 했다. 어차피 하숙을 해야 할 바에는 당시 명문학교 축에 든 공주로 입학하는 것을 선택했다.

6·25 사변으로 고향에 돌아와 한문을 배우다 복학하다

그러나 중학교 재학 중 6·25 사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은산으로 돌아왔다. 6·25 사변 당시에는 금강에서도 30리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을 해야 폭격에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부여 사람들이 은산의 각대리쪽으로 피난을 많이 왔다. 은산 각대리는 피난골로 불리기도 했다. 송광섭 가족은 이모가 거주하는 각대리 인근의 경둔리로 피난을 갔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복잡했다. 학교에 다닐 수 없던 그 시기에 약 1년 정도 한문을 배웠다. 명심보감·소학·통감 등을 배우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한문을 배우다 다시 중학교에 복학해서 학업을 이어갔는데, 전쟁 기간 중 배운 한문은 나중에 공무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송광섭은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갔고, 전쟁 중에 중학교 학업이 일시 중단되어 졸업이 늦어졌다. 고등학교 입학해서는 영어나 수학 등의 진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제2외국어로 배웠던 독일어의 정관사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학창시절은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취미도 없이 평범했다.

은산별신제의 추억

송광섭이 살고 있는 은산면 가중리는 은산 읍내로부터는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은산 별신제가 열리는 철이면 공주나 대전, 서천 등지에서 연고가 있는 일가 친척들이 구경을 왔다.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구경거리가 적으니, 은산별신제가 열리면 보러오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은산별신제는 약 보름 가까이 조라술을 담그고, 꽃받기·상당곳·하당곳 등 절차가 이어졌다. 송광섭의 집에서 은산별신제가 열릴 때면 2~30명씩 손님이 와서 자고 가는 일이 많았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1등을 하고 아산군청에 발령받다

송광섭은 군대를 가기 전 혼인을 했다. 청양에 있는 장곡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공무원 합격 후 행정서기로 발령받은 곳은 아산군청이었다. 아산군청에서는 산업과에서 고리채 정리 업무를 담당했다.

송광섭은 아산군청에서 계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아산은 현충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순신장군 탄신일의 박정희 대통령 방문에 맞추어 식량증산계획과 같은 계획을 보고하려고 하였다. 이 일을 담당할 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송광섭을 산업계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서 처리하도록 했다.

부여군청으로 와서 옥산면과 홍산면에 근무하다 부여군청으로 오다

아산군에서 계장을 역임한 후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해서 1962년 무렵에 다시 부여군으로 돌아와 옥산면과 홍산면에서 근무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는 부여군청의 농산계에 근무했다.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송광섭은 5·16 직후의 여러 가지가 사실상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다. 5·16의 공약에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을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기아선상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증산해야 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경종법을 개선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종자를 갱신하고 거름을 잘 주어서 땅의 힘을 기르는 일이 경종법의 기본이었다. 송광섭은 부여군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직으로 환직을 하게 된다.

부여읍사무소 부읍장 시절의 새마을운동, 구불구불한 냇가를 정비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다

1971년도 무렵에는 부여읍사무소의 부읍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부여에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의 전개가 잘못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집과 담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새마을운동으로 알고, 눈에 띄는 환경개선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농업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송광섭은 식량 증

산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부여읍사무소에 근무했던 1972년의 일이었다. 부여군 능산리의 경우 왕릉이 있는 곳을 조금 지나면 냇가가 구불구불해서 수해가 나기 일쑤였다. 구불구불한 냇가를 반듯하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하면 수해도 방지가 되고 하천 부지 일부를 농경지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흙을 논에 객토하게 되면 지력이 좋아져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능산리 이장을 설득했으나, 새마을운동을 하라고 내보낸 송광섭이 새마을운동을 하지 않고 냇가의 모래를 파내기만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비난은 김수학 도지사의 순시때 그의 노력이 우연히 눈에 띄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칭찬으로 바뀌었다. 이 일로 김수학 도지사가 격려금을 송광섭에게 내려 주었고, 송광섭은 도지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자랑스럽게 여겨 봉투에 넣은 채로 매일 가지고 다녔다.

외산면장시절 새마을운동

36세 무렵에는 외산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외산면장으로 발령을 받은 1972년은 새마을운동이 한창 무르익는 때였다. 당시 각 마을들에서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자립마을로 선정되는 것이었다. 자립마을로 선정되면 일정한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외산으로 발령을 받았을 당시 외산지역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외산면 구신리의 경우 약 40호 규모인데, 지붕 개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양회 300포대와 철근 1톤을 지원받아 지붕개량을 하고, 지붕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영은 퇴비장에 쌓아 퇴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퇴비 만들기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해서 비료를 부상으로 받고,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200~300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자 주변 마을들에서도 새마을운동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송광섭이 외산면에 근무해 보니 외산면은 사질토 토양으로 보리재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외산지역은 경운기가 없어서, 적은 노동력으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

물인 보리재배에 관심이 없었다. 주민들은 대체로 광산노동자로 일을 하는 편이었다.

송광섭은 부여에서 경운기를 가져다가 보리 씨를 던져 뿌린 후 경운기로 밭을 갈았다. 퇴비를 많이 해 쌓아놨기 때문에 퇴비를 넉넉히 뿌리고 재배한 보리는 대풍이 되었다. 외산면 사람들은 송광섭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보리재배를 보고 보리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외산면장 재직 시절 에피소드

1972년 무렵 외산면 구산리에서 지붕개량을 할 때에 잊지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 전체 40가구 중 35가구의 울타리를 뜯고 지붕개량을 했는데, 마을 입구쪽에 있는 한 가구가 지붕개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광산에 다니고, 대문은 싸리가지를 엮어 세웠으며 장독대에는 터주를 모신 집이었다. 떡을 찌던 시루에 시룻변이 제대로 닦이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 주부가 게으른 사람인 것으로 보였다.

비록 30대의 젊은 면장이었지만, 송광섭은 아이들의 이름도 봐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집의 장독대를 옮기고 지붕개량을 하도록 권유했다. 이 집에서는 송광섭의 이야기대로 지붕개량을 하고 장독대를 옮겼다.

집안에서 믿는 터주를 옮기라고 한 이후에, 송광섭은 남편이 탄광에 다닌다는 그 가정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의 편안을 위해서 모시는 터주를 옮기고 혹시라도 집안에 사고가 나면 그 주부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송광섭이 우려하던 일은 없었고, 나중에 송광섭이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오히려 부인쪽에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부여군청에 새마을계가 생기다

외산면에서 재직 당시 부여군에서도 새마을계가 생겼다. 새마을업무는 모든 공무원들의 기피업무였다. 도로 확장과 같은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인 나무를 베거나 해서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 일도 많았고 검찰에 불려가 훈계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열성적으로 일했던 송광섭 덕분에 1974년도에서 1975년 무렵, 부여 군수리 일대는 길이 잘 만들어져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군수리의 도로 확장 사업은 군수리 새마을

지도자도 못하겠다고 한 일이었으나 송광섭이 마을 사람들과 잘 타협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힘을 기울인 마을

부여지역은 곡창지대로서, 창고를 건축해서 임대하면 마을 소득을 올리기에 좋다. 당시 새마을계장인 송광섭의 권유에 따라 규암면 합송리와 노화리의 두 마을이 창고를 짓게 되었는데, 노화리는 마을 재산이 있어 수월했다. 그러나 합송리는 마을재산이 없는 편인데도, 100평 규모의 창고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창고를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김기복이라는 새마을지도자 덕분이었다. 혼자 서까래를 지고 올라가 일을 하고 양치질 할 시간을 아끼느라 껌을 씹어가면 일했던 사람이었다.

남면 마정리의 경우도 창고를 지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짓는 창고인데 중간에 그만 두게 할 수가 없어 송광섭은 사비로 막걸리를 사서 마을로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창고 임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농산물 품질 관리소등을 찾아가 수매한 벼를 이들 마을 창고에 보관하게 하도록 로비도 열심히 했다.

청양군새마을 과장 재직 시절

1979년 무렵 청양군에 새마을과가 처음 생기면서 송광섭은 청양군청 새마을과장으로 1년간 재직했다. 청양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회를 만들었고, 청양 목면 지역의 20여호 되는 마을의 금강변 도로를 확장했다.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는 소금이나 곡식을 나를 때 길이 좁아 길에서 강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길이 좁았는데, 도로를 확장해 놓으니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 청양에서 부여로 발령이 난 날에는 청양군에서 감사패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구기자를 선물로 가져왔다. 척박한 곳이라 근무가 쉽지 않아 ‘청양에 갈 때는 울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정에 겨워 울었던 발령지’였다.

1984년에 부여군청으로 다시 와서 새마을과장으로 재직

1980년에 청양에서 부여군으로 다시 온 송광섭은 부여군청 문화공보과장을 역임한 후, 1984년에 새마을과장이 되었다. 1984년에는 내산에서 홍산, 은산에서 예산 나가는 고개 등, 도로 확장 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로공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기간에는 환경정화나 꽃길 가꾸기 등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또한 면 단위의 새마을지도자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친목단체를 만들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류하도록 하였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송광섭은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는 새마을운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근면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정신개조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품이 넓은 제대 부여군 새마을부녀회장, 송명자



송명자 (1939년생)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서울 진명여고에 입학하다

송명자는 서천면 사곡리에서 3년 1남의 장녀로 태어나 서천중학교를 졸업했다.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송명자는 남녀공학이었던 서천중학교에서 성적이 매우 좋았다. 6·25때 피난 내려온 이종사촌오빠가 송명자의 실력을 아깝게 여겨 교과서를 사다주며 진명여고에 입학하도록 권유한 것을 계기로 진명여고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자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게 흔치 않았다. 서울로 유학을 보낼 만큼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집에서는 송명자의 진명여고 입학에 반대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송명자는 1년치의 등록금만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진명여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진명여고 재학 중 학업중단의 위기를 넘기다

어렵게 서울로 입학했지만 송명자가 2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학비를 낼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교측에서는 송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에 필요한 재봉일을 도우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송명자는 키가 커서 고등학교에서 배구선수를 했는데,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재봉부에 가서 재봉기술을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송명자는 학교에서 일을 한 돈으로 수업료도 내고 수학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다.

러브레터 300통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사람과 혼인하다

진명여고를 졸업한 친구중에는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교직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송명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제대로 학업을 하기 어려웠고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를 못 간 친구들 두 명과 함께 종로구 낙원동에서 재봉일을 하는 점포를 운영했다.

당시 부여읍으로 내려가 서병철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만났다. 이후 서병철은 서천의 송명자 집에도 찾아와 식사를 하기도했다. 이런 만남 이후 서병철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송명자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송명자에게는 러브레터 300통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지극한 정성에 송명자도 답장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62년 4월 22일에 혼인했다.

여유로웠지만 어깨가 비뚤어지도록 일을 하다

송명자의 가정은 농사짓는 규모도 크고 살림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결혼 후 연탄 공장을 한 송명자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해 내며 리어카에 연탄들을 싣고 직접 끌어서 학교에 배달을 가곤 했다. 나중에는 수급 받는 연탄이 모자라 성주 외산면에 직접 광산사업을 했다.

85년도에는 목욕탕을 열었다. 목욕탕 시설비를 내느라 빚을 지는 바람에 갖고 있던 땅을 팔기도 했다. 목욕할 사람이 없는 시골에 목욕탕을 지어 운영한 것은 모자세대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목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송명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없었다. 목욕탕의 세신사는 월급이 없고 때를 밀어주는 비용을 본인의 수입으로 받는 것인데, 규암은 거주 인구도 적고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세신사가 들어오지 않았다.

세신사가 있었다면 목욕탕의 영업 종료 후 청소와 수건세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신사가 없는 탓에 직접 다 했다. 그것도 전기요금과 물값을 아끼느라 남탕에 있는 뜨거운 물로 세탁기를 쓰지 않고 직접 손빨래를 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해서 어깨가 비뚤어질 정도였다.

새마을부녀회 활동 이전의 어머니회장 활동

마을에서 가장 먼저 티브이를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이 송명자네 집에 티브이를 보러 올 정도로 송명자의 집은 남들보다 여유가 좀 있었다. 경제적, 심리적 여유는 자연스레 송명자가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게 만들었다.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에도 천성이 매우 부지런했던 송명자는 가정 바깥의 여러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2년도에 자녀들이 다녔던 규암초등학교의 어머니회장을 맡아서 일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가족계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송명자가 참여한 가족계획 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은 산아제한사업이었다.

산아제한 정책은 196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국가 차원에서 전개한 출산 억제 정책이었다.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국 곳곳에 가족계획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임법 등을 알렸다. 자녀계획에 맞추어 출산을 마친 이후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도록 난관 수술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산아제한 활동에 참여한 송명자는 마을 여자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가 난관수술을 이끌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 공을 인정받아 당시 국외여행이 금지되었던 80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을 홍보하러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다

학교어머니회장과 산아제한사업 분야의 활발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송명자를 새마을운동으로 이끌었다. 새마을운동에 새마을부녀회의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송명자를 가장 적격인 대상으로 추천하였다. 송명자는 1978년도에 초대 부여군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부임하였고 87년도까지 10년을 역임하였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의 송명자의 활동은 마을 단위에서 전개했던 새마을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었다. 송명자가 살았던 규암면 외리에서 마을단위에서 전개하는 꽃길 가꾸기나 청소, 마을길 넓히기 등의 사업은,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 가운데 하나인 마을환경개선 사업이었다.

송명자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각 면단위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

해 리 단위까지 400개가 넘는 조직을 담당하였다. 부여군 전체의 부녀회를 총괄하고 여성 새마을지도자들을 대표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다.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부녀자들만의 조직과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백제문화제 등 부여군청의 여러 사업 가운데는 새마을부녀회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도 많았다. 새마을부녀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 방식을 만들어 부여군 전체 경로당에 나눠준다

송명자는 부여군을 대표하여 충청남도나 전국단위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회의와 캠페인, 교육 등에 참가하고 교류하였다. 이러한 대외 활동 외에 부여군민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송명자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지도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했다.

송명자의 활동 가운데 하나는 마을회관에 방식 만들어 보내기였다. 이는 진명여고 시절 부터 닦아온 송명자의 재봉질 솜씨와 더불어 장롱속에 넣어만 두고 입지 않는 치마저고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송명자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마을회관에 방식 하나 없는 게 안쓰러웠다. 고등학교 시절 재봉부에서 일하며 갖게 된 기술을 살려 방식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부여군수에게 재봉틀을 하나 사달라고 했다. 부여군청 근처에 있는 옛 부여문화원 건물 안에 방식을 만드는 작업장을 꾸렸다. 새마을부녀회 인맥을 통해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스펀지와 자투리 천들을 무료로 얻어오고 장롱에서 안 입을 저고리를 모았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 방식을 만드는 각 공정을 나눠서 진행한 결과 약 1,000개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방식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30개씩 나누어 주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경로잔치

부여군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는 연례행사로 열었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에서 부여 읍내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경로잔치를 열 때면,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며 격려를 해줬다. 밥이나 떡을 지을 쌀을 몇 말씩 기부하거나 노인

들에게 쇠머리국밥을 해 드리라고 경로잔치때마다 쇠머리를 여러개 보내주는 이도 있었다. 농사지은 수박을 경운기에 싣고 와서 경로잔치에 사용하도록 해 주기도 했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 활동에 보내준 이러한 격려로 더욱 힘을 얻은 송명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쇠머리를 삶아 잔치음식을 만들고 더욱 더 열심히 새마을운동에 매진하였다. 또한, 자신을 지도자로 여기고 잘 따라주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손수 떡을 만들어 나눠 주거나 식사대접을 해 가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새마을사업에 매진하느라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 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금을 모아 활동비를 마련하다

부여군새마을부녀회의 활동에서는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로잔치를 비롯해, 군인들이 도보로 행군해서 부역을 경유할 경우, 김치를 담가 군인들에게 대접하기로 하는 등, 부여군새마을부녀회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기금이 필요했다. 송명자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활동비를 마련하였다. 기금 마련 사업의 하나는 묘목사업이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이탈리아 포플라를 백마강의 노는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그곳에 심어 키운 후 파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나무심기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묘목 수요가 많았다. 묘목을 잘 키워서 1미터가 넘으면 군청에 내다 팔아서 수익을 냈다

묘목사업을 할 때에는 리어카에 비료와 농기구를 싣고 직접 끌고 다녔다. 먼거리를 리어카를 끌고 다니기 힘들어 자전거를 배웠다. 자전거를 타고 묘목심은 밭에 처음 가는 날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내리막길에서 고꾸라지기도 했다. 다행히 뼈를 다치지 않았다.

백마강의 미꾸라지로 매운탕을 만들어 팔기도 하다

부녀회의 기금마련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매일 사용하는 수세미나 세제를 사다 팔고, 참깨를 여러 가마 사서 참기름을 짜고, 서울 명동 식당까지 가서 팔기도 했다. 백마강에서 잡은 미꾸라지로 만든 매운탕을 파는 등, 주로 송명자와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

든 것들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였다. 폐품과 헌 옷가지를 모아 부여장날에 팔기도 했다.

그 돈으로 군인들 행군할 때 김치를 담가서 주기도 하고, 부녀회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송명자의 표현대로 ‘멋지게 사업을 하고 고생하면서도 즐거운 시절’이었다.

1987년 부여 수해 때의 활약

1987년에는 부여에 큰 물난리가 났다. 1987년 금강하류를 강타한 대홍수로 규암면 나복리 일대의 백마강 둑이 터졌다. 9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가 나니 담요나 모포, 쌀, 라면 등 여러 종류의 구호물자가 전국에서 왔다. 구호물자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필요한 각 면에 배분하는 일이 시급했다. 송명자를 필두로 한 부여군새마을부녀회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물자를 종류별로 분리하고, 옷·담요·쌀 등 구호물자를 트럭에 실어 부여 곳곳에 날랐다. 힘들 때 도와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 송명자의 생각이었다.

부여군의 문화유적지와 백제문화제 등에서의 활약

부여군새마을부녀회는 부여군청의 여러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소산에서 대청소를 하거나 관광객들에게 안내와 설명을 해주는 일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부소산을 찾는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들이 매우 많았다. 부소산은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코스였고 고란사와 낙화암 등을 포함해 부여를 대표하는 명소였다. 또한 백제문화제가 열릴 때는 행사장에 텐트로 부스를 만들어 안내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기 희생

송명자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을 10년 동안 맡아오며, 명색으로만 부녀회 회장이기 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활동하거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이어갔다. 시나 군 단위 활동 가운데 지역을 순회하는 경우 지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회의가 필요했다. 또

한 외부에서 찾아오는 새마을관계자들도 많았다. 목욕탕을 운영했던 송명자는 목욕탕 2층에 30명 정도가 수용가능한 방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서 회의도 하고 식사를 접대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에 전념하느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다.

가족들의 희생과 남편의 외조

큰 규모의 농사와 농사일 외에 연탄공장이나 목욕탕 운영 등의 사업도 겸했던 송명자의 새마을운동 참여에는 남편의 이해가 큰힘이 되었다. 논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한다고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잦았다. 일을 하다가 새마을부녀회 일로 회의를 가야할 때면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빨리 가라고 배려해 주었다. 이럴때 남편이 투덜거리거나 선뜻 보내주지 않으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은 눈치보지 않고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2남 1녀의 자녀들도 송명자의 외부활동을 지지해 주어 제1대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을 뚝심있게 해 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삶

송명자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 재직 시 활동했던, 공주군·청양군·당진군 등 다른 군의 부녀회장들과 먼 단위의 여러 회원들과 회장 재임 이후에도 교류를 해 왔다. 최근 몇 년에는 고령으로 돌아가신 이들도 있고 코로나로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주고 받기도 한다.

당시 군수였던 이건영 군수가 부여 새마을 부녀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줘 고마움이 크다. 지금도 새마을 사업을 군에 신설해 계속해서 새마을 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가 마을의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나이를 먹으면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송명자는, 새마을부녀회 활동 이후에도 공부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의견을 모아 좋은 동네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이끄는 부여군새마을부녀회장이었다는 데에 자부심이 있다.

학교를 다니고 싶던 어릴 적, 학교 대신 당시 동생의 하숙집에 쌀 배달을 다니다

1955년 임천면 두곡리에서 2남6녀 중 넷째로 태어난 오순동은 어릴 적 부모님이 아들 둘만 교육을 시켜 어려서부터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다. 오순동은 학교를 다니는 대신, 당시 공주에서 사대부고를 다니던 남동생이 하숙하던 집에 하숙비로 36kg가 되는 쌀을 배달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성품

22살에 결혼을 한 오순동은 남편이 70세가 되던 해 칠순잔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대신 임천, 세도, 양화, 장암 충화 5개면 경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약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고 경비는 1,700만 원 정도 들었다. 오순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시절 마을 어른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고 배운 것이 많아서 베풀고 싶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서른다섯, 본격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다

오순동은 서른다섯 즈음인 1991년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순동이 새마을운동을 처음 접했던 곳은 어렸을 적 살던 두곡리에서였다. 당시의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였다. 마을길을 넓히는 사업같은 것이었고 어린 시절이라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봉사정신과 쾌활함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임천면 새마을부녀회장,
오순동



오순동 (1956년생)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웃집 어른들이 새마을 부녀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달에 500원씩 회비를 내서 사람들끼리 놀러가고 다 같이 밥을 하는 데에 도와주는 정도였다. 오순동은 거기에 가입해서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도맡아서 했다. 오순동을 예쁘게 봐준 어른들이 부녀회장직을 제안해서 수락하였고, 그 때부터 오순동은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888년도 부여의 수해 때엔 부녀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수해복구에 힘썼다. 당시 비가 가슴팍 높이 까지 왔었고 비가 부엌에 있는 장독대까지 쓸어갈 만큼 아주 피해가 심했다.

사람들과 함께 배추, 콩 농사를 짓다

오순동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1991년 무렵은 민주화와 개방화 등이 진행되면서 지나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무질서와 과소비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새마을운동도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 발맞추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국민의식 개혁, 환경보전, 농어촌가꾸기, 이웃사랑 실천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웃사랑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오순동은 배추 농사를 지어서 약 1000 포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다. 그런데 마땅한 밭이 없었다. 마을 주민에게 비닐하우스 한 칸만 내어달라고 해서 그 땅에 배추를 심었다. 잘 길러낸 배추를 33개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 독거노인, 보건소, 농협, 면사무소에 몇 통씩 나눠주었다. 또 휴경지를 얻어다가 콩밭을 매기도 했다. 기계가 아니라 직접 도리깨로 콩을 털었다. 대여섯 가마씩 콩을 수확했고 들깨도 심어서 팔았다.

마을 사람들의 반찬거리를 책임지다

어렵게 마련한 부녀회 기금은 독거노인들의 집에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는데 사용했다. 한동안은 부녀회의 기금이 적어 오순동이 사비로 재료를 사다가 혼자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가져다 줬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3천 원씩 십시일반으로 모은 반찬후원금으로 스물다섯 집에 반찬을 해서 갖다 준다.

한편 반찬 후원금에서 남은 돈으로 원래는 매년 경로잔치를 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

로잔치를 하지 못하니 고민이 되었다. 결국 임천면에 사는 어르신 삼사백 가구에 선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크리스마스에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과자 두 봉지, 사탕을 가방에 담아서 각 가구에 전달하였다.

새봄맞이 대청소, 꽃길 가꾸기, 꽃동산, 농약병 모으기, 집 고쳐주기 등 여러 활동을 하다

오순동은 45세 무렵 임천면새마을부녀회장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다. 이 무렵의 새마을부녀회는 봉사단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성흥산성은 임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성흥산성에서는 해마다 충혼제와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이들 행사는 임천면에서 개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행사이다. 성흥산 충혼제를 지낼 때 1,500명, 성흥산 해돋이를 할 때에는 약 4천명이 먹을 밥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짓고 있다. 오순동은 품물단 회장으로서는 상쇠를 한다. 세도 방울토마토 축제나 다른 부여군 내의 행사가 있을 때 품물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새봄맞이 대청소 때에는 혼자 사는 남자들의 집청소를 해주었고 농약병을 수거해 팔아서 새마을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작년에는 군에서 300만원을 받아 무궁화동산을 만들었다. 벌레가 많이 끼는 무궁화에 살충제도 뿌리고 비료도 주었고, 올 가을에는 곁가지를 자르고 다듬을 예정이다. 자녀들이 중학생 때 학교부녀회장을 했었다. 그 당시 학부모들과 250만원의 돈을 모아 ‘성실, 명랑, 협조’가 적힌 교훈 탑을 세웠다. 그 외에도 연꽃축제에서 연꽃을 달아주는 봉사활동, 차 끓여주기, 혼자 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집, 어린이집에 찾아가 집을 수리도 해주고 도배를 했다.

국무총리상의 공로를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다

오순동은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결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본인이 인덕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만큼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상의 공을 새마을 회장님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그 외에도 군수상, 적십자상, 도지사 표창 등 자잘한 상들을 많이 받았다. 오순동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임천면의 주민자치도 관리하고, 동네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들의 질문에, “일은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이 맞는 사람 대여섯 명만 있어도 충분히 진행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도 너른 봉사정신으로 마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열체크를 하며 버는 돈 60만원을 두 달 치를 모아 120만원 중 헌금과 식사비를 제외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아직까지도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세 가지를 해서 스물다섯 집에 나눠준다. 오순동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언제까지나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 내 것 챙기려는 마음으로는 못 한다면서, 보수 생각 안 하고 본인이 기쁘고 남을 위하는 게 아깝지 않은 마음이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오순동은 부녀회장을 일찍 하는 바람에 부녀회원들은 또래보다는 윗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배울 점도 많고 심부름도 잘 하며 즐겁게 지낸다. 정순희 회장님, 석성 홍성분 회장님, 양화 이열순 회장님, 세도 유명수 회장님, 총화 여정숙 회장님, 장암 사옥화 회장님, 은산 김정문 회장님, 예산 강신문 이장님 등, 고마운 사람들을 다 기억하며 멈추지 않는 봉사정신을 가진 그이다.

태어난 곳 내성리에서 계속 살아오다

1945년 양화면 내성리에서 4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양화면은 땅이 넓지 않아 농토가 부족하여 농사보다는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가마니를 많이 짰다. 모시로 잘 알려진 한산이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마을에서 여자들은 모시 재배를 하곤 했다.

양화면은 전북 익산군 웅포면, 그리고 서천군 한산면과 맞닿아 있는데 부여읍보다는 한산면 쪽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이서규는 한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다 군대에 다녀왔다. 1969년 군대 제대 후 서울에서 잠시 중장비 학원에 다녔지만 맞지 않아 몇 달 만에 다시 부여로 내려왔다. 잠시 동안의 서울 생활을 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객지 생활을 하지 않고 내내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다. 1972년 혼인하기 전까지 이서규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살았다. 당시 농지가 5천 평 규모로 마을에서 중상 급의 규모였다.

젊은 이장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서규가 서른두 살이 되던 1975년에, 동네 어른들이 술 먹고 노름하는 이장은 이제 안 된다며 젊은 이서규에게 이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이장을 맡아보던 사람들 가운데는 마을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면소재지에 가서 음주 등에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향 때문에 서른두 살의 이서규가 마을이장이 되는 것을 부모님들은 반겨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마을사람들의
신임이 준 책임감으로
새마을운동의 길을 걸은
새마을지도자,
이서규



이서규 (1945년생)
부여군 양화면 양화동리



하지 않으셨고, 이서규 자신도 너무 젊은 탓에 이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이장이 그만 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뜻에 따라 투표 끝에 이서규가 당선되어 젊은 이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75년부터 이장을 1년을 했는데 당시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기 공사 해주는 사람들의 숙식을 도와주고, 각 가구마다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비료를 할당해주는 일을 했다. 이장을 1년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마을 어른들의 제안 끝에 76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난 책임감과 추진력

이서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신임은, 그가 새마을지도자의 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마을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게 했다. 1976년에 시작한 이서규의 새마을지도자 수행은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 새마을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이서규는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매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서규가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웅포대교 아래 강가에서 돌을 채취해 마을길에 까는 작업을 할 때였다. 강가의 암반을 깨서 마을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중에, 오촌고모부가 판판한 돌을 자기 집 구들장 돌로 사용하려고 챙겨둔 일이 있었다. 이서규는 오촌고모부가 챙겨둔 그 돌을 전부 깨뜨려서 길에 깔았다. 그러한 사소한 행동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이서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새마을운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철저히 했던 그의 마음을 마을 사람들이 잘 알아주어, 그는 15년간이나 새마을지도를 역임하게 되었다.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

이서규가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할 1976년 무렵에는 ‘잘 살아 보세’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길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어가 다니는 길이 좁아서 길을 넓히는 사업을 했는데, 시멘트를 나라에서 지원 받고, 모래는 마을에서 구입하여 길을 다듬었다. 초가

지붕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해 70년대 중반을 지나서는 내성리에 초가집이 거의 다 사라졌다. 또한 마을에 속성수인 포플러 나무를 심었는데 포플러나무는 조경뿐만 아니라 훌륭한 재목이 되었다. 수해 때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구하는 데에 힘을 썼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절미운동을 하고, 동네에 애경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한다.

내성리 새마을지도자에서 양화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으로

이서규의 책임감과 추진력은 그가 양화면과 부여군의 새마을협의회장 역할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게 했다. 양화면새마을협의회장은 1991년부터 시작했다. 양화면에 소속된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상을 비롯해, 면 내 취약한 장소들의 상태점검과 대청소 등을 나서서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마을 별로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추석을 앞두고 무연분묘 벌초를 해주고, 군 단위로 김장도 담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부여군새마을협의회장 시절

2000년도부터는 부여군새마을협의회장을 맡아서 부여군내 여러 면협의회를 이끌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부여군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중앙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면 단위 회장들에게 전달하고 이행이 잘되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어려운 점이 있을 시 해결방법들을 같이 의논하는 등, 면 단위 회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부여군협의회장 당시 새마을 운동에 필요한 기금은 기부를 받기도 하고 농지를 임대한 돈으로 마련했다. 농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기도 하고 받은 일부 무임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한편, 부여군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 년마다 면 단위로 어떻게 새마을 조직을 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새마을평가회를 열었다. 마을마다 선의의 경쟁을 했었고 평가회의 평가를 받기 위해 자료 제출을 해야 했다. 양화면의 수원리와 초왕리가 선도적으로 자료 제출도 많이 하고 실적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80년대와 90년대의 새마을 운동

1976년부터 내성리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했던 이서규는, 이후 2006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의 기조와 활동 등은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이서규도 새마을운동의 현장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등 시기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달라진 걸 크게 느끼고 참여했다.

80년대에는 환경보호가 새마을운동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다. 마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청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폐품 수거 활동으로 폐품을 모아 군에서 돈으로 바꿔주면 그 돈으로 단체를 관리하는데 썼다. 군에서는 모은 물품들을 도에 갖다 주었다. 이는 자연스레 군마다 평가 기준이 되어, 잘 된 곳에는 포상금이 주어졌다. 결국 선의의 경쟁이었다.

90년대에는 사회안전망에 힘썼다. 마을에서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있게 잘 돌보고, 폐품을 모으거나 판매사업으로 기금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1세기의 새마을 운동과 미래

2000년대 들어서 특별한 추진 사업은 없었고 재활용품 수거와 무연분묘 벌초, 김장 담그기를 했다. 한편 1970년대에는 2000년대와 달리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힘이 들었다. 그럼에도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심이 잘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수준이 높아져 단합이 떨어진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새마을 깃발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 지역 단체장의 새마을 정신에 동지애를 느끼기도 한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뿌듯함

마을에서 길을 넓힐 때 땅주인에게 협조를 구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끈기 있게 설득하려고 했다. 잘 되지 않을 경우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해가면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 협조를 구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뿌듯하다. 그 자부심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다른 일들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서규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가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

15년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훈장과 앞으로의 소망

이서규는 한 동네에서 15년 새마을 지도자로서 여러 일들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아직까지도 읍면 단위 회장이었던 약 19명이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지난 얘기를 하며 답소를 나눈다. 이서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이 지속되었으면 한다고 한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아홉사리고개를 전부 일궈서 길을 낸 새마을지도자, 조중성



조 중 성 (1939년생)
부여군 옥산면 옥산북로



서울로 올라가 공부할 꿈을 갖다

조중성은 1937년생으로 소띠이다. 부모님께서 출생 신고를 늦게 하셔서 호적상으로는 1939년생으로 되어 있다. 옥산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 해방되기 까지 1학기 정도 일본인들에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배운 일본말을 지금도 조금은 기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조중성의 집은 부친이 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6·25 이후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조중성은 중학교 입학할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 드렸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늘 품고 있었다.

아홉사리고개 넘어 외딴 마을

조중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마을인 상기리는 차령산맥 남쪽 끝자락인 천보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인근에 내산과 홍산이 있지만, 홍산에서는 아홉사리고개라 불리는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부여와 군산 간 도로에 접해있는 인근의 옥산면 소재지와는 약 10여 리 이상 떨어져 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옥산이나 홍산까지 걸어야 했다. 외진마을이라 6·25 때에도 상기리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지 않고, 오히려 외지사람들 12가구가 상기리로 피난을 올 정도였다.

상기리는 주로 경주 이씨와 풍양 조씨, 창원 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규모가 크지 않은 마을이지만 상기리 사람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경찰서장과 판사, 은행장, 검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조중성 자신도 다섯딸을 대학교육을 시켜서 모두 잘 살고 있다.

나무하러 간다 하고 서울로 올라오다

언젠가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조중성은, 16세때 서울로 올라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마침 동네 솔밭 속에 소변을 보러 갔다가 발견한 3만 7천원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조중성은 옷보따리를 싸서 고개마루 나무 덩불이 우거진 곳에 미리 갔다놓았다. 지계를 지고 나오며 아버지께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 집에서 나오자 지고 나왔던 지계는 산의 덩불에 그냥 버리고 16km를 걸어나가 장항선 열차를 탔다. 조중성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4페이지 정도로 수기로 정리하였는데, 그 기록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침 부친께서 출타한 틈 타서 무작정 지계를 지고 어머니한테 나무하러 간다하고 동리너머 고랑창에 지계를 버리고 간치역으로 출발하였다. 안개는 자욱이 찌고 무렵무렵(물어물어) 찾아갔다. 16km를 2시 40분 걸어나가 장항선 열차를 몸을 실어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조중성은 10여 년 후 고향에 돌아와 자신이 버렸던 지계를 찾아 보았으나 다 썩은 상태였다.

상경해 맞이한 서울의 모습

서울역에 도착한 조중성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왕대포라고 쓴 가게였다. 조중성은 그곳에 가면 대포를 든 군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 매우 의아해했다. 서울에는 조중성의 형이 도장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조중성은 두 끼나 굶어서 매우 배가 고팠다. 어떤 집에서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호떡 장사가 눈을 돌리는 사이에 호떡 5개를 먹어버렸다. 나중에 형님과 연락이 되어서 호떡 값을 드리고자 했으나, 호떡집주

인은 이복사람인 자신도 배가 고파봤다고 하면서 호떡값을 받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여줬다. 이것을 인연으로 나중에 조중성이 두부공장에서 일을 할 때 조중성은 두부 한 판을 선물로 드렸고, 나중에는 조중성이 근무하던 두부공장 두부를 이 호떡집에 놓고 팔아주기도 했다.

상경후 서울살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서울로 온 조중성이었지만, 막상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조중성은 상경 직후에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소개해 준 하숙집에 거처했다. 그러나 좁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몸을 세워 깔잠을 자야했다. 이마저도 밤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누울 자리가 없어 서너날을 잠을 못자고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구두담이와 우동공장, 목공장 등에서도 일을 하다 나중에는 두부공장에 입사해 두부 배달을 했다.

두부공장

두부공장은 서울로 올라가 조중성이 일했던 어느 곳보다도 안정되고 좋았다. 두부공장에서는 혼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다. 두부공장에서 7,8년 근무한 후 4.19가 일어났다. 4.19가 일어날 당시 조중성은 평화시장 옆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보았다. 조중성도 시위에 참가하다 경찰의 발포를 피해 남의 집 추녀밑에 은신해 있다가 새벽에 겨우 돌아왔다.

조중성은 두부공장에서 매우 착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나중에는 본인이 두부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 두부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서울로 와서 조중성을 만나기도 했다. 조중성이 돈을 벌어 시골에 농토를 구입할 수도 있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부모님께서 소개한 사람과 혼인도 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새마을축진대장으로 새마을운동에 입문하다

5.16 이후 서울살이 11년 만인 2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방위병 근무를 마친 조중성은 서울 두부공장에서 번 돈으로 미리 사두었던 토지와 이후 추가로 구매한 토지에 담배농사를 지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조중성은 마을의 좋은 일을 위해 앞장서고 성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마을어른들의 신임을 얻었다. 새마을운동의 초창기였던 당시, 마을에서는 조중성을 새마을축진대장으로 임명했다. 축진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중성은, 1973년에 마을회관을 짓고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을 했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을안길을 넓히다

상기리는 인근의 다른 마을에 비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조금 늦은 편이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었지만, 상기리는 1972년 무렵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조중성은 1972년 무렵에 축진대장으로 선정되었고, 1974년에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되었다.

1973년에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지붕개량, 마을 안길을 넓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을 안길을 넓힐 때 각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선뜻 자기 땅을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중성은 설득의 달인이었다. 조중성은 마을 어른들에게 농사를 더 쉽고 많이 지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 보아야 하고, 길이 잘 갖추어진 집은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그의 이러한 설득력은 다른 면에도 많이 알려졌다. 부여 은산면에서도 그를 찾아와 마을길을 내는데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설득시켜 달라는 부탁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설득과 더불어 그의 적극성은 인근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후발주자였던 상기의 새마을운동에 더 박차를 가하게 했다. 48여 가구의 지붕 개량을 마친 후, 남은 15가구의 지붕개량을 위해 부여군청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지붕개량 사업을 완수했다. 군청의 지원금 2천만원을 받아 마을회관도 신축하였다.

적극적인 조중성의 역할로 마을에 전기와 버스가 들어오다

1975년 조중성은 새마을지도자 자격으로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있던 조중성은 새마을연수원 교육중에 반장을 맡기도 하고, 강의를 온 장관에게 상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건의를 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적극성은 그가 교육을 마치고 온 4일 만에 상기리에 전기가 가설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상기리 사람들은 인근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옥산이나 홍산까지 걸어 다녀야 했다. 홍산까지는 아홉사리고개라 불리는 고개를 넘어 다녀야 했고, 옥산까지는 10리가 넘었다. 조중성은 부여군청이나 도청 등에 찾아다니며 상기리로 다니는 길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상기리로 들어오는 도로가 1975년도 무렵 제대로 마련되었고, 1976년부터는 상기리까지 버스가 들어오게 되었다. 버스가 상기리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 인근 10개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는 등의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소나무를 가꾸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조중성은 소나무 재배와 부동산 거래 등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키운 소나무를 새마을운동에 협력이 필요한 부서나, 자신을 따라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해주는 마을사람들에게 골고루 희사했다. 적극적인 성격과 더불어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새마을지도자 조중성의 역할로, 오지마을 상기리의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조중성은 1974년에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되어 11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옥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으로서 옥산면 새마을운동의 촉진을 위해 활동하였다. 조중성은 새마을운동으로 농수산부 장관 표창, 충남 도지사 표창, 부여 군수 표창은 4회 수상하였다. 상기리 새마을지도자 및 옥산면새마을지도자연합회 활동 등을 마치고, 마을노인회 총무를 맡으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갔다.

한편, 조중성의 새마을운동 참여 과정에는 부인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조중성이 서울에 있을 때인 27세에 만나 혼인한 조중성의 부인은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하고 집으로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 부인의 이런 내조는 옥산면장 표창으로 이어

지기도 했다.

조중성이 말하는 새마을운동의 정신

조중성의 역할로 주변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되었기에 그는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면 주변 마을의 지인들이 인사를 하였다. 하지만 조중성의 마을 동갑 친구 32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만 살아있는 것에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조중성은 새마을운동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더 잘살게 하기 위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부여군
부여의 새마을운동

틀림없는 사람이 걸은 새마을지도자의 길, 황의찬



황 의 찬 (1932년생)
부여군 입천면 성흥로



청양군 적곡면 구룡리에서 태어나다

황의찬은 1931년 청양군 적곡면 구룡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관현리, 분향리와 청남면 대흥리, 인양리에 걸쳐 있는 큰 들인 장수평(長壽坪)들이 개간되었다. 일본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서울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황의찬의 할아버지는 장수평들에서 마름을 하셨는데, 농사규모도 크고 살림이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살림이 차츰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며 생계를 꾸리셨다.

충화면 만지리의 작은어머니댁에 양자로 오다

청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황의찬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충화면 만지리로 이사와서 입천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황의찬이 충화면 만지리로 와서 살게 된 것은 가출하신 작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작은 어머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였다.

가출하신 작은 아버지가 아무런 소식도 없이 돌아오시지 않자, 작은 어머니는 재가하라는 친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친정동네인 만지리에 살면서 재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어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황의찬 형제 가운데 둘째나 셋째를 작은 어머니에게 양자로 보내라고 유언을 하셨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셋째였던 황의찬이 만지리의 작은 어머니댁으로 양자를 오게 된 것이다.

작은 어머니의 친정은 만지리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부유한 농가였다. 임천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남은 6학년의 학기를 마친 황의찬은 작은 어머니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린 시절에 친부모와 헤어져 작은 어머니와 살게 된 황의찬은, 어린 시절 친부모와 형제들과 헤어진 기억을 큰 아픔으로 품고 있다.

황의찬이 작은 어머니댁에 양자로 갈 무렵 작은 어머니는 33세였다.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작은 어머니나 황의찬 두 사람 모두 농사경험이 없었다. 농사일은 작은 어머니 친정의 머슴들이 드나들며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모르니 그냥 보기만 하고, 나중에는 농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직접 보고 물어서 배워가면서 익혔다. 한 해는 수해를 크게 입기도 했다. 황희찬은 이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양어머니나 자신도 모두 불쌍한 처지로 서로 의지하며 그럭저럭 하고서 세월을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성실한 청년, 마을지도자가 되다

농사일을 차츰 배우며 성장해 간 황의찬은, 마을이나 총화면사무소에서 매우 성실하고 마을 어른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다. 21세에 혼인을 한 황의찬은 25세 무렵에는 마을이장을 맡아보기도 했다. 이후 보통고시를 준비하며 공무원의 길에 가기 위해 3차례 시험을 보기도 했으나, 자신의 생업과 새마을운동의 참여 등으로 공부에 열중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 초반에 만지리 마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새마을지도자가 거론되었을 때 마을 어른들 모두 황의찬을 새마을지도자로 추천하였다. 황의찬의 새마을운동 입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마을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새마을사업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주민들을 설득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에 참여하여 선도적인 농법 등을 익혀 마을로 전파하는 역할도 했다. 약 스무마지기 정도 자신의 농사일도 해야 했던 황의찬은, 비록 새마을지도자가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반려자를 21세에 맞이하다

황의찬은 21세에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의 풍양 조씨 처녀와 혼인했다. 황의찬의 부인은 세도면 사무소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에서 곱게 자랐다. 그에 비하면 황의찬의 집은 경제적인 수준이 그에 못 미쳤다. 장인이 총화면에 시제를 지내러 왔다가 일가친척으로부터 황의찬을 소개받아 사주를 받아갔다.

홀어머니의 양아들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인어른은 황의찬의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다. 황의찬은 세도면 청송리에서 초례를 치르고 세도면 만지리로 신부를 데리고 왔다. 세도면 청송리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가마에 태워서 와야 했으나, 만지리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좁았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들어 올 수 없고 가마꾼들에게 식사대접을 할 형편도 되지 않아서 세도에서 만지리까지 신부가 걸어서 와야 했다. 여유있는 가정에서 곱게 자랐던 황의찬의 부인은 시집 와서 처음에는 벼를 찻는 법을 잘 몰라 벼가 전부 밖으로 튀어나가게 할 정도로 살림이 서툴렀다. 띠동갑의 시누이에게 조금씩 일을 배우고 시어머니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황의찬의 새마을운동에 가장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했다.

자기 집의 일은 새벽에 마치고, 마을일을 돌보다

황의찬은 약 스무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 마을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나절에 자신의 농사를 부지런히 마쳤다. 그렇게 아침나절 일을 마치면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이나 총화면의 새마을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 밤 늦게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실한 황의찬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신임을 얻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의찬은 “팔으로 메주를 쑤어오라고 하면 팔으로라도 메주를 쑤는 매사에 틀림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새마을운동의 초창기, 마을 환경 개선 사업

황의찬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초창기에 전개했던 1970년대 초반의 새마을운동은 지붕개량과 부엌 개량 등 마을 안 환경개선사업이었다. 당시는 대농가인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초가집이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붕의 썩은 이엉을 전부 끌어 내리고 이엉을 엮어서 다시 엮어야 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품앗이형식으로 서로 도와 지붕을 갈아야 했다. 만지리의 경우 마을에서 한 가구를 먼저 선도적으로 지붕개량을 했다. 지붕을 개량한 주택의 장점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마을사람들이 지붕개량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만지리는 총화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붕개량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지붕 개량 외에도 마을로 배정된 시멘트를 집집마다 나눠줘서 흙으로 마감된 부뚜막을 위생적으로 개선했다.

만지리로 들어오는 길을 내다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황의찬의 여러 활동 가운데, 그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신임과 협조는 만지리로 들어오는 마을길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총화에서 만지리로 들어오는 길은 대지주들의 농토 사이에 난 소로길로, 마차 한 대도 다닐 수 없었다. 학생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학교 가는 길에 신발이 다 찢을 정도였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의 확장을 누구나 원했고 필요했지만, 대지주들의 농토 사이에 길을 내야 하는 경우라, 그들의 사유재산을 마을도로로 편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낼 유일한 사람으로 황의찬이 거론되었다. 황의찬은 팔로 메주를 썬다고 하면, 팔로 메주를 썬는 사람으로, 어떤 일이든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 하고, 마을 공금을 투명하게 운용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고 마을 길을 내는데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황의찬이 이 일에 앞장서는 바람에 모두 협조를 잘 해주어 무사히 만지리로 들어가는 마을길을 낼 수 있었다.

이 길을 내는 과정에는 가족들의 참여와 희생도 매우 컸다. 마을로 도로를 내기 위해 필요한 건축 자재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천변에서 자갈과 모래 등을 모아서 운반해야 했다. 임금 대신 원조받은 밀가루를 마을사람들에게 주고 일을 했다. 황의찬 가족들은 임금을 받는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와서 자갈을 모아 운반했다.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나와 내 가족부터 모범을 보여 성실하게 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황의찬의 생각을, 가족들도 잘 따라주었던 것이다.

임천과 충화의 길을 연결로 나가는 고개길을 내다

만지리는 충화면 소재지와 임천면 소재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임천으로 나가는 길에는 큰 나무 아래 돌을 쌓아 놓은 서낭당이 있었다. 만지리 사람들도 형겔 조각을 걸고 가족들의 편안을 빌기도 했었다.

황의찬은 만지리의 새마을지도자에서 충화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으로 활동을 넓혀갔다. 충화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된 후 제일 먼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충화 임천간 도로 확장이었다. 이 길은 고개가 높은 소로로 임천으로 나가기 위해 이 길을 다니는 충화면 사람들을 매우 불편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의찬이 앞장섰다. 군청에 진정서를 내기 위해 지역 유지들과 충화면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서명을 받았다.

군청의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며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모두 도맡아했다. 부여군청에서도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실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계획을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다 협조적인 사정은 아니었다. 군청 공무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도 당시 군수가 황의찬의 큰형과 청양 읍내의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인연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

길을 내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의찬은 밤낮이 없을 정도로 매진했다. 이렇게 확장된 충화 임천간 도로는 가파른 고개가 낮아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다.

무궁화 묘목을 키워 충화면의 곳곳에 무궁화를 심다

충화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던 당시 무궁화를 심는 운동이 있었다. 무궁화 심기는 황의찬 부인의 역할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황의찬의 부인이 내산면의 한 사찰에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임천면의 지인에게 무궁화 묘목을 얻어와 묘목을 가꿀 수 있었다. 마을사람의 발을 얻어 묘목을 심어 몇 년간 가꾼 후 충화면 내 마을에 무궁화를 심도록 나누어주었다. 무궁화를 잘 가꾸어 충화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포상으로 부산

여행을 간 적도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보수도 없이 마을을 이끌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고,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지원도 적지 않았다.

구전으로 전하던 팔총설화 자료를 모아 역사적 사실을 밝히다

황의찬은 41세가 되던 1972년 충화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표가 되었다. 황의찬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성과는 팔총사를 건립한 일이었다. 팔총사 건립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여러 역사자료들을 추적하고 선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은 1972년 부터였다.

황의찬이 팔총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까지, 성충과 계백과 홍수 등 백제를 대표하는 팔총신에 대한 설화가 구전된 이야기로만 알려져 왔다. 황의찬은 역사가 전하는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와 정신이 매우 훌륭한 국민 교육적 내용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충화면새마을지도자 연합회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면내 학식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헌기록과 유물유적, 구전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당시 부여박물관 관장 홍사준과 백제사적연구회 임병고에게 알렸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하였고 그 결과 계백장군의 출생지를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도가 난 직후 팔총사 건립을 권유했으나 당시의 여건은 팔총사 건립이 여의치 않았다.

팔총사를 건립하다

팔총사 건립의 기회는 1979년 무렵 찾아왔다. 부여 부소산의 삼총사가 새로 건립되면서, 임병고의 주선으로 부소산에 있던 기존 삼총사의 건축부재를 인수받아 팔총사 건립이 시작되었다. 우선 팔총사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시 4만원에 해당하는 백미 1가마를 출자받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충화면내에서 250명이 출자하여 천만원의 건립비용이 마련되었다.

1980년 봄에 팔총사는 건립이 완료되었고, 1980년 10월 21일 제26회 백제문화재 전야제 행사로 제1회 팔총제가 제향되었다. 계백장군의 어린시절과 관련된 구전설화가 전해지는 천등산 정상에서 대제성화가 채화되어 부여성화대로 봉송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팔총사

의 제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팔총사 건립은 황의찬이 꼽는 자신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받고 마을잔치를 하다

충화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을 역임했던 황의찬은, 그 활동을 인정받아 1984년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훈장을 받게 되었다. 황의찬이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훈장 협동장 받을 때 마을의 동갑인 친구들이 축하하며 돼지를 잡고 마을잔치를 열어 줄 정도로 크게 환영받았다. 황의찬 개인의 영예이기도 했지만 새마을운동으로 훈장을 받는 것은 마을의 큰 경사이기도 했다. 당시 훈장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이 500만원이었다. 황의찬은 모든 영광을 자신을 도와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마을사람들의 공으로 돌리며, 상금을 마을에 회사해 마을공동 재산이 될 논을 구입하도록 했다.

만지리에서 임천으로 이사와서 살다

황의찬은 4대강 사업으로 만지리의 집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집터를 보상받고 임천면 소재지에 집을 사서 새로 자리잡게 되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많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친 후 힘겨운 삶으로 새마을운동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긴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새마을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가는 새마을운동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역사를 끌고 가는 원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아직도 들풍장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438
어린애 업고 배 멩긴지 40년	443
건강한 유부도 지킴이	447
우리 자산인 금강하구를 지켜야	451
돈 나올 데가 바다밖에 없이유	455
그 많던 갈게가 다 어디로 갔는지	459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 여성 객주	463
금강하구, 막는 것보다는 터야 한다	468
도르뫼, 참그이가 물고 안 뇌줘요	472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아직도 들풍장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강 순 병 (1931년생)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강하구 화양면 와초리 지사울 마을에는 들풍장의 상쇠 강순병 씨가 살고 있다. 강순병 씨가 살고 있는 와초리는, 서천읍에서 한산방면으로 오다 기산면 월길리 삼거리에서 화양면 소재지 옥포리 방향으로 6km정도 온 다음, 좌우측으로 펼쳐진 평야지대를 따라 월산리 방향으로 2km가면, 아담한 산자락 밑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중앙에는 강순병 씨의 아내 장봉점 권사가 다니는 와초교회가 우뚝 서 있다. 와초교회 뒷자락에 강순병 씨와 장봉점 씨가 함께 살아온 가옥이 주인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있다.

강순병 씨는 집 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다. 와초리 들판을 바라보면 동네사람들과 신명나게 치던 들풍장이 귓전에 맴돈다. 와초리 들판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금강은 강순병 씨의 들풍장 소리와 함께 했다.

강순병 씨는 한산 성외리에서 선비 강성도 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시조를 좋아하셨고 진주강 씨 문중 일을 맡아 하셨다. 한산초등학교를 33회로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은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화양면 와초리 지사울에 논을 사고 와초리 152번지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는 선비이기에 농사일은 하지 않으시고 시조와 종종 일만 하셨다. 농사일은 아들 강순병 씨 몫이 되었다.

강순병 씨는 와초리 부자인 임희태, 임종기 씨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기계를 봐주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러면서 빈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임희태 씨



는 70마지기, 약 4,000평 정도의 논을 가지고 있었다.

와초리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서 김을 매면서 연주하는 농악을 두레 풍장 또는 두렛굿이라고 하였다. 서천지역에서는 2021년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와초리 들풍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름이 유명하다.

와초리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날 풍장을 가장 많이 쳤다. 그리고 추석날도 풍장을 많이 쳤다. 사실 추석날 보다는 정월 보름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치는 풍장을 더 많이 쳤다. 풍장을 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 정초에 복을 빌어주고 차려놓은 술과 안주를 먹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지신밟기라고 한다. 강순병 씨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지신밟기에 참여하였다.

강순병 씨는 풍장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당시 장구, 북, 쇠, 징을 만져보기가 어려웠다. 가격이 비싸 부서지더라도 하면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풍물 치는 양반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강순병 씨는 와초리 들풍장을 청각적으로 듣고 감각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었다.

와초리에서 풍물을 잘 치던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은 장구쟁이 장인 장귀성 씨이다. 또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종무 아버지는 팽과리를 잘 쳤다. 또 ‘또로’라는 별명을 가진 김봉룡 아저씨도 장구를 잘 쳤다. 북은 그냥 많이 안 쳤지만 이영기 씨가 쳤다. 강순병 씨 전세대의 풍물꾼은 장구는 장귀성, 김봉룡, 팽과리는 종무 아버지, 북은 이영기 어르신이었다.

강순병 씨는 이 어르신들의 풍장을 어깨너머로 들어서 배운 것이다. 강순병 씨와 함께 풍장을 친 사람들은 팽과리 강순병, 장구 조칠종, 최병렬, 징은 박금례, 북은 장은수 씨가 쳤다. 일명 상쇠 강순병 풍장패가 구성된 것이다. 풍장패는 결혼, 회갑, 정월 보름날 등 마을에 경사가 있을 때 많이 쳤다. 또 들일 나가서 더 많이 쳤다. 와초리에는 1970년대까지 150호가 살았는데 2021년 현재 50호가 살고 있다. 마을에서 풍장을 치면 보통 마을 사람들이 20~30명 정도 나와서 함께 치고 따라다녔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질 않는다. 마을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

와초리 들풍장은 주로 김을 맬 때 친다. 모내기를 할 때는 풍장을 치지 않는다. 모내기 할 때는 강순병 씨는 조합장을 했던 준택 씨와 둘이 줄을 잡았다. 가끔은 신명이 나면 모내기

할 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에~~~허이~~, 에헤야~~, 에~~~허리야~~라사~, 에헤야~~, 야~~에~~어~해가 산
이로구나아~~. 매기는 것은 노자 놀아~~~, 젊어~~노지~~, 늙어~~지면~~못 노나니
~~.”

일꾼들의 흥을 돋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노래이다. 모내기가 끝나고 초벌 맬 때 풍장을 치기 시작한다. 백중은 넘겨서 초벌 매기 할 때 풍장을 가장 많이 친다.

초벌 매기 할 때 풍물잡이는 팽과리, 장구, 징, 북 네 명이고 일꾼은 20~30명 정도가 된다. 맨 처음 치는 풍물은 질굿이다. 질굿은 마을에서 논까지 안내하는 풍물이다. 천하지대본야의 깃대를 앞에 세우고 고깔모자를 쓴 풍물꾼들이 가면 뒤에 삼십여 명의 일꾼들이 따라왔다.

일제강점기에는 풍물을 치기가 어려웠다. 일본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 풍물을 치면 조선사람들이 몽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쓰던 천하지대본야 농기, 풍물 등이 남아 있지 않다.

“일정 때는 치덜 못 했지유. 그런 것을. 그걸 왜 그랬냐면은, 그런 거 치면 말이여. 이제 잔치해가지고서, 뭐냐... 저 일본놈들이 그런 거 몽치는 것을 좋아 않기 때문에 말이여.”

일제강점기에 우리 풍장이 일시 중단 되었다가 해방이후 풍장을 다시 치기 시작하였다.

논 주변에 도착하면 삼성을 친다. 삼성을 치면 일꾼 들은 옷을 갈아 입고 눈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미 풍장패는 눈에 들어가 마당발이를 치면 잠뱅이를 입은 일꾼들이 주욱 늘어선다.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면 마당발이에서 한마치를 치고 앞드려 김을 매면 여섯마치를 친다. 김 맬 때 치는 풍장이 와초 들풍장이다. 들풍장은 김 맬 때 일꾼들의 기분을 돋아주고 사기도 올려주려고 친다.

일꾼들이 많아서 한 배미 정도는 후룩후룩 넘어가기 때문에 부잣집 큰 배미들만 풍장을 치면서 김을 맨다. 열 마지 짓는 사람네 논에서는 풍장 치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농사짓는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품앗이로 김을 매지만 부잣집은 소를 가지고 있어 소로 논갈이를 해주면 그 논 주인들이 논갈이 대신 김맬 때 일로 대신 해준다. 소로 논갈이를 해 준 대가로 들풍장을 치면서 일을 해준다. 와초리 부잣집은 임희태, 임종기 씨 논에서 들풍

장을 쳤다.

김매면서 셋거리는 내다먹고 밥은 집으로 들어와서 먹었다. 밥과 술 한잔하고 부잣집 마당에서 한 바탕 네마치, 두마치 치고 놀고 끝낸다.

이렇게 들풍장을 1980년대까지 치고 이제 들풍장은 군대회나 모시문화제에 나가려고 연습을 했다. 군대회가 있으면 면사무소에서 연습하고 화양면 대표로 나갔다. 화양면에서 1등이었다. 군대회에서는 2등을 했다.

이제 와초리 들풍장을 칠 사람이 없다. 치던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강순병 씨는 들풍장이 끊기고 있다는 것을 펍 아쉬워하고 있다.

“치는 사람이 없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돈 백 만원까지 탕짱아유. 가르치라고 하나, 누가 배울라고 허냐요 그게. 배울 사람이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 들은 배우고 싶어도 가서 만지지도 못했지만 허고 싶어도. 지금 들은 오히려 치면 시끄럽다고 허고 배울라고를 안 혀.”

강순병 씨는 들풍장 상쇠로 팽과리를 잘 치는 것뿐만이 아니다. 방앗간에서 기계를 잘 다루기도 하고 카메라를 일찍 구입하여 집에 암실을 차려놓고 흑백 사진을 빼기도 했다. 한때는 사주를 잘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주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했던 일이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토정비결이고 주로 누나가 아파서 절에서 경을 읽던 스님의 책을 베껴 그 책으로 사주를 봐주기 시작했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와초리에 포구가 발달하였다. 예전에는 와초리 금강을 ‘꽃밭’이라고 했다. 하굿둑이 없을 때는 뱀어를 많이 잡았다. 뱀어를 잡는 사람들은 물때 따라 잡기 때문에 저녁에 불을 켜고 잡았다. 그 불빛이 와초리에서 금강을 보면 꽃밭 같았기 때문이다. 뱀어는 상고배가 와서 받아갔다. 받아가고 남은 뱀어는 우케를 진 사람들이 받아갔다. 그 사람들은 한산장, 마산장에 내다 팔았다. 금강에서는 당시 송어, 참게, 우여 등을 잡았다. 강순병 씨는 강물이 무서워 배를 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순병 씨는 와초리 들풍장 이야기로 아쉬움을 남겼다.

“참. 조칠종 씨랑 최병렬 씨랑 우리 아닌 게 아니라 명절 때고 이럴 때 한번 치고 싶다고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선 ‘치자!’ 혀 가지고 치고. 또 술 먹고 싶으면 몇씩 가서 술 한 잔씩

먹자고, 치고 들어가면 술 내지 돈 내지. 그렇게 해가지고, 참, 술도 먹고 했는디. 우리 인자 끝나고 마는 게 참 서운해요. 아주 그냥.”

와초리 들풍장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어 아주 싹 없어지지 않고 이어갔으면 하는 소원을 빌면서, 강순병씨가 60여년 살던 마당에서 팽과리를 힘차게 쳤다. 아직도 와초리 들풍장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신아 마을에는 금강하굿둑을 막기 전부터 금강에서 어업을 해온 김구환(74세), 조순화(64세) 부부가 살고 있다. 망월리 신아 마을은 금강하굿둑에서 화양 옥포리 방향으로 약 2km 가면 여관 건물이 있는 마을에 도착한다. 망월리는 선소 마을과 신아 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선소 마을은 조선시대에 배를 만들던 마을이고, 신아 마을은 마서면 신포리 아포(牙浦 응개)에 있던 포구가 망월리에 새로운 아포(新牙 새 응개) 마을이 생겼다고 부르는 명칭이다. 금강하굿둑이 생기기 전 1990년대 전만하더라도 군산, 장항, 망월리, 옥포리, 강경을 오고 가는 여객선의 선착장이 있던 마을이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객주, 여관, 술집이 발달한 마을이다. 그래서 ‘망월리에 가서 주먹 사랑하지 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술꾼들의 출입이 많던 마을이다.

신아 마을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서천에서 가장 큰 금강의 지류 길산천 입구였다. 그 후 길산천 입구를 지금의 신아 마을 동쪽으로 내고 수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길산천을 따라 발달한 길산포에 배가 들어갈 수 없다. 또 길산천과 화산천이 만나 합류점을 분리하여 길산천을 금강으로 곧바로 내고, 화산천을 수문이 있는 곳과 연결시켜 놓았다. 그래서 금강의 지류는 길산천과 화산천 두 곳이 되었다. 신아 마을은 처음에는 길산천 입구에 발달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화산천 입구에 발달한 마을이다.

망월리 신아 마을은 길산천과 화산천의 두 지류가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어린애 업고 배 댕긴지 40년



부부 **김구환** (1951년생)
조순화 (1959년생)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강에서 만나는 합류점이다.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다양한 생물이 존재함으로 어업이 발달한 마을이다.

김구환, 조순화 부부는 옛 포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김구환 씨와 조순화 씨는 연애 결혼을 했다. 46년 전인 1976년부터 함께 살았다. 김구환씨는 화양면 망월리에 살고 조순화 씨는 마서면 당선리 쌍연 마을에서 살았다. 망월리와 당선리 마을은 약 3km가 떨어져 있지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밤중에 산을 넘어 다녔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무서운 것이 없이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신부네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이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들 키우고 결혼식을 올렸다.

조순화씨가 시집을 와 보니 김구환 씨는 남의 배를 타고 있었다. 남의 배를 탄 돈으로 먹고 살았다. 김구환 씨가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망월리가 생선배와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망월리 신아 마을에는 객주집이 있었다. 객주는 생선 실은 배가 들어오면 객주집 할아버지가 그 생선을 도매했다. 생선을 받으러 온 아줌마는 다라에 받고, 남자는 우के에 받아 사방으로 팔러 갔다.

망월리는 군산, 장항을 오고가는 정기 여객선의 선착장이었다. 망월리에서 군산으로 가려면 여객선을 타고 갔다. 오전에 군산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후 서너시 경에 돌아왔다. 장항장도 오고갔지만 대개가 걸어 다녔다. 당시에는 찾길이 없어 차는 일절 탈 수가 없었다.

김구환 씨는 고군산, 안면도, 선유도, 연평도 등을 다니는 여선을 타고 안 다닌 곳이 없다. 남의 배를 탄 품삯으로 살다 1970년대 후반 작은 배 한 척을 구입하여 금강에서 직접 고기를 잡기 시작하였다. 작은 배를 사서 둘이 고기를 잡았다. 2021년 지금 40세가 된 딸 지선이를 업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처음에는 뱃일을 도와줄 사람을 여러번 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금을 받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함께 배를 타게 되었다. 그때 서해에 나가 꽃게를 잡았다. 일손이 부족한 부부는 함께 일하다 보니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를 생각할 수 없었다. 금강하굿둑이 없던 시절이라 바깥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우리 다섯째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배에서 양수가 터져 빨리 집에 와서 낳았다. 그리고 다시 어린애를 낳고 뱃일을 했다.

“새벽에 ‘지연아빠 나 배가 좀 이상하네’하고서 그물만 놓고, 올라오거든. 이 앞에서 어장

을 헌 게, 저기 문(금강하굿둑)이 안 닫혔으니까, 참게 잡이 같은 거 여기서 다 했은게요. 그 땀 어떻게 이상하거든. ‘지연아빠, 나 빨리 가시다 대 줘’ 그땀은 낡고, 어린애 또 낡고 배 나가서 그물 또 저기 했다니까.”

부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난하여 뱃일 밖에 몰랐다고 말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으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셔서 쌀 팔아주고, 수저꽃대기(수저통) 하나 사주면 좋았겠지만 부부는 둘이서 수저 두 개, 쟁반 하나 사놓고 살았다. 원판 없으니 뱃일을 해야 굶지 않았다.

금강하굿둑 강문을 안 닫았을 때는 금강에서 송어, 농어, 황새기, 복쟁이, 참게 안 잡히는 것이 없었다. 빠가사리 민물고기도 나와서 금강하구는 ‘황금바다’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금강하굿둑이 생긴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섯째 딸 낳고 하굿둑이 막혀 잡히는 고기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졌다. 하굿둑을 막기 전에는 망월리 신아 앞에 나가면 어장이었는데, 수문이 닫히고는 붕어만 잡으니 판로가 없어서 못 팔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붕어와 함께 장어, 빠가사리, 황포, 참게가 조금씩 잡혀 먹고 살았다.

부부는 지금 배를 하굿둑 넘어 장항읍 원수리에 정박해 놓고 망월리에서 트럭을 타고 이동하여 조업을 한다. 금강하굿둑 바깥에서 실뱀장어를 잡는다. 다른 물고기는 군산 상인들이 사간다. 서천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을 줄 모른다. 예전에 금강하구에서 잡은 생선 중 가장 맛있는 것은 황새기와 우여였다. 황새기 잡는 법은 달랐다. 망월리에서 잡은 황새기는 단맛이 났다. 황새기가 떼로 다닐 때, 대나무를 물속에 넣고 소리를 들어보면 ‘와그락 와그락’ 꼭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 때 그 방향에 그물을 쳐서 황새기를 잡았다.

금강에서 참게를 많이 잡았지만 금강하굿둑이 생긴 후 점차 사라졌다. 이에 정부에서 참게를 방류하여 금강의 생물종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끔 부여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게를 잡는 경우가 있었다. 전기빵을 끄서 버리면 참게가 구멍속에서 발가락이 떨어져 기어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썩어버린다. 그래서 참게가 싹 없어졌다.

금강하굿둑이 건립되고 잡히지 않는 생선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여이다. 금강하구에서 우여가 많이 잡혀 화양, 입포 등에 우여식당이 있었다. 지금은 금강하구에서는 우여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 송어도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많이 잡았다. 떼로 올라 올

때는 송어가 펄떡펄떡 뛰어 배위로도 올라왔다. 한편 뱀어 역시 꽤 유명한 금강하구 물고기이다. 뱀어는 말려서 포로 먹거나 국을 끓여서 먹었다. 뱀어가 사라지고, 까치복, 황복, 즉 누렁태가 사라졌다. 황복은 참 맛있는 고기였다. 사람들이 맛있는 까치복을 먹고 동네사람들이 죽은 적도 있다. 배 안나갈 때 마을 사람 다섯이 복쟁이를 끓여 먹었는데 뱃일을 할 때 허가 잘 돌아가지 않아 걱정했다. 그때 보리논에 갔던 어르신이 죽었다고 아들이 뛰어 온 적이 있었다. 복쟁이는 사람을 잡기도 했다. 금강하굿둑을 막은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여, 황새기, 송어, 황복, 등 많은 물고기들이 사라졌다.

금강하굿둑이 생기면서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었다. 당시 어업허가가 안강면허라고 해서 실뱀장어 잡는 허가증이 있어 당시 천 이백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금강하굿둑이 생기면서 부부의 주업은 금강하굿둑 바깥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 바뀌었다. 실뱀장어를 잡는데 실뱀장어 고르는 사람, 배 운전하는 사람, 그물 당기는 사람 등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조업을 한다.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부부는 금강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말한다.

금강하구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금강하굿둑 건립으로 가장 문제점은 갯벌이다. 망월리 펄 바탕에서 재첩과 하얀 조개, 아사리도 잡았는데 지금은 물 흐름이 막혀 펄이 썩고 있다. 펄을 파면 썩은 냄새가 나고 비가 덜 오기 시작하면 금강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유난히 더 날 때가 있다. 그래서 부부는 금강하구를 터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트면 펄이 다 나간단 얘기죠. 그리고 없던 고기 옛날에 맛살 같은 것도 잡았던 것들, 하굿둑 바깥에서 맛살도 잡았거든요. 이렇게 큰 거.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김구환, 조순화 부부는 “금강 물이 흘러야 사람이 산다”고 외치고 있다.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건강한 유부도 지킴이



김 남 규 (1955년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는 서천에서 유일한 유인도이다. 또한 금강하구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해방을 전후하여 사람들이 정착하였는데 시기마다 입도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김남규 반장을 통하여 유부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남규 반장은 1955년 2월 3일생으로 현재 67세이다. 1986년 32세에 유부도에 입도하여 현재 2021년까지 유부도에서 생활한 지가 35년이 되었다. 유부도에서 2년만 살겠다고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버렸다.

1986년에 그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의 동서가 유부도에서 김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들어왔단다. 당시 유부도에서 생산된 김 값이 1첩당 6~7,000원 이어서 경기가 참 좋았던 시절이었으며, 유부도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김이 백화점에 납품될 때였다.

유부도에서 지주식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 이미 60년대부터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던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그때 까지도 소가 소금을 실은 달구지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부도는 현재 33가구 79명이 살고 있다. 1986년도에는 이보다 3배가 많은 인구가 살았다. 김 양식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집에 열 명 정도가 사는 경우가 일곱 여덟 집이 되었다.



1980년대에 송림초등학교 유부도 분교에는 11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으나, 2021년 지금은 학생이 없어 폐교된 상태이다. 없어진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다. 경찰들이 한두 명 정도는 매일 근무했던 파출소도 없어졌다.

유부도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해서 당시에는 목선이 오고 갔다. 지금은 선외기가 물때에 맞춰 사람과 생필품을 실어 나른다. 교회는 두 개가 있다. 유부도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생업이 변화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유부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박창구, 박창선 씨와 같이 과거에는 염전에서 일하거나, 김 양식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정지망 등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유부도 사람들은 오직 패류를 채취하여 벌이를 하고 있다. 패류는 백합, 동죽 등이 있다.

유부도 사람들은 수심원을 기억하고 있다. 수심원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요양하던 복지시설이었다.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였는데, 그들을 돕는 간호사와 식사 일을 돕는 식당 종업원도 있었다. 김남규 반장은 그 당시에 수심원 앞을 지나 다니면서 간혹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풀을 뽑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제 유부도에서는 먹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바다일 밖에 없다.

“물때 따라서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물 쓰면은 이제 경운기 타고 들어가서 백합을 잡습니다. 때로는 동죽도 잡고.”

주민들이 바다에 나가면 보통 하루에 백합을 12kg에서 13kg 정도 잡는다. 1kg 당 만 원, 만천 원에 팔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일 1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기도 하다.

“지금은 봄이라 그렇지만 여름에 가면 갈수록 수확이 떨어집니다. 계속 이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바다에 패류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인제 채취량이 떨어집니다.”

김남규 반장은 두 아이를 김 사업과 조개잡이로 가르쳤다. 1995년 김 사업을 끝낸 뒤에는 주로 바다에서 맛과 동죽을 잡아 생활하였다. 백합은 2010년 정도에 육지 사람들이 잡는 것을 보고 잡기 시작했다. 백합을 잡는 도구는 그랭이다. 김남규 반장은 그랭이질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이걸 또 허리에다 메야죠. 날이 한 5cm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면은 인제 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게 바다가 아니고 육지라 소리가 없는데. 뭐 동죽이라던지 패류가 걸리게 되면 소리가 ‘땅!’ 하고 납니다. 소리가 연결돼서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랭이로 조개를 잡는 데는 손과 귀의 감각이 중요하다.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들어서 동죽과 백합을 구분할 수 있다.

백합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조금이 지나서 두 마날부터이다.

“저희들이 인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사리¹⁾ 두사리 그러거든요? 한사리라는 것은 인제 보름 간격을 두고 보름 정도를 가지고 한사리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인제 물때 따라서 작업하다 보면 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뭐 산집해가지고 한 마, 두 마 이렇게 있거든요? 두 마날부터 이제 작업을 합니다. 조금에는 쉬었다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유부도의 많은 것이 변화했다.

“여기 항만 쪽으로도 많은, 그것보다 뭐 생태변화라고 할까요? 많은 변화가 있고. 이게 북측도류제만 보더라도 지금 토사가 굉장히 높게 쌓여지고 있어요.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 되는 게, 지금 패류 종류, 동죽이라던지 백합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잖아요. 서식을 하는데 토사가 쌓이면 이게 주민들의 터전인데, 이런 패류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죠.”

북측도류제 때문에 어선들이 돌아서다녀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밝은여라고 저 앞에. 북측도류제 끝부분. 거기를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서 와야 되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인제 어장을 손 놓은 분들이 많아졌고”

김남규 반장은 유부도에 살면서 좋은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그동안 정들었습니다. 유부도가. 35년 세월을 살다 보니 정들었고, 다른 곳에 가는

1) 사리 : 매달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에 조수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 조수의 차이는 달의 주기에 따라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매달 보름과 그믐에 밀물이 가장 높이 드는데, 그 시기를 ‘사리’라 한다. 반대로 밀물이 가장 낮게 드는 음력 8일경과 23일경은 ‘조금’이라 한다. 한편 사리는 ‘한사리’의 준말이다. ‘한-’은 ‘많다’, 즉 물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박남일,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 말 풀이사전, 2011.)

것도 인제 사람도 나이가 먹다 보니 가기도 그렇고. 인제 여기서 사는... 첫째는 환경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좋고, 또 인제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이지만, 유네스코라든지, 습지 이런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부도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인제 뉴딜 300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부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뉴딜 300 사업으로 유부도가 예뻐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인제 복지회관이 없지만, 그런 회관도 생길 거고. 하여튼 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건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던지. 이런 것들이 인제 자꾸 들어오다 보면. 사는 게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뉴딜 300 추진하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들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추진 중인 유네스코라든지, 습지, 자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유부도를 세계에다가 많이 알려주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자연유산인 유부도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터전이나 바다도 말 그대로 자연유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후세대한테 이걸 그대로,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 해수유통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김 양식에도 좋고 패류에도 좋다고 본다.

“예전에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흘렀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혀서 인제 간혹 한 번씩 방류 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그래야 모든 패류 종류도 서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남규 반장님은 유부도의 주민들이 건강한 섬에서 살길 기원하고 있다.

김억수 씨는 금강하구와 관련된 생태환경, 역사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분이다. 1971년 생으로 서천에서 나고 자란 뒤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대 다시 서천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서천을 떠나면 젊은 사람이 없겠다는 염려에 서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태 환경을 선택해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그는 환경 문제와 사회 운동면에서는 자신을 ‘서천의 원로’라고 할 수 있다며 웃었다. 30여 년을 서천에서 환경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란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운동으로 2005년 군산 핵폐기장 유치 반대 운동과 2009년부터 시작된 금강 해수유통 운동을 들었다. 그와의 그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이라는 용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600년 전부터 사용하였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뜯봉샘에서 발원하여 서천 금강하구까지 천리 길이다. 금강하구는 바닷물이 들어가는 지역, 즉 기수역이라고 하여 염분농도가 0.5에서 30퍼밀(permille)까지를 말한다. 금강하구의 중요성은 생태적인 것과 문화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태적인 면에서 금강하구는 바다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

금강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660년에는 기벌포 전투가 있었고, 663년도에는 백강구 전투가 있었고, 676년도에는 나·당전쟁을 하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우리 자산인 금강하구를 지켜야



김억수 (1971년생)
충남 서천군 서천읍



면서 외세를 물리친 기벌포 해전이 있었다. 또한 1380년에는 나세 장군이 이끈 수군과 왜적들이 금강하구에서 싸웠던 진포대첩이 있었다.

금강하굿둑은 바닷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홍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건설하였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는 바닷물과 민물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다. 지금은 그래서 염분이 없다.

금강해수 유통에 관한 입장은 전라북도는 농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군산은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어 반대한다. 그러나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천군의 입장은 달랐다. 20여 년이 지나니 수질이 나빠지고, 생물도 많이 사라졌던 것이다.

하굿둑 건설 전에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옛날에는 큰 배가 강경까지 갔다. 규모가 한 400석 이었다. 수운길은 공주까지 이어졌고 공주 위로는 부강까지 갔다. 부강에는 큰 시장도 있었다. 부여와 서천이 경계를 이루는 원산천, 광암천, 옥포천, 길산천을 중심으로 서천 쪽으로는 신성포, 후계, 죽산진, 그른계, 와포, 옥포, 망월리, 신아포 등이 있었다. 이렇게 번성하던 포구가 하굿둑 건설과 함께 쇠락했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되면서 문헌상으로 많았던 물고기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민어가 안 나오고 황복도 사라졌다. 김억수 씨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세 종인데 웅어, 참게, 실뱀장어다. 이것들은 옛날 자료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이것들도 곧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웅어는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갈대 위(葦)자를 써서 위어라 한다. 위어(葦魚)를 한글로 풀면 갈대 고기이다. 웅어는 봄에 산란하기 위해서 기수역으로 올라와 갈바탕에 알을 낳았지만 지금은 하굿둑이 막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반대로 참게는 가을에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하고, 봄에 돌아와서 육지에 산다. 그래서 참게는 나락이 영글¹⁾ 때 논에서 나온다. 주민들은 참게가 나락 영글 때, 그때를 가을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굿둑이 막히니까 웅어는 올라오질 못하고, 참게는 내려가질 못하고 있다. 현재 참게가 금강호에서 잡히고 있지만 지금 잡히는 것들은 청양에서 치어를 방류한 것들

1) 영글다: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탄탄하게 잘 익다.

이다. 그래서인지 참게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옛날 맛이 아니라고 한다. 웅어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웅어를 팔던 식당도 많이 사라졌다.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살이나 독살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속에 생태문화 지식이 있다. 아소래섬 근처에 물 흐름과 방향에 따라 어살이 세 개가 있었는데 어살 방향과 이름이 달랐다. 그때는 아무나 어살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한 변이 200여m나 되기 때문이었다. 말뚝을 소나무나 참나무로 박고, 말뚝과 말뚝을 박은 그 사이에는 대나무를 한 5cm 간격으로 얇게 쪼개서 발을 엮었다. 그래서 이것을 7자 모양, V자 모양으로 한 다음에, 그 안에 고기가 모이는 염통을 두었다. 그것을 내상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물고기가 모인다. 그 당시 어살의 주인을 ‘살광고’라고 했다. 이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지만 다는 잡지 않고 기다리던 주민에게 잡으라고 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것을 ‘훈물본다’라고 한다. 동네 사람들도 그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큰 물고기처럼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주인한테 주고, 좀 작은 물고기,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집에 가져 가서 먹는다. 이것이 바닷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살이 또 하나의 하구 문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어살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때 어살을 만들었던 방법이라던가, 어떤 물고기가 왔었던가, 그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었던가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독살도 어살과 같이 물 흐름, 산 그늘, 갯벌, 돌 소재, 만드는 사람의 재력 등에 따라 다르다. 독살 제작 방법은 가운데에 무거운 돌을 쌓고 육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는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파도가 세기 때문에 내 앞에 큰 돌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어디든 가보면 독살의 돌 크기가 다 똑같다. 이것은 뭔가를 모르고 독살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하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갈대를 빼놓을 수 없다. 갈대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웅어가 갈바탕에 알을 낳아 부화하였다. 지금은 더 이상 웅어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갈대는 웅어가 산란하는 바탕이었다. 게와 갈대는 수질정화를 한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게들이 올라온다. 게들이 올라와서 표층에 있

는 유기물을 걸러 내서 먹는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시 게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갈대밭에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진다.

또한 갈대는 문화적으로 건축재료, 생활도구, 채반, 갈자리, 갈비 등을 엮는데 많이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아무 기능을 못한다. 더 늦기 전에 갈대와 관련한 생태적 기능을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활용해야 한다.

갈대밭에는 깔뽕게로 농게, 갈게가 있고, 깔뽕그이, 뿔뽕그이에는 발에 털이 있는 게들이 살고 있다. 물이 빠지면 게들이 올라와 먹이 활동을 한다. 이 때 도요물떼새 등 철새들이 게, 갯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모인다. 한마디로 갯벌이 새를 부양한다. 서천 갯벌은 펄 갯벌, 모래 갯벌, 혼합 갯벌로 나뉜다. 펄의 성질에 따라 갯벌에 사는 어패류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펄의 종류가 다양한 서천 갯벌은 생물 다양성도 높고 철새들의 먹이도 그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금강호 수질 문제, 퇴적문제는 주민들의 수산업과 도요물떼새 등 지역 야생동물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 회복과 하구문화 복원을 위해서라도 금란도 문제, 북측도류제 문제로 대표되는 금강하구의 문제들을 한시바삐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억수 씨는 금강하구의 생태와 문화는 반드시 복원되어, 금강하구가 담고 있는 많은 자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지식, 경험, 그 가치가 사실은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구와 관련된 그 주민들의 기억이라던가, 과거의 언어라던가, 아까 갈대 말 씌드렸는데 그 생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가. 주민들이. 그거를 우리가 먼저 밝혀내는 게, 기록해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다음에 물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산을 좀 지키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형민 씨는 장항읍 옥남리 솔리에 살면서 조개, 꽃게 잡는 일을 한다. 김형민 씨가 살고 있는 옥남리 솔리는 장항읍내에서 서천군민체육관을 경유하여 617번 지방도로를 따라 종전 방향으로 약 6km정도 가면 장항국가생태산단 신축 아파트 옆에 있는 마을이다. 솔리는 솔리천이 중태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 있다. 바닷물과 솔리천이 만나 기수역을 형성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1924년에는 일본인 미야자키(宮崎)가 솔리 제방을 쌓았다. 솔리 제방 안쪽은 논으로 변화하였다. 지금 솔리사람들은 그 논을 이용하여 농사도 짓고 가까운 바다에서 조개 잡는 일도 한다.

솔리는 금강하구와 바닷길로 약 3.2km 떨어진 마을이다. 솔리 앞 바다는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고 갯벌이 쌓여 배가 드나들기가 어려운 곳이 되었다. 그래서 솔리에 살면서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 신축된 장암리 신항을 이용하고 있다. 또 서천군에서 유일한 유인도인 유부도까지는 약 7.5km 떨어져 있다. 김형민 씨가 조개, 꽃게 등을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가는 범위는 10km이다.

김형민 씨는 바람이 부는 날을 제외하고 사랑하는 아내 이순자 씨와 함께 바다에 간다. 금강물이 흘러 서해와 만나는 기수역에서 조개를 캐는 김형민 씨는 바다에 나가면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사실 코로나19로 노래방에 못 가서 망정이지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놔두지 않는다. 바다는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돈나올데가 바다밖에 없이유



부부 김형민 (1947년생)
이순자 (1953년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준다. 그는 바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바다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바다에 가면 백합, 동죽, 꽃게를 잡을 수 있다. 바다에 가면 하루에 10여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꼬박 꼬박 아내 이순자 씨의 통장에 저축한다. 바다와 함께 사는 김형민 씨는 콧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남의 배 탄 것까지 합하면 50년을 넘게 배를 탔다. 그만큼 바다와 함께 살았다. 바다로 가는 길부터 뱃길까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2020년까지 아내와 함께 뱃일을 했는데 그건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내의 허리가 아프게 되어 이제는 혼자 바다에 나가고 있다. 그전만큼 즐겁지는 않지만 콧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그가 천성부터 낭만적이어서 인지 바다는 그의 낙천적인 성격을 더욱 단단하게 하였다. 바다는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오늘 백합을 못 잡았다고 실망해도 며칠 지나면 백합이 많이 잡혀 기분이 좋아진다. 바닷일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듯이, 인생도 하루하루가 고달프더라도 언젠가는 기쁜 날이 있다는 것을, 50년 바닷일을 하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콧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김형민 씨는 21세부터 배를 타다 34세에 배목수를 사서 2톤짜리 배를 지었다. 그 후 동생과 함께 뱃일을 했다. 1974년 결혼을 하고 1997년도부터 아내 이순자 씨와 뱃일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장항 솔리에서 문산면 명곡까지 오고가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수저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정도로 가난했으나 신혼생활의 달콤함도 바다에서 찾았다. 부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아 바닷일을 통해 자식들을 가르쳤다.

“돈 나올 데가 바다밖에 없이유.”

이 한 마디가 김형민, 이순자 부부의 50년 인생을 대신한다. 돈 나오는 바다를 깔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바다로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이유.”

김형민 씨는 기회가 있으면 바다에 나가 일을 했다.

“물때 좋을 때는 아침에 갔다 와서, 밤에 또 가고. 밤낮으로 땀겨이유. 왜냐면 기회가 인저, 이것이 물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항시 나오는 것이 아닌 게. 금계 밤에 가서도 잡어가지. 그땐 인제 뭐 젊을 땐게 뭐든지 다 그냥 헐 땐게.”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굿둑이 건설되고 나서 바다는 변화하고 있다.

“토사가 굉장히 미었이유. 토사가 많이 미면 얇잔게 고기가 깊은 데로 빠져나간 게. 그것이 쪼끔…”

이순자 씨도 똑같이 말한다.

“얇차서. 전번에 저기 먹을 거라도 잡는다고 꽃게 그물 좀 갖다가 넣었더니, 다 펠로 말아가지고 왔데. 엄판 많이 메워가지고. 암튼 근디 어패류는 저 하굿둑 막을 때나 안 막을 때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다고 해야요.”

김형민 씨는 계절마다 어업활동을 다르게 한다. 봄 3~4월에는 생합을 잡고, 4월 중순부터는 꽃게를 잡고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금어기간이라 다시 조개를 캔다. 가을 10월에는 대하를 잡고 끝나면 또다시 조개를 캐러 다닌다. 11월 말부터 날이 추우면 3개월 동안 집에서 쉰다. 옛날에는 눈보라 치는 공공 어는 날에도 생합, 동죽, 가모락 조개를 켜다. 예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요즘에도 바다는 그에게 하루 11만 원을 벌게 해준다. 아침 5시 반에 나가 열한시 반에 들어왔는데 11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에게 바다는 금밭이다. 그는 세상에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이 제일 이상하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하루에 3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말이다.

김형민 씨는 바다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생합을 잡을 땐 장사꾼이 사가는 사이즈만 가져오고 작은 것은 그냥 놓고 와요. 어차피 크면 우리 것이니까요.”

배를 대는 포구는 송림리 당피에서 장암리 신항으로 변화하였다. 그가 당피에 배를 댈 때는 무척 고생했다. 당피는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신항은 언제든지 입출항이 가능해 매우 편해졌다.

과거와 다르게 솔리 앞에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 김형민 씨는 토사가 쌓이는 이유는 “들어오는 물은 빠르게 들어오는데 하굿둑을 막으니까 나가는 물은 천천히 내려가니 토사가 쌓일 수 밖에 없다”

고 한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조개가 안 잡히고 물 깊이가 얇아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업하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로 자꾸만 나가야 한다. 나가다 보면 개야도, 연도 어장까지 나가 지역 위반에 걸린다. 지역 위반을 하면 단속 보트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고 장항서 왔다고 하면 유부도로 끌고 가서 조서를 꾸민 다음 벌금을 내라고 한다. 그도 벌금 12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지역 위반에 걸렸을 때 아내 이순자 씨가 막 죽는 소리를 하고 울면서 빌기도 하여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다. 배를 두 척 가지고 있으면서 군산 허가증과 충청도 허가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들이 대야를 이고 가모락을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들어갈 수 없다. 토사가 쌓인 곳은 펄로 막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다. 10년 전만 해도 펄에 빠지지 않고 조개를 잡으러 갈 수 있었다. 그때는 잡은 조개를 대야에 이고 군산으로 건너가 해망동에 가서 팔고, 장항 역전에서 팔았다. 지금은 신항에 가져가면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현찰을 주고 가져간다.

김형민 씨가 사는 장항읍 옥남리 솔리 마을은 최고 700여 명이 살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그 수가 줄어 200여 명이 산다. 그래도 솔리하면 추부자네로 유명하다. 추교창, 추교영은 서천군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받은 지권을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쌀과 바꿔 먹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김형민 씨는 가끔은 추부자네 집으로 일손을 도우러 가기도 하였다.

김형민 씨는 평생 바닷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지만 뱃일을 하는 동안은 마시지 않는다. 이순자 씨는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함께 바다 일을 했다. 이제 바다를 통하여 노후 준비도 다 해 놓았지만 80세가 될 때까지는 뱃일을 놓을 생각이 없다.

금강하굿둑이 막힌 다음부터 솔리 앞바다가 얕차 가지고 꽃게 그물을 넣을 수도 없고 어장도 사라졌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면 허가가 없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부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바닷일을 계속할 거라고 말한다.

“50년 동안 일해 온 바다! 오직 바다를 사랑합니다.”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인근 마을에서 이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88세 박동규 어르신을 만났다. 박동규 씨가 살고 있는 한산면 신성리는 한산면 소재지에서 양화방면으로 가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서 신성리 갈대밭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와 약 6km 정도 613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면 된다. 신성리 갈대밭은 2000년 명필름에서 내놓은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신성리 갈대밭에 다다르기 전에 박동규 씨가 살고 있는 신성리 마을이 있다.

신성리 마을과 신성리 나루터는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신성리 사람들은 주로 벼농사를 짓고 산다. 농사를 지으며 오일장은 한산장을 주로 보지만 신성리 나루를 건너 곰개장을 보기도 했다. 곰개는 솜리와 전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었다. 곰개 장은 주변에서 많은 수산물이 거래되는 제법 큰 장이었다. 그래서 신성리 사람들이 곰개장에 가면 맛고 돌아오는 때도 있었다.

신성리 나루에서 곰개를 오고가는 것은 나룻배가 있었다. 서울에서 열차로 강경에 도착하여 배로 옹포에 온 다음, 곰개에서 신성리 나루를 건너려면 백사장에 꽂아 놓은 깃발을 흔들어 오고 갔다. 박동규 씨도 곰개에서 신성나루를 건너 올 때 깃발이나 소리를 쳐서 건너 왔다.

곰개장에서는 가끔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때 신성리 사람들이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 한 적도 있다. 이때마다 곰개와 신성리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곰개 사람들도 가끔은 소를 서천군 마산면 신장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그 많던 갈개가 다 어디로 갔는지



박 동 규 (1935년생)
충남 서천군 한산면



에 내다 팔려고 배를 타고 건넜다. 또한 곰개 사람들과 한산 사람들은 곰개장과 한산장을 오고가며 혼맥을 형성하였다. 한산과 곰개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을 소개하여 한산에서 곰개로 시집가거나 곰개에서 한산으로 시집오는 사람들이 있어 상권과 통혼권이 존재하는 생활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성리 사람들은 나루터 뱃사공에게 1년에 한 번씩 배 요금을 냈다. 배 요금은 보리로도 쌀로도 냈다. 신성리 나루터 근처에는 많은 갈대가 자라고 있었다. 소위 강가에 발달한 고수부지에 갈대가 자랐다. 그 갈대는 겨울에는 땀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방석을 만들어 자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갈대는 땀감뿐만 아니라 생활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갈대는 금강하구의 생산물로 유명한 우어가 산란하기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박동규 씨도 갈대밭에서 갈대를 채집하여 연료로 사용한 적이 있다.

박동규 씨는 신성리 갈대밭을 중심으로 살다가 도외지에서 생활하다 다시 돌아와 신성리에 살고 있다. 박동규 씨는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에서 1935년 태어났다. 9살 때 신성리로 이사와 한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였다. 군에 입대한 다음 평택보건소에 근무하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 48세가 되던 해인 1983년도에 고향 신성리에 돌아와 주로 마을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가 서울에서 학교에 다닐 적에는, 한산 신성리를 오려면 대개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강경에 내려서 다시 배를 타고 곰개까지 오거나, 강경을 경유하여 황등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곰개까지 걸어왔다. 곰개에서 금강 건너편 나루터에 있는 뱃사공을 목청껏 불러 배가 오면 신성리 나루터까지 왔다. 그는 그 뱃사공을 대부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신성리에서 비교적 부자였던 아버지 박규환 씨 덕에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집이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이들을 데리고 일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도 밥을 쥐야 했기에 40인 분 넘게 밥을 한 적도 있다. 그 만큼 일꾼보다 그 가족들이 더 많이 모여 식사를 했다.

신성리 사람들은 금강 건너 곰개장을 보았다. 곰개에는 술집도 주옥 있어서 신성리 사람들이 들르곤 했다. 곰개장에서 씨름대회를 하면 신성리 사람들도 출전을 했다. 곰개에서는 당연히 곰개 사람이 우승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성리 출신 서승호 씨가 예상

을 뒤엎고 우승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 신성리 사람들이 곰개장에 가면 얻어 맞는 일이 잦았다. 그 이후 “곰개에서 뺨 맞고 나루터에서 화 낸다”는 말이 생겼다.

역으로 곰개 사람들은 한산 안장, 신장으로 보았다. 아침 일찍 소를 팔기 위하여 소를 배에 싣고 금강을 건너 신장으로 향했다. 배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시간에 금강을 건넜는데 금강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강에 소를 태운 배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뱃사공은 노를 젓고 주인은 잠시 후 이별을 해야 하는 소의 고삐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신성리 나루는 곰개와 신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쉼터이고 이별의 나루터였다.

서울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신성리에 오면 조개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개뿐만 아니라 갈게를 많이 잡았다. 햇불을 들고 신성리 갈대밭에 나가면 쉽게 갈게를 잡을 수 있었다. 갈바탕에 깔린 갈게를 양동이에 잡아넣기만 하면 되었다. 갈게는 간장에 넣어 게장을 만들었다. 게장은 먹기도 하지만 주로 한산장에 내다 팔았다. 신성리 사람뿐만 아니라 화양 죽산리 사람들도 나와서 잡을 정도로 갈게가 많았다. 참게 역시 너무 많아 “이놈의 그이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컸었다. 갈게의 종류는 많았다.

“빨간 것도 있고, 그냥 털이 많이 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여. 털 없는 것도 있고.”

갈게는 갈바탕에 살았다. 갈바탕은 갈대가 있는 고수부지를 말한다. 갈대밭에서 산다하여 갈게라 불릴 정도로 갈대밭과 갈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많았던 갈게는 1990년 하굿둑이 막히면서 보기 힘들어졌다. 그 갈게가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기만 하다.

갈대밭의 갈대는 생활도구로 쓰였다. 갈대는 갈비, 갈방석, 채반, 집 벽 뼈대, 지붕의 새우 등으로 활용되었다. 갈비와 갈방석은 한산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한때는 한산모시 만큼이나 매출이 많았다. 갈비는 갈꽃을 뽑아내어 말려서 빗자루를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았다.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2000년도에 명필림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촬영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신성리 갈대밭에서 영화 촬영을 한 백가지쯤 했을 거여. 이름은 별놈의 이름이 다 있드만 그려. 그래서 한 평에 이천 원, 삼천 원 하던 땅이 만 원, 이만 원, 십만 원 뭐 다 이렇게 가게 되었어. 그 땅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수지 맞았지.”

신성리에서 잡은 고기는 다양한데, 뱀어와 장어 같은 것도 많이 잡혔다.

“옛날에야 뭐 가서 던지기만 하면 잡혔지. 원산천 여기도 물 문 잠그면 여 안에 고기가 뽀뽀했다고. 잡아서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가져가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뱀어, 장어 같은 거 많이 잡았지.”

그러나 금강하굿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생선이 없어졌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새우 뭐 이런 게 다 싹 없어졌어요. 우어, 뱀어 뭐 그이(게) 같은 게 싹 없어지더라고. 조개가 그렇게 많았는데 조개가 하나도 없고. 또 짠물이 이 갈(갈대) 위로 올르야, 갈이(갈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짠물이 안 흐르니까, 갈이(갈대) 작아요. 쪼그만씩 하더라고.”

그간 신성리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식수문제였다.

“식수는요. 본래 이 원산천이 저기 토산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 먹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 갖다 큰 동아리에다 부어 놓으면 누런해요 물이. 그래도 며칠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위에 물 떠서 먹고. 말하자면, 화금내를 제거하고 먹었어요.”

현재 신성리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이전에 넘쳐나던 생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갈게 많고, 조개 많고. 그러디 이 하굿둑 막고 나니까, 갈게니 뭐니 싹 다 없어지더라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이 웅덩이 같은 데 이런디(데) 있으면 품잖아요? 막 거기 잉어 같은 거 이만치 길이가 이만씩 하는 거 나오고 그랬다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부렸어.”

한산면 용산리 금강변에 사는 송송애 씨는 후케에서 객주를 하던 故오소서 씨의 이웃집에서 살았다. 송송애 씨가 살고 있는 후케는 한산면 용산리로 1930년대 까지 제법 큰 노동조합과 어물전이 존재했던 마을이다. 후케 마을은 한산소재지에서 신성리 갈대밭으로 가는 613번 지방도로 따라오다 옛 연봉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약 2km가면 용산리 후케에 도착한다. 후케에는 어선들이 입항하는 선착장이 있었다. 후케 선착장 근처에는 서너집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포구 약간 떨어진 곳에는 십여 가구가 사는 후케 장터가 있었다.

오소서 씨는 후케 즉 후포(朽浦)에서 객주를 했다. 오소서(吳小姐)씨는 주로 오객주라고 불렸다. 오객주는 용산리 후케에서 군산과 강경 사이를 오가는 고깃배에서 생선을 받아 소매업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 오소서 씨와 가깝게 살았던 송송애 씨를 통하여 금강의 포구 후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송송애 씨는 1943년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태어나 1962년도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에 사는 박형주 씨와 결혼했다. 용산리로 시집온 사촌 이모가 증매하여 시집을 오게 되었다 한다.

개야도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를 타고 용산리 후케에 왔다. 후케에서 배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왔다. 처음 본 후케는

“저 갯머리가 집도 네 가구가 있더라구요. 또 집이 많았어요. 나 세어도 안 봤는데, 저 끝에부터 여까지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 여성 객주



송 송 애 (1943년생)
충남 서천군 한산면



다 집이었어요.”

그때 후케 근처에 네 가구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용산리 230번지 주변에는 제법 많은 집이 있었다. 지금은 두 채만 남아 있다. 당시 후케는 갈대가 많았다.

“갈(갈대)이 막 깎 떨어갔고, 옛날엔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 갈(갈대) 그런 것도 뜯어 먹더라고요.”

당시 오객주는 송송애 씨가 시집온 옆집에 살고 있었다. 오객주는 몇 년 동안 길 잃은 남자아이를 돌봐주었다.

“오객주는 시집을 가 갖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도로 여기 와서 사는데, 개를 주서다 키웠어. 그 갈바탕에 가 있으니까. 배고프고 굶게 생겼으니까 주서다 개를 밥 먹여서 키웠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산골, 그 어디 집에서 아들 잃어 먹었다고 기별이 와 갖고, 그게 독신 아들이라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갔어.”

그 남자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돌봐준 오객주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그는 오객주의 생일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인사하러 오기도 했으며, 오객주가 99세에 세상을 떴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와서 초상을 치르고 갔다.

오객주는 인간적인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믿었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식을 낳지 못해 혼자 친정에 돌아와 객주를 했다. 오객주의 남동생은 윤갑중이다. 그는 이발소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연극 또는 공연을 했는데, 오객주는 객주로 살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복동생 윤갑중을 도왔다. 결국 오객주는

“객주 해서 돈 벌어서 동상 다 뒷받침을 했어.”

송송애는 오객주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얼굴도 참 이뻐요. 생김새도 얼마나 여자같이. 솜씨 좋고 말 잘하고, 뭐 음식(식)도 못하는 거 없고. 다 잘해요.”

그런데 군산에서 강경 쪽으로 생선 실은 배가 후케를 그냥 지나가면 오객주는

“욕을 얼마나 해 자치는지. 그 욕소리를 못 들어서, 그 남자들이 배 끌고 와서 오객주한테 생선을 주고 갔다는 거야. 욕을 막 무작스럽게 했어.”

용산리에는 오객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황객주도 있었다. 황객주는

“그 사람은 객주를 얹고, 고기를 잡아서나 냄기기만 했지. 그 집은 배를 한게. 객주를 얹고. 큰 배로 고기를 잡아다 판 데다 냄기는... 반장, 지금으로서는 판장. 고기 판장에다 냄기고 이 집은 객주만하고 그랬죠.”

용산리 후케에서는 객주들이 여자에게 우선적으로 생선을 공급해 주어서 여자들이 먼저 팔러 나갔다.

“여자들 장사꾼들이 다 받아서 그때만 딱 시집온게라. 항시 그저 까나리 그런 거, 박대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나와서 젓갈 담는 거. 그걸 갖고 와서 말로 이렇게 대야 갖고서 다라(대야)에 다 부셔주면, 다 이고 땡겼어. 저런 데서 다 팔더라고 여자들이.”

후케에서는 남자들이 생각할 때 여자가 대야를 이고 와서 또 애까지 업고 와서 장사를 할 정도면, 남자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여자를 먼저 배려 해 줬다고 한다.

“나는 그건 모르지. 시집왔으게. 여기가 옛날에는 막 바글바글 했어요. 집이 다. 엄청 많드라고, 여깨 다 집이여. 논이 이런 데가 다 집이여. 근디 인자 물질이 없잖여. 물이. 여기 새 암물이 안 나와. 학교 있죠? 그 앞에서까지 나 물 질(질)어다 먹었어.”

송송애 씨는 시집와서 가마니를 짰다.

“시집와서는 노인 양반들이 모시 해서 먹고 살았는데, 나 온게는 가마니 짜더라고. 그래서 가마니 짰지 뭐. 오던멀로 가마니만 배웠지. 그래 지금은 모시를 못 해서 속상해 죽겠어. 먹고 살랑게 그걸로다. 근디 내 짚으로 해서 가마니를 짜야지. 짚 받아다가 한게 남는 것이 없어.”

금강하굿둑이 건립되기 전에는

“뱅애 잡고, 새우도 잡고, 농어도 잡고 그런 거 다 잡아다 먹더라고 여기서. 근디 금강하굿둑이 생기기 전에 그 괴기(고기)가 없어졌어. 물이 저기 흐리게 그러나 재첩. 그거 잡아다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제 조개 잡으려는 안 갔어. 조개 잡으러 가갖고 다 떠내려가고 난리 뒤짚어졌어.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은 또 하루 저녁에 자는데 막 앓는 소리를 허더라고요. 인제 목욕을 하다가 펄바탕에서 이렇게 쪽 미끄럼을 탔던가 봐. 그러다가 유리에 찰려서 여기 배가 이만치 갈라진 거여.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밤에 나가서 양파 대갈

(대가리)을 막 찹찹 찢어갓고서는 내가 그 배에다 이렇게 붙여 줬어. 그랬더니 ‘엄마 시원하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애가 살생이 좋은가 그러나 그놈이 막 화기가 빠진게, 그냥 아물라들더라구요.”

송송애 씨의 남편은 금강하굿둑이 막힌 후에는 장항으로 나가서 배를 탔다.

“큰 배를 또. 여기서 안 찹힌게, 저기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왔잖여. 그런데 그냥 배를 하느라고 장항으로 나가더라고 살기는 여기 살고, 몸만 가서 장항서 배를 탔어 강금용이 그 집은 배 타서 부자 됐어.”

고기를 잡으면

“옛날에는 그 군산 판장도 막 해망동에 있고, 요 앞에 있고 그랬잖요. 두 간 디(테)서 다 덩기고. 거기서도 못 허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강경 들어가서 팔을 때도 있고, 목포 들어가서 팔을 때 있고, 별간 데를 다 덩겼어. 팔러.”

배를 타고 나가면

“우리네는 애들하고 살림하고 살란게 그런 생각도 없지만, 우리 아자씨가 뭐라고 하나면, ‘나는 10년을 살았어도 석 달도 못 살았다’ 그거요. 부부간이.”

송송애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우리 며느리가 딸 둘 낳고, 또 셋째 배았는디(가졌는데), 병원을 가라 해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큰병원을 가서 애를 낳으라 그러대요. 급하게 애를 냈는디, 그래서 개는 인자 고모가 데려다 우선 보고, 나는 거기서 산구완을 헐지. 그랬더니 애 낳은 놈에다 항암 치료하니 암이라. 항암 치료하고 허니 살겼이유. 며느리가 그렇게 놓고 죽을 때 어땠겼이유? 내가. 그러고서는 그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거기가 25년을 있었어. 그랬더니 영감이 거기 살자 그러면 답답하다고 쪼매 있다 내려와. 내려왔다 또 올라와. 올랐다 또 내려와. 그렇게 혼자 밥 해 먹고 있다가 치매를 걸린 거여. 이 양반이 인자 넘허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앓고 집에다만 살았던가 봐. 근게 약간 치매기가 있더라구요. 와본게. 그래서 그렇게 허다가 돌아가셨어. 이 양반이.”

지금은 송송애 씨의 마음이 편안하지만 마음 한곳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나는 괜찮은디, 그 양반 고생한 것이 불쌍하더라고. 지금 나는 호강하고 살잖여. 잉? 애

들 손자들 다 키워서 지금 다 돈 벌어서 할매라면 별걸로 알지. 애들도 그러지. 그런게 나는 지금 호강하고 사는디, 그 양반이 고생하고 살다 죽은게 그게 좀 불쌍하더라고.”

송송애 씨의 인생사를 듣다 보니, 고단한 인생살이를 억척스럽게 살아내신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금강하구, 막는 것보다는 터야 한다



이우봉 (1958년생)
충남 서천군 서천읍



1958년 장항에서 태어나 금강하구가 어민의 생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여 어민운동을 시작한 이우봉 씨를 만났다. 그는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저지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하굿둑이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온배수를 뿜으면,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미생물. 다시 얘기하면은 플랑크톤이라던지, 말하자면 어류 산란장이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 어류 산란은 민물하고 해수하고 만나는 데가 그게 산란 장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저지 시위를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영향으로 옛날에 산란장에 실뱀장어 새끼 같은 것은 2~30% 밖에 안 나왔다고 봐야죠. 그렇게 감소했어요.”

금강하굿둑, 금란도, 유부도의 심각성이 어민에게 고스란하게 다가온다.

“군산 발전소에서 우리 서천군에 있는 유부도라는 섬을 놓고 볼 때도, 약 10km 사이에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금 어패류가 상당히 영향이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볼 때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우봉 씨는 금강하구의 어민 입장에서 보면 해상도계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도계 문제는 여기 서천하고, 군산하고, 서해 바다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저 도계가 어망을 우리 충남 쪽에 놓으면, 썰물이 되면 이 어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군산에서 어망을 낚을 때, 들물 나면은, 이

그물에서 또 총남권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모두가 아는데도 어장을 놓고, 뺄 때 되면 경비정이 쫓아 와요. 세워서 도계를 딱 보면 넘어와 있거든. 그 도계 위반이라는 거여.”

“지금 어민들의 요구는 반경으로. 4km가 됐든, 10km가 됐든 여유를 좀 줘라. 중간에 공동 어업구역 식으로. 그런 부분이 예전에도 대두됐고, 지금도 어민들은 그걸 사실 수긍할 겁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민관단체와 군이 추진 단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말한다.

서천에서 유일한 유인도이며 금강하구의 핵심인 유부도는 건들면 건들수록 바다가 죽어간다.

“그래서 저는 개발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부도는 아직은 보존 가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파제나 척척 쌓은 것은 다 부서버려요. 지금. 다 복원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고 있어요. 새만금 보세요. 다 막아 놓고 저게 뭘니까? 여기서 어족권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요.”

결국은 금강하구는 막는 것보다는 터야 한다. 현재 금강하구가 가진 토사문제는 갯벌을 썩게 만들어 생물이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해수유통 방안은 있다.

“저는 하굿둑에 대한 부분 개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공업수로 쓰기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왜? 전라도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서천군이 살고 어족 자원이 풍부해질라하면, 해수유통을 무조건 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배가 들물, 썰물 다니게끔 하면, 상한 갯벌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갑니다.

특히나 서천군이 갯벌이 쌓이는 이유는 바로 어디가 있냐? 장마가 되면은 다 막아 놓고, 장마가 지면은 문을 엽니다. 그럼 그때 수문 개방을 했을 때는 물이 다 어디로 가냐? 다 군산으로 갑니다. 군산으로 싸요. 물이. 그 때문에 군산 앞에 도선장 쪽은, 수심이 깊어요. 그러면 물이 자연스레 안 가는 쪽은 당연히 토사가 쌓이죠. 그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천이 바다를 살리고, 어민들을 살리려고 하면 바로 해수유통을 해야 합니다.”

장항 발전과 금강하구의 관계는 장항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항항은 국제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장항이, 서천

군이 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배가 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물류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쪼그만 거배께(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쪼그만한 어선, 또 쪼그마한 화물선. 그래가지고 만조 때나 되야, 수심이 깊으니까. 화물선이 접안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굿둑하고 항하고는 100프로(%) 연관성이 있는 일이 거든. 이러다보니까 무조건 저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 원칙이여.”

장항산단의 활성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장항항을 살려야 한다.

“장항 산단에서 물건을 생산 해가지고 외국에다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여가다 실어줘야, 항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업자들도, 물류비가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천군이 살라고 하면 장항항이 살아야지. 항이 없이 어떻게 산단말인가요?”

최근 신항을 만들었는데 토사가 많이 쌓이고 있다.

“토사가 쌓이는 건 자연에 원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굿둑이란 말이에요. 토사가 쌓이는 원인은 물살이 없기 때문에 쌓인 거여. 들물 때는 들어와요. 펄이고 뭐고 다 얼마든지 밀고 들어와요. 자 썰물이 되면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자, 썰물이 납니다. 그럼 물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큰 바다 같이 멀리서 있을 때부터는 그리로 쭉쭉 빠지는데, 여기는 들물에 이만큼 밀었으면 썰물 때에는 그만큼 더 움직여야 현단 말이여. 그런데 지금 하굿둑이 막아져 있음으로 해서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장항 경제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경제가 있어야 안 떠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다행히도 서천군에는 김이라도 지금 좀 나오니까. 장항, 서천 경제가 낫지.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바다는 정말 잘만 관리만 하면 자원이 무한하거든요. 그런데도 바다를 완전히 무시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타까워요. 최근 장항은 초저녁에 불 떨어지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장항 멸치공장에 사람과 돈이 모인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것은 그나마 장항의 희망이다.

“멸치는 저 밑에 남해안 멸치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멸치가 나온 지가, 예전에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못 잡았던 거예요. 또 여기 지금 갑자기 서해안이 해수 온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멸치가 형성이 많이 됐단 말이여. 여기가 좋은 게 잔멸치가 많이 나와요. 큰 멸치보다 잔멸치가 더 비싸요. 뭐 주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잔멸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업하시는 양반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해안 치는 멸치가 굵어요. 큰멸치는 별로 주부님들이 안 알아줘요. 싫다고 해요.”

해수유통이 안 돼서 장항 발전에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금란도 문제, 유부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멸치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어업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천김을 최고 알아주는데, 이제 멸치 잡는 장항 어업인들이 정말 프로가 됐어요. 멸치를 삶는 방식이나 건조하는 방식이나 이제 프로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바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온 현상이 나오잖아요. 저것은 무조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현재 이우봉 씨는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천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다.

“지금 정확히 삼성 발전 기금이에요. 지역발전 기금인데, 그 저게 원래 11개 시군이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4개 단체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7개 단체는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서천군이 받은 금액이 116억입니다. 오성리에 거기다가 4백... 부지는 한 2,400평 됩니다. 허가도 다 했고, 종합복지관은 어민만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어민도 되고, 우리 서천군민이면 되고, 또 연관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모실라고 합니다. 거기엔 노인들 일 자리 창출도 하구요.”

이우봉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했다.

“서천군이 살고 바다가 살려고 하면은, 해수유통이 안 되면 이 바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환경에 재앙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천군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

도르쇠, 참그이가 물고 안 놔줘요



정인석 (1933년생)
유태종 (1946년생)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양면 옥포리 195번지에서 1933년에 태어나 금강에서 뱃일을 했던 정인석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 옥포리 발전 추진위원장이신 유태종 씨도 동석했다.

정인석 씨는 아버지가 미창 회사에 다녀 강경에서 살다 다시 화양 옥포리로 와 화양초등학교를 22회로 졸업했다. 아버지는 미창 회사를 다니며 쌀을 강경에서 군산으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다.

정인석 씨는 일찍 배를 타기 시작했다. 쌀을 강경에서 배에 싣고 군산항만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싣고 갔다. 정인석 씨 아버지가 탔던 배는 30톤급으로 쌀 한 가마니는 90근 또는 백마흔여덟 근이 나갔다.

정인석씨는 화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뱃일을 했다. “당시 금강에서는 조개, 갈치, 박대. 또 음력 5월경 되면 새우젓. 옛날에는 육젓이라고 했지유. 시방은 그런 새우젓이 없어유. 새우젓이 밥 한 숟가락이면 새우젓 한두 마리 가지고는. 시방은 잘잘하니. 그러면 그때 얼마 갔냐면은. 새우젓 한 도가지, 여름에 촌에서 갖다 먹어유. 가을에 농사지은 거 방아 찧어서 쌀로 주기로 하고. 그러면 새우젓 한 도가지에 되로 한 말 들어가유. 그거 하나같으면 가을에 가면 쌀서 말 받아요. 서말. 그때 논 한 평이 두 되. 쌀서 말이 새우젓 한 도가지면, 얼마며? 겁나게 비싼 거지. 시방으로 말하면.”

새우젓 값이 엄청 비쌌다.

옥포리에는 도르쇠, 다오개, 유건 등 3개 마을이 있

었다. 당시 옥포리 선창을 돌끄티라고 했다. 옥포리 돌끄티 선창까지 재태씨 구르마가 왔다.

“한산장 저 재태씨라고. 구르마가 여기 와요. 옛날에는 저 비포장 도로 아녀유. 그러니까 구르마가 두 대씩 와유. 인자 6일 날이 장날 아녀유. 그전에 장도 음력으로 했거든유. 그런게 다섯 날 여기 실러와유”

한산장 보는 사람들은 정인석 씨 형님 정인만 씨의 배를 많이 이용했다.

“짜부 선창. 상회에서 배 터까지 내다줘유. 그런디 내가 철도 그 안에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하나씩 들어 날랐지. 그런게 하역자를 안 두지. 그런게 우리 형님네 배를 한산장 보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혀유. 또 여기 오면 내가 다 퍼주어요. 내가 군산서 다 싣고 여기 와서 퍼주고 그런게. 하역자를 안 둔 게 우리 형님네 배를 그냥 많이 이용을 해요. 그때는 배가 세 척이었어요.”

정인석 씨는 풍선에서 기껏배를 탔다. 또 방앗간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

“윤여학. 거기서 저... 한 달에 쌀 일곱 말 받고, 인자 배, 배는 언제부터 하나면 봄, 여름하면 인자 끝나거든유. 인자 가을하고 겨울은 방앗간이 인자 농사짓고 그러니게 방앗간이 많이 있잖여. 근디 한 달에 음... 쌀 일곱 말 받고(웃음). 시방은 일곱 가마니도 안 돼요.”

정인석 씨는 옥포리 마을 안까지 갯고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시방 저 서천 갈라면 사거리 있잖아유. 거기서 꾸무리에서 제일 끄트머리 집이 있잖아유. 여기 시방 서해식당 그 뒤에 그 위로 해서 화양식당. 그 위로 해서 그 뒤에는 거가 보건소가 있었어유. 그 위로 해서 시방 이렇게 영화상회에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유. 그 앞으로 해서 뜰이 그렇게 해서 저 금강식당 그 모퉁이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화양경로당이 있지유. 거기서 꼬부려서 유 사장님네 창고 거로 쪽 해서 소방서 있죠. 거기서 쪼매 가서 저 확 또 꺾어서 몇 구불인가 몰라요. 인자 보건소 그리 쪽 가요. 보건소 있는 데 쪽 가고. 꼬랑이 커브 들어서 조끄매. 한 백 미터 가서 금강 이리로 빠졌지유.”

배는 갯고랑을 따라 들어와서 다리개에 물건을 내려놓았는데 장항 제련소 벽돌을 내려 놓았던 기억도 있다.

“시방 양조장 담, 옛날 온돌방 고랫돌(구들장을 올려놓은 방고래와 방고래 사이의 약간 두두룩한 곳)

그러면 거기에 막 내려놓지요.”

옥포리에는 이름 없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다. 양창순네 식당, 백두산식당, 조동일 씨네 집도 술집이었다. 백두산 어머니인 춘선이 세상을 뜨고 나서 아들이 이어서 운영했다. 옥포리에 술집이 많았던 이유는 화양에서 군산까지는 배를 타고 건너고, 화양에서 한산까지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옥포리 앞에서 많이 잡은 생선은 뱀어, 우여, 황새기, 송어, 그리고 참그이, 시라시이다. 음력 2월이면 뱀어를 잡았다.

“안강만들 중선배들이 잡았거든유. 그러면 인자 갖다 팔지요. 그러면 생선 장사꾼들이 와서 사다가 시장에 그런 데 팔아요. 뱀어잡이가 끝나고 양력으로 3월, 4월에 우여를 잡아유. 삼중망, 이자 망으로 삼마이 그물이라고 하지유. 대하 잡는 그물, 그걸로 잡지요. 얼음도 없고, 뭐 냉동도 없은게. 그냥 잡아서 금방 먹은게 싱싱하죠. 생으로 찍어 먹고 호이 해 먹고 그런게 싱싱해야죠. 그런게. 여기 사람들이 잘했어유. 식당에서.”

유태종 씨는 옥포리가 번창했던 이유를 화양면 소재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각 마을마다 다 술집이 좀 있었거든. 저 그 옛날에 막걸리 통, 큰 거 있잖유. 그걸 자전거에다 막 여섯 개 이렇게 높이 싣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배달을 한 거여. 그렇게 해가지고 판로를 했고. 여가 사람들이, 술집이 많은 이유도 우여니 각종 생선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술집도 많이 있었고.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연히 여가 사람들이 모이는 소재지니까 술집이 자연히 따라가 있었어.”

옥포리 앞 금강에서 생선을 잡는 방법은 다양했다.

“(황새기) 우는 소리가 그려. 시방 웅웅 바람 부는 소리지. 참게는 옛날에 끝장이라고. 또 에... 주낙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갯장어 말린 놈, 그런 거 화투장만씩 썰어서 담겨유. 실로 꿰서. 돌팍, 작독이라고 묶어서 이게 푹 놓으면 참그이가 그거 뜯어 먹으려고 와요. 그러면 잡어드려요. 이자 배가지고. 참그이가 물고 안 놔줘요. 푹 떼어 담고 푹 떼 담고 그랬지.”

옥포리 원산 도르되에 대한 전설이 있다.

“금강이 옛날에 떠나왔데요. 왜냐면 강이 금강까지. 내가 배를 대고 강경까지, 부여까지

가 봤어유. 여기 저 도르쇠 원산, 당산, 나포산. 저 가면 강변 밑에 나바우(바위)하고 거기 저... 전라북도유. 저 황산 밑에는 전라북도여. 황산동이라고 하지요. 이게 제일 막내래 유. 이 당산이 제일 끄트머리 떠나왔데요.”

도르쇠와 오성산은 공주 부여에서 떠내려 왔다고 생각한다.

“왜 오성산이냐면 옛날에 저 오랑캐들이 부여 사비성을 침범을 허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군산 이쪽으로 그냥 배들이 전부 글로 닿은 거야. 사비성을 찾아가는데, 위로 올라가보니 죽은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여 가는 길을 일러 달라고 헌게 안 일러준 거여. 그래서 지금 가보면, 오성산이라고 해요.”

옥포리에서는 도르쇠 당산에서 석탄 캔 이야기가 조금 알려졌다.

“옛날 어른들부터 당산 여기서 무연탄을 파서 중국으로 갔다고. 여다 배에다 싣고. 그래가지고 8·15 해방 되기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켜지유.”

“무서서 못 들어가유. 우리가 농사 여기 살 때 농사를, 인자 논에 갔다 오는데, 6·25때이지. 비행기가 막 금강, 호족기가 처음 생겼어유. 에잉~잇 막 놀라서 당산 굴로 들어가는 거야. 인자. 막 굴 속에 들어가서. 화양은 폭격하고 막 그런게. 그런데 속에 벌집이 또, 벌이 막 쏘아 싸네. 그러니까 나가도 못 허고.”

정인석 씨는 옥포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가 동네가 컸어유. 이짜 건너거든. 갯고랑 넘어거든. 큰 동네라고 했어유. 큰 동네. 개근로, 작은 동네. 이렇게 됐어유. 여가 면이 있고, 주재소 있고. 그래서 큰 동네라고. 또 호수가 더 많고유.”

유태종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면담을 마쳤다.

“제가 참 여기 고향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 인구가 너무나 줄어든다는 거여. 그래서 인구 유입을 많이 신경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요. 우리 시골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골 정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저 어디 시골 사랑방 이야기들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내가 발로 차서 쫓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공부 못한 한이 씨꺼말게 가심에 쌓였유	478
서당교육의 씨앗이 '효인성교육' 1급강사를 만들다	482
수줍음 많은 동안의 소년	486
글 소리 나면 배고프기 마련이쥬	489
송조목족(崇祖睦族)을 실천하다	493
칭찬이 성균관 부관장을 만들었어요!	498
문학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502
학자풍의 진지한 농사꾼	506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공부 못한 한이 씨꺼멍게 가심에 쌓였유



김기태 (1936년생)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할아버지 경기 김동년 씨는 홍성 홍동면 문당리에서 살다가 무슨 연고로 이곳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텃골로 와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한테 양자로 왔으며, 아버지는 3형제 중 막내였다. 후덕리 292번지에서 태어난 김기태(金基泰) 씨는 여섯 살에 아버지 김세환이 돌아가셨고 열한 살에 어머니 연안 명씨도 돌아가셨다.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어머니의 이름을 모른다. 호적이나 봐야 알 것 같으며, 외갓집은 비봉리다. 형제로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다.

집안의 가훈이나 전통은 들어본 적이 없다. 농사 재가 많은 큰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며 26살에 결혼, 29살에 분가를 하였다. 큰아버지는 일 욕심이 많아 땅도 많았다. 당시 논이 30마지기(6천 평)였고, 딸만 있어 작은 새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운곡초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자마자 4월 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해 여름에 해방이 되었다. 아침 먹고는 나무하러 다니고, 저녁 먹고는 새끼를 꼬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사촌 형님이 초등학교 옆에 살았는데, 그곳에 가서 공부도 배우고 한문도 조금씩 배웠다. 17살에 서당엘 몇 개월 다녔다. 큰아버지는 일 안 하고 서당에 다닌다고 성화셨지만, 다행히 집과 서당이 가까워 촘촘히 다닐 수 있었다. 서당에 가서 큰소리로 글을 읽으면 하루 일의 곤함도 이겨낼 수 있었다. 결국은 농사일로 큰아버지의 걱정이 심해 몇 개월 만에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는 서당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천자문은 집에서 자습하고 서당에서는 명심보감을 배웠다. 그때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다.

‘텃골서당’의 명의철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하셨다. 다른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 가르치다 보니, 상갑리, 농소리, 광시에서 까지 글을 배우러 사람들이 왔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몇 달이라도 공부한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 오래 배우지 못한 것이 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수업료는 내 본 기억이 없다. 학부모들의 회의로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것 같았고, 선생님이 수업료 얘기하는 것은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학생은 없었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없다.

명의철(明義詰, 1904~1973) 훈장님은 연안 사람으로 자는 중길(重吉)이며, 호는 소운(巢雲)이다. 청양 운곡면 후덕리에서 출생하고 명륜학원 졸업한 후 2년간 명륜학원의 훈장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운곡 후덕리 고향에 돌아와서는 청양농업학교에서 역사와 국어, 한문 등을 10여 년간 가르쳤다. 은퇴 후에는 후덕리에 글방을 차리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엄격하면서도 매사에 모범이 돼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선생은 특히 경서와 사기에 정통하였고, 시문에 뛰어났다. 1957년 성균관에서 개최한 제1회 개천절 경축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예선에는 장원을, 본선에서는 입상하여 이름을 날렸다. 저서로는 『소운만은(巢雲謾吟)』 2권, 『소운만고(巢雲謾稿)』 1권, 『소운잡저(巢雲雜著)』 1권이 전한다.

김기태 씨는 아내 공기득(10년 전 73세로 작고)과의 사이에 5남매를 낳았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 자식들은 모두 대학교육을 시켰다. 29살에 큰아버지한테서 분가할 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논 600평과 밭 750평이 있었다. 워낙 일도 열심히 했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다. 애들 교육하면서도 땅을 많이 사서 논을 1,400평까지 늘렸다. 이상하게 뭐라도 하면 그렇게 잘 됐다.

후덕리에서 3번째로 구기자 농사를 지었으며, 어슬티와 위라리 등에서 묘목을 구하여 연구도 많이 했다. 당시 쌀 한 말값이 250원이었는데, 구기자 한 근은 300원이었다. 이때는 쌀값도 비쌌었다. 정부미도 없고, 수리시설이 안 돼 물 때문에도 벼농사 짓기가 어려웠다. ‘춘대추납’이 있었던 시기로, 없는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쌀 한 말 갖다 먹고, 일을 얼흘씩 해주

기도 했다. 봄이면 쑥이 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다.

78년에는 고추 농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 직파하던 텐데, 고추모를 처음으로 해봤다. 농사가 잘돼 봄에는 고추 한 근에 500원 하던 것이 가을에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2,800원으로 올라갔다. 백 근을 따서 마차에 싣고 장에 가니 우리 것밖에는 없어 3,500원에 팔았다. 그 돈으로 1년 잘 자란 최상의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다. 집에 소 한두 마리씩은 있었지만, 황소는 논을 갈고 일을 하기 위한 소였다.

5·16 쿠데타 직후에는 대동마을 반장을 하였다. 3년 하다 그만두었는데, 후임자가 3개월 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이어 반장을 10년 동안 맡았다. 일 잘한다고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다. 운곡면에서는 1등 반장이었으며, 대동마을이 '빛나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는 길 닦으러 다니며 여름에는 풀 베고, 자갈 고르고, 도로포장하고, 울타리를 치는 등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으로 일을 많이 했다. 장영순·최창규 선거 운동한다고 광암리로, 청양으로 돌아다녔는데, 수고비는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난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자, 축협조합원, 구기자연구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도 많이 하였다.

텃밭 대동마을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이 좋다. 후덕리에서도 텃밭 제일 좋은 곳이다. 농약도 이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김기태 씨는 농약은 안 했지만 촘추는 것을 좋아했다. 술도 좋아해서 지금도 밤 10시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잔다. 술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마셨다. 농사일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마신 술버릇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걷기운동으로 승주산 중턱의 산제당까지 다녀온다. 자식들도 나중에 늙으면 여기 와서 살라고 할 것이다. 이 마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지만, 백 살까지는 살 자신이 있다 한다. 김기태 씨는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

김기태 씨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세대들도 그때그때 시대 따라 사니까 늙은이들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시국이 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 옛날에는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서인지, 지금은 천지개벽도 이런 천지개벽이 없다.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흔하고 편한 세상이다. 대문 앞까지 다 포장돼 풀 벨 일이 있나, 자갈 고를 일이 있나, 짚신 삼을 일이 있나, 할 일이 없다. 옛날에는 한겨울에도 낮에는 온종일 나래 엮어 지붕 덮고, 밤에는 새끼 꼬고...

시장만 해도, 50년 전에는 읍내 뚝매기 밑에 찌고만 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 배도 더 커졌다. 일부러 장 구경을 잘 다니는데, 골고루 다니며 구경한다. 별것이 다 있고, 뭐고 양이 적어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없다. 옛날에는 고기도 1년에 한두 번이면 잘 먹었다.

무릎관절이 있어 지골피를 끓여 먹었더니 크게 효과를 보았다는 김기태님의 구기자 홍보에서, 옛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구기자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서당교육의 씨앗이 '효인성교육' 급강사를 만든다



문명근 (1949년생)
청양군 남양면 구봉로



“요즘 젊은이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문명근 씨는 구술 내내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구술하다가 젊은이들의 한문공부에 관한 질문에 이르자 서운한 표정으로 밥상머리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 서당공부가 효와 인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밥상머리 교육만큼 우리네 가족교육에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할머니 교육열로 서당에 다니다

문명근 씨는 1949년 청양군 남양면에서 남평 문씨가문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다섯 살(뜸)에 6·25 전상자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가정형편이 그리 녹록한 편은 아니어서 풍족치 않았지만 할머니는 교육열이 많으셨던 기억이 난다. 당시 산골지역이어서 대부분 주민들이 학구열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바람으로 명근씨는 국민 학교를 마쳐갈 무렵인 6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서당에 다녔다. 할머니는 가끔씩 “너의 증조부가 성균관 대사를 지내셨던 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보아 집안 가풍에 따라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셨던 것 같다. 백금리 추목에 있는 추목서당을 3년을 다니고 동네서당의 교육은 다 받아서 더 다니기 어려워지자, 월정사에 들어가서 한문수학을 1년을 더 하였다.

지금은 빈집만 남아 있지만 백월산 밑에 자리했던

추목 서당은 경관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진호, 이면구 두 분의 훈장선생님께 한문과 한시 등 깊은 가르침을 받았을 수 있었다. 추목 서당은 당시 주위에 있는 서당에 비해서 유명했던 선생님들을 모셔다 수학하였다. 정진호 훈장님은 화성분이셨고 이면구 훈장님은 안면도 분이셨다. 훈장님들은 매일 읽은 것을 외우지 못하면 진도를 나가지 않으실 정도로 매우 엄하셨다. 열심히 가르친다는 소문이 난 까닭이었는지 서당엔 학생이 많았다. 주간에 15명, 야간에 12명 이렇게 27명 다녔으니 부근에서는 꽤 큰 서당이었을 것이다.

문명근 씨는 “1년에 학비가 백미 다섯 가마니였다” 하였는데, 이 기억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듯하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다른 구술자 중 한 분의 기억에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 서당은 물론이며 주위의 서당들도 1년에 벼 한가마니(쌀 닷팔), 보리 한 가마 정도였다고 구술하고 있다.

학습력이 높았던 문명근

문명근 씨는 천자(千字)부터 논어(論語) 20권까지 수학(修學)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당 교육 과정을 등급으로 기준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걸 누가 정한 것은 아니며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학생의 분류법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이 기본이다. 그 외에 사략(史略), 통감(通鑑), 소학(小學), 사서(四書), 당송문(唐宋文), 당률(唐律) 등 범위가 넓다. 시골서당에서는 훈장님의 능력에 따라 배우고 도시 더 큰 서당이나 향교로 다니기도 했다. 그는 추목 서당에서 더 배울게 없어져 월정사에서 스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한학을 1년여 더 공부했다. 그 때 논어 20권을 마쳤다. 문명근 씨의 공부는 보통 중상급을 넘어선 고급에 속한다. 그래서 인지 한학에 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문명근 씨는 월정사에서 스님을 도와 새벽 예불한 기억보다는, 서당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 훈장님께 혼나면서 글 배운 기억이 훨씬 생생하다고 말했다. 책시세(책씻이, 책거리)를 할 때면 집에서 담근 동동주와 훈장님 드릴 고기 조금 보자기에 싸오고, 떡을 해 와서 훈장님께 큰절하고 서당 사랑채에 둘러 앉아 나누어 먹던 기억은 아직도 선하다 한다.

청양향교 축관 문명근

문명근 씨는 현재 청양 향교에 몸담고 있는데 청양향교 이계복 전교님의 권유로 시작한 향교 활동이 20여년이 다 되어간다. 한학을 한 덕에 유림으로 향교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린다. 향교 제례에 분방이라든지 축이라든지 관여하면서 축을 쓰고 읽고 봉사하였다. 그래서인지 전국적인 유림활동으로 원주 향교, 무성 서원, 돈암 서원 등 5~6년을 축관으로 불려가서 뜻있는 봉사를 하였다. 유림 문명근의 봉사가 결실을 맺어 성균관의 표창을 받았고, 한학과 효를 강조한 삶이 인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명근 씨는 이 값진 표창들이 문명근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효를 기리는 청양지역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곧 강단에서 뱀길 기대합니다

문명근 씨는 70을 넘어선 나이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효(孝) 인성교육 강사’1급을 땀다. 이곳저곳 기회가 된다면 한문과 인성에 관한 교육에 남은 생을 바치려 한다. 그는 특히 우리의 ‘책상머리 교육’을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 그에게 서당은 한문을 가르쳐 준 교육의 밑거름이었으며, 각종 한문교육서는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지금까지의 삶에 큰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서당 교육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단연코 지금의 현대식 교육의 틀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민족의 가족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져서 가족 간에 멀어져가는 현실이 온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에서도 학교 교육 과정에 한학교육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지금 그는 유림활동과 청양군문화관광해설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삶을 즐겁게 지내고자 함과 동시에 고향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해설사 봉사를 넘어서 효와 인성을 가르치는 새 시대의 훈장이 되고 싶다고 힘주어 말한다. 효인성교육 강사 1급은 만학도의 결과가 아니라, 할머니가 손잡고 넣어주신 추목 서당 가르침의 씨앗이 새 시대에 빛을 보려고 싹을 피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성 교육, 효 교육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어서, 시대가 과거의 서당세대를 다시금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

생각 한단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것을 더 많이, 더 정확히 알려면 기본적으로 한자(한학)를 조금 더 깊숙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효 문화가 사라져가는 지금, 한국인의 가정교육의 틀이 되는 ‘밥상머리 교육’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라떼’란 신조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밑거름이 튼튼하지 못하면 안 된다 강조한다.

문명근 씨의 머리에는 한 권 한 권 책 시세 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던 훈장님의 웃는 모습이 아직 선명하다. 이제 그가 열정으로 강의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자.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수줍음 많은 동안의 소년



복찬규 (1936년생)
청양군 대치면 상갑길



요즘엔 교통이 발달하여 멀고 가깝다는 의미가 모호해졌지만,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는 청양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인식된 곳이다. 거리감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아예 산골이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외진 상갑리와 주변 마을들은 여러모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특히 교육이 그러하였다. 당연히 고립과 소외감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서당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다. 온 동네가 합심하여 학회를 결성하고 회비와 기부금(1환 50전 이상)을 모아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 당시 사숙은 서당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와 다름이 없었다. 서당에 현대의 학교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교육의 불모지였던 상갑리에 교육의 근거가 생겨났고 갑명사숙(甲明私塾)을 모태로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주변 마을들에 서당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오호라! 학문을 누가 좋다고 하지 않으며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는가마는, 우리 상갑리는 외진 곳에 자리하여 인근 지역과 내왕이 불편하고 주민이 지극히 가난하고 나약하여 두루 교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읍내 학교도 멀고 학비 낼 여력도 없는 까닭에 입학하기 또한 어렵다.

어린아이가 10세 전에는 농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저 노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주민의 도리를 다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마을의 어른들께서 서당을 세울 것을 의논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어 학회라 이름하였으며, 마을 안에 서당을 두고 한문 초등과를 가르치니, 이는 후일 학교에 입학하는 기본이 되며 노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면 금석도 쪼갤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하늘의 뜻도 움직일 수 있다. 오직 우리 마을 안의 인사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심한다.”

- 갑명사숙취지서(甲明私塾 趣旨書 1915년)

1915년 순재(純齋) 유종렬(兪鍾烈) 선생은, 갑명사숙의 교사로서 한문만을 가르치는 서당에 학교 교육을 더 하여, 도덕·습자·역사·지리·작문·산수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다. 그 당시의 상갑리를 상상해 보면 산골의 작은 동네 일진대, 자손들의 교육을 위해 5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자치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니, 그 높은 뜻에 가슴이 뛰었다.

복찬규 씨는 먼친 복씨 복기용(卜箕龍)과 한양 조씨 조계순(趙桂順)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 당시에 답 4,000평, 전 2,000평 정도의 농토를 가지고 계셨다니, 부농 중에도 부농이었다. 아버지 복기용 씨도 어린 시절엔 갑명사숙의 학생이었다.

복찬규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여 서울에 직장에 다닌 이력이 있다. 직장 생활과 서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사일이 천직인 듯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꾼으로 살았다.

“좋고 나쁘고 그때는 잘 몰랐고 서울에서도 마땅히 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어려웠고 일거리도 많지 않았어요.”

“동대문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도 농촌이었어요. 호박 심고 그러더라고.”

그는 스물다섯 살에 허계순(許桂順)과 결혼하여 삼 형제를 두었다. 분가할 때 부모님이 논 600평과 밭 1,000여 평 그리고 집을 사주었다. 슬하에 삼 형제를 두었다.

상갑리에는 머랭이 할아버지(유계준 선생), 용만이 아저씨(최병선 선생), 영걸이 할아버지(이의식 선생)가 서당을 운영했다. 그리고 공회당 또는 강당이라 불리는 곳에서 야학도 운영했다.

이의식 선생은 70년대까지 서당을 운영했다. 20여 명의 학생이 인근에서 모였고 산너머 봉갑리에서도 왔다. 이의식 선생은 갑명사숙의 문하생으로 후에 마을에 기절비 비문을 썼다. 한문을 풀어 소개하면

“사람이 좋은 일을 한즉, 반드시 칭찬의 글을 적어서 전하면 잊지 않으니, 본동의 갑명 사숙과 산재 계는 잘한 일이다. 사숙의 기초와 산재 계의 신령을 섬기는 자원은, 지난 을묘년과 병진년 간에 마을 어른들이 발의하시어, 의논의 대표였던 유 선재님이 교장이셨다. 여러분이 무슨 양면으로 계를 만들어 이자를 늘려 인재를 교육하고 학교를 옮기고 이 계를 새롭게 하여 산재를 지내는 사업을 하여온지 여러 해가 되었다. 여러 동네 어른들이 그 증거를 남겨두지 않음이 송구스러워, 이에 대하여 기록한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그 사실의 글을 청하여 기록하였다.”

- 상갑리 갑명사숙 계 기절비 전문

위 <갑명사숙취지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초등학교조차도 없었던 산골에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그 후진들이 장성하여 다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복찬규 씨는 직접 서당에 다닌 이력이 없었지만, 마을과 인근의 서당 그리고 상갑리의 갑명 사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었다. 상갑리 주민으로 충분히 자랑할 만한 마을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청남면은 청양군에서 서당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다. 1994년 청양군문화공보실 자료를 보면 청양군내 84개 서당 중 청남면에는 22개의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 주산인 ‘거북산’이 “학문이 깊어 자손들이 번창할 산”으로 여겨지는 천내 1리에서 ‘남산 서당’을 운영했던 마지막 훈장, 소사영 씨를 만났다.

유년 시절

천내1리는 진주 소 씨가 200년 이상 거주한 집성촌으로, 소사영(蘇士永) 씨의 할아버지 소형우(蘇亨宇)가 물 좋고 산 높고 벌판이 넓어 인심도 좋을 것 같아 공주 이인면 목동에서 이사 왔다. 천내리는 예전부터 “글이 안 떨어지는 곳”으로 진사 급제한 사람도 있고, 청양군 초대의회 부의장을 하던 윤재순의 할아버지처럼 유명한 학자가 있고, 예안 김씨도 살고 있다.

소사영 씨는 한 섬지기 농사를 짓던 아버지 소진철(蘇陳哲)과 어머니 임순선(林順仙) 사이에서 3형제의 맏이로 천내리에서 나고 자랐다. 외가는 상당히 지체가 높았던 집안이었으나 당파싸움에 몰려 지리학을 보고 청남면 앵봉산으로 피난 와 살았으며 지금은 어머니의 증손자가 왕진리에서 살고 있다.

소사영 씨는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다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학교를 다녀야 뭐라도 할 것 같아 어떻게든 초등학교를 마쳤다. 그 공부로는 벼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당시는 근방에 중학교가 없어 천석꾼도 중학교에 보내지 못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글 소리 나면 배고프기 마련이쥬



소사영 (1935년생)
청양군 청남면 위골길



했기 때문이다. 상급학교 진학은 못 하더라도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한학을 해야 우리 집안이 마을 사람들로 부터 무식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열일곱 살에 6·25를 겪었는데, 성인은 아니라도 클대로 다 커 징집에 끌려갈까 숨어 다녔다. 6·25 당시 천내리에 살던 김만영이 맨 먼저 서당을 다녔으며, 그 영향으로 그도 청소리의 김홍원 선생한테 4개월 야학으로 한문을 배웠다. 그 후 적곡의 홍재준 선생에게 1년을 배우다가 피난 오신 최병대 선생을 만나 6개월 정도 맹자·중용·대학을 배우다 스물한 살에 군에 입대했다. ‘삼경’은 안 하고 ‘사서’만 했으며, 공자의 사상을 존경하고 실천하려고 지금도 그렇다.

홍재준 선생은 소사영 씨의 집에도 종종 오셔서 가르치셨다. 어느 날인가는 새벽에 불을 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쑥 들어오셨다.

“자시(11~새벽1시)에 눈이 떠서 고개를 넘어오며 중용을 세 번이나 외웠는데도 아직 날이 안 밝았네”

하셨던 생각이 난다.

최병대 선생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분이다. 일제강점기에 윤봉길 의사에게 한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산과 청남에서 이십팔 년을 피난 생활을 하셨다. 선생님의 빛나는 공덕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널리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9년에 원청소 마을 입구에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송덕비를 세웠다.

소사영 씨의 할아버지대 부터 내려오는 가훈은 ‘근면·성실·인내’로, 농촌에 살려면 부지런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할아버지 말씀을 늘 듣고 자랐다. 집안의 전통이라면 아직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여자는 시집을 가든 시집을 오든 그 집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남산골-남산서당

군 제대 후, 25살에 혼인을 하고 아버지와 동생들과 한집에서 살았다. 한 섬지기 농사는 아버지를 도와 동생들이 지었고,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건달처럼 동네 초상나면 쫓아다니

고, 제방 공사와 경지정리 한다고 돌아다녔다. 아는 것이 한문 밖에는 없었고, 동네 어른들도 권하셔서 32살에 여기 남산골에 ‘남산 서당’을 차렸다.

학생들은 15~16살의 젊은이들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 사람들이었다. 다만 고지서라도 보아야 했고(그 당시에는 모든 고지서가 한문으로 돼 있었다), 이 근방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해는 15명이 와서 공부했으며, 3년 하고 문을 닫았다. 탄천·부여·정산에 중학교가 생겨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서당은 여기저기 생겼다. 이 동네에도 서당이 3곳이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간 한 50명 가르쳤으며, 윤자원이 하던 ‘묘암 서당’이 1970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알알 글 읽는 소리

글을 외우는 것을 ‘강’이라 하는데, 글방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글을 읽어야 깨우치가 쉽다. 서당에서는 천자문이 기본인데, 천자문 가지고는 발전성이 없어 동몽선습, 명심보감, 효경, 소학, 대학, 맹자, 논어, 중용 순으로 가르쳤다. 처음에는 글자를 알려주고 읽는 것과 풀이, 쓰는 차례로 가르친다. 다음날은 전날 공부한 것을 달달 외우게 하고, 잘 외우면 다음 것을 가르치지만, 못 외우면 계속 반복시키며 공부를 시켰다.

“어지간히 하라”며 밖에서 우는 학생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가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다. 학생들도 어렵다고 하며, 다른 선생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항의도 했다.

수업료는 1년에 여름에는 보리 닻 말, 겨울에는 쌀 닻 말인데, 세 말 가져오기도 하고 벼 닻 말을 가져오거나 길보리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었다. 공부하다 군대에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일 년이면 여남은 가마는 수입이 되어 식구들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었다.

말썰 피우는 학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이다. 벽을 구멍 낸 사람도 있었고, 말 안 들어 혼내면 서당에 나오질 않아 집으로 데리러 가기도 하였다. 한 번은 공부하다 나가서 가재를 잡는다고 구멍에 손을 넣어 뱀한테 물린 학생도 있었다.

때리지는 않았어도 기둥에 무궁화나무 회초리를 늘 걸어놨다. 학생들은 회초리만 봐도 땀이 나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학은 꼭 맞아가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으며 공부

한 것은 꼭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상은 없었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부모님들 모셔다 술 한 잔씩 대접하며 봄과 가을에 배운 것을 외우게 하였다. 자식의 책 외는 소리에 부모님이 기분 좋으면 또 술 한 잔 얻어먹기도 하였다.

소사영 씨는 육완덕 선생의 교육철학을 높이 평가한다. 육완덕 선생은 공부한다고 부모님 심부름 안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하셨다. 자제분들 가르치는 걸 보면 참 대단하셨는데, 그거 흉내 내다 어머니한테 “애들 심부름 다 시키면 어느 틈에 공부하라는 거냐”며 꾸중도 많이 들었다.

‘경천애인’과 공자 사상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며, 유학의 전통을 이어 한(문)학을 배우게 된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소사영 씨는 명심보감의 서문을 들려주셨다.

“새복(복)에 눈 뜨면 그냥 일어나 앉아 읽는규. 주역, 서전, 중용, 명심보감의 서문을 낭송 허쥬. 날마다 일그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안 읽으면 안 나와유.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보니, 저건 한학자여 한학자. 콧구멍에서 연기가 팔팔 나는 한학자여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고 남의 심부름을 헛어두 한학을 해서 신용이 유지됐다는 생각이 드네유. 한학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안 해 봤는디,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했으니 어렵기두 했지만유.”

2003년, 99살의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어 거절했으나 전형위원들의 선출로 정산향교 전교를 맡았다. 이후 모덕사·두촌사·이산사·창강서원(부여)·부산서원(부여)의 도유사(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를 지냈다.

소명과 바람

마지막으로 소사영 씨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이 주역의 핵심이다. 천지만물은 멈춘 것 같지만 지금도 변하고 있다. 양과 음의 기운이 변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 우리 후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변하는 것을 알아서, 옳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삼강오륜을 잘 지키면서.”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구 배무골은 윗동네를 윗배 나무골이라 하고 아랫동네를 아랫배나무골이라 하는데 안효문 씨는 아랫배나무골에 사신다.

강화에서 배나무골로

증조부 안우태는 조선 말 (1895) 강화 내란면 오상리에 살았는데 정 8품의 벼슬아치였다. 지금으로는 공사현장의 감독쯤으로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곳 배나무골이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다.

“400석 거리의 재산을 정리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서해로 배를 타고 내려오셨다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도 서산 어디쯤으로 올라와서 여기 청양까지 온 거지. 기록에는 없어도 할머니들 말씀으로 구전되어 온 이야기요. 한 달쯤 걸려서 왔대요. 대가족이 오는데 밥도 해 먹어야 하고 도둑도 맞고 하다 보니 얼마 남아요. 그래도 그 양반은 살만했다고 해도 자손이 7형제였는데 쪼개면 얼마나 되겠어. 6·25 이후로 밥 굶는 집도 많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굶어보진 않았어. 죽이라도 먹었지.”

송조목족(崇祖睦族)을 실천하다

가훈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송조목족(崇祖睦族)이라고 하신다. 내용의 범위로 보아 가훈이라기보다는 순흥안씨의 종훈(宗訓)인 듯하다 했더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붓으로 쓴 가정십훈(家庭十訓)을 보여주신다.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송조목족 (崇祖睦族)을 실천하다



안 효 문 (1941년생)
청양군 비봉면 배나무골길



1. 경노애유일시동인(敬老愛幼一視同仁) 노인공경과 자식 사랑하기를 똑같이 하라.
2. 가족화목대인겸양(家族和睦對人謙讓)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양하라
3. 근검절약물탐외재(勤儉節約勿貪外財)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아껴야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4. 자변사물시즉종관(自辨事物始則終貫) 스스로 사물을 분별하고 시작한 것은 끝을 맺어라
5. 난사술선물인의뢰(難事率先勿人依賴) 어려운 일은 술선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6. 청결정돈일일일행(清潔整頓一日一行) 집안을 청결히 하고 하루 한가지씩 행하라
7. 화재조심도난예방(火災操心盜難豫防) 화재를 조심하고 도난을 미리 예방하라
8. 춘재일년지계야사명일지사(春裁一年之計夜思明日之事) 봄이면 일년의 농사를 계획하고 밤이면 내일 할 일을 생각하라
9. 필수파종지기물실경운지시(必守播種之期勿失耕耘之時) 파종하는 시기를 반드시 지키고 갈고 김매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10. 단기필독차서야즉필성행사(旦起必讀此書夜則必省行事)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글을 읽고 밤인즉 계획한 일을 행했는지 살피라

“아버님이 말년에 벽을 새로 바를 때 아까워서 물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신 것을 제가 카피했지요. 아들이 5형젠데 그래도 제가 한문을 좀 아니까 저한테 주신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내용이 좋다고 하면 복사도 해 주고.”

아버지는 남자의 보약 쌍화탕, 여자의 보약 사물탕, 감기에 패독산, 출산한 부인들을 위한 불수산 궁기탕 등 처방전을 간직하고 있다. 약재 또한 직접 재배하여 며느리들 임신과 출산할 때 지어주셨다고 하니, 가장으로서 그 인품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31세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종중의 일을 하게 되었다. 신학문은 못 했지만 서당에서 배운 한문을 기초로 종사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어머니(李貞夏) 또한 유학자의 집안에서 자랐다.

“외할아버지(李建燮)는 태조대왕의 17대손으로 한학자였어요. 예산군 응봉면 등촌리에서

훈장을 하셨지. 가출이라는 동네였는데 60년대 예당저수지가 막히면서 객지로 다 떠나고 선산만 있어요. 외할아버지 산소에도 가끔 가지요.”

정선생님을 만나다

안효문 씨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어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원동(청양군 비봉면 신원1리)에 鄭相祿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야 했던 시절, 어리면 어린 대로 거들어야 할 일이 많았다. 봄부터 어른들이 논둑에 풀을 깎고 땅을 파면 콩 씨를 넣기도 하고, 어른들이 가래질 하면 뒤따라 두렁도 밟고, 모심을 때면 모쟁이를 하고 벼를 베면 벼단을 주워내라, 심고 수확하기까지 농번기에는 아이들도 일손을 보태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가는 날이 반, 못 가는 날이 반이었다.

“내가 마지막 제자여.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극노인였어.”

정상록 훈장으로부터 소학, 명심보감, 대학, 맹자를 배웠으나 노환으로 훈장님이 돌아가시자 서당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후에도 농번기에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틈틈이 다른 훈장님들을 찾아가 공부를 했다.

“용천리에 송호영께 중용을 배웠지. 중용이 얼마 안 돼. 한 달 만에 떼고 주역을 가지고 갔더니 못 가르친다고 해서 주 선생님(주경인)을 찾아가서 주역을 배우고, 청수리 이 선생님(이석조)께 논어도 배웠지. 선생님마다 특기가 있어.”

논 500평을 7000평으로

21세에 결혼을 하였다. 부모님과 한집에 살다가 군 제대 후 27세에 답 500평 전 700평을 받아 분가하였다. 지금 사는 터에 목조로 아버지께서 집을 지어주셨고 분가 초기에는 큰집에서 한 달에 쌀 두 말씩 얻어다 직접 지은 보리와 섞어 먹으며 살았다.

“만 6년을 큰집에서 살았는데, 큰딸도 그때 낳았어, 조카들이 8남매였어. 시어머니에 동서, 그러니 안식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 지금 세상 같으면 못 살겠다고 했을 거야.”

“부인들이 집에서 맡은 일이 식사며 의복 빨랜데, 그뿐인가 우리 어머니 세대는 더 어려웠지. 방앗간이 없으니 보리 방아, 쌀 방아 찌서 먹어야 하고, 그나마 방아라도 찌서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 시절에는 배푼고 살던 때 아닌가.”

“어머니는 길쌈을 했어. 삼베를 심어서 길쌈 짜고 목화 심어서 타서 꼬치에 말아서 물레질로 실을 뽑고 베틀에 걸어서 짰지.”

“분가할 때 아버지가 알 내어 먹으라고 암탉 한 마리를 주셨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 그 닭도 팔아 먹었어. 그때 안식구가 아팠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그 닭을 팔아서 약을 샀어.”

품도 팔고 밭 700평에 이것저것 심어서 청양장, 광천장, 지금의 남양장인 쇠내다리장까지 가서, 참외·수박·무·배추 등을 팔았다. 구봉광산이 한창이던 시절 청양군민이 12만에 육박할 때라 물건은 잘 팔렸다.

그렇게 근근이 살다가 80년대에 무 채종을 시작하였다. 청양지역의 책임자로 무, 오이, 고추 등의 채종 사업을 하였고 양봉과 토종별도 오래 하였다.

“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식구가 많은 별통보다 식구가 적은 별통의 별들이 식구도 빨리 늘고 더 부지런하고 꿀도 훨씬 많이 모아.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는데 잘못된 것 같어.”

평생의 길잡이가 된 한학

안효문 씨는 군 생활을 인제·양구 전방에서 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한학을 한 덕분에 하사 시험에 합격하여 하사로 군 생활을 하였다. 제대 후에는 예비군이 창설되어 분대장과 소대장까지 역임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추대로 반장과 이장을 역임하였고 대동회 총무 10년, 회장 6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한학을 했고 그 인연으로 오랜 세월 집안이나 종중의 대소사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다.

일흔다섯 살 때는 한자 급수시험을 쳤다. 3급에 합격하여 최고령 합격자로 우수상도 탔고 그해 가을에 2급 시험에도 합격하였다.

되돌아보니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명심보감이라든지 다른 거 읽은 것들, 머리에 박

혔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안 하게 되지.”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며 살았다. 농토에 집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농사지으라는 뜻이려니 황송하게 생각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부부 해로하고 5남매 키워 제 앞가림하고 사니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칭찬이 성균관 부관장을 만들었어요!



윤홍수 (1933년생)
청양군 정산면 효자길



고향을 지키며

1932년 목면에서 7대를 내려오는 토박이 집안인 칠원 윤씨 집에서 4남2녀 중 맏으로 태어났다. 당시 목면에서 200여년 넘겨 지내 왔으니 진정 뿌리 깊은 토박이임에 틀림이 없다. 윤홍수 씨는 어린 시절 증조부까지 4대가 함께 모여 대식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인지 화목한 가족을 기억하고 지금도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산다. 현재 그는 정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元老)이다.

정산 뿐 아니라 청양군을 넘어 전국적으로 한학(漢學)에 관한 학식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변지역의 각종 비석(碑石의 碑文)의 해석은 물론이며 비석을 새로 세울 때에도 그의 학식을 필요로 한다. 주위에 그 만큼 한학을 한 사람이 없단다. 비문(碑文)의 내용이 어려워 웬만한 교수나 공무원들도 찢찢맬 때면 자문을 구하기도 한단다. 농담으로, 어떤 편 약방 일보다 비문이며 한학책을 번역하고 쓰는 날이 더 많아 사모님께 원망을 듣기도 한다고 하니, 주위에서 그의 학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다.

참 짓궂게 “한약방을 왜 하세요?” 질문하니 한문을 많이 알아서 그렇단다. 사실 한약시험에 합격하려고 한약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는가. 필자가 이제 두어 번 뵈 것뿐인데, 행복한 웃음과 장난기스러운 답변에 친근감이 절로 풍겼다. 윤홍수 씨의 나이는 이제 구순이다. 그런데도 무척 정정하시다. 총기가 밝고 귀도 밝으시고 두 시간 가깝게 킁킁이 앉아 대화를 나누었

다. 장수의 비결은 자손들이 속 썩이지 않는 것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노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거란다.

서당 옆에 산 덕에

옛날 다섯 살 시절에 옆집이 서당(구수 서당)이었다. 담 너머 들려오는 글소리에 따라 읊기도 하곤 했다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께서 글방에 다니라고 넣어주셔서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서당의 시작이다. 서당에 다니려면 일 년에 벼 한 가마, 보리 한 가마 이렇게 들었다. 그때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윤희수 씨의 가정형편은 시골 기준에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살아서 중산층 정도는 넘었지 싶다고 기억한다.

다섯 살부터 여덟아홉 살까지 다니다 국민학교를 갔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그리 싫지 않았는지 한자 책들을 곧잘 읽고 외워서 천자문(千字文)부터 계몽 편(啓蒙篇), 동몽선습(童蒙先習)까지 다 배웠다. 그 정도면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많이 배운 편이라 국민학교 시절에는 윤희수 씨의 한자 실력이 제일 뛰어났다고 자랑했다.

8·15 해방 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게 되었다. 『논어(論語)』, 『통감(通鑑)』 등 실력이 높아져 청양 부근에서는 더 배울 여건이 안 되어 외지인 공주향 교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식 중학교로 가기 전에 일 년을 수학하였다. 그 뒤로 학교 때문에 대학졸업까지 외지에 있었다.

서당을 기억하자면 어린 시절 자신감을 많이 준 곳이라 기억한다. 한학 글도 곧잘 배워 훈장님께 칭찬을 받아 오면 할아버지께서 몹시 기뻐하시면서 “네가 잘해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해라!” 하시곤 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오늘날 성균관 부관장으로 전국에 한학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할아버지의 칭찬 덕이라 믿고 있다.

신·구교육을 넘나드는 학구열

윤희수 씨는 ‘한약사(韓藥師)’다. 55년인가, 60년인가, 아마 전국에서 본인이 제일 오래 한약방을 하고 있을 거란다. 한때 학교에서 교편도 잡았었지만 한약사가 된 건 순전히 한학에 자신이 있어서 한약사 시험에 도전한 덕분이다. 합격한 후 운곡에서 처음 한약방을 연

뒤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약방으로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세월만 60년이다. 서당 교육 5년의 기간이 이 긴 세월의 삶을 결정하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그에게 서당교육이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

윤홍수 씨의 학력은 신·구교육을 넘나든다. 다섯 살에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아홉 살에 목면심상소학교를 다니고, 다시 일 년을 공주향교(公州鄕校, 명륜학교)를 다녔다. 이때 다시 한학을 하고 시대가 변해서인지, 다들 신교육을 받으러 (신식)중학교를 가니, 윤홍수 씨도 영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중앙대학교까지 마쳤다. 이렇게 신·구교육을 다 섭렵(涉歷)하였다.

형제분들도 다 대학원까지 나와 윤홍수 씨를 제외하고 모두 교감, 교장, 교수 교육자들이다. 이것만 보아도 교육열이 대단한 집안임에 틀림이 없다. 집안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했는지, 어릴 적에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할머니가 장짱(장독대)에 가서 손주들의 천자책이며 각종 책과 노트 같은 것들, 심지어 벼루도 가져다 하늘에 빌고 하던 기억이 생생하단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손주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하늘에 열심히 비신 결과가 모두를 길러 낸 것이리라. 더욱이 얼마 전에 윤홍수 씨는 나이 구순의 만학도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치셨다니 학구열이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윤홍수 씨의 삶이 서당의 연장선에 있음을 부정하진 못한다. 신·구교육을 넘나들면서 대부분은 신교육을 받았으나 서당의 글공부가 지금의 삶을 결정 지었기 때문이다. 서당의 교육시간은 5~8세 4년, 그리고 명륜학교(공주향교) 1년, 그렇게 고작 5년 정도이다. 자신을 ‘한약사(韓藥師)’로 만들어준 서당공부에 감사하단다. 그러나 필자가 본 윤홍수의 한학에 관한 애정은 한약사로의 삶이 단순히 생업이고 한학자(漢學者)로 평가되길 바라시는 듯했다.

성균관 과거에 합격하다 한학자(漢學者) 윤홍수

지금 한약방 마루 벽면에는 성균관 과거시험 합격 교지(敎旨)가 걸려있다. 그 과거시험 합격 교지가 제일 값진 자랑이시란다. 같이 학교 다닌 동창들 중에 한문연구는 내가 제일이라 하신다. 지금 한문학자들이 모여 있는 성균관 부관장으로 임명되어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서당에 다니신 덕이시란다.

그는 배움의 사회기여로 청양을 중심으로 주위 비석의 비문을 600수 넘게 해석하고 정리 해주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상 자신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자꾸 가면서 한학하시는 분들이 없어 아쉬움이 더해 간다고 걱정한다.

요즘 젊은 분들이 한문을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영어, 수학도 좋지만 한문을 조금만 알아도 동양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표지판도 이해할 수 있고 뜻도 간략히 이해가 가능하다 하신다. 그러면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서는 더 활발히 그들과 교류가 가능하다 힘주어 말씀하신다.

그리고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학뿐 아니라 그 어떤 교육일 지라도 체벌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가르치길 바란단 말씀도 하셨다. 전국에 알려진 한학자이지만 겸손해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밝게 웃으시는 얼굴로 채록 내내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있는 노(老) 한학자(漢學者)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한학자의 참된 종교 ‘유교(儒教)’

결정적인 질문으로 종교가 어떻게 되시느냐 질문에 간결하게 “유교(儒教)지!” 하신다. 한학자(漢學者)다운 답이다. 질문지에 준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에 우문현답(愚問賢答)을 주셨다.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문학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한 사람



임동일 (1939년생)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 와송정으로 가는 길목은 백년 넘은 소나무의 줄기가 길게 뻗어 초록 들판과 어우러진 모습이 근사하다. 소나무 밑을 지나, 푸른 대나무가 뒤꼍에 있는 500년 고택은 한 폭의 정물화다.

집안 내력과 유년시절

임동일(林東一) 씨는 평택 임씨다. 청양에는 명종 대(원년) 임정수(林眞洙) 선조가 청양 현감으로 오게 돼, 화성면 화암리·기덕리·수정리 3동에 터를 잡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나주로, 나주에서 청양으로 온 것이다.

이곳 ‘와송정’은 할아버지들의 거주지였고, 선조들의 묘소는 기덕리에 있는 재실 ‘산천재’에 비문과 유래비가 다 갖춰져 있다. 가문에 대한 전설적인 내용은 대부분이 구전돼 오는 것이고, 일부 서류에 기록이 남아 있다. 근·현대에 와서는 독립운동을 한 핵심 가문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가문으로 진사나 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며, 선조들은 홍주 의병장 민종식과 함께 의병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과 활동했다.

임동일 씨의 할아버지 임덕호(林德鎬)는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일본중앙대학 경제학부를 수학했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일찍 깬으며 훌륭하셨다. 그때 임씨 ‘호’자 돌림 할아버지 8명이 물안이 수정리에서 태어났는데, 다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제대, 중앙대, 명치대 등을 다니며 공부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문을 익혔고, 그 양반들이 중심이 돼 독립운동을 하였다. 임경호(林敬鎬)는 상해임시정부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항일

의장 주도자 큰 할아버지 임풍호(林豊鎬)는 집안의 종무 이장으로, 항일 자금이 필요했을 때 소 90마리 값을 냈으며, 개인적으로 한 것이 더 많았다고 한다.

아버지 임승만은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계시므로, 집안을 지키고 관리하며 농사를 지었다. 농사 채를 관리하면서도 현대사회에 일찍 눈이 깨 정미소를 하였고, 대전도매시장에서 양품점을 하였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며, 가장 번성했을 때는 천 석의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그로 인해 임동일 씨는 신식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정순(李貞順)은 본관이 경주이며, 비봉 강정리가 고향이다. 외가는 한의를 전통으로 이어온 집안이며, 외증조할아버지 이관희는 공주사범학교 교장이었다. 외가 쪽 집안은 교육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임동일 씨는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22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화암초등학교와 홍성중학교, 광천상고를 다녔으며,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4회 졸업생이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 광천상고 때 응원가가 당선돼 대사전을 상품으로 받기도 했다. 글하고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취미로 이어왔다. 청양문화원 발행 ‘칠갑 문화’에도 몇 년 전까지는 글을 실었다.

임동일 씨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아들과 서울연구원 설계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경(敬)사자가 기둥에 걸려있다. 경은 퇴계의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큰아들이 퇴계 선생을 좋아해서 붙여놓은 것이며 경에 관한 책을 자주 본다. 최익현의 글씨다.

화성의 중심 마을이며 독립운동의 고장

임동일 씨가 뿌리내린 이곳 화암리·기덕리·수정리 3동은 임가들의 활동 지역이었고 화성의 중심지였다. 1905년 홍주 의병등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홍주의병은 임한주 선생과 안병찬 선생이 주도하였다. 뒷산과 매봉재, 와정봉은 옛날 독립운동 거점지로 봉화를 올리고 끝없는 독립 항쟁이 있었던 곳이다.

화암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민들의 인성은 저항적이지만 진취적인 성격이 많다. 물안이 마을에 사는 삼종아우 임동걸은 충분히 밖으로 나가 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시골을 지

킨다고 1957년에 4-H를 만들었다. 그 덕에 새마을 운동과 현대적인 새 시대의 운동에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가 빨리 껏다.

그런 움직임에 이어 임동걸은 1960년에 ‘새마을학원’을 운영했다. 평택임씨 모임인 산천재 종회에서 옛날 ‘상록수’처럼 야학을 시작한 것이다. 임씨 재실인 ‘산천재’ 강당에서 1968년까지 운영하였는데 학생이고 선생이고 열심히 했다. 문해 과정을 포함해서 중등·양재·한복 과정 등 300여 명이 수료했으며, 그들 중에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산천재 강당’은 교육사업의 발원지이며 화성 주민들을 깨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임동일 씨도 야학 선생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국어를 가르쳤다. 교육사업이 계속 이어지니 기덕리와 화암리의 큰길은 사람들이 그칠 줄을 몰랐고, 100여 명씩 학생이 있었다.

서당도 많이 있었다. 임동일 씨의 증조부이신 임용주가 운영하던 ‘송암사당’은 한말(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부터 일제 강점기 말까지 있었고, 임호주의 꼬챙이 서당, 덕명서당(임풍우), 화창 서원과 용당리에 이병순 서당이 있었다. 서당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재계와 제문 등 집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의식 때문에 서당을 다닌 사람들이 많았다.

해방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맞아 잘 모르겠다. 6·25도 어린 나이에 겪어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한국전쟁의 여파는 많이 남았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혼란이 결국은 지방의 분파적인 색깔을 만들었고, 아직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끔 받는다. 6·25 당시 좌·우익 사건은 빈부의 격차로 인한 응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억에 남는 스승은 고등학교 때 담임을 맡으셨던 김병용 선생이다. 원래는 경찰전문학교를 나와 경찰공무원이었는데 후에 충남대학교를 나와 교직 생활을 하셨다. 이복이 고향으로, 선생의 절도 있는 철저한 생활이 인생의 교훈이 되었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명과 바람

임동일 씨는 남양초등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았다. 남양초 2년, 광천상고 1년, 대천여고 10년, 여상 5년, 대천수고를 거쳐 대천고등학교에서 10년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았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 말고는 열심히 한 것이 없다. 험령험령 세월을 보내며, 그냥 지낸 것이다. 후

배 육성을 위한 교육은 워낙 열심히 해서 후회는 없다.

교육을 위해서 옛날에는 학생들을 많이 때렸다. 때리면서 훈육했다는 것이 지나고 나니 반성도 되지만, 대신 그때는 말썽은 없었다. 주로 학생과장을 맡았고, 당시만 해도 대천에는 한 반에 깡패 한두 명은 있어 학생들 통합을 위해서는 안 때릴 수가 없었다.

문학은 계속해오던 것이니까, 교육 외 문학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개인 시집으로 묶은 것은 있지만, 출간은 못 했다.

정년 후에는 이곳 와송정의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이나 보고 연못이나 기웃거리며 소일하고 살았고, 또 산다. 농사를 지을 줄을 모르니까 농사일도 못 한다.

다시 태어나도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교육자의 길에 설 것이며, 40여 년 교직 생활을 무난하게 한 것은 교사가 적성이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별한 사고 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아오며 후회도 없다. 학교 일과 사회 일을 방관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 참여하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만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다.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이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지만, 무엇이든지 본인의 심지를 굳건히 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주관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임동일 씨는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후에 기억되길 바랐다.

청양군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

학자풍의 진지한 농사꾼



한삼덕 (1942년생)
청양군 청양읍 청신로



일일삼성(一日三省) : 하루에 세 번 반성하라
평생삼지(平生三知) : 평생에 세 가지를 알아라
“우리 선생님(국촌 이성래)께서 주신 좌우명인데요, 어떻게 하루에 세 번을 반성합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한 번은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삼지는 지분(知分) 분수를 알아라, 지족(知足) 족함을 알아라, 지지(知止) 그칠 줄을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한삼덕 씨는 지금껏 살아오며 스승님이 주신 좌우명을 지키며 살고자 했다.

청양과의 인연

한삼덕 씨의 16대조이신 한계사는 병조참의 벼슬을 지냈다. 연산군 때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에 은거하며 후손들의 청양살이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산림이 울창하여 갓을 쓰고 걸을 수가 없어 갓을 나무에 걸어놓고 들어왔다고 한다.

은거 신분이라 특별한 흔적은 없지만 형산리와 시전리에 유물과 제실이 있었는데 화재로 족보까지 소실되고 지금은 산소만 남아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한 집에 백오십여 년 된 족보가 남아있어 종종의 흔적을 지킬 수 있었다.

조상의 산소 자리는 천석꾼이 난다는 옥호저수형이었다. 옥호저수형에는 석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금

기를 깨어 많은 화를 입고 산소를 옮겼다. 묘 밑에 갈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쓰여있다. 그의 부친께서도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라 비록 어렵게는 사셨지만 자식들에게 “천석꾼 집안의 자부심을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한다.

한삼덕 씨는 청주 한씨 한을숙과 한산 이 씨 이지복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목수 일을 하던 부친이 타향살이를 주로 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대치면 시전리에서 세 살 부터 열 살까지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가 기억하는 시전리의 옛 풍경은

“산이 마을을 두르고 동네 어귀로 냇물이 흐르는데 수구목이 주욱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그 수구목들이 다 없어졌어요.”

국촌선생님을 만나다

시전리에 있는 대치국민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고 청양국민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했다. 곤궁한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부친의 권고로 서당을 찾아 학당리(여우실)에 위치한 국촌 서당에서 본격적으로 한학을 하였다.

“굳이 서당 이름이랄 것도 없이 그냥 ‘국촌 서당에 다닌다.’고들 했어요. 선생님이 전주 이씨로 성함이 이성내, 호가 국촌(菊村)이었어요. 한문뿐만이 아니고 역사, 상식, 예의범절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송덕비를 해드린다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셨어요. 서당선생은 설경(舌耕)이라시며.”

“제가 본 선생님은 조선의 마지막 한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청양군지를 낼 때에 그분을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지역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실현하지 못했어요.”

당시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문수학했다. 동문회도 만들어 최근까지 친목을 도모하다 대부분 돌아가시고 세 분만이 남아서 최근에 해체했다.

19세까지 4년여 서당을 다니며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가서 벼루도 닦고 청소도 하여 자칭 타칭 선생님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좋아하는 책이 ‘명심보감’이다. 명심보감에 관한 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라 그런 책들을 배워야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어서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오죽하면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유생들의 교과서로 쓰였던 책이 아닌가.

서당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었다. 자택에서 자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년의 서당은 배움에 뜻이 있는 근처 학생들의 집을 전전하며 서당을 열면 학생들이 모이고, 길어야 일 이 년씩 그렇게 가르침을 연장해 가는 형편이었다. 배움을 지속하지 못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 더 배우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쉽다.

청양향교 ‘전교’ 되다

욕심껏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젊어서부터 향교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충·효교실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문은 내가 배운 것을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것이 책무이며 내가 거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쳐 간 학생들이 많아 가끔은 충·효교실 선생님 아니시냐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향토사며 예절교육 전통문화 성균관에서 주는 한자교재인 사자소학 등을 가르쳤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기억에도 남고 보람을 느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을 보며 잠깐잠깐이지만 예절교육의 효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현대판 ‘명심보감’의 필요성을 느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전교직을 수행하며 청양지역의 학통을 연구하여 그 줄기와 뿌리를 찾고자 애를 썼다.

“내가 추측컨대 남양에 용계서원이라고 있었어요. 명재 윤증 선생이 거기서 51세때까지 사셨대요. 그래서 여기 청양지방은 기호학파의 맥을 잇지 않았나 생각해요. 기호학파면 이이, 김장생, 송시열, 윤증, 한원진 선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 국촌 선생님과 죽사 윤정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이전을 알 수가 없어요. 죽사 윤정구 선생도 대단하거든요. 제자들이 돈을 걸어 논을 사서 그분의 제사를 지낼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사비로 청양 읍지를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 책 한권 만든다는 것은 재력도 있어야 하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목판인데

그것을 만들어 청양지역에 배포할 정도니 말입니다. 우리 국촌 선생님도 그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지.”

농사꾼으로 산 일생

한삼덕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농지로 농사꾼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는 은퇴하였다. 답 2,000평, 전 1,300평을 일구었으며 축산도 시작해서 많을 때는 소 30여 마리까지 길렀고 유기농 구기자를 주로 했다. 관행 농사보다는 돈이 되었다.

관행으로 짓던 구기자를 유기농으로 400평 농사를 지으면 2,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영농비 500만원 정도를 제하고도 1,5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농사가 많지 않다. 구기자를 하면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15년여 구기자 농사를 짓고 은퇴를 할 때 작목반에서 정년퇴직이라며 상패도 받았다. 농사꾼 정년퇴직자로 상을 받은 전국 1호가 아닐까.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당에 다녔지만 교육의 질이나 가치를 그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그의 이러한 성품이 아들에게도 모범적으로 보였는지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맹자’를 배워보겠노라 하여 2년을 가르쳤다. 아들은 맹자를 공부한 것이 이후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돌이켜 아쉬운 것들

선현의 뜻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서당을 다니며 배운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 말씀들을 일기로 기록하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로 남는다.

“일기라는 것이 기록이잖아요. 지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록이지요.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없지요.”

남은 생은 아내를 위해 살고자 한다. 특별히 속을 썩였거나 고생을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도리기 때문이다. 평생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왔다. 한삼덕 씨 26세에 23세의 아내를 맞이해서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 운동장을 걷는다. 노년의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나란히 저녁노을을 안고, 지고, 걷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대하초등학교와 광천중학교 대하분교의 옛 모습	512
용호초등학교의 옛 모습	517
덕명초등학교의 옛 모습	520
광남초등학교의 옛 모습	526
대평초등학교의 옛 모습	529
광신초등학교의 옛 모습	535
가곡초등학교의 옛 모습	538
광성초등학교의 옛 모습	542
오서초등학교의 옛 모습	544
산수초등학교의 옛 모습	549
학계초등학교의 옛 모습	552
반계초등학교의 옛 모습	555
양성중학교의 옛 모습	559
상황초등학교의 옛 모습	561
천수초등학교의 옛 모습	564

*구술채록에 포함되지 않은 홍성군의 폐교: 광흥중학교, 광천여자중학교, 결성중학교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대하초등학교와 광천중학교 대하분교의 옛 모습



김기정 (1932년생)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육군 장교 제대 후에 초등교사 임용

제보자 김기정은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우리가 고향이다. 대하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곳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4형제를 두었다. 고향에서 홍성읍으로 이사 온 것은 정년퇴직 이후이며 지금도 고향에는 옛집과 전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1953년도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이오 한국 전쟁 중에 육군보병학교에 입대했다. 당시 육군 보병학교는 요즘의 육군3사관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던 곳이다. 육군보병학교 교육훈련 중에 휴전이 되었고 졸업 후에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다행히도 휴전이 되어 치열한 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했지만 당시 현역 생활은 참으로 고생스러웠다. 휴전 후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군 생활을 마무리 하고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

그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곧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았다.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들에게 무시험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1960년도에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고 교육학을 이수하여 초등학교 교단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교사 16년, 교감 12년, 교장 7년 등 45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다. 1998년 2월 28일자 용호초등학교장으로 정년퇴직하며 교직을 마무리 했다.

고향 학교에서 14년 근무

교사 초임지는 홍북읍 상하리 용봉초등학교였다. 용

봉초등학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고향에 있는 대하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학교 근무연한 제도가 없었다. 요즘은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옮겨야 하는 제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 본인이 원하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고향 학교에서 14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

중학교 입시교육에 전념했던 청년교사 시절

1960년대 중반 무렵 대하초등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을 담임했다. 당시에는 졸업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중학교에 진학하던 시절이었다. 졸업생들은 광천지역, 홍성지역, 결성지역으로 나뉘어서 진학했다. 특히 광천지역과 홍성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과해야 했다.

당시에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학교 평가를 대부분 중학교 입시로 판가름 하던 시절이었다. 작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많았지만 6학년 담임은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학생들 입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옛날에는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았다. 대부분 집안 형편이 안 되어서 처음부터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처럼 진학률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중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시험에 합격을 시켜야 했다. 입시를 치를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밤늦게까지 입시지도를 하여 대부분 학생들을 합격시켰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는 홍성중학교 입학시험에 전체 7등으로 합격한 학생이었다. 당시에 홍성중학교 모집인원이 360명이었다. 시골학교에서 전체 7등으로 합격한 것과 함께 응시생 10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런 이유로 유능한 교사라는 칭찬도 들었고 6학년 담임을 다년간 맡기도 했다.

대하초등학교 개교 과정과 변천사

대하초등학교는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울리 266번지에 설립되었다. 1951년 4월 1일 은하국민학교 대하분교장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1957년 4월 17일 대하국민학교로 승

격되었고 5월 1일에 7학급으로 개교했다.

대하초등학교는 은하면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 학생들은 은하초등학교까지 20여리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녀야 했다. 이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가까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신설이 큰 바람이었다. 은하면의 최남단에 위치한 은하면 화봉리 부근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은하면의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학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었다.

이 당시에 대하초등학교가 있는 대울리는 담양전씨들의 집성촌이었다. 담양전씨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종토를 학교부지로 기부했다. 담양전씨들이 조건 없이 땅을 기부하면서 학교유치에 성공했다.

학교유치에 성공하긴 했지만 당장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부속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달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담양전씨들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강당 건물을 임시 학교교실로 사용하도록 주선했다.

학교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들판 건너편에 담양전씨들의 자제들이 공부하던 강당 건물이 있었다. 이곳에서 학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1년 넘게 학교 임시 건물로 사용했다.

당시에 대하초등학교 학구는 은하면 북부 지역인 대울리, 장곡리, 금곡리 등 3개 리였다. 한때는 대울리와 경계인 구항면 태봉리도 대하초등학교 학구로 편입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태봉리는 몇 년 후에 다시 원래 학구였던 구항초등학교로 복귀했다.

이후 대하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1977년에 12학급까지 편성된 적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전체 학생이 429명까지 늘어났다. 이때는 육이오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였다.

1977년을 정점으로 다시 학생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1982년부터는 6학급을 편성했다.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하초등학교도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5학급으로 줄어들었고 1993년에 다시 6학급이 편성되었다. 학생수도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벽지학교 지정, 병설 유치원과 광천중학교 대하분교 개설

대하초등학교는 1971년에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벽지학교는 교통과 생활에 많은 어려

움이 따르므로 교사들이 전입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승진과 전출에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전출을 희망할 때 일반학교에 비해 부가점수가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교사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대하초등학교 역시도 홍성읍이나 광천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통근하기가 어려웠다. 벽지학교로 지정되면서 우수교사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벽지학교 지정은 1989년 9월에 해제되었다.

1984년 3월 1일부터는 병설유치원이 개설되었다. 처음 몇 해는 유치원 교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저학년을 담임한 여교사들이 주로 겸직했다. 이후 대학에서 정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들이 부임하여 전담하기 시작했다. 병설유치원은 시골 지역의 유아들 교육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대부분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대하초등학교에 광천중학교 분교를 개설하여 병설로 운영했다. 1982년 3월 1일자로 광천중학교 대하분교가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대하초등학교 여유교실을 이용했으며 초등학교 교장이 분교 교장을 겸임했다. 교감은 중등학교 교감이 부임하여 중학교 학사운영의 실무를 총괄했다.

당시에 초등학교는 추첨으로 진학했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시를 치렀다. 대하분교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 지도에 열심인 분들이 있었다. 이분들의 지도 덕분에 대하분교 졸업생 중에서 홍성고등학교 합격생 20등 안에 3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는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도 있다. 홍성고등학교 교장이 작은 분교에서 우수한 입시실적을 올리는 모습이 궁금해서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광천중학교 대하분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1993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대하초등학교 폐교

대하초등학교는 1977년을 정점으로 점점 학생수가 감소하며 한때 5학급까지 줄어들고 학생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1994년 3월 1일 은하초등학교로 통·폐합되

었다.

대하초등학교 동문들과 학부모들은 통폐합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통폐합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서 학부형들 사이에 갈등도 겪어야 했다.

대하초등학교 자리는 현재 서울지역 교회에서 구입하여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운동장 주변에 남아있는 울창한 수목들이 모교를 찾는 졸업생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있다. 졸업생들은 해마다 폐교된 학교 운동장에서 총동창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용호초등학교에서 교직 마무리

제보자 김기정은 용호초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했다. 1986년 9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교감으로 근무했고 후에 교장으로 다시 부임하여 근무했다.

그는 용호초등학교를 끝으로 교직을 마무리 했다. 1961년에 홍북읍 용봉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하여 1998년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그는 처음 교장으로 승진하여 보령시 천북초등학교에 발령받았다. 이후 고향 홍성군으로 전입하여 용호초등학교장으로 발령받았다. 16대 교장을 역임하며 교직생활을 마무리 한 의미 깊은 학교이다.

그가 처음 부임할 당시에 용호초등학교는 벽지학교였다. 주로 홍성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학교에 관사가 있어서 외지에서 부임한 교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가 근무하던 시절에 학교에 처음으로 급식시설이 만들어졌고 양호교사가 처음 배치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살폈다.

옛 시절 변창했던 용호장터 부근에 설립된 학교

용호초등학교는 결성소재지와 갈산소재지의 중간 지점이다. 학교 부근에는 옛시절 변창했던 용호장터가 있었다. 용호장터는 주변에 큰 장이 생기면서 폐장되어 결성장과 갈산장으로 흡수되었다. 용호장이 한때는 용호초등학교 앞으로 옮겨서 잠깐 운영된 적도 있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용호 초등학교의 옛 모습



김기정 (1932년생)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학교 환경 개선에 노력한 학부형과 학교장들

용호초등학교는 대대로 부임한 학교장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주변 환경을 많이 개선했다. 10대 교장을 역임한 이영집 교장의 증언에 의하면, 1976년 말에 부임할 때는 학교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어서 교육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학생들의 체육수업 중에도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운동장 안을 들락거리고 교육 분위기가 안착되지 않았다.

이영집 교장은 학부형들과 함께 울타리 조성을 시작했다. 학부형들과 함께 서울 청계천에 가서 철근 파이프를 사왔다. 파이프를 직접 자르고 용접하여 울타리를 만들었다.

또한 학교 울타리 옆으로 실개천이 흐르므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학부형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기도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에 학교 환경 개선에 협조해준 학부형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크기만 하다. 학교 앞 실개천은 2000년대 중반 무렵 홍성군에서 복개해 주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잊지 못할 울릉도 교직원 여행

옛시절 대부분 학교들은 일 년에 한번 씩 교직원 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

용호초등학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여름방학 중에 울릉도 직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학교장 입장로서는 예상 못한 사고나 돌발변수 등으로 멀리 직원여행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직원들이 모두 원하는 여행이므로 울릉도 직원여행을 허가했다.

울릉도는 섬지역이어서 기후가 변화무쌍하다. 자칫 잘못 하면 태풍 등이 불어와서 며칠씩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잘 다녀오기만을 기원하며 여행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닥쳐오고 말았다.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음날부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여 육지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이

틀 후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인데 학교장으로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다행히도 태풍이 일찍 지나가고 개학 뒷날에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이 남아 있었다. 부랴부랴 이웃학교에 연락하여 몇몇 선생님들이 달려와 도와주어 개학날 하루를 어렵게 넘길 수 있었다. 학교장은 책임자로서 안절부절 못하고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다.

용호초등학교 설립과 폐교

용호초등학교가 세워진 위치는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203번지이다. 학교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구수동 마을 조씨 집안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해온다. 학교설립자 유공비가 학교 교정에 서있다.

용호초등학교는 처음 1946년 10월 1일 결성공립초등학교 부설 용호분교장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49년 9월 10일 용호 공립국민학교로 승격되어 6학급 편성 인가를 받았다. 학교 개교식은 1949년 9월 30일에 실시했다. 1950년 4월 1일 용호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 용호초등학교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었다.

처음 6학급으로 시작된 학급수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12학급이 되었다. 이후 학급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1986년부터 다시 6학급이 되었다. 학생수도 1977년에 519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로 서서히 줄어들면서 2003년 이후로 100명 이하가 되었다.

결국 2009년 9월 1일 자로 갈산초등학교와 결성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통·폐합 당시 용호초 전교생이 22명이었다. 이 중에서 3명은 결성초등학교로 갔으며 19명은 갈산초등학교로 옮겼다.

용호초등학교 출신으로는 홍성 출신 첫 4성 장군이 배출되었다.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가 고향인 박정이 장군은 용호초등학교가 배출한 자랑스런 인물이다. 이외에도 경찰과 행정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다수 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덕명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영집 (1926년생)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덕명초등학교에서 교직 마무리

제보자 이영집은 만 18세로 초등교사를 시작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제보자는 정통코스를 밟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말에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초등교사가 되었다. 처음 교사 생활은 1944년 10월 보령시 주포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해방되던 1945년 10월에 고향 청양군의 모교로 발령받았고 5년 후에는 청양초등학교 교무주임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했다.

육이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개인사정으로 3년여 동안 교직을 떠났다가 다시 복직했다. 1944년에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1991년에 정년퇴직했으므로 전체 기간은 47년이지만,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3년을 쉬었다. 중간에 쉬었던 3년을 제외하면 43년 동안 초등교단에서 평생을 보낸 셈이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교장의 5년 임기가 없었다.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1967년에 교감으로 승진했고, 1975년에 교장으로 승진하여 17년 동안 교장을 역임했다. 1991년 8월말에 덕명초등학교장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무리 했다.

교직생활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덕명초등학교

1986년에 덕명초등학교장으로 부임하여 199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만 5년 동안 오로지 학생교육에 마지막 심혈을 쏟았다. 당시에 덕명초등학교는 전체 27학

급에 재학생이 천명이 넘었다.

그가 학교장으로 부임하던 학교 교사 분포는 젊은 교사와 퇴임이 가까운 원로 교사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학교장으로서 직원들을 잘못 이끌게 되면 신·구 세대간의 생각 차이로 갈등을 일으켜 학교운영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로 교사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도 중요했고 젊은 교사의 패기와 열정도 중요했다.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했다.

원로 교사들은 학교장과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었다. 퇴근 후에 자주 어울려서 소통하며 젊은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설득했다. 젊은 교사들에게는 마음껏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젊은 교사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각종 경연대회에서도 상위 입상하는 등 참으로 보람이 컸다. 자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당시 교육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 바닷가 야영활동이다. 버스 여러 대를 대절하여 태안 바닷가 학교를 빌려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부모들이 함께 동행하여 밥을 해주고 활동을 보조해주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바닷가로 3박 4일동 훈련을 떠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못한 교육활동이었다. 젊은 교사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믿고 도전했던 체험학습이었다. 여러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여름방학 야영을 다녀온 것이 가장 추억에 남는다.

당시에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던 젊은 교사들은 연륜이 쌓이며 모두가 교직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지금도 당시에 학교장을 열심히 도와준 젊은 교사들이 가끔씩 보고 싶고 고마운 마음이 크기만 하다.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이 중책을 맡아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든든하다.

학교 시설 확충과 정비 노력

덕명초등학교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교실이 노후하고 부족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운동장으로 통하는 교문이 대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문 언덕을 뛰어 나갈 때 대로변으로 통행하는 차들과 부딪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교육청과 상의하여 교문을 위험성이 덜한 옆으로 이전했다.

또한 교실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목조건물 2층이었다. 홍성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신축교실 12교실을 3층으로 지었다. 학교교지가 좁은 관계로 2층으로는 부족한 교실을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3층으로 설계했다.

당시에 초등학교 건물은 2층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덕명초등학교에서 3층으로 처음 시도하면서 다른 학교에도 3층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정년퇴직하던 해에 3층 교사 착공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떠나왔다. 지금도 덕명초등학교 옆을 지나치려면 자신도 모르게 학교 모습에 눈이 쏠린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지역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학교가 폐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광천 상권이 번창하던 시절의 학교 모습과 분교 설립

조국 광복 이후로 광천은 상당히 번창하며 인구가 늘어났다. 제보자가 교사로 광동초등학교에 근무하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덕명초등학교 재학생이 2,400명 정도였고 광동초등학교 재학생은 2,600명 정도였다. 양쪽 초등학교 재학생을 합치면 5,000명이 넘었다.

광동초등학교는 미군 천막을 빌려서 임시교실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때가 1963년 ~ 1964년 무렵이었다. 운동회도 전교생이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저학년과 고학년이 따로 따로 운동회를 하는 실정이었다. 광천읍의 두 곳 초등학교에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두 곳에 분교가 설립되었다. 덕명초등학교에서 분리된 학교가 웅암리에 설립된 광남초등학교이다. 또한 광동초등학교에서 분리된 학교는 광천천 너머 광신초등학교이다.

독립운동가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 선생이 세운 덕명학교(德明學校)

덕명학교는 1908년에 독립운동가 일농 서승태 선생이 세운 학교이다. 처음 덕명학교를 세운 자리는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에 있는 서승태 선생의 자택이었다.

학교명 ‘덕명(德明)’ 속에 담겨있는 뜻은, “학교가 설립된 마을 덕정리를 비롯하여 주변 전체를 밝게 개명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덕명학교 설립 취지서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의 흥폐(興廢)에 있고 장래를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인재양성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덕명학교는 학교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서 광천지역 교육의 씨앗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1910년 7월에는 덕명학교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어 8명이 졸업하였다. 1910년 7월 27일자 황성신문에는 사립 덕명학교의 졸업식 내용이 실려 있다.

“홍주군 궁경면 사립덕명학교에서 제1회 졸업식을 실행하였다. 졸업생은 서홍모(徐弘模), 서승완(徐承完), 서봉석(徐鳳錫), 김상회(金尙會), 정인해(鄭寅海), 서만동(徐滿東), 윤두영(尹斗永), 함기영(咸基榮) 등이다. 홍주군수 윤필(尹泌)씨의 공책과 도서 우수상품과 홍성군흥학지회대표자 이충호(李忠浩)의 근면연설이 있었다. 인근 남녀의 구경이 인해(人海)를 이루었으며, 해당학교 1회 졸업 후에 폐지함에 비통을 느끼고, 임원인 박창병(朴昌秉), 서태석(徐台錫), 방철용(方哲容), 이희0(李熙0) 4명과 졸업생 8인이 교주(校主) 서승태 씨의 4년간 쌍수 유지(雙手維持)한 열심에 감격하여 지역인사와 함께 계속 유지하기로 학부형회를 조직하였다 하더라.”

황성신문에 실린 덕명학교 졸업식 기사 내용 중에는 제1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를 결정했던 것 같다.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명학교 운영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졸업생과 주변 인물들이 감동하여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서승태 선생의 교육열은 널리 퍼지면서 많은 인사들이 덕명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인사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1911년 2월에 광천읍 신진리(지금의 덕명초등학교 자리)로 덕명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고 광천지역 교육의 모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립덕명학교는 1908년에 세워져 1915년까지 유지되었다. 안타깝게도 일제는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의 사립학교들을 탄압하였다.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탄압하였다. 덕명학교도 어쩔 수 없이 1915년에 공립

광천보통학교로 변경되면서 식민지 교육체제로 흡수되고 말았다.

현재의 덕명초등학교는 광천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한 1915년 11월3일을 개교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는 광천공립보통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아 세운 학교이기 때문이다.

비록 사립 덕명학교가 광천공립보통학교로 이양되어 일제치하의 공립학교로 개편 운영 되었으나 서승태 선생을 기리는 열기는 대단했다.

서승태 선생 사후 수많은 후진들이 선생의 투철한 교육관과 흥학공적(興學功績)을 기리는 데 앞장섰다. 당시의 학부모와 제자, 그리고 지역유지들이 힘을 모아 1935년 11월에 학교 교정에 흥학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덕명(德明)이라는 교명을 지켜온 뜻

덕명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는 우리고장 교육의 뿌리이며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해 온 유서 깊은 학교이다. 덕명학교의 정신 속에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려는 강렬한 독립정신이 담겨있다.

일제가 덕명(德明)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 일제는 서승태 선생이 설립한 덕명학교를 폐교시키면서 광천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교육제도에 편입시켰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학교이름도 ‘광천신진공립심상소학교’, ‘광천신진공립초등학교’ 등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일제가 덕명이라는 이름을 없앤 것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교육의 싹을 자르기 위한 계략이었다. 덕명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은 것은, 조국 광복 후인 1949년에 ‘덕명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면서부터이다.

우리 선조들이 광복과 함께 학교명을 굳이 ‘광천’에서 ‘덕명’으로 다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의 빛이 되어 희망을 심어주던 독립과 민족정신이 깃든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온 큰 의미가 덕명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다.

안타까운 폐교

광천지역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광천읍 소재 초등학교에서도 입학생들이 줄어들었다. 학교마다 입학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며 통·폐합되는 학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광천지역은 2014년 3월 1일자 대평초, 광신초, 광남초, 광동초 등 4개 학교를 통·폐합했다. 학교명도 광천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때 덕명초등학교는 통·폐합에 동참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1일에 광동초등학교 자리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신축된 학교가 문을 열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최신 교육시설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충분히 지원되었다.

덕명초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교육활동비와 첨단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했다. 자연스럽게 덕명초등학교 학구내에 있는 입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덕명초등학교 재학생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광천초등학교와 통·폐합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덕명학교 학부모 60%가 넘는 통·폐합 찬성 서명을 담아 홍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9년 3월 1일 유서 깊은 덕명초등학교가 광천초등학교와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한때는 30학급이 넘고 전교생이 2,000명을 넘나들던 시절도 있었다. 농어촌 인구감소의 여파가 덕명초등학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100명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총동창회에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덕명초등학교 건물은 홍성군 전체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홍성군 교육박물관이 들어섰고, 홍성군 발명공작실, 안전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광남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영집 (1926년생)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옹암포구의 번성기 시절에 설립된 광남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는 1969년 3월 1일 덕명초등학교 옹암분교장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분교로 설립되던 당시에는 4학급이었다.

광남초등학교는 옹암포구의 번성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시절 독배항구를 통하여 서해안의 물산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인구도 많았다.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광남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70년에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되면서 9학급이 편성되었고 1972년에는 13학급까지 편성되었다가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12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1983년에 10학급, 1984년에 9학급, 1985년에 8학급, 1986년에 7학급, 1987년에 8학급, 1988년에 6학급, 1989년에 6학급, 1990년에 7학급, 1991년에 6학급으로 편성되었다.

학생수는 처음 설립되면서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77년에는 560명이 재학했다. 이후 서서히 줄어들면서 1987년까지는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1986년부터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광남초등학교 초창기 모습

제보자 이영집은 1970년 옹암분교가 광남초등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 교감으로 부임했다. 처음 교감으로 승진하여 서산시 근흥면 근흥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홍성으로 전입하면서 광남초등학교 초대 교감으로 부임한 것이다.

처음 부임할 당시에 광남초등학교는 허허벌판 논 가운데에 스텝 지붕으로 지은 교실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2층짜리 4개 교실과 숙직실이 전부였다. 학교운동장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을에 벼를 베고 난 벼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먼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학교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다.

당장 학교 개교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답답했다. 다행히도 지역 출신 군 장성이 군용 덤프트럭을 지원해주었다. 덤프트럭으로 부랴부랴 자갈과 모래를 실어다 운동장을 정리하고 개교식을 거행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 방문

광남초등학교 초창기에 공화당 총재였던 김종필씨가 광천지역을 시찰 나온 적이 있었다. 김종필씨는 헬리콥터를 타고 광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내렸다. 당시에 홍성군 국회의원은 장영순씨였다.

학교를 둘러보던 김종필씨가 김국진 교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국진 교장은 우선 학교에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며칠 만에 전기와 수도 설치가 완성되었다.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힘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김국진 교장은 갑작스런 상황에서 우선 당장 시급한대로 전기와 수도시설을 요구했었다.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학교 건물 확충 등 더욱 큰 사업을 요구했을 것이다. 교장 자신도 아쉬웠고 주변에서도 쪼잔하게 작은 것을 요구했다고 농담 섞인 면박을 받기도 했다.

실설학교를 차곡차곡 정비해나가던 보람

광남초등학교 옆쪽으로는 커다란 하천이 흘러간다. 큰 비가 오거나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하천 제방을 넘어서 학교까지 밀려올 때가 있었다.

어느 해인가 해일이 덮치며 바닷물이 웅암포구와 주변 일대로 밀려들어온 적이 있었다. 큰 비가 와서 하천 제방을 넘어와 학교 운동장이 침수되기도 했다. 학교 운동장이 큰 수영

장처럼 변하여 학생들이 넓은 고무 대야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학교시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며 교육현장에 힘을 보태던 보람도 있었다.

광천초등학교로 통·폐합

광남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 광동초등학교 자리에 광동초, 광신초, 대평초, 광남초를 모두 합친 현대식 건물의 학교가 들어섰다. 이때 통·폐합되면서 학교가 사라졌다.

학교 건물은 최근에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홍성군에서 광남초등학교터를 매입하여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대평 초등학교의 옛 모습



김주호 (1946년생)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초등교사 41년 중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대평초등학교

제보자 김주호씨는 홍성군 7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41년 동안 근무했다. 초등교사 41년 동안에 대평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세월이 20년이나 된다. 그의 초등교사 경력 중에 절반을 대평초등학교에서 보낸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가 41년 동안 근무했던 7개 초등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폐교되었다. 참으로 인구가 넘쳐나던 옛시절과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사는 요즘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평초등학교와의 특별한 인연

제보자의 원래 고향은 오서산 기슭에 있는 장곡면 광성리이다. 당시에 광성리의 초등학교 학구가 장곡초등학교였다. 이런 이유로 장곡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옛 시절에 그의 고향인 장곡면 오성리와 그가 다녔던 장곡초등학교 주변은 광천 생활권이었다. 당시에 번창했던 광천장은 시골에서 참으로 구경거리가 많은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 광천장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광천 장구경을 가곤 했다.

그런데 장곡초등학교에서 광천장을 걸어가려면 대평초등학교 앞을 거쳐 가야 했다. 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텃세를 부리곤 했다. 대평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몇 대씩 얻어맞고 지나가거나 과자 값을 빼앗기곤 했다.



이렇게 대평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텃세는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어른들도 이곳을 지나가려면 텃세를 당해야 했다. 학교 앞에 있는 주점으로 끌려가서 술을 사주고 지나가야 했다. 당시에 대평초등학교 부근 일부 젊은이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많이 부렸다.

제보자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대평초등학교 앞에서 당했던 텃세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못하도록 지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대평초등학교를 자원했다.

청년들을 설득하여 텃세문화가 사라짐

제보자가 대평초등학교에 부임했을 때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였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광천으로 갈 때마다 대부분 걸어 다녔다. 하지만 10년도 훨씬 넘는 세월동안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버스를 타고 등학교 했다. 이런 이유로 타 지역 학생들이 대평초등학교 앞에서 텃세를 당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대신 어른들 사회에서는 텃세문화가 남아있었다. 지나가는 타지역 사람들을 붙잡고 시비를 걸어 학교앞 주점에서 술을 뺏어먹는 일이 자주 목격되었다.

제보자는 학교앞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는다. 나중에 자식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대평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의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

등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설득했다. 자신이 당했던 옛시절 얘기도 함께 전해주기도 했다.

당시 젊은이들은 대부분 아들딸들이 대평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일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제보자는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텃세문화를 없애는데 노력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텃세문화를 없애는데 일조했던 일화는 자부심처럼 남아있다.

처음에 대평초등학교에 부임한 것은 나름대로 텃세문화를 없애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학교와 주변 사람들과 깊은 정이 들게 되었다. 이웃학

교로 전근 갔다가도 1,2년 지나면 대평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20년이나 되었다.

학생들의 잊지 못할 일기장

제보자가 대평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학생수가 8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교실이 부족해서 한 반에 80명씩 공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교실에서 통행로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교실에 학생수가 많아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겨울 난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 난로 설치에는 교실 중간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여건이 되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교실 맨 앞쪽 담임교사가 앉아있는 교탁 옆에 난로를 설치했다.

어떤 학생이 일기장에 써놓기를,

“우리 교실 난로는 선생님만 쬐는 난로다.”

라고 썼던 일기가 있었다.

학생들과 모내기 봉사활동 했던 기억도 새롭다. 옛날에는 천수답이 많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었다. 한참 가물 때 비가 오면 집집마다 모내기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학교 학생들에게 모내기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오전수업을 끝내고 오후에 모내기 봉사를 했던 추억도 새롭다.

대평사설강습소 설립자 최성린씨

제보자는 대평초등학교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다 보니 학교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학교설립에 공헌한 최성린씨부터 시작하여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모든 역사를 전해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대평초등학교는 1943년 4월 1일, 대평사설강습소로 설립되었다. 사설강습소는 요즘의 사립학교 성격을 띤 학교이다. 대평사설강습소는 대평초등학교의 전신이나 마찬가지다.

대평사설강습소는 이 지역에 살던 최성린씨가 자신의 땅과 시설을 기증했다. 지역의 또 다른 분들도 함께 토지를 기증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해방 전까지 초가집 형태의 교실 두

세 칸을 지어놓고 학생들의 교육을 시켰다.

최성린씨는 해방 후 자신이 기부한 땅과 시설을 국가에 기증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며 기증한 것이다.

최성린씨의 간절한 바람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9월 18일에 국가에서 사설강습소를 인수하여 흥동초등학교 대평분교장으로 설립 인가했다. 3년 후인 1949년 9월 30일에 대평초등학교로 승격하여 개교했다.

학교를 개교하여 건물과 시설을 만들 때는 학부모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 등을 들고 나와 노력봉사도 많이 했다. 최성린씨를 비롯하여 학부모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평초등학교 설립과 폐교

처음 흥동초등학교 분교장으로 인가받을 때는 3학급으로 시작하여 대평초등학교로 승격·개교할 때는 5학급으로 편성했다. 제1회 졸업생은 1950년 1월 8일에 19명을 배출했다. 이후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 중·후반에는 13학급까지 편성되었고 학생수가 8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평초등학교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다시 12학급으로 줄어들었고, 학생수도 400명대로 줄었다. 1984년과 1983년에는 11학급 편성에 학생수도 300명대로 줄었다. 1986년에 10학급 편성에 학생수 353명, 1987년에 9학급 편성에 학생수 325명, 1999년에는 6학급 편성에 학생수 90명, 2002년에는 6학급 편성에 학생수 56명으로 줄었다.

농어촌인구가 계속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실시되었다. 학교마다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부제 수업 등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학교들도 생겨났다.

안타깝게도 대평초등학교는 2014년 2월말에 광동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당시에 대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 투표 결과, 전체학부모 23명 중에서 19명이 참여하여 16명이 통·폐합에 찬성했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통·폐합에 찬성 쪽이 많았으며, 이런 현상은 이웃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했다.

총동창회원들의 학교 살리기 운동

대평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학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학교설립자 최성린씨의 셋째 아드님인 최성국씨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성국씨는 아버지 최성린씨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상당액을 매년 학교에 기부 했다.

이외에도 대평초등학교 졸업생 10여 기수는 매월 10만원 ~ 20만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동기들의 월례회 때마다 일정액을 건어서 학교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성국씨의 도움으로 홍성군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무료급식 비용을 최성국씨가 기부하고 어머니들이 돌아가며 조리 봉사를 했다. 이외에도 도서 기증, 국내외 체험학습, 탐구학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부했다.

또한 최성국씨는 학교에 영어회화교사 1명을 지원했다. 교사의 신분은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도움으로 대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늘었고 군내 영어연극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외에도 최성국씨와 총동창회에서는 봉고차 한 대를 제공해주었다. 대평초등학교 학구 외에서 사는 학생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한 차량이었다. 제보자도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제보자는 학급담임을 맡지 않고 교과담임을 맡는 대신, 여유시간에 학생들 등·하교를 실시했다. 아침에 두 번, 오후에 세 번씩 학구 외 학생들을 등·하교 시켰다. 봉고차와 제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각 아침저녁으로 학구외 학생들을 등·하교 시켰다.

당시에는 학구 외에서 학생들이 입학이나 전학 오는 것은 불법이었다. 공여지책으로 주소지를 학구내로 옮겨서 학생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하여 학생수를 유지하며 분교로 격하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들을 더 이상은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가 몇 년 동안 유지되는 데 큰 힘을 얻었지만 폐교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2014년 2월말에 학교가 공식적으로 폐교되었지만, 이후로도 1년 6개월 정도 학교 건물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광동초등학교 자리에 통합된 광천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하는데 걸리는 기간 때문이었다. 광천초등학교 신축교사가 완공되는 2016년 11월까지 통·폐합된 4개 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대평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최성국씨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총동창회와 관련인들이 마음을 합쳐 세운 공적비이다. 대평초등학교는 처음 설립했던 최성린씨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최성국씨와 총동창회원들의 발자취가 깊게 서려있는 공간이다.

대평초등학교 총동창회원들은 학교건물이 덩그러니 방치된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학교 운동장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풍요로운 학교 모습을 유지시키고 있다.

가을이 되어 코스모스가 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대절버스가 지나가면서 단체로 사진을 찍고 쉬어가기도 한다. 빈 교실에는 각종 시화나 그림을 전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학교를 가꿔나갈지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옛시절 역원이 있던 마을에 세운 학교

제보자 김주호씨는 광신초등학교가 위치한 옆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광신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초창기 모습은 잘 알지 못한다. 학교가 광동초등학교에서 분리되었으며, 초창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정원 조성 및 시설 확충에 큰 힘을 보탤었다는 말을 들어왔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강하고 단합심이 강하여 덕명초등학교와 광동초등학교 못지않게 학생들 뒷바라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어왔다. 그리고 제보자가 광신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도 학부모들의 역할이 적극적이었다.

광신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이 '원촌'이다. 옛날 조선시대 이 마을에 관리들이 묵어가는 역원(驛院)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마을 이름이 '원촌'이 되었다고 한다.

광신초등학교 학부모의 열정

광신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열정이 대단했다. 비록 광천읍 중심지에 있는 덕명·광동초등학교에 규모면에서는 뒤지지만 다른 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옛날에는 가을철 운동회를 할 때 학부모들의 찬조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찬조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곤 했다. 광신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운동회를 할 때 중심지 학교보다도 찬조금을 더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광신 초등학교의 옛 모습



김주호 (1946년생)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건었다. 부족하면 몇몇 임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웃학교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학교 교문이 낡아서 다시 세울 때에도 중심지 학교보다도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문이지만 대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 교문보다도 더 크게 만들 정도였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필요한 시청각 기구들도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학교 교육에 열정적이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운동장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개교했다. 그 바람에 운동장 한쪽에는 땅속에 파묻힌 바위가 지상으로 드러나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위험성이 있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학교 아저씨와 함께 정과 망치로 커다란 바윗돌을 여러 달 동안 쪼아서 없앨 정도였다.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특별한 도구가 있을 리 없었다. 교장선생님이 원시적인 도구로 바윗돌을 쪼아내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도 했다.

광신초등학교의 발전 과정

광신초등학교는 1969년 3월 1일 광동초등학교 원촌분교장으로 개교했다. 일년 후인 1970년 3월 1일 광신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학구는 오서산 기슭에 있는 답산리(상담,중담,하담)와 광천리(원촌,삼봉,신대)로 2개 리에 6개 자연마을이었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원촌마을은 입학생이 많아서 한 학급을 따로 편성했다. 1학년 때는 원촌마을만 따로 한 학급을 편성했다가 2학년 때부터 다른 반과 함께 섞었다.

광신초등학교는 광천읍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 인구가 넘쳐나고 덕명·광동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신설되었다. 처음 개교할 당시에 6학급이었지만 1977년에는 14학급으로 늘어났고 학생수도 700명이 넘었다. 1981년까지 14학급을 유지하며 학생수도 600명이 넘었다.

하지만 1982년에 13학급, 1983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12학급을 유지하며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1990년대 말부터 6학급으로 줄어들었고 학생수도 100명 선을 넘나들

다가 2002년부터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입학생이 점점 줄어들면서 2008년에는 입학생이 6명이었다. 결국 2014년 3월 1일 자 광동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광신초등학교 건물 소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를 위해

광신초등학교는 특이하게도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 졸업했다. 우리나라 소리꾼으로 유명한 장사익이 광신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 출신이다. 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광신초등학교가 없었으므로, 이웃 광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은 광신초등학교 학구인 삼봉 마을이다. 또한 개그맨으로 유명하게 활동하는 유병재와 조현민도 광신초등학교 졸업생이다.

광천읍 주민들은 장사익이 태어난 마을 학교를 소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많은 인사들이 홍성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리 전수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가곡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상구 (1955년생)
홍성군 갈산면 수덕사로



갈산지역 여러 단체장을 역임한 지역 유지

제보자 이상구씨는 가곡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도 가곡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외지에 나가있다가 1983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보자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으로 동분서주했다. 젊은 시절 고향 마을 이장을 무려 20년 동안 맡아서 봉사했으며, 갈산면 이장단 회장인 상록회장도 1년 동안 역임했다.

이후에도 갈산, 구항, 서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홍서로타리클럽 회장을 2년 연임했다. 원래는 홍서로타리클럽 회장의 임기가 1년인데 후임자가 없어서 1년을 연임했다. 마지막에는 갈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로 3선을 연임하며 1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옛날 재학시절 학교생활의 추억들

제보자가 가곡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학교 건물 외벽전체에 나무송판을 가로로 붙여놓았다. 외벽과 나무송판 사이에 틈사이로 박쥐가 많이 살았고, 아이들이 박쥐를 잡아갖고 놀던 추억이 남아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줄넘기를 많이 하고 놀았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줄넘기 하는 고무줄을 끊어놓기도 하고 심술을 부렸던 추억도 남아있다.

가곡초등학교 설립과 발전 과정

가곡초등학교는 1949년 11월 1일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장으로 출발했다.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376번지에 2개 교실을 신축하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

1957년에 가곡국민학교로 승격했고 1971년에는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1999년까지 전체 6학급을 유지했고 1977년에는 학생수가 250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1977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1985년부터는 100명대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1995년에는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장이 되었다. 이후 학생수가 더욱 줄어들면서 1999년에는 전체 학생수가 6학급에 61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00년부터는 5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1·4학년과 2·3학년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더니 전체 4학급이 되었다.

결국 가곡분교장도 2007년 2월 16일 마지막 졸업생 6명을 배출하고, 3월 1일 갈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이로써 가곡초등학교는 8,57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곡초등학교 학부형 회장과 총동창회장 역임

제보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었다. 큰 아들은 유치원생으로서 일 년 후에 가곡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제보자는 가곡초등학교 학부형이 되자마자 총동창회 임원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총무를 맡다가 2년 후에는 학부형회장을 맡았다.

제보자는 가곡초등학교 학부형 임원을 맡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건물만 지어준 것이고, 나머지 정원 조성이나 주변 환경 정비 등은 거의 모두가 학부형들의 노력봉사로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1학년 학부형들은 해마다 한 번씩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봉사를 했다. 학교 부근으로 흘러내리는 가곡천에서 모래를 경운기로 실어와 운동장에 깔았다. 운동장에 나무들도 삼준산에서 옮겨다 심었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집에서 퇴비를 실어와 거름으로 주었다.

학교 땅 일부도 학부형들이 기증했다. 당시에 학구 내 신촌 마을에 사는 김현구씨는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준비했지만 생략했다. 그 대신 칠순잔치 비용을 학교 토지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학교 운동장 한쪽이 개인 땅을 점유하는 관계로 차후에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학

교용지로 구입하여 기부했다. 가곡초등학교 교육가족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김현구씨의 공적비가 학교 울타리 안에 서있다.

가곡초등학교 학부모 연합과 학교 발전에 힘 씀

제보자는 가곡초등학교 총무와 회장을 역임하며 학부모들의 단합에 힘을 쏟았다. 갈산면사무소에서 갈산면 이장단 회의를 마치면 학구 내 이장들은 별도 모임을 가졌다. 학구 내 이장들이 차를 한 잔씩 마시며 특별회비를 건어서 가을 운동회와 연말 송년회 비용으로 사용했다.

학교 운동회는 꼭 추석 뒷날로 못박아놓았다. 왜냐 하면 출향인들이 귀향하여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야말로 학교 운동회는 지역의 가장 큰 축제였다. 출향인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도 모두 참석했다. 학교 발전에 사용하라고 비학부형들도 십시일반으로 찬조금을 내었다.

옛 시절에는 운동회에 찬조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본부석 옆에 띠지를 붙여놓았다. 찬조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널리 알리자는 뜻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찬조를 유도하기 위한 속뜻도 있었다.

운동회 날은 마을 어른들을 모두 모셔 와서 경노잔치 겸 음식대접을 했다. 임원들 중심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학부형들 십시일반으로 교육용 기자재 기부

옛 시절에는 교육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학생 교육 기자재를 충분히 구입할 수 없었다. 학교장 입장에서 학생들 교육은 시켜야겠고, 교육기자재는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학부모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제보자는 회장으로서는 학부모 임원들과 상의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십시일반 도움을 받았다. 당시에 학구 내 마을별로 임원이 2명씩 있었다. 임원들이 책임지고 비디오, 칼라TV, 학급 도서 등을 구입하여 제공했다. 학부모들과 임원들이 학교교육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아쉬운 분교와 통·폐합

제보자가 학부형회장을 역임하는 동안에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가 되었다. 분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구 외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제보자는 자녀들이 졸업한 후로 학부형 회장에서 물러나고 몇 년 흘러갔다. 학부형회에서 물러난 후로 총동창회장을 맡게 되었다. 하필이면 총동창회장 임기 중에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홍성군 교육청에서 관리과장 등 관련자들이 나와서 학부형과 동창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총동창회장 입장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반가울 리 없었다. 학교를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더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결국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말았다. 학생이 없는데 학교를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1995년 3월 1일 학부모 회장 재임 시에 분교가 되었고, 2007년 3월 1일 총동창회장 재임 중에 통·폐합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뿐이었다.

가곡초등학교 주변에는 관공서가 없었다. 학교가 지역의 문화 중심 역할을 했다. 학교 앞에는 식당만 14곳이나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그 많던 식당이 모두 사라지고 작은 슈퍼 1곳과 식당 1곳만 남아있다.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함

가곡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근대 우리나라 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이 태어난 고향이다. 홍성군에서 학교를 매입하여 한성준 무용 전수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가곡초등학교 출신으로서 대전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최윤희씨가 무용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곡초등학교 자리는 지역 독지가들이 기부하여 만든 것이다. 학교가 없어졌으면 학교 터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 교육청에 기부채납되었으므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광성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상구 (1955년생)
홍성군 갈산면 수덕사로



광성초등학교 설립과 발전 과정

광성초등학교는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번지에 위치해 있다. 홍성군의 서쪽으로 서산과 경계지점에 자리잡았다. 1964년 1월 30일 지역 독지가들이 교사 대지 1,550평을 매입하고 1964년 10월 2일 갈산초등학교 동성분교로 인가 받았다. 1966년에는 다시 운동장 940여 평을 매입했다. 1966년 3월 4일 광성초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운동장 1,000여 평을 추가 매입했다.

학생수는 1977년에 12학급으로 545명까지 늘었다. 1977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학급수도 1983년에는 12학급에서 11학급으로 줄었다. 1984년에 9학급, 1986년에 8학급, 1987년에 7학급, 1988년부터 1997년까지 6학급을 유지했다. 학생수는 1995년부터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8년부터 5학급으로 줄어들었고 학생수는 2002년부터 50명 이하가 되었다.

2015년 2월 17일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마지막 졸업식을 거행했다. 광성초는 개교 이후 모두 2,0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3월 1일 갈산초로 통·폐합되었다.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 펼쳐

제보자는 광성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겹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제보자 역시도 가곡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재임 시에 학교가 통·폐합되는 아픔을 겪었으므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많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광성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동창회원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상당액이 비용을 각출했다. 홍성읍 등 학구 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하여 학생들을 유치하고 상당액이 장학금도 제공했다.

총동창회에서 학교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작은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광성초등학교 앞으로 중견기업체인 일진전기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진전기가 입주하면 수백명의 직원이 전입할 것이고, 젊은 부부들이 학구내로 이주해 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드디어 일진전기가 입주하고 2010년 경에 회사 건물이 준공되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젊은 부부들의 전입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독신자들이 사원 아파트에 들어와서 거주했다. 광성초등학교 학구내로 입주해오는 인구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총동창회의 피눈물 나는 학교 살리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총동창회의 자금도 고갈되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엿보이지 않았다. 결국 총동창회의 노력은 학교 폐교를 몇 년 더 늦추는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광성초등학교 건물 역사교육장으로 재탄생 예정

광성초등학교 건물은 우리나라 역사교육장으로 재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뜻있는 인사들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홍성교육청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역사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 주변 국가들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오서 초등학교의 옛 모습



김만중 (1945년생)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명당터에 자리 잡은 오서초등학교

제보자 김만중씨는 오서초등학교가 자리 잡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도 살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마을 이장을 16년 동안 역임하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오서산 임도 개설, 마을로 들어오는 2차선 도로 개설 등의 업적을 남겼다.

제보자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오서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이었다. 이런 관계로 제보자는 오서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시절 오서초등학교가 설립되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오서초등학교는 장곡면 광성리 1구에 자리 잡고 있다. 옛날부터 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흙으로 쌓은 토성 안쪽에 있다고 하여 '성벌 또는 성중'이라고 부른다. 학교 주변에는 동산, 동살미, 흙다리 등의 지명도 남아 있다.

풍수지리가들은 학교가 있는 마을을 청룡백호가 잘 어우러지고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연화부수형국의 명당터라고 했다. 학교는 광성리 1구 성중, 동살미, 흙다리 등 세 곳 자연마을 중간에 우뚝 서있다.

특히 토정 이지함은 오서산 꼭대기에 올라가 마을 지형을 살펴보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가야산을 쳐다보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이처럼 명당터에 자리잡은 오서초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큰 인물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열정 넘치는 노력으로 설립한 학교

오서초등학교가 자리 잡은 곳은 원래 밭이었다.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1번지에 위치해 있다.

오서초등학교 설립은 마을 이장을 25년 동안 역임한 김구환씨가 학교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학교 건립추진위원회는 광성1구 이석창씨, 광성2구 김교철씨, 광성3구 서정근씨, 오성리 김윤기씨, 화계1구 이성래씨, 신평1구 오수영씨, 죽전리 윤주홍씨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추진위원장에 김구환씨, 부회장 이석창씨와 오수영씨, 총무 김교철씨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회의석상에서 학교 인가 설계를 만들고 홍성교육청을 경유하여 학교설립을 신청했다. 학교 설립 신청 1년이 지나고 나서 1967년 3월 1일에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으로 인가되었다.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마을 이장 댁에서 이장 모조를 받는 날에 학교설립자금으로 호당 쌀 한말씩을 더 거뒀다. 이렇게 모아진 쌀은 필요한 주민들에게 곱장리를 주어 자금을 불려나갔다.

각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협찬한 쌀은 학교부지 구입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었다. 당시에 학교부지에 밭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은, 이석창씨 1,200평, 김화준씨 700평, 김동석씨 600평, 김상환씨 300평, 김윤환씨 200평 등이다. 특히 이석창씨는 자신의 밭 1,200평을 학교부지로 희사했다. 당시 토지 가격은 평당 5,500원씩이었다.

오서초등학교 개교식과 첫 운동회

오서초등학교 부지 약 3,000평 안에 북쪽 방향으로 운동장과 교문을 만들고 서쪽 방향에 교실 3칸과 교무실과 화장실을 지었다. 광천 업자가 1년에 걸쳐 건물을 지었고 다음 해에 3칸을 증축했다.

학교건물 상량식 때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온다. 학교 부지 1,200평을 희사한 이석창씨는 당시에 딸만 4명을 두고 있었다. 사람들이 상량식 때 시루떡과 돈을 희사하고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권유대로 떡과 돈을 올려놓고 아들 낳

기를 기원했는데, 이듬해에 원하던 아들을 얻었다. 이후로도 아들 두 명을 더 낳아서 슬하에 4녀 3남을 두었다.

이후 광성리에 딸만 5명을 둔 김동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교로 들어오는 후문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김동구씨에게 학교에 후문을 설치하고 지극정성으로 빌어보라고 권유했다. 학교 후문을 개설한 후 떡을 해놓고 기원하여 아들을 낳았다.

학교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년 만에 준공식을 거행했다. 준공식과 개교식 및 운동회를 겸했다. 개교식에는 모든 마을 주민이 참석하여 마을마다 천막을 쳐놓고 농악대와 용대기를 들고 잔치를 벌였다.

정문에서는 접수석을 설치하여 학교 사친회 주관으로 성금을 받았다. 축하금을 내는 분에게는 식권을 주고 내빈과 기관장과 임원들은 별도로 대접했다.

개교식과 운동회의 절정은 마을별 청년 달리기와 학생 달리기였다. 흙다리에 사는 김안용씨가 12발 풀무를 돌려 공연장 분위기를 한껏 들썩이게 했다.

이후로 학교 운동회와 총동창체육대회는 학구내 마을 전체의 축제날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학교 주변에 차를 주차시킬 공간도 부족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

오서초등학교 학부형과 주민 활동

학부형들은 육성회비 명목으로 1년에 보리와 벼를 한 말씩 봄·가을로 거둬서 학교운영에 보태도록 했다. 또한 1년에 3번씩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봉사를 했다. 가을 운동회를 하려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운동장의 모래가 모두 날아가곤 했다. 우마차를 동원하여 냇가 모래를 실어와 운동장에 깔았다.

겨울이 닥쳐오면 난로에 땀감으로 사용할 연료가 필요했다. 초가을에 학부형들이 오서산 하천 주변의 잡목을 베어서 겨울 난로 연료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한편 학생수 감소로 인해 김만중 회장과 이숙희 자모회장이 학교건물을 학생수에 맞게 미니교실로 지어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그 결과 학교부지 남쪽에 새 교실을 신축하고 구 건물 자리는 정원으로 조성했다.

정원 조성에는 학부형들이 나무와 꽃을 한 두 그루씩 기증했다. 그 당시에 기증한 꽃과

나무들이 지금의 정원수로 성장했다. 교문 옆에는 당시 자모회장 백만년씨 덕의 향나무를 옮겨다 심었다. 처음에 향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오서초등학교를 상징하는 첫 음절 ‘O’형태를 만들자는 뜻이었다. 향나무를 교문 양쪽에 심었는데, 현재는 처음에 의도한대로 아취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학교 정원을 조성할 때 학부형들이 오서산과 광성천에서 자연석을 지게로 옮겨왔다. 학교 정원을 비롯한 모든 환경이 학부모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학교에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벽지학교 만들기와 급식시설 유치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옛시절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했던 사친회장, 학부형회장, 자모회장, 총동창회장의 명단을 기억나는 대로 살펴보았다.

사친회장은 김구환, 이석창, 김교철, 최구현, 김주홍, 김만중, 최식식, 김진표 순으로 역임했다. 5대 최구현씨부터는 사친회과 육성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부형회장은 최구현(3대 연임), 김주홍, 김만중(2대 연임), 최식식, 김진표 순으로 역임했다. 자모회장은 백만석(3대 연임), 최은백, 이숙희(4대 연임) 순으로 역임했다. 총동창회장은 최청락, 김경후, 최송락, 김주현, 김건기(현) 순으로 역임했다.

오서초등학교 발전과정과 폐교

오서초등학교는 1966년 3월 10일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창설 기성회를 조직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4학급을 편성하여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실을 개교했다. 1967년 3월 1일에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설립인가 되었고 1968년 3월 1일 오서초등학교로 승격 인가되었다.

이후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1973년에는 12학급을 편성하며 정점을 이뤘다. 이후 학생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여 1975년 11학급, 1976년 10학급, 1979년 9학급, 1980년 8학급, 1981년부터 1983년까지 7학급, 1984년부터 1994년까지 6학급을 유지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5학급에 2·3학년 복식학급으로 운영되었다. 1998년에는 4학급에 1·2학년과 3·4학년 복식 학급으로 운영되었고, 1999년에도 4학급에 1·2학년과 3·5학년 복식학급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부터는 3학급 편성에 2개 학년씩 복식학급으로 운영되었다.

학생수가 제일 많을 때는 400명이 넘었으나 1977년부터는 300명대로 줄었고 1981년부터는 200명대로 줄었다. 1986년부터 학생수가 100명대로 줄어들었으며 1990년부터는 100명 이하로 줄었다. 1999년부터는 5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1983년부터 병설 유치원이 1학급이 개설 운영되었으며, 1986년에 벽지학교 지정, 1991년부터는 벽지형 학교급식을 실시했다.

1999년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으로 편입되었으며,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로 2015년 3월 1일 장곡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오서초등학교 발전에 기여한 보람

제보자는 지역 일꾼으로서 오서초등학교 발전에 기여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 산간벽지에 학교가 들어선 이후로 학교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 뿌듯하며 교육열이 높았던 학부모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 박사도 10여명이 넘고 법조계로 진출한 판·검사도 배출되었다. 각계각층의 요소요소에서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자랑스럽다.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학생이 없는 학교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홍성에서 42년 교직생활

제보자 이동의씨는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산 팔봉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다. 이곳에서 1년을 근무한 이후에 고향 홍성군으로 전입해왔다.

이후 홍성군을 떠나지 않고 교사, 교감, 장학사, 교육장을 역임했다. 교직경력 43년 동안에 홍성군에서만 42년을 근무했다. 홍성군교육장을 역임한 후에 홍남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제보자는 호적에 올라있는 나이가 3살이나 줄었다. 옛날 제보자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적에 아버지가 군에 입대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출생신고를 해 줄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호적에 올렸는데 잘못되어 3살이나 줄었다. 그 덕분에 교직생활을 3년이나 더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2녀 5남의 7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는 아들 두 명을 두었다.

산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제보자는 산수초등학교에서 1987년부터 3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다. 1998년에는 교감으로 부임하여 1년 동안 근무하고 홍성군교육청 장학사로 전직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다. 대부분 성품이 온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옛날 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부족했다.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교육경비로는 외부 환경 조성이나 교육기자재를 충분히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 대신 학부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산수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 동 의 (1951년생)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형들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주었다.

학교 정원을 조성하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학부모들은 동네별로 학교에 나와 노력봉사를 했다. 경운기로 마사토를 실어다 운동장에 깔아주었다. 또한 대흥산에 올라가 자연석을 옮겨다 정원을 만들어주었다. 경운기 20여대를 동원하여 뒷산에 올라가 정원석을 많이 옮겨왔다. 요즘 같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운동회 때는 마을별로 천막을 치고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 마을마다 서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도 건물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희사했다고 들었다. 학교가 폐교된 후로는 부지를 희사했던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수초등학교는 상권이 홍성권과 삽교권으로 나뉘어 있다. 학교 주변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특용작물로 딸기를 많이 재배했다. 학부형들이 학교에도 딸기를 보내주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다.

산수초등학교가 배출한 인물들

산수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는 재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환근씨가 사업으로 성공하여 학교와 지역을 도왔으며 자동차 사업을 한 김대환씨가 사업에 성공하여 재학생들의 서울 수학여행을 시켜준 적도 있다.

옛날에 산수초등학교에 최명락 교장선생님이 계셨다. 이 분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페스탈로찌로 통하던 훌륭한 교육자였다. 최명락 교장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현재 홍성군 김석환 군수가 산수초등학교에 잠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특이하게도 산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들 세 명이 홍성군 교육장을 역임했다. 오수영 교육장, 조인복 교육장, 이동의 교육장이 주인공들이다.

산수초등학교의 설립과 폐교

산수초등학교는 1937년 홍북공립보통학교 부설 갈산 간이학교로 시작되었다. 1983년 3월 13일에 산수리 신교사로 이전하여 산수 간이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같은해 4월 1일 홍

북심상소학교 산수간이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41년 4월 1일 홍북공립국민학교 부설 산수 간이학교가 되었고 1944년 3월 1일 홍북공립초등학교 산수 분교장이 되었다. 1949년 9월 30일 설립인가와 동시에 산수국민학교가 되었으며 1999년 3월 1일에 산수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학급수는 학교 설립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1957년에 9학급이 편성되었으며 1958년에는 11학급으로, 1960년에는 12학급으로 늘어났다. 이후 1977년까지 12학급을 유지했고 1979년부터는 11학급으로 줄기 시작했다.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학급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기 까지 6학급으로 줄어들었다.

학생수는 1970년까지 800명을 넘었으나 이후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700명 선으로 줄었고 1974년에는 600명 선으로, 1975년과 1976년에는 500명 선으로, 1977년부터 1979년까지는 400명 선으로,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200명 선으로,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100명 선까지 줄어들었다.

1998년부터 100명 이하로 줄어든 학생수는 2003년부터 50명 이하가 되었다. 이후 계속 되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06년에는 4학급으로 복식수업을 해야 했다.

학교는 학생수와 복식학급 운영으로 다인수 공동교육과정 운영, 폭넓은 특기·적성교육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2007년 2월에 제 58회 마지막 졸업식으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3월 1일 홍북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학계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 동 의 (1951년생)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학계초등학교 폐교 후에 근무한 인연

제보자 이동의씨는 학계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학계초등학교가 1992년에 폐교되면서 학교 건물은 1998년부터 야영장으로 변신했다.

제보자는 젊은시절부터 스카우트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약을 했다. 준거집단 스카우트 교수 자격증이 있는 관례로 정년퇴직 이후로도 스카우트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학계초등학교와 인연은, 학교 건물이 홍성군 학생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야영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부터였다. 당시에는 야영장 명칭이 보령주포야영장 학계분원장이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야영장에 입소하는 홍성군내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을 지도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홍성군에서도 학계초등학교 건물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입소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신축된 식당에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했다.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에 휴대용 가스렌지가 폭발하여 여러 명 다친 적이 있었다. 이후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시설이 미비한 학계야영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교마다 시설이 완벽한 전문 야영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학계야영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계야영장이 폐쇄된 이후에는 한동안 홍성군 학생들의 도예방 체험장으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홍남초등학교 양궁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계초등학교의 지역적인 여건

학계초등학교는 장항선 기차가 지나가는 신성역 부근에 있다. 홍동초 학구인 원천리 일부와 홍성초 학구인 학계리, 신성리, 송월리 일부 학생들이 학계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를 옮겼다.

학계초등학교는 홍성군내에서 교통이 애매한 지점에 위치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고 기차가 학교 부근으로 지나다녔다. 장항선 기차가 지나다니는 신성역에서 내리면 20여 분 걸어서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학계초등학교의 교감·교장 등 관리직은 대부분 아산이나 보령 등 외지에서 전입한 경우가 많았다. 홍성군내에 거주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했다.

학계초등학교 설립과 폐교

학계초등학교는 1973년 3월 1일 홍남초등학교 학계분교장으로 개교했다. 학교 설립 1년 후에 학계국민학교로 개교하며 6학급이 편성되었다. 학교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의 3번지이다.

학교설립 이후에도 학급수는 6학급을 유지했지만 학생수는 300명이 넘어선 시절도 있었다. 1977년 이후 200명 선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1년부터는 100명 선으로 줄어들었고 계속하여 50명 이하로 줄어들며 복식수업을 해야 했다.

결국 1992년 3월 1일 홍성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학교의 시작은 홍남초등학교 분교장이었지만, 폐교당시에는 홍성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학계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건

1973년에 학계초등학교 교사가 퇴근하던 중에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옛시절에는 요즘처럼 교사들의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의 담당 직원이 농

협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온 다음에 교사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이었다.

학교교사의 월급날은 매월 17일이다. 월급날 퇴근할 때 교사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는 한 달 월급이 현찰로 들어있었다. 학교에서 퇴근하던 교사 한명이 으스스한 산길을 지나다가 살해당하고 월급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당시에 학교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좀도둑까지 경찰서에 불러가는 곤욕을 치렀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반계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강직 (1943년생)
홍성군 장곡면 천태길

육이오 한국전쟁 시절의 방공호 대피 추억

제보자 이강직씨는 반계초등학교가 자리 잡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초등학교도 반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제보자가 반계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육이오가 발발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방공호로 대피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있다.

당시에 학교 뒷산에는 비행기가 뜨는 것을 살펴보는 망루가 있었다. 망루에서 6학년 학생이 한 명씩 교대로 망을 보았다. 북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면 망루에 달아놓은 종을 땡땡땡 쳤다. 종소리가 울리면 공부를 하다가도 정신없이 방공호로 대피했다.

비행기가 사라지면 망루에서 다시 종을 쳤다. 비행기가 사라졌으므로 교실로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곤 했다.

제보자가 처음 입학할 때는 교실이 부족하고 의자가 없어서 마루바닥에 앉아 공부했다. 당시에 지역 어른이던 성낙용씨와 조원철씨가 앞장서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도록 했다.

학구 내 6개 마을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약간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장곡면 월계리에 있는 공장에 부탁하여 의자를 제작했다. 당시 어린 학생들은 10리가 넘는 월계리 의자공장까지 걸어가서 의자를 들고 왔던 기억도 있다.

당시에는 학교 뒷산 아래로 교실이 4칸 있었다. 교



실이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들어차곤 했다. 나중에 현재 위치로 교실을 옮겨서 지었다. 옛날 교실 자리는 정원으로 조성했다.

학생들도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야 했다. 봄철만 되면 송충이를 잡으러 가기도 했고 학교 앞 냇가에 가서 모래를 파다 운동장에 깔기도 했다.

하늘의 별이 배출되는 학교

제보자 이강직씨는 반계초등학교를 설명할 때면 ‘하늘의 별’이 배출되는 학교라고 치켜세운다. 반계초등학교가 위치한 지명이 ‘천태리(天台里)’이다. ‘하늘천(天)’, ‘별태(台)’라는 멋진 지명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이다.

천태리라는 지명처럼 반계초등학교 출신들은 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떨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 검사장과 판·검사를 지낸 인물들도 배출했고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도 배출되었다. 지역의 고위직 행정관료 출신도 여럿 배출했다.

학교 육성회장 시절의 추억

제보자는 장성하여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다. 당시 마을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김대식씨가 있었다.

김대식씨가 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제보자에게 지도자 수업을 시켰다. 지도자 수업을 몇 년 쌓은 후에 마을 이장을 시켰다. 이렇게 마을 이장을 맡기 시작하여 10년 동안 연임했다.

제보자는 마을 이장과 더불어 장곡지역의 여러 단체 임원도 맡아보았다. 장곡면체육진흥회장을 비롯하여 홍성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초대회장도 역임했다.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지역 책임자 일도 맡았다.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두루두루 활동영역이 넓은 마당발로 통했다.

제보자는 반계초등학교 육성회장을 6년 동안 역임했다. 어느날 학교장이던 이민용 교장이 그를 불렀다. 이민용 교장은 제보자에게 학교 운영회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했다. 교장선생님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엉겁결에 육성회장을 맡았다.

그때부터 6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제보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후임자가 없어서 육성회장을 1년 더 맡아야 했다.

학부모들도 학교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었다. 학교 정원 조성에 필요한 향나무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기증한 것이다. 경운기를 동원하여 산에서 정원석을 실어오기도 하고 냇가에서 모래를 실어와 운동장에 깔았다.

반계초등학교 4회 졸업생 중에 윤성기씨가 있었다. 서울에서 사업으로 돈도 벌고 교육청 쪽에 인맥이 있었다. 윤성기씨가 광산촌 벽지학교를 지정받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학교가 벽지학교로 지정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특히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벽지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하는데 유리하므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부임했다.

학교에 육상부를 조직하여 군내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운동회 때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에 나가서 우승했고, 군민체육대회에도 먼 대표 선수로 나가서 우승하기도 했다.

학교 설립 초창기에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성낙용씨와 조원철씨의 공적비도 세웠다. 2년에 걸쳐서 한분씩 공적비를 세웠고 후손들이 동네잔치를 했다. 이런 일들이 육성회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추억들이다.

학교 설립과 폐교

반계초등학교는 1934년 4월 2일 장곡 공립보통학교 부설 행정 간이학교로 인가받아 개교했다. 학교 위치는 홍성군 장곡면 행정리 151번지였다. 1944년에 장곡국민학교 반계분교장으로 승격하면서, 현 위치인 장곡면 천태리 584번지로 이전했다. 1949년 9월 1일에는 반계국민학교로 승격하여 6학급으로 편성 인가 받았다.

이후 1976년까지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면서는 15학급까지 편성되었으나 1977년부터 13학급으로 줄어들었고 1980년부터는 12학급으로 줄었다. 이후 1986년에는 10학급으로, 1987년에는 9학급으로, 1989년과 1990년에는 7학급으로, 1991년에는 6학급으로 줄어들었다. 급기야 1994년부터는 5학급으로 줄어들며 복식학급으로 운영되었다. 1997년부터는 4학급으로 줄어들어 4개 학년이 복식학급을 운영했다.

학생수는 한때 700명에 육박했으나 1979년에 500명대로 줄었고 1982년부터는 400명대로 줄었다. 1985년부터는 300대로 줄어들고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다가 1999년부터는 50명 이하로 줄었다.

학생수의 계속되는 감소로 인해 1999년 9월 1일 자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으로 편입되었다. 반계분교장으로 수년간 유지되다가 2017년 3월 1일자 장곡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반계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병설유치원이 운영되었으나 학교 폐교와 함께 폐원되었다.



양성중학교와 맺은 인연

제보자 이강직씨는 양성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보자의 자녀들이 양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자녀들이 양성중학교 재학 중에 학교 운영위원으로 여러 해 동안 활약했다.

또한 제보자는 장곡면의 여러 단체장을 비롯하여 반계초등학교 학부형회장과 마을 이장을 다년간 역임했다. 양성중학교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추천받았다. 반계초등학교 옛모습을 구술하는 자리에서 양성중학교 내용도 구술을 부탁했다.

사립 양성중학교 운영위원 시절 모습

양성중학교는 사립중학교이다. 설립자는 학교와 이웃한 청양군 비봉면 용화리 출신 전도진씨이다. 그가 고향 근처인 장곡면 산성리에 학교를 설립했다. 전도진씨는 양성중학교 뿐만 아니라 광천읍에 사립 광흥중학교도 설립했다. 광흥중학교와 양성중학교는 동일한 재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제보자가 양성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약할 때 재단이사장을 만난 적은 없다. 학교장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서 일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은 무한천을 사이에 두고 홍성군과 청양군의 접경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재학생들은 홍성군과 청양군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제보자가 학교 운영위원 시절에 재학생들이 200여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양성 중학교의 옛 모습



이강직 (1943년생)
홍성군 장곡면 천태길



명 되었다. 학구는 반계, 비봉, 화성, 천태 2구 지역이었다. 학교가 비록 외딴 곳에 위치했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했고 학생들도 성적이 좋았다. 학부모들도 교육열이 좋아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학교 설립과 폐교

양성중학교는 1963년 1월 5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3월 6일 개교했다. 학교 위치는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261번지이다.

1971년에 학급 증설을 인가 받아 학년당 2학급을 편성·운영했으며, 1974년부터는 학년당 3학급으로 증설되었다. 이후 학생수는 1986년에 전교생 331명, 1987년에 317명, 1988년 291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함께 양성중학교도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었다. 1992년부터는 학급수를 학년당 2학급씩 전체 6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재적은 50명씩 전교생 300명으로 인가 받았다.

1994년에는 1학년 1학급, 2·3학년 각 2학급, 전체 5학급으로 줄었으며 학생수도 학급당 50명씩 250명으로 인가받았다. 1995년에는 1·2학년 각 1학급, 3학년 2학급으로 줄었으며 전체 4학급에 재적인원 200명으로 줄었다. 1996년에는 1·2·3학년 1학급씩 전체 3학급으로 줄었으며 재적인원도 148명이 되었다. 1997년에는 1학년 46명, 2학년 48명, 3학년 50명으로 전체 144명이었다.

이후 양성중학교에 진학하는 학구내 초등학교들이 분교 또는 통·폐합되면서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에는 전체 3학급에 전교생 27명으로 줄었고 2002년에는 전교생이 22명으로 줄었다.

결국 2003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었다. 양성중학교에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관내·외 공립 중등학교로 배치되어 근무했다.



학교 역사의 산 증인

제보자 김칠섭씨는 상황초등학교가 위치한 서부면 상황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상황초등학교 역사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다. 학교 설립부터 발전과정과 폐교 모습을 직접 보고 겪으며 지내왔다.

상황초등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제보자의 큰형님이 설립위원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 설립 당시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상황초등학교는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208-1번지에 위치했다. 처음 학교가 자리잡을 때는 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이었다. 산기슭의 흙을 판판하게 정비하고 건물을 지었다. 학교터는 지역주민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사했다.

당시 상황리 주변은 서부초등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큰 바람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가 설립될 때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서 협조했다.

학교를 지을 때는 각 마을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노력봉사를 했다. 부부가 함께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았다. 학교터는 대략 3천 평 정도 되는 규모였다. 교실 5칸에 단층 슬라브 건물을 지었다. 학교를 짓는데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독지가들도 많이 지원해주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상황 초등학교의 옛 모습



김 칠 섭 (1948년생)
홍성군 서부면 지산1길



학교 터를 다지는데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대동가래를 갖고 일했던 것이다. 대동가래는 큰 삽날에 줄을 매어서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한 사람이 삽자루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면, 여러 사람이 삽날에 매달린 줄을 잡아당기며 흙을 퍼냈다. 요즘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절이므로 리어카, 삽, 곡괭이 등 원시적인 농기구를 갖고 나와서 수고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 소통 노력

제보자는 아들딸이 상황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부형 임원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상황초등학교 학구는 상황, 하리, 원당, 속동 등 네 개 마을이었다. 학구가 넓지 않은 관계로 설립부터 폐교까지 소규모 학교였다.

제보자가 학부모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소통이었다. 특히 학교부근은 외진 지역이므로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불편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외지에서 부임하는 선생님들은 숙소가 필요했다. 마을에 깨끗한 사랑방을 얻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을 했다.

저녁에는 선생님들이 바람 쐬러 나갈 장소도 부족했다.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거나 숙소를 찾아가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산에서 정원석을 옮겨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이 다른 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시청각 자료 등도 구입하여 제공했다.

학교 설립과 폐교

상황초등학교는 1968년 12월 13일 서부국민학교에서 2학급으로 분리되었다. 1970년 3월 1일 서부국민학교 상황분교로 승인되었고 1972년에 상황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학급수는 해마다 6학급을 유지했고 1985년에 7학급을 편성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해는 6학급을 유지했다. 학생수는 한때 300명이 넘어서기도 했다. 1977년에는 6학급 편성에 전교생 310명이었다. 이후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200명 대로 줄었고, 1986년부

터 100명대로 줄어들었다.

1993년부터는 5학급으로 복식수업을 시작했고 이후 폐교 직전까지 4학급과 3학급 등으로 복식수업을 했다. 1999년 폐교되던 당시에는 전교생이 41명이었다.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1992년 3월 1일자 서부초등학교 상황분교장이 되었으며, 1999년 9월 1일 자 서부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총동창회 통합 노력

상황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폐교된 이후에도 총동창회를 유지했다. 해마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친목도모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서부초등학교로 합쳐진 마당에, 상황초등학교만 따로 총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졸업생들과 상의하여 서부초등학교총동창회와 함께 활동하도록 안내했다. 다행히도 대화가 잘 진행되면서 상황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통합하여 총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다.

옛 학교터에 캠핑장 시설 유치

한동안 상황초등학교 폐교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담으로 만들었던 학교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다행히도 상황초등학교 학구였던 상황, 하리, 원당, 속동 등 4개 마을 합동으로 천수만권 역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이곳은 천수만 바다와 인접한 관계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앞바다에는 해상 낚시터를 조성하고 속동 바닷가는 전망대와 커피숍 등을 운영한다. 또한 옛 학교터에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은 주말마다 이용객들로 만원이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상주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옛 학교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폐교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홍성군
홍성의 폐교를 찾아서

천수 초등학교의 옛 모습



이 선 균 (1950년생)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학교의 옛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인사

2021년 11월 30일 오후에 서부면 상황초등학교의 옛 모습을 채록하러 갔었다. 이 자리에서 폐교된 천수초등학교의 옛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인사 추천을 의뢰했다. 상황초등학교와 천수초등학교는 모두 서부면 내에 위치했으므로 이웃학교 출신들을 잘 알 것으로 생각되었다.

상황초등학교의 옛 모습을 구술해준 김칠섭씨가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을 소개했다. 이선균 의장은 천수초등학교 출신이며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므로, 학교의 옛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구연해줄 인사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2월 13일 오후에 홍성군의회 의장실로 찾아가서 천수초등학교의 옛 모습을 채록하게 되었다.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초등학교 시절 모습

제보자 이선균씨는 천수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집안 형제 8남매 중에서 큰형을 제외하고 둘째형부터 모두 천수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제보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은 학교 시설이 모두 열악하기만 했다. 교실이 부족하여 교문 안쪽 넓은 공터에 각자 앉는 자리를 그려놓고 야외수업을 하기도 했다. 한여름에 비가 오면 교실 천장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아내기 바빴다. 제보자의 학급은 72명이 공부했다. 한겨울에는 난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람들 온기로 추운 줄도 몰랐다.

초등학교 시절 봄과 여름에는 산으로 송충이를 잡으러 다녔고 가을에는 겨울에 난로 땀감으로 솔방울을 따러 다니기도 했다. 모내기나 보리베기 철에는 일손 돕기 노력봉사를 나가기도 했고 보리이삭을 주우러 다니던 기억도 남아있다. 학교 운동장 옆으로는 실습지도 있었는데 실습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던 기억도 있다.

학교 교실이 부족하여 3회 졸업생 영신금융 김일창씨가 교실 한 칸을 지어주기도 했다. 학교 건물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64년에서 1965년경이었다고 기억된다.

비록 학교 시설은 열악했어도 학교는 지역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중심역할을 했다. 특히 운동회는 동네잔치나 마찬가지로 시골 장날보다도 더 북적였다. 마을마다 천막을 치고 식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운동구경을 나왔다. 운동회 마지막에 펼쳐지는 부락대항은 운동회의 백미였다. 저녁때 술에 취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학교 앞에는 구멍가게가 두 곳 있었다. 그중에도 메지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의 구멍가게가 있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주인할아버지는 “네 이름이 메지?”하고 물어보았다. 그 바람에 ‘메지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다. ‘메지?’는 이 지역 사투리로 ‘뭘지?’하고 묻는 말이다.

옛날에는 천수초등학교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저녁때 과외공부를 하다가 말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했다.

잊지 못할 소풍과 수학여행

봄가을 소풍을 다니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소풍은 모산도와 고산사로 번갈아가며 다녔는데 고산사에 더 많이 갔던 것 같다. 당시에 모산도는 섬이었으므로 물때를 잘 맞춰서 건너가야 했다.

5학년 때는 수덕사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걸어서 갔었다. 시골이라서 돈이 없으므로 각자 쌀을 두되씩 갖고 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수덕사 여관에서 쌀밥을 주는데 아이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상 밑에 밥그릇을 감춰놓고 주인에게 밥이 인원수보다 부족하게 들어왔다고 거짓 말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여관주인에게 왜 밥을 부족하게 주느냐고 따지면 주인은 인원수대로 모두 들여보냈다고 욕심각신했다. 결국 주인이 밥을 몇 그릇 추가로 들여보내어 배부

르게 나눠먹은 추억이 있다.

수덕사에서 돌아올 적에 한 친구가 다쳐서 걸을 수가 없었다. 덩치가 큰 친구 대여섯 명이 교대로 업고 왔던 추억도 있다. 제보자도 덩치가 컸으므로 다친 친구를 교대로 업고 학교까지 왔다.

6학년 때는 군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학교에서 광천역까지 다니는 버스가 없으므로 결성광산에서 제공하는 덤프트럭을 타고 갔다. 광천에서 장항까지 기차로 가서 제련소를 구경했다. 다시 장항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건너가 고무신 공장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당시에 군산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에서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다. 학교에서 멀리 사는 친구들은 새벽에 일찍 학교까지 올 수 없으므로 제보자의 집에서 전날 밤에 함께 잠을 자며 새벽밥을 먹고 출발했다. 그때 잠을 함께 자며 어울렸던 친구들은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

천수초등학교 설립과 폐교

천수초등학교는 홍성군 서부면 신리 109-1번지에 위치한 학교이다. 1934년 4월 2일 서부공립 보통학교 부설 신리 간이학교로 시작되었다. 당시에 간이학교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후 1944년 3월 31일 서부초등학교 양곡분교장이 되었다. 학교는 서부면 신리에 위치해 있지만, 양곡분교장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그 이유는 신리보다는 양곡리가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 천수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천수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1978년까지는 재학생이 12학급에 500명이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1979년부터 500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981년부터는 300명대로 줄었으며 1985년에는 200명대로 줄어들었다. 1999년에는 46명 이하로 줄었으며 2002년에는 35명이었다.

천수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던 1969년에는 서부면 남당리 바닷가에 천수초등학교 남당분교장이 분리되었다. 1972년에 남당분교는 신당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1일에는 천수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장이 되었다. 30여 년 전 천수초등학교 남당분교에서, 역으로 신당초등학교 천수 분교가 된 것이다.

천수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옛날에 분교로 분리되었던 신당초등학교와 합쳐서 천수초등학교에 학교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성사되지 못했다.

천수초등학교는 2007년 3월 1일 서부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2007년 2월 16일 제58회 졸업식을 끝으로 63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1982년 3월 1일 개원한 병설유치원도 제25회 졸업식을 끝으로 서부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천수초등학교는 총 2,993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천수초등학교 출신 중에는 현재 각계각층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형들이 손수 만든 학교

제보자는 천수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학교가 처음 설립되던 당시에 학교터를 지역 주민들이 구입하여 회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학교터는 독지가가 무상으로 회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보자의 선대 땅도 학교터로 제공되었다.

또한 학교를 지을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삽과 팽이를 들고 나와서 학교터를 닦았다. 천수초등학교는 설립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애환이 서린 학교가 폐교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사용되기를 희망

천수초등학교 부지는 홍성군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천수초등학교 부지를 홍성군에서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계획이 무산되자 홍성군에서 매입한 학교 부지는 공매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매도되었다.

현재는 개인이 학교터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이유로 옛날 학교 모습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총동창회도 학교 폐교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유지되었다. 옛날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개최하며 동문들의 친목을 다지곤 했다. 현재는 학교가 개인소유로 바뀌고 옛 모습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총동창회도 맥이 끊기고 말았다.

앞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는 주무부서에서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학교를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구술채록에 포함되지 않은 홍성군의 폐교

광흥중학교

광흥중학교(廣興中學校)는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72-2번지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이다. 1954년 2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7일 재단법인 광흥학원을 설립했다. 1954년 5월 4일 각 학년 1학급씩 전체 3학급으로 개교했다. 1956년에는 각 학년 2학급씩 증설했으며 야간도 1학급 개설했다. 1962년에는 각 학년 5학급씩 편성되며 학생수도 많이 늘어났다.

1964년 재단법인 광흥학원을 학교법인 광흥학원으로 변경했다. 1969년에는 학급수도 각 학년 6학급씩 늘어났다. 광흥중학교의 원래 위치는 광천역 주변이었으나 1970년에 광천읍 신진리 372-2번지로 자리를 옮겼다.

1970년대 이후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함께 광흥중학교 학급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각 학년 4학급으로 줄어들었고 1992년에는 각 학년 3학급씩으로 줄어들었다. 1997년에는 각 학년 2학급씩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각 학년 1학급씩 전체 3학급으로 줄어들었다.

학생수는 1970년대 500명이 넘었으나 1986년부터는 400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며 2001년부터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2019년 3월 1일 자 폐교되었고, 재학생들은 광천중학교로 옮겼다.

폐교되던 당시 재학생은 모두 31명이었다. 광흥중학교 졸업생은 총 7,517명을 배출했다.

광천여자중학교

광천여자중학교(廣川女子中學校)는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397번지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이다. 처음에는 광천중학교와 남·녀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1972년에 3월 15일 여학생만 분리하여 개교했다.

광천여자중학교는 처음 개교될 당시에 각 학년 6학급씩 전체 18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학급수가 점점 늘면서 1978년에는 전체 27학급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후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전체 18학급으로, 1992년에는 12학급으로, 2001년에는 9학급으로 줄었다.

학생수는 한때 1,500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으나, 1986년에는 1,300명대로 줄었고, 1987년에는 1,200명대로 줄었으며 1988년에는 1,100명대로, 2002년에는 300명 대로 줄었다.

광천여자중학교는 광천지역 유일의 여자중학교로 40여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2014년 3월 1일 폐교와 함께 광천중학교로 통합되었다. 광천여자중학교는 지난 40년간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결성중학교

결성중학교는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9번지에 자리잡은 공립중학교이다. 1964년 3월 17일에 1학년 2학급을 편성하여 개교했다.

결성중학교는 개교이후 학생수가 늘면서 1978년에는 21학급까지 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1986년에는 12학급, 1987년에는 10학급, 1988년에는 10학급, 1992년에는 6학급으로 줄었다.

학생수는 최대 600명 대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1968년부터 500명대, 1988년에는 400명대로 점점 줄어들었다. 2018년 3월 1일자 폐교되던 당시에는 전교생이 6명이었다. 2018년 2월 9일 제52회 마지막 졸업식을 거행했고 모두 6,6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문화원	572
예산문화원	576
상업	579
예산문화원	583
한국 동란과 신앙	586
예산의 고인돌과 임존성 수레길	590
임존성과 봉수산	595
대흥지역	598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문화원



김 문 회 (1941년생)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후배가 소개해서 예산문화원과 인연이 되었다

본래 선대는 예산군 신암면에서 농사를 지었다. 할아버지 대에 예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예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예산농고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64년도에 졸업했다. 학군단 2기로 ROTC장교로 입대했다. 훈련소 중대장, 전방 수색 중대장까지 하고 대위로 제대했다.

여의도에서 대입 수학강사를 했다. 당시는 비인가 학원도 많았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마땅히 취업하기도 어려웠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다른 곳보다 여의도가 마음에 들었다. 당시 수학 강사는 수입이 매우 좋았다.

여의도에서 예산으로 내려 온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설학원을 단속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예산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예산에 내려와서 직업 없이 어렵게 살면서 빈둥거릴 때 후배의 소개로 예산문화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문화원장이 사람 하나 추천해 달라고 했다는 말만 하고는 곧바로 예전의 군청 앞, 보건소 건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이항복 씨가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숙부와 같은 연배였고 다 아는 사이였다. 당시에는 사무국장이란 직책이 없었고 총무라고 했다. 당시 문화원이 막 출범할 때여서 어느 지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다. 얼마 후에 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무국장 제도가 생겼고, 지방 및 국비 보조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장은 선출직이었다. 이항

복 원장에서 이지호 원장으로 바뀌고 문화원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당시에는 정해진 급료가 없었다. 총무를 하면서도 월급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월급은 고사하고 재정이 없어서 사비를 마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문화원은 외부 보조 없이 자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조금이나 운영비 없이 사비를 들여 운영하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도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희생을 해서 지었다. 급료로 가져간 돈보다도 건축비로 빚을 진 것이 더 많을 정도였다.

문화원연합회도 생기고 도지회도 생기고

청양문화원은 원장이 자기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세로 직원 급료를 주면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문화원간 교류가 없었다. 교류가 없었다기보다 각자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류를 생각지도 못했다. 차차 각 지역의 문화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생기고 지금의 충남문화원연합회인 도지회도 생겼다.

문화원 운영을 열심히 한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정과 보조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면서 건축비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되었다. 문화원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문화원 행사는 교육사업, 지역행사, 회원 참여형 사업 등이 있었다. 예산의 대표적인 문화원 행사는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행사였다. 전국 휘호대회는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누구나 다 아는 명필가이고 금석문학자이기 때문에 예산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군, 도, 중앙부처와 연계를 할 수 있었다. 추사휘호대회는 예산군의 행사 장소로 군에서 고택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초창기에는 방치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예산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휘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휘호대회 1등 부상이 1000만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휘호대회의 규모는 대단했다. 다 쓰러져 가는 고택을 정비하고 전국 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휘호대회 장원에게는 천만원의 상금이 책정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회가 되었다. 추사를 추모하는 단체가 서울에 있어 문화원과 협조를 하고 있다. 우선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심사위원도 심사비를 주어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심사비는 20만원씩 했다. 게다가 도록(圖錄)을 만들면 도록에 심사위원들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임존성 부흥군위령제

대흥 임존성은 백제의 최후 항전지였다. 예산문화원에선 매년 부흥군위령제를 지냈다. 봉수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월에 하기는 어려웠고 5월 달에 주로 했다. 위령제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봄에 지낸 것이다. 단순히 위령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인근에 있는 광시중학교, 대흥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성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컸다. 산성 탐방도 하고, 위령제도 지냈다. 경비는 당시 200만 원 정도 였는데 주로 학생들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들어갔다.

예전에는 길도 좁고 험해서 등반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은 길도 만들고 산성도 다시 쌓아 보기는 좋다. 그러나 산성을 복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모습만 남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몇 백 년 지나면, 지금의 성이 백제 시기의 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무한산성, 거기 고씨들 집성촌이예요

무한산성은 예산역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산성의 서쪽 사면 아래는 무한천과 접하고 있다. 예산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예전에는 무한성원(無限城院)도 있었다. 그야말로 예산으로 들어 와 공주 쪽으로, 청양 쪽으로, 대흥, 광시를 경유해서 홍성과 보령으로

통하는 길의 목에 자리하고 있어 군사상으로 요충지였다. 석성의 흔적은 없고 전형적인 토성이다. 예전에는 건물지도 있었다고 하나 이제는 밭으로 변해 일부 토성의 흔적만 보인다.

고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직접 내려 와 예산이라는 지명을 남겼다고 한다. 예절 바른 사람들이 산성 주위에 모여 살아서 예산이라는 지명이 남게 되었다는 구전이 있다고 하나 단지 전하는 말이다. 이곳은 제주 고씨의 집성촌이었다.

서두물까지 새우젓 배가 들어왔어요

신례원은 나그네들의 숙소가 있었던 곳이다. 신례원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무한천을 거슬러 서두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밀물 때를 이용하여 배가 통행했다.

주로 새우젓 배가 들어 와 예산뿐만 아니라 대흥, 청양, 유구 등지에서도 새우젓을 사러 왔다고 한다. 서두물에는 신암 쪽으로 가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어서 배는 그 이상은 통행을 하지 못했다. 서두물이 하항 종점인 셈이었다. 운반 수단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는 것이 최선이었다. 차량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차량을 이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곡식을 가지고 가 물물교환으로 이루어 졌는데 후대로 오면서 화폐가 그 가치를 발휘하여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새우젓이 어디에서 만들어 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대부분 덕적도에서 공급하였다고 한다. 가까이 홍성 광천도 새우젓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광천 새우젓도 공급되었다고 한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문화원



이주원 (1938년생)
예산군 대흥면 손지 대숲길



선거인단은 한 면에서 두 명씩 했어요

선거인단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뽑았다. 각 면에서 두 명씩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면민이 투표를 해서 뽑았다. 당시 대흥양조장을 했던 이중면 씨와 둘이 당선되어 서울에 가서 대통령을 뽑았다. 선거인단의 주된 일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다. 지역에서는 군이나 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 선거인단은 임기가 3년이였다. 임명장도 주고 떠들썩하게 앞장 세웠지만 사실상 임기 중에 특별한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었다.

2대, 3대 군의원도 역임했다. 군의원도 면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았는데 선거인단이나 마찬가지로 무보수에 명예직이었다. 군의원은 면마다 한 명씩 뽑았다. 대흥에서는 전태수 씨라고 하는 분이 초대 군의원을 하고 4대도 했다. 전태수 씨 뒤에 2대, 3대 군의원을 하게 되었다. 군의원으로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활동하기도 어렵지만 출마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마을이장을 10년간 했다. 마을이장이야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할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라고 강권해서 했지만 힘든 반면 보람이 있었다. 이장 수고비는 이장조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 각 호당 보리 한 말, 벼 한 말이었다.

배 타고 면에 다녔어요

선거인단, 군의원, 마을이장을 할 때 면에 가는 일이

많았다. 당시는 자동차도 없었던 시절이라 걸어서 다녀야 했다. 일찍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면 대흥면소재지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했다. 대략 8km, 20리 좀 넘는 거리였다.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재 저수지 안 쪽으로 수몰된 길을 따라 갔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후로는 예전에 수문이 있었던 곳에서 배를 타고 갔다. 면에서 운영하는 배였지만 뱃삿을 내고 다녔다.

마을 이장을 볼 때는 더 자주 면에 다녀야 했다. 그 당시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아 석유를 면에서 가져다가 등잔을 밝혔다. 마을 반장을 대동해서 지게로 운반해서 가정마다 나누어 주었다.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그때가 60년대 중반으로 기억한다.

비료도 면에서 수령해서 마을로 운반하여 경작면적에 따라 분배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 다가 밥을 해 먹었다. 연탄이 보급되면서 나무를 하는 일은 줄었지만 연탄을 운반하는 일이 문제였다. 주교사거리에 연탄공장이 있었다.

마을에서 예산장에 다니려면 마상골 고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베효부리로 가는 길이 좋았기 때문에 산길보다는 신작로를 이용했다. 대흥면의 다른 지역보다 예산에 가까운 마을의 입지 조건으로 생활권은 예산이었다.

문화원 간사와 부원장

문화원이 본래 본정통 사거리에 있었다. 현재 군청 새 건물 앞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그곳으로 문화원이 옮겨왔다. 현재의 자리로 신축해서 이전 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문화원 부원장 할 때, 원장에 출마하라고 해서 출마를 했다. 이진자라는 여선생이 출마를 해서 둘이 경합이 붙었다. 당시 대의원이 40명이었는데 두 표 차이로 이진자가 원장이 되었다. 한 사람만 한 표만 더 얻어 동점이 되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똑같이 표를 얻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건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다.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우리 산에서 돌 가져다가 저수지 막았어요

저수지를 만들던 때 독막이 공사에 들어간 돌을 우리 산에서 채석하여 가져갔다. 예전에는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크기를 잘게 만들어서 운반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길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아서 길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저수지 공사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저수지 물로 잠긴 곳에 마을이 있었다. 보상을 해주어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다. 외지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데 자리를 잡았다.

대술까지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를 해서 난방도 하고 밥도 지어야 했다. 대술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다. 더러는 예산 나무전에 내다 팔기도 했다. 대술까지 가려면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찍 빈 지게를 지고 출발을 했다. 갈 때는 빈 지게라 어렵지 않지만 나무를 해서 지고 오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대술까지 나무를 하러 간 이유는 가까운 곳은 이미 나무를 해서 땔나무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술은 거리가 멀지만 산이 크기 때문에 나무가 많았다. 게다가 나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무를 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시르미 고개를 넘고 샅티고개를 지나 예산 나무전에 가서 팔았다. 나무의 양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다. 기운이 세서 나무의 양이 많으면 많이 받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에 힘에 부치는 일이라 나뭇단이 작아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 나무가 팔리더라도 또 나무를 산 사람 집까지 배달을 해주어야 했다. 어렵게 나무 팔아 번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돈 벌기 어렵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버릇이 생겼다.

둘째 형이 장사하는 예산으로 오다

면전에서 태어나고 면전에서 성장하였다. 면전은 도회지와 멀었기 때문에 농사지은 토마토를 서산이나 예산에 내다 팔았다. 집에서는 농사가 주업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특용작물을 재배하였다. 비닐하우스도 초창기부터 했다. 예전에는 비닐하우스를 쇠파이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켜서 만들었다.

특용작물을 하다 보니까 품종이 좋은 씨앗도 필요하고, 비료, 농약 등도 필요했다. 서산 부흥상회에서 구입해 사용하였는데 그 집 사장이 둘째 형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착실하니까 가게를 해보라고 권하였다.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예산에 가게를 냈다. 둘째 형님은 농사를 지으며 익힌 농사지식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였다. 형님이 예산에 자리를 잡은 후 자연스럽게 예산과 인연이 되었다. 집 가까이 있는 함덕농고를 가지 않고 예산으로 나와 농고를 다니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면전은 들로 되어 있어 발전이 없었지만, 예산은 당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보급이 초창기여서 특용작물을 하는 곳이 별로 없었다. 비닐하우스의 보급이 늘기 시작하면서 형님 가게도 자리를 잡았다. 큰형님은 신례원에 자리를 잡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당시 예산 농고가 인기가 있었다. 입학 당시 경쟁률이 4대 1이나 되었다. 예산에 사는 학생들보다 타지에서 온 학생이 더 많았다. 졸업 후 건국대 농업대학으로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상업



우 제 품 (1952년생)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기생 160명 중에서 40명이 건국대로 편입을 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3학년에 건국대에 편입을 했다. 진학보다는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군입대를 했었다.

풍농비료 예산대리점 오픈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형님 가게에서 일했다. 형님 가게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기사 둘에 4명이 매달려도 바빴다. 가게에서는 농약과 농자재를 도매로 팔았다.

독립해서 비료만 전문적으로 파는 풍농비료 예산대리점을 열었다. 가게를 시작할 때 마침 화학비료가 나오기 시작해서 기사 두 명을 두고 일을 했다. 예산군내만 거래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늘어 판매 물량이 많아졌고 다른 군까지 담당하기에는 벅찼던 것이다.

비료는 화약 만드는 방법과 같다. 따라서 전시에는 화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내는 대략 10개 정도의 회사가 있어 비료를 생산해 냈다. 비료는 판매에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소비량만 파악하면 필요한 만큼의 양만 준비하면 되었다.

예전에는 장사하기가 편했다. 또한 마진폭이 넓어서 이윤이 많이 남았다. 열심히 일하면 남을 때였다. 지금같이 직원들 4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까다롭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장사하기가 좋았다. 25년간 해 온 비료장사를 6년 전에 그만두었다. 개업 이후 가게에 들어와 23년간 함께 일한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었다.

전용 비료가 다 나와요

예전에는 비료가 없어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다가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새마을운동 시절에는 마을마다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퇴비를 많이 만든 마을은 상을 주기도 하였다. 가정집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면 남아있는 재가 있었다. 재는 가공 없이 그대로 비료로 썼다.

이제는 힘들여 비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작물에 맞는 비료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곡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소나 돼지가 밟아낸 짚이 좋은 퇴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설령 한다고 해도 퇴비를 생산해서 논밭에 낼 사람도 없다.

소나 돼지를 많이 치는 곳에서는 분뇨처리가 문제이다. 자기가 키우는 짐승의 분뇨를 모았다가 자기 논밭에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검사를 마친 후에 내야 한다. 발효가 덜 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분뇨를 논밭에 내면 토양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분뇨는 수거해 간다. 그냥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 비료를 만들어 낸다. 수거해 간 동물의 분뇨에 효소를 넣어 발효를 시켜 정량 포대로 담아 출하한다. 농민은 필요한 양을 신청하고 정부에서는 주문량을 헤아려 보조를 해준다. 전액 보조는 아니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 몰래 동물의 분뇨를 버렸다. 이제는 환경오염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된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시설이 많고, 재생퇴비 구입도 보조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고 또 농작물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받고 있어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예산에서 해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1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7만 명 정도라고 하니 10만 명이나 줄었다. 아이를 낳지 않아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구수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옛날에는 농토가 있어 쌀농사를 짓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다. 예산은 농토가 넓어 농사짓는 인구가 많아서 군세가 다른 지역보다 좋았다. 그리고 인구감소도 더디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최약한 군이 되고 말았다.

단적인 예로 일제 강점기에는 호서은행이 있었다. 예산에 돈이 돌았기 때문에 은행이 생긴 것이고, 예덕상무사 보부상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당진과 비교된다. 당진이 시가 되면서 세무서가 생겼다. 그전에는 예산세무서 당진출장소가 있었던 곳이다. 예산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다 보니 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추사선생 회호대회 700명이 참여

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진자 원장이 부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부원장을 맡기는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개인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내기가 자유로워 문화원 일을 돕기가 쉬웠다. 이진자 원장은 임기 내에 군의원에 출마해서 군의원이 되었다. 이진자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1년 정도 원장으로 있었다. 차기 원장은 이용면 원장이었는데 4년 동안 문화원장으로 일을 했다.

예산에서 가장 큰 행사는 추사 추모 회호 대회였다. 대부분 작품을 받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회호대회인데, 예산 추사회호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받아서 심사를 했다. 장소는 추사고택 안에서 진행을 했다. 고택 안은 장소가 협소해서 100명으로 시작했으나 대회가 거듭되면서 참가 인원이 증가했다. 고택 안은 20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했다. 밖으로 장소를 옮겨 300명을 지원 받아 추려서 대회를 열었다.

10월 10일 추사 탄신일에 대회를 열었다. 그날 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비가 오면 야외에서 대회를 진행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행사 전에 예산중학교 체육관을 섭외를 해 놓았다. 비가 안 오면 현장에서 하고 비가 오면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회를 진행했다.

진행비를 관에서 지원하여 규모를 크게 하였다. 당시 전국에서 400~500명 정도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가장 많은 참가자 수는 700명이었는데 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참가 인원은 많아서 좋은데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누구나 다 참가를 하게 되니까 실력이 부족해도 작품을 냈던 것이다. 작품이 많아 심사하기도 어렵고, 또 본래의 추사 추모 의미도 퇴색되고 해서 다시 추사고택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예산 농업은 역사가 깊다

예농, 예산농업고등학교의 전신은 1910년 공주에 설립된 공주농림학교였다. 1946년 예산으로 이전하면서 예산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그 후에 예산농업고등학교, 예산농업고등전문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92년 공주대학교와 통합되었다.

학교의 역사도 80여 년, 어느 학교에 비교할 수 없는 역사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정계와 관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까지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아쉬운 점은 공주대학교에 편입되면서 예산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학교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주에서 예산으로 학교가 이전했지만 원래 홍성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홍성에서는 인문고등학교를 원했다. 반면에 예산에서는 실업계 학교든 인문계 학교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이었다. 예산에서 생각하기를 예산에 인문계 학교를 세울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업학교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홍성으로 이전을 못 하고 예산으로 공주농림학교가 이전되면서 교명이 바뀐 것이다. 당시 예산농고 자리는 향교 땅이었다. 금오산 남쪽 자락, 아리랑고개 넘기 전 현재 보건소 자리까지 예산농고의 터였다. 당시 학교부지로는 매우 넓은 터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문화원



이지호 (1933년생)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예산양조장 시절

제1회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예산군청에서 일을 했다. 그때 최종 합격자는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했다. 군대를 갔다 오던지, 아니면 사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대 가라고 하는 통에 군청에 사표를 냈다. 당시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다 올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850명이 지원했던 시험에 어렵게 합격해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이었는데, 군청에서 채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사표를 낸 후 양조장으로 직장을 옮겼다. 양조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군에 가든, 안 가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양조장 상무 월급은 15,000원이었다. 공무원이나 교사 월급이 고작 4,000원 미만일 때 15,000원이나 받았다. 상무라는 게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조장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양조장에서는 탁주, 소주를 만들었다. 양조장은 주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사장은 아니더라도 주주회의에는 사장 대신 참석하였다. 그 당시는 주주회의 한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때였다. 아버지는 66세 때 양조장을 해 놓고는 돌아가셨다. 아들이 없는 큰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다.

읍내는 예산양조장에서 막걸리, 약주, 소주 등을 만들어 공급했다. 대술양조장이 예산양조장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다. 대술양조장은 문화원장을 했던 이항복이라는 분이 경영했다. 본래는 중도일보 기사를 했던 사람이었다. 대술양조장이 운영을 그만두자 이항복 씨는 문화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술양조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예산양조장은 막걸리를 많이 팔게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

문화원 원장 10년 했어요

이항복 전 원장이 대술양조장에서 일하다가 양조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문화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에 이항복 원장은 군수에 출마하면서 문화원장을 내놓았다. 당시 군수는 권오창 씨가 당선이 되었다. 권오창 씨를 후원한 덕으로 문화원장을 하게 되었다. 임기가 9년인데 1년을 더해 10년 동안 문화원장을 했다. 문화원장을 1년 더 하게 된 이유는 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였다.

당시 원장 임기는 4년이였다. 연임을 해서 8년을 했고, 전 원장 잔여기간 1년을 더해 9년을 한 것이다. 게다가 후보자가 없어 1년 더 하여 총 10년 간을 문화원장으로 있었다. 처음 원장으로 나왔을 때 원장 후보가 세 명이 나왔었다. 한 사람은 10표, 다른 사람은 20표를 얻었다. 그때 40표를 얻어 문화원장이 되었다.

처음 취임했을 때 회원이 70명이었던 것을 원장을 하면서 500명으로 늘렸다. 이전 문화원장은 아는 후배들 서너 명과 같이 문화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직 중에 회원 수를 500명으로 늘리고, 또 문화원을 신축했다. 문화원 부채도 많았는데 임기 중에 모두 갚았다.

자기 돈이 없으면 원장 못 했어요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나 기타 운영비의 지원이 없었다. 이사들이 각축하든지 아니면 원장이 개인돈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문화원장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시켰다. 일을 하려면 부원장,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는데 부원장이야 문제가 안 되더라도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급료가 있어야만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국장 급료는 마련해 주어야 했다. 행사 때마다 절약해서 쓰고는 나머지 돈을 모아 그럭저럭 급료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행사도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전에는 추사문화제라고 했는데 추사문화제를 하면서 아끼고 아껴 그 돈으로 인건비에 보태는 정도였다. 조금 지나 문화원 운영비만 군에서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인건비로 쓰라는 지원금은 전혀 없었다. 직원 인건비는 원장의 수완에 달려 있었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없으면 문화원장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한국 동란과 신앙



성부제 (1950년생)
예산군 신양면 마전 하삼길



자발적 농업 노동자로 일본에 가신 조부와 납북된 아버지

아버지는 한국동란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자식이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조부는 농업 노동자로 일본에서 30년간 일을 했다. 조부는 일본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귀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부께서 일본에 간 지 10년 만에 할머니가 일본으로 가셨다.

3남매 중 아버지만 국내에서 출생하고,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일본에서 출생했다. 10년 뒤에 부부가 상봉하여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나이 차가 크다. 아버지는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대판에서 공업 중학교 야간부를 다녔다. 한국동란 때에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의용군 소대장으로 차출되었다. 휘하의 소대원들을 돌려보내고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1960년대 경 신양 귀곡 사람이 간첩으로 내려 온 일이 있었다. 당시 서산과 당진, 예산이 발각 뒤집혔었다. 그 사람은 예농 출신이었다. 본가로 오지 않고 처가로 갔는데 마침 처가에 경찰과 관계되는 사람이 있어 자수를 하게 했다. 그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북에서 간첩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출신 중에 월북해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는지 등,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치아가 다 빠져 있었다. 그나마 자수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는 했다.

간첩으로 온 사람만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남한에 있었던 동생도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그동안 다

녀갔을 텐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책이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북으로 가신 분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사람들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해당 가족들은 고초를 겪었다. 조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좌에 그대로 걸려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다.

방첩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새파랗게 젊은 방첩대가 노인한테 바른대로 말하라고 고문을 하면서 가해진 갖은 수모를 견뎌내지 못한 것이었다. 자수한 사람의 집안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이 많았다. 고문의 후유증도 있었지만 연좌제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공과 공부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소용이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도 못 보고 큰 것이 참작되었는지 더 이상은 심하게 굴지 않았다. 그 당시 아버지가 북에 살아 있다는 이유로 연행이 되긴 했었다. 그러나 홍성 방첩대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단지 형식적인 조사라는 말과 함께 심하게 하더라도 달리 생각하지 말라고 귀뜸도 했다. 자진 월북도 아니고 강제 납북했기 때문에 과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박헌영 고향 출신으로 북한에서 거물급 인사가 되었다. 박헌영이 처형당할 때에도 아무 탈이 없었다. 정치인이 아닌 학자로 있었기 때문에 처형될 위기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 아버지는 승진을 했던 모양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정부 계통에서 일하는 집안 사람이 알려 주기를 아버지가 협동농장 지배인이 되었다고 했다. 북한 방송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함자를 들었다고 전해 준 사람도 있었다. 어디 협동농장 책임자라고 하면서 김일성 앞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방첩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조사했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더 이상 데려다 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 후에 공무원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연좌제를 생각해서 가지를 않았다. 방첩대에서는 왜 안 가냐고, 연좌제 걱정 말고 공무원으로 일하라고 했다. 자기들이 뒤를 봐 줄 터이니 만약 아버지가 찾아오면 자기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 달라고 했다. 다른 곳에는 알리지 말고, 다시 말해 경찰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말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후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일은 없었다. 사상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조사해 보아야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은 연락도 없었고, 아버지로 인해 생긴 일은 일단 마무리 되었다.

90년도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가 북으로 갈 때 탈출시켜 주어서 살아왔다면서 미아리에서 헤어졌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갈신리에 사는 박○기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좌익 한 것도 아니고, 자진 월북한 것도 아닌데 왜 돌아오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할뿐이었다. 6·25 때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

박○기 씨 말에 의하면 당시 인민군으로 끌려갈 때 아버지 휘하 같은 소대원 중에서 예산 사람들을 많이 빼줘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가 의용군 소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복 후에 우익들이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 집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우리 집을 의용군 소대장 집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단다. 그런데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빼줘서 살았다고 적극 변호하여 무사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그때 아버지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도 많이 지나 생존해 있을 수도 없겠고 해서 이산가족찾기에는 신청도 안 했다. 북쪽에서도 찾고자 하는 뜻이 없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신양에서 면장 하던 윤○일 씨가 내당숙인데 그 사람의 셋째 동생이 6·25 때 행불이 되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만 북으로 갔던 모양이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동생이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을 해서 연락이 왔다. 이 일로 인해 불뚱이 다른 곳으로 튀었다. 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던 집안사람이 장성으로 진급해야 하는 시기에 일이 벌어져서 진급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 보러 갔었는데 만나지는 못했다는 말을 전하더라는 것이었다. 이산가족찾기에는 신청을 안 했지만 아버지가 북에서 잘 살고 계신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생사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다.

신양에 학살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수복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신양은 변화가 없었다. 수복 소식을 몰랐던 것이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학살 행위가 이루어졌다. 수복이 되었지만 신양에는 미군이나 국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구까지 진격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도 하고 수복이 안 되었다는 말도 돌아갔다는 것이다. 수복이 되어 다른 곳은 인민재판이 없어 졌지만 신양은 매일 인민재판이 있었고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죽천은 박헌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곳이다. 죽천리 사람들은 배운 사람도 별로 없다. 연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창규, 이강국 등도 신양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다. 대술의 좌익 사상은 선장에서 온 사람에 의해 전파되었다. 전창규는 직접 고모부를 인민재판에 올린 사람이기도 했다. 신양에서는 대략 100여 명이 인민재판에 희생을 당한 듯하다. 손지리 같은 곳은 좌익이 많았지만 온건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인민재판을 해서 죽창으로 찢러 죽이라고 명단을 보내면 그 마을 노동당원들이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무봉리도 피바람이 불고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명단을 받은 노동당원이 국문을 몰라서 주머니에 넣고만 다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찢어버려 무사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예산 군내에서 학구열이 가장 높아 대학 나온 사람도 많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있었던 귀곡리는 사회주의에 물들어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한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산의 고인돌과 임존성 수레길



성부제 (1950년생)
예산군 신양면 마전 하삼길



95년도 문화원 회원으로 시작한 향토사연구

95년도 방송통신대 회장을 할 때 통신대 학습관이 문화원에 더부살이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이항복 전 문화원장이 회원으로 등록시켜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항복 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동의도 없이 문화원 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문화원 회원이 된 후에 향토 관련 책을 많이 보았다. 당시 문화원 서고에 책이 많이 있었다. 1988년도에 공주대학교에서 발행한 <예산의 불적조사>라는 책으로 인해 고인돌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신앙과 대술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었다. 이 책은 예산의 불교 문화재, 특히 신앙과 대술의 지표 조사를 처음 한 책이었다. 그때 마을에 있었던 바위가 고인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바위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인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산의 불적조사>라는 책에 예산의 고인돌을 주 내용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부록으로 책 뒤에 소개된 것이었다. 많이 다룬 것도 아니고 2곳 정도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책을 본 순간 이게 고인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 먼저 예산군 전체를 탐방하면서 고인돌을 찾았다. 처음부터 시형착오를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고인돌 하면 고임돌이 있어야 하는데 고임돌이 없는 것이 많았다.

우선 고인돌의 조건을 정해야 했다. 단순히 고임돌 유무로 고인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 없는 곳에 홀로 있는 경우는 고인돌로 보기로 했다. 이동시켰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를 가려 판단하고자 했다. 또 바위 출토지를 찾으면서 인근에 채석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보았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바위를 운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리에 있는 고인돌은 그 출처가 모호했다. 1킬로 근방에는 바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동안 고인돌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바위에서 채석할 수도 있지만, 땅속에 묻혀 있는 돌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고인돌이 있는 곳 가까이에 바위가 있었다. 근처에 바위가 없는 경우는 특수한 예로 분류하였다. 산에 있는 바위에서 채석을 하여 산 아래로 운반한 것이 고인돌 제작의 일반적 예라고 규정했다.

연리의 고인돌은 화산천 건너 밀무리에서 채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마을 주변에서 추가로 바위가 발견되었다. 화산천 건너 밀무리 바위를 살펴보니 돌을 채석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를 내는 공사로 인해 훼손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훼손되기 전의 원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운반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채취했을 것으로 추단했다.

전국향토문화 공모전에 예산의 고인돌을 접수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 여러 번 퇴짜를 맞았다. 학계에 고인돌의 연구가 아직은 미답지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고인돌 연구자라고 나서는 학자나 전문가도 전무했다. 따라서 심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수상작으로 올리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심사에 탈락을 했어도 얻은 수확은 컸다. 향토역사문화를 공부하면서, 특히 고인돌을 연구하면서 예산지역이 역사와 문화 연구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연구해 왔던 고인돌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는 일이 빈번하다.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고인돌의 가치를 소리 질러 보아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일반인들은 고인돌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족했다. 농사짓는 논밭에 있는 고인돌은 농기계가 들어가 작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수난을 당했다. 예전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동원하면 고인돌 하나 없애는 일은 일도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훼손되는 실정인데 고인돌은 문화재로 인식하지도 않고, 게다가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어 관리, 보존의 사

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고인돌은 농경문화의 한 증거이다. 예산지역은 무한천과 삼교천 주변으로 농경최적지라고 본다. 따라서 일찍이 농경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인돌을 많이 남겨 놓았다고 본다.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보지 못하면 고인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임존성 수레길

고인돌 연구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논문심사위원들이 고대사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인돌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벽찬데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고대사까지 규명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향토사가들의 꿈이 향토문화대전에 입상하는 것인데 여기서 접을 수는 없었다.

임존성 연구는 주제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고인돌 연구를 포기하고 임존성 연구를 시작했지만 오리무중이었다. <삼국사기> 기록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연구하기는 막막했다. 산성을 백 번 올라 다녀 보았자 나오는 결론은 없는데 연구 자체가 손에 잡히질 않았다. 임존성은 중학교 1학년 때인 1962년도에 혼자 올라가 본 기억밖에 없었다.

홍성 친척집에 갔다가 임존성에 올랐었다. 2월 달이었는데 눈이 쌓여 있고 비탈은 얼어있어 오르기가 힘들었다. 당시는 나무도 없었고, 나무라고 해야 잡목이 허리 정도 올라 왔었다. 임존성에 간다고 알리지 않고 산에 간 바람에 난리가 났었다. 그때까지 임존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임존성 가까이서 살다가 이사 온 친구가 등학교 시간에 이야기 해준 것이 전부였다. 그 친구의 이야기 때문에 임존성에 올랐던 것이다. 성에서 놀았다는 말과 묘순이 바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다. 묘순이 바위가 진짜 있었던 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더욱 귀가 솔깃한 것은 자기들이 임존성에서 놀다가 성문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말이었다. 초등학교 5, 6학년 이었을 때 그랬다는 것이었다. 성문이 어떻게 생겼길래 아이들이 무너뜨렸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먼저 성문을 찾기로 하고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돌았으나 성문은 없고 성벽만 있었다.

남문지 쪽을 보니깐 반쯤 무너진 성문이 보였다. 마사리 쪽으로 큰 돌을 올려 놓은 성문의 흔적이 보였다. 무너진 성문을 뒤에 학자들이 여장으로 보기도 하였다. 성에 덧쌓은 성이

있고 또 출입하는 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다.

1994년에 백제부흥군위령제를 문화원에서 지냈다. 임성중학교 학생들과 문화원 회원들이 봉수산 임존성에서 야영을 했다. 당시 대흥의 이수 여사께서 임존성에 수레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레가 올라 다니던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흥운동군이 군량을 8필의 말에 싣고서 올라다니던 수레길이 있었다고 했다. 이수 여사께서 임존성 수레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중학교 때 임존성에 올랐을 때는 나무도 작았었는데 이제는 제법 나무가 커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남문지 쪽으로 흔적이 있었다. 그곳이 수레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길은 나 있었다. 대련사로 내려오는 쪽에 희미하게 길이 나 있었다.

청양 출신의 임동권 교수가 예산농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3만의 군대가 부흥 운동의 기치를 내세웠던 임존성이 여기에 있는데 왜 향토사연구 논문이 없느냐고 질책을 했다. 자신이 심사위원장인데 도대체 왜 없느냐고 했다. ‘논’자만 있어도 전국 1등을 주겠다고 했다. 임존성에 대해서 쓰기만 하면 1등 준다고 파격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논문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달려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막상 논문을 쓰기로 했지만, 임존성을 백번 올라갔다 온다고 해도 뭐 뽀족한 수가 없었다.

먼저 수레길을 찾기로 했다. 상중리에서 대련사 올라가는 뒷길로 해서 찾아 올라가는데 마침 과수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수 여사가 한 말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 계곡으로 군량을 운반해 올라 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쪽은 훼손이 되어서 찾기 어렵고, 위쪽 계곡으로는 8필의 말로 군량을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산 위쪽으로는 중간 중간 끊겼지만 대련사 위쪽으로는 길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임존성 지표조사에는 동문지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예전에 나무꾼들이 올라 다녔던 문이라는 설명은 있지만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상중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길이 있어 이 길도 내내 수레길의 연장으로 보였다. 등산로와는 확연히 다른 길이었다. 위쪽으로는 산사태로 인해 길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진 곳 가까이에 길이 나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위쪽에 있었던 성벽의 돌이 무너져 내려와 동문지를 덮어 버렸기 때문에 위에서는 성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문 자체가 무너지면서 성벽의 돌과 혼재되어 있어 그동안 동문지를 찾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존성에 2개의 성문만 있다고 했었다. 임존성도 4개의 성문을 갖추었던 성이 분명해졌다. 남문지 쪽으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대련사로 내려가는 물을 정남쪽 문으로 보면 되고, 마사리 쪽은 보는 입장에 따라 남문으로도 볼 수 있고 서문으로도 볼 수 있다. 서쪽으로는 흥성 월암리 쪽으로 문이 아예 없고, 이제 동문이 확인되었으므로 성문이 4개였음이 분명해졌다.

4개의 문이 있었다는 확증이 들면서 임존성 연구는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 임존성 논문 한 편 남긴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9살 때 무식해서 시작한 역사·문화재 공부

임존성에 대한 관심은 9살 때 시작되었다. 무식해서 알고자 했던 욕구가 자연스럽게 임존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정규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가본 역사가 없다. 국문은 어깨 너머로 깨쳤다. 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부엌 바닥에 써가면서 공부했다. 국문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가면서 익혔다. 한자는 아버지가 동생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익혔다. 남동생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겨서 그럭저럭 한자를 익힌 것이다.

당시 아버지는 여자란 자고로 침선 방적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아버지도 그러셨고, 같은 여자인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왜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반발이 생겨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다.

어릴 때는 임존성에 대하여, 묘순이 바위에 대하여 알고 봉수산에 오른 것이 아니다. 단지 봄철이면 나물을 뜯으러 이산 저산 다니다가 봉수산에 올라 무너진 성을 보기도 하고, 묘순이 바위 근처에서 놀기도 했다.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봉수산과 임존성에 대하여 공부할 하여 알게 되었을 때는 외지인들을 안내하면서 봉수산을 올랐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봉수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찾아와 안내를 부탁하였다. 그들은 임존성에 오르는 산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게 되었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임존성과 봉수산



이 수 (1925년생)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묘순이 바위

임존성에 있는 묘순이 바위 전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힘이 장사인 아들은 석자 석치 되는 신을 신고 서울을 갔다 오고, 누이는 석자 석치 되는 신을 신고 뒷산에 성을 쌓는 내기를 했다는 전설이다.

시합이 시작되자 누이는 부지런히 성을 쌓아서 문만 달면 되었다. 예전에는 남매가 장사여서는 안 된다, 하나를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 생각에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종콩밥을 해 놓고 딸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딸을 죽게 한 것은 어머니의 자의가 아니라 관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이다. 묘순이는 이제 성문만 달면 되니까, 문을 달고 간다고 했다. 뭐 이제 다 했는데 와서 먹고 하라고 강권했다. 동생인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콩밥을 해 주는 것을 몰랐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딸도 살리고 싶었지만 관에서 하나는 죽여야 한다기에 아들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아들은 살고 딸은 죽게 되었다. 묘순이는 억울해서 바위가 되었다. 묘순이 바위 앞에 가서 “종콩밥이 웬수지, 네 어머니가 웬수지”라고 말하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 왔다. 묘순이 바위는 특별하지 않은 바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리서 말해도 메아리가 생기지 않고, 너무 가까워도 소리가 되돌아 오지 않았다. 한 자리에서만 되돌아 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대흥에 보건소를 짓고 깨달았다. 보건소를 짓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말을 하면 소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 묘순이 바위처럼 멀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가까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임존성은 무너져 흩어져 있었다

임존성은 무너져 황량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묘순이 바위는 더 눈에 들어왔다. 산 정상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 수종은 느티나무로 기억한다. 사실 봉수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그래서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오우진이라는 상종리 노인이 땀감으로 그 나무를 베어다 때고 죽었다고 한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 노인이 나무를 베어다 땀 후에 죽었고, 또 그 노인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생겨났다. 그 나무를 서낭

당이라고 불렀다. 나무 아래에 평평한 바위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후대에는 서낭당에 있던 성황신을 교촌으로 옮겨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임존성에서 부흥운동군의 위령제를 지냈다. 문화원의 한 행사로 직접 참석도 했다.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게 임도를 놓았지만 예전에는 오로지 걸어서 등반을 해야만 했다. 그래도 쉽게 걸어올라 갈 수 있는 등산로는 마사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다.

박흥장군 묘소 위쪽으로 자연굴이 하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장수굴이라고 불렀다. 굴 안에는 물이 고여 있어 식수로 활용할 수 있었다. 굴 안쪽 바위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이 고인 것이다. 예전에는 눈병이 났을 때 그 물로 눈을 씻으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굴 앞에는 장군이 밀어서 굴을 닫았다는 바위가 하나 있다. 갈라진 것이 마치 칼로 베어놓은 듯 하여, 혹간 장군이 칼을 휘둘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까지 만들어 졌다. 백제부흥운동 때 임존성에 복신이 거처했던 사실로 미루어 복신굴이라는 견해도 있다.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방어기지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질 그릇 깨진 파편이 주위에 널려 있어 심증을 굳히고 있다.

원흥장과 원당이(원당)

원흥장 이야기는 심청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청전의 근원설화이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원흥장의 고향이 대흥이라고 한다. 대흥에 사는 원량의 딸 흥장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팔았다고 한다.

설화를 사실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명에서 보이는 단서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동서리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원당이라는 곳이 있다. 이 원당이 원량과 원흥장이 살았던 곳이라는 믿음은 원흥장이 대흥사람이라는 기록으로 힘을 얻었다.

곡성 성덕산 관음사에 전하는 연기설화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곡성에서는 연기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흥을 원흥장의 고향으로 인정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예전에 바닷물이 상중리 배맨나무까지 들어 왔다고 한다. 또한 무한전을 통해 배가 왕래했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원흥장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실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산군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대흥지역



박 정 서 (1942년생)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송도령이 글 읽던 송지못

예산군 대흥면 송지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옛날에 송도령이 소나무 가지에 올라 글을 읽다가 바람에 책이 날려 못에 떨어지자 그 책을 잡으려다가 못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송지리 앞을 흐르는 하천을 석천, 다른 말로는 격양천이라 했는데 지금은 신양천 하류에 해당하나 예당저수지 물로 수몰된 곳이다.

송도령이 죽은 곳이라 해서 송지못이라 했고, 마을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하여 송지리라 했다. 송지못을 달리 송지연이라 했는데 정확한 장소는 기억하기는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연못 자리는 밭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마을 뒷산이 민둥산이었다. 큰 나무는 없었고 작은 잡목만 듕성듬성 서 있었다.

송지못이 있었다는 곳은 빛바랜 사진에서밖에 볼 수 없다. 그래도 예전 모습이 남아 있는 사진이 있어 다행이다.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은 그저 민둥산뿐인데 유독 소나무가 남아 있어 송지못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송지리는 반남박씨 집성촌인데 박도령도 아닌 송도령이 등장하는 전설이 흥미롭다. 아마도 이른 시기에 송가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명유래는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못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신양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마을 앞을 휘돌아 광사에서 내려오는 무한천과 합수되는 곳이어서 못이 있을 만한 곳임에는 분명하다.

대흥초등학교 두 칸 빌려 시작한 대흥중학교

대흥초등학교는 오래된 학교다. 일제 강점기에 개교한 학교로 다른 초등학교보다 역사가 깊다. 대흥중학교는 대흥초등학교 건물 두 칸을 빌려서 시작하였다. 대흥중학교 설립자 이면서 초대 교장이었던 분은 박승원 선생님이다.

현재의 부지에 대흥중학교를 짓고 개교를 했는데, 처음 개교 당시는 학교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지붕만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처음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오리바람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주민들의 실망은 대단했다.

학생들도 공부하러 학교에 다니다기보다는 일하러 다닌 듯싶다. 벽도 없이 개방된 건물에서 공부를 했다. 심지어는 바닥이 마루바닥이 아닌 흙바닥이었으니 학교 교사사기보다는 가건물이라 해야 맞다. 오전에 공부를 하고, 방과 후 오후에는 마을 앞에 흐르는 무한천에서 모래를 날라 운동장을 만들었다. 한국동란 뒤여서 제대로 된 그릇도 없었다. 책보로 사용하는 보자기가 유용하게 쓰였다. 보자기에 모래를 담아 이고 지고 날라서 운동장을 만들었다. 운동장 자리가 진흙땅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가져다가 운동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8살 연상의 동창생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시절, 더군다나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닌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에 진학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였다. 교육자 집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안 형편이 좀 나아서 그랬는지, 딸이었는데도 중학교에 진학시켰다.

대흥중학교 학생 수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많았다. 학교가 자리한 대흥에 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시, 신양, 흥성 장곡 등에 사는 학생들이 대흥 중학교에 대거 진학했다. 학생의 연령도 지금처럼 학령이 되어 입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8살 차이가 나는 동창도 있었다. 동창들 중에 나이에 맞게 일곱 살에 입학한 학생은 2명이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전부 다 한두 살은 더 먹은 사람들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미루다가 진학이 늦은 경우도 있었지만 군입대를 피해 보려는 의도

도 있었다. 당시는 학생 신분이면 군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학교를 가려면 중학교가 있는 예산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럴 처지가 못 되었던 차에 가까이 대흥에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입학했다고 보면 된다. 동창 중에서 광시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나이가 많았다. 나이 많은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못 하고 있다가 대흥에 중학교가 생기자 진학한 경우인 것이다.

홍성 장곡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등교를 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집에 가는 것이 또한 일이었다. 통학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참 열심히 학교에 다녔다. 통학 시간만 6~7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대략 6~7시간, 배우고자 하는 정신 하나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녔던 것이다.

소풍은 봉수산 임존성으로

봉수산, 임존성은 학교 다닐 때 50번도 더 올라다닌 것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봄 가을로 가는 소풍은 임존성이 단골이었다. 저학년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폭포까지 올라갔지만 고학년은 정상까지 가서 산성을 돌고 내려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간혹 대련사로 가기도 했다.

소풍 때만 봉수산 임존성에 갔던 것은 아니다. 방과 후 수시로 친구들과 함께 임존성에 올라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등산로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다. 봉수산으로 소풍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차량도 없고 교통도 불편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기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봉수산은 올라갈 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주 좋았다.

매번 소풍 때마다 듣던 백제부흥운동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또 묘순이바위 전설도 매번 들어서 다 외우다시피 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돌을 주워 묘순이 바위에 귀를 대고 두드리며 ‘묘순아 콩밥 줄게’라고 읊조리기도 했다.

산 정상에 느티나무가 있었다. 흔히 제사를 지내던 상단이라고 하는 데 그때만 해도 그 나무가 있었다. 두 그루인지 세 그루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진으로 보면 두 그루가 맞는 것 같다.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었으니까 그 나무는 더 크게 보였던 듯하다.

당시는 성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어디가 남문인지 서문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웠지만 사람이 드나들던 곳은 확연히 구분이 되었다.

겉은 푸른 색, 속은 빨간 색 ‘감참외’

예당저수지 만들기 전에 무한천 가에는 양질의 토지가 펼쳐져 있었다. 논보다는 밭이 많았다. 여름이면 참외나 수박을 심었다. 원두막이 무한천 가로 줄을 지어 있었다. ‘대흥참외’라고 불렀던 참외가 유명했다.

대흥참외는 겉모양은 개구리참외와 비슷하지만 오이처럼 길죽해서 바지개 없이 지게에 다 지고 다녔다고 한다. 겉은 푸른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이었고 감처럼 맛이 있어 ‘감참외’라고 불렀던 참외종자도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당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대흥참외도 감참외라고 불렀던 참외도 자취를 감추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재배가 중단되고 종자도 전하지 않는다. 실제 참외 맛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종자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집에서도 감참외를 재배했었다. 판매를 위해서 심었던 것은 아니고 집에서 먹기 위해 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참외 한 쪽이라도 먹여 보내는 것이 동네 인심이었다. 남에게 베풀었지 야박하게 굴지 않았던 것이 과거 우리의 인심이었다.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연포항의 간자미와 주꾸미잡이	604
모항항의 연평도 조기잡이	609
마검포 백합양식과 활꽃게 수출	613
흑도(거무섬)의 어업과 생활상	617
안흥·신진항의 어업과 생활상	622
대련장사와 전북 해녀배 사업	626
꽃게잡이와 안흥항의 변천사	631
황도 중선배와 뱃소리 문화	635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연포항의 간자미와 죽꾸미잡이



이 천 의 (1960년생)
태안군 근흥면 연포1길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이천의 씨는 1960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2구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살다가 지금은 연포에서 거주하고 있다. 도항리의 옛 지명은 '도당굴'이고 연포는 '연개'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했으며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다.

아버지 이창기는 목선(무동력선)부터 초창기 동력선까지 소유했던 노련한 어부로 처음에는 연평도와 전라도 영광, 칠산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조기가 잘 안 잡히자 꽃게잡이를 했다. 그의 아버지가 최초로 소유한 동력선은 3t 정도의 목선에 야끼다마(동력선 소구식 발동기 엔진)를 놓은 '금복호'였다. 점점 배의 톤수를 늘려 나중에는 6~7t 정도 되는, 그 시절엔 제법 큰 어선인 '태영호'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도항리 선주 중엔 대나무로 통발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대나무 통발로 우럭이나 광어 등을 많이 잡았다. 대를 쪼개서 큰 바구니처럼 만든 통발의 미끼는 가장 흔한 고등어를 사용했다.

이천의 씨가 중학교 3학년 무렵에 가세가 기울었는데, 이유는 꽃게가 잘 잡히지 않고 선원들이 선용만 받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태영호를 정리하고 남의 배를 타던 아버지는 50대에 강원도 후포항에서 20t짜리 선박을 임차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나이 스무 살인 이천의 씨는 아버지와 동행하여 강원도 후포항에서 동해와 남해를 거쳐 서해 태안

의 안흥항까지 15일 동안 항해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배를 삼양상사의 상구선(운반선)으로 계약하고 작업선이 잡은 꽃게를 안흥항 패킹(꽃게포장)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그 당시 태안의 안흥항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꽃게잡이 배들과 꽃게를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 상사들로 파시(波市)를 이루었다. 이천의 씨의 기억으로 대표적인 무역상사는 OB·삼양사·충무금창·여수금창·대선주조 등이 있었고, 군소 무역회사들도 많았다. 문맹자인 아버지는 운반선 작업으로 월 400만 원 씩 받았는데, 삼양상사 직원이 계약문서를 위조하여 몇 년 동안 법정소송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파산했다.

이에 이천의 씨는 고향을 떠나서 울산의 현대조선에서 3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월급이 아니라 시급제였지만 일하는 시간이 많아 돈벌이가 괜찮았다. 처음엔 1시간에 6백 원씩 받았으나 나중에는 1천 원으로 올랐다. 젊은 시절이라 돈을 벌기 위해 잔업과 야근을 많이 했다. 그러는 중에 조선소에 데모가 자주 발생하여 일감이 줄어들자 29세에 귀향했다. 그 후 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을 할 때 3년 동안 덤프트럭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32세에 생애 처음으로 FRP로 만들어진 1.5t짜리 ‘영부호’를 장만했다. 이천의 씨는 그 어선으로 아내와 둘이 본격적으로 어업을 시작하여 나중에는 3.5t짜리 ‘한진2호’를 부리게 됐다.

주로 잡는 어종은 꽃게와 주꾸미, 간재미였다. 어장은 연포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거아도, 울미도, 삼섬, 지지도 주변에서 그물 작업을 했다. 꽃게 그물은 3중으로 된 ‘3중망’과 외로 된 ‘외망’이 있는데 그는 이를 두고 ‘유자망’ 혹은 ‘자망’이라고 했다. 3중망은 그물이 3겹으로 그물코가 3cm, 6cm, 12cm로 크기가 다르다. 그는 그물코의 크기를 ‘2절 8모’라고 표현하며, 30m 길이의 그물을 한 틀, 혹은 한 떼라고 불렀다. 그물 3떼를 연결하고 양쪽에는 ‘호이줄’(깃대 줄)이라는 줄에 ‘호이대’(깃대)와 ‘호이통’(부표)을 고정한 뒤 3kg 돌을 닳처럼 매달아 그물을 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새벽 1시에 출항하여 30떼의 그물을 투망과 양망한 뒤 정오에 귀향하는데 꽃게잡이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주꾸미잡이는 소라껍데기를 매달아 잡는데 그 주낙을 ‘문어단지’라고 불렀다. 주꾸미 주낙은 400m 길이의 줄에 소라껍데기를 70cm~1m 간격으로 400개~500개 정도 매다는데 이 줄을 ‘망간’이라고 불렀다. 배 한 척당 ‘일곱 망간’씩 3,500개의 소라껍데기를 매달아 투

척해서 주꾸미를 잡았다. 주꾸미는 사시사철 잡지만 알이 뻥 뚫린 주꾸미가 맛도 좋고 값도 비싸다. 주꾸미는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 잘 잡히며 1990년대에는 하루에 200kg~300kg씩 잡았다.

이천의 씨는 꽃게나 주꾸미를 잡는 연포 앞바다 어장에서 겨울과 이른 봄에 유자망으로 갯개미(간재미)를 잡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말했다.

“내가 알기로 갯개미는 산란을 1년 내내 하는 거 같아요. 지금이야 갯개미를 날개루 세서 팔지만, 옛날엔 키로(kg) 저울루 달아서 팔었지. 그러다보니까 작은 갯개미는 숫자로 쳐주지 않았어. 갯개미 수놈은 자지(생식기)가 두 개 달렸거든. 그래서 자지가 하나 달린 놈은 작다고 숫자로 쳐주지 않고 덤으로 넘어간 거여. 갯개미가 워낙 많이 잡혔으니 그런 일이 생겼지. 지금은 손바닥만한 작은 놈두 다 숫자로 세서 돈을 따져 받지. 덤은 옴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부로 늙어가는 이천의 씨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만 바다가 황폐화하는 걸 아쉬워했다. 요즘 도다리를 잡아보면 얼룩덜룩한 점이 박혀 있고 암꽃게가 알을 정상적으로 풀지 못하고 썩는다며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꽃게는 봄에 산란하는데 어느 때 보면 노란 알이 썩어서 잡힐 때가 있어요. 암꽃게 배쪽에 노란 알이 차 있잖아요. 그 알이, 산란할 때가 되면 꽃게가 자기 발로 배에서 알을 떼어내서 살살 바다에 흩어 놓거든요. 그러면 수꽃게가 오너갖구, 뭔가..., 정액을 착착 뿌리잖아요. 그래야 꽃게 새끼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꽃게가 더러 그 알을 흩어 놓지 못하고 배쪽에 그대로 지니고 있다가 흐물흐물 없어지는 거여. 그냥 썩는 거여. 그러구 도다리는 허얇게 뭐가 생겨. 피부병마냥 옛날 꼬마지(종기) 나면 딱지가 생기듯이 그런 식이여. 나는 이런 게 바다가 오염돼서 그렇다구 봐요.”

이천의 씨는 요즘도 계절에 따라 꽃게와 주꾸미와 간재미 등을 잡는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업을 하던 예전 19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70년~1990년에 비해 지금은 바다에 고기 종자가 말랐다며, 안흥항구가 꽃게잡이로 파시(波市)를 이뤘던 이야기를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안흥은 꽃게잡이 배와 여수나 남해 쪽에서 올라온 꼬막잡이 배들까지, 수백 척의 어선이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했기 때문에, 안흥항 내에 어선이 정박할 장소가 모자랐다.

그때는 신진도와 안흥항구 사이에 교량이 없었고, 안흥항구는 지형이 절벽 밑에 형성됐기 때문에 집 지을 땅이 좁아 거리엔 상인들과 어부들로 어깨를 부딪치며 다닐 정도였다. 전국에서 몰려온 선원들로 안흥항구는 많은 식당과 술집이 생겼으며 심지어 태안 읍내 상권까지 호황을 누렸다. 조업은 사리 물때에 주로 했고 조금 물때에는 육지에서 쉬게 되는데, 그 기간에 선원들이 술과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선주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그 무렵 이천의 씨의 고향 근흥면 도항리(도당굴)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고 한적한 모래 해변이었던 ‘연개’는 삼성에서 해수욕장으로 개발했다. 연개는 지명이 ‘연포’로 바뀌었다. 가수 ‘하춘화’의 히트곡 ‘연포 아가씨’가 인기를 끌 때였다. 이천의 씨도 보상을 조금 받고 강제로 도항리에서 연포로 이주했다. 그는 그 당시 안흥항구 연포 부근은 개발 붐이 일어나서 돈은 흔했으나 인심은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천의 씨는 안흥앞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받으러 모항 쪽으로 다닐 때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관장목’을 거쳤는데, 잔잔한 날에도 파도가 거칠어 배질(항해) 하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관장목은 조금 때는 물살이 세지 않지만 다섯 매에서 열 매 사이가 물살이 세죠. 여덟 매, 아홉 매, 그땐 엄청나게 싸죠(빠르다). 물이 막 돌면서 울어요. 큰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작은 배는 관장목 가운데로 가다가 침몰하기 딱 좋죠. 그래서 옛날부터 관장목을 잘 통과하는 선장을 1등 선장이라고 했어요. 신진도와 가의도 중간 아래위로 30m 거리에 거기 사자바위라고 아시죠? 거기가 물살이 가장 쎈 곳이에요. 바닷물이 막 돌면서 빠르게 흐르죠. 거기가 관장목이에요. 조그만 배는 못 올라가요. 물살이 빠르니까.

그러니 옛날 목선(무동력선)은 물살이 빠를 때는 거기로 못 다녔죠. 가평이(육지의 경계)로만 다녔죠. 육지 가에로. 육지 주변은 물살이 조금 약하죠. 그리고 밀물이 참(반조)되고 나서 썰물로 바뀌려면 한 30분 정도는 물 흐름이 딱 멈춰요. 뱃사람들은 그때를 병병(잔잔)하다고 해요. 그 시간 맞춰서 배들이 모항 쪽으로 올라가 인천으로 갔고, 안흥 쪽으로 내려왔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노를 저어 그 관장목을 땡겼지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안흥 관장목에서 배가 많이 침몰한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쭈꾸미가 고려청자를 끌어안은 걸 건져 올린 것도 다 배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옛날에 전라도에서 물건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배들은 반드시 신진도와 마도 앞 바다에서 멈춰 물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거세든가 물때가 안 맞으면 며칠이고 정박했다가 관장목을 통과했다며, 지금 동력선들도 그곳을 지날 때는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인다고 했다.

이천의 씨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남의 배 선장으로 다니다가 80살에 운명했다. 그는 대를 이어 태안의 어부로 살며 온갖 풍파를 겪었으나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지만 어업이 괜찮은 직업이라며 자녀가 어부가 되겠다면 만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평생 어업에 종사한 송응남 씨는 부인 홍춘자 씨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했다. 올해 92세로 1929년 모항1리에서 태어난 그는 3살 때 가족과 함께 흑도(거무섬)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9살 때 부모를 따라 다시 모항1리로 이사하여 소년 시절을 보냈다.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부인 홍춘자 사이에 3남 5녀를 두었다.

송응남 씨는 16살부터 선원으로 배를 타기 시작했다. 그가 최초로 승선한 어선은 의항리(개목) 선주 김강선의 주낙을 하는 배였다. 3년 동안 남의 배에서 선원 생활하던 그는 19살에 목선을 장만하여 선주 겸 선장이 되었다. 그 배로 흑도 부근에서 ‘아지’(전갱이)를 잡아 제법 돈을 모았다. 그 당시 흑도 주변 가대암(가진여), 궁시도(화살이), 석도(석섬) 근방에서 아지가 엄청나게 잡혔다.

아지는 고등어와 비슷하나 옆구리 뒤에 큰 가시 비늘이 붙었다. 늦여름부터 가을에 잡힌다고 하여 태안 사람들은 ‘갈아지’ 혹은 ‘간아지’라고 불렀다. 아지는 기름기가 많아 구우면 특히 맛이 좋았으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아지는 주낙과 그물로 잡았는데 주낙으로 잡을 때는 붉은 형겅을 미끼로 사용하였다. 낚시를 세 개씩 매달은 낚싯줄을 바다에 넣으면 세 마리씩 계속 잡혀서 선원 두 명이 타는 작은 어선(텐마)도 하루에 400~500마리씩 잡았다.

그 당시 흑도에는 11가구가 살았는데 그들과 모항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모항항의
연평도
조기잡이송응남 (1932년생)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사람들이 섬 주변 가대암(가진여)에 몰려와 아지를 잡았다. 잡은 아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인천 장사꾼 배 ‘강용호’가 생선으로 사 가기도 하고 직접 소금에 절여 팔기도 했다. 송응남 씨는 주낙으로 아지를 잡다가 나중에는 그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송응남 씨는 모항에서 연평도 조기잡이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10여 년 동안 ‘아지잡이’를 하다가 30살 무렵인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 조기잡이를 했다. 조기잡이 어선은 65t짜리 ‘총남호’였는데 목선으로 야끼다마 엔진 2개를 놓은 동력선이었고 후엔 70t짜리 ‘천일호’로 조기잡이를 했다.

재력 없는 송응남 씨가 젊은 나이에 동력선 ‘총남호’ 선주가 된 건 태안의 부자 이석환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그때 태안의 상인들은 배짱 좋고 고기 잘 잡는 그에게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했다. 선원 11~12명씩 태우고 흑산도와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한 그는 조기를 잘 잡아 ‘왕초선장’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1960년대 초 연평도는 전국에서 몰려든 조기잡이 어선들로 파시를 이루었다. 그 당시 잡은 조기는 인천 상인들이 사 갔다. 그들은 생선으로, 혹은 절여서 운반했으며, 큰 조기는 숫자로 세고, 작은 조기는 저울로 달았다.

연평도 조기잡이는 음력 3월 말부터 시작하여 조금 사리 구분 없이 조기를 잡았다. 그의 배는 보름에 한 번씩 연평도에서 모항 밭고개 포구로 들어왔다. 그때마다 접안시설이 없는 관계로 송응남 씨가 조기 팔은 돈 보따리를 어선 갑판에서 자갈밭으로 던지면 처가 식구들이 받았다며 웃었다.

그때 번 돈으로 모항에서 최초로 양철지붕으로 된 집을 지었는데 현재 사는 집터라고 했다. 그는 조기가 잘 잡힐 때는 한 철에 쌀로 환산해서 몇백 가마니 정도씩 벌었다며,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 정도 됐을 거라 말했다. 그때는 돈을 잘 벌어 선원들 대우도 잘 해줬는데 한 달에 2백만 원 정도씩 돈을 준 것으로 기억했다.

10여 년 조기잡이를 한 송응남 씨는 조기가 잡히지 않자 1960년대 후반 꽃게잡이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흑도, 궁시도, 격렬비열도 부근에서도 꽃게가 잘 잡혀 많은 배가 몰려들었다. 안흥항구에는 꽃게를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들이 많았다. 그는 ‘여수 금창, 총무금창, 두산상사, 삼양상사, 강원냉동’ 등 큰 회사들이 있었다고 구술했다.

송응남 씨는 2000년대 초에 꽃게잡이를 접었다. 그의 나이 70세 무렵이다. 그가 평생 직업인 어업을 그만둔 건 꽃게가 잡히지 않아 채산성도 없었지만, 선원 수급과 선급금 피해 때문이었다. 그 당시 선주들은 꽃게를 잡아주겠다고 무역상사와 납품 계약하고 전도금을 받아 그 돈으로 출항 경비와 선원들 선급금(선용)을 줬는데 돈을 받고 도망가는 선원들이 많았다. 송응남 씨는 평생 선주 겸 선장으로 바다에서 조업하고 아내 홍춘자 씨는 육지에서 조업 뒷바라지를 했다. 그녀는 그동안 선원들에게 떼인 돈을 계산하면 18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홍춘자 씨는 남편의 어업을 뒷바라지하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조업 나간 배는 보름에 한 번씩 들어왔다. 그때마다 쌀 2가마, 김치 큰 통으로 4통, 양념, 술 3짜, 음료수 4짜, 소고기, 돼지고기와 영킨 그물을 풀어서 배에 실었다. 그 모든 일을 아내가 담당했다. 그런 선주 아내를 두고 태안에서는 ‘갓선주, 물선주’라고 불렀다. 그 당시는 모항 받고개 포구에 식당이 없어 영킨 그물을 추리는(푸는) 아줌마들의 새참과 점심을 손수 지어 머리로 이고 가서 줬다. 밥을 얼마나 술하게 했는지 김장으로 배추를 800포기나 했다고 한다.

또 도망간 선원을 수소문해 잡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별 흥측한 일을 다 겪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번은 목포에 배가 들어와서 그물 끌른 것 갓구 오라구 해서 트럭 대절해서 싣구 갖는디... 선원 일곱 명이 돈을 달라구 졸르니까 이 양반(선주)이 개덜에게 돈을 줬나봐요. 그런데 배가 나갈려구 허는디 선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나보구 아무 여관에 가서 데리구 오라구 해서 갖는디, 한 시간이 넘어두, 두 시간이 넘어두, 한 늑두 안 나오능겨. 이 양반은 전화루 안 데리구 온다구 야단이구. 그 새끼들 말만 듣구 있다구 막 야단하구. 헐 수 읊어서 주인인지 뭔지, 워편 여자에게 선원들을 불러달라니까, 색시들허구 진(진)밤 잔다구 허더라구. 나는 그때 진 밤이 뭔지, 짬은 밤이 뭔지 몰렀다니까요. 그래서 배 있는 데루 가서 선원 애덜이 안 나오구 진 밤 잔다구 하니께, 이 양반이 나보구만 야단허넌 거여. 개들이, 그 밤에 여관이서 안 나오는 걸 어떡허냐구요. 그래서 그날 배 못 나갔다니까요.”

홍춘자 씨는 그런 일은 목포뿐만 아니라, 여수·태안 등 모든 항구에서는 흔했다며, 돈 심부름 이야기도 했다. 태안 앞바다에서 꽃게가 덜 잡히자 어선들은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

근처 어장으로 옮겨다. 어부들은 그곳을 ‘특해’라고 불렀는데, 꽃게는 많지만 불법 조업으로 해경의 단속에 걸리면 어업 정지를 받았다. 송응남 씨는 그런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눈치껏 조업했다. 그러다가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면 책임자에게 접근하여, 아무 날, 인천 아무 다방으로 가서 봉투를 받으라며 뇌물을 제안했다. 그러면 아내 홍춘자 씨는 돈 봉투를 만들어 인천의 다방으로 가서 그 경찰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그들은 잽싸게 돈 봉투를 받고 사라졌다고 했다.

선주와 선원의 수익 분배에 관해 물으니 송응남 씨는 50년 동안 선주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남은 게 없다며 웃었다. 가령, 1억 원을 벌었을 때 경비가 2천만 원이면 그걸 제외하고 남은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선주 몫이고, 나머지 4천만 원 중에서 선장은 선원의 1.5배(한 짓 반), 기관장은 1.3배(한 짓 3부)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산은 돈을 잘 벌었을 때 이야기이고 못 벌면 선주는 빚만 쌓인다고 말했다.

한평생 바다에서 산 그는 92살 나이에 비해 건강했으며 옛날 흑도에 관한 기억도 또렷했다. 흑도에는 11가구 40여 명이 거주했다. 흑도 옆의 궁시도(화살이)에도 4가구가 거주했다. 흑도에는 근흥초등학교 흑도 분교가 세워졌는데 2~3년 정도 섬마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가 1960년대 중반 섬사람들이 이주하는 바람에 학교가 폐교되었다. 현재 궁시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소원면 모항4리 ‘이은들’에 거주하고, 흑도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모항1리에 거주하고 있다. 송응남 씨는 흑도 주변에서 아지와 조기와 꽃게가 지천으로 잡히던 1950년~1960년대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다.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태안 어업 역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손봉진 씨는 그 시절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1931년 남면 드르니(신온리)에서 박창곤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태안 최초로 백합양식과 일본에 꽃게 수출을 시작한 장본인이다. 그의 아버지 박창곤은 목선을 소유했었는데, 조기·도미 등을 잡아 인천이나 군산에 직접 신고 가서 판매해 가게가 넉넉한 편이었다. 1930년대 드르니(신온리)는 안흥항구보다 번창했던 포구로 서산시에서 유일한 동력선(이도하 소유)이 드나들 정도였다. 그의 기억으로는 당시 드르니 포구의 배들이 연평도와 전라도 칠산 바다에서 조기를 잡아 오면 염장해서 짚으로 한 몫(10마리)씩 엮어 팔았다고 한다.

손봉진 씨는 열 살 무렵, 가끔 아버지의 배를 타고 주낙을 갔던 걸 회상했다. 배는 돛이 3개인 삼대선이었으며 선원은 아버지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 어장은 거아도 주변이었는데 ‘바수’라는 깃바위 근처에서 흑돔(검은 도미)과 적돔(붉은 도미)을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 돌섬을 아버지 이름을 딴 ‘창곤이 섬’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1951년 결혼한 손봉진 씨는 한국전쟁 중 군에 입대하여 6년 동안 복무한 뒤 1957년에 전역한 후 아버지를 도와 농사와 어업에 종사했다. 그 당시 안면도 백사장엔 사람이 살지 않았고 건너편 드르니 포구 곱섬엔 참봉벼슬을 했다는 신 참봉(신현구)네 독살과 마검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마검포 백합양식과 활꽃게 수출



손 봉 진 (1931년생)
태안군 남면 곱섬로



포 이창훈네 독살이 유명했다. 독살에서는 계절에 따라 조기, 전어, 밴댕이, 열치가 많이 잡혔다. 특히 대나무를 쪼개 만든 어살에 조기가 많이 갇힌 날엔 밤낮없이 북북북 조기 울음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손봉진 씨는 5·16 쿠데타 후 1965년쯤 서산시 재건운동본부 청년회장직을 맡았다. 그때 견문으로 수산양식에 관심을 두고 마검포에 30정보의 패류 양식장 허가를 낸 뒤 군산 앞바다 ‘오식도’에서 백합 종패를 구해 양식업을 시작했다. 그해 장마철에 오식도 갯벌에 콩알만 한 백합 종패가 떠밀려서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정보를 듣고, 직접 섬에 가서 8가마니 정도 퍼 담아 태안으로 가져왔다.

당시 군산과 장항은 육로가 아닌 배를 이용하여 왕래하던 시절이었다. 손봉진 씨는 마검포 백사장에 3,000평 정도 그물을 설치하여 백합 종패를 임시로 가둔 뒤 점차 면적을 넓혀 양식했다. 그는 3년 동안 백합양식을 하면서 <종패 이식 성공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수산잡지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일본에 꽃게를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8년 3월 한국 수산청장의 소개로 찾아온 일본인 ‘가와구치 마사오’가 꽃게를 활어로 살려 일본에 수출하자는 사업 제안을 하였다. 검토 끝에 ‘가와구치 마사오’가 10만 불 신용장을 보내오자 서울 종로 1가 화신백화점 앞 서울빌딩 3층에 ‘중도무역’ 사무실을 개설했다. 사업자본금은 3년 동안 키우던 마검포의 백합양식장과 소유하고 있던 염전 5정보를 처분하여 마련했다. 중도무역은 충청남도에서 제1호로 등록한 무역회사였다.

그는 무역사업 초창기 안흥항구가 아닌 거아도 앞에서 활어 운반선 2척을 정박시켜, 회사 선단 소속 20여 척의 어선들이 잡은 꽃게를 2,000kg씩 수출했다. 일본에 꽃게를 수출하는 절차는, 태안에서 꽃게를 실은 수출운반선 50t짜리 ‘남아호’가, 경남 충무에서 통관을 거쳐 2일 만에 ‘오사카 우노’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당시 꽃게를 1kg당 5원~100원에 수집하여 일본에 수출하면 4달러, 우리 돈 2,000~3,000원을 받아 수익이 엄청났다.

문제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 밑의 물간에 넣은 살아있는 꽃게들이 서로 물어뜯어 30% 정도가 꽃게 발이 떨어져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손봉진 씨는 온갖 실험 끝에 신경이 전달되지 않는 꽃게의 고정 엄지발 한쪽을 절단하는 방법과 대바구니에 넣어 물에 담가 운반하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는 꽃게 엄지발 한쪽을 절단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선단 소

속의 모든 어선에 승선해서 어부들을 상대로 교육했다. 또한, 바구니를 잘 만들어 태안에서 ‘가 바구니’라고 소문난 남면 양잠리 가 씨들에게 바구니를 만들게 하여 그 바구니에 꽃게를 담아 수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대바구니는 나중에 철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969년도 ‘중도무역’은 꽃게를 매일 5,000kg씩 수출하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14만 불을 수출하였다. 꽃게 수출사업이 호황을 누리자 대기업 종합무역상사들이 끼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수출을 권장하던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 외화를 획득하는 무역상사에 1백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무역금융을 혜택을 줬다. 안흥항구에 꽃게잡이 배와 무역상사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 ‘여수금창’과 ‘충무금창’을 꼽았다.

손봉진 씨는 일본으로 꽃게를 많이 수출하는 업체에 주던 독과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수산청에서는 10만 불 이상 수출한 업체는 특별로 새로운 무역상품인 수산물 수출 독과점 혜택을 줬다. 중도무역이 1969년 14만 불을 수출했으니 당연히 수출 독과점업체 선정 대상이었다. 그런데 서산 해미 사람인 수출 진흥과장이 꽃게 철망을 고안했다는 이유로 한 해 겨우 4만 불을 수출한 ‘이용수’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수출 독과점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화가 난 손봉진씨는 독과점 특별혜를 거부하고 누구나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큰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했다.

1970년쯤 태안 안흥항구가 무역상사들의 꽃게잡이 어선 쟁탈로 경쟁이 심해지자 그는 다른 돌파구를 찾았다. 꽃게 어장을 조사하여 흑산도 부근이 추운 겨울에도 꽃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수출 현장사무소를 태안에서 목포로 옮겼다. 당시 목포에는 꽃게잡이 배들이 드물었는데 그들은 태안 안흥 항구와 다르게 꽃게를 ‘삼마이’ 그물로 조금씩 잡았고 값은 1kg에 5원 정도였다. 손봉진 씨는 즉시 목포 수협을 통해 꽃게잡이 어선 19척에 전도금을 지급하여 선단을 꾸리고 태안 ‘삼성상회’ 이주환에게 꽃게 그물을 싣고 오게 했다.

수출 방법도 해상이 아닌 항공을 통해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일본인 ‘가와구치 마사오’에게 어류도감 등 참고할 만한 책을 보내라고 부탁했다. 손봉진 씨는 일본에서 보

내온 책을 읽다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일본 막부시대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오사카에서 도쿄로 보낼 때 왕겨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즉시 그 방법에 착안하여 왕겨와 톱밥으로 대하와 꽃게를 포장하여 버스로 서울 사무실로 보내는 실험을 했는데 톱밥의 생존율이 왕겨보다 100% 높았다. 대성공이었다. 그는 꽃게를 2°C 얼음으로 2~3분 아사시킨 뒤 꽃게 상자에 톱밥을 채워 항공편으로 일본에 수출했다. 이 작업을 패킹(packaging)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살아있는 꽃게를 포장할 때는 자신이 개발한 이 방법으로 한다고 했다.

목포에서 꽃게가 잘 잡힌다는 소문이 퍼지자 태안의 무역상사들과 어선들이 몰려와 다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손봉진 씨도 3년 동안은 돈을 잘 벌었으나 어획고도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였다. 작업선 한 척당 600만원~1천만 원의 전도금을 지급하다 보니 점점 수익이 줄어들었다.

1977년, 연평도 부근에서 피조개가 엄청나게 잡혔으나 일본에서 수입을 중단하여 버리게 된 걸 알고 500t을 시세보다 30% 싸게 매입했다. 그는 피조개를 사리 때 근흥면 갈음이 해 수육장 모래톱에 임시로 뿌렸다가 일주일 후 다시 파내어 큰 이윤을 남기고 일본에 수출한 것을 끝으로 무역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그 무렵은 꽃게잡이도 시원찮고 일본이 중국과 수교하는 바람에 수산물 수입상들은 한국보다 중국과 거래를 시작하던 때였다.

그는 학구적인 사람으로 수산물 수출사업에 지식이 해박했다. 서적을 통해 일본 수산정책을 알아보고 수산청에 건의하여 우리나라에 금어기 도입을 서두르게 한 사람이었다. 백합양식과 기발한 발상으로 꽃게 수출사업을 하여 한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번 돈은 어딘가로 나가게 되다며, 농사를 지으며 6·25 참전 유공자 충남도지부장을 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서남수 씨는 올해 나이 88세로 1934년 태안군 근흥면 흑도(거무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흑도에는 11가구 40여 명이 거주했다. 서금봉의 4남 2녀 중 장남인 서남수 씨는 네 살까지 흑도에서 살다가 태안군 소원면 모항4리 ‘이은들’ 큰집으로 이주하여 성장했다. 큰집에서 살았으나 부모가 사는 흑도를 왕래하며 고기를 잡았다.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징집됐던 서남수 씨는 1952년 정식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5년 동안 군 복무한 후, 전역하여 1958년 고향 흑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어업을 시작했다.

태안 사람들이 ‘거무섬’이라고 부르는 흑도의 면적은 약 0.230km²로 근흥면에 속해 있으나, 섬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운 소원면 모항리와 왕래했다. 서남수는 어려서 아버지에게 들었으며 흑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대략 120년 전인 1901년쯤으로 추정했다. 흑도에 최초로 정착한 성 씨는 ‘박 씨’와 ‘최 씨’이며 그 뒤로 ‘서 씨, 송 씨, 안 씨, 신 씨, 장 씨’가 이주했다.

섬의 산 중앙의 동백나무가 우거진 숲엔 팽나무 한 그루가 있다. 뿌리 둘레가 두 아름이 넘으며 높이는 15m, 둘레는 열 아름으로, 예전엔 그곳에 당제를 모셨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최초 이주한 ‘박 씨’가 밭을 일구려고 섬에 불을 질렀는데 팽나무만 타지 않았다고 했다. 섬은 바람이 불면 여러 척의 배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형이다. 주변 궁시도(화살이)나 가의도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흑도(거무섬)의
어업과 생활상서남수 (1934년생)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어선들이 풍랑에 피항했으며 우물이 서너 개 있고 역새가 많아 땀감으로 사용했다.

흑도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두 작은 배, 덴마(거룻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섬 주변과 가대암(가진여)엔 조기, 아지(전갱이), 우럭 등 생선이 흔했다. 그중에서 아지가 제일 많이 잡혔는데 아지는 고등어와 비슷하나 조금 길쭉하고 꼬리 양쪽 부분에 가시가 박혔다. 그 당시 섬사람들은 아지 낚시줄에 고등어가 잡혀도 솔잎 냄새가 난다며 먹지 않고 버렸다.

가대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이유는 바닷속에 두 개의 암초가 육지의 산처럼 솟아있고, 그 주변으로는 수심이 얕아 고기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 암초는 사리 물때에는 바다 위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암초에 무인 등대가 있다. 태안의 뱃사람들은 망망대해 바닷속에 가대암이 숨은 걸 알기 때문에 피해 다녔지만, 그걸 모르는 배들은 바위에 부딪혀 파손이 잦았다. 서남수 씨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일본으로 가던 화물선들이 침몰했었다는 얘기를 어른들에게 들었다.

흑도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고기와 전복 등을 잡고 해초를 채취해서 수입을 올렸다. 봄에는 지천인 미역과 김을 뜯어다 말렸다. 가까이 있는 석도, 병풍도, 격렬비열도까지 가서 해초를 채취했다. 겨울에는 섬 주변 갯바위에 무진장 붙어있는 담치(홍합)를 채취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담치는 삶지 않고 생으로 까서 건어물로 만들었다. 흑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 익숙하여 해녀처럼 물질해서 전복을 잘 잡았다. 전복도 건어물로 만들어 팔았다. 지금도 흑도에서 모항으로 이사 온 여성들은 해녀 생활을 한다.

섬사람들이 철철이 조기와 아지 등 생선을 염장하거나 건어물로 만들면 모항의 장사꾼 송월순이 배를 타고 와서 사 갔다. 직접 모항 육지로 나가 팔기도 했다. 흑도 사람들의 생활은 궁핍하지 않았다.

서남수 씨는 3년 동안 흑도 주변에서 어업을 했다. 그러다가 강원도 거진에서 야까다마 엔진을 탑재한 10t짜리 목선 ‘신흥호’를 임차해 본격적으로 연평도 조기잡이를 시작했다. 그 당시 모항에서는 송응남 다음으로 서남수 씨가 조기잡이를 크게 했다. 음력 3월에 시작하는 연평도 조기잡이는 선원을 10명씩 태우고 조업했다. 6월이 되면 조기를 따라 흑산도와 공해상인 동지나해까지 다녔다.

4년 동안 조기잡이를 한 서남수 씨는 조기가 잘 잡히지 않자, 1969년부터 꽃게잡이를 시

작했다. 그 무렵 태안 안흥항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꽃게잡이 어선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들로 파시를 이루었다. 서남수는 '신성호' 대신 디젤 엔진을 탑재한 '신성호'를 사들여 선원 12명을 태우고 꽃게잡이를 했다. 어장은 태안의 흑도, 격렬비열도 주변이었으나 꽃게가 더 잘 잡히는 웅진반도와 연평도 북방한계선(NLL)까지 진출했다. 어민들은 그 지역을 '특해'라고 불렀다. 그 지역은 꽃게가 많았으나 해군과 해경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월선(越線)하지 못하게 지켰다.

그 당시 한사리 7~8일 조업하면 꽃게를 1,000kg씩 잡았다. 꽃게 값이 좋아서 봄·가을 조업하면 연 매출액이 4억 원 정도 됐다. 그러니 선주들은 모두 꽃게가 잘 잡히는 '특해'에서 조업하려 했다. 서남수 씨는 북방한계선을 월선(越線)하였다가 다른 어선 13척과 함께 인천해병대에 끌려가서 1년 동안 어업 영업정지와 선장 면허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

면허정지를 당한 후 자기 어선은 정박해놓고 전라도 장흥에서 12t짜리 어선을 임대하고 선장을 얻어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고대구리' 조업을 했다. 선장 면허정지가 풀린 뒤 '신성호' 선장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꽃게 무역상사 '여수금창' 사무장을 5년 동안 하며 꽃게 운반선 선장을 했다.

서남수 씨는 꽃게를 잡고 수출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바다에서 작업선이 그물로 꽃게를 잡으면 운반선이 8개 칸으로 나뉜 철망에 넣어 배 밑바닥 '물간'에 담근 채로 살려서 안흥항구로 싣고 왔다. 꽃게를 넣은 철망 1개는 20kg 무게였다. 운반선은 같은 선단의 여러 작업선에서 수천 톤의 꽃게를 안흥항구로 실어 날랐다. 안흥내항에는 무역회사마다 '고도리선'이라고 부르는 패킹(packaging) 선박을 정박하고 꽃게를 포장했다. 포장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혼 여성들이었다.

수출 꽃게를 포장하는 방법은 얼음물에 2~3분간 담가 마취시킨 뒤 상자에 넣고 톱밥을 채워 포장했다. 밤새 포장한 꽃게 상자는 냉동차에 싣려 김포공항을 통해 다음 날 아침 일본에 도착하는데, 그때쯤 마취한 꽃게가 깨어나 움직인다. 서남수 씨는 그게 활(活)꽃게라고 했다.

그는 어종에 따라 그물 작업과 통발, 주낙으로 직접 조업을 해본 노련한 어부였다. 옛날엔 주낙으로 조기, 아지, 우럭, 간자미, 붕장어, 노래미 등을 잡았다. 요즘도 모항의 '이은들'

사람들은 통발 대신 주낙으로 우럭과 간자미, 노래미, 붕장어를 잡는다. 주낙은 고기마다 낚시의 크기가 다르지만, 200m 낚시줄에 몇백 개씩 낚시를 매달아, 주낙 바퀴라고 하는 둥그런 틀에 낚시를 꽂았다가 하나씩 뽑아 바다에 던지는 방법이다. 주낙은 통발이나 그물처럼 사리 물때에 조업하지 않고 물살이 빠르지 않은 조금 물때에 했다. 미끼는 까나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예전에 만리포와 천리포에서 까나리가 많이 잡혔다.

꽃게 그물은 3중망이다. 그물이 3중인 건, 꽃게가 걸린 그물을 당길 때 속 그물이 팽팽히 당겨지지 않아 꽃게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겉에 덧망을 댄 것이다. 동해의 도루묵 그물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꽃게 그물을 해양수산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다. 태안의 선주들이 당시 서산·태안 국회의원 김현욱을 찾아가 설명하고, 그물을 서울 여의도 국회로 가지고 갔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현장 설명을 하여 겨우 그물 사용허가를 입법했었다.

꽃게 그물의 길이는 35m, 높이는 4.5m이며 그물 위쪽 줄엔 30cm 간격으로 ‘툽’을 달고 아래쪽 줄에 납봉을 달았다. 툽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과일 키위와 생김새와 크기가 비슷했다. 꽃게 그물은 ‘한 떼’ 혹은 ‘한 폭’이라고 부르는데, 꽃게 배 한 척당 300폭씩 준비하고 100폭은 예비로 실었다.

그러나 서남수 씨는 1990년대 중반 그물로 잡는 방법을 포기했다. 꽃게 어획량은 줄어들고 선원은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무엇보다 선원들이 선금을 주면 떼어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선주가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8년에 꽃게잡이를 그물 대신 통발로 바꾸면서 배의 크기도 줄였다. 통발은 선원 4명이 조업하니 인건비가 절약되어 어획고가 적어도 수익성은 좋았다.

서남수 씨는 1958년부터 배를 타기 시작하여 2017년에 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63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동안 그가 소유했던 대표적인 배 이름은 ‘신흥호’, ‘흥선호’, ‘신생호’이다. 특히 ‘신생호’에 애착이 많아 오랫동안 그 배 이름을 유지하다 보니 마을에서 ‘신생호집’으로 통했다며 웃었다.

그와 같이 꽃게 사업을 한 송응남, 국주환, 박기화, 정낙정, 흥언표, 염택수, 국맹환, 국익환, 서남석, 서동석, 안기학, 안장도 등은 모두 모항의 선주들이다. 문병렬과 김강선, 김윤기는 의항리 선주였다. 태안에서 꽃게잡이는 안흥보다 모항 선주들이 많았다. 꽃게가 한창

잡힐 때는 태안경제를 모함 선주들이 이끌었다. 다방과 술집, 어구와 그물, 택시와 숙박업이 특히 호황을 누렸다.

그 당시 안흥에는 다방이 두 곳이었는데 접대부가 10명씩 있었다. 선주들이 조금 때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는 태안터미널 부근 대우식당, 대우다방, 송죽다방이 유명했다. 그 다방들은 접대부를 20명씩 고용하기도 했다. 타지에서 온 선원들은 사리 물때 10일 동안은 바다에서 꽃게를 잡고, 조금 5~6일 동안 물에 오르면 다방이나 술집에서 번 돈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기 일쑤였다.

서남수 씨는 그 시절은 고기도 흔했고, 돈도 흔했고, 모든 게 어수룩했다고 했다. 연평도 조기잡이 갈 때 거치는 ‘방우리’(가덕도)나 모항 항구 바로 앞에 있는 ‘강다리’에도 조기와 꽃게가 지천이었다고 회상했다.

서남수 씨는 그 많던 고기가 사라진 건 첫째로 수온의 변화, 둘째로 무분별한 그물에 의한 남획을 꼽았다. 물 위에 사는 조기와 아지는 그물로 마구 잡으니 태안 바다에서 볼 수 없게 씨가 말랐다. 하지만 물 아래 사는 우럭, 붕장어, 광어, 놀래미는 그나마 조금씩 잡힌다.

그는 흑도에서 낚시 한 줄에 세 마리씩 잡히던 아지(전갱이)는, 장작불에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십 리 밖에서도 진동한다며, 그 시절을 그리워 했다.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안흥·신진항의 어업과 생활상



최근웅 (1951년생)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최근웅 씨는 1951년 경주 최씨 집성촌인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98번지에서 최병연의 3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13대에 걸쳐 신진도에서 거주했다. 아버지 최병연은 5형제 중 4남으로 형제들 모두 신진도에서 어업에 종사했다. 최근웅 씨가 어린 시절 신진도에는 90여 가구, 800여 명쯤 살았다. 당시 신진도엔 논과 밭이 제법 있었으나 대부분 배를 부리거나 남의 배 선원 생활로 생계를 유지했다. 최근웅 씨의 가정형편은 머슴 두 명을 둘 정도로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그 당시 5t 정도의 돛이 3개인 삼대선을 부렸다. 조기, 아지(전갱이), 홍어를 잡아 직접 인천과 군산에 팔았다. 해방 직후에는 중국 대련을 왕래하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인천에서 싼고 온 석유와 염장한 생선을 싼고 가서 중국의 비단, 면직물 등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밀무역으로 태안 사람들은 이를 '대련장사'라고 했다. 안흥과 대련은 배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안흥에는 대련장사 하는 배들이 여러 척 있었는데 1948년경에 모두 사라졌다.

어업과 대련장사로 돈을 많이 번 그의 아버지는 신진도 백사장에 독을 묻고 임시로 독 안에 돈을 보관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던 그의 큰형이 돈을 갖고 군산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아 한동안 맘고생을 했다. 신진도 어선들은 이른 봄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최남단 흑

산도에서부터 법성포, 칠산, 연평도를 거치며 조기잡이를 했다. 또 겨울엔 격렬비열도 부근과 연평도에서 홍어를 잡아 영산포로 팔러 다녔다.

1953~1960년경엔 안흥에도 동력선이 보급되면서 먼바다 조업을 했다. 그 무렵 돌풍을 만나 최부록의 배 두 척과 아버지의 배가 침몰하여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때 그의 큰아버지도 사망했다.

1960년 초까지 안흥 근방에서 가장 많이 잡힌 고기는 ‘아지’(전쟁이)였다. 고등어와 비슷한 아지의 특징은 등에 두 개의 가시가 달렸는데 외줄낚시로 잡았다. 흑도, 궁시도, 석도 주변에서 아지가 많이 잡혀 전국에서 많은 어선과 장사 배들이 몰려들었다. 그가 열 살 무렵 아버지의 장사 배를 타고 아지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석도와 궁시도에 임시 주막이 있을 정도로 파시였다. 당시 신진도 최부록의 집에는 깊이가 2m에 30평이 되는 시멘트 탱크가 3개가 있었다. 그곳에 아지를 가득 염장한 걸 봤는데 그 많던 아지는 1960년 초에 갑자기 사라졌다.

최근웅 씨는 아지에 대해 설명하며, 태안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소문난 서해안 최고의 어부이자 상인인 8촌 당숙 최부록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부록은 태안에서 전설이 된 어부였다. 10대 중반부터 배를 탄 그는 건장한 체구로 문맹자지만 배포가 좋았다. 한번은 기차 안에서 최부록이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는 걸 보고, 마주 앉은 사람이 똑바로 보라고 알려주자, “당신 읽으라고 일부러 거꾸로 잡고 있었다”고 임기응변으로 받아쳤다. 최부록은 당시 서산시 최고 현금 부자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들도 함부로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경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독립군 출신 이범석 장군이 신진도 최부록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유명했다.

최부록은 배를 여러 척 부렸다. 그 중엔 자유당 시절에 일본 배가 독도를 침범해서, 나라에서 나포한 배를 경매절차를 거쳐 매입한 ‘태영호’도 있었다. 최부록은 국내 최초로 일본에서 수입한 얀마 디젤 30마력 엔진을 얹은 50t짜리 ‘봉래호’를 비롯하여, 끓인 콜타르를 묻힌 그물을 끄는 저인망 사업도 최초로 시작했다.

그가 신진도에서 한창 수산업을 할 때는 선원과 집안일을 거드는 남녀가 100명 정도였다. 그 당시 신진도에서는 최부록, 주용낙, 최병연, 주기록, 최장준이 최고의 선주들이었다.

그들은 인천 수협이 생선값을 쥐락펴락했다. 최부록은 1960년대 초에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신진도에서의 수산업을 접었다.

인천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고향 신진도로 돌아온 최근웅 씨는, 아버지 어업을 도우며 병역을 안흥항구 경찰초소 근무로 마쳤다. 1970년 초 안흥항구는 꽃게 수출로 하루 어선 입출항이 400건이 넘도록 호황을 누렸다. 1972년 안흥항은 국가 1종 항구로 지정됐다. 그 무렵 최근웅 씨는 신진도의 임야 1,000평을 1억5천에 매각하여 아버지의 빚을 갚고,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5톤짜리 목선에 중고 버스 엔진을 개조하여 탑재한 어선을 건조했다. 이런 형태의 선박 엔진은 태안에서 최근웅 씨가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생애 처음 어선을 소유하여 꽃게잡이를 하며 차츰 사업을 키웠다. 1977년엔 ‘창성호’, ‘대성호’, ‘오상호’ 어선 3척과 운반선 1척을 보유했다. 어선은 선장을 두고 꽃게를 잡았으며 본인은 꽃게 수출 무역회사 ‘일진상사’ 사무장을 하며 꽃게를 운반했다. 그즈음 안흥의 꽃게잡이 어선들은 보통 50t 이상으로 배가 커지고 속력도 빨라졌다. 꽃게 어장은 가대암, 석도, 격렬비열도 주변이었는데 꽃게가 엄청나게 잡혔다. 봄·가을 꽃게잡이 철에는 그의 배 3척이 잡는 하루 꽃게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였다. 당시 안흥항구는 70여 척의 꽃게잡이 배와 200여 척의 피조개잡이 배, 20개의 무역회사가 있었다. 선원과 노동자만 해도 2천 명이 넘어 돈과 활기가 넘쳤다.

살아있는 꽃게는 5kg씩 톱밥 포장하여 항공편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죽은 꽃게는 노랑진 수산시장으로 보내던 시절이었다. 1974년도엔 여수금창 대표 노채술이 꽃게 수출로 백만 불 석탑훈장을 받기도 했다. 꽃게잡이가 호황이니 선원과 선장 구하는 경쟁이 치열했다. 그는 자신의 배를 탔던 안봉영, 최병권이 일류 선장이었다고 회고했다.

최근웅 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시기는 1978년경이었다. 꽃게잡이 어장에서 사고로 선원이 사망한 데다, 선원들이 전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건비와 경비는 오르는데 꽃게의 어획량은 줄어들어 안흥항구에 파산하는 선주들이 늘어났다. 거기에 최근웅 씨를 포함한 선주들은 돈을 쉽게 벌다 보니 도박 등 잡기에 빠져들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탕진했다. 빚을 건디지 못한 최근웅 씨는 1979년 부도를 맞았는데, 채권자들이 돈 벌어서 갚으라며 24t ‘동원호’를 얻어 줘서 재기할 수 있었다.

1994년 수산업을 접은 그는 잠시 서산에서 일식집을 경영하다가, 1995년 신진대교가 개통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꽃게잡이 배 ‘복성호’로 6년간 어업을 하다가 2000년 무렵 수산업을 완전히 그만뒀다.

그는 신진도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신진도에서 직접 어업을 하여 뱃일이 몸에 밴 뱃사람이었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신진도의 당제를 추억했다. 정월 보름날 큰 소를 잡아 당제를 지내고 섬사람들과 나눠 먹던 기억이 새롭다며, 지금 신진도 항구에서 육지로 거래되는 연 매출액이 1,500억 원 정도인데, 고향 사람들은 몇 명 없이라며 아쉬워했다.

안흥항구에서 꽃게 수출을 하던 대표적인 무역상사는 ‘일진상사’, ‘여수금창’, ‘충무금창’, ‘한인무역’, ‘효성물산’, ‘골든벨’, ‘신성수산’, ‘기린수산’, ‘삼양수산’, ‘대선’, ‘두산’ 등이었다. 그와 같이 꽃게를 잡으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던 큰 선주들은, 근흥면 안흥과 도항리의 주길옥, 주용락, 최병연, 최부록, 김을영, 이백금, 유경수, 심종서, 김동규, 이용대, 조기정, 이광택, 이기창, 김풍제 등이었다.

소원면 모항리 선주들은 정낙정, 박기화, 송사성, 홍장표, 김장복, 서남석, 서남수, 서동석, 안부성, 안장도, 국주환, 국맹환, 국익환, 홍언표, 서남호, 최병권, 송옥산 등이었다. 의항리 선주로는 김강선, 문병렬, 김윤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수산업으로 성공하고 현재도 꽃게를 잡는 선주는 김윤기 한 사람뿐이다.

최근웅 씨는 수산자원 고갈 이유를 배와 그물의 크기가 예전보다 15배나 커지고, 그 수도 많아진 것과, 어민 스스로 바다를 아끼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꽃게가 흔하게 잡히던 1970년대를 그리워했다.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대련장사와 전복 해녀배 사업



김성진 (1942년생)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김성진 씨는 1942년 안흥 진성 남문 밖 근흥면 정족리 1269번지에서 아버지 김삼종의 5남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10년에 태어난 부친 김삼종은 어업과 상업을 병행했었다. 1940년경엔 안흥에서 드물게 ‘똑딱선’이라고 부르는 야끼다마를 탑재한 10t짜리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배는 손가락 같은 길쭉한 화약을 점화구멍에 넣고 ‘휠’을 돌려 시동했는데 불연소가 잦고 발동이 잘 안 되어 고장이 많았다.

그 당시 동력선은 안흥에 1척, 신진도에 2척이 있었는데, 최부록·최부흥 형제와 최근웅 씨의 아버지가 선주였다. 그들은 주낙으로 조기나 홍어잡이를 했는데 홍어는 흑산도보다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잘 잡혔다. 아버지는 홍어잡이 외로 수산물 장사도 했다. 또, 해방 직후엔 중국 대련을 오가며 ‘대련장사’라고 부른 밀무역을 했다.

당시 안흥엔 밀무역하는 배들이 여러 척 있었다. 인천에서 휘발유를 몇 드럼씩 싣고 가서 물물교환을 했다. 교환품목은 비단, 광목, 땅콩기름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밀무역으로 서산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었다. ‘대련장사’는 한국전쟁 직전 중단했다.

김성진 씨의 어린 시절 살림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10t 동력선을 팔아 0.5t짜리 무동력으로 바꾼 것도 살림 형편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고교진학을 포기하였으나, 3학년 담임이었던 최인석 선생님이 서산농고에서 장학생을 뽑는다며 시험 응시를 권하였다. 다

행히 전교 8등으로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9년 열여덟 살부터 아버지와 같이 화살이(궁시도), 거무섬(흑도), 석섬(석도),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메가리’(아지)라고 부르는 전갱이를 잡았다. 당시 안흥과 신진도의 작은 어선 20여 척은 6월쯤 궁시도에 임시 천막을 치고 살면서 8월 말까지 아지를 잡았다. 아지는 수심 30m~40m 깊이에서 잡히는데 낚싯줄에 미끼 대신 빨간 형겔을 사용했고 낚시는 3개 매달았다. 그 줄을 바다에 넣으면 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주먹만 한 추가 물살에 휩쓸리면서 아지의 등과 머리에 낚시가 박혀서 3마리씩 올라왔다.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0.5t의 소형 어선엔 선원이 3명 승선했는데 3시간 정도 낚시질하면 아지 한 동(1,000마리)씩 잡았다. 잡은 아지는 안흥상인 유득현이 운반선으로 인천으로 싣고 가서 팔았고, 태안의 유명한 생선 장수 심우열은 염장해서 팔았다. 염장한 아지를 ‘간아지’라고 했는데 간아지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했다. 간아지는 구우면 맛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 선호했다.

김성진 씨가 궁시도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아지를 잡을 때, 해녀인 둘째 형수가 잡은 전복 물회를 먹고 급체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다음날 안흥으로 나와서 의원에게 진통제 주사를 한 대 맞고 살아났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었다. 그를 살린 의사는 성안(안흥진생)에 사는 의원 윤재병으로 만주에서 의술을 배운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어업과 수산물 판매업을 했던 김성진 씨는 서른 살 무렵인 1970년 초에 본격적으로 나잡업과 전복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나잡업은 해녀들이 물질로 전복과 해삼을 잡는 것으로 태안에서는 흔히 ‘해녀배’를 부린다고 말한다. 배 1척으로 시작한 나잡업은 나중에 ‘해성호’, ‘대성호’, ‘미영호’ 3척의 배를 부릴 정도로 번창했다. 초창기엔 대전에 직접 전복을 팔러 다녔는데, 전복 한 바구니 60kg를 팔면 쌀 1말 정도의 이윤이 남았다.

김성진의 해녀배 1척엔 해녀가 10명씩 승선하여 총 30여 명이 봄부터 전복을 잡았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온 원정 해녀들로, 1년씩 계약하고 물질을 했는데 주로 처녀들이 많았고 가끔 어린애들을 제주도에 두고 오는 아낙들도 있었다. 해녀는 김성진 씨가 겨울에 직접 제주도에 가서 모집했다.

60년대 말,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은 궁핍했다. 제주시에 큰 건물은 대한항공(KAL)빌딩 하나뿐일 때였다. 그는 주로 ‘성산포’와 ‘우도’ 해녀들을 모집했는데 특히 우도 사람들이 더 가난했다. 그들은 김성진 씨를 전주(錢主)라고 대접하며 특별히 좁쌀밥을 대접했다. 해녀 계약금은 고작 몇만 원 정도였다. 그는 봄이 되면 3t짜리 8마력 어선 해성호로 제주도에 가서 해녀들이 먹을 식량인 보리쌀과 간단한 살림을 싣고 왔다. 해녀들은 봄에 육로를 통해 안흥에 와서 봄부터 추석 전까지 물질을 하고 제주도로 돌아갔다.

물질은 음력으로 4월 23일 조금부터 시작했는데 바닷물이 몹시 차가웠다. 당시 해녀들은 고무 옷이 없어 무명옷을 입고 물질해서 덜덜 떨면, 선장이 배에서 장작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디젤 엔진을 식히는 순환수(중간수)를 몸에 끼얹어 주기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원정물질을 온 해녀들은 돈을 아끼느라 보리밥에 반찬은 된장 한 가지였는데, 남의 발 콩잎을 따다 씹을 싸 먹는다고 원성을 들을 정도였다. 70년대 중반엔 차츰 해녀배를 부리는 선주와 해녀의 숫자가 늘어났다. 또 현지 남자들과 결혼하여 태안에 정착하는 해녀도 많아졌다. 해녀배 선주로는 안흥에 최병연, 최병권, 최병렬, 김을영과 모항에 국석환, 이종남 등이 있었다.

김성진 씨는 인천 수협에서 알아주는 큰 전복 장사였다. 본인 배에서 잡는 전복뿐만 아니라 안흥과 모항의 해녀배가 잡는 물량을 전도금을 주고 전부 수집하였다. 전복은 인천과 서울로 직접 싣고 가서 팔았는데 한 조금에 수집한 전복은 5~8t으로 엄청난 물량이었다. 전복을 인천으로 운반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구니에 담은 전복을 운반선 밑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간에 넣고, 남은 물량은 갑판에 쌓아 포장을 덮었는데, 인천 가는 도중에 두어 번 전복에 물을 먹였다.

‘전복 물 먹인다’라는 말은 전복을 죽이지 않으려고 바닷물 속에 서너 시간 담갔다 꺼내는 것으로, 학암포 앞바다의 분점도와 풍도에서 항해를 중지하고 그 일을 했다. 한 번은 밤에 인천으로 항해를 하다가 안개 때문에 항로를 이탈하여 가로림만의 우도(쇠섬)에 도착해서 전복을 다 죽일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안개였다.

하인천 항구에 도착하면 전복은 도매상을 통해 팔려나갔다. 서울 시내 유통을 진 남대문 시장의 큰상인 유기현과 거래했다. 서울 상인들은 전복을 즉시 인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죽을 놈이 다 죽고 난 뒤에야 인수했다. 한 번 전복을 싣고 가면 쌀로 환산했을 때 대략 100가마니 정도를 벌었는데 그 돈이면 당시 서울 북창동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7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수산업 정책에 의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누구나 해삼, 전복을 자유롭게 잡았었다. 김성진 씨는 태안의 안흥 연안을 비롯한 흑도, 궁시도, 석도, 소원면의 파도리 주변 양식장 25헥타르(ha)를 충청남도로부터 면허 취득했다. 김성진 씨는 후에 정치에 입문하였는데 충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파도리 양식장 면허권을 파도어촌계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면허권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도 있었지만, 파도리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었다며 당시 가장 성가시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최한석이라고 웃었다. 무인도가 된 흑도, 석도의 면허권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했다. 마지막 남은 궁시도 양식장 면허권은 모항에 사는 이종남에게 넘겼다.

나잡업을 접은 김성진 씨는 형 김용과 7년 동안 멸치잡이 낭장망 사업을 했다. 어장은 안흥앞바다 부억도, 흑도, 궁시도 등 물살이 빠른 곳이었다. 그물을 치면 밀물에 몰려온 까나리와 멸치가 너무 잡혀 걱정이었다. 잡힌 까나리와 멸치는 밤새 삶는데 비가 계속 오면 건조하지 못해 버릴 때가 많았다. 그 당시 천리포와 만리포, 안면도에서도 까나리가 많이 잡혔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조기잡이도 갔었다. 김성진 씨는 초등학교 4학년쯤인 1950년대 중반 모내기를 할 무렵 아버지 배를 타고 조기잡이 갔던 걸 생생히 기억했다. 조기는 밤에만 잡혔는데 어장은 연포 앞바다 거울섬(거아도), 삼섬(마도)으로 선원들이 석유 등불을 밝히고 그물을 올렸다. 잡은 조기는 염장했는데 조기 입으로 배가 불룩하게 막대기로 눌러 가며 소금을 넣어 간독에 차곡차곡 절였다가 가을에 굴비로 엮어 팔았다. 당시 태안의 조기장사 중에는 심우열, 김동선, 조병태 등이 있었다. 참조기는 머리에 돌 같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조기의 사촌 ‘부세’다.

봄이면 연포 앞의 얇은 바다에서 잡히던 조기와 궁시도 주변에서 잡히던 아지는 60년대 중반에 태안 바다에서 멸종했다. 태안 바다 곳곳에서 너무 잡혀 걱정이던 까나리는 2000년 초에 사라졌다. 예전엔 너무 흔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꽃게와 우럭, 광어, 봉장어 등만 겨우 남았다.

평생 안흥에서 살면서 수산업을 한 김성진 씨는 신진도의 유명한 어부이자 수산물 유통업자 최부록에 대한 기억도 생생했다. 최부록은 소년 시절 인천선적 어선의 화장(밥 짓는 선원)을 하다가 작은 배를 사들여 어업을 시작했고, ‘고데구리’라고 부르는 저인망 쌍끌이 그물 배를 부리며 부를 쌓았다. 그는 인천에 ‘미도수산’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직접 고기잡이를 하면서 서해안 일대의 수산물을 독점하다시피 유통했다. 70년대 말, 최부록은 태안과 서산, 보령 등에서 해녀배 사업자들에게서 건해삼을 수집하여 인천의 중국인촌에 보급했다. 김성진도 해삼을 삶아 팔려서 그에게 넘겼다며 최부록은 머리가 비상하고 배짱이 큰 어부였다고 회상했다.

현재 서산 수협조합장인 김성진 씨는 어업과 수산업 유통을 했기 때문에 수산업 정책과 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60년대~1980년대까지는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유지됐었는데 1990년대 이후 급감했다며, 이는 바다가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 부족과 정책 전환이 늦어서라고 아쉬워 했다. 특히 곤쟁이에서부터 고래까지 잡아서 먹이사슬을 해치는 근해 안강망 먼허는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진 씨는 태안 바다의 풍요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써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만큼 아쉬움이 많아 보였다.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주용팔 씨는 1940년 신진도에서 아버지 주여록의 8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신진도 앞의 가의도엔 주씨가 많이 거주했다. 1960년에 작고한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이후 신진도에는 화약에 불을 붙여 시동하는 ‘야끼다마’엔진의 동력선과 노를 젓는 무동력선이 15척 있었다. 배의 크기는 5t~10t 정도로 선원은 5~8명이 승선했다.

일제강점기 아버지와 같이 안흥과 신진도에서 어업을 한 선주는 주천옥, 정동무, 최부흥, 최부록, 최병연, 최장춘 등이었다. 당시 신진도의 가구 수는 35호로 논이 1정 정도였고 밭은 많은 편이었다. 신진도는 경주 최씨 텃밭으로 대개가 어업에 종사했는데 최인복의 조부는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을 정도였다.

신진도의 선주나 어부들이 주로 많이 잡은 고기는 조기와 흥어, 갈치, 아지(전쟁이)였다. 어장은 격렬비열도와 궁시도, 석도 부근으로 고기가 잘 잡혔다. 계절에 따라 멀리 연평도와 흑산도로 조업을 다니기도 했다. 그들이 잡은 조기와 갈치, 아지는 서울이나 인천에, 흥어는 군산에 직접 싣고 가서 팔았다. 1950년대 들어서는 고기를 사러 오는 배들이 안흥까지 왔지만, 그 이전에는 임진강을 거쳐 한강 마포나루까지 갔다고 한다. 신진도에서 어업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은 최부록, 최부흥 형제였다. 주용팔 씨의 아버지는 60세 어업을 접었는데 부리던 배는 ‘안영호’로 조기잡이 안강망은 하지 않았다.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꽃게잡이와
안흥항의
변천사주용팔 (1940년생)
태안군 근흥면 신진로길

주용팔 씨는 채석포 선주 이광택의 배 선장으로 다니다가 서른 살 때인 1970년대 초부터 선주가 되어 꽃게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어업을 했다. 어장은 덕적도, 웅진 근방으로 5t 동력선에 선원은 5~6명이 승선했다. 그 당시는 삼중망 그물 20폭을 싣고 조업했는데 그물이 귀해 사용한 뒤 잘 추려서 여러 번 투망했다. 조업은 물때 3매~12매까지 10여 일 작업했다. 바다에 그물을 놓는 시간은 2시간 정도였고 그물 20폭으로 하루 꽃게 300kg을 잡았다. 그 당시 꽃게 값은 2,000원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20kg밖에 잡히지 않으나 꽃게 값이 3만원~5만원으로 뛰었다. 주용팔 씨는 꽃게가 많이 잡히던 옛날을 그리워했다.

1970년대 안흥은 꽃게잡이와 꼬막잡이 배들이 몰려들었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크고 작은 무역회사가 많다 보니 돈이 넘쳐났다. 전국의 건달과 술집 아가씨가 안흥에 다 모였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수출 초창기에는 해상을 통해 일본에 꽃게를 보냈으나 나중에는 항공편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꽃게가 덜 잡히자 주용팔 씨는 그물에서 통발 조업으로 전환했다. 나중에는 2.5t ‘태진호’로 꽃게 대신 낚시를 여러 개 매달아 끌고 다니는 땅끝이 조업으로 우럭과 광어를 잡았다.

안흥항구가 꽃게잡이로 파시(波市)였을 때도 신진도는 나룻배로 섬을 건너다녔다. 나루 사공은 김태수, 김태형, 김태식 3형제였다. 나룻배 샅을 외지인은 현금으로 받고, 신진도 원주민은 여름엔 보리, 가을엔 벼로 정산했다. 주로 나룻배를 이용했지만 안흥과 신진도 사이의 경우, 바닷물이 가장 빠지는 9매 날엔 직접 건너다니기도 했다. 주용팔 씨가 다닌 안흥초등학교 신진분교는 일제강점기 개교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 1980년에 폐교했다.

돈이 흥청망청하던 안흥항구는 1980년대 후반 꽃게가 잡히지 않자 생기를 잃기 시작했다. 호기를 부리던 큰 어선 선주들은 거의 빚으로 배를 압류당하고 파산했다. 신진도와 마도가 매립하지 않았을 때는 파산한 폐선들이 해변에 즐비했다.

그가 서른 살쯤이 안흥에 꽃게가 넘치도록 잡히던 때라고 했다. 그때 안흥의 꽃게잡이 배들은 모두 유자망 조업을 했다. 그렇게 흔하던 꽃게가 안강망 배가 조업하는 바람에 어획량을 올리지 못하는 유자망 어선 선주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흥항구가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안강망 조업은 큰 닻을 고정하고 ‘아구리’(업구)가 엄청나게 큰 그물을 바닷물이 흐르는 물길에 놓는 방식이다. 그는 물속의 그물이 흐르는 물길 따라 빙빙 돌면서 고기를 모조리 잡기 때문에 ‘뽕뽕이’라고 했다. 이 그물 하나를 ‘한 틀’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4틀씩 싣고 다니던 배가 지금은 50틀, 100틀씩 싣고 고기 씨를 말린다. 80년대 이후 배의 크기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른 지역 안강망 어선들이 태안 앞바다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배의 톤수는 커지고 그물을 더 많이 싣고 가서 바다에 펼치니 꽃게 종자가 남을 수 없었다.

주용팔 씨는 안강망 허가를 정부에서 허가해준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안강망 어선 척수를 줄이려고 해도 선주들이 엄청난 보상을 요구해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조업 방식이 계속되면 바다는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선주들은 결국 갈치 제 꼬리 잘라 먹는 꼴이 되고 바다는 황폐화할 거라고 걱정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가의도 주변에서 삼치가 많이 잡혔는데 안강망 배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삼치도 구경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에서 아무리 치어를 방류해도 고기가 크기 전에 안강망 뽕뽕이 그물 아가리로 다 들어가서 소용없다고 했다.

안흥항구에서는 유일하게 모항의 김윤기가 꽃게잡이 선주로 명맥을 잇고 있다. 그는 유자망에서 닻자망 조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했다. 닻자망이란 닻을 한 곳에 놓고 굵은 밧줄에 그물을 매달아 꽃게를 잡는 방식이다. 한 번 투망한 그물은 칼로 잘라 폐기하는 게 특징인데 자본이 많은 선주만 조업할 수 있다.

주용팔 씨는 신진도의 전설적인 선주 ‘최부록’의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다. 신진도에는 경주 최 씨가 많이 살았는데 어업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어서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 그중에서 최부록은 서산군 시절에 현금이 가장 많다고 소문난 부자였다. 최부록은 6형제 중 둘째로 무학이었으나 배짱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안흥에서 최초로 저인망 어업과 수산물 유통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돈을 바지개로 쥘 날랐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는 한때 서해안에서 가장 큰 수산물 상인으로, 인천 수협 수산물 경매가가 그의 반입하는 물량에 따라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그는 사교성이 좋은 데다 돈을 물 쓰듯 해서, 일제강점기엔 일본 순사도 꿈쩍 못 하게 했다. 해방 후엔 경찰서장, 국회의원들이 신진도 그의 집을 드나들 정도였다.

특히 독립운동가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가 그를 만나러 나룻배를 타고 신진도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최부록은 중국 대련을 다니며 석유 밀무역을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그때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독립지사 이범석 장군이 찾아왔었다는 말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었다.

최부록은 해방 후에 독도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일본 어선을 불하받아 2척이 끄는 저인망 사업을 했다. 한때는 어선이 8척, 선원이 100명이 넘기도 했다. 최부록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홍어잡이를 나갔던 배 한 척이 풍랑으로 침몰하며 선원이 모두 죽고, 마도 앞바다 새부리섬 부근에서도 저인망 어선 한 척이 파손되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는 어업보다는 수산물 유통에 전념하며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최부록의 부인은 흥도 태생이었다. 1930년대 그가 수산물 장사를 하러 자주 흥도를 왕래하다 맺은 인연으로, 나중에는 처가 식구들을 안흥으로 이주시켰다. 최부록 자신은 무학이었으나 자녀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다고 한다. 주용팔 씨는 최부록의 외모는 전두환과 비슷하나 뚱뚱했고 성격은 괄괄했지만, 인정이 많은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안흥과 모항에서 나이 든 뱃사람들은 최부록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주용팔 씨는 유자망 꽃게잡이를 하다가 수익성이 없자 통발 조업으로 바꾸었다. 또 통발 꽃게잡이가 시원치 않자 ‘땅끝이’ 주낙을 했다. 조업을 크게 하다가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유는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는 주낙마저 포기하고 낚시 손님을 싣고 다니는 낚시 배를 했다. 그것마저 손님들을 태우고 고기가 잘 잡히는 먼바다로 가는 대형 낚시 배에 밀려나서 8년 전에 어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는 최부록의 이야기나 꽃게잡이로 안흥항구가 북적이던 시절이 다 전설이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태안의 어업에 관한 구술

박부국 씨는 황도리 70-2번지에서 부친 박창순의 4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그의 가게는 황도 개산골에 논 11마지기 정도를 소유했으나 농업보다 어업이 주 소득원이었다. 50여 가구가 살던 황도는 잡목이 많고 거칠어서 한자로 황도(荒島)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리밭으로 변하여 누렇게 익는 모습에 지명을 황도(黃道)로 바꿨다고 한다.

3대째 사는 박부국 씨의 집 앞엔 광활한 갯벌이 있는데 조부 때부터 그 갯고랑에 어살을 매어 고기를 잡았다. 그는 아홉 살 무렵부터 조부와 어살에 든 고기 잡으러 다니며 옛이야기를 들었다고 구술했다.

황도에서는 창리가 보이는 ‘기지풀’, ‘서각금’ 어살에서 갈치와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 여름철 사리 물때 4매~11매 사이에는 오징어가 어살 안에서 헤엄쳐 다녀서 바가지로 퍼담아 바지개로 지고 올 정도였다. 잡은 고기는 인근 지역에서 벼, 보리와 바꿨다. 그런 판매 방식을 ‘벼를 놓는다’고 표현했다.

초등학교를 마친 박부국 씨는 18세부터 황도의 선주 ‘윤용운’의 중선배 화장으로 시작하여 기관사로 35년간 배를 탔다. 당시 황도에는 안강망 조업을 하는 중선배가 11척이나 있었다. 경기도의 연평도, 전라도의 칠팔도, 알마도, 근해에서 조기와 갈치, 젓갈용 깡치(깡다리)를 잡았다.

안강망은 닻을 놓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가리(입구)가 벌어진 그물을 놓고 기다리는 조업이다. 예전의

태안군
태안지역의 해양문화

황도 중선배와 벵소리 문화



박부국 (1943년생)
태안군 안면읍 풍어제길



황도 어부들은 태안의 격렬비열도와 당진의 백사포 부근에서 홍어와 가오리 주낙을 했지만, 박부국 씨의 세대는 안강망 조업만 했다. 새우잡이도 많이 했는데 오젓과 육젓은 배에서 소금에 절여 군산, 장항, 광천에 팔았다. 보름 동안 바다에서 조업한 선원들이 황도로 돌아오면 항구에 남은 선주는 돈 계산과 다음 항해를 준비했다.

황도의 안강망 중선배는 대개 25t에 60마력 엔진을 댔는데 80년대 초 목선에서 철선으로 바뀌었다. 배 한 척에 8명이 승선했고 선원은 창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60년대는 1년에 선원 수입이 60~80만 원이었으나 80년대에는 700만 원 정도 되었다. 황도의 중선배는 1995년경 완전히 사라졌다. 그 당시 선주는 노순영, 노선동, 노남복, 강두귀, 홍길영, 박원순 등이 있었으며 박원순의 아들 박후배가 마지막 선주였다.

박부국 씨는 조기잡이 할 때 ‘배치기 노래’를 했으며 몇 소절 불러줬다. 이 노래는 조업을 끝내고 황도로 돌아올 때 불렀다. 원산도 앞을 지나 황도가 보이는 천수만 입구에 들어서면, 배임자가 배에 올린 술을 한 잔씩 먹고서 얼큰한 김에 ‘한양구목쟁이’에서부터 뱃전을 두드려가며 부르는 소리였다. 뱃노래 가락에 가사를 붙여 느리게 불렀는데, 노랫말 중간에 추임새 후렴으로 “에에-어어-”하며 불렀다.

- 칠산 연평에서 다 벌어먹고 에헤야 바다에서 도장만 했구나-. 에에-어어-.
- 한산 세모시 배 포장치고 황해도 이슬비에 장화만 늘었구나-. 에에-어어-.
- 술 잘 먹고 일 잘하기는 우리 배 일손이 도사공일러라-. 에에-어어-.
- 가자 가자 돈 벌러 가자 연평바다로 돈 벌러 가잔다-. 에에-어어-.

그는 그물을 당겨 그 안에 든 조기를 ‘쪽바디’로 퍼 올릴 때 줄을 당기며 부르는 ‘바디소리’라는 노래도 한 소절을 불렀다.

- 어야디야 어어야, 조기야, 조기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느냐, 어야디야 어어야.
- 어야디야 어어야, 갈치야, 갈치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느냐, 어야디야 어어야.

황도에는 젊은 아낙들이 청춘가 가락에 부르는 한스러운 노래도 있었다.

- 배가 보이는구나, 배가 보이는구나.
- 한양구목쟁이에 얼씨구나 임 보이는구나.

이 노랫말은 황도의 언덕에서 보리밭을 매는 아낙들이, 멀리 천수만 입구에 배들이 들어

오면 다른 선주네 배는 다 돌아와 남편을 만나는데, 자기 남편이 탄 배가 오지 않아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황도는 갯고랑이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풍랑에도 배가 정박하기 좋은 섬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작은 섬에 조기잡이 중선배가 많아 자연스럽게 당제를 성대하게 지냈다. 197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황도붕기풍어제’는 정월 보름에 지냈다. 당제를 지내는 풍속은 황도의 선주들한테 배의 크기에 따라 번호를 정해 당제 비용을 차등하여 추렴했다.

박부국 씨가 중선배를 타던 당시에는 11척의 선주들이 돈을 냈다. 집집마다 누룩 한 되, 쌀 한 되씩을 걸어 술을 빚고 떡을 했다. 황도 당제에는 반드시 큰 황소를 통째로 잡았는데 당제를 지낸 뒤엔 꼬치에 꿰어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었다. 일제강점기 밀도살을 금할 때도 황도 당제 때 잡는 소는 특별히 도살을 허가해 줄 정도였다.

당제를 올리는 시기가 되면 먼저 생기복덕, 사주를 보고 부정 없는 사람을 뽑아 당주와 화주를 정했다. 당주는 제를 올리는 사람이고 화주는 당집을 드나들며 당제를 거드는 사람이다. 당주는 당제 기간에 초상집은 물론, 합방도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도 딴 곳에서 거했다.

당제를 올리는 날은 마을 사람들과 선주와 선원들이 모두 나왔다. 붕기를 들고 무당들은 바라를 치고 태평소를 불며 풍장치면서, 당제를 지낸 뒤엔 각자 선주네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황도 배들은 단 한 척도 사고가 없었다. 창리의 중선배 3척과 간월도 중선배 1척은 연평도에서 태풍에 황해도로 밀려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온 사건도 있었다.

‘황도붕기풍어제’가 유명해진 건 황해도 태생의 만신 ‘김금화’의 공이 컸다. 황도의 풍어제는 임경업 장군의 신을 받아 모셨기에 황해도의 선곳으로 치렀다. 6·25 전쟁 후 황해도 바닷가에서 피난 온 가구가 10여 호 살았는데 배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런 연유와 선주들이 인천에 조기 팔러 갔다가 당시 강화도에 사는 김금화가 유명한 만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모셔오면서 황도 당제는 전성기를 맞았다. 그 후 피난민들은 인천으로 이주하고 몇 년 전 만신 김금화가 죽으면서 황도붕기풍어제는 조금 위축된 편이다.

박부국 씨는 자신이 사는 집 앞 갯벌의 크고 작은 돌섬 이름과 전설을 비롯하여 맨손어업

이야기를 들려줬다. 갯벌에는 썰물에 드러나는 상풀(상펄), 밀물에 잠겨 흔적이 사라지는 ‘흔여’, 황도와 간월도 중간에 있어 두 지역을 갈라놨지만 물 들어오면 잠기는 ‘개린여’, 갯벌 제일 아래에 있어 아련하게 보인다는 ‘아린여’를 설명했다.

돌섬마다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황도 바다가 안개에 갇혀 캄캄했는데 당집에서 서낭님이 불을 환히 밝혀주며 “이 불빛 보고 찾아와라” 했다는 것이다. 그 불빛을 보고 선원들이 바람이 없어 힘겹게 노를 저어 황도를 향해 올라오면, 서낭님이

“황도 중선배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갖고 돌아온다. 야, 쇠섬아 - 쇠 좀 올려라. 야, 풍섬아 -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풍물을 쳐라. 야, 옥섬아 -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어깨춤이라도 춰라.”

그래서 어깨춤을 으쓱으쓱 춰서 ‘옥섬’, ‘풍장’을 친다고 해서 ‘풍도섬’, 쇠 소리를 내라고 일러주는 섬이어서 ‘쇠섬’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부국 씨 집 앞 갯벌은 지금도 풍요롭다.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가무락은 조금 사리 없이 3~4시간 작업하면 40kg씩 잡는다고 했다. 가무락은 1kg에 6,000원씩 비싸게 팔린다. 낙지도 잘 잡히는데 낙지 가래가 아닌 호미로 잡던가 붙임낙지로 40~50마리씩 잡는다. 붙임낙지는 낙지 구멍에 손을 넣고 물을 잘랑잘랑거리며 흘리면 낙지발이 스프르 손등을 타고 올라올 때 대가리를 움켜잡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엔 남자들은 배를 타고 여자들만 낙지와 가무락, 바지락을 잡았다고 한다.

박부국 씨는 1990년 안강망 배에서 내린 뒤 FRP로 만든 0.75t짜리 배를 구입했다. 부인과 함께 대하, 꽃게, 소라, 쭈꾸미를 잡아 1년에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배를 팔고 선원 생활을 끝냈다. 현재 황도에는 작은 배 3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며, 옛날 황도는 작은 섬이었지만 태안에서 중선배와 선주들이 가장 많았고 돈도 흔했다고 구술했다.

구술자 목록

천안동남구

김남응 33
 김윤식 17
 김재삼 14
 김정집 28
 김좌응 37
 김태동 31
 김태현 24
 김평응 21

천안서북구

고석렬 62
 김지현 70
 맹광렬 54
 소중애 50
 신용신 46
 이영자 42
 채방윤 66
 채필병 58

공주시

박수봉 100
 설순화 104
 이정인 80
 임명옥 96
 조병남 76
 최영희 88
 최중순 84
 황갑숙 92

보령시

고득조 124
 김경옥 136, 148
 김용일 148
 김호준 119
 신정섭 144
 오무섭 140
 유금수 115
 유영오 148
 유정실 148
 이응두 132
 이풍호 153
 조현국 110
 최동규 148
 한상용 128

아산시

강미자 180
 박정련 177
 안연홍 180
 이득선 158
 이상조 161
 이상헌 170
 주영진 173
 채수성 164
 최덕영 167

서산시

김태옥 191

김휘일 186
 박영진 199
 박현신 215
 서정춘 211
 서해권 195
 신철광 203
 이광일 207
 이광현 195
 이성구 186

논산시

강석준 234
 권선옥 239
 김영대 220
 김희수 248
 남우직 225
 박일수 230
 양성순 243
 오재욱 253

계룡시

김종애 260
 모영분 278
 박숙희 266
 박영순 272
 박진국 278
 백종원 285
 신옥자 285
 안중건 291

이 경 연 296
황 일 흥 302

당진시

김 응 택 308
서 중 석 340
우 동 기 335
이 은 주 313
최 경 용 327
최 대 성 316
최 명 수 331
홍 성 직 320

금산군

길 귀 례 346
김 두 석 350
박 병 종 354
오 세 영 359
이 용 주 364
이 유 만 368
전 병 식 373
전 병 열 378

부여군

구 능 수 384
김 기 복 389
김 진 선 395
송 광 섭 401
송 명 자 408

오 순 동 415
이 서 규 419
조 중 성 424
황 의 찬 430

서천군

강 순 병 438
김 구 환 443
김 남 규 447
김 역 수 451
김 형 민 455
박 동 규 459
송 송 애 463
유 태 종 472
이 순 자 455
이 우 봉 468
정 인 석 472
조 순 화 443

청양군

김 기 태 478
문 명 근 482
복 찬 규 486
소 사 영 489
안 효 문 493
윤 흥 수 498
임 동 일 502
한 삼 덕 506

홍성군

김 기 정 512, 517
김 만 중 544
김 주 호 529, 535
김 철 섭 561
이 강 직 555, 559
이 동 의 549, 552
이 상 구 538, 542
이 선 균 564
이 영 집 520, 526

예산군

김 문 회 572
박 정 서 598
성 부 제 586, 590
우 제 풍 579
이 수 595
이 주 원 576
이 지 호 583

태안군

김 성 진 626
박 부 국 635
서 남 수 617
손 봉 진 613
송 응 남 609
이 천 의 604
주 용 팔 631
최 근 웅 622

2021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인 | 유환동

기획 | 조남민

편찬위원 | 김윤식, 이종석, 이일주, 황의호, 정종호,
편세환, 권선옥, 유장식, 장 호, 정찬국,
이관우, 임호빈, 김종옥, 정낙추

감수 | 한동현, 홍제연

행정지원 | 김상희, 조민영

발행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3호

전화 | 041-635-9102~3

편집인쇄 | 주식회사 디앤피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11-1

전화 | 041-631-3391

I S B N 979-11-89097-09-7

|비매품|

2021©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3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은 선조들의 열이 담긴 잊혀져 가는 지역별 향토 사료를 구술채록을 통해 발굴해 기록과 영상으로 남겨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발간사 중

비매품/무료



9 4791189097097
ISBN 979-11-89097-09-7